나의 생활

—헬렌·켈러自叙傳—

헬렌·켈러著　許 鉉譯

首都文化社

絶望的인 肉體的 缺陷을 克服한 世紀의 女性 헬렌·켈러!
暗黑·沈默·孤獨으로부터 光明한 世界에 나온 그는 어떻게 배우고
살아왔는가?
앞못보고、 말못하고、 듣지못하는 不幸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希望」과 「感銘」을 줄 수 있는 人生의 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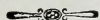
나의생활

—헬렌·켈러自叙傳—

헬렌·켈러 著
許 鉉 譯

首都文化社

HELEN KELLER

THE STORY OF MY LIFE

WITH HER LETTERS (*1887–1901*)
AND A SUPPLEMENTARY ACCOUNT OF
HER EDUCATION, INCLUDING PASSAGES FROM
THE REPORTS AND LETTERS OF HER TEACHER,
ANNE MANSFIELD SULLIVAN
BY JOHN ALBERT MACY

ILLUSTRATED

INTRODUCTION BY RALPH BARTON PERRY

DOUBLEDAY & COMPANY, INC.
Garden City, New York, 1954

헬렌 · 켈러 여사와 안 · 설리반 선생

이 책을 말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되고、대서양으로부터
"럭키" 산맥에 이르는 방방곡곡에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지도하여 주신 "아렉산더・구라암・벨" 박사에게 삼가 바친다.

편자의 말

이 책은 三부로 나뉘어 있다。 처음의 二부는 〃헬렌·켈러〃여사 자신의 손으로 된 유일한 생활 기록인 자서전과 서한문의 대부분이다。 그가 쓴 고난의 기록을 좀 더 이해하기에 필요한 〃켈러〃 여사의 교육을 담당했던 〃설리반〃선생의 기록과 서한의 발췌(拔萃)에 의해서 설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켈러〃여사의 성격이나 업적을 덧붙임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여사와 그의 선생의 인내(忍耐)와 성공(成功)의 길을 얼마든지 더 명확하게 하는데 독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제三부는 내가 기술한 것이지만 〃설리반〃선생이 제공해 준 기록과 그의 원조로 이루어 진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또 동시에 「더·레디스·홈 쟈아날」(The Ladies' Home Journal)과 그 편집자 〃에드워드·복〃씨 〃윌리암·V·아렉산더〃씨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다。

이 두분은 「쟈아날」지(誌)를 위하여 촬영된 사진의 전부를 제공해 주었고, 거기에다 친절한 지도까지 하여 주었다。 그리고 많은 서한과 자료를 제공해 준 〃켈러〃여사의 많은 우인들, 특히 〃로렌스·헛튼〃부인, 농자(聾者)에 관한 여러가지의 조언(助言)을 하여주신 농자교육국장 〃쫀·힛쯔〃씨, 또 〃설리반〃선생의 누구보다도 웅변적(雄辯的)으로 〃켈러〃여사의 교육을 설명해 주는 편지를 다량으로 참고에 제공해 주신 〃소피아·C·홉킨스〃부인 등을 비롯하여 음양으로 원

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우인 제씨에게 깊히 감사한다。

또 〃호우튼·미후린〃 출판사의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덕택으로 「오우버·더·티컵」(Over the Teacups)에 게재(揭載)되었고, 〃켈러〃 여사의 〃홈즈〃 박사에의 편지, 〃휫터〃 씨의 〃켈러〃 여사에게 보낸 편지의 인용(引用)을 허락해 주었고, 〃휫터〃 씨의 비서 〃S·T·픽카ー드〃 씨는 많은 〃켈러〃 여사로부터 〃휫터〃 씨 앞으로 온 편지들을 제공해 준 것이다。

一九〇三년 二월 一일

마사츄셋스·켐브리지에서

존·엘벋·메이시

차 례

序 文

편자의 말……………………존・앨번・베이시……(七)

소개의 말……………………랄프・바ー톤・페리……(一五)

역자의 말…………………………………………(三)

本 文

第一部 나의 생애(生涯)……………헬렌・켈러……(二七)

제 1 장 나의 출생지 "터스컴비아"……………………(二九)

제 2 장 어린동생, "밀드레드"……(三七)
제 3 장 "알렉산더·G·벨" 박사와 여섯살 때의 나……(四六)
제 4 장 "설리반" 양의 출현……(五〇)
제 5 장 마음의 눈을 뜨다……(五七)
제 6 장 말을 아는 열쇠……(六一)
제 7 장 실생활에 부합되는 교육……(六六)
제 8 장 선생님의 선물은 귀여운 가수(歌手)……(七四)
제 9 장 "보스톤" 여행……(七七)
제 10 장 여름방학에 일어났던 일……(八一)
제 11 장 산장(山莊)의 추억……(八四)
제 12 장 "보스톤"의 겨울……(八九)
제 13 장 처음 말을 할 때의 감격……(九二)
제 14 장 一八九二년의 "서리왕" 사건……(九七)
제 15 장 만국 박람회 견학……(一〇七)

제 16 장 "라틴"어를 배움……(一一四)
제 17 장 독일어·불어를 배움……(一一六)
제 18 장 "켐브리지"여학교 입학과 대학입학 예비시험……(一一九)
제 19 장 "래드클리프"대학 후기 시험……(一二六)
제 20 장 "래드클리프"대학 입학……(一三二)
제 21 장 나의 교육 법의 중점……(一四一)
제 22 장 자연으로부터 받은 즐거운 인상……(一五五)
제 33 장 나의 성장기……(一七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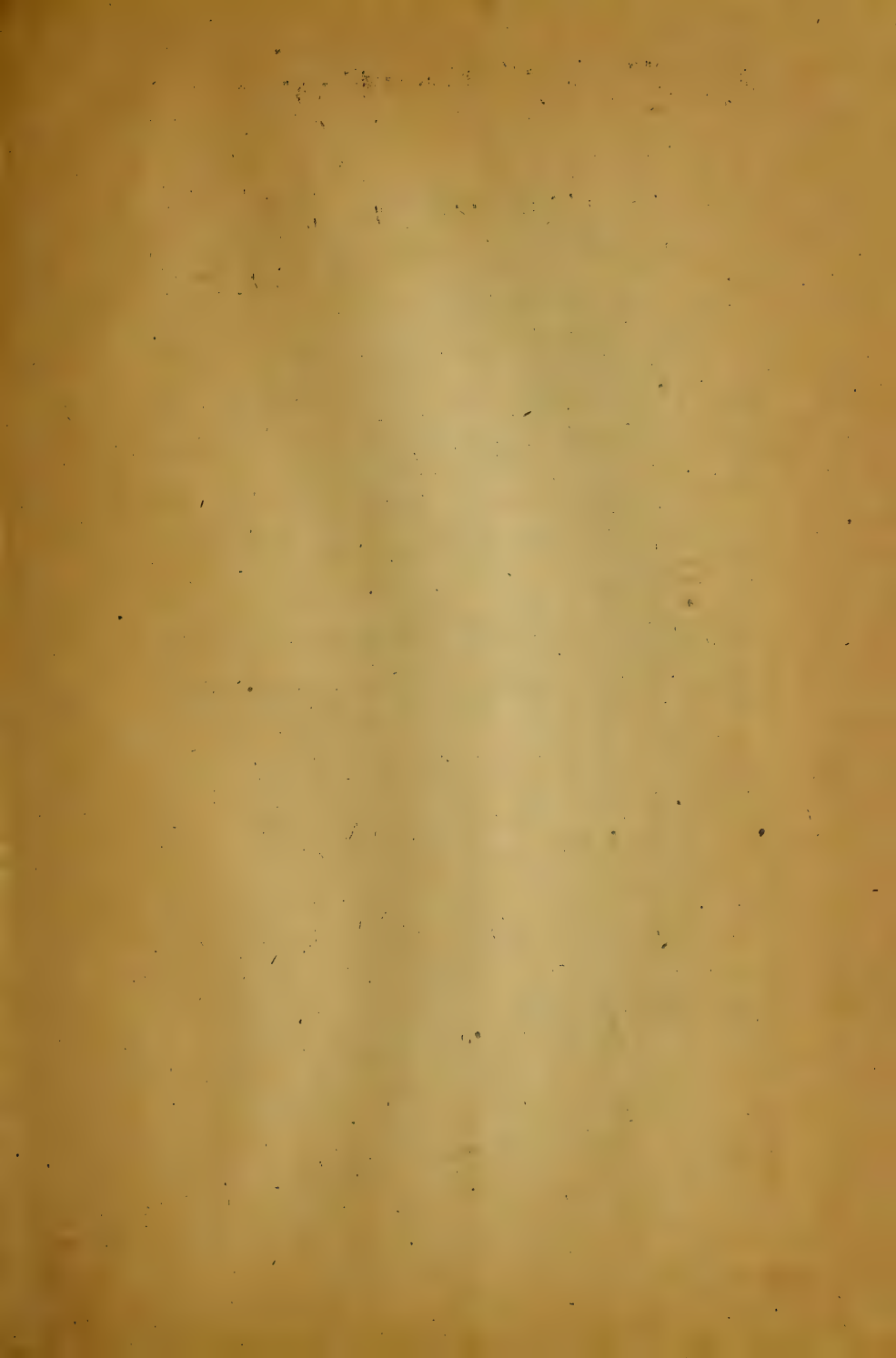
第二部 서한집(書翰集)……(一八五)

소개의 말……(一八七)
서 한(書翰)……(一九三)

第三部 교 육(敎育)……(三五九)

이 책의 저술(著述)……(三六一)
성 격(性格)……(三六五)
교 육(敎育)……(三八三)
연설집(演說集)……(五一三)
문 체(文體)……(五三七)
헬렌 켈러 年譜……(五九三)

·사 진 목 차·

헬렌·켈러 여사와 안·설리반 선생 3
브레일 식 맹인용 점자(點字) 25
켈러 여사의 생가(生家) 31
일곱살 때의 켈러 여사 51
켈러 여사와 아렉산더·그라암·벨 박사 109
켈러 여사와 설리반 선생, 죠셉프·제퍼슨 씨 165
켈러 여사와 설리반 여사, 에드워드·E·해일 박사 175
마—크·트웨인 씨 179
필립스·부룩스 씨에 보낸 켈러 여사의 편지 191
켈러 여사와 그의 동생 밀드레드 335

소개의 말

〃헬렌·켈러〃는 一九〇四년 우수한 성적으로 〃래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 책은 동 여사가 그 대학 제二학년 때에 쓴 것으로서 같은 해에 출판한 것이니、 여사의 영어교수 〃촬스·타운센드·코우프랜드〃씨와 문예평론가 〃죤·엘번·메이시〃씨의 원조와 성원(聲援)을 받은 것이였다。 이 책은 여사의 초기생활의 기록과 여사의 서한문(書翰文)중에서 선택한 것、 그의 교육의 기록、 그의 경애하는「선생님」〃앤·설리반〃여사가 기록한 문서로부터 주로 뽑은 여사 자신의 어렸을 때의 성장과정을 기록한 것을 포함한 것인데、 〃켈러〃여사는 그의 선생 〃설리반〃여사의 지도와 반려(伴侶)의 덕택으로 암흑、 침묵、 고립으로부터 이 큰 세계에 나오게 된 것이였다。

과거 五〇년간 〃켈러〃여사는 분주하고 유익한 생활을 하여 왔다。 여사가 자기와 같이 앞을 못보고 듣지 못하게 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 몸을 바쳐온 것은 오로지 당연한 일이었다。 이 과업을 여사는 강연 논문과 一九二九년에 출판된「中流」(Midstream)、「나의 후반생기」나、「〃헬렌·켈러〃일기」(Helen Keller's Journal, 1938)나、 또한 그의 저서를 통하여 수행하여 온 것이다。 동시에 여사는 여러가지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예를 들면 〃아메리카〃맹인재단 같은 것이다。 또한 불구자를 보살펴 주고、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여 온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여사는 〃유럽〃、 근동(近東)、 원동(遠東)、 중남〃아메리카〃、 〃카나다〃、 또한 미국의 각처를 다니였다。 이

더한 사명을 위하여 여사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계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욱 중대한 것은 자기를 모범으로 하라는 격려(激勵)를 주어온 것이다。

一八八七년 〃설리반〃 여사가 〃헬렌〃에게 왔을 때는 〃헬렌〃은 아직 일곱살이 못되는 소녀이었다。 그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수 밖에 없는 몸이였다。 이러한 상태로부터 탐구하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상태로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은 짧은 시기에 중첩되어 이루워졌던 것이다。 이러한 발달에 대한 과정을 읽는 사람은 마치 씩씩하게 발육하는 식물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스승의 천품도 제자의 그것에 지지않았다。 〃앤·설리반〃은 〃보스톤〃에 있는 〃퍼킨스〃 맹아학교 출신이며, 이 학교는 〃사뮤엘·그리들리·하우〃 박사가 〃라우라·부리즈만〃 교육에 의하여 맹자(盲者) 교육의 선구적(先驅的) 사업을 한 유명한 곳이다。 〃설리반〃은 빈곤한 〃애란〃 이민의 딸로 태어나 나이 열살이 되였을 때, 그 악평(惡評)이 천하에 자자하였던 〃마사츄셋스〃주 〃튜스베리〃에 있는 구빈원(救貧園)에 들어가게 되어 어린시절을 치가 떨리는 멸시와 학대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혹 그가 그러한 경우를 감당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의 심신(心身)의 완강함을 말하는것 뿐이요, 백절불굴하는 그의 의지는 그 곳에서 더욱 굳건해졌던 것이다。 그는 곱기야 눈병으로 말미암아 시력(視力)의 반을 빼앗기고 일평생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는 자기자신의 경험과 그 당시 〃퍼킨스〃 학교에서 유행되던 방법을 이용하여 그의 제자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잘 적응시켰던 것이다。

첫째로 가르친 것은 복종이었다。 〃헬렌〃의 방랑적이고 고집센 충동(衝動)(〃헬렌〃은 당시 「망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을 철저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손바닥에 수화문자(手話文字)를 써주며 물건도 만지게 하고、 혹은 몸짓、 손짓、 무언극(無言劇)을 통하여 사물을 알게 하고、 기억하도록 가르쳤다。 동시에 〃헬렌〃도 손가락으로 글자를 만들게 하고 다음에는 글자를 쓰게 하였다。(〃헬렌〃은 삼년후에 말을 배웠고、 그때에도 겨우 불완전하게 말하였다。) 그다음 〃설리반〃이 와서 한달 밖에 되지 않은 어떤날、 이날은 기념되어야할 날이니 그 제자에게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었다。 〃헬렌〃은 사물의 이름을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설리반〃 여사는 〃헬렌〃이 아는 사물의 수보다도 더 많은 말(單語)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은 이름을 가졌다는 것」에 지지않게 중대한 생각、 즉 「모든 이름은 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아직 그 사물을 구별할 정도는 못되었다。 이리하여 〃헬렌〃의 모험적 호기심은 두개의 문제를 일으키었다。 즉 이것은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 말(單語)은 무엇의 이름인가이었다。 이 것은 선생과 제자에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정력、 석탄광부의 인내력、 금주수의자의 결심、 또한 시인의 섬세한 마음」을 요구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헬렌〃은 생후 십구개월이 되어 눈을 못보게 되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여러 경험에 대하여 어떠한 희미한 기억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린 때의 병으로 말미암아 시각자극(視覺刺戟)이 없어졌으므로 그는 빛(光)과 색갈(色)의 감각을 잊어버리게된 것은 확실하

다。 소리(音)에 관하여는 그는 귀를 통하여 청각자극(聽覺刺戟)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음정(音程)을 구별할수 없었으나、음파(音波)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몸에 도달하는 까닭에 진동적(振動的)인 것과 율동적(律動的)인 감각을 일으키었다。

〃켈러〃양의 많지 않은 불평 중에서도 그를 괴롭힌 것중에는 문밖을 자유로 다닐 수가 없고 누구든가 손을 끌어 줄 사람을 앉아 기다릴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정상적인 관능(官能)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사회적 환경에 대하는 적응은 대체로 시각과 청각으로 구성되는 「거리를 아는 감각기관」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켈러〃양은 그러한 시청각 「교통신호」(交通信號)가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여자의 유일한 안테나는 손의 감각에 도달치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후각(嗅覺)과 진동인데 그것은 둘 다 비교적 확실하지 않으며、또한 범위가 좁은 것이다。 이것이 중대한 곤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정상적 생활에서 감각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감각적 신호들이 아니고 그들이 표시하는 사물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물들은 시청각 재료로 제공되거나 〃헬렌〃의 경우와 같이 운동신경적、촉감적、진동적、또는 후각적 재료로 공급이 되거나 그 결과는 동일한 것이다。 〃윌리암·제임스〃가 〃헬렌〃에게 전한 편지에서 말한 바와 같이、『우리들의 마음가운데에 있는 큰 세계 즉、그 배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념의 세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감각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심미적 의식의 일부분만을 구성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아니라 할지

라도 시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가르쳐준 것이 있다。 시인 〃워즈워드〃는 그 시중의 〃피—터・벨〃을 이와 같이 말하였다。『시냇가에 있는 〃프림로오스〃(櫻草)는 그에게는 노란 〃프림로오스〃이었으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부드러운 창공은 도무지 그를 감동시키지 아니하였다』

〃헬렌・켈러〃는 그러한 〃피—터・벨〃은 아니었다。 감수성이 많은 의식때문에 또한 그의 환경을 활동적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프림로오스〃나 하늘은 〃헬렌〃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것들은 모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었다。

〃켈러〃양이라하면、 곧 부자유한 불구자(不具者)를 표준으로 하여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그의 경험을 축소시켜 보자! 그렇게 해도 그의 마음에는 자연、 역사、 사회 등이 남아 있다。 모든 종류의 물건이 남는 것이며、 그 물건들은 이름、 속성묘사(屬性描寫)、 그것들이 일으키는 적당한 행동과 감정도 잘 알리어져 있는 것이다。 완전한 물체는 그의 여러가지 감각을 통하여 알고 있다。 즉 물은 차게 흐르는고로、 꽃은 향기로운고로 알려지고 있다。 그 여자의 촉감、 후두감(喉頭感)、 진동감、 근육감、 후각 등은 무한히 예민하다。 그는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의 손 끝을 얼굴에 댐으로써 말하는 상대자의 표정을 아는 것이요、 우리들이 이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당연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시각과 청각을 잃었을망정 그 마음은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고 비교하고 기억하고 예상하고 연상하고 상상하고 사변하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세계는 우리들의 세계나 마찬가지의 세계요、 따라서 그 여자를 같은 담화의 세계

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여자의 주위에 있는 생활에 충분히 참례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천성적으로 비상한 활동력과, 참으로 흥미를 갖고, 작난하고, 쾌활한 성질을 타고 났으며, 자기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하여 보려는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는 일생활에 접촉하며, 또한 그것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헬렌·켈러〃가 불구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실 불구자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다 하여 또 〃켈러〃를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은 그가 불구자라는 점이 아니라, 그 불구성을 정복한 사실이며 또한 그 불구성 때문에 오히려 유익을 본 것이다. 그 여자는 동정과 이해를 요청한다. 그러나 불상히 여기는 것을 요청하지는 아니한다. 누구든지 그를 알게 되거나, 또는 그의 저서를 읽게 되면 존경과 축복을 아니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당초에 너무 친절한 것 때문에 실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설리반〃 여사는 그가 버릇없는 여자가 되는 것을 막았으며, 또한 더 커져서는 그 여자의 강력한 이지성과 용감한 현실주의로 스스로 그의 난관을 극복했었다. 인생은 그에게 대하여서 조금도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회피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여러번 암흑과 실망을 가졌었다. 그는 인간 일반의 고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예민하다. 더욱이 곤난한 시대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 결과는 그여자 자신의 말로 가장 잘 요약을 할 수 가 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나의 생각없는 낭만주의는 점차 이 세계에는 추한 사실이 많음을 알게 되었으나, 좀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또한 실패할망정 계속하여 일하겠다는 굳은 신렴으로 변하여졌다.』

〃헬렌·켈러〃와의 나의 접촉은 많지는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나에게는) 인상이 깊었다。 〃헬렌〃이 〃래드클리프〃 대학의 최종 학년에 있을 때이고 내가 〃하바드〃 대학 조수로 둘째해가 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서 철학사 개요를 공부하였다。 내가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은 그의 얼굴의 표정이었다。 즉 나의 요점(要點)이나 농담이 〃설리반〃 선생의 손을 통하여 〃헬렌〃의 「마음」에 도달하였을 때의 그의 미소와 이해의 표정이였다。 물론 그 반응은 늦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는 더 명백하였다。 반학생들의 반응이 다 지나간 다음 좀 시간이 지나가야 그 반응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작년 十一월 〃켐부리지〃 에서 그의 친구 〃마틸드〃와 〃로버—트·페이퍼〃 집에서 만났을 때는 두시간 동안이나 흉금을 터놓은 유쾌하고 동정적인 담화를 하였다。 또다시 나는 그의 날카로운 반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담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의 「마음의 귀」와 그의 마음의 눈에 도달한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사실은 외부적 시청각이 성한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담화에서 보다도 더 강한것이 있을 것이다。

랄프·바—톤·페린

역자의 말

다른 이유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번역을 맡게 되었을 때, 아무 주저없이 수락한 것은 젊은 교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은 뒤의 인상 때문이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마는, 내가 읽은 책으로는 제일 큰 교육적 가치가 있었다。 인생과 또 나의 가르치는 어린이에게 대하여 지금까지 취하여온 나의 태도를 몹시 부끄럽게 하였으며, 비록 성공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은 이렇게 해 보고, 또 어떠한 것은 달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후 나는 기억날 때마다 이것을 우리 독서계에 소개하면 하여 왔다。 〃마—크・트웨인〃이 말한 바와 같이, 〃헬렌・켈러〃는 十九세기의 거적이다。 물론 기적자체도 경이의 대상이며, 따라서 우리의 정신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켈러〃의 기적은 인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도 하고 분발하게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주신 우리들의 보배를 바로 쓰려는 열의만 있다면, 하늘의 법칙 가운데서 인간이 못할 것은 없다는 숭고하고도 무서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역자로서 이 이상 〃켈러〃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성결한 것을 속되게 할 뿐이다。

교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은 그의 「선생님」 〃설리반〃양의 정신에서였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한 목석같은 생명에 그와 같은 헌신을 하게 하였을까? 불상한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러므로 심오한 신앙보다 "켈러"로 하여금 사랑의 종교를 밉게 한 것은 너무도 자적연이고 인간적인 까닭에 오히려 종교적인 것같다。 이것도 이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나、글자만을 운운하고 기억만을 중시하는 교원들이 그의 교육법을 한번 읽으면 재삼 생각할 재료가 풍부하리라고 믿는다。

"헬렌・켈러"는 "헬렌・켈러"나 "설리반"의 개인적 산물이 아니라 十九세기의 기술의 산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과치 못할 것은 "켈러"는 미국과 그사람들이 협력하여 만든 인류적 산품이다。 우리의 사회의 현재를 보고 그들의 동정、협력、사랑을 볼 때에는 우리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아니 느낄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눈없고 말없는 사람을 불상히 여기는 것은 고사하고、조롱하고、심지어 천대하는 것을 나는 너무도 많이 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불상히 여길뿐 아니라、심지어 깊은 증오심까지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조용히 보게하며、이해 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단시일에 번역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나의 부족한 어휘로 하여금 이 번역을 늦게 하였다。 동시에 나의 이해의 부족、그보다도 나의 하ー트의 좁은 것이 "켈러"의 세상을 못들여다보게 한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위대한 책의 번역은 고상하고、순결하고、열정적인 우리 인간의 손을 만나지 않고는 해석이 아니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이 거룩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 것을 잘안다。

나의 번역은 인생을 모르고 또한 인생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뜻으로 될수 있는 한 용

이한 말로써 해석하려 하였다。

一九五六年 正月

서울서 許鉉

I l e f t the w e-l l -h ou s e

e a g er to l(ea)r n . Ever y th ing

h a d a n a m e , and e a 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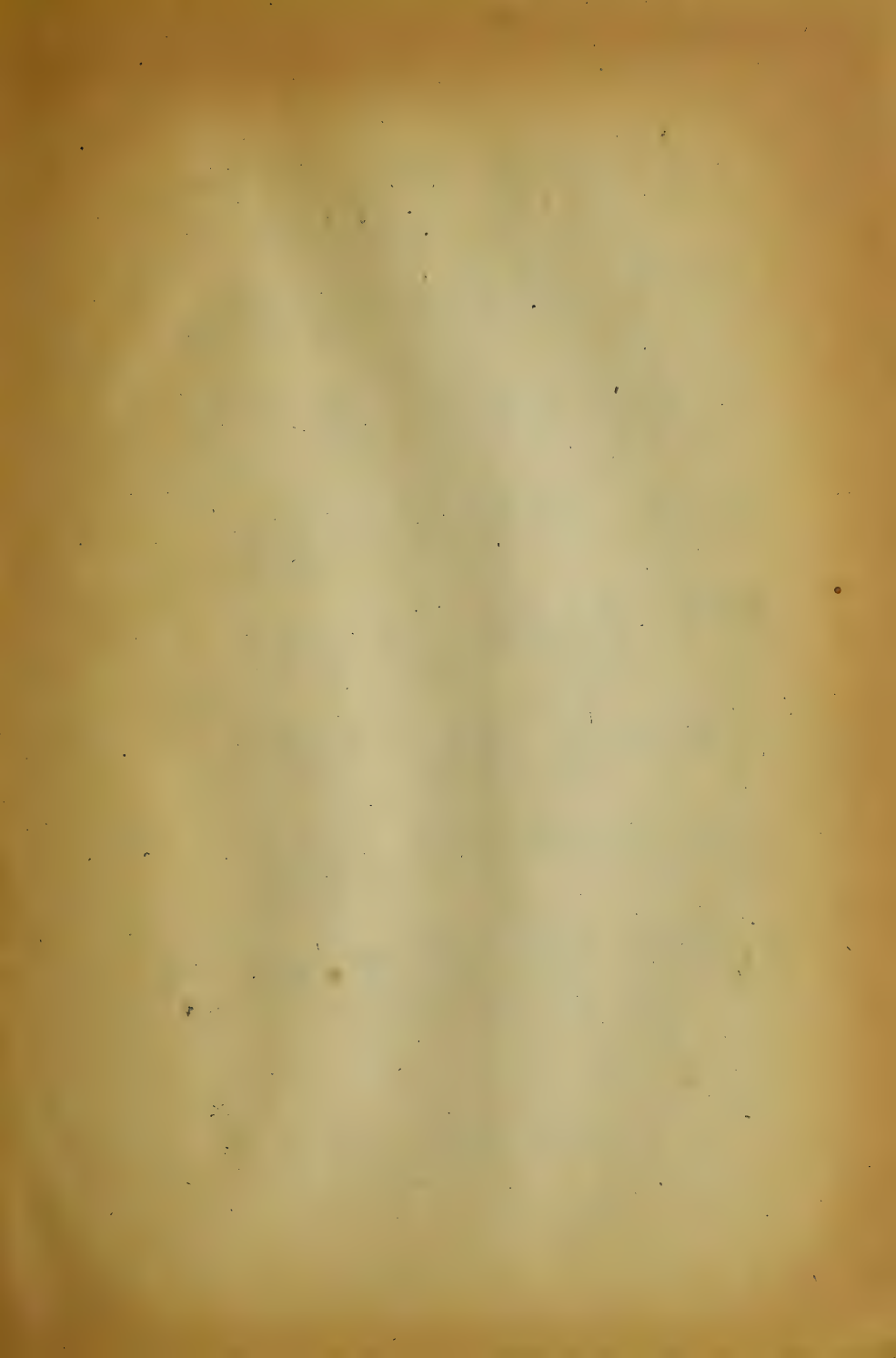
n a m e g a v e b i r th to a

n e w th ou gh t . A s w e

r e t u r n ed to the h ou s e ,

ever y o b j e c t I t ou ch ed

s e e m ed to q u i v er with l i f e .

브레일 식 맹인용 점자(點字)

第一部 나의 생애(生涯)

제1장 나의 출생지 〃터스컴비아〃

나는 나의 생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황금색 안개와 같이 나의 유년기의 생활을 둘러싸고 걸려 있는 막(幕)을 열기에、말하자면 어떠한 미신적 주저를 하는 것이다。자서전을 쓴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나의 어렸을 때의 인상을 분리하려 할 때 나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세월 중에서 일어난 것들에 대하여 사실과 감상이 합쳐져 같이 보이는 것 같다。여자라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경험을 그의 환상 속에서 그리는 것이다。나의 초기의 생활에 대한 몇가지는 인상만이 눈앞에 훤하게 떠오르는 것이다。그러나 그 나머지의 시일에는 암흑의 그늘이 덮일 뿐이다。뿐만 아니라、나의 유년기의 기쁨과 슬픔의 대부분은 이미 그 감격성을 잊어버리었으며、또한 나의 초기의 교육가운데에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의 사건은 위대한 발견으로 말미암아 흥분하는 중에서 잊어버려진 것이다。그러므로 독자에게 무미건조하여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계속되는 윤곽을 그리는 글에서 가장 재미있고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만을 적어볼가 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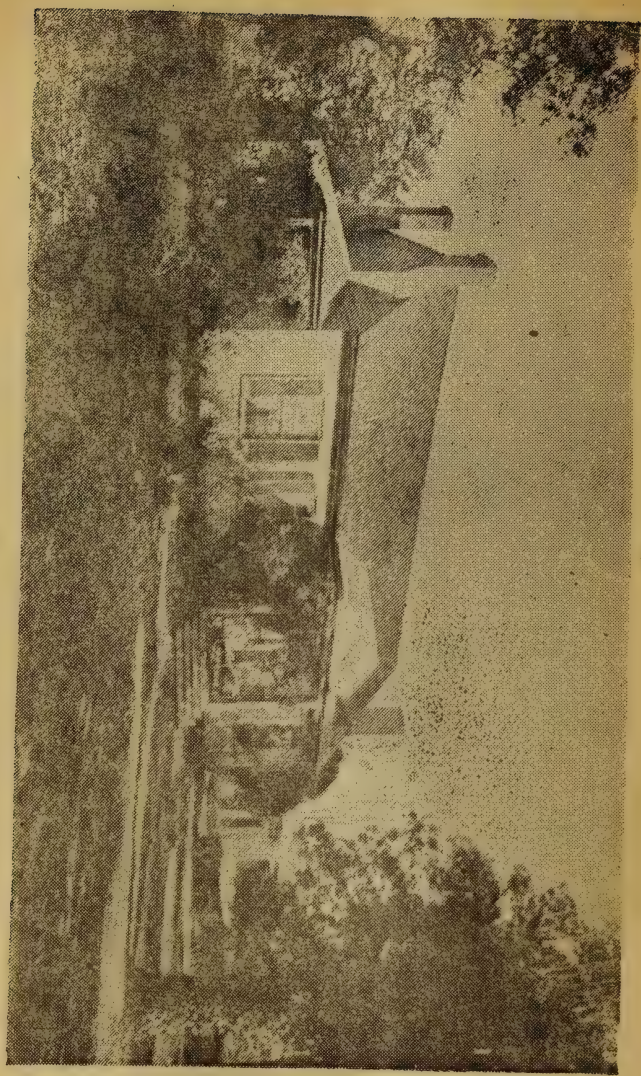
나는 북 〃알라바마·터스컴비아〃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一八八〇년 六월 二十七일 출생하였다。

아버지 쪽으로 말하자면 나는 〃카스파·켈러〃의 후예인데、그는 〃스위스〃출생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메리란드〃에 정주하였다。 나의 〃스위스〃 조상가운데 한분은 〃추리히〃에 있는 귀머거리 학교의 제일 첫번의 교사이였으며、 귀머거리들의 교육에 대한 책을 썼었다。 그것을 생각하여 보면 이상히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조상 가운데 노예 없는 임금이 없는 것이며、 또한 그 조상 가운데 임금 없는 노예도 없는 것이지마는!

〃카스파・켈러〃의 아드님 즉 나의 할아버지는 〃알라바마〃에서 상당히 많은 토지를 얻게 되어 결국 그곳에 정주하게 되였다。 할아버지는 일년에 한번씩 말을 타고 〃터스컴비아〃로부터 〃필라델피아〃에 가셔서 농장에서 소용되는 것을 샀다 하며、 나의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가족에게 보내신 편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편지들은 할아버지의 여행을 재미나게 보는 듯이 적은 것이였다。

나의 할머니는 〃라파옛트〃의 보좌관의 한사람이였던 〃알렉산더・무어〃의 따님이였으며、 〃버지니아〃 초기 식민시대의 지사이였던 〃알렉산더・스포쓰우드〃의 손녀이였다。 할머니는 또한 〃로벗트・E・리〃의 재종(再從)이였다。

나의 아버지는 〃아더・H・켈러〃로서 남북전쟁 연방군의 대위였으며、 어머니는 〃케이트・아담스〃인데 아버지의 재취로 아버지보다는 매우 젊었다。 어머니의 할아버지 〃벤자민・아담스〃는 〃수산나・E・구드휴〃라는 부인과 결혼하여 여러해 동안 〃마사츄셋스〃주 〃뉴베리〃라는 곳에서 사시였다。 그들의 아드님 〃촬스・아담스〃는 〃마사츄셋스〃주 〃뉴베리・포드〃에서 출생하여 후에 〃아칸사〃주 〃헬레나〃라는 곳으로 이주하였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남방군에 가담하여 준장까지 올라갔다。 그분은

켈러 여사의 생가(生家)

〃루시·헬렌·에버리트〃와 결혼하였는데、그 부인은 〃에드워드·에버리트〃와 〃에드워드·에버리트〃 박사와 일족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그 가족은 〃테네시〃주 〃멤피스〃로 이주하였다。

내가 병이 나서 앞을 못보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될 때까지 큰 사각형의 방과 하인이 거처하는 조그마한 방으로 된 조그마한 집에서 살았다。 남쪽에서는 주택근처에 작은 부속집을 지어 놓고 필요한 때면 쓰는 것이 한 관습이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여 그러한 집을 지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았다。 이 작은 집은 포도넝쿨 위로 올라가는 장미、인동(忍冬) 등으로 완전히 덮혀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보면 숲속에 있는 집 같이 보이였다。 조그마한 대문의 〃포—취〃는 장미와 우미래(牛尾萊)의 막(幕)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새와 벌들이 늘 찾아왔었다。

가족들이 산 〃켈러〃주택은 이 조그마한 장미로 덮인 정자집으로부터 二、三보 떨어져 있었다。 이 집은 〃푸른 등〃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가옥과 주위에 있는 나무와 담에는 아름다운 영국 등나무가 가득히 덮여 있었던 까닭이다。 이집에 붙어 있던 고풍(古風)의 정원은 나의 유년시대의 낙원이었다。

나의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도 나는 사각형의 단단한 황양(黃楊)나무로된 산 나무 울타리를 더듬어 가며 후각(嗅覺)을 의지하여 첫번 잡히는 오랑캐꽃과 백합꽃에 다달았다。 또한 짜증을 낸 다음에는 그곳에 가서 위안을 찾았으며、서늘한 나무 잎사귀에、또 풀에 나의 뜨겁게 다는 얼굴을 감추었던 것이다。 그 꽃밭 정원에서 내 자신을 망각(忘却)하며 여기저기를 거닐다가、갑자기 넝쿨에 도착하여 잎사귀와 꽃송이를 만져 그것이 넝쿨인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넝쿨이 정원 저 끝에 있는 쓰러지는 여름집을

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 때에 나의 기쁨이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었다。 여기에도 철철 끌리는 〃크레마티스〃꽃、〃제스민〃꽃 또는 흔치 아니한 나비백합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그것은 향기가 매우 좋고 나비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어 있었다。그러나 그중에서도 제일 고귀한 꽃은 장미꽃이었는데、북방 온실에 있는 장미꽃으로는 남방 나의 집에 있던 마음을 만족시키는 뻗어 올라가는 꽃은 없는 것이다。그 백합꽃들은 우리 대문 〃포ー취〃에 장식하여 놓은 것에 매달려 있었는데、지상(地上)의 어떠한 냄새에도 물들지 않고 온 공기를 향기롭게 하였다。더욱 이른 아침이면 이슬에 씻기기 때문에 참으로 부드럽고 순결하여 그 꽃들이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수선화와 같지 않은가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내 생명의 초기라 하는 것은 다른 어린이들의 생명이나 별다름 없이 단순하였던 것이다。어느 가정의 얘기나 마찬가지로 ─ 나는 왔다、보았다、그리고 나는 정복하였다 ─ (역자 ─ 이것은 〃로마·씨ー자〃의 유명한 말이다)。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별론이 있었다。아버지는 〃밀드레드 캠벨〃의 이름을 제시하였다。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존경하는 조상의 한사람이었다。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참례를 아니하였다。어머니가 나의 이름을 외조모의 처녀 때 이름 〃헬렌·에버리트〃라고 하고 싶다고 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그러나 나를 교회로 안고 가는 도중에 흥분하여 아버지는 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를 잊어버리었다。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왜냐하면 아버지는 내 이름 짓는데 관여치 않겠다고 하였던 판이다。목사가 내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였

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나의 할머니의 이름을 따르기로한 줄로 기억하고 내 이름을 〃헬렌·아담스〃라고 말하였다。

내가 아직도 긴 옷을 입고 있던 어릴 때에도 나는 노하는 성질과 고집을 하는 성질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나는 꼭 그것을 모방하겠다고 고집하였다。내가 생후 여섯 달이 되어서 나는「안녕」이라는 말을할 수가 있었으며、또한 어떠한 날은「차(茶)、차、차」라는 말을 분명하게 발음하여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내가 병에 걸린 뒤에도 이 어렸을 때에 배운 말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다。그것은「물」이라는 말이었는데、발음(發音)이란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후까지도 알아들을만큼「무、무」라고 하였었다。이러한 발음(發音)마저 못하게된 것은 겨우 이말을 글로써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였다。

나는 한 살 때에 걸었다 한다。어느 날 어머니는 나를 목욕통에서 꺼내가지고 무릎에 놓고 있었는데 벼란간 해가 팍 들이찬 마루 위에 잎사귀 줄거리가 반짝반짝 춤추는 것에 정신이 팔려 어머니 무릎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져 그것을 잡으러 갔다。그러나 나는 넘어지고 다시 어머니의 무릎에 안기어 울고 말았다。

이러한 행복된 날은 오래 계속하지는 아니 하였다。〃로빈〃과 흉내는 새의 노래로 음악적인 짧은 봄이 지나가고 과실과 장미꽃이 풍성풍성한 여름도 금색의 가을도 나의 생애에 잊어버릴 수 없는 각색 풍부한 빛과 소리의 선물을 남기고 빨리 지나갔다。그리고 그 추억도 몸서리치는 二월의 음산한 어느날、

나는 시각(視覺)과 청각(聽覺)을 빼앗기고 갓난 어린이 세계로 되돌아 가고야 말았다。 위(胃)와 뇌수(腦髓)에 심한 충혈을 동반한 병에 걸린 것이다。 의사는 절망적이라고 보았오나 어느 이른 아침 뜻밖에 열이 내리고 마치 평상시와 같았다。 집안에서는 기쁨에 날뛰었다。 그러나 누구하나—심지어 의사까지도—내가 절대로 다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 병을 회상하여 보려 하여도 어수선해서 자세히 기억할 수가 없다。 특히 내가 깨어 있을 때 버리적거리고 고통하는 것을 위안시키려던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도 기억하며、 반 시간쯤 요동하면서 자다가 깨었을 때는 그렇게도 나를 밝고 행복하게 하여주던 햇볕을 피하며 벽으로 돌아누어 버렸던 일들이 회미하게 생각나는 것이다。 이러한 회미한 기억을 제하고는 —사실 그러한 것을 기억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때의 전후 일은 무서운 꿈이나 마찬가지로 잊어버리고 말았다。 고민하면서도 나는 나를 둘러 싼 정적과 암흑에 습관이 되어 갔다。 이 암흑과 정적이 다른 두 요소(要素)라는 것조차도 가정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는 알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짧은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생후 一년반、 넓고 넓은 푸른 들과 빛나는 하늘、 그리고 나무와 꽃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돌연히 닥쳐 온 세계속에서도 이 선명한 인상은 실로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한번이라도 눈속에 박아둔 것은 내것이요、 그 참된 자태는 영원히 없애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제2장 어린 동생 "밀드레드"

내가 병이난 뒤 일개월간에 무엇이 일어난는지는 지금 회상할 수 없으나, 다만 내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거나 또는 어머니가 여기저기서 집일을 하실 때에 어머니의 옷자락에 매달리어 다닌 것만을 알고 있다。 나는 손으로 여러가지 물건을 더듬어 보고 또한 모든 동작을 살펴 보았다。 이리하여 차츰 여러가지 사물을 배우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명확치는 못하나마 손짓 발짓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아니요」를 의미하였으며, 끄떡여리는 것은 「네」를 의미하였으며, 끄는 것은 「오라」는 것이 였으며, 미는 것은 「가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가령 내가 떡이 필요할 때는 나는 떡을 조각으로 잘라서 "빠터"를 칠하는 모양을 하였다。 저녁식사 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얼음만드는 기계를 작용시키어 그 만들어진 것을 먹음으로써 추워서 떠는 형용을 나타내었다。 어머니는 또한 여러가지를 나에게 알게 하시었다。 어머니가 무엇을 갖다 달라는 것을 나는 늘 알았다。 그래서 나는 위층이나 또한 다른 지시하는 곳으로 다름질을 하며 다녔었다。 사실상 암흑에 싸인 나의 세계를 그나마 밝게 그리고 부드럽게 해 주신 것은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지혜의 덕택이었다。

나의 주위에서 무엇이 일어났나를 나는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다。 다섯살 때에 세탁소에서 옷을 가져오면 그것들을 개켜서 치어둘 줄을 알았으며, 나의 옷과 다른 사람들의 옷을 구별할 줄도 알았다。

또한 어머니나 아주머니가 외출할 때에는 새 옷을 입는 것을 알게 되어 언제든지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손님이 있으면 반드시 마중했고、 그들이 떠날 때에는 손을 흔들어 작별의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때 어떠한 생각으로 손을 흔들었는지는 똑똑히 생각나지 않는다。

어느날 몇명의 신사들이 어머니를 방문하였다。 나는 문소리와 또한 그들이 도착한 것을 알리는 다른 소리를 알게 되었다。 아무도 나를 막기 전에 나는 급히 이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손님접대하는 옷을 입기로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듯이 체경 앞에 서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에 분도 짙게 바르고 어깨까지 늘어진 〃베일〃을 보기좋게 주름을 잡는 등 그 위에 거의 〃스카ㅡ드〃에서 내미는 듯한 〃버슬〃을 가느다란 허리에 꽉 졸라매였다。 이러한 모양으로 삽분 삽분 객실로、 손님을 치르려고 내려 갔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틀리는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마는、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나는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전할 때는 그들은 나와는 달리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였다。 어떤 때는 이야기하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의 말하는 입술을 만져 보았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초조해졌였다。 나는 내 입술을 움직이어서 무엇을 말하는 입동작을 하여 보았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것이 때로는 나를 참으로 초초하고 노하게 하여 힘이 지칠 때까지 발바둥치며 울었다。

나는 이렇게 발바둥 치는 것이 잘못한 짓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를 보아주는 유모 〃엘라〃를 걸어차고

그를 슬프게 하였던것도 잊지않고、노하는 기분이 가라앉으면 후회에 가까운 서글픔에 잠기었던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후회하는 기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이때에 우리집 쿡크의 딸인 〃마르타・워싱톤〃이라는 흑인소녀와 〃셋터〃라는 늙은 개가 마음에 드는 유일한 동무들이었다。 〃마르타〃는 나의 표정과 손짓을 이해하였으며、나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시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애를 휘둘으는 것이 좋았으며、또한 〃마르타〃는 나와 맞대들어 싸우기보다는 내게 복종하기를 좋아하였다。 나는 고집이 세었고 행동적으로 결과에는 상심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았으며、또한 나는 악착스럽게 싸움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야 말았다。 우리들은 많은 시간을 부엌에서 보내었다。 떡가루로 인형도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커피도 갈고、케이키를 나누는 몫으로 싸움도 하고、또한 부엌층계에 모이는 닭과 칠면조에게 모이도 주었던 것이다。 그 닭들은 거의 길이 들어서 내손에서 모이를 먹기도 하고 만져도 가만이 있었다。 어느날 큰 칠면조 한놈이 내 손에 있던 토마토를 빼앗아 가지고 도망쳤다。 아마 이 힘센 칠면조의 성공에 모험욕이 선동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쿡크가 마침 크림을 서리모양으로 구운 케이키를 살짝 가지고 장작 쌓아 놓은 곳에서 모조리 먹어 버렸다。 그 벌로 나는 몹시 기분이 나빴는데 칠면조도 또한 같은 천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해 보았다。

〃기니아〃새는 사람눈에 띄이지 않는 곳에 새집을 지으려는 것인데、그래서 나는 풀속을 헤치면서 그 새

들의 알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무어라고 말할수 없는 즐거움이였다。물론 나는 〃마르타〃에게 알 찾으러 가고 싶지만 입으로 말할 수 없었다。그래서 나는 두손으로 둥그렇게 해서 땅 위에다 놓았다。그것은 풀속에 있는 알을 의미하였다。 그러면 〃마르타〃는 일체의 것을 알아채였다。 우리들이 풀속에서 알 둥우리를 찾게 되면 나는 결코 〃마르타〃에게 그 알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왜냐하면 그 소녀는 엎으러져서 그 알을 깨뜨릴는지도 모른다고 강력히 표시했기 때문이였다。

옥수수를 넣어 두었던 헛간、말들을 두었던 외양간、아침저녁으로 우유를 짜던 마당、 이러한 곳들은 〃마르타〃와 나에게는 끊임없이 흥미를 주는 놀이터였다。 우유를 짜는 사람들은 우유를 짜는 동안 나를 소에 만져보게도 하여주면 소가 꿈틀할적마다 깜짝 놀래곤 하였던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내게 대하여서는 일종 즐거운 것이였다。 물론 나는 집안에서 무엇들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나、 온 집안에 풍기는 좋은 냄새들은 나의 마음을 흥겹게 하여주는 것이였다。집안 식구들은 우리들을 가만이 있게 하려고 나와 〃마르타〃에게 맛있는 것을 손에 쥐어주면 참으로 좋았었다。 물론 우리들이 집안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섭섭한 일이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조금도 유쾌하지 않은 것은 아니였다。집안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양념을 갈게 하였으며、건포도를 집어먹게 하였으며、또한 음식을 젓던 숟가락을 핥아먹게 하였다。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짓으로 침대에 양말을 매달은 일는 생각나지만 그외의 예배의 의식이나 선물을 발견하던 때의 일은 지금 까맣게 잊고 있다。

〃마르타·워싱톤〃은 나에게 지지않게 작난이 심하였다。 어느해 七월 더운날 오후에 두 어린이는 베란다 층계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흑단(黑憻)모양으로 까맣고、 그 머리는 여러개의 송아리로 된 땔친 털이었는데、 그것을 구두끈으로 잡아 매어서 마치 병마개를 뜯는 것들이 달려 있는 것 같았다。 한 어린이는 눈과 같이 흰、 길고 부숭부숭한 금발을 하고 있었다。 한 아이는 여섯 살이었고 또하나는 두세살이 더 먹었었다。 한 어린이는 눈을 못보았는데 그것이 나였고、 다른 어린이는 〃마르타·워싱톤〃이었다。 우리들은 종이 인형을 만들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우리들은 이 작난이 싫증이 났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두끈을 다 잘라버리고 또한 손에 닿는 인동(忍冬)이라는 화초의 잎사귀를 전부 잘라버린 다음에 나는 〃마르타〃의 병마개 빼는 것같은 머리에다 주의를 돌리었다。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결국 굴복하였다。 주고 받는 것이 공명정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르타〃는 가위를 들어 나의 구불구불한 한 뭉터기의 머리를 잘랐다。 어머니가 마침 오셔서 막지 않았더라면 모두 잘라 버릴번 하였다。

나의 개 〃벨〃은 나이가 먹고 게을러서、 뛰어 다니며 노는 것보다는 노변(爐邊)에서 잠자기를 즐겨하였다。 나는 나의 개에게 수화(手話)를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였으나 머리가 둔하였고、 또한 주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내가 가르치려고 하여도 그런 것은 알배가 아니란 듯이 불쑥 일어나서 부들부들 몸을 떨고 그만 아무것도 싫다는 듯이 딴전을 보고 마는 것이었다。 그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으나 내가 하는 것은 듣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었다。 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였으며、 〃벨〃의 교육은 일방적인 권투 시합식으로 그치고 〃벨〃은 귀찮다는 듯이 기지개를 편다음

한두번 멸시하는 듯한 콧소리를 하고 다른 노변쪽으로 가서 또 눕는 것이였다。 나는 지루해져서 그 자리를 떠나 〃마르타〃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였다。

이밖에도 어렸을 때 활기에 찬 세계에서 떨어진 쓸쓸한 기억이 무수히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 기억에 사로잡힌 어둠、 정적、 거기에 모험성이 없음은 사모치는 감각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어느날 나는 앞치마에 물을 쏟아뜨려서 방에 있는 노변에서 껌적 껌적하는 불앞에 걸고 말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치마는 뜻대로 마르지 않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서 빨리 말리려고 하였다。 이때 벼란간 지금까지 흰 재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았던 불이 번쩍 살아나서 순식간에 나를 둘러싸고 말았다。 입은 옷은 타고 있고 나는 비명을 지르고 있였다。 나의 유모 〃비니〃가 겹결에 달려와서 담뇨를 뒤집어 씌웠다。 나는 거의 질식할듯 하였으나 불은 꺼졌다。 손과 머리에는 약간의 화상을 입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나는 열쇠 쓰는 법을 알게 되었다。 어느날 나는 어머니를 식료품실(食料品室)에 잠가 버리였다。 공교롭게도 하인들은 먼 곳에 떨어져 있였으므로 어머니는 그곳에 세시간이나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그안에서 사뭇 두들기였으나 나는 그 두들기는 소리에 반해서 문턱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이와 같은 심한 장난 때문에 양친은 될수 있는 대로 속히 나의 교육을 시작하여야 하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나의 선생님 〃설리반〃 양이 오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방에 가둘수 없나 하는 빨은 기회만 엿보았다。 어느날 나는 어머니에게 〃설리반〃 양에게 어떤 물건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 물건을 전하자마자 문을 꽉 닫고 열쇠로 잠근 다음에 열쇠를 홀에 있는 장농에다 감추어 버렸

다。 아무리 열쇠를 찾아내라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작난은 어쩌할 수 없었든지 아버지는 사다다리를 가지고 와서 〃설리반〃 양을 창으로 나오게 하는 수 밖에 없었다。 한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그 열쇠를 내놓았다。

내가 다섯 살 되였을 때에 우리는 넝굴로 덮인 조그마한 집을 떠나서 큰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때 우리 식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이복 오빠 둘과 좀 뒤에 어린 동생 〃밀드레드〃 이였다。 나의 가장 일른 아버지의 회상은、 내가 원 방에 흩어져 있는 신문들을 헤치고 기어갔을 때、 얼굴 앞에 큰 신문을 펼치고 정신없이 읽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아버지가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되였다。 나는 안경을 쓰면 그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믿고 아버지 흉내를 내어 안경을 써 보았다。 그러나 알 도리가 없었다。 그것이 신문이라는 것으로 아버지도 그 편집자란 것을 알게된 것은 퍽 오랜 뒤였다。

아버지는 매우 인자하고 관대한 분이였으며、 가정에 대하여서는 헌신적이였으므로 산양하는 시기를 제하고는 우리들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내가 듣기에는 아버지는 큰 산양군이였으며、 또한 유명한 사수(射手)이였다。 가정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개와 총이였다。 아버지가 손님 대접하는 것은 유명한 일이였으며、 말하자면 아버지의 결점이어서 손님을 데리고 오지 않는 날이 흔치 아니하였다。 아버지의 제일 큰 자랑은 큰 밭이였는데、 내가 듣기에는 우리 군(郡)에서 제일 좋은 수박과 딸기를 가꿨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제일 처음 익은 포도와 딸기를 언제나 나에게 가져왔었다。 아버지가 나를 안다싶이

나무에서 나무로、 넝쿨에서 넝쿨로 떼더고 다닌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으며、 내가 좋아하는 모양을 나이상 기쁘게 생각해준 것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유명한 이야기꾼이였다。 내가 말을 배우게 되자 아버지는 그의 제일 재미난 이야기를 내 손에다 쓰시는 것이였으며、 적당한 때에 내게 그 이야기를 반복시키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였다。

그때는 내가 북쪽에 있을 때이다。 나는 一八九六년 여름도 마지막 아름다운 날을 지내고 있을 때였다。 청천벽력과 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던 것이다。 아버지가 병석에 눕고 있던 것도 아주 짧은 동안으로 심한 고통도 없이 덧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였다。 이것은 나에게는 처음 당한 큰 슬픔이였으며、 또한 죽음이라는 애달픈 첫 경험이였다。

나는 어머니 이야기를 어찌 써야 할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나에게 너무도 가까운 까닭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조차 점잖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오래동안 나는 나의 어린 동생을 침입자(侵入者)로 생각하였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게 되였으므로 나는 시기심을 가지게 되였다。 동생은 부단히 이전에 내가 차지하던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의 주의와 시간을 전부 차지한 것 같이 생각되였다。 그리고 어느날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괴로운 내마음에 더한층 괴롭게 하는 것이였다。

그때에 나는 항상 좋아서 어루만지기 때문에 거멓게 된 〃낸시〃라는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인형은 불상하게도 나의 화증과 사랑의 희생물이어서 보기에도 곰찍한 모양이 되였다。 나는 여러가지 일

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형중 〃넨시〃를 제일 사랑하였다。 그 인형은 요람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가끔 한시간이나 얼마든지 이 요람을 흔들면서 보내었다。 나는 이 인형과 요람을 누가 다칠세라 주의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작은 동생이 이 요람에서 평화스럽게 자고 있었다。 동생에게는 아직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나는 이와 같은 보기싫은 어린애의 모양에 불끈하였다。 나는 요람에 뛰어가서 보기좋게 뒤집어 놓았다。 만일 어머니가 떨어지는 애기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죽었을는지도 모른다。 우리들 형제가 뜻 있는 말과 부드러운 행위, 거기에 같이 있다는 마음에서 자연히 우러나오는 애정이란 것을 알게된 것은 고독의 계곡을 걸어가게 된 때가 처음이었다。 그로부터 후에 내가 이러저러 보통 어린이 같은 사물을 이해할 수 있게되자 동생 〃밀드레드〃와 나는 서로 즐기고, 가령 동생은 나의 수화(手話)를 이해못하고 나도 그애의 어린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망정 언제나 둘이서 손을 잡고 걷는 것에 더 없는 기쁨으로 알게 되었다。

제3장 〃알렉산더·G·벨〃박사와 여섯살 때의 나

그러는 동안에 나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욕망이 성장하여 갔다。내가 쓰고 있던 몇개 되지 않는 신호(信號)는 충분한 의사를 표시하기에는 도저이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의사를 다르게 해석하면 나는 틀림없이 화를 내였던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나를 마구 누르는 것 같았다。나는 미친듯이 그 힘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였다。나는 혼자 발바둥치며 고민했다。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곤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굳어졌던 것이다。살려는 의지가 강하였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면 최후에는 울음이 터지며、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게 될 때까지 헤매이었다。어머니가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일에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듯이 어머니의 품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얼굴을 비벼대며 매달렸었다。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 격동하는 충격이 더 한층 자꾸만 늘어갔다。 자기의 의사를 전하려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만이 한사라도 빨리 소용되는 유일한 방도였었다。

나의 양친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으며、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랐다。 우리는 맹아학교가 있는 곳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었다。그리고 〃터스컴비아〃와 같은 벽지에 와서 귀가 먹고 눈이 먼 어린이를 가르쳐 줄 사람을 구할 것 같지 않았다。사실 말하자면 나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때로는 도저히 나 같은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유일한 한줄기의 희망은 〃터

켄스〃의 〃아메리카 수기〃에서 왔였다。 어머니는 그의 〃라우라·브리즈만〃의 기록을 읽고, 그 여자도 귀가 먹고 눈이 멀었었으나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일종의 희망에서 이것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맹아를 가르치는 방법을 발견한 〃하우〃 박사는 이미 여러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다。 그의 방법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없어져 버렸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그 방법이 아직 살아있다손 치더라도 〃알라바마〃 같은 벽지에 있는 어린 소녀가 그 방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여섯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볼티모어〃에 있는 유명한 안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전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맹인들을 여러사람 고쳤었다。 그래서 양친은 나를 곧 〃볼티모어〃에 데리고 가서 눈을 고칠 수 있나를 보려고 결심하였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여행은 매우 유쾌했었다。 기차에서 나는 여러 동무들을 만들게 되었다。 어떤 부인이 나에게 조개 껍질이 들은 상자를 주었다。 아버지는 그 껍질에 구멍을 뚫어 실로 꿰일 수 있게 하여 내가 좋아하는 작난을 하게 해주었다。 차장도 또한 친절하였다。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차표를 걷고, 또한 찍을 때에 나는 그의 옷에 매달리어서 좇아다니었다。 그는 차표 찍는 기계를 나에게 가지고 놀게 하였는데, 나에게는 매우 재미 있는 작난감이었다。 자리 한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마분지 조각에다 조그만한 구멍을 뚫으면서 여러가지 공상속에 파묻히어 재미 있게 놀았었다。

나의 아주머니는 수건으로 큰 인형을 만들어 주시었다。 이것은 가장 우습고 모양 없는 인형이었다。 족

석에서 만든 것이라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눈도 없었다。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태연하던 내가 눈이 없는 것에 깜짝 놀랬다。 나는 이 사실을 조전적으로 또한 고집불통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달아 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한사람도 이 인형에다 눈을 달 수 있는 재주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자 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자리 밑에 두어둔 아주머니의 외투를 찾게 되었다。 그 외투에는 큰 구슬들이 달려 있었다。 나는 구슬 둘을 떼어가지고 아주머니에게 그것을 인형에 꿰매 달라고 청하였다。 아주머니는 나의 손을 들어서 나의 눈에다 대고 질문을 하였다。 나는 힘있게 머리를 끄덕끄덕 하였다。 그 구슬을 바른 곳에다 달아 주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이 좋아하였다。 그러나 곧 그 인형에 대한 취미가 전부 없어져 버렸다。 이 여행을 통하여 나는 한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여러가지 재미 있는 것이 많아서 나의 마음과 손을 분주하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볼티모어〃에 도착하니 〃취솔름〃박사는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 주었으나 나의 눈에 대하여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하여 아버지에게 〃워싱톤〃에 있는 〃알렉산더·G·벨〃박사와 의논하여 보라하였다。 〃벨〃박사는 맹아 아동에 대한 학교와 교사(敎師)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는지도 모를 것이라 하였다。 그 의사의 권고에 의하여 우리는 〃벨〃박사를 만나러 곧 〃워싱톤〃으로 갔다。 아버지는 몇번이나 일어나는 절망에 맥이 풀려 근심과 슬픔에 싸여 있었지만 나는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것에 흥분이 되고 재미가 있어 아버지의 번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벨〃박사의 자애심과 동정심을 느꼈는데、 그러한 것은 〃벨〃박사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이며、 또한 위대한 그의 업적과 여러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게 하였면 온순한 인격에 감동되였다。 그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내가 그의 시계를 만져 보는 것에 눈이 쏠리자 그는 나를 위하여 그 시계를 차게 하였다。 그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였다。 내가 이 사실을 알자 곧 나는 그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회견이 나로 하여금 암흑에서 광명으로、 고독으로부터 우애(友愛)、 반려(伴侶)、 지식、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호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벨〃박사는 아버지에게 〃보스톤〃에 있는 〃퍼킨스〃학교 교장 〃아나그노스〃씨에게 편지를 보내어 나의 교육을 담당할 유능한 선생이 있나 문의하라 하였는데、 〃퍼킨스〃학교라는 것은 〃하우〃박사가 맹인들을 위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곳이다。

아버지는 곧 편지를 썼다。 몇주일이 되자 〃아나그노스〃씨로부터 친절한 회답이 왔는데、 교원을 한사람 찾았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그러나 편지가 온 것은 一八八六년 여름의 일이였으니、 〃설리반〃여사가 도착한 것은 다음해 三월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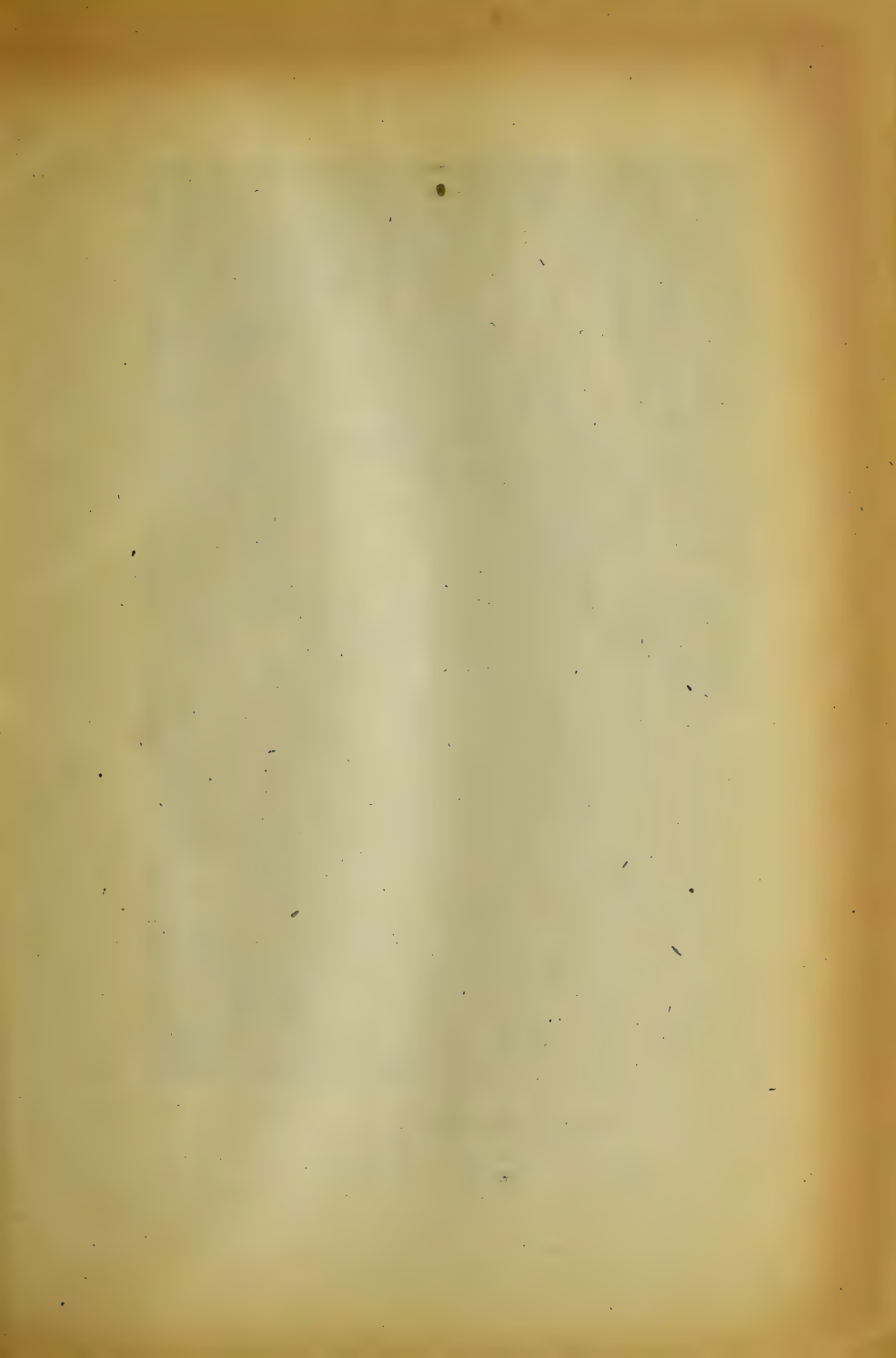
이와 같이 되어 나는 겨우 암흑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넓고 넓은 빛에 충만되어 있는 아름다운 평야를 내려다 볼수 있는 상봉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였다。 신성한 힘이 나의 혼(魂)에 닿아 마음과 눈을 뜨이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불가사의의 것들을 보게 되였다。 그 신성한 산으로부터 『지식은 사랑이요、 빛이요、 행복의 환상(여자—이 원어는 vision 인데、 그것은 〃프랑스〃의 〃잔·달크〃모양으로 심적으로 혹은 육관적으로 어떠한 환상을 보는 것이다—)』이라는 엄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제4장 〃설리반〃 양의 출현

나의 생애중 제일 중대하고 잊을 수 없는 날은 나의 선생님 〃안·맨스필드·설리반〃이 파견되어 온 날이다。이날의 연결시킨 두 생명의 측정할 수 없는 대차(對差)들을 생각하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나의 마음은 경이감(驚異感)으로 꽉 차는 것이다。때는 一八八七년 三월 三일、내가 석달만 더 있으면 만 일곱살이 되는 날이었다。

그 감격에 넘치던 날 오후에 나는 너무나 기뻐서 내 가슴이 꽉차 올라 진정할 수 없게 뛰는 것을 억제하면서 폐ㅣ취에 서 있었다。희미하기는 하였지마는 어머니의 신호라든지 또는 집안의 서먹서먹한 공기에서 심상치 아니한 무엇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짐작하여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었다。오후의 해는 넓은 뭉텅이로 된 〃허니석클〃 꽃들을 뚫고 내려와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나의 얼굴을 환하게 반사해 주었다。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온화한 남국의 봄을 맞이하여 겨우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한 입사귀와 꽃들을 더듬고 있었다。나는 내 전도에 어떠한 놀랠만한 일이 있는지를 몰랐다。그것을 예상하기에는 너무나 우울한 그리고 겻잡을 수 없는 기분이 나를 초조하게 며칠씩 계속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러분은 짙은 안개가 끼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날에 배를 타본 일이 있읍니까? 그 때에는 여러분은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백색의 암흑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으며、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긴장하고 또한 조급하여 연추(鉛錘)와 수심(水深)을 측정하는 측연(測鉛)을 가지고 해안을 향하

일곱살 때의 켈러 여사

여 더듬어 가는 것이며、 그때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이 일어날가 두려워하여 두근거릴 것이다。 나의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그러한 배와 같았던 것이다。

나는 나침판과 수심을 측정하는 것도 없고、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할 수도 없는 배였었다。『빛! 나에게 빛을 주시요!』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말 없는 웨침이었다。 그 빛이 사랑의 빛일가? 실로 이날 나의 머리위에 이 빛이 비추워진 것이다。

나는 발자취가 가까이 다가 오는 것을 느끼고 어머니라고 여기면서 한 손을 내밀었다。 누가 내 손을 쥐어 주는 순간 나는 나의 혼의 눈을 뜨도록…… 아니 나를 사랑하여 주려고 온 그분의 팔에 강하게 끌려 그의 품안으로 굴러 들어간 것이다。

이튿날 아침 선생님이 나를 자기의 방으로 인도하여 나에게 인형을 하나 주었다。 이 인형은 〃퍼킨스〃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내게 보내는 것이였으며、 또한 선생님이 이 인형에다 옷을 입히였던 것이나、 나는 그 사실을 훨씬 뒤에야 알았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논 다음에 선생님은 나의 손에다 천천이 「이ㄴ혀ㅇ。」이라는 말을 썼다。 나는 그 의미를 전혀 몰랐으나 이 손가락 작난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그것을 흉내 내려고 하였다。 내가 그 글자들을 애쓰면서 겨우 바르게 쓰게 된 때의 나의 철없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상상해 주십시요。 것잡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아래층에 있는 어머니한테 뛰어내려가서 어머니 손바닥에 「인형」이라 썼다。 그러나 내가 쓴 글자들을 나는 전혀 모르는 것은 물론、 글자라고 하는 존재조차 모르고 단지 원숭이같이 손가락을 움직여 기계모양 흉내 낸 것에 불과하였다。

그 다음 며칠동안에 나는 많은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핀」, 「모자」, 「컵」, 「앉는다」, 「서다」, 「걷는다」 등의 소수의 동사였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여러주일의 공부가 필요한 뒤였다。

어느날 나의 새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설리반〃 선생은 낡은 헌겊조각으로 만든 커다란 인형을 나의 무릎에다 얹어주면서 「이ㄴ혀ㅇ」이라고 손에다 써 주었다。 인형이라는 말은 새것이나 헌것이나 둘다 동시에 통용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려고 한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선생님과 나는 「물을 마신다」와 「무ㄹ」이라는 말 때문에 큰 고생을 했다。 선생님은 「무ㄹ을 마신다」라는 말이 물을 마신다라는 것이며, 「무ㄹ」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물건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나는 도저이 이 둘의 말들을 함께 생각해 낼 수가 없었다。 당분간 이 문제를 나중에 밀기로 하고 그날 아침은 그것을 끝내었었다。 이러한 경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는 선생님이 자꾸 눌어붙고 시키려는 것에 고만 짜증이 나서 인형을 마루 위에다 동댕이쳤다。 그 깨어진 인형 조각이 나의 발에 부딛히자 나는 일종의 쾌감을 느꼈었다。 슬픔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인형을 사랑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소리없고 캄캄한 나의 세계에는 동정도 애정도 또한 따뜻한 감정도 어디를 찾아도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선생님이 깨어진 조각을 벽로 한쪽으로 쓸어넣는 것을 느꼈을 때 불쾌한 원인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만족했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모자를 가져왔다。 나는 따뜻한 햇빛이 내리 쪼이는 밖으로 나온 것을 느끼었다。 이 생각이… 만일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지만 「생각한다」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나의 기분은 공중에 뜬것 같이 가벼워 질 것이었다。

우리는 우물을 덮은 "허니석클"의 향기에 끌리어 걸어 내려갔다。 누가 물을 길고 있었다。 선생님은 나의 한손을 물통에다 대어 주었다。 차거운 물이 나의 손 위에 내려부어지자 선생님은 다른 한 손에 「물」이라는 글자를 처음에는 천천이 다음에는 빨리 썼다。 나는 가만이 서서 선생님의 손가락의 움직이는 것에 전 신경을 집중시켰다。

갑짜기 나는 멍하나마 무슨 잊어버린 것을 생각해 내는 것과 같이 「말」이라는 신비스러운 문이 열리는 듯한 의식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때 이 「물」이라는 것이 지금 내 손에 넘치는 굉장히 찬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깨달았다。 이 산 말이 나의 영혼을 깨워주고、광명을、희망을、환희를 주어 그리고 또 포박을 풀어주는 것이었었다。 그러나 아직도 장해는 극복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일의 관문은 돌파해 버렸던 것이다。 나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넘치는 마음으로 우물에서 돌아왔다。 모든 물건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는 새로운 생각을、또 새로운 세계를 나에게 보여 주었다。 우리는 집에 돌아와보니 내가 손을 대는 물건마다 생명이 있어서 약동하듯이 느껴졌다。 왜 그러나 하면 나는 모든 물건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접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나는 아까 깨뜨려 버린 인형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더듬어서 벽로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조각조각 깨어진 인형을 주서 맞추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였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한 것에 잘못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여러 다른 말들을 배웠다。그 글자들이 다른 무슨 말들인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아버지」、「어머니」、「동생」、「선생님」등은 다 그날 외운 것이다。그러한 글자들은 나의 세계를 위하여 밝게 즐겁게 꽃을 피게 하였다。〃아론〃의 막대기가 꽃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 것 같이 그 기념할만한 날이 끝날 무렵 나는 침대에 누어 그날에 가져 온 새로운 발견에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내일의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성급히 바랬다。그 때의 나처럼 행복했던 아이를 찾기는 정말이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제5장 마음의 눈을 뜨다

나의 영혼이 갑짜기 각성된 뒤의 一八八七년 여름에 일어난 많은 사건을 나는 회상할 수 있다。 나는 손으로 더듬어 손에 접촉한 사물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물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나를 감싸는 주위에 대한 애착을 깊게 하여갔다。 애송이 국화와 금선화가 피는 계절이 되면 〃설리반〃 선생은 나의 손을 이끌고 씨뿌리는 초원으로、 또는 〃테네시〃 강변으로 가서 따뜻한 풀밭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자연에 대한 혜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대양이나 비가 어떻게 아름답고 그리고 영양 있는 식물의 눈을 대지에서 뜨게 하는가、 새는 어떻게 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차차 번식해 가는가、 다람쥐와 사슴、 사자들은 어떻게 음식물과 설 곳을 찾는가 이러한 이야기였다。 나의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마음은 매일 밝고 기쁜것이 되었었다。 내가 산수를 배우고 지구의 모양을 형용하기 훨씬 전에 〃설리반〃 선생은 향기 나는 나무와 모든 풀의 입사귀와 갖난애의 북실북실한 뺨에 미(美)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선생님은 나의 어린 생각을 자연에 연결시켜 새와 꽃도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는 생명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자연은 때로는 친절치 않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느날 우리는 긴 산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 아침은 매우 일기가 좋았다。 그러나 점점 무더워져서 두 서너번 길가에 있는 나무 아래서 쉬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에서 멀지 않은 벗나무 밑에서 쉬었다。 나무 그늘은 매우 유쾌하였고、 올라가기에 대단히 쉬었으므로 선생님의 부축으로 올라가서 가지를 구부려서

나무가지에 기댈 수 있었다。 나무위는 매우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설리반〃 선생님은 거기서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집으로 가질러 갔었다。 나는 그 나무가지에 기대고 기다리기로 했었다。

갑짜기 천기가 변하기 시작 했다。 더위는 없어지고 습기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에게도 하늘이 새까맣게 되는 것을 싸늘해 진 공기로서 알 수 있었다。 거기다가 땅으로부터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이 냄새가 무엇인가를 알았다。 이것은 천둥번개 앞에 오는 것이였다。 나는 무서워서 가슴을 안고 떨고 있을 뿐이였다。 나는 완전히 홀로 있을 뿐이다。 땅에서 까지도 떨어져 있다。 무엇인가 거대한 것이 나의 신경을 꼼짝도 못하게 하였다。 나는 가슴을 누르고 눈을 꼭 감고 가만이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등줄기에 지나갔다。 나의 한줄기 희망은 선생님이 빨리 돌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어떻게든지 나무에서 내려올 수 없는가 하고 애를 썼다。

잠시동안 불길한 정적이 오고、 나무 잎이 악마의 이갈리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 달라 붙은 나를 날려 보낼 듯한다。 작은 가지가 뺨을 치고 머리에도 얼키는 것이다。『뛰어내리자』、 이러한 생각도 문득 떠 올랐으나 그것도 무서워서 할 수 없었다。 그러하전만 나는 끝가지까지 미끄러 내려갔다。 가지는 자주 매질을 한다。 나는 끊임없는 단속적인 진동을 알았다。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고 그 울림은 나의 몸에 〃쇽크〃나 받은 것 같았다。 나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었다。 나는 나무와 운명을 같이 하는가보다 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한 바로 그때 선생님이 나의 손을 잡고 내려 주었던 것이다。 나는 내발을 땅에 꽉 밟자 울음이 터져 나오고 선생님에게 꼭 매달렸다。 나는 그때

새로운 교훈을 배웠다。즉 자연은『그 어린것들에게 전쟁을 거는 것이며、가장 부드러운 손 밑에는 반역적 손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이 있은 뒤로는 오래동안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그 생각만 하여도 공포증이 일어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유혹한 것은 가지 전체에 꽃이 만개하였던 "함우초"라는 나무였다。어느 아름다운 봄날 아침에 조그만 집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는데、무엇인지 미묘하고도 훌륭한 향기가 풍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나는 갑짜기 일어나서 거의 본능적으로 나의 두손을 뻗치었다。봄의 정기같은 것이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이것이 무엇인가?』하고 나는 스스로 물었다。그리고 곧 그것이 "함우초" 꽃의 향기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나는 손으로 더듬어서 정원 끝으로 갔다。그 꽃은 조그마한 길이 구부러지는 정원 끝 담 옆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과연 그러하였다。따뜻한 일광의 빛을 받고 꽃송이로 덮인 가지들은 풀에 닿을둥 말둥 아름다운 꽃을 자랑하고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아리따운 것이 일찌기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그 나무의 연하고 섬세한 꽃들은 비속한 것이 가까이 온다면 움출어 들어갈듯한 낙원의 나무가 지상에 옮겨 심어진 것 같았다。나는 소낙비같이 떨어지는 꽃송이를 만져가며 나무 큰 줄기옆에 섰었다。잠시동안 어찌할 바을 몰라서 그대로 서 있었으나、다음에는 비틀비틀 나무에 매달려 올라가기 시작했다。그러나 가지는 굵고 나무껍질은 험해서 올라가기가 힘들었다。나무의 매력때문에 그러한 것도 잊어버리고 쑥쑥 올라가서 기어이 누구인가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지금은 나무의 일부와 같은 집동우리에 다달았다。나는 그 곳에

오래동안 앉아서 장미같은 구름에 싸인 봄의 선녀같은 기분으로 꿈과 같이 즐거운 공상에 잠기면서 달콤한 봄날을 보내었던 것이다。

제 6 장 말을 아는 열쇠

나는 벌써 모든 말을 알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되었고、그것을 쓰는 것을 열심으로 배우려 하였다。신체적 부자유가 없는 아이들은 노력 없이 말을 배운다。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들이 나오는 동안에 웃어가면서 배우게되는 것이지만 귀머거리 어린이는 괴로운 과정을 통하여 그 말들을 간신이 잡았다고해도 그것은 죽은 말들이다。그렇지만 그것만이라도 이해한 때의 환희는 글로 쓸 수가 없을만큼 기쁜 것이다。우리들은 외우기 어려운 단어 하나하나로부터 점점 넓은 〃쉐익스피어〃의 세계를 목표로 진전되어 갔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여 주시어도 나는 별로 쓸 때 없는 것만을 질문할 뿐이였다。나의 이해력은 아직도 불충분하였고、나의 어조도 부족하였었다。그러나 지식이 풍부해지고 어조도 점점 많아짐에 따라 나의 질문은 급격이 늘어갔다。나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같은 것에 대하여 몇번이고 질문을 되풀이하였다。때로는 어떠한 글자가 이전에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내 마음에 새겨 들어 갔나를 소생시켜 나에게 그 때일이 환하게 빛어주는 것이였다。

나는 내가 처음으로 「사랑」이란 말의 뜻을 물어본 아침을 기억하고 있다。나는 그때까지는 많은 말들을 알고 있지 않았다。나는 정원에서 제일 먼저 핀 몇송이의 오랑캐꽃을 선생님에게 가져갔다。그는 나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그러나 그때에 나는 어머니 이외에는 누구든지 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을 허

한 일이 없었다。 〃설리반〃 양은 그 팔로 나를 귀엽게 안고 나의 손에다 『나는 〃헬렌〃을 사랑한다』 라고 썼다。

『사랑이 무어예요?』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나를 힘있게 포옹하면서 『여기에 있다』 말하고 나의 가슴을 가리켰다。 나는 그때 비로소 그의 심장의 고동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가 의미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의 이해는 그때까지 촉감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물건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지중 나는 그의 손에 있는 오랑캐꽃의 향기가 풍기는 것을 느끼고 반은 말로 반은 몸짓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꽃이 핀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아니야』 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시였다。

나는 일층 무엇인지 몰랐다。 그때 마침 따뜻한 태양이 벼란간 구름사이를 뚫고 나왔다。

『저것이 사랑이애요?』 하고 나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태양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설리반〃 양은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더 점점 알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크게 실망하였다。 나는 나의 선생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손으로 가르쳐 주지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이삼일 뒤에 나는 크고 작은 구슬들을 균형이 잡히어지도록 처음에는 큰 구슬 둘, 다음에는 작은 구슬 셋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놀고 있었다。 나는 몇번이나 그 순서를 틀리게 하였다。 그럴 때마다 〃설리반〃

양은 친절하게 끈기 있게 그 착오를 지적하여 주었다。 결국 나는 자꾸만 혼동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하면 순서를 고칠 수 있을가 하고 열심히 생각했다。 그러자 〃설리반〃 양은 내 이마에다 손을 대고 「생각하라」 라는 글자를 썼다。

급자기 나는 그 말이 나의 머리 속에 진행하는 사고(思考)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이것이 나의 최초의 추상적 관렴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스타ㅡ트였었다。

그 말에 나는 힘을 얻었다。 무릎에 있는 구슬놀이한 것도 잊어버리고 「사랑」의 뜻이 무엇인가를 풀려고 애를 썼다。 그날은 종일 구름이 얇게 끼어 때때로 소나비가 나리는 일기 였었지만 돌연 남국 특유의 강렬한 태양이 구름을 헤치고 찬란한 빛을 발산시켰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나는 전날의 질문한 것을•되풀이하였다。

『사랑은 태양이 나오기 전에 구름과 같은 것이지요。』 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때에는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었다。『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구름에는 손을 댈수 없지요。 그러나 비를 오게 하는 것은 알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 더워서 견딜 수 없네 하고 있는 꽃이나 땅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지요。 사랑도 구름과 같이 만질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은 받을 때는 즐겁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요。 만일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들은 행복이나 즐거움도 하나도 없지요。』

나는 벼란간 캄캄한 마음 가운데 눈이 부실 정도의 거화(巨火)가 비춰 주는 느낌이 났다。 그때 서로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에 엮키고 엉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교육의 제일 처음부터 "설리반" 양은 나를 불구자로서 대하지 아니하는 방침을 실행하였다。 단지 하나 틀리는 것은 직접 이야기하는 대신 나의 손에다 글씨를 쓰는 것 뿐이였다。 만일 내가 나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말이 부족하였으면 그는 그때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적인 의미까지 설명하면서 그 부족한 말들을 보충하여 주었으며、 우리의 대화의 끝을 내가 먼저 마치지 못할 때는 무엇을 말할 것까지 제시하여 주었다。

이 과정은 여러해동안 계속되였다。 왜냐하면 귀가 먹은 어린이에게는 예를 들면 간단한 일용생활에 쓰는 말들이라 하지만 그 수 없이 많은 단어를 전부 외운다는 것은 도저히 단시일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귀가 먹지 않은 아이는 끄칠 줄 모르는 반복과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자연히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가 가정에서 자연히 듣는 회화는 그의 마음을 자극하며、 그 자극된 마음은 자기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길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생각의 말들이 자기의 머리에서 형성된 표현으로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귀머거리 아이에게는 없는 것이다。 선생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의 많은 자극을 제공하려 하였다。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끄칠줄 모르는 동일어의 반복과 그것을 실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하는 것이였었다。 그러나 내가 자의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날때까지는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마칠 수 있는 응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하였다。

귀먹고 눈먼 아이가 회화의 즐거운 매력을 알게 되기에는 정말이지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깊고 깊은 인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요。 그들은 음성의 음정을 들을 수 없는 것이며、 말마다 의의를 주는 음정의 범위를 타인의 원조가 없이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에 나타나는 회화의 진의(眞意)조차 볼 수 없는 것이다。

제7장 실생활에 부합되는 교육

나의 교육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대한 계단은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 내가 몇개의 말을 지을줄 알게 되자 선생님은 나에게 두꺼운 종이에 도드러진 글자(凸版)로 박인 단어 카ー드를 주었다。 나는 각각 글자들은 물건、 행동 또는 무슨 성질을 의미하는 것인지 곧 알게 되였다。 나는 단어를 늘어 놓고 짧은 문장을 만드는 판을 가지고 있었으나、 글자를 판에 직접 늘어 놓기 전에 실제의 사물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인형」、「있다」、「위에」、「침대」라는 카ー드를 찾아가지고 그러한 글자에 맞는 물건에다 놓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인형을 침대 위에 놓고 거기에 「침대」 「위에」 「있다」 라는 글자와 같이 놓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문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물건 자체를 통하여 그 문장의 뜻을 배우는 것이였다。

어느날 〃설리반〃 선생은 나의 앞 치마에다 「소녀」라는 카ー드를 꽂아 의걸이 안에 들어가 그 속에서 쯔라 하시었다。 나는 「의걸이」「안에」「있다」라는 카ー드를 정열하였다。 나는 몇시간이든 이 문장놀이를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문장대로 바꿔 늘어 놓는 형편이였다。

인쇄한 카ー드에서 책으로 넘어 가는 것은 한발 자욱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초보독본」을 손에 넣게 되어 내가 아는 말을 더듬어 찾았다。 아는 말을 찾게 된 때의 나의 스릴은 순바꼭질에 숨은 어린이를 본 때의 그것과 흡사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하여 나는 읽기를 시작하였다。 연속되는 이야기를 읽게 된 때

에 대하여서는 뒤에서 쓰겠다。

상당한 기간 정규적 교육을 전연 받지 못하였다。 가장 열심으로 공부하였을 때에도 공부라기보다는 유희라고 하는 것이 옳았다。 모든 것을 〃설리반〃 선생은 아름다운 이야기나 시와 같이 설명해 주었다。 내가 기뻐하듯이 그도 어린이로 돌아가서 나와 더불어 즐기였다。 많은 어린이들이 문법과 어려운 산수、 더욱 어려운 정의(定義)를 배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였으므로 무서운 생각을 가지지만 오늘날 나에게는 그러한 것이 가장 귀중한 기억이며、 나로서는 즐거워하던 것이였다。

〃설리반〃 선생이 나에게 대한 뜻과 나의 욕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특수한 깊은 동정은 필설로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 동정은 그가 오래 동안 맹인돌과 접촉에서 길러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동정심에다 훌륭한 묘사(描寫)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취미 없는 지엽(枝葉) 문제는 억지로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다。 전날의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든지 질문 같은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는 무미건조한 과학까지도 조금씩 그리고 나의 기억에 남도록 가까운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집안에서보다는 해 비치는 따뜻한 문밖을 택하여 공부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에 공부한 기억에는 들 포도의 향기와 뒤섞인 송진냄새가 차 있는 것이다。 야생 튤립나무의 그늘에 앉아 나는 모든 것은 배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배웠다。 사물이 아름답다는 것은 나에게 그것들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산천초목、 화조풍월(花鳥風月) 모든 것이 나의 공부를 도왔던 것이다。 개

풀 개골하는 개고리、손에 잡힌 것을 깜박 잊고 우는 보들보들한 털을 가진 병아리、야생꽃、초원의 오랑캐꽃、봉오리 진 과실나무、나는 터진 속에서 내어다 보는 목화열매를 만져본다든가、털이 일은 열매를 딴다든지、바람에 나부끼는 보리이삭과 나무잎의 음악을 들어본다든지、힘차게 뛰어다니는 망아지의 잔등을 만져가며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다。그중에도 망아지는 크게 마음에 드는 것이어서 그입에 크로ㅡ바ㅡ를 쳐 넣어 가면서 놀았던 것이다。아! 지금도 그 크로ㅡ바ㅡ의 냄새가、망아지의 콧김이、나의 얼굴에 감도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나는 가끔 먼동이 트기전、푹신히 이슬에 젖은 뜰에、잠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던 것이다。장미의 보드러운 촉감이나、아침 미풍에 나부끼는 백합꽃에 아름다운 모양을 상상해 보는 기쁨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가끔 나는 꽃속에 잠들은 벌레를 잡은 일도 있었다。잠속에 잡힌 이 잠꾸러기 부드러운 날개의 희미한 소리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또하나 잘 가는 곳은 七월 초순경 익어가는 과수원이었다。큰 털이 북실북실한 복숭아가 나의 손에 닿는 데까지 열려 있었고、유쾌한 미풍이 나무사이에 불면 능금이 떼굴떼굴 발끝에 떨어지기도 하였다。오! 얼마나 즐거운 날이었던가! 앞치마에 한아름 다북 과실을 주워서、태양의 열로 더운 능금으로 뺨에 문질으며 〃스킷쁘〃로 집에 뛰어 가는 것이었다。

우리둘의 산보의 코ㅡ스는 〃테네시〃 하반에、지금은 무너져 없어진 남북전쟁중에 군인을 상륙시킨 일이 있던 〃켈러〃 상륙장(上陸場)에 통하는 길이었다。거기서 우리는 행복스러운 여러 시간을 지내었으며

작난비슷한 지리의 공부를 하였다。 나는 조그마한 돌을 가지고 뫼를 쌓기도 하고、섬과 호수도 만들고 거기에 강을 흘려 보내면서의 공부는、공부라기보다는 너무나 즐거운 작난 그것이었다。 나는 〃설리반〃선생의 터져나오는 산과 화산의 재로 메꾸어진 도시、흐르는 얼음의 강들의 여러가지 이상스럽기만 한 둥글고 큰 지구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었다。 그는 흙으로 울퉁불퉁한 지세(地勢)의 모형을 만들어 내가 산맥과 계곡을 손으로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하여주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대단히 좋아했다。 그러나 지구의 경도(經度)와 위도(緯度)、거기에 양극(兩極)으로 나눈다든지 하는 것에는 마음을 혼란시키고 화가 일어났다。 그것을 설명하는 실(糸)과 극(極)을 표시하는 귤(橘)과 오렌지 나무 막대기나 실제와 가깝기 때문에 온대(温帶)라고 하면 곧 귤을 연상할 정도이다。 혹시 누가 그 나무를 세워놓는다면 북극의 흰 곰이 실지로 올라가는 것같이 나를 믿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산수만은 아무리 하여도 좋지 안은 과목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나는 취미가 없었다。 〃설리반〃선생은 구슬을 꿰는 것으로 헤일 수 있게 가르치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에서 쓰는 밀짚으로 가감산을 배웠다。 나는 다섯번이고 여섯번이고 이 거북한 작난을 되풀이하는 것에 실증이 났었다。 다만 빨리 이 공부가 끝나기만 바라고 있다가 끝날가 말가할 때에 빨리 뛰어나가서 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나는 동물학과 식물학을 공부하였다。

언제인지 지금은 그 이름을 잊었으나 어떠한 신사가 화석(化石)을 보내 주었는데 조그마한 연체(軟體)동물의 아름답게 채색된 것으로 조그마한 새의 발톱자죽이 있는 사암(砂岩)、아름다운 양치(羊齒)가 새

겨져 있는 것이였다。 이것들은 대홍수 후의 세계의 보고(寶庫)를 내게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설리반〃 선생은 이상한 모양을 하고 무서운 동물들、 그 동물들은 한때 원시시대의 밀림을 돌아다니며、 큰 나무를 쓰러뜨려、 식물로 하고 음침한 낡은 늪(沼澤)에서 묻혀 죽어간 큰 금수의 이야기를 나는 떨면서 귀를 기울이였다。 오래동안 불쾌한 동물들은 나의 꿈에 나타나서 이 음울한 것은 햇빛과 장미、 또한 망아지 발굽소리 들리는、 밝은 낮의 생생한 세계와 공포의 대조를 이루는 밤의 세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다음번에는 아름다운 조개껍질을 보내 주어 나는 어린이의 놀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작은 연체 동물이 어쩌면 그렇게도 화려한 껍질을 살 집으로 만드는 것과 바람도 조용한 밤바다를 앵무(鸚鵡)가 그 진주(眞珠)의 배를 타고 인도양의 푸른 물결을 떠 다닌다는 것을 놀래고 탄복하며 배웠다。 어린이들의 습관과 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재미난 사실 즉 용솟음쳐 흐르는 물결 가운데서 조그마한 동물이 태평양 특유의 아름다운 산호초를 짓는 경과라든지、 또는 유공충(有孔虫)이라는 동물들이 여러나라의 백묵같은 흰 언덕을 만드는 과정 등 바다생물의 생활습성에 대해서 많고도 재미나는 것을 배운 그날밤 선생은 「침실에 들어간 유공충」이라는 책을 읽어 주었였다。 그리고 연체 동물들이 껍질을 만드는 과정은 사람의 마음이 발달을 상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앵무조개의 이상한 움직임을 가진 껍질이 해수와 같이 흡수한 암금 흙을 분필물(分泌物)로 싸아서 결국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든 지식도 같은 과정을 밟고 사상이라는 진주를 만든다는 것이였다。

다음에 내가 배운 것은 식물의 성장에 대해서였다。 우리들은 백합 화분을 사가지고 해가 잘 비추는

창 가에 놓고 관찰을 계속하였다。 며칠 되지 않아서 푸른 빛갈의 뾰죽한 눈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의 손가락 같은 작은 잎은 차츰차츰 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한번 펴지고는 변함없는 모양으로 쑥쑥 커지는 것이다。 점차로 커지는 눈(芽)속에는 반드시 유난히 큰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부드러운 비단을 뚫듯 나 보란듯이 쑥 껍질을 벗고 머리를 올려미는 것이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꽃은 고운 꽃에서 풍기는 향기를 떨치고 훌륭히 성장하는 것이었다。

수초(水草)가 가득 떠 있는 유리 항아리에 열한마리의 올챙이가 들은 것을 창 가에 장식한 일이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 그릇에 손을 넣어 올챙이들이 손가락 사이를 헤엄쳐 돌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은 재미 있는 일이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마리의 대담한 놈이 있었든지 어느날 그릇밖으로 뛰어나와 마루바닥에 떨어졌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확실히 죽었었다。 살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꼬리를 꿈틀거리는 것 뿐이다。 그러나 물속에 넣었더니 곧 그놈은 바닥으로 숨고서는 좋다는 듯이 여기저기 헤엄쳐 도는 것이었다。 그놈은 뛰어 나와서 더 큰 세계를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개구리로 성장할 때까지 "프크시아" 풀 밑에서 생활하고 또 아름다운 유리의 집에 만족하는 것이다。 나중에 그 올챙이는 정원 구석에 있는 풀이 뒤덮인 연못에 옮겼다。 거기서 새로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여름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

이와 같이하여 나는 생활자체에서 학문을 하였다。 처음에는 나는 다만 가능한 싹에 불과하였으나、 그러한 것을 키우고 훌륭히 발전시킨 사람은 나의 선생이였다。 그가 오자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깊

은 의미를 떠어 생생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되였던 것이다。 선생은 한번도 모든 것이 간직한 미(美)를 나에게 가르쳐 주는 기회를 그대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었다。 부단히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한 모범으로 나의 생활을 아름답게 뜻깊은 것으로 만드려고 일심정력을 다하였다。

나의 교육의 시초의 일년을 그와 같이 아름답게 한 것은 선생님의 천품이요、 민감한 감수성이요、 그리고 동정심과 애정의 표현의 교묘한 덕택이였다。 내가 거기에 받마춰 성과를 걷을 수 있었던 것은 적당한 기회를 포촉하는 그의 교묘한 수단에서였다。 선생님은 어린이의 마음이란 것은 여기저기 꽃이 무성하여 거기에 뎅그렇게 떠 있는 구름들을 비쳐서 교육이란 돌덩어리의 물자리를 졸졸 흐르는 조그만 시내와 비슷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의 목적은 그 마음의 시내를、 조용한 물위에 크게 기복있는 산이나 번적이는 수목의 그림자、 광대한 푸른 하늘들도、 가련한 꽃을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쉬웁게 반사시킬 수 있는대로 널리 유유한 흐름으로 하는 것이였다。

아무리 무능한 선생이라도 생도를 교실로 인도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로 하여금 배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쁘든지 쉬든지를 막론하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이상 유쾌하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실은 공부를 결연히 시작하여 교과서라는 무미건조한 길을 용감하게 또한 재미나게 지내가자면 그는 우선 승리(勝利)의 맛도 보아야 할 것이며、 실패라는 가슴이 추저 앉는 것도 느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의 선생님은 나에게는 너무도 가까운 까닭으로 그에게서 떨어져 있는 나를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모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느정도로 선천적이며, 어느만큼이 그의 훈화에 의한 것인지를 나는 결코 구별할 수가 없다。 그의 존재는 나의 존재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나의 생명의 발자취는 그의 발자취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그에게 속하는 것이다。 나에게 어떠한 재주가 있다하면 또는 어떠한 대망심이나 기쁨이 있다 하면 하나도 그의 사랑하는 감촉(感觸)으로 말미암아 눈뜨지 않게 된 것은 없는 것이다。

제8장 선생님의 선물은 귀여운 가수(歌手)

〃설리반〃양이 〃더스컴비아〃에 온 첫해의 크리스마스는 정말이지 큰 사건이었다。 가족중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놀라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혼난 일은 선생님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계획한 준비였었다。 어떠한 선물을 받게 될것인가 하는 기대는 또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호기심을 선동하려고 암시(暗示)와 반쯤 된 말들을 나의 손에다 써 주면서 극도의 호기심을 돋구려 하였다。 〃설리반〃양은 그것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공부를 하였다。 밤마다 우리들은 따뜻하게 장작불이 타는 벽로에 둘러 앉아 맞추는 놀음을 하였다。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더욱 재미있고 흥분하게 하였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더스컴비아〃학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츄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초청해 주었다。 교실 한복판에 온화하고 연한 광채에 싸여 훌륭하고 이상한 과실을 달은 아름다운 나무가 서 있었다。 나는 어찌도 좋은지 춤을 추며 나무를 빙빙 돌아다녔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의 어린이들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뛰는 듯이 좋았던 것은 이 나무를 만들어 준 친절한 어른들이 내편에서 선물을 선사하여도 좋다고 말씀할 때였다。 여러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도 나는 내가 받은 물건은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꽉차 올라 여간 즐겁지 않았다。 정말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게 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사받은 물건들을 풀러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만 조

이계한 그리 시원한 물건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내가 받는 선사 품들은 물건이 아니라 기분인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풀어 보는 것을 학교에서 받은 것만으로 국한하였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스타킹을 매달아 놓고 침대에 누어 자는척하고 오래 있었다。 사실은 산타클로스가 와서 무엇을 하는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부지중 인형과 곰을 품안에 안고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성탄을 축하합니다』하는 말로 모든 집안 사람들을 깨운 것은 나였었다。 나는 스타킹 속이라면 몰랐어도 테이블 위에、의자 위에、문 있는 데서、창턱에서、깜짝 놀랠만한 것을 찾게 되었다。 포장에 싸인 크리스마스 선물때문에 엎으러져서 일보도 걸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카나리아 새를 선사하였을 때 나의 즐거움은 절정에 달하였다。

이 적은 〃팀〃은 무척 길이 들어서 나의 손가락 위를 깡충 뛰어올라 손바닥에 있는 사탕생두를 쪼아 먹을 정도였었다。 〃설리반〃양은 이 마음에 드는 새의 시중방법을 빠짐 없이 가르쳐 주었다。 매일 아침 조반이 끝나면 나는 물을 끼얹어주고、새 장을 청소하고、 또 사들인 모이를 주고、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넣어주고、새장의 그네에다 〃헉위드〃라는 나무에 조그마한 가지를 걸어 주었다。

어느날 아침 나는 물을 끼얹어주려고 물을 길러갔다 올 동안 새장을 창가에 두었었다。 돌아와서 문을 여니까 큰 고양이가 하나 내앞을 지나 달아났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으나 손을 장속에다 넣어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팀〃의 그 보드러운 새털이 만져지지 아니 하고、그 조

그마한 뾰죽한 발톱들도 나의 손가락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두번 다시 이 이쁘장한 가수(歌手)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제9장 〃보스톤〃 여행

다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은 내가 一八八八년 五월의 〃보스톤〃 에로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어제 일 같이、 떠들석 했던 준비、 극적인 출발、 그리고 도착하던 때의 일들이 똑똑히 생각난다。 두해전의 〃볼티모어〃 에 간 여행과는 대단히 달라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다。 이제 나는 떠들고 돌아다니고 차중의 사람들의 주목을 끌 어린애는 아니었다。 조용히 〃설리반〃 양의 옆에 앉아 그가 창밖의 경치를 이야기하여 주는 것을 열심으로 듣고 있었다。 아름다운 〃테네시〃 강、 광대한 목화밭、 산과 언덕、 삼림、 그리고 정차할 때 마다 맛있는 캔디와 튀긴 옥수수 봉지를 파는 것、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흑인들의 이야기들。

나의 반대쪽의 자리에는 새 천으로 만든 〃깅엄〃 의 의복과 높은 밀짚모자를 씌운 커다란 낡은 인형인 〃낸시〃 가 구슬로 만든 눈을 뜨고 앉아 있었다。 〃설리반〃 양의 이야기가 멈추는 동안에는 나는 〃낸시〃를 안아주기도하고 재워주기도하여 조금도 지루한 줄을 몰랐다。 〃낸시〃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앞으로 없을 것 같아 〃낸시〃 가 〃보스톤〃 에 도착하여 일어난 슬픈 사건을 이야기 하겠다。 그가 한번이라도 맛이 좋습니다 하고 한 일은 없었지만 나는 〃낸시〃 에게 흙으로 만든 〃파이〃를 입에다 처 밀어 넣었더니 입 근처가 시꺼멓게 되어 버렸다。 〃퍼킨스〃 맹아학교의 세탁부(洗濯婦)가 〃낸시〃 의 목욕을 시키겠다고 슬며시 가져갔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상한 〃낸시〃 에 있어서 너무 과한 호의였었다。 목욕탕에서

나온 〃넨시〃는 볼 수도 없는 다 떨어진 솜덩어리로 변해 버려 눈만이 비난하는 것 같이 나를 쳐다 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스톤〃역에 기차가 굴러 들어간 그 순간의 인상은 동화에서 본 세계에 발을 들여 논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이었었다。「옛날에 옛날에」라는 것은 「지금」이요、「어떤 곳에」는 「여기」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다。

〃퍼킨스〃맹아학교에 도착하자 마자 나는 그곳의 눈 못보는 어린이들과 동무가 되었다。 그들이 손으로 더듬어 글자들을 안다는 것을 알게되자 나는 무엇이라 말 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우리들만이 아는 말로 이야기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일까? 그 때까지 나는 통역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외국사람 같았다。 이 〃라우라·브리즈만〃이 배운 학교에 나는 조국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새로운 친구들이 앞을 못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시간이 훨씬 지난 뒤였다。 내가 앞을 못본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으나 나의 주위에 모여서 마음껏 즐겁게、명랑하게 작난하여주는 마음 착한 어린이들이 장님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나의 손을 그들의 손에다 포게고、책을 읽을 때는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채자 나는 깜짝 놀랐고 또 슬프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나의 부자유한 육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동무들에게 동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위의 명랑한 분위기 속에 스스로 뛰어들어 즐거운 매일매일을 지낼 수 있었다。

앞못보는 아이 들과 지낸 하루가 새로운 환경을 주어 오래오래 있어도 무척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을 즐겁게 지냈다。 〃포스톤〃만이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세계였었다。

우리가 〃보스톤〃에 있을 때에 〃번커·힐〃을 방문하여 거기서 처음으로 역사의 첫 공부를 하였다。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싸움을 한 용감한 용사들의 이야기는 나를 매우 흥분시켜 주었다。 나는 돌로 된 계단을 하나 둘 세면서 기념비에 올라가 용사들이 여기에 기어 올라 적탄에 마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 다음날 우리는 배로 〃플라이머드〃항(港)에 갔었다。 이것이 나의 최초의 해상의 여행이라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활기와 약동에 충만된 여행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관이 움직이어 그 우릉거리는 소리가 천동하는 것으로 알고 고만 울음이 터져 나왔다。 ——비가 오면 별으던 소풍이 허사라고 생각 했으므로—。 나는 〃아메리카〃에 최초로 건너 온 순례자(巡禮者)들이 상륙한 바위에 제일 먼저 흥미가 끌렸다。 거기에다 그 바위를 만져보는 더택으로 순례자들이 고생스럽던 일과 그들이 행한 위대한 일들을 절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친절한 신사가 순례자 기념관에서 나에게 준 〃플라이머드〃 바위의 모형을 가끔 손에다 들고 그 굴곡과 중간에서 터진 곳 또한 「一六二〇년」이라고 새겨놓은 것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며、 순례자에 대한 여러가지 에피소—드 등을 생각하여 보았다。

나의 어리고 곧곧한 상상력은 그들의 고귀한 혼과 더불어 무한이 성장하여 갔다。 나는 그들이 새로운 토지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광대한 희망과 정열을 경주하고 또 인격적으로는 깊은 도량이 한량없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개척한 편견(偏見)에 충만된 박해(迫害)를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들이 이 아름다운 국토를 건설하는데 용기와 정력을 기울였다는데 대하여 감동되면서도 역시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보스톤〃에서 얻은 많은 친구들 중에 〃W•에디곳트〃씨와 그의 딸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친절은 일생동안 잊을 수가 없다。 어느날 우리는 〃비벌리〃농장에 있는 그들의 아름다운 집을 방문하였다。 즐거웠던 그들의 장미공원에로의 산보、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들을 마중나온 커다란 개(犬) 〃레오〃、 조그마하고 구불구불한 털을 가진 개 〃프릿츠〃、 나의 손에 코를 갔다 대고 사탕을 먹은 농장중에 제일 빨리 뛰는 말 〃남로드〃、 이런 것들을 지금도 똑똑히 생각해 낼 수가 있다。 또 처음으로 모래를 가지고 놀던 해변 가를 잊어버릴 수 없다。 그 모래는 〃부르스터〃에 있는 해초와 조개껍질이 섞인 잘 흩어지고 모가 난 모래와 달라서 단단하고 맥근맥근한 모래이었다。 〃에디곳트〃씨는 〃보스톤〃에서 구라파를 향하여 떠나는 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여 주었다。 그 뒤에도 그를 여러번 만났으나 언제나 나에게 친절한 동무가 되어 주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보스톤〃을 「친절한 사람들의 도시」라고 부르게 한 것은 그가 있음으로였다。

〃퍼킨스〃 맹아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조금 전에 우리들의 친한 친구인 〃홉킨스〃 부인과 더불어 그 방학을 〃케이프·코드〃에 있는 〃브르스터〃에서 보내기로 하였다。 방학이 하루라도 속히 오기를 못견디게 기다려졌다。

그 여름방학 동안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대양(大洋)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늘 내륙 지방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계」라는 두꺼운 책에서 대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읽은 일이 있었다。 바다에 관한 묘사는 몹시도 나를 동경과 매력속에 몰아 넣었었다。 남성적인 바다에 접하고 노도(怒濤)가 사납게 닥쳐오는 우렁찬 소리를 들어 보겠다고 긴 세월을 벼르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원이 이루어 지려고 하고 있다。

해수욕 복을 입히어 주자 나는 아무 두려움 없이 시원한 물로 뛰어 들어갔다。 큰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이 느끼어졌다。 물의 부동하는 것이 참으로 유쾌하게 마음에 떠 올랐다。 급자기 발이 바위에 부딛치자 큰 물결이 나의 머리위를 쓸어 갔다。 나는 정신없이 허둥지둥 무엇이든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해초만이 나의 얼굴을 부딛칠 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를 한없이 희롱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물결은 나를 여기저기로 모라쳐 심히 난폭하게 굴었다。 안전성 있는 대지는 나의 발밑에는 이미 없었고 생명도 공기도 애정도 따뜻한 인간성도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린 냉혹(冷酷)한 바다물만이 여기에는 있었다。

그러나 결국 파도는 이 새 장난감에 실증이 났는지 나를 해변에다 내 던져 버렸다。 그 순간 나는 선생님의 품안에 이미 안기어 있었다。 오래동안 또한 따뜻하게 안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에 충만된 나의 마음이란 어떠하였을 것인가。 겨우 말을 하게될 정도로 원기를 회복하자 내가 한말은 『물에다 누가 소금을 넣었읍니까?』 였다。

물에 대한 이 무서운 첫경험을 지내자 나는 해수욕 복을 입고 큰 바위 위에 앉아서 물결이 바위에 부딛칠 때마다 수연(水煙)이 내게 향하여 뒤집어 씨우는 것이 여간 좋은 기분이 아니었다。 크고 무거운 물결이 들어 닥칠 때마다 조그만한 돌들이 대글대글 굴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온 해안이 그 물결로 괴로움을 받는것 같았으며、 공기는 비명을 올리는 것 같았다。 거도(巨濤)는 돌진에 반동을 일으키는 것 같이 일단 밀려나가는 것이다。 파도가 나에게 억세게 닥쳐오면 나는 전신을 뱀에 노려진바 된 개구리같이 바위에 달라 붙었다。 파도가 닥쳐오는 그 바위 위에 나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개껍질、 조각돌、 조그만한 곤충이 집을 짓고 있는 해초、 거기에다 강한 해변가의 냄새、 마음도 육체도 성장하여 주는 것 같은 신선한 공기 등은 나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끌어 들이는 것이었다。 어느날 〃설리반〃 양에 가르침을 받아 모래사장에서 햇볕을 즐기고 있던 이상한 생물을 발견하였었다。 그것은 내가 처음보는 큰 궤였었다。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는 도중 무어라 할 수 없는 이상한 생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재미있는 노리개로 생각하며 그 놈의 꼬리를 양손으로 꼭 쥐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하였으나 그것은 나에게 큰 고역이었다。 왜냐하면 그놈은 여

간 무겁지 않았고 반마일이나 끌고 가는 것은 전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게를 누구에게도 주려 들지않았다。 〃설리반〃양에게 설득(說得)되어 우물 가의 누구에게도 빼았기지 않을 물통에다 넣어주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 그것이 없어져 버렸었다。 그리고 그 게가 언제 어떻게 도망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다。 나의 실망은 대단하였었다。 그러나 날이 지낼수록 이 생물을 강제로 제가 살곳으로부터 끌어 낸 것은 친절한 것도 아니고 또한 현명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 게는 반드시 바다로 돌아갔겠지 하고 자위하고 있었다。

제11장 산장(山莊)의 추억

그 가을에 나는 유쾌한 기억을 가지고 남방의 나의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 내가 북방에 갔던 그 방문을 회상하면 그 방문을 중심으로 하여 풍부하고 다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경이에 차게 되는 것이다。 그 여행은 모든 것의 시작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의 보고(寶庫)가 나의 발 앞에 있었으며、 어디를 가든지 유쾌한 것과 배우는 것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에 들어가 살았으며、 일시도 정돈하지 아니 하였으며、 나의 생명은 일생을 하루라는 시간에 단축시켜 놓는 조그만 곤충들이나 마찬가지로 활동이 충만하였다。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내 손에 글씨를 씀으로써 나와 이야기하였다。 기꺼운 동정심에서 날뛰는 사상이 약동(躍動)하여 나의 기분은 씩씩하게 모든 것을 풀어들일 수 있는 것이였다。 즉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불모(不毛)의 땅에는 장미가 꽃을 핀 것이였다。

나는 그 가을을 〃터스컴비아〃에서 약 十四마일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산장(山莊)에서 가족과 더불어 지내었다。 그 집 근처 지금에는 폐허가 된 석회석의 채석장이 있던 곳으로 「펀・쿼리」(羊齒類植物・採石場)라고 불리고 있었다。 채석장 어구에는 양치류(羊齒類)식물들이 무성하여 석회석의 바위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딴 곳은 수목이 울창하였는데, 큰 참나무와 이끼 낀 기둥과 같은 참나무와 훌륭한 상록수들이 서 있었으며、 그 가지에서는 남청이 덩굴과 기생목(寄生木)、 거기에 감꽃이 늘어져 있어서 그

향기란 마음을 멀리할만큼 그 일대에 풍기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에는 사향포도넝쿨과 넝쿨들이 이가지 저가지를 얼키고 설켜서 휘감고 그 밑은 푸른 동굴과도 같았다。 이와 같은 속에서 길을 잃고 해저므는 때에 지면에서 풍겨 오르는 맑고도 달콤한 냄새를 맡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었다。

우리의 조그만 그 산장은 참나무와 소나무가 드문 속에 솟아 있어서 거기서 바라보는 운치란 훌륭한 것이었다。 그 구조는 조그마한 방이 지붕이 없는 길고 좁다란 홀의 양쪽에 나란이 있었던 것이다。 그 주위에는 넓은 복도가 있었다。 우리들은 대개 그 복도에서 공부와 식사와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뒷뜰 쪽에는 큰 호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층계를 놓았었다。 집앞에는 아주 가깝게 나무들이 심어 있어서 나는 바람에 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었으며,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무잎의 기맥도 느낄 수 있었다。

〃펀·쿼리〃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었다。 밤이면 남자들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도람프를 하고 이야기와 작난으로 시간을 보내었다。 그들은 억센 물고기를 낚았다느니 약빠른 여호를 잡았다느니 사슴을 쫓았다느니 물재와 물고기와 네발달린 것들과의 무용담을 하였던 것이다。 나중에는 우리들은 사자니 호랑이니 곰같은 야수들도 이러한 재주 있는 산양군 앞에서는 견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할 지경이었다。 이와같이 유쾌한 친구들이 헤질 때면『안녕히 주무시요』하는 대신『내일 사냥터에서』이었다。

밤을넘게 커—피냄새와 덜그덕거리는 총소리와 쿵쿵거리는 발자욱소리와『오늘은 제일 큰 사냥이다。』라는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깨었었다。 그들이 타고와서 매어둔 말이 땅을 거더차는 발굽소리도 들렸었다。

말들은 밤새도록 그곳에 매어져서 날이 세기를 기대리였던 것이다。 결국 남자들은 말을 탔던 것이다。 옛 노래에 있듯이 곱비를 휘두르고 채쭉을 갈기고 개에 인도되어 가는 그것이였다。 『오우!』 『오우!』 라고 힘차게, 이 선수 산양군들은 떠나는 것이였다。

늦은 아침 때 우리들은 〃바베큐〃라는 닭 굽는 준비를 하였다。 땅속 깊이 파낸 구멍에 불이 일고 그 위에 가늘고 긴 쇠가 걸치고、 거기에 꿰인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것이다。 불판 가장이에는 흑인들이 긴 나무가지를 들고 앉아서 파리를 쫓고 앉았었다。 그 고기의 익는 냄새는 식탁을 준비도 하기 전에 나의 식욕을 돋구는 것이였다。

식사준비에 한창 바쁠 때、 산양갔던 일행이 둘씩 셋씩 돌아왔다。 남자들은 상기해서 지쳐빠지고 말은 입거품을 물고 기진맥진한 개들은 헐떡거리고……。 그러나 잡은 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큰 사슴이 눈앞을 달아났느니 혹은 토끼를 잡을번 했다느니 말만은 기운이 있었다。 결국 개가 아무리 짐승을 쫓아 내였어도、 총 견양이 아무리 정확하였더라도 막 방아쇠를 잡아 다릴 때는 짐승은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곧 실망을 회복하고 잡은 사슴고기가 아니라 소와 돼지들의 느림뱅이 동물의 요리가 준비된 식탁에 앉았던 것이다。

어느해 여름, 나는 나의 망아지를 〃펀・쿼리〃로 데리고 갔었다。 나는 그때 마치 흑미인(黑美人)이라는 말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어서 그 말을 흑미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 말은 모든 점에 있어서 그 소설의 주인공인 흑미인과 같았다。 윤택이 나는 검은 털이며, 이마에 있는 흰 점까지 닮았었다。 나는 이

말에 타고 즐거운 때를 보내었다。 이따금 안전하다 할 때는 선생님은 고삐를 놓게 하여 맘은 제마음대로 좁은 길가에 있는 풀과 나무잎을 뜯어 씹으며 걷고 서곤 하였다。

마을 탈 생각이 없을 때는 선생님과 나는 삼림속에 들어가서 산보를 하였는데、 어떠한 때는 나무와 넝굴사이에서 길을 잊어버리어 소나、 말이 다닌 길 밖에 없을 때도 있었다。 가끔 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들어가게되어 갈 수가 없으므로 길을 돌아가는 수도 있었다。 우리가 집에 돌아 올 때에 계수나무 꽃 양치류의 식물들 남방에만 있는 수렁에서 자라는 화려한 꽃 들을 한아름씩 가지고 왔다。 가끔 〃밀드레드〃와 나의 사촌들 하고 감을 주으러 다니었다。 나는 그것들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그 냄새가 좋았으며、 또한 잎사귀와 풀을 헤치고 감을 찾는 것이 퍽 재미가 있었다。 우리는 또한 밤이나 호도들을 따러 가서 밤 껍질을 벗겨주었으며、 〃힉코리〃라는 호도와 그 외의 호도를 땄었다。

산 깊숙이 철로가 있어서 우리들은 기차가 달리는 것을 힘들지 않게 구경할 수 있었다。

때로는 기차의 기적소리에 몹시 놀라 급히 뛰어 다라나는 때도 있었다。 〃밀드레드〃는 흥분해서 소나 말이 갈길을 모르고 선로에 뛰어들었었다고 하였다。 이야기가 달라졌으나 약 일 마일쯤 떨어진 곳에 깊은 계곡에 철교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건느기가 어려웠다。 침목(枕木)과 침목사이에 간격이 너무도 뜨고 또한 폭이 너무도 좁아서 건너 가자면 칼날을 딛는 것 같았다。 그 철교를 건너간 일은 없었으나 어느날 〃밀드레드〃、〃설리반〃 선생 나 이렇게 삼림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어서 여러시간 길을 찾았으나 헛수고였었다。 돌연 〃밀

드레드"가 조그마한 손을 가리키고 『저기 철교가 보여요』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어두어 지기 시작하였고 철교는 지름길이었었다。 나는 발끝으로 다리들 더듬는 수 밖에는 없었으나 무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잘 건넜다고 생각할 무렵 멀리서 퍽퍽하는 기차소리가 들리었고 "밀드레드"가 『기차가 보인다』고 소리쳤다。 우리들은 허둥지둥 지각(支脚)에 달라 붙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에 들씌이고 재와 연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기차가 우렁차게 건느는 동안 지각이 덜덜 떨리어 우리들은 계곡속으로 떨어지지나 않을가하고 겁이 덜컹 났었다。 기차가 지나간 뒤 우리들은 안도의 숨을 길게 쉴 수 있었다。 재차 다리위로 올라섰을 때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이 텅 비어 있었다。 온 식구가 우리들을 찾으러 나간 것이었다。

제12장 〃보스톤〃의 겨울

다음 해부터 나는 거의 겨울동안을 〃보스톤〃에서 지냈었다。 그 겨울동안 나는 연못이 어름에 덮이고 들이 은세계로 아로새긴 〃뉴─잉글랜드〃의 마을을 방문하곤 하였다。 지금까지 보지못하던 눈의 비고(秘庫)속에 들어가게 된것은 그때 일이다。 나는 눈의 신비스러운 손이 나무와 숲과 단 一、三메의 우굴주굴한 입사귀를 남긴채 옷을 벗기어 놓은 것을 알게되자 무척 놀랬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새들은 다 떠나 버리고、 나무에 있는 그 빈 새집들은 눈이 가득 쌓여 있었다。 산과 들도 완전이 겨울이였다。 대지(大地)는 얼음으로 마비된 것 같았으며、 수목의 정수(精髓)까지도、 지중의 뿌리도 숨어들어가서 동민하고 있었다。 모든 생명은 후퇴(後退)하여 태양이 비추는 때라도──。

혈맥은 젊음을 잃어 늙고、 차거운 바람을 그대로 박차고 여기 일어 섰노라。

지금의 미광(微光)이여 바다와 대지를 비춰 준다면…………

말라버린 나무와 숲들은 코드름의 산림으로 변하였다。 어느날 폭풍설(暴風雪)을 예언하는 무섭게 추운 날이 왔다。 우리들은 처음으로 보는 눈을 손바닥에 움켜 쥐려고 밖으로 나갔다。 몇시간이나 몇시간이나 눈 조각은 구름이 덮인 컴컴한 대기속에 조용히 부드럽게 대지에 춤추며 떨어지고 사방은 금시에 은세계를 이루었다。 눈오는 밤에는 조용히 창가의 카─텐을 내렸다。 이튿날 아침이 되니 그 지방의 원

래의 풍경을 알아 볼 수가 없었다。 모든 길은 눈에 덮이고、경계표식 하나 서 있지 않는 눈의 세계에 앙상한 나무가지만이 뜸뜸이 서 있었다。

석양이 되니 동북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눈은 대단한 진눈까비로 변해 어디에나 함브로 날아 왔다。 큰 불을 중심으로 돌아 앉아 우리들은 외계로부터의 통신도 끊어지고 눈속의 광야(廣野)에 남아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채 유쾌한 이야기와 놀이로 밤이 깊은줄도 몰랐다。 그러나 모두 다 침대속에 들어 간 그때부터는 더욱더욱 심하게 진눈까비가 내려 나는 불안감에 싸이게 되였다。 그 무서운 바람이 산과 들을 휩쓸 때마다 나무들은 굉장이 흔들리고 그 주위의 나무들은 자꾸만 창을 때리군 하였다。

눈보라가 시작한지 셋째날이 되자 끝이였다。 해가 두꺼운 구름을 헤치고 나와서 광막(廣漠)한 음과의 평원에 비추였다。 높은 산、환상(幻想)적인 형태를 한 〃피라밋드〃、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눈 무더이가 사면에 흩어져 있었다。 눈두덕을 요리 조리 피한 조그마한 길이 만들어 졌다。 나는 외투와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가 보았다。 찬 공기는 나의 뺨을 마구 불어 쳤다。

꼬불꼬불한 눈두덕 사이의 길을 걸으며 나는 겨우 넓은 초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소나무 삼림에 도착하였다。 나무들은 아무 동료도 없이 대리석의 〃후라이스〃 견직물의 옷을 입은 것 같이 묵연히 서 있을 뿐 송엽의 냄새는 풍겨 주지 않았다。 태양의 광선은 나무위 모든 것에 비추어 우리들이 흔드는 나무에서는 나무가지들이 다이야몬드의 소나기가 되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다。 빛이 얼마나 번적거리는지 나의 암흑속 같은 눈을 뚫고 들어 오는 것 같았다。

날이 지나감에따라 눈 덤이 들은 줄어들었으나 없어지기 전에 큰 눈이 오군 하여서 때때로 수목들은 덮인 눈두덩들이 녹군하여 그 엉성한 자태를 들어 내이군 하였으나 연못은 태양이 내리 쪼이더라도 그대로 얼음이 덮인 그대로였다。

그 겨울을 통하여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였던 것은 썰매 타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호수의 제방우불가에서 급각도로 올라간 곳이 있었다。 이러한 급한 곳을 우리는 썰매를 타고 내려갔다。 우리가 썰매에 타면 남자 아이들이 밀어주었었다。 그러면 우리는 눈 덤이를 통하여 깊은 곳을 뛰어넘으며 호수로 내려가면 그 힘으로 번적거리는 호수의 표면을 지나서 저편 끝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스릴이 있고 재미 있는 놀인지 야성적인 환희에 우리들은 대지로부터 포박을 끊어버리고 자유로 대공을 뛰어 돌아가는 공기속에 휩쓸리는 것이었다。

제13장 처음 말을 할 때의 감격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一八九〇년 봄이였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본능은 말할 수 없이 강하였다。 한손은 목에다 대고 또 한손은 나의 입에다 대어 소리를 내군 하였었다。 나에 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이든 즐거운 일이였다。 그래서 고양이가 『야웅!·야웅!』우는 소리나、 개가 웡웡 짖는 때는 그 동물의 목에다 손을 대고 즐거워 했었다。 또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목에다 손을 대보는 것도 즐거웠고、 연주하는 피아노를 감촉하는 것도 좋아하였다。 내가 시력과 청각을 잃기 전에 나는 말을 외우는 것이 무척 빨랐으나、 귀가 먹은 뒤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종일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그 얼굴에 손을 대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입술이 동하는 것을 살피기가 퍽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입을 움직이며 그것을 흉내내어 아무 의미도 되지 않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의 친구들은 내가 보통 사람들처럼 울고 웃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앓고 누을 때는 말이라 할 수 없는 많은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소리를 낸다는 이것이 나의 발음기관의 자연적 요구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물」이라는 말은 그대로 명확히 발음할 수 있었다。 「무·우」라고 발음하였었다。 그 발음마저 못하게 되었던 것은 글을 배우고 나서였다。

나는 벌써부터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방법으로 의사의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귀머거리의 숙명적 의식을 하지않고 자기의 의사표시 표현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불만이 나로 하여금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애를 쓰면 쓸 수록 혼란에 빠지군 하였다。

무엇인가 타인에 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나는 깃이 돋지도 않은 날개를 가지고 폭풍속을 꿰어 뚫으려는 어린 새같이 몸부림쳤다。 나는 어떠한 곤난이 닥쳐 오더라도 입과 소리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되게 해야겠다하는 기분을 버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행여나 실망에 끝일가 두려워하여 내가 생각하는 바를 반대하였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긴 세월동안 숙원하여 마지않던 실현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것은 〃라군힐드·카ㅡ타〃의 이야기를 듣게 된 때문이다。

一八九〇년 〃라우라·브리즈만〃의 교사중의 하나였고 〃스웨덴〃과 〃노르웨이〃여행에서 돌아 온 〃람손〃부인이 나에게 와서 〃라군힐드·카ㅡ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도 앞도 못보고 귀가 먹은 여자였으나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나는 가만이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누가 뭐이라 하여도 말을 배우기로 결심을 하였다。 나는 선생님 〃호레이스만〃맹아학교 교장인 〃사라·풀러〃양에게 데려다 달라고 졸랐다。 그에게 충고와 조력을 얻을 셈이였다。 이 사랑스럽고 온후한 부인은 자기자신이 가르쳐 주겠다하여 우리는 一八九〇년 三월 二十六일부터 공부를 시작하였다。

〃풀러〃양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먼저 나의 손을 자기 얼굴에다 가만이 놓게 하여 어떠한 발음을 할 때에 그의 입술과 혀의 위치를 알게 하였다。 나는 열심으로 모방을 하여 한시간 이내에 M·P·A·S·T·I이라는 여섯개의 소리를 외울 수 있었다。 〃풀러〃양은 전부 열한개의 소리를 가르

쳐 주었다。내가 처음으로 『오늘은 따뜻하다』(It is warm.)라는 연결된 문장을 말하였을 때의 놀래움과 기쁨은 나의 종생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물론 그것은 정확하거나 유창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사람의 이야기에는 틀림 없었다。나의 영혼은 새로운 동지를 얻은 기쁨과 넓은 지식과 깨끗한 신앙을 획득하려고 분발하여 일어섰던 것이다。

자신이 들어본 일도 없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영원의 정막이 지배하는 회색의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귀머거리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이 커다란 감격을 느낄 수 있다。그러한 아이들만이 내가 열심으로 나의 작난감에、돌에、나무에、새에、말못하는 온갖 짐승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또한 내가 〃밀드레드〃를 부르면 좇아오고、개들이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볼 때의 즐거움、이러한 것들이 이런 아이들 이외에는 상상도 하지못할 일이다。자유로 천천이 힘들이지 않고 손같은 것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였다。생각해 낸 좋은 일들을 한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고심속에 살아버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였다。

그러나 내가 정말 말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나는 말하자면 말의 음식문자만을 외운 것에 지나지 않았다。〃풀러〃양과 〃설리반〃선생은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백마디에 한마디도 알아 듣지 못했었다。또한 내가 음식문자를 배운 뒤라도 그 나머지를 내 자신이 한것이라 생각하면 아니된다。〃설리반〃양의 천재적 기질과 부단의 인내、그리고 헌신적인 애정이 없었다면 결코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거기에다 나도 나의 친한 벗들에게 말할 수 있겠금 낮이나 밤이나

쉴사이 없이 연습을 하였던 것이나。 각 음성을 명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발음들을 무수한 방법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설리반〃 양의 도움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오늘에 있어서까지 내가 발음이 틀리게 나오면 언제든지 정정하여 준다。

농자(聾者) 교육자며는 누구든지 이 노력과 수고를 알 수가 있다。 나는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목의 진동、 입의 동작、 얼굴의 표정을 아는데 촉감만을 통하여 알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때로는 틀리는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는 그 말을 때로는 몇시간을 발음될 때까지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 나의 공부는 하나에서 끝까지 실험이었다。 물론 실망과 권태를 느끼는 것이 한번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오래지 않아 나는 말을 바로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순간 가족들의 기쁨에 넘친 얼굴들을 상상하고 또다시 용기를 얻어 맹열히 분발하는 것이었다。 나의 어린 동생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하는 생각이 모든 장애를 부숴버리게 하였다。 나는 『지금은 벙어리가 아니다。』하는 것을 몇번이나 몇번이나 반복하면서 공부의 성의를 다하였다。 어머니에게 말을 걸고 그 대답을 입으로부터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느낄 때 낙담할 여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었다。 손가락을 가지고 아는 것보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알고 깜짝 놀랬다。 그리고 금시 손가락 글씨를 쓰지않게 되었다。 그러나 〃설리반〃 양이나 몇몇 친구들은 대답을 할때는 입술을 읽게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해서 손가락 글씨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우리들의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탄하는 손가락 글씨에 대하여 설명하고저 한다。 나

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이야기하여주는 사람들은 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화문자(手話文字)를 쓴다。나는 나의 손을 이야기 하는 손위에 가만이 올려 놓는다。손의 위치는 책을 읽을 때 책의 위치 쯤의 곳에 놓는다。 나는 독서하는 때 누구든지 한자 한자 의식하면서 읽지 않듯이 흩어진 단어들를 느끼지 않는다。 부단히 그칠줄 모르는 연습을 하는 동안에 놀랄만한 사실로 되는 것이다。나의 친구들 중에는 숙련된 타이피스트같이 빨리 쓸 수 있는 사람도 있다。그렇게 되면 벌써 종이에다 쓰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말을 하게되니 집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꿈에서까지 그런 장면이 실현되는 것이었다。 고향을 향하여 떠나는 기차속에서도 쉬지 않고 〃설리반〃양을 상대로 말을 하였다。그것은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최후에 일각 까지라도 나쁜 곳을 고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신없이 말을 하는 동안 기차는 〃터스컴비아〃정거장에 도착되었다。 푸랫트홈에는 전 가족이 나를 마중나와 있었다。 그때의 어머니는 감격에 넘쳐 말을 못하고 내가 말을 하는 것에 일일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나를 끼어 안아 주던 일、어린 〃밀드레드〃가 나의 손에 키스하고 좋아 뛰어 돌아가던 일、아버지는 무언으로 만족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끄덕하던 믿음직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나의 눈엔 금시 눈물로 덮어주는 것이다。『모든 산이、언덕이、일제이 나의 앞에 닥쳐와 노래부르고 들의 나무들이 손벽을 치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나의 몸 위에 실현되었다。

제14장 一八九二년의 "서리왕" 사건

一八九二년의 겨울、나의 꿈많던 소녀시절에 급자기 떠오른 시커먼 구름 때문에 컴컴하게 되었다。견할 수 없는 우울、회의적(懷疑的)인 마음、 불안한 고심속에서 매일을 지냈다。 책도 읽을 기분이 나지 않았었다。오늘날에도 그 무서운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하여 지는 것 같다。내가 쓴「서리왕」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문제의 근원이었다。나는 그때 사건을 고치려고 생각하고 전부를 빼지않고 공평히 썼었지만 역시 우리들의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가 말을 하게 된 해의 가을에 그 이야기를 썼었다。 우리는 예년보다 더 오래 "펀쿼리"에 머물러 있었다。그때 "설리반" 양은 만추(晩秋)의 수목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여 주었었다。 그 얘기가 옛말에 읽던 어떠한 얘기를 소생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나는 그때 어린이들이 잘 말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버렸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구상을 잊어버리기전에 빨리 써야 한다는 신렴아래 열심히 책상에 달라 붙었었다。문장은 술술 풀려 나와서 글쓰는 것이 참 재미 있었다。 나의 마음은 글을 쓴다는 것에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말과 환상이 끄리를 물고 튀어나와 다음에서 다음으로 "브레일"식 점자판(點字板)에 쓰여졌다。그러나 말과 환상이 이렇게 노력없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그것이 나 자신의 머리에서 떠 오른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인지 모르나 튀어들어 온 것이 이렇게 술술 풀려나온 증거였었다。 그 당시에는 나는 아무 책이

나 상관없이 난독(亂讀)하였고, 읽었던 것은 그대로 어렴푸시나마 기억하게 되어 지금도 머리속에 있는 어떠한 것이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것인지 어떤 것이 어디에서 흡수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이 경향은 나의 개념형성(概念形成)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감각을 통하여 행하여 진다는 것에 강요됐다는데 있었다。

그 이야기를 다 쓰자 선생님께 읽어 들였다。그 때 발음을 교정해주고 단어의 오용(誤用)을 지적해주고 하는동안 부득이 읽는 것을 중단할 때 느낀 괴로움을 지금도 명확히 상기할 수가 있다。저녁식사 때 모여 있는 가족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들은 아름답게 엮어진 문장을 듣고 감탄하는 나머지 나에게 어디 것을 모방한게 아니냐고 묻는 것이었다。 이것에는 나는 깜짝 놀랬다。 왜냐 하면 나는 그런 책을 읽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니야요。 내가 만든거야요。 〃아나그노스〃씨를 위하여 쓴거야요。』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것을 청서(清書)하자 그의 탄신 축하도 보내였다。 제목은 「가을나무의 잎」이라 하였는데, 그것보다 「서리왕」이 좋다고 하기에 그의 의견대로 하였다。 공중으로 둥둥 떠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우편국으로 가져갔었다。

이 탄생일의 축하선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나그노스〃씨는 이 「서리왕」이 잘되고 마음에 담뿍들어서 〃퍼킨스〃학교의 기관지에다 발표하였다。 이때가 나의 행복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그 절정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것은 짧은 동안의 〃보스톤〃 체재중에 「서리왕」에 비슷한 「삼림의 요정(妖精)」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낳기 전에 〃마가렛트·T·캔비〃 양이 써서 「〃버ㅡ데〃와 그의 벗들」이란 책에 게재되었다는 것이 발견된 때문이었다。 이 두 이야기는 착상(着想)에서부터 용어(用語)까지도 너무나 같았으므로 〃설리반〃 양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읽어주었다는 것이 의심할 수 없이 들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이야기는 도적질한 문장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이해(理解)하게 하는 것은 곤난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해하게 된 때의 나의 놀램과 속크는 하두 기가막혀 눈을 가리려고 하였다。 그때의 쓰라린 고민상은 또 없을 것이었다。

나는 증오감이 충만함을 느낀 동시에 모든 것에 회의심(懷疑心)을 가지게 되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나는 열심히 「서리왕」을 쓰기 전에 읽은 삼림에 관한 이야기를 상기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겨우 생각해 낸 것은 「〃잭〃 서리」라는 보통 누구나 다 알 수 있는것과 「삼림의 작난」이라는 아동시 뿐이었다。 이 둘의 이야기를 사용치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아나그노스〃 씨는 심히 괴로워했으나 나의 말을 믿어 주었다。 그는 열심히 친절히 나를 위안해 주었으나 우연한 일에 의문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그를 괴롭히지 않기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워싱톤〃 기념일에 우울한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쾌활하게 굴려고 하였다。 그날 나는 우리들 맹인(盲人)에게 보내 온 가면을 쓰고 맹아 소년들이 출연할 가면 극에서 나는 〃세레스〃의 역활을 하게 되어 있었다。 호화스러운 의장、 광채나는 황엽(黃葉)의 두건、 발밑에 벌려져 있는 과실에 싸여

외면상 화려하게 보인 나였으나 마음은 점점 복잡해가는 이 문제의 암운(暗雲)때문에 것잡을 수 없이 우울해지는 것이였다。기념식 전날밤에 맹아학교의 한 교원이 「서리왕」에 대한 여러가지 일을 물었다。그래서 나는 「〃작〃서리」와 그의 훌륭한 활약을 〃설리반〃양이 이야기 하여주었다고 대답하였다。그 선생은 이것을 〃캔비〃부인의 「삼림의 요정」을 읽은 것으로 안다는 고백을 의미한다고 간주하였다。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의 생각은 그대로 전달되었다。

일단 그렇겠노라고 믿어버린 〃아나그노스〃씨는 내가 울음에 섞인 항의를 했으나 냉정히 받아주지 않았다。그는 〃설리반〃양과 내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훔쳐가지고 자기의 존경을 얻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해 버렸다。우리들은 교원과 학교 역원으로 구성된 의원회 석상에 불려 나갔다。그리고 〃설리반〃양은 나를 교육시킬 자격이 없다고 선언되였다。나는 유도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무서운 질문의 화살을 받았다。그 질문 하나하나에 그들의 가슴속 깊이 뿌리박은 의문과 지금까지 친절하게 대하여주던 마음가짐이 급자기 냉정히 돌변한 경멸적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혈맥은 급히 뛰고 겨우 생각해 낸 답변이 나오는 것은 한마디씩의 짧은 것이였다。그 방을 나가도 좋다고 말하였을 때 나의 머리는 혼란을 이루어 나의 선생님의 따뜻한 포옹도、동무들의 찬사도 전혀 받아 들일 수가 없었다。

그날밤에 자리에 누어서 일찌기 울어보지 못한 울음을 터뜨렸다。그날밤은 상당히 추운 날이어서 『울면서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였다。이 생각이 나의 흥분을 가라앉차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그리고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만일 이 사건이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일어났었던들 나는 두번다시 명랑한 어린

이로 돌아올 수 없는 정도의 타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으로 망각의 천사가 마음 구석구석까지 그 먼지를 거두어 가지고 가버리었다。

〃설리반〃 양은 「삼림의 요정」이라는 것도、 그것이 실린 책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선생님은 〃알렉산더・그라암・벨〃 박사와 더불어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았는데、 결국 〃소피아・C・홉킨스〃 부인이 一八八八년에 〃캔비〃 양이 쓴「〃버ー데〃와 그의 벗들」이라는 책을 한권 가지고 있던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해는 우리가 여름을 〃부르스터〃 해안에서 지내었다。 그것을 알았을 때 〃홉킨스〃 부인은 책을 찾으려고 애를 썼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설리반〃 양이 휴가로 여행을 갔을 때 나를 심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어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나 그도 「삼림의 요정」을 읽은 기억은 없었다。 그러나 그중에 「〃버ー데〃와 그의 벗들」 이라하는 책은 확실히 있었다。 그는 그 책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급자기 집을 팔고、 책도 또한 함께 많이 처분해 버렸기 때문에 그 「〃버ー데〃와 그의 벗들」 이라는 것도 거기에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 당시 읽어 준 이야기는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아무 즐거움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단 한자의 글자 형태라도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나는 그 책을 읽어 줄 때의 일이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지만 이야기의 줄거리만은 〃설리반〃 양이 돌아오며는 이야기 하여 주겠다고 열심으로 외운 것 같다。 그리고 그 표현과 단어들은 깊이 나의 뇌수에 아로새겨졌었다。

〃설리반〃 양이 돌아왔을 때 「삼림의 요정」의 이야기는 하지않았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

리게 할만큼 재미가 있던「젊은〃폰트레로이〃경」을 선생님이 오자마자 읽어 주기 시작한 까닭이었다。 그러나〃캔비〃양의 그 책을 누가 읽어주었던 것은 사실일 것이었다。 뒤에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소생하려면 마치 다른 아이들 머리속에 들어가서 소생시키려는 것 같았다。

이 곤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는 여러사람의 동정을 표하는 멧세이지를 받았다。 단 한사람의 예외를 제하고는 누구든 나를 버리지는 않았다。

〃캔비〃양 자신도 자필로『언제든지 당신은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당신자신의 머리에서 짜낼 것입니다。』라는 친절한 편지를 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후의에도 불구하고 그예언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있은후 오랫동안 나는 내가 쓴 것이 정말 내가 생각해 내어 쓴 것일까 하는 의문으로 괴로워하였다。 편지를 쓰면서도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당시에도——지금 쓰고 있는 문장은 언제 한번 읽은 일이 있지않나 하는 의문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몇번이나 쓰고 고치고 쓰고 하였다。 만일〃설리반〃양이 계속적으로 장려하여 주지아니 하였던들 나는 쓰려고 하는 마음조차 포기하였을 것이다。

나는「삼림의 요정」을 읽고 나서는 계속하여〃캔비〃양의 표현을 빌려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一八九一년 七월 二十九일부〃아나그노스〃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단어에서 문장에 이르기까지 같은 것이 있었다。 이러한 예는「서리왕」에서도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그의 문장에서부터 깊이 인상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설리반〃양에게 독백(獨白)같은 말투로『그 아름

다움은 여름이 지난 슬픔을 위안할 만큼 넘쳐 흐르고 있다」』등, 「삼림의 요정」 그대로의 표현을 사용하여 황엽(黃葉)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곤 했었다.

흥미깊었던 것을 동화 흡수하여 그것을 나의 것으로 다시 표현하는 습관들은 나의 초기의 서한문과 작문에 많이 나타나 있다. 〃희랍〃과 〃로마〃의 도시에 대한 나의 작문에는 역시 유명한 책에서 그 표현을 인용하였다. 어떤 날 나는 〃아나그노스〃씨가 〃로마〃와 〃희랍〃에 대하여 강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읽은 모든 책에서 그것에 관한 문장과 시를 모아 작문을 지었다. 나의 작문을 읽고 〃아나그노스〃씨는 『이러한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시적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가 눈멀고 귀먹은 열한살 된 어린이가 어찌하여 이러한 것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못한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그러한 생각들을 동찰하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것들에 취미가 없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 사실은 내가 명석하고 감동적인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답고 시적인 생각을 나는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초기의 작문은 나의 정신적 체조이었다. 모든 초심자 같이 동화작용(同化作用)과 모방으로 인하여 많은 지식을 저축할 수 있었다. 좋아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책에서 발견하면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스티븐슨〃이 말한 바와 같이 젊은 사람은 무엇이나 흠모할만한 것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모방한다. 그리고 모방한다는 그것이 굉장한 변모를 다채하게 쓰게 한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였고, 이 과정을 지난

뒤에 비로소 한이 없는 많은 말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이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것 같다。 확실히 나는 나의 사고력에서 나온 것과、 내가 읽은 것에서 얻은 생각을 구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먼저는 다른사람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나의 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나의 문장은 예외없이 七、八세 된 아이들의 손이 될 보칠세공(補綴細工)같은 것이다。 이 보철세공 속에는 여러가지 잡동산으로 된 것도 있지만 그중에는 비로―도나 견직물로 꿰매져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이는 것은 보기에도 싫은 흑색(黑色)이나 회색의 천일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나의 문장도 위대한 문호의 화려한 표현이나 심원한 의미를 가진 단어도 끼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전체의 인상이란 미숙한 알아 채릴수 없이 희미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 문장을 쓰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가 좋도록 생각한 사방으로 흩어진 생각을 합리적인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려고 애쓰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문장을 쓴다는 것은 중국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속에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막상 표현하려할 때 그 말들을 써 놓고 보면 너무 말이 광범위한 것 같고 너무 가벼운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든지 열등(劣等)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곤난한 일에 열심히 조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독창적으로 되려면 그와 같이 생겨날 방법 밖에 없다』라고 〃스티븐슨〃은 말하였다。 나는 그와 갈이 생겨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빌려쓰는 문장이 언젠가는 반드시 독창적이 되리라 하는 것을 희망

하고 있다。그 때에는 아마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표면에 나타날 것이다。우선 나는 믿고 바라고 인내하여「서리왕」의 쓴 경험을 헛되게 그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이 사건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다。 나의 유일한 유감은 이 사건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중 하나인 〃아나그노스〃씨를 잊어버리게한 것이다。

「나의 생애의 이야기」라는 글이「부인 가정잡지」에 게재가 되자 〃아나그노스〃씨는 〃메이시〃씨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서리왕」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는 내가 무죄한 것으로 믿였다고 말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심문을 받은 조사단은 여덟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네 사람은 앞을 못보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네사람은 보통 사람이었다。그중 네사람은 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아나그노스〃씨도 그중 한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정이 또 〃아나그노스〃씨의 의견이 어떻하였다손 치더라도 내가 들어갔을 때 전에는 그렇게도 따뜻한 애정에 넘치고 있던 그 방이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 뿐이고 악의와 증오에 넘친 분위기였었다。 실로 이 분위기 때문에 나의 고민은 일어났던 것이다。처음의 二년간은 그는 〃설리반〃양과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 그는 이 고마운 신렴을 철회하였었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가 계속되었는지 모른다。또 그 위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출석하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몹시 흥분되였고 겁이 나고 무엇이 무엇인지 몰랐었다。어떤 것을 질문하는 것인지、내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서리왕」의 사건이 나의 반생과 교육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기 써 본 것이다。오해를 사면 안되기 때문에 자기 변호를 한다거나 반대측에 서 있는 사람들을 책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나는 단지 내 눈에 비춘 사실만을 써 본 따름인 것이다。

제15장 만국박람회 견학

「서리왕」사건이 일어난 해는 여름도、겨울도 나는 가족과 더불어 "알라바마" 에서 지냈다。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유쾌한 기분으로 회상한다。거기에는 모든 식물들이 재싹이 트고、꽃이 피고 있었다。나는 행복감을 느꼈다。「서리왕」은 머리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땅에 진홍빛과 황금색의 가을 잎사귀가 날아 떨어지며 덮이고、정원 구석구석까지 쌓인 잎사귀 속에서 사향(麝香)냄새가 풍기는 포도나무의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황금갈색으로 빛나는 그 당시에 나는 나의 생활기록을 쓰기 시작하였다。그것은 내가 「서리왕」을 쓴 일년 후의 일이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쓰는 문장에 신경질적 주의를 계속하여 왔다。내가 쓴 문장이 불행히도 인정안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나를 더욱 괴롭히였다。이러한 공포심을 나의 선생님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나는 극도로 「서리왕」에 대한 얘기를 입밖에 내는 것을 피했었다。

우연히 그 얘기가 나오면 나는 선생님의 손에다 『나의 작품인지 분명히 모르겠읍니다。』라고 썼다。또 어떤 때에는 한구절의 글을 쓰다가도 『이러한 것들이 오래 전에 누가 벌써 썼으면 어쩌하나!』하는 생각이 떠오른 일도 있었다。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면 나는 그 날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

오늘날 까지에도 나는 이 같은 불안과 동요가 가끔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는 때가 있다。"설리반" 양은 능려것 또 될 수 있는 한 나를 위안하였고、격려하여 주었다。그러나 내가 겪은 이 무서운 사건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더욱 커다란 타격을 나의 마음속에 겹쳐 놓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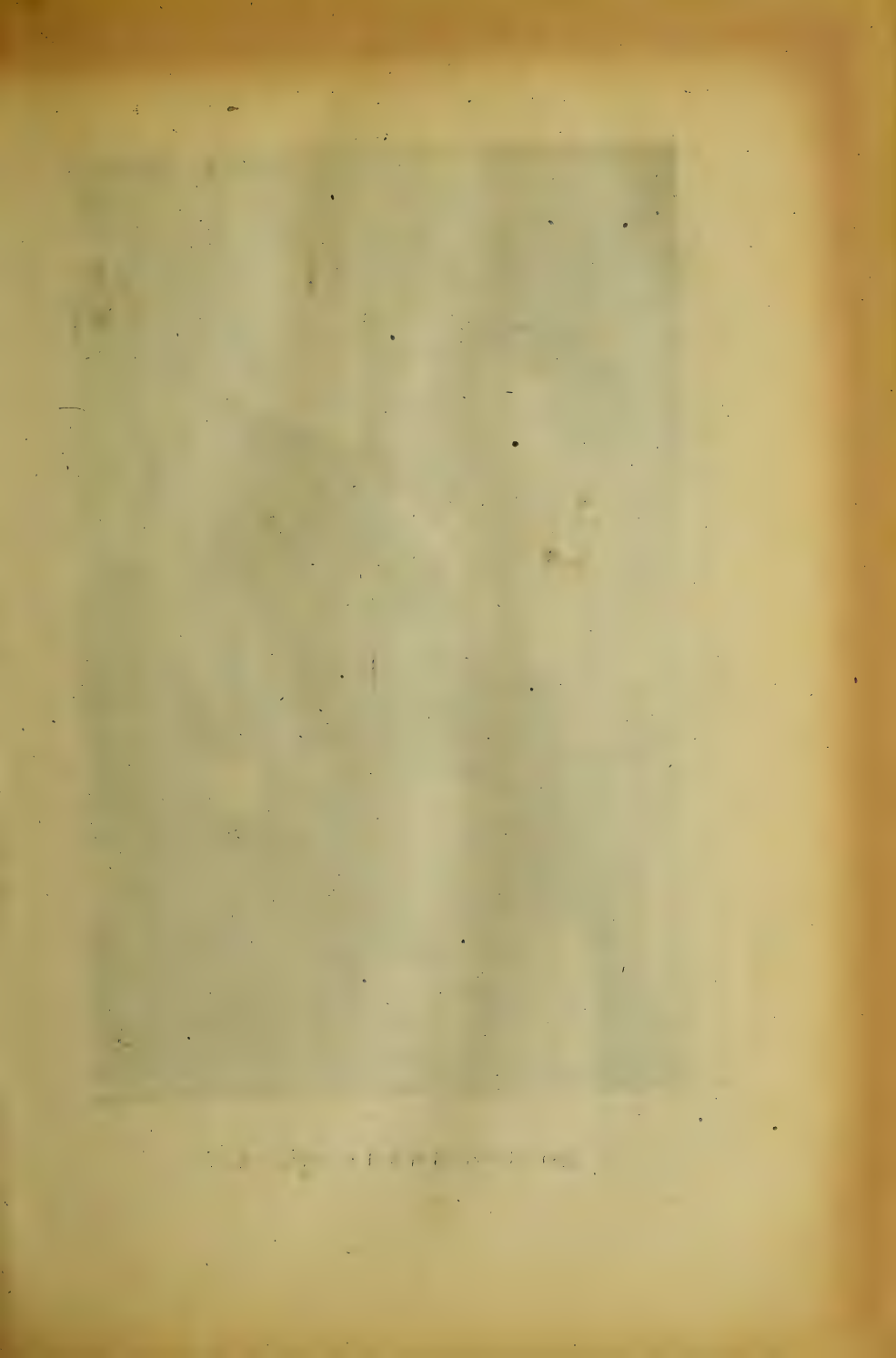
〃설리반〃양이 「청년의 벗」이라는 잡지에다 「나의 생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짧은 문장을 기고(寄稿)하라고 나에게 설득(說得)한 것은 나의 자신을 회복시키려는 희망에서였다。 그때 나는 열두살이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장을 기고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확실히 실패하였을 것이다。

나는 두려워 했으나、 그러나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썼다。 옆에는 언제나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하면 틀림 없이 재차 자신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확신한 선생님이 붙어 있었다。

「서리왕」의 사건이 있기전 까지는 나는 지각없는 어린이었으나 그 사건이 있은 후로는 나의 눈은 내면에 향해가는 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응시하게 되었다。 나는 실행에 의해서 얻은 맑은 마음과 실생활에로의 정당한 인식으로 이 사건의 그늘에서부터 빠져나갔던 것이다。

一八九三년 의 중요한 사건은 〃클리브랜드〃대통령 취임식 중에 〃워싱톤〃방문、 〃나이아가라〃여행、 그리고 만국방람회를 본 것이었다。 이러한 바쁜 생활 때문에 나의 공부는 부단히 중단되었으며、 때로는 몇주일씩 전폐가 되었었다。 그런 이유로 공부에 대한 연결된 기록은 쓸 수가 없다。

一八九三년 三월에 우리는 〃나이아가라〃에 갔다。 〃아메리카〃대폭포 옆에 서서 대기가 전률하고 대지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을 때의 나의 흥분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나이아가라〃의 경의적 아름다움과 굉장히 큰 규모에 깜짝 놀랬다면 고지듣자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묻는다。

켈러 여사와 알렉산더·그라암·벨 박사

「이 대경관(大景觀)이나 대음악(大音樂)이 당신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신은 폭포밑 큰 파도가 이는 것도 보지 못하며 대지를 흔드는 대음향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나에게 만일 이 대폭포의 매력을 설명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든지 종교라든지 하는 정의를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一八九三년 여름에 〃설리반〃 양과 나는 〃알렉산더·그라암·벨〃 박사에게 대동되어 만국 박람회를 구경갔었다。 나는 이 어린 마음가짐과 같은 기상천외(奇想天外)같은 것을 회상할 때마다 대단히 복잡한 감격을 새롭게 한다。 우리들은 매일 상상속에서 세계일주여행을 하였다。 발명의 경이품、 산업과 기술이 만들어 낸 보배、 인간생활의 모든 활동 등 세계 구석구석으로부터 모인 많은 것을 보고 돌아나녔다。

나는 〃미드웨이·플레이산스〃가 좋았다。 그것은 「아라비안·나이트」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고귀한 것、 이상스러운 것 등으로 꽉 차 있었다。 내가 책으로 읽은 코기리의 신(神)이라든지、 〃시봐〃의 신이라든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의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도(印度)도 있었다。 또 회교사원(回敎寺院)、 낙타대상들이 행진하는 〃피라밋트〃의 나라 〃에집트〃、 물의 도시 〃베니스〃도 있었다。 〃베니스〃에서 우리들은 저녁노을이 아로새긴 시가에서 물들이 오랜지 빛이 될 때까지 배를 타고 놀았다。 또 조그마한 배들이 모인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해적선에도 타 보았다。 나는 이전에 〃보스톤〃에서 군함을 타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다의 남아들의 두뇌와 근육과 자존심만을 의뢰한 생활을 상상해 보았다。

이 배 근처에 〃산타·마리아〃의 복제(復製)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열심으로 견학하였다。
이 배의 선장은 〃코롬브스〃의 선실에 안내하여 책상 위에 있는 모래시계(砂時計)를 보여 주었다。 이 조그마한 기계가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왜냐 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닫은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하고 있을 때 모래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응시하며、 그 영웅적인 항해자가 얼마나 지루하였나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박람회 주최자인 〃히긴보담〃씨는 친절하게도 그 전시품들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것을 허가하여 주었다。 나는 〃피싸로〃가 〃페루〃의 보물을 약탈할 때에 느끼었을 그러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나는 손가락으로 박람회의 정화(精華)스러운 것들을 흡수하였다。 서부에 급조되었던 도시는 손으로 감촉할 수 있는 만화경(萬華鏡)이었다。 모든 것이 다 재미있었지만 그중에 제일 나를 혹하게 하였던 것은 〃프랑스〃의 청동 조각이었다。 그 살붙임은 참으로 실물과 같아서 이것을 만들은 예술가는 지상세계의 소재(素才)를 신의 세계의 영혼까지 끌어올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희망봉 회장에서는 금강석 채굴에 대한 여러가지 과정을 견학하였다。 만져도 좋다고할 때마다 실제로 기계가 움직일 때에 손으로 만져보며 계량이나 쇄석(碎石) 그리고 연마의 과정을 배웠다。 나는 또 세척기(洗滌機)에 떨어져 있는 금강석을 하나 붙잡았는데 『이것이야말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최초의 〃다이야〃이다』라고 놀림을 받았다。

〃벨〃박사는 한시라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쓸데 없는 것이라 하여도 매력이 있는 것으로 독창적

인 설명을 하여주는것이었다. 선기관에서는 전화기, 자동전화기, 축음기, 기타의 발명품을 전하하였다。그는 또한 공간을 무시하고 시간보다 빠르게 가는 선으로 통신을 전하는 방법을 이해시켜 주었으며, 또한 〃프로머티우스〃나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불도 가져 오는 것도 이야기 하여 주었다。인류학 회장에도 가 보았다。나는 대 자연의 글자같은 것도 모르는 어린이다 (나는 그때 손으로 만져 보면서 생각했었다)。태고인의 단순한 기념물이었고 또 동시에 그 시대의 유일한 생활기록에 해당하는 석제의 〃메키시코〃유물을 만져본다는 것도, 무서운 〃에집트〃의 〃미이라〃, 왕, 성자의 훌륭한 기념물이 땅속 깊이 파묻혀 버리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살아있다는 것에 감명이 되었다。이와 같은 것에서 나는 책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바람회에서의 견문은 나의 어조를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고 단지 삼수일간에 요정담(妖精譚)이나, 장난감의 어린이세계로부터 실제의 역동적인 진전을 계속할 어른들의 세계로 나의 말은 진보를 보여 주었다。

제 16 장 라틴어를 배움

一八九三년 十월 까지의 나의 공부는 산만(散漫)하여 변변치 못한 것이었다。 나는 〃희랍〃、〃로마〃 미국의 역사들을 읽고 있었다。 또 그당시 나는 凸판으로 되어 있는 불란서 말 문법 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으로 불란서 말을 조금 알았을 때 어려운 문법적 지식이나 학술어를 쓰지 않아도 좋은 짧고 간단한 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나는 이 새로운 단어의 의미나 발음도 나 혼자 힘으로 통달하려고 하여 보았다。 물론 이것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는 격이었지만 그러나 비가 오는 날은 지루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였으며、 〃라·폰테인〃의 「우화집(寓話集)」、「마음에 안드는 의료(醫療)」、「아다리」 같은 것을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되었다。

나는 또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나의 말을 고치려 하였다。 큰소리로 책을 읽었고、 이미 기억한 시의 일절을 읊으면서 〃설리반〃양에게 들려 주었다。 그는 내 발음을 정정해 주고 음절을 짜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계속되었으나、 내가 시간을 정하여 특정한 방침을 세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 것은 一八九三년 十월 만국박람회에서의 감격과 피로가 겨우 진정된 당시에서부터였다。

그때에 나와 〃설리반〃양은 〃펜실바니아〃의 〃헐튼〃에 가서 〃윌리암·웨이드〃씨를 방문하여 체재중이었다。 그 옆집에 사는 〃아이언스〃씨는 〃라틴〃학자였으므로 나는 그의 지도를 받아 공부를 할 수선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쩌다 볼 수 있는 온후한 성격을 가졌고、 또 넓은 박식의 소유자였다。 그는 주로

〃라틴〃 문법을 가르쳐 주었으나 가끔 산수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었다。 그는 또한 나에게 〃테니슨〃의 「인·메모리암」을 읽어 주었다。 나는 그전까지도 여러가지 책은 읽었으나 이렇게까지 숙고하면서 읽은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저자에 대한 지식과, 그 문체에 유의하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라틴〃 문법을 배우기가 싫었다。 의미를 알 수 있는 말도, 이것은 명사요, 소유격이요, 단수요, 그의 성은 여성이요 하고 지루하게 늘어놓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만일 내가 고양이의 〃타비〃를 잘 알려고 하기때문에 문(門)은 척수동물(脊髓動物), 목(目)은 포유류(哺乳類), 강(綱)은 사지수(四肢獸), 과(科)는 고양이, 속(屬)도 고양이, 개별(個別)은 〃타비〃 라고 분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자꾸만 해 버릇하니까 점점 흥미가 생겨 이 아름다운 것이 나를 이끌게 하였다。 나는 〃라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말들을 주어보고 모르는 말들의 의미를 상상하곤 하였다。 그것은 소일한는데 즐거운 것이었다。

나에게는 내가 배워 익힌 신선한 말들이 쓰이는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를 꿈같이 돌아다니는 정도로 즐거운 것을 생각해 낼 수가 없다。 〃설리반〃 양은 내 옆에 앉아서 〃아이언스〃 씨가 말하는 것을 전부 내손에다 쓰고 또 새로운 말들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하여 주었다。 〃알라바마〃에 있는 우리집에 갈 무렵에는 〃씨—사〃의 「〃가리야〃 전기」를 읽을 정도로 진전되었었다。

제17장 독일어·불어를 배움

一八九四년 여름에 〃샤우토카〃서 열리는 전미농자회화 교육촉진대회(全美聾者會話敎育促進大會)에 나는 출석했었다。 거기에서 나는 〃뉴욕〃에 있는 〃라잇트·휴마손〃 맹아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해 十월에 〃설리반〃양과 더불어 그곳에 왔었다。 그 학교는 특별히 선출된 귀먹은 사람들이 최고의 회화능력을 가지려는 목적하에 설립된 학교였다。 회화 외에 나는 재학중 二년간 산수、지리、독일어、불어를 공부하였다。

나의 독일어의 선생인 〃리미〃양은 수화문자(手話文字)를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독일어의 단어를 외우자 기회 있는대로 독일어로 말을 붙였다。 그래서 二、三개월 후는 그의 말하는 것을 대개 알 수 있는 정도까지 되였다。 一년도 채 못되어 나는 「윌헬름·텔」을 감격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 실제로 독일어의 진보성은 놀랠 정도의 것이였다。 나의 불어선생은 〃올리비어〃부인이라는 〃프랑스〃사람이였으나 그는 수화문자를 몰랐으므로 전부를 회화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독일어같이 그렇게 빨리 진보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드는 의료」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도 대단히 재미있었으나 「윌헬름·텔」같이 느꼈던 감격에 비할 수는 없었다。

독순술(讀唇術)、회화、선생과 나、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꿈이었고、선생님이나 나도 이 꿈을 틀림없이 실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의 진보는 보지 못했다。 아마도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초조감도 다른 사람보다 더 했었다。 이야기는 바꾸어지지만 그때까지도 산수라는 것은 역시 일종의 조직된 함정으로 생각이 되었다。 추리(推理)라는 넓은 계곡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내 자신에 대하여는 극히 곤난하게 되어 위험한 추측(推測)이라는 선(線)에서 방황하였다。 내가 추측을 아니할 때는 근거 없이 결론으로 껑충 뛰어갔으므로 이 결점은 이 방면에 재주가 없는 데서 혹은 필요 이상으로 나의 곤난을 증가시키었다。

물론 이러한 실망은 여러번 나의 기분을 우울하게 하였지마는 다른 과목들 특히 자연、지리는 변함 없는 취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다。 구약성서에 아름답게 묘사된 하늘의 네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모양 땅 위에서 올라가는 수증기의 일、암석을 침식(侵蝕)하면서 흐르는 개울、나무뿌리로 뒤집힌 산들의 얘기와 인간은 어느때가 되면 지구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의 신비스러운 것을 찾아내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었다。 〃뉴욕〃의 이 두 해는 참으로 행복하였다。 언제든지 그때 일을 기꺼운 생각으로 회고하는 것이다。

특히 인상에 남았던 것은 시내에서 제일 즐겨워했던 중앙공원의 산보였었다。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 하여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다。 매일매일 그 공원은 자태를 달리하여 나를 매혹시키려 하고 있었다。

봄이 되면 우리들은 여러 명승지에 수학여행을 했다。 언젠가 〃허드슨〃 강을 여행하여 〃부리안트〃가 즐겨워 시(詩)의 테—마로 하던 푸른 제방을 거닐고 있었다。 그 단백(淡白)하고 야성적인 뚝의 웅장한

것이 나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또 언젠가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태리타운〃、 〃워싱톤・어ー빙〃의 집들을 방문하였었다。 그 집에서는 〃잠자는 동굴〃을 드나들곤 하였던 것이다。

〃라잇트・휴마슨〃 학교의 교원들은 귀머거리 어린이들에게도 보통 사람들처럼 즐거움을 가지게 하고 우울한 마음을 명랑하게 고쳐주려고 밤이나 낮이나 노력하고 있었다。

내가 〃뉴욕〃을 떠나기 직전에 나의 아버지의 별세를 때놓고는 내가 가졌던 중 제일 큰 슬픔의 하나인 〃보스톤〃의 〃쫀・P・스폴딩〃 씨의 부고를 받았다。 그의 인품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나에게 베풀어 준 우의와 동정심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름답고 겸손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곤 하였다。 더구나 〃설리반〃 양과 내게 대하여서는 더욱 친절하였고 인자하였다。 그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들을 굽어 볼 때、 또한 그가 고난이 많은 우리의 일을 흥미를 가지고 격려하여 줄 때、 어떠한 곤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곤난을 극복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나의 생애에 다시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남겨 놓았다。

제18장 〃캠브리지〃여학교 입학과 대학입학 예비시험

一八九三년 十월에 〃래드클리프〃 대학입학을 준비하기 위하여 〃캠브리지〃 여학교에 들어갔다。 내가 어린 소녀시대에 〃웰스리〃에 갔을 때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내가 크면 대학에 간다。 그것도 〃하바드〃에 간다。』라고 하였을 때 깜짝 놀랬던 것을 생각해 낸다。 왜 네가 〃웰스리〃를 택하였느냐고 질문을 받을라치면 나는 『그렇지만 그곳에는 여자밖에 없지않아요。』라고 대답하였다。 대학에 가겠다는 희망이 나의 가슴에 뿌리를 박아놓았던 것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윤곽이 확실하여진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울어나오는 현명한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을 보며、 귀로 듣는 사람들과 루쟁해서 학위를 얻기 위하여 경쟁을 할 때가 왔다。 〃뉴욕〃을 떠날 때에 이 결심은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것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캠브리지〃를 가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것이 〃하바드〃에 입학하겠다고 나의 어린 방언이 실현되는 최단(最短) 코ㅣ스였다。

이 계획은 〃설리반〃양을 동반하여 강의 내용을 내게 통역하게 하도록 하였다。

물론 그곳 선생님들은 정상적인 학생 이외에는 가르쳐 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나와 그들의 의사소통은 독순술로 행하여졌다。 나의 첫해의 공부는 영국역사、 영문학、 독일어、 불어、 산수、 라틴어 작문과 때때로 작문을 짓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대학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공부한 것은 물론 아니였다。 그러나 〃설리반〃양의 덕택으로 국어의 기초는 충분했으므로 선생님들은 대학에서 요구되는 책의 비평적 공부

외는 특별한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불어의 기초도 충분하였었고 라틴어도 六개월간 공부하였고 독일어는 말할 것도 없이 잘 했었다。

이러한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부는 커다란 장해가 가로놓여 있었다。 〃설리반〃양은 나에게 한권의 책을 이해할 정도의 것을 나의 손에다 쓸 수는 없는 것이었다。 또 교과서를 점자판으로 만든 다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런던〃과 〃필라델피아〃에서는 동정에 넘친 편지가 왔었다。 나는 친구들과의 낭독회 때문에 〃라틴〃어의 책을 〃브레일〃식 점자로 고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도 나의 선생들은 오라지 않아 나의 불충분한 말을 알아듣게 되어 내가 질문을 하더라도 곧 이해하고 나의 틀린 것을 정정해줄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 나는 교실에서 필기를 할 수 없고 또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집에서 타이프라이터로 하였다。

매일과 같이 〃설리반〃양은 한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교실에서 선생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나의 손에다 써 주었다。 자습시간에는 나를 위하여 새로운 글자들을 사전에서 찾아주었고、 필기한 것과 맹인이 읽도록 된 점자책이 아닌 책들을 읽고 또다시 읽어 주었다。 그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 가는 거의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나의 독일어선생 〃그뢰테〃부인과 교장선생님 〃길만〃씨는 나를 위하여 수화 문자를 배워주었다。 그들은 〃설리반〃양에게 조금이라도 휴양을 시키려고 매주 二회 특별히 나의 손에다 애를 쓰면서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내게 친절하였고、 또한 즐겨이 나를 도와주려 하였으나 이 고역을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게 한 것은 실로 〃설리반〃양의 바른 손이었다。

그 해 나는 산수책 한권, "라틴" 어문법, 그리고 "씨ー사"의 "가리야" 전기(戰記)」의 三장을 읽었다。 독일어는 "쉴리반"양의 도움을 얻어 "쉴러"의 「종(鍾)을 위한 노래」, 「물오리」, "하이네"의 「겨울의 여행」, "푸레타그"의 「"프레데릭"대왕의 국가」, "리일"의 「아름다움을 저주하노라」, "레씽"의 「"베룬헬"의 민나」, "괴테"의 「나의 인생」을 읽었다。 그 중에서도 "쉴러"의 서정성(抒情性), "푸레데릭"의 대왕의 훌륭한 업적, 거기에다 "괴테"의 생활의 사소한 일까지 읽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재미있는 것이었다。 나는 자연히 자기자신의 감정이요, 연인이요, 그리고 영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말과 매력적인 묘사로 인한 포도넝쿨이 얽긴 언덕, 태양에 비치어 춤추며 노래하며 흐르는 개울, 전통과 전설이 풍부한 미개지, 꿈속의 옛날에 자태를 감춘 "후랜시스코"파의 여승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겨울의 여행」을 읽어 치운다는 것이 한없이 서운해서 견딜 수 없었다。

"길만"씨는 영국문학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들은 「좋은대로」, "버ー크"의 「"아메리카"와의 화해감에 대하여」, "마콜리"의 「"사무엘·존슨"의 생애」 등을 같이 읽었다。 "길만"씨의 역사적 문화적인 지식의 풍부함은 교실에서 필요한 간단한 설명이나, "노ー트"를 기계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공부하기도 쉽고 또한 더 유쾌도 하였다。

"버ー크"의 연설은 내가 정치에 관한 책을 읽은 중에서 제일 훌륭하게 된 것이었다。 불안에 떨던 전쟁시대와 상쟁(相爭)하는 양 국민의 생활이 여실히 나타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당당한 거도(巨濤)가 동하는 것 같은 웅변을 읽을 때 왜 "죠ー지"왕과 그 대신들이 "아메리카"의 승리와 영국의

굴욕(屈辱)을 예언하는 경고에 귀를 귀울이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상해서 견딜 수 없었다。 또 나는 이위대한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정당을 위한 사소하고 질려나는 것도 읽었다。 이와 같은 진리와 지성의 귀중한 씨가 어찌하여 무지와 부패의 거칠은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안되었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와는 다른 의미로 〃마콜리〃의 「〃사무엘·죤슨〃의 생애」는 재미있었다。 나의 마음은 곤경속에서 고통의 빵을 씹으면서 빈곤한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원조의 손을 뻗친 고상하고 높은 인품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그의 성공을 축복하였다。 그의 여러가지의 결점은 보아도 본체 만체하였고、 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떠한 곤난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일어선 강한 의지력에 감격하였다。 나는 〃마콜리〃의 진부(陳腐)한 것도 신선하게 느끼어지게 하였고、 호화스러운 그림를 갈이 만드는 수완에도 감복되었으나 그러나 그의 지나친 주장이 질려을 자아 낸 것을 느끼었고、 효과만을 노리고 진실한 것을 생략한 태도에는 내가 전에 대영제국의 〃데모스테네스〃로 숭배한 태도를 벼경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나는 〃캠브리지〃학교에서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동년배의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 학교에서도 나는 특색의 하나이었던 학교와 기둥이 연결된 (전에 〃하우엘〃씨가 살고 있었던) 집에 四五명의 친구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가정생활 기분을 마음껏 즐겼다。 만약에 맹인의 눈속 행군 같은 놀이를 하면 나는 그들의 놀이에 될 수 있는 한 많이 참가하였다。 그들과 같이 산보를 하였고、 공부같은 것

을 토론하였고, 재미 있다 하는 책들을 서로 읽곤 하였다。 그들 중에는 〃설리반〃 양의 통역이 없이도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화문자를 배운 사람도 있었다。

크리스마스 휴가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와 같이 지냈다。 〃길만〃 씨는 친절하게도 〃밀드레드〃를 그의 학교에 입학시켰으면 어떻냐고 물어 보는 것이었다。 그러한 친절로 〃밀드레드〃는 나와 같이 〃켐브리지〃에 있게되어 우리는 행복된 육개월을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 기간중 둘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공부하고 놀았던 것은 언제 생각하여도 마음이 누구러지는 즐거운 회상이 아닐 수 없다。

〃래드클리프〃에 들어가는 예비 시험을 一八九七년 六월 二十九일부터 七월 三일까지 치렀다。 내가 선택한 것은 기초독일어, 상급독일어, 불어, 라틴어, 국어, 희랍어, 그리고 로마역사를 九시간에 치르는 것이었다。 전부가 급제되었으며, 특히 국어와 독일어에 있어서는 영예의 상을 받았다。 앞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 때의 모양을 쓰기로 한다。 기초과목의 十二시간, 상급과목의 四시간, 합계 十六시간으로 답안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五시간은 예비시간으로 되어 있다。 답안용지는 九시에 〃하바드〃에서 배포되어 학교직원이 〃래드클리프〃에서 가져 온다。 수험생들은 전부 번호로 식별된다。 나는 二三三번이었다。 타이프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타이프라이터의 소리가 다른 학생들을 방해할는지도 모른다고 나는 딴 방에서 혼자 수험하기로 되었다。 〃길만〃 씨가 전부의 답안용지를 수화문자로 나에게 읽어 주었다。 또 한 사람이 방해를 막으려고

입구에서 있었다。

첫날은 독일어를 치렀다。 〃길만〃 씨가 내옆에 앉아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에는 문장마다 천천이 읽어 주었다。 나는 문제를 알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큰 소리로 복창하였다。 문제는 어려운 것이어서 타이프라이터로 답안을 써가면서도 근심이 되었다。 〃길만〃 씨는 내가 타이프라이터로 쓴 것을 나에게 다시 손에다 써 주었다。 그리하여 틀렸다고 생각되는 곳을 정정하여 〃길만〃 씨에게 써 넣게 하였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유리한 시험을 그 후 치른 일이 없다는 것을 특기하지 않을 수 없다。 〃래드클리프〃 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문제를 읽어 준 사람이 없었고、 내가 쓴 것을 다시 한번 써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시간전에 마치지 않으면 틀린 곳을 고칠 기회가 없었다。 그러한 때는 허락을 받은 몇분동안에 기억되는 잘못된 것만을 시험지 끝에다 겨우 기록할 수 있었다。 최종시험에서보다 준비시험의 성적이 나았다고 한다면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예비시험은 〃켐브리지〃 에 입학하기전부터 배운 과목을 선택한 탓도 있었고、 또 〃길만〃 씨가 그 학년초에 전년도에 〃하바드〃 대학 입시문제를 나에게 보여주어、 그것을 해보니 국어、 역사、 불어、 더욱이 독일어에는 좋은 점수로 통과할 수 있었다。

〃길만〃 씨는 나의 답안을 수험생、 一二三번이 썼다는 증명서와 함께 시험관들에게 보내었다。

모든 예비시험과목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이 되었다。 처음의 독일어가 제일 어려운 모양이었다。 내가 라틴어의 답안용지를 받을 때 〃쉘링〃 씨가 들어와 내가 그때까지의 시험성적이 좋은 점수로 통과되었다고 전하여 준 것을 기억한다。 이 사실이 더욱 나를 격려하여 주어서 최후의 과목까지 냉정히 그

리고 끝까지 잘 치를 수 있었다。

제19장 "래드클리프" 대학 후기 시험

"길만"학교에서 두째해를 지내게 되자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결심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처음 몇주일은 미리 생각지 않았던 곤난에 부딪치게 되었다。 "길만"씨도 그 해에는 수학을 주로 공부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물리학、대수、기하、천문학、희랍어、라틴어을 공부하게 되었다。 불행히도 내가 필요로 하는 책들이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점자 교과서로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공부에 쓰이는 중요한 기구가 없었다。 크라스의 인원수는 많았으므로 선생들이 나에게 특별교육을 해줄 수도 없었다。 "설리반"양은 모든 교과서를 나에게 읽어주고 선생의 강의 내용을 통역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그의 능력도 이제는 감당치 못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교실에서 대수의 문제를 풀어보고、기하의 도형을 그려보고 또 물리의 문제를 풀지않으면 안되었는데 "브레일"식 점자판이 도착되지 않아서 그것도 할 수 없었다。 그것 없이는 정상적인 공부커녕 일보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였다。 나는 흑판에 쓰이는 도형을 볼 수가 없었으므로 좌석의 구석에서 곡선、직선의 철사를 가지고 그것들을 흉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케이드"씨가 말한 바와 같이 수자의 행열이나、수학의 가설이나 그 결론、증정의 과정 등을 나의 마음에서 그릴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든 하려며는 그만큼 장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때로는 용기를 전부 잊어버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워 못견딜것 같은 특히 "설리반"양—많은 친구들 중에 나의 고난을 안락하게 하고 또 슬

폼을 즐거움으로 바꾸기에 성공한 단 한사람인 〃설리반〃 양에게까지 나타났던 신경질적 감정이 나 자신을 배반했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의 곤난은 극복되기 시작하였다。 점자판 책과 다른 기구들이 도착하여 나는 새로운 자신을 가지고 공부에 전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수와 기하는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이해를 못하였다。 전에도 말한 것 같이、 나는 수학에는 취미가 없었다。 차이점들이 충분히 내게 설명이 되지 못하였다。 기하의 도형은 더욱 알기가 어려워서 마음의 고통을 더 했었다。 왜냐하면 좌석의 옆에서 하여도 선과 선의 관계가 분명히 머리에 떠 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던 것은 〃케이드〃가 지도해 준 덕택이었다。

이와 같은 곤난을 극복해 가는 도중 모든 것이 일시에 변경될 것 같은 자건이 일어났다。

나의 책들이 도착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길만〃 씨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공부한다는 것을 〃설리반〃 양에게 충고하였다。 나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복습과목을 줄여 버렸다。 처음에 우리들은 (만약 필요하였으면) 五년이나 몇년이 걸리더라도 공부를 계속할 작오였으나 一년동안의 시험의 결과로 그렇게 무리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나머지 二년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 〃설리반〃 양이나 〃하보〃 씨(길만학교교감)를 위시하여 다른 사람들에도 명백이 되었다。 〃길만〃 씨도 처음에는 이론(異論)이 없었으나 나의 과로를 생각하여 三년을 더 남아 있으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그의 주장을 찬성할 수 없었으니 나는 나의 반 학생들과 같이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十一월 十七일 나는 왜그런지 기분이 좋지 않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설리반" 양은 그리 중시하지 않았으나 이것을 들은 "길만" 씨는 나의 계획의 좌절이라 보고 나의 후기의 시험을 급우(級友)와 같이 수험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결국 "길만" 씨와 "설리반" 양 사이에 의견의 충돌로 어머니는 "밀드레드"를 퇴학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켐브리지"를 떠나게 되었다。

그 후 나의 공부는 "켐브리지"에 "머-튼·S·케이드" 씨를 고용하여 계속하기로 되었다。 그 겨울서부터 수개월간을 "설리반" 양과 나는 "보스톤"에서 二十五마일 떨어진 "렌담"의 "참버렌"에서 친구들과 같이 지냈다。

一八九八년 二월로부터 六월까지 "케이드" 씨는 일주일에 두번씩 "월담"에 와서 나에게 대수、 지리、 희랍어、 라틴어를 가르쳐 주었다。 "설리반" 양은 변함없이 그의 강의를 통역해 주었다。

一八九八년 十월에 우리는 "보스톤"으로 돌아왔다。 八개월간 "케이드" 씨는 한주일에 다섯번씩 가르쳐 주었는데、 한 공과는 한시간씩이였다。 그는 전일에 한 것을 모르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였으며、 그날의 할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내가 一주간 씨 모아둔 과제작문을 자택에 가져가서 완전히 고쳐가지고 내게 돌려 주었다。

이러한 식으로 대학입학시험 준비는 아무 지장없이 진행되었다。 나는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훨씬 알기 쉽고 그리고 더 유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초조할 것도 없고 머리가 혼란되는 것도 없었다。 선생님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해못하는 곳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었다。 그러한 식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전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수학은 취미가 붙지 않았다。 나는 대수와 기하가 역사나 어학의 반쯤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부질없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케이드〃씨는 수학도 즐거운 과목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수학을 내가 완전히 이해할 정도로 꾸준히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들고 지금 까지의 맹목적(盲目的)으로 문제속에 뛰어들어 결국은 해답도 결론도 모르게 되는 것 같은 방법은 대신하여 냉정히 논리를 찾아서 자연적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하였다。 나의 이해가 아무리 늦어도 또 나의 주장을 꺾지 않고도 그는 화내는 일이 없었다。

一八九九년 六월 二十九일과 三十일에 나는 〃래드클리프〃대학에 들어가는 최후의 시험을 치렀다。 첫날은 초보 희랍어와 고급 라틴어를 치렀고、두째날은 기하、대수、고급희랍어를 치렀다。

학교측에서는 〃설리반〃양이 나에게 문제를 읽어 주는 것을 허가치 않고 〃퍼킨스〃맹아학교의 한 선생인 〃유진·C·바이닝〃씨를 불러 그것을 아메리카식 점자로 고치게 하였다。 〃바이닝〃씨는 나와 한번의 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점자 이외는 나에게 얘기할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시험감독도 또한 모르는 사람이였으며、얘기하려고 하는 태도마저 보이지 않았다。

점자는 어학시험에서는 아무런 결점도 없었으나 숫자가 되자 당황하였다。 나는 참으로 곤난함을 느끼였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여버려 초조해졌다。 특히 대수의 경우가 그랬었다。 왜냐 하면 나는 어학적인 면으로 쓰이는 모든 점자、영국식、아메리카식、그리고 〃뉴욕〃식 등에는 잘 통달했었으나 기하

와 대수의 부호, 기호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三형식(三型式)의 점자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대수에 영국식 점자만을 알고 있었다.

시험이 시작되기 이틀전에 〃바이닝〃씨는 二, 三년전에 〃하바드〃 대학의 입학시험문제의 사본을 보내주었다. 나는 그것이 아메리카식 점자였으므로 깜짝 놀랐다. 나는 곧 그 기호를 설명해 달라고 〃바이닝〃씨에게 편지를 썼다. 그의 답장과 함께 기호의 일람표를 받았고, 그것을 외우기 시작하였다. 열심히 외웠으나 시험전일 밤이 되어도 대괄호, 소괄호, 거기에다 근축심 등의 구별을 할 수 없었다. 〃케이드〃씨와 나는 몹시 낙담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 우리들은 시험이 시작되기 한시간 전에 대학에 나가 〃바이닝〃씨에게 세밀히 그 기호의 설명을 받을 수 있었다.

기하에 있어서 제일 곤난하였던 것은 지금까지 정리를 인쇄된 선이나 손바닥에 쓰인 선으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정리 그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나타낸 점자에 혼동이 되어 문제의 뜻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수의 경우에는 그 것 뿐이 아니었다. 겨우 배웠다 하는 미국식의 기호는 전혀 알 수 없었고 〃타이프라이터〃로 쓴 것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점자로 쓰거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쓴 일 밖에 없었다. 〃케이드〃씨는 나의 능력을 과도히 믿었기 때문에 답안을 실제로 쓰는 연습을 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해답을 풀기 전에 몇번이나 반복해서 문제를 읽지않을 수 없었다. 전부의 기호를 틀림없이 읽었다고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누구든 책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래드클리프〃대학 당국에서는 이 시험 때문에 나의

수위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었나를 또 나의 곤경이 얼마나 심했나를 이해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인식부족 때문에 나에게 들씌워진 곤난이 필요 이상으로 큰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훌륭히 극복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안을 받고 있다。

제20장 〃래드클리프〃대학 입학

대학에 들어 가려는 고생은 끝이나고, 나는 언제든지 바라는 대로 〃래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그러나 대학에 들어 가기 전에 〃케이드〃 씨와 일년 더 공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었다。그리하여 실제로 대학에 들어 가려는 꿈은 一九〇〇년에야 실현되었다。

〃래드클리프〃 대학에서의 첫날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그날은 나에게 대하여서는 흥미에 찬 날이였다。나는 여러해 동안 이날을 기대하고 있었다。친구들이 권하는 것보다도 강하고 나의 가슴이 하지말라고 호소하는 힘보다도 강한 내마음 가운데, 숨겨 있는 어떠한 힘이 나로 하여금 귀가 들리고 눈이보이는 사람들과 그들의 표준에서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시합하여 보게 하였던 것이다。물론 도중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을 것을 알았다。그러나 나는 그러한 것들을 열심으로 극복하려는 결심이었다。나는 지혜스러운 〃로마〃 사람의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바란다면 〃로마〃를 떠남에 있다。』라고한 말을 가슴에 명심 하고 있었다。지식이라는 대도를 걸어 갈 수 없는 운명이었으니, 나는 다니지 않던길, 길 없는 길을 찾아 여행을 할 수 밖에 없었으니, 문제는 그것 뿐이었다。또한 나는 대학에는 여러좁은 길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한 고생하는 여자들의 손을 만질 수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나는 열심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새로운 세계가 아름답게 또한 광명하게 내 앞에 전개되는 것을 보

않드며、 나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느끼었다。 정신이라 하는 이상한 나라에 있어서는 나도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자유스러워야 할 것이었다。 그 세계의 사람들、 정치、 습관、 기쁨、 비극 등은 진정한 세계를 해석하여 주는 생명이 있으며、 감각으로 감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강의실은 위대하고 현명한 사람들로 차 있으며、 교수들은 지혜의 구현체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이러한 기분으로 아니 배웠다면 나는 이 이야기를 쓸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라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였던 로맨틱한 학원은 아니었다。 나의 젊은 경험을 기쁘게 하던 꿈의 여러개도 점차로 적어지고 또한 평범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또한 대학에 가는 것에는 이익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때에 느끼고 지금도 느끼는 결점은 시간이 없는 것이다。 나의 마음과 나를 생각하여보고 반성도 하여보는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가끔 저녁에 앉아서 정신속에서 나오는 멜로디를 들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한가하게 앉아서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이 우리의 영혼의 깊고 아름다운줄을 다칠 때에 듣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통화를 할 시간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대학이라 하는 것은 생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가는 것 같다。 우리가 대학이라는 교문에 들어 가면 외계에 있는 고독과 독서、 그리고 마음것 즐기던 공상、 이러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행복을 위하여 저축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겨울날에 대비하여 식량을 저축하기에는 너무 즉흥적(即興的)으로 현실적이었다。

나의 첫해의 공부는 불어、독일어、역사、영작문、영문학이였다。불어과에서는 〃고베이유〃、〃몰리에르〃、〃라신〃、〃알프레드・드・뮈세〃、〃산뷔브〃의 작품을 읽었으며、독일어에서는 〃괴테〃와 〃쉴러〃의 작품을 읽었다。역사는 〃로마〃 몰락으로부터 十八세기까지를 속히 다시 한번 공부하였다。영어에서는 〃밀톤〃의 시와 「아레오파기티카」를 비판적으로 연구하였다。

사람들은 각각 내가 대학에서 당하는 그 특별한 형편을 어찌 극복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다。교실에서는 실지로 나는 완전히 홀로 있는 셈이다。교수는 전화를 통하여 이야기 하는 모양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강의는 될수 있는대로 속히 나의 손에 써진다。강사의 개성은 내가 이 경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려진다。말은 가끔 잊어버리는 토끼를 쫓아가는 개 모양으로 나의 손을 통하여 들어온다。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는 노―트하는 다른 여자들 보다 크게 더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전심이 듣는다 하는 기계적 과정과 전속력을 다하여 듣는 말을 종이에 적는데 집중된다면 연구하는 제목에 대하여 또는 그것이 제출되는 방법에 큰 주의를 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한다。나는 강의중에는 노―트를 만들 수가 없다。나의 손은 듣기에 바쁘다。대개 집에 돌아가서 기억하는 것을 적어 놓는다。나는 〃타이프라이터〃로 연습할 그날그날의 문제 비판、시간중의 시험、중간 시험、최종 시험 등을 써서 교수들에게 보여준다。내가 〃라틴〃시 작법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을 때、나는 시의 음률(音律)과 음절(音節)의 장단을 표시하는 부호를 만들어 교수에게 설명하였다。

나는 〃하몬드・타이프라이터〃를 쓴다。여러가지 기계를 써 보았지만 〃하몬드〃가 나와 같이 특수한

게 요구되는 일에 제일 적합한 것을 알았다。 이 기계로는 여러가지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있었고 희랍어、불어、수학의 기호 등을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대학에도 들어가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여러 과목에서 요구되는 책은 맹인이 쓸 수 있도록 인쇄된 것을 강의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손바닥에 써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나는 다른 여자들보다 예습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수화문자는 불편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다。 때로는 자기만이 독서실에 남아서 조그만 문장을 읽는데 필요 이상의 머리를 쓰고、 밖에서 재미있게 날뛰는 동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에는 무의식중 신(神)을 원망하고도 싶었다。 그렇지만 곧 유쾌한 기분으로 다시 돌아와 불만을 마음속에 억눌렀다。 진정한 지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어려운 대산을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절정에 통한 길이 없는 이상 자기의 힘으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러번 미끄러지고 덩굴고 넘어지고 서 있게 하고 풀섶으로 덮인 구렁에도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올라가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조금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본다。 용기가 난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열심해지고 차차 열려오는 아름다운 시야에 가까워 온다。 고루! 이것만이 승리인 것이다。 빛나는 구름과 높고 맑은 창천、 동경(憧憬)의 하늘은 바로 거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고루에 나는 한상 고독한 몸은 아니었었다。 〃윌리암·웨이드〃씨와 〃펜실바니아〃맹아학교의 〃E·E·알렌〃교장은 나를 위하여 많은 凸판의 책을 얻어 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친절은 그들 자신도 모를만큼 나의 도움이 되

였으며、 용기를 갖게 하였던 것이다。

〃래드클리프〃의 최후의 해인 두째해에는 영작문법과 영문학으로서의 성서、 미국과 구라파의 정치형태학、 〃호레이스〃의 송가집과、 〃라틴〃어의 희곡을 배웠다。 작문법 시간이 제일 재미가 있었다。 그 교실은 활기에 차 있었으며、 강의는 항상 활발히 기지와 흥미에 넘쳐 있었다。 강사는 〃촬스・타운센드・코프랜드〃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그때까지 배운 교사들 중에 가장 문학을 그 원래의 신선한 맛과 그리고 힘차게 말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짧은 시간에 어려운 해석과 주석을 빼고도 과거의 대가들의 작품의 미를 맛보게 하였다。 그리고 훌륭한 사상을 소개하여 주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뇌명(雷鳴)도、 〃야웨〃와 〃엘로힘〃에 방해를 들여 보내는 일이 없이 들려 주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표현될 정신과 표현할 문체가 완전한 조화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걸작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는 기쁨과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고전(古典)에서만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일년은 가장 행복스러웠다。 왜냐하면 나는 경제학과 〃엘리자베즈〃조(朝) 문학、 〃죠ー지・L・기트레즈〃교수에게 〃쉐익스피어〃、 〃쬬시아・로이스〃교수에게 철학사를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철학을 통하여 이해의 공감을 안고 이전에는 아무 관계도 없고 또 합리성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먼 고대의 전통과 사상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였던 것보다는 달라서 보편적인 아테네는 아니었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사람들과 현명한 사람들과 얼굴을 맞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실생활에 저촉할 수는

없는 것이다。사실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그러나 그들은〃미이라〃이다。우리들은 교양이라는、금이간 껍질에서 그들을 꺼집어 내어 해부를 하고 분석하고서야 비로소 단지 모조품이 아니고 진짜의〃밀톤〃이고〃이사야〃라고 알게 되는 것이다。많은 학자들은 우리들의 위대한 문학작품에의 흥미와 이해보다도 생각에 억매어 있다고 말할 것을 잊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힘들인 설명은 우리들에게 하등의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꽃과 뿌리와 줄기、또 다른 부분도 성장의 과정을 밝히는 것은 이슬에 반짝이는 신선한 꽃의 관상(觀賞)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나는 다시금 참지 못하고 왜 이러한 설명과 가설이 필요한 것인가? 자문해 보았다。이 자문은 눈먼 새같이 나의 마음속을 여기저기 부딛고 미친듯이 날아다녔었다。우리들이 읽은 유명한 저작을 이해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내가 반대하는 것은 끊임없는 해석과 혼돈을 일으키는 비판이었다。그러나〃키트레즈〃교수 같은 위대한 학자가 그 대가가 말한 것을 해석하면 그것은「먼 눈이 뜬 것」같은 기분이 되는 것이었다。그 사람만이〃쉐익스피어〃를 시인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나는 내머리에서 반만이라도、쓸데 없는 지식을 버리고 싶은 때가 있다。그것은 기왕 귀중한 댓가를 치르고 얻은 것을 관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체 하루에 여러책의 전혀 하등의 관련성도 없는 책을 자기가 무엇을 읽는 가를 의식하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일까? 필기시험과 시험준비에 그저 억지로 읽든지 하면 쓸데 없는 골동품 같은 것만을 기억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일찌기 나의 정신의 왕국이었던 지역(地域)에를 들어가면 나는 격언에서 말하는 자기(磁器)상점에 들어간 황소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무수한

조각조각의 지식이 우박과 같이 머리에 퍼부어 그것을 피하려 하면 정의의 악마와 년대기의 애꾸눈의 승(僧)이 좇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최후에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요、하고 지금까지 깊이 생각지 않고 숭배하여 온 우상을 깨뜨립니다 하고 탄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중에도 시험이라는 것이 나의 대학생활 가운데에서 제일 중대한 도깨비였다。 나는 그 괴물을 여러번 너머뜨리고 억세게 모래를 입에 물려 주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금 핏기없는 얼굴로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봅·에이크레스〃와 같이 살며시 용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시련에 향하기 전에는 신비스러운 정의(定義)와 소화할 수 없는 연대기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책도 과학도 인간도 바닥없는 늪에 가라앉고 말라고 저주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무서워 하던 시간은 오는 것이다。 그때에 준비는 되였다고 생각도 하고 얼마간은 도움이 되는 올바른 생각을 하기도 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승리의 나팔을 불기에는 너무나 부주의하였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 아무리 생각해 보려해도 또 잘 표정하려 하였더라도 이것들의 능력을 자기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에 생각이들 때만치 조마조마해지는 것은 없다。 이 조마조마한 것과 주저하는 것만은 보기좋게 실패했다는 명확한 증거인 것이다。

「〃훗스〃의 약전과 그의 업적을 기록하라」라는 문제이다。 〃훗스〃? 그는 누구며 무엇을 하였나?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친한 것 같이 여겨졌다。 한조각의 비단을 찾기 위하여 헌겊 보따리를 뒤지는 모양으로 역사의 지식의 보따리를 뒤지는 것이다。 그것은 보따리 위에 있었을 것이다。 며칠 전에 종교개혁

의 초기를 조사하여 올 때에 확실히 본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런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보따리를 전부 꺼내본다。 혁명、 교회분리、 학살、 정치형태、 그러나 〃훗스〃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문제에 관계없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는 놀랬던 것이다。 나중에는 그 보따리를 뒤집어 찾아본다。 드디어 알아내었다。 바로 그때、 끝나는 종이 울리는 것이다。 화를 내어 쓸대도 없는 지식의 보따리를 마음속에 거더차고 생도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문제를 내는 교수들의 신성한 특권을 박탈하려는 혁명적 생각을 안고 접에 돌아가는 것이다。

흩어진 암유(暗喩)가 나를 조롱하고 나의 앞에서 얼른얼른하는 일이 실제 나의 신상에도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나의 대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래드클리프〃 대학에서의 그날그날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생각은 점점 희박해 갔으나、 또 로맨틱한 빛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로맨틱한 세계에서 현실적인 세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지못하고 넘어갔을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다。 구중 하나는 우리들이 학문할 때、 마치 시골길을 산책하듯 마음놓고 모든 인상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들의 생활에 넓이를 주는 것이다。「지식은 힘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지식은 행복이라고 하고싶다。 왜냐하면 넓고 그리고 깊은 지식만이 정사(正邪)를 가리게 하고 넓고 얕은 구별을 짓는 것이다。 인간의 진보의 자취를 남기는 사상과 예술품을 이해하는 것만이 몇 세기에 걸쳐 온 인간성의 고동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이 인간성 중에 하늘을 목표삼아

고루해가는 인간의 혼의 부르짖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생명의 "리듬"에 귀먹었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제21장 나의 교육법의 중점

나는 지금까지 나의 생활상 일어난 일들을 솔직하게 그리였으나 책의 즐거운 것이라든지 유익한 것에 관한 것을 조금 썼을 뿐으로, 그것이 실로 인생에게 끼치는 인간적인 진미에 대하여는 쓰지 않았다。실로 나의 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주관으로하여 내가 처음 책을 읽던 옛날로 이야기를 돌리려 한다。

연결된 이야기를 읽기 시작한 것은 一八八七년 五월이었다。 그 당시 나의 나이는 일곱살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굶주린 손가락이 닿는 모든 인쇄된 페이지를 낱낱이 더듬으며 읽어왔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나의 소년시대의 교육은 정규적으로 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규칙에 의하여 독서한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울퉁불퉁하게 인쇄된 몇권의 책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초보자에 대한 독본이었다。 나는 「우리들의 세계」라는 책과 지구에 관한 책들을 몇번이고 반복하여 읽었다。 너무도 만지고 어떻게 내려 눌렀는지 나중에는 다 닳아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때때로 〃설리반〃양은 내가 알아들으리라 하는 이야기나 시를 내 손에다 써 주군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읽어주는 것보다는 혼자 읽는 것이 더 좋았다。 왜냐 하면 맘에 드는 곳을 몇번이고 읽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내가 독서답게 읽기 시작한 것은 최초의 〃보스톤〃체재중의 일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매일매일 몇 시간을 도서관에서 지내고 책장들을 더듬어 손에 닥치는데로 읽었다。 나는 열중하는 나머지 알거나 모르거나 그런 것을 일체 아랑곳 없다는 듯이 무작정 읽었다。 때로는 열에 하나、 더 심할 때는 일면에 하나나 둘 정도의 내가 알 수 있는 단어를 찾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말 그 자체가 나를 매혹시켜 내용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었다。 나의 마음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뜻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글자 들을、 혹은 어떠한 곳은 문장전체를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뒤에 이와 같은 말과 돌려꾸미는 말들은 문장을 쓰거나 이야기할 때마다 힘들이지 않게、자연히 흘러 나와 나의 친구들은 어조의 풍부함에 놀랬었다。「젊은 〃폰드레로이〃경」을 읽기전에는 나는 책의 일부분이나 (그 당시 나는 한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은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시들을 이와 같이 무작정 읽었었다。「젊은 〃폰드레로이〃경」을 발견하자 이것이 다소나마 이해하고 읽은 최초의 책이었다。

어느날 나의 선생은 내가 도서실 한모퉁이에서 「주홍 글씨」한 페이지를 열심으로 읽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때 나는 여덟살이었다。 그는 나에게 작은 〃펄〃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는데、 내가 모르는 글자를 몇자 가르쳐주고 「주홍 글씨」보다도 더 재미 있는 어린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책이름은「젊은 〃폰드레로이〃경」이었다。 그는 오는 여름에 읽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것을 읽기 시작한 것은 八월이 되어서 시작하였다。 해변에서 처음의 二、三주간은 바다에 몹시 흥미를 느끼어 책같은 것은 깜박 잊어버리고 있었다。 거기다 또 선생님은 나를 잠시 떠나서 〃보스톤〃으로 가고 없었다。

선생님이 〃보스톤〃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제일 먼저「젊은 〃폰드레로이〃경」을 읽기 시작하였다。이 반할만한 어린 남아의 이야기의 첫번 몇장은 어디서 또한 언제 읽었나를 똑똑하게 지금도 회상할 수 있다。그것은 八월 어느 더운날 오후이었다。우리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엄숙한 두 소나무에다 매어 놓은 〃함목〃그네에 앉아 있었다。우리는 그 책을 읽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긴 오후를 가지려고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빨리 치어버리었다。우리가 〃함목〃으로 향하여 풀을 헤치고 나가자 메뚜기들이 모여들어서 우리옷에 더덕더덕 매달렸다。선생님은 앉기전에 메뚜기들을 다 떼어버리자고 주장하였으나 나에게는 그것은 시간 낭비같이 생각 되었다。 〃함목〃에는 선생님이 안계신 동안 쓰지를 아니하여서 소나무입들이 잔뜩 덮여 있었다。 뜨거운 태양은 소나무에 쪼이어 소나무의 모든 향기를 근처에 풍겨주고 있었다。공기는 향기로웠으며、또한 바다의 냄새가 섞이어 있었다。책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설리반〃양은 내가 모르려라고 생각한 곳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읽어가는 도중에 낯익지 아니한 단자들의 뜻을 설명하여 주었다。 처음에는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아서 자주 중단되었으나 대체의 상태를 알게되자 이야기의 내용에 취하게 되어 모르는 글자도 주의하지 않게되어 필요한 것을 선생님이 설명하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귀찮을 정도였다。 선생님의 손가락이 너무 지쳐서 글자를 더 쓰지못하게 되자 비로소 나는 불구자인 것을 처음으로 빼저리게 느끼었다。 나는 그 책을 내 손에다 집어보고 내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연모심을 가지고 글자들을 더듬어 보려 하였던 것이다。

뒤에 나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아나그노스〃씨는 그 책을 점자판으로 인쇄하여 주었다。 나는 그

것을 외울정도로 몇번이고 읽고 읽었다。 나의 어린시대를 통하여 「젊은 〃폰트레로이〃경」은 나의 온후하고 친절한 동무이였다。 나는 독자에게 지루할 정도로 이이야기를 쓴 것은 어린시대의 암흑의 세계를 밝게 합리적인 세계로 변경시키는 수윗치의 역활을 한 때문이다。

책에 대한 나의 진정한 취미는 「젊은 〃폰트레로이〃경」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 다음 두해동안 집에서 또한 〃보스톤〃에서 여러책을 읽었는데、 그 책들이 무엇이였으며、 또한 어떠한 순서로 읽었는지는 지금 기억할 수 없으나 그 중「희랍 영웅전」과、 〃라·폰테인〃의「우화」、 〃호톤〃의 「이상한 책」、「성서 이야기」、 〃램〃의 「〃쉐익스피어〃의 이야기」、 〃디켄스〃의 「아동·영국사」、 〃데이겐스〃의 「아라비아 이야기」、「〃스위스〃인 〃로빈슨〃가족」、「편로 역정」、 「로빈슨·크루소」、「적은 여자들」、 내가 뒤에 독일어로 읽은 「하이디」라 하는 아름다운 짧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책들을 점점 깊어가는 취미를 가지고 공부와 작난하는 사이에 읽었다。 나는 그러한 책을 연구하거나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러한 책들이 잘 써진 것인지 아닌지도 몰랐으며、 또한 그 문체와 저작자에 대하여서도 관심이 없었다。 그 보물들이 내 발앞에 놓이였고、 나는 태양빛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양으로 그 보배들을 받아 들였었다。 나는 특히 「작은 여인들」을 좋아하였다。 왜냐 하면 본일도 없고 만난일도 없는 소년、 소녀에게 깊은 친절미를 느끼였기 때문이다。

나의 생명이란 너무도 여러방면으로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세계를 발견하자면 나는 책을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편로 역정」에는 별로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읽는 도중에 집어치웠는지도 모른다。「우화」도 그랬었다。 그것을 처음 영어로 읽고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뒤에 원어로 읽을 때에는 그 말이 그림 모양으로 분명하였고、 말을 훌륭하게 구사한 것에 감복되면서도 역시 좋지않았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었으나 동물을 사람과 같이 이야기 시키고、 행동시키고 하는 방법이 웬일인지 나에게 호감을 없애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동물들을 빌리어 웃으운 풍자화만이 뚜렷이 나타나고 그 이면에 숨은 그의 도덕관을 이해치 못했다。

또한〃라·폰테인〃은 그의 도덕관은 어느듯 우리들의 마음에 호송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결국 자기애(自己愛)와 이성 뿐으로、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우화집」을 통하여 흐르는 정신은 인간의 도덕은 자기애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요、 행복은 자기애가 이성에 잘 통어된 때에 느끼고 얻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자기애 그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생각이 틀렸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라·폰테인〃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많은 인간을 관찰할 기회의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나는 그 경우밖에 없는 진리가 원숭이나 여우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 같이 인간을 멸시하고 풍자에 가득찬 우화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대하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는「쟝글 북」과「내가 본 야생동물」이 좋았다。 나는 그 동물 그것이 사랑스럽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정한 동물들이고 사람들로 풍자의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증오에 동정할 수 있으며、 그들의 희극을 웃을 수가 있으며· 그들의 비극에 울 수 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덕적 훈계를 준다 하여도 그것은 너무도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식치 못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또한 즐거움을 느끼며 고대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다. 고대희랍 ── 나에게 신비한 매력을 주었다. 이교적인 남신, 여신들은 나의 공상의 세계속에서 활보한다. 나의 가슴깊이 그들을 모시는 신전이 들어가 있다. 신(神)과 영웅, 반신반수(半身半獸), 그리고 요정(妖精)의 종류를 전부 알고, 그것을 사랑한다. ──아니 전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메디아〃와 〃제이슨〃등 참혹하고 욕심이 많은 놈은 용서할 수가 없다. 너무도 지나친 것이다. 나는 왜 신들이 그들의 잘못한 것을 보아도 본채만채 하였다가 큰 일을 저질러서야 처음으로 벌을 주는 것인지 오늘날 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신은 모르는체 침묵을 지키고,
죄는 웃으면서 시간의 집에 침입한다.

〃희랍〃을 나의 낙원으로 만든 것은 〃일리아드〃이다. 나는 원문을 읽기전에 이미 〃트로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내가 희랍말의 문법을 배우고 읽을 때는 쉽게 그것들을 알 수 있었다. 희랍의 시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수성에 넘치는 마음이다. 이 간단한 진리가 복잡한 분석과 설명 그리고 어려운 주석으로 모처럼 접한 위대한 시를 망쳐버리는 대학자에게 모른다고 할 것인가? 문법적인 지식도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또 〃희랍〃어의 교수가 내가 찾아 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똑

같은 시 중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주제넘은 욕심쟁이 할머니는 아니다。 나보다 현명하게 되려고 하는 분은 얼마든지 현명해 지십시요。 그러나 그들의 위대한 지식도 그들이 위대한 시에게 느끼는 아름다움을 측정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일리아드〃의 굉장한 시들을 읽을 때 나의 마음에 날개가 돋는것을 느꼈다。 나는 높은 하늘을 날으는 것이다。 무궁의 대공、 대기가 흐르는 대공、 그것은 전부 나의 것이었다!

나는 〃이니―드〃에게도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나 〃일리아드〃같이 그렇게는 심하게 느끼지 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될 수 있는데로 주석과 사전의 도움이 없이 읽었으며、 가장 나에게 취미있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번역하기를 즐겨하였다。 〃버―질〃의 그리는 말은 때로는 경탄할 것이 있었다。 그가 그리는 신들과 사람들은、 〃에리자베즈〃왕조의 가면극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잘 입은 사람들 같이 격정적인 전쟁、 비극、 연애장면 같은 데에서도 조용히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리아드〃에서는 그들은 세번 뛰고 계속하여 노래를 하는 것이다。 〃버―질〃은 달빛이 비추는 대리석 〃아폴로〃처럼 안정하고 아름다웠으나 〃호―머〃는 바람이 그 길다란 머리칼을 나브끼어 만면의 태양빛이 비추인 아름답고 활기가 왕성한 청년이었다。

책의 날개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이와 반대로 이 책 저책으로 지식을 구해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내기만 하여도 지루한 일이다。 학교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의 두통속에 떨어지고 문법이니 사전이니 하는 속 모르는 미궁에 빠져 있는 동안에 세계를 몇번이나 돌 수가 있다。

학교에서 하는 방법을 지식의 획득이라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또 그런 방법에도 때로는 아름다운 것으로 감상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나에게는 한없는 길의 도보여행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나는 잘 이해도 하기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지금 생각하여보면 나의 정신이 그 경탄할 조화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이 이상하다。나는 어떠한 비오는 날 아침에 할것이 없었으므로 나의 사촌에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나 읽어달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그는 내가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나의 손에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써 주었다。웬일인지 나는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귀에 익지 못한 말、그리고 똑같은 말들의 반복이 그 이야기를 만든 것으로 생각되어 〃가나안〃복지를 겨우 멀리 떨어진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그래서 나는 그 형제들이 여러빛으로 된 옷을 입고 〃요셉〃있는데 와서 입에서 흐르는 대로의 거짓말을 하는 데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이와 같이 희랍의 이야기는 몹시 매력에 끌리었으나 성서 이야기에는 열체 흥미가 없었던 것은 내가 〃보스톤〃에서 여러 희랍사람들과 알게 되어 그들의 나라에 대한 흥미를 돋구었는데、불행이도 한사람의 〃유태〃사람도 또 〃애급〃사람도 만난 일이 없어서 나는 그들이 미개인이라는 견론을 내리었으며、그들의 이야기는 다 가짜로 만든 것이며、그러기 때문에 이야기가 반복되어 이름들이 이상 야릇하다고 결론한 것 같이만 생각할 수 밖에 없다。이상하게도 희랍의 조부의 이름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뒤에 성경에서 발견한 감격은 어찌 이야기하여야 좋을지 모른다。수년동안 나는 점점 깊어가는 이해와 기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왔다。지금은 이 책만이 나의 최고의 사랑스러운 책이다。그

러나 지금도 때때로 반발을 느끼는 때도 있다。 이 책은 최후까지 읽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이 싫다。 성경에 의한 역사와 그 기원에 대하여 지식을 얻어 보았지마는 나에게 순 세부분에 관한 불유쾌한 것은 없어지지 않았다。 나로서는 〃하우웰〃 씨의 의견과 같이 고대의 위대한 문학들이 그 내용의 추한 것이나 야만적인 것들이 순화되었더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 위대한 작품들이 살살이 들어나는 알 몽둥이로 되게 한다든지 의미를 바꾸게 된다든지 하는데는 반대한다。

〃에스더〃가 간단하고 또한 무섭게도 직접적인 것에는 무엇이라 할 수 없는 인상적이고 삼엄한 것이 있었다。 〃에스더〃가 그의 악한 주인앞에 당당히 서서 그 주인의 악에 넘친 것을 비난하는 장면 같이 그렇게 극적인 곳은 도저히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운명이 주인의 수중에 달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채쭉질하면서 『만일 내가 죽으면 그 뿐일게다。 만일 내가 죽지않으면 전 동포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는 숭고한 애국심에 용기가 솟아올라 그 여자는 주인앞에 나가는 것이다。

또한 〃루드〃의 이야기 ──얼마나 동양적인 것인가! 이러하 단순한 시골 사람들의 생활이 〃페르시아〃의 수도생활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루드〃는 실로 충실하고 마음착한 소녀이다。 황금색에 춤을 추는 밀밭에서 추수하느라고 바쁜 사람들 속에서 그를 볼 수 있었다면 누구든지 사랑스럽게 그를 대할 수 있을께다。 그 여자의 아름답고 비 이기적인 정신은 암흑하고 잔인한 시대의 심야속에서 한줄기 달이

되어 비추어 줄 것이다。 서로 상쟁(相爭)하는 교회나 뿌리 깊은 인종 투쟁의 혼란속에서도 광채를 잊지 않는 사랑、〃루드〃의 사랑 그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이다。

나는 성경에서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보이지 않는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깊은 위안을 발견하였다。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시라도 〃쉐익스피어〃를 사랑하지 않은 일이란 없었다。 나는 언제 〃램〃의 「〃쉐익스피어〃이야기 를 읽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뜻도 모르면서 무척 재미있어 하여 일지에 읽은 것을 기억한다。 제일 생생하게 인상에 남은 것은 「막베스」였다。 한번 읽는 것만으로 그 이야기의 자세한 부분까지를 다 기억할 수 있었다。 읽은 그 당시에는 유령과 마녀들의 꿈을 매일밤 꾸었다。 아슬아슬하게、단검(短劍)과 〃막베스〃부인의 작은 손을 보았다。 소름이 끼치는 피비린내、근심에 못이기는 여왕과 같은 인상을 남겼다。

「막베스」를 읽고 곧 「리어 왕」을 읽었다。 〃글로스터〃의 눈을 도려내는 장면이 왔을 때의 그 무서운 일들은 일생동안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의분에 못이겨 몸을 한참이나 떨었다。 어린이가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노여움이 내 가슴속에 방맹이를 치는 것이다。

대략 같은 때에 나는 〃솨이록〃과 〃사탄〃의 얘기를 읽었다。 이 두 〃유태인〃은 혼동되었다。 당시 그들을 불상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막연히 그들이 선량해 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단지 그들은 그런 좋은 기회의 혜택을 입지 못했었다。 지금까지라도 나는 그들은 완전히 잘

못했다고는 느끼지 않는다。 때때로 나는 〃샤일록〃、 〃유다〃、 심지어는 아마까지라도 선(善)이라는 큰 바퀴의 부러진 막대기、 그것들도 적당한 시기만 오면 완전히 수리될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는 때가 있다。 〃쉐익스피어〃를 처음 읽은 것이 나에게 그리도 많은 불유쾌한 무서운 것、 기분나쁜 것 들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된다。 그 당시에는 명랑하고、 부드럽고、 공상에 충만된 희곡에게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마 그 분위기가 나의 실생활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우매한 일일 것이다。 무엇을 기억하거나、 또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이것 역시 전부가 자유자재인 것이다。

그후에도 〃쉐익스피어〃의 극을 여러번 읽었다。 그리고 어떠한 극의 부분은 암송까지한다。 그러나 그중에 어느 것을 제일 좋아하는지는 알수가 없다。 개개의 작품은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짧은 노래나 시는 희곡과 같은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 〃쉐익스피어〃를 깊게 사랑한다손 치더라도 비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작품을 읽는다면 금시에 지루해 진다。 나는 주석을 외우려 하였으나 그 때문에 흥미를 잃고 머리가 혼돈되는 경우를 당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귀찮은 일을 두번다시 되풀이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 결심은 〃키트레즈〃 교수가 〃쉐익스피어〃를 가르칠 때 깨어지고 말았다。 나는 〃쉐익스피어〃의 세계에 지금까지 상상도 못할만큼 깊은 의미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점차 명백하여 짐에 따라 신선한 즐거움을 느끼었다。

시 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역사였다。 나는 무미건조한 년대기부터 〃그린〃의 편견이 없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인 「영국민의 역사」、 〃프리만〃의 「구라파 역사」、 〃에머슨〃의 「중세기」까지도 닥치는 데로 차례로 읽었다。 내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十三살 생일날의 선물을 받은 〃스윈톤〃의 「세계사」를 읽고서였다。 지금은 그것을 가치 있는 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의 처음의 중요한 기념물이라 해서 귀중히 지니고 있다。 나는 그 민족의 번영과 화려한 도시의 건설、 위대한 지도자의 활약、 새로운 국토를 개척한 기술과 지식、 문화권의 소장、 천재적인 종교가의 양민제도 등 많은 것을 알았다。

대학에 있을 동안에 나는 작으나마 불어와 독일어에 통할 수 있었다。 독일사람들은 문학이나 생활에 있어서 미 보다는 힘을 숭상하며、 인습보다는 진리를 존중한다。 그들이 하는 곳에는 언제나 박력과 활기가 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충동에 넘치는 때문이다。

또한 독일문학에는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제일 나를 감격하게 한 것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쓴 것들이다。 이 사상은 독일문학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으며、 〃페테〃의 「파우스트」에서 신비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도다
상징으로서만이 남을 뿐이요

대지 또한 무상하건만、
식물은 씩씩하게 자라고 자랑。

여자의 참된 영혼은
그들을 희망의 목적지로 인도하도다
이로써 말로 표현못할 존귀한것 거기에 맺노니。

내가 읽은 범위 내의 〃프랑스〃작가 중에는 〃몰리에르〃와 〃라신〃을 제일 좋아한다。 〃발싸크〃나 〃메리메〃에서도 바다의 향기와 같이 무섭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가지고 있다。 〃알프레드・드・뮈세〃도 따를수 없다。 〃빅톨・유―고〃도 경탄할만한 작가이다。 나는 그의 천재적 기질、 그의 훌륭한 것、 그의 낭만주의적인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는 나의 문학적인 정력을 돋구어 주는 작가는 아니다。 그러나 〃유―고〃나 〃페테〃나 〃쉘러〃나 기타 위대한 나라의 모든 시인들은 다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대변자이기 때문에 나의 정신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좇아서 진선미가 일치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책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쓴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에 대하여 써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나의 마음의 친구들의 범위는 몹시 좁고 그리고 너무나 비민주적인 것을 용이하게 발견할 것이다。 또한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나는 많

은 작가들을 여러가지 이유로써 좋아하는 것이다。

거칠고 거짓을 싫어 하는 〃카—라일〃、자연과 인간은 일체라고 가르쳐 준 〃워즈워드〃、기이하고 놀라게 한 〃후드〃、색다른 재미를 보여 준 〃헨릭〃、백합과 장미가 일종이된 것 같은 향기를 내뿜는 〃휘티어〃의 시、이러한 도덕적인 인품의 매력은、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데서 더욱 배가되었다。나는 〃마—크·트웨인〃을 사랑한다—누가 감히 그를 좋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즐겁게 여길 것인가? 하느님도 그를 사랑하였다。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또 그가 비관론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랑과 신앙을 주었던 것이다。〃스코트〃는 그 신선하고 진정에 넘친 마음때문에 좋아한다。또 〃로웰〃같이 때로는 격노하면서 동정과 슬픔이 한데뭉쳐 시뻘건 빛을 발하는 정의와 환희로 되어 훨훨 타오르는 정렬적인 작가이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좋아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학은 나의 〃유도피아〃이다。거기에서는 절대로 시민권을 빼앗기지 않는다。감각적인 장해도 고생이 되지 않는다。거기의 시민은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그들의 〃깊은 사랑과 자비〃에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존재일 것이다。

제22장 자연으로부터 받은 즐거운 인상

독서에 대한 것만 지나치게 써 왔으므로 독자 여러분들은 다른 즐거움이란 나에게 없으리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사실상 나를 즐겁게 하여준 것은 얼마든지 있었다。 지금까지도 가끔 자연에서 받은 즐거운 인상과 밖에서의 놀이에 대해서 썼을 것이다。 또 아주 어린이었던 때、 헤엄치고 보—트젓는 것은 배웠으며、 〃마사츄셋스〃주 〃렌담〃에 있을 때는 여름동안 거의 배에서 지내었다。 친구들이 방문해 오면 그들을 데리고 뱃놀이하는 것 이상으로 재미 있는 것은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배의 방향을 지휘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 배뒤에 앉아서 키를 조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때는 키없이 저었다。 수초와 백합과 강변에 자라는 풀숲의 냄새를 의퇴하며 젓고 다니는 것은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키가 빠져 나오지 않도록 가죽 끈으로 매어놓은 보—트를 썼었다。 물의 저항으로 물을 잘 저었나를 알았으며、 흐르는 물에 반대로 가는가 아닌가도 알았다。 바람과 물결에 덤벼들어 젓는 것도 즐거운 것이다。 자기의 운명을 조그마한 보—트에 맡기고 거칠것 없이 힘껏 파도를 헤치고 물더미를 타고 넘든지 하는 것만큼 마음의 약동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나는 〃카누—〃 젓기도 좋아하였다。 특히 달밤의……이렇게 말하면 내뜻을 얻었다고 생각없이 웃을분도 있을 것이다。 소나무 잎 틈에서 밝게 비쳐 조용히 중천에 떠오르는 달은 안보이지만 그 무엇인가 따로는 소리는 들리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때로는 예쁜 물고기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 나가기도 하고

늪 백합이 수집은 듯 나의 손끝을 스치기도 한다。 강에 들어가게 된 곳에서 저어 나오는 때들은 공기가 갑자기 상쾌해 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빛으로 충만한 따뜻한 공기가 부드럽게 나의 몸을 싸도는 것이다。 그 공기가 햇빛에 쪼인 삼림(森林) 그늘에서 흘러오는 것인가, 푸르고 맑은 수면에서 풍기는지도 모른다。 이와 똑같은 것을 시가를 걸으면서도 느낀다。 추운날이나 비바람치는 날이나 또 밤이나 낮이나 느끼였다。 이를테면 따뜻한 키스를 얼굴에 받는 것같이 느끼였다。

큰 범선(帆船)으로 항행하는 것도 즐거운 것이다。 나는 一九〇一년의 여름 〃노바·스콧티아〃에 가서 처음으로 대양에 나와 보왔었다。 〃롱펠로〃가 꿈의 나라라고 하는 〃에반젤라인〃의 나라에서 二、三일 지낸다음 〃설리반〃 선생과 나는 〃할리팍스〃에 가서 거기서 여름을 지내었다。 그 항구야말로 우리들의 꿈의 나라였던 것이다。 〃베드포드〃만、 〃맥넙〃섬、 〃욕·레다우트〃、 〃노드웨스트·암〃에의 항해 여행은 얼마나 훌륭했던 것이랴! 크고 조용한 군함 그늘에 앉아서 우리들은 고요한 달밤을 지내었다。 모든것은 끝 없은 흥미에 넘치고 아름다움에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추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광채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어느날 나는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기칠듯한 경험을 하였다。

〃노드웨스트·암〃에서 뽀—트레이스가 있었다。 그 경주에는 각군함에 소속하는 배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구경하려고 여러 다른 사람들과 조그마한 배를 타고 나갔다。 수백의 배들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였었다。 바다는 고요하였다。 경기가 끝나자 집에 가려고 할 때、 누군가 해변에 불쑥 떠 있

는 흑운을 발견했던 것이다。구름은 어느듯 온 하늘을 덮어버렸다。 바람이 일어나고 노한 파도는 보이지 않는 장해물에 덤벼들고 왔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작은 배는 돛을 훨적 펴고 줄을 팽팽히 잡아매고 무서운 생각도 없이 격랑에 덤벼들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바람을 꾸짖듯 돛을 펼쳐가면서 큰 파도와 결사적인 결투를 하였다. 드디어 키가 부러져 버렸다。 우리들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은 사뭇 떨린다。 무서워서 떨리는 것은 아니였다。 우리들은 〃비킹〃(북구해적)의 피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장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 많은 폭풍우를 겪어왔던 것이다。 무사히 항구에 돌아오자 큰 군함들은 우리들의 배가 옆을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승조원들은 폭풍우를 용감히 뚫고 돌아온 이배의 선장에게 큰소리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부두에 발을 디딜 때에는 빈 속과 피로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였던 것이다。

지난 여름은 〃뉴―잉글랜드〃에 있는 아름다운 촌에서 지내였다。 〃마사츄셋스〃의 〃렌담〃에는 즐거웠던 추억도 슬펐던 추억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三・四년 동안 우리들은 〃킹・필립〃 호수 근처에 있는 〃J・E・참버렌〃씨와 그 가족의 집인 〃레드〃에 있었다。 나는 그들의 친절미와 행복했던 그날 그날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 자녀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참으로 고마웠던 것이다。 나는 그들과 더불어 바람도 쏘이고 작난도 하며 언제나 같이 지내였다。 그 어린이들의 종잡을 수 없는 말과 내가 아야기해 주는 도깨비와 소인、 영웅과 기특한 곰 이야기를 정신없이 듣고 있던 그들의 어린 모양이 그립도록 생각나는 것이다。 〃참버렌〃씨는 수목과 야생꽃들의 신비를 나에게 풀어주

였다。나는 참나무 진이 흐르고、햇빛이 나무잎에서 나무잎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땅속 깊이 묻히는 뿌리도
별과 하늘、새들을 느낀다。
잔 가지끝의 환희와 같이
나도 또한 그것들을 자연에의 정감으로 느낀다。

이런 뜻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고래로부터 인류가 가지고 내려온 인상과 정서는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우리들은 푸른 대지와 졸졸 흐르는 시내를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이 고대인이 보내준 것을 빼았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안되는 것이다。 면면이 받아 이어온 이 능력은 감각、청각、 시각、 또 촉각도 하는 혼의 감각 ── 일종의 육감이라고도 할 것인 것이다。

『나는 "렌담" 에서 많은 나무들과 친구가 되었었다。 그중 하나인 훌륭한 큰 참나무는 나의 자랑인 것이다。 나는 친구의 전부에 이 참나무의 왕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킹·필립" 호수를 내려다 보는 언덕위에 서 있어서 수목을 아는 사람들은 팔백년이나 천년은 되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나무아래에서 "킹·필립" 이라는 추장이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것이다。

나는 또하나의 귀여운 나무친구가 있었다。 그것은 큰 참나무 보다도 더 친하기 쉬운 〃레드〃 농장 뒤에 자라는 보리수(菩提樹)였다。 어느 거센 폭풍우의 오후 집 옆구리에서 무엇이 크게 부닥치는 큰 소리를 듣고 나는 그 보리수가 쓰러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나는 허다한 폭풍우에 견디어 온 영웅의 최후를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씩씩하게 힘껏 싸우고 기어이 기진하여 쓰러진 그의 처참히 자빠진 모양에 나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던 것이다。

생각밖에 딴말에 쏠리고 말았으나、 시험이 끝나자 〃설리반〃 선생과 나는 〃렌담〃을 유명히 하고 있는 호수 셋중의 하나인 호반에 서 있는 작은 집으로 달려갔다。 거기는 전혀 별천지로 공부와 대학、 거기다 시끄러운 도회의 일은 잊어버리게 하였다。 〃렌담〃에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동맹이라든가 사회투쟁이라든가는 뜬 소문같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우리들은 멀리 대양에서 싸우고 있는 잔인하고 불필요한 전쟁과、 노자(勞資)간의 투쟁을 풍문으로 들었다。 우리들은 우리의 낙원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되면 즐겁게 보내는 일요일에 이마에 땀흘리고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것에는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들었던 것이다。 그같은 것은 모르는 새에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여기에 펼쳐 있는 삼림과 호수、 어린 국화가 만발한 광활한 평야、 향기 그윽한 목장은 영원히 살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은 눈과 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포장(舖裝)없는 곳은 별문제로 하고、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는가 시골길을 걷고 있는가를 알아 맞치는데 놀래고 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의 몸 전체가 나의 주위를 싸돌고 있는 것에 생생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거리의 소음은 나의 얼굴에 부딪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군중의 발소리는 나의 발에서 알려주고 불규칙한 시끄러운 소리는 나의 전신을 산란하게 하여주는 것이다。 포도에 떼굴 떼굴 굴르는 무거운 짐마차의 소리와 떨격 거리는 기계의 소리가 눈이 보이는 사람에 견딜 수 있는·것은 그들이 시각하는 것에 마음을 팔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시골에서 보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뿐인 것이다。 우리들은 혼란한 도시에서 싸우고 있는 비참한 생존경쟁에 슬픔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여러번 빈민들이 사는 좁고 더러운 곳을 찾아간 일이 있는데 가난에 쪼들려 가슴이 막힐듯한 음산한 집에서 추하게 움출어 사는 것을、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은 훌륭한 집에서 더욱 굿세게 깨끗히 사는 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에 기가 질리고 말았다。 이러한 지저분한 소로(小路)로 돌아다니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언제나 배고파 하는 아이들은 돈 있는 사람을 보면 뺑손이를 치는 것이다。 불쌍한 어린이들、 나는 낮이나 밤이나 그들의 일을 생각하고 머리를 앓고 있다。 일방 어른들도 고역에 시달려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험하고 단단한 손을 만져보고 싸움보다도 좋지않은 살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 가를 알았다。 그들의 생활은 노력과 보수의 심한 불균형(不均衡)에게 눌려 있었다。 우리들은 태양과 공기는 하느님이 누구에게나 나누어 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일까? 저 도시의 골목에는 태양도 비추어 주지 않았고、 공기도 신선하지 않았다。 오오 인간이여! 어찌하여 너희들은 자기들의 형제를 고생시키는

가 일방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감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아멘」 하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번거롭고, 화려하고 소란스럽고, 또 돈을 버리고 도회를 떠나 삼림이나, 들에 돌아가 간소한 그리고 거짓이 없는 생활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렇게 하며는 그들의 아이들은 고귀한 수목처럼 믿음직 스럽게 성장하고 그들의 사상도 노방의 꽃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청결해 질 것이다。 도회에서 일년간 생활하고 시골에 돌아갔을 때 나는 이러한 일을 통절히 느꼈던 것이다。

또한 봄이 돌아와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대지를 밟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양치(羊齒)의 푸른 풀밭 가운데를 흐르는 개울에 손을 담구고 돌담을 기어 올라 유유히 파도 이는 푸른 초원을 바라볼 때, 나는 부지중 소리를 칠 것 같은 기쁨을 느꼈었다。

이렇게 산보하는 다음으로 즐거운 것은 二인용 자전차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다。 공기를 헤치면서 〃페달〃을 밟는 상쾌한 기분, 바퀴의 약동에 몸도 마음도 설레고, 금시 노래가 흘러 나오는 것이었다。

개는 산보이건 자전차를 타건 아랑곳 없다는듯이 언제나 나의 뒤를 따랐다。 나는 많은 개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큰 〃마스팁〃, 눈이 고운 〃스펜닐〃, 수목에 밝은 〃셋타〃, 정직하고 잘 따르는 〃볼·테리아〃, 그 중에서도 제일 내마음에 드는 개는 〃볼·테리아〃였다。 그 개는 바른 계통을 가지고 있다, 구부러진 교리。 개라고 미리 생각하더라도 웃음이 나올 것 같은 얼굴。 나의 개친구들은 내가 부

자유한 몸이라는 것을 안다는듯이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나의 몸에 착 달라 붙는 것이었다。그 개들의 동정깊은 행동、웅변한 교리의 흔드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한없이 따뜻하게 하여 주는 것이었다。

비가 와서 하루 종일 밖에 못나가는 날이면 다른 소녀들처럼 작난을 하고 논다。편물이나 기분좋은 대로의 책을 주어 읽는다。때로는 친구들과 책커나 체스같은 장난도 한다。나는 내가 쓰는 특별한 체스판을 가지고 있다。그것은 네모진 구멍이 파져 말이 곧장 서 있을 수 있게 되어 있다。검은 말은 납작하고、흰 말은 조금 높게 쌓여 있는 것같이 되어 있다。전부의 말에는 가운데 구멍이 파져 있어、그 중에서 왕과 보병의 구별을 말하는 유기로 만들어진 판이 있어 그 구멍에 처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말의 크기는 흰 것 검은 것의 크기가 다르고 흰 것이 조금 크다。〃깨임〃이 시작되면 나는 손으로 만져보고 상대방의 진영을 안다。내 차례다 하는 것은 말이 움직이는 소리로 알 수 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지루한 때는 혼자놀이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재미있었다。그것은 바른쪽 구석에 〃브레일〃식 점자로 점수가 표시된 〃트램프〃로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들과 노는 것처럼 재미난 일은 없다。아주 어린 아이들 하고도 놀 수가 있으며、다행히도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나를 좋아했었다。그들은 나를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물론 그들은 나의 손바닥에 글씨를 쓸줄을 모르나 그들의 입에서 내가 읽을 수는 있었다。그렇지만 무엇을 말하고 내가 알 수 없을 때는 그들은 무언극을 시작한다。때로는 잘못 알고서 당치도 않은 대답을 할때가 있다。그러면 그들은 나의 잘못을 웃음으로 맞는다。그러면

무언극을 다시 시작한다。 나는 가끔 그들에게 이야기도 하여주고 또한 놀이도 가르쳐 준다。 이와 같이 행복한 시간이 흐르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었다。

박물관과 미술 골동품 상점들도 나에게 즐거운 것을 제공하여 준다。 눈의 도움도 없이 손으로 차거운 대리석에서 형태라든가 정서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위대한 예술품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나의 손가락은 대리석의 선이나 육체에서 예술가가 표현한 사상이나 정서를 상상하고 또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회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더듬고 그 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이나 영웅들의 얼굴로부터 증오、 용기、 애정 등을 찾을 수가 있다。 나는 〃다이아나〃의 보ー스에서 삼림 깊숙이 감춰진 자유스럽고 온화한 것、 사자나 분노에 넘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냉정함을 느낀다。 나의 영혼은 〃뷔너스〃의 너그러운 자애가 넘치는 살붙임에 확희를 느끼고 〃바레〃의 〃부론즈〃에 쟝글의 신비한 것을 찾아 낼 수가 있었다。 나의 서재의 벽에는 슬픔에 넘친 아름다운 중에서도 찬란한 것이 깃들은 〃호ー머〃의 큰 〃메달〃이 손에 닿는 정도의 높이로 걸려 있다。 나는 그 넓은 얼굴의 주름살을 남김 없이 알고 있다。 그 주름살 하나하나에 그의 실생활로 체험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차겁고 보이지 않는 눈은 그가 동경하여 마지않던 〃헬라스〃의 푸른 하늘을、 또 나의 방 벽토까지도 계속하여 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그 아름답고、 굳세고、 거짓이 없는 입술、 이것이 시인의 얼굴이며、 슬픔을 알고 남은 인간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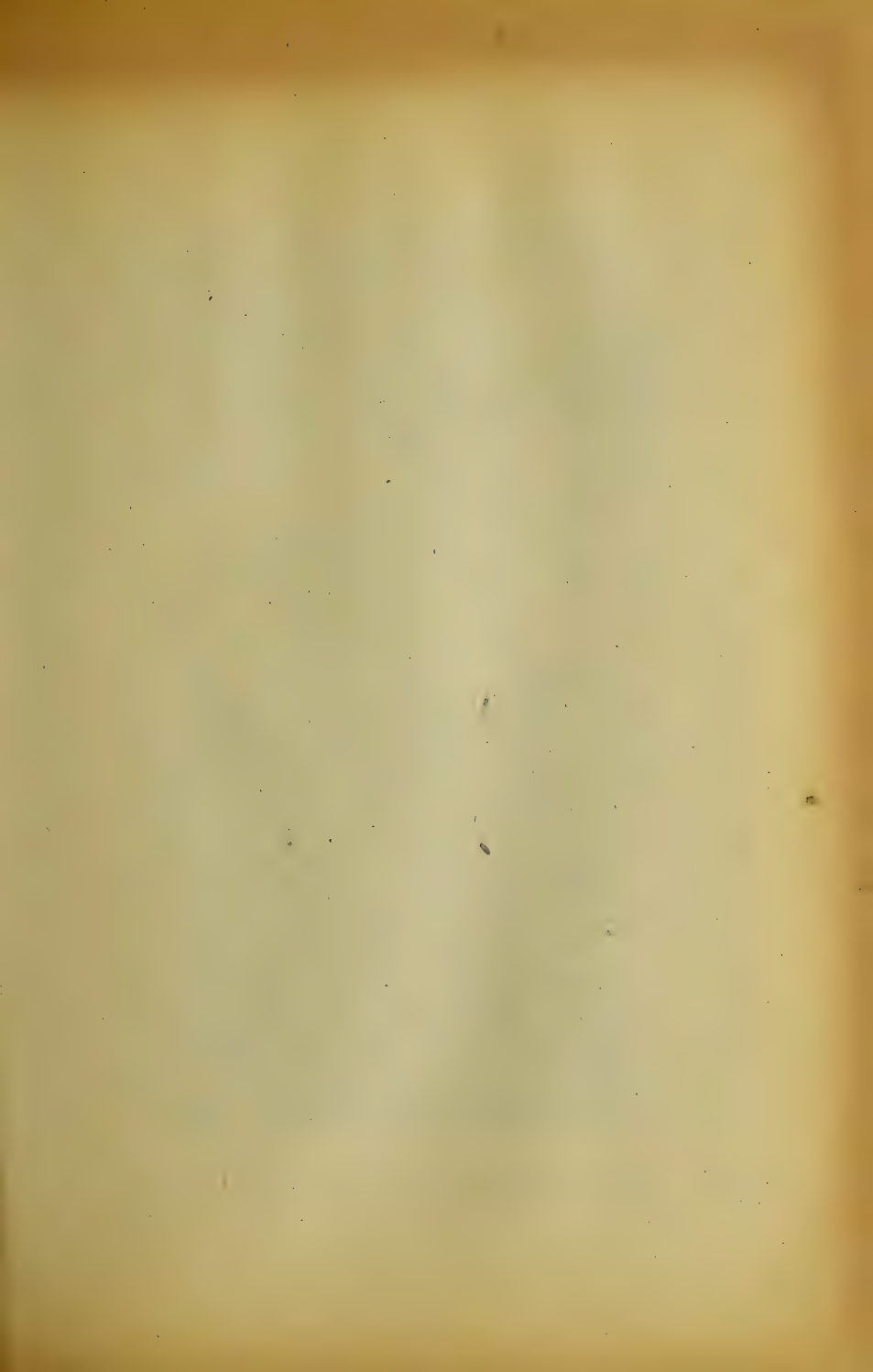
이었다。나에게는 그의 부자유함을 또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경우를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오! 백주의 어둠, 어둠속의 어둠。
회복할 수 없는 것이여!
태양의 완전한 일식같은 어둠이어!

나는 〃호ㅣ머〃가 생명、사랑을、싸움을、고귀한 민족의 업적을 노래부르며、이캼프 저캼프로 자기의 길도 잊어버린채 무엇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것처럼 헤매는 모양을 똑똑히 눈앞에 그릴 수 있다。그 노래는 광휘에 넘친 것이었다。그리고 나의 맹목의 시인은 불멸의 왕관과 영원의 찬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째서 손이 눈보다 조각의 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인지 생각할 때가 있었다。나에게는 율동적인 선의 흐름은 시각(視覺)보다도 더 미묘하게 손으로 감촉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대리석의 신이나 여신에게 고대 희랍인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또 한가지의 즐거운 것은 ——다른 즐거움같이 그렇게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극장에 가는 것이었다。나는 희곡을 읽는 것보다 현재 무대에서 상연되는 모양을 손바닥에 써 달라는 것이 재미 있었다。왜냐하면 그 당시는 내가 이 대사건 속에 서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모든 사람들을、시간과 장소도 잊어버리고 〃로맨틱〃한 옛날에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배우에게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나에게만

켈러 여사와 설리반 선생, 죠셉프・제퍼슨 씨

혜택된 특권이였다。 나는 〃엘렌·테리〃양이 우리들의 그리운 여왕으로 분하고 있을 때 그 얼굴 그의 장을 만져보아도 좋다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 여자에게는 적을 주저하게 하는 것 같은 위풍이 있었다。 그 여자의 옆에는 왕의 복장을 차린 〃헨리·어ㅣ빙〃경이 서 있었다。 그의 태도의 충실성은 결점인 신경질적 얼굴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가면을 쓴 것 같이 화장한 무대얼굴에는 깊게 인상적인 슬픔에 넘치는 위엄이 있었다。

나는 〃제퍼슨〃씨도 알고 있다。 나는 그를 나의 친구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가 출연하는 곳에 내가 있게되면 나는 언제나 그 분을 만나러 갔었다。 〃뉴욕〃의 학교에 있을 당시였는데、 〃립·반·윙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줄거리를 읽은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본 그 당시같이 그렇게도 잘 조화되고 변한 〃립〃의 매력에 넘친 친절한 인품을 느낄 수가 없었다。 〃제퍼슨〃의 〃때조〃가 하는 훌륭한 연기는 나를 반하게 만들었다。 막이 내리자 〃설리반〃양이 나를 무대뒤로 대리고 가 주었다。 나는 기묘한 의장과 길다란 머리、 그리고 수염을 만져 보았다。 〃제퍼슨〃씨는 이상한 二十년의 잠속에서 깨었을 때、 〃립〃이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알리려고 자기의 얼굴을 만지게 하였으며、 불상한 〃립〃이 일어 서려고 할 때 부들부들 떠는 것을 실제로 해 주었다。

나는 또한 그의 「경쟁자」라는 극도 보았다。 내가 〃보스톤〃에서 그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경쟁자」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나를 위하여 연출하여 주었다。 대합실이 무대로 돌변했었다。 그와 그의 아들은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봅·에이크레스〃가 결투장을 썼다。 나는 손에 써주는 것으로도 알수

없을 세밀한 연기를 일일이 만져보고 알 수 있었다。 둘이는 결투를 위해 일어 선다。 나는 칼들이 빠르게 처지며 또한 힘이 빠지고 걷잡을 수 없어 쓰러지는 불상한 〃봅〃의 움직임에 만져졌었다。 다음 순간이 위대한 배우가 위옷을 잡아다니고 입을 씰룩 거렸다。 나는 당장에 〃폴넝·워더〃 촌에 있는 느낌이 났으며, 〃슈나이더〃의 뒤범벅이 된 머리가 나의 무릎에 놓이는 것을 느꼈다。 〃제퍼슨〃 씨는 〃립·반·윙클〃에 있는 눈물과 웃음이 합하여 나오는 제일 좋은 대화를 낭독하고 나에게 그러한 글과 부합이 될 표정과 행동을 될 수 있는한 표현하여 보라 하였다。 물론 나는 극적 행동에 대하여서는 아무 감각이 없었다。 따라서 체계 없는 짐작을 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는 원숙한 기술을 가지고 행동과 말을 부합시키었다。 〃립〃이 「사람이 가면 그와 같이 속히 잊어버려지는 것인가?」 하고 우물우물 말할 때의 그의 한숨、 오래 자고 나서 그의 개와 총을 찾는 그 실망、 〃데릭〃과 계약을 할 때의 그의 희극적인 수저、 이러한 것들은 전부 생명 자체、 즉 이상적 생명、 우리가 사물이 그러하여야겠다는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극장에 간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十一년 전의 일이다。 그때에 소녀 여배우 〃엘시·레스리〃가 〃보스톤〃에 와서 〃설리반〃 양은 「거지 왕자」라는 극에서 출연하는 그를 나에게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다。 나는 기쁨과 엄숙한 느낌이 교대로 조그마한 물결 같이 그 극을 통하여 나의 몸에 흐르며、 또한 이것에 출연한 그 어린소녀를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극이 끝난 다음에 나는 무대 뒤에 가는 것이 허락되어 왕자의 옷을 입은 그 여자를 만나보았다。 많은 관중 앞에서 출연을 하였

으나 부끄러움도 피곤도 보이지 않고 다만 금발이 어깨에 흐르고 명랑하게 키스를 하고 서 있는 〃엘시〃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었다。 나는 말을 겨우 할 정도였었으므로 그 여자의 이름을 틀림 없이 발음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였다。 그가 나의 말을 알아듣고 손을 쥐어 주었을 때의 기쁨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것이 내가 생생한 아름다운 생명의 여러가지 면을 경험하였다는 것이 거짓일 것인가? 모든것은 제각기의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암흑에서도 또 소리없는 세계에서도 나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그 조건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방법을 배워왔던 것이다。

사실 나는 생명을 잡아 넣은 문 앞에서 그것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면서 홀로 앉아 있을 때는 때때로 차거운 안개같은 고독감에 둘러 싸인다。 그 문 안에는 광명의 음악、 거기에다 착한 벗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운명에、 무언한、 무자비한 운명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그의 명령에 반항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아직도 젊고、 그리고 정렬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목에까지 올라오는 불만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 불만은 흐르지 않는 눈물과도 같이 또다시 가슴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언이라는 것이 나의 영혼의 자유를 빼았고 있는 것이다。 희망이 다정스럽게『자기를 잊으시요。 그러면 즐겁게 됩니다。』하고 속사겨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빛을 태양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나의 심포니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 잠긴 미소를 나의 행복으로 하는 것이다。

제23장 나의 성장기

만일 이책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풍부하게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들 중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문학사에 쓰여질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익은 이름도 있을 것이고, 누구도 모를 시중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만일에 유명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인정에 의하여 더욱 아름다워지고 고귀해지고 그의 영혼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훌륭한 시(詩)모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북돋아준 사람들, 표현할 수 없는 동정에 넘친 악수를 하여준 사람들, 우리들의 열심이고 참지못하는 마음을 위안해 주는 신성하고 풍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날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경축일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번민, 근심, 걱정은 불유쾌한 꿈 모양으로 살아지고,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로 하느님의 진정한 세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며· 천인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채우고 있는 공허는 돌연히 열매를 맺을 꽃이 되어 활짝 피는 것이다。

알기쉽게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만이 만사가 좋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을 과거에 본일도 없고 또한 앞으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원숙한 인격은 우리들의 불만을 없에는 신주(神酒)일 것이다。 우리들은 그들의 따뜻한 손을 자모(慈母)의 손과 같이 느낄 것이다。

나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할때 지루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받는다.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나는 사물에 눈이 밝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특히 신문기자들의 방문은 환영할 수가 없다. 나는 또한 내가 알아 듣도록 그들의 지식을 줄이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것은 산보할 때의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악수는 그 인품을 잘 나타낸다. 나는 악수할 때에 주저되는 일이 있었다. 북풍과 악수하는 것같은 감격을 결한 차거운 손을 쥐는 일도 있었다. 또 내 마음속 깊이까지 따뜻하게 하여주는 그런 온정에 넘친 악수도 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손은 어린애들의 손에 많았다. 악수에게 나는 눈초리를 느낀다.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악수와 온정에 넘친 편지에는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보지도 못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너무도 많으므로 그들의 편지에 일일이 회답을 못할 정도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비록 그 뜻은 충분히 이해 못할 때라도 언제나 그들의 친절한 온정에 넘치는 말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써두고 싶은 것이다.

나는 나의 생활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 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최대의 특권의 하나라고 따지고 있다. 〃부룩스〃 사교의 인품을 아는 사람만이 그의 우정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즐거움을 알수가 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무릎에 앉아서 나의 조그마한 손으로 그의 손을 가지고 놀던 것이 즐겁고 재미 있었다. 내가 앉아 있을 동안 〃설리반〃 양은 그의 신과 정신적인 세계에 대하여 나의 또하나의 손에다 써주는 것이었다. 나는 도저히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중에서 실생활의 아름다움과 나의 성장에따라 아름다움과 깊어가는 사상을 호읍할 수 있었다。 나는 많은 종교가 존재하는 것에 당황해졌던 일이 있었다。『세상에는 다만 한개의 보편적 종교가 있다。 그것은 사랑의 종교이다。 전심전력으로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될 수 있는 한 모든 하느님의 자식들을 사랑하고, 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악의 가능성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가는 열쇠를 가지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그의 생활 그것이 그의 위대한 설교가 산 실례였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사랑과 박식이 그 신앙과 혼합되어 동찰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유스럽고
　　고상한 곳에, 또,
　　겸손하고 아름다우며 위안되는 곳에 하느님은 계시다。

라는 진리를 본 것이었다。

〃부룩스〃 사교는 나에게 특별한 신조와 교의(敎義)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아버지로서의 하느님, 동포로서의 인류, 이라는 둘의 중요한 개념을 나에 머리에다 심어 주었다。 이것이 모든 교의나 예배의 예의 근본일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며, 우리들의 아버지이며, 우리들은 다같이 그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구름은 흩어지고 정의가 굴복하는 때가 있더라도 악이 개가를 울리는 일이 없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나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어떤 곳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그리운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지금부터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 저것 공상을 하는 것 같이 즐거운 일은 없는 것이다。 그 친구들이 죽어버려 몇해가 지났었는데、 돌연히 찾아와서 살고 있을 때처럼 나에게 정다운 말을 한다 하여도 조금도 의외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언제나 내 신변일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부룩스〃사교가 별세하자 나는 성경을 처음에서 끝까지 읽어 보았다。 또한 〃스웨든보르그〃의 「천당과 지옥」、 〃드럼몬드〃의 「인류의 성천」 등 몇권의 종교철학서를 읽었으나 〃부룩스〃사교의 사랑의 교의 이상으로 나를 감격시킨 것은 없었다。

나는 〃헨리・드럼몬드〃씨를 알고 있다。 그의 강하고 그리고 따뜻한 악수는 축도(祝禱)와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동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지식이 탁월하고 또한 마음이 착하고 어진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앞에를 가면 질력이 난다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나는 〃올리버・W・홈즈〃박사를 처음 방문한 때의 일을 기억한다。 그는 〃설리반〃양과 나를 어떤 일요일 오후에 초청해 주었다。 내가 겨우 말하기를 시작한 해의 이른 봄이었다。 우리는 그의 서재로 안내가 되었다。 그는 불옆의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몹시 생각하면서 다른날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혼자 조용히 〃활스〃강에 잠잠히 흐르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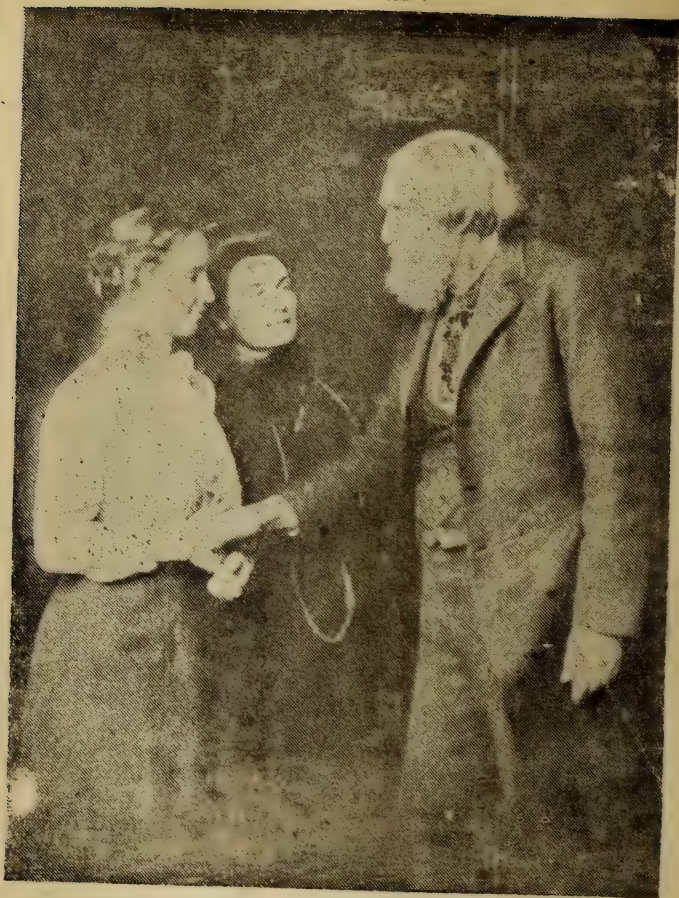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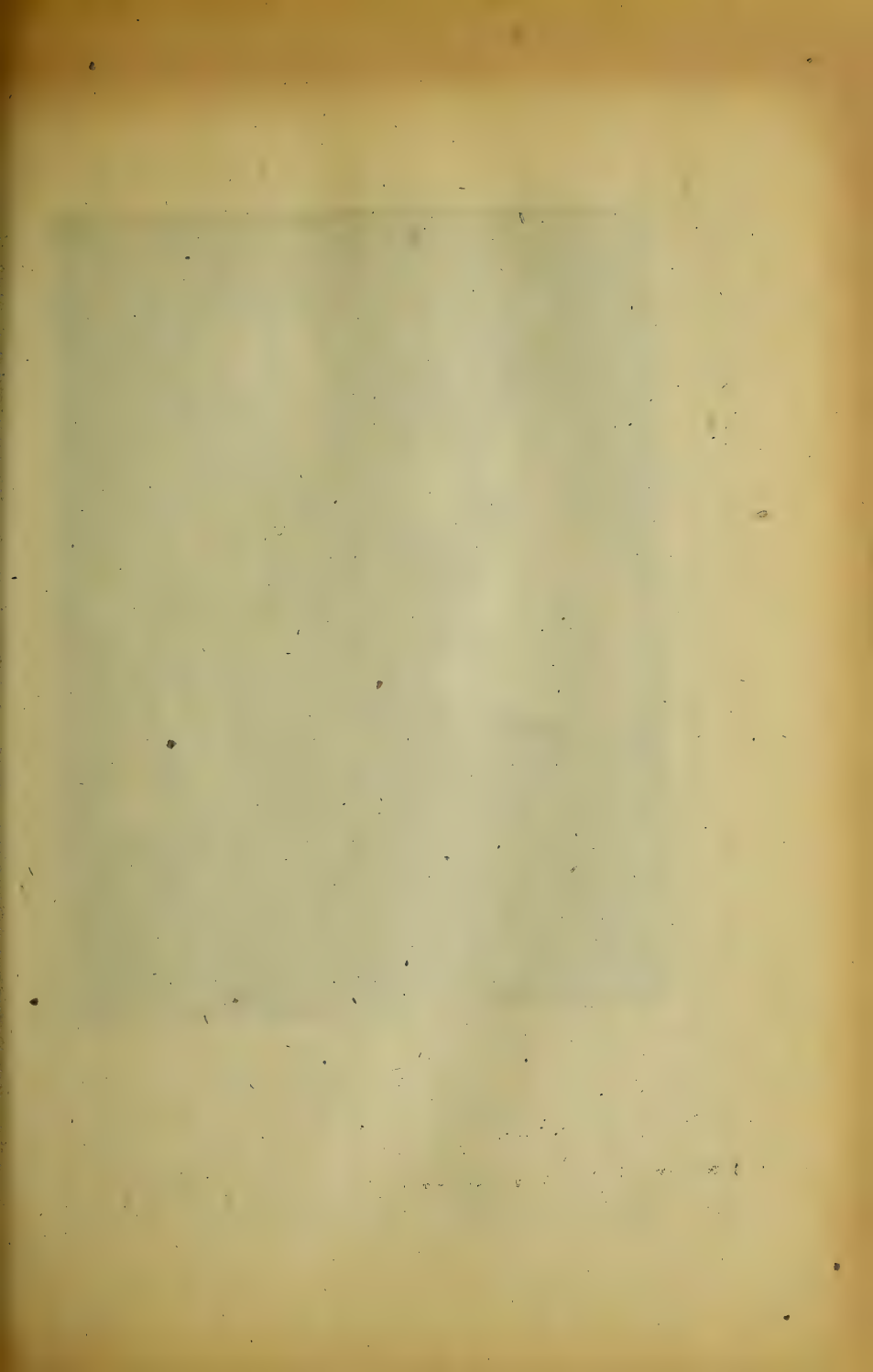
『네! 〃활스〃강은 나에게 여러가지 연상을 주지요。』 그 방에는 책이 가득 쌓여 있는 중거로 잉크와

가죽냄새가 나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거기에 손을 대 보려고 손을 내밀었다。 손에 닿은 것은 아름답게 장정된 〃테니슨〃 시집이었다。 〃설리반〃이 그것을 알게 되자 나는、

부서져라。 부서지고、 또 부서져라。
너의 회색 빛 바윗돌 위에! 오! 바다여!

라고 읊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중지하였다。

나의 손 위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였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시인을 감동시킨 것이다。 그리고 나도 몹시 슬픔에 잠기고 말았다。 그는 나를 그의 의자에 앉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재미 있는 것을 가져다 주어 만져 보게 하였다。 나는 「들어앉은 앵무조개」를 낭독하였다。 그 시는 당시 내가 좋아했던 것이었다。 그후도 여러번 그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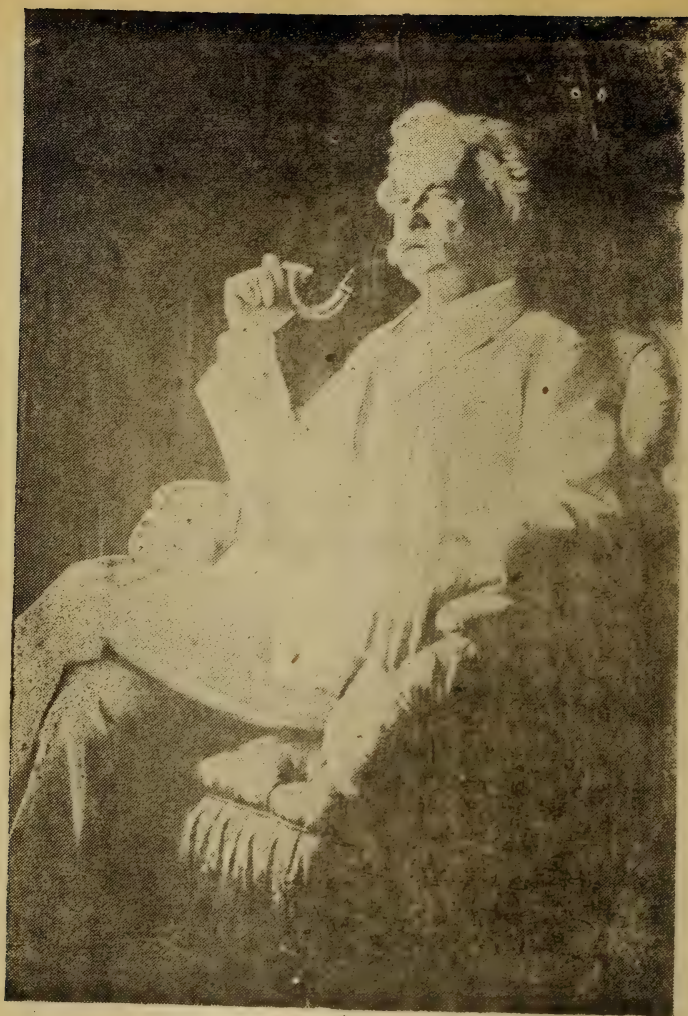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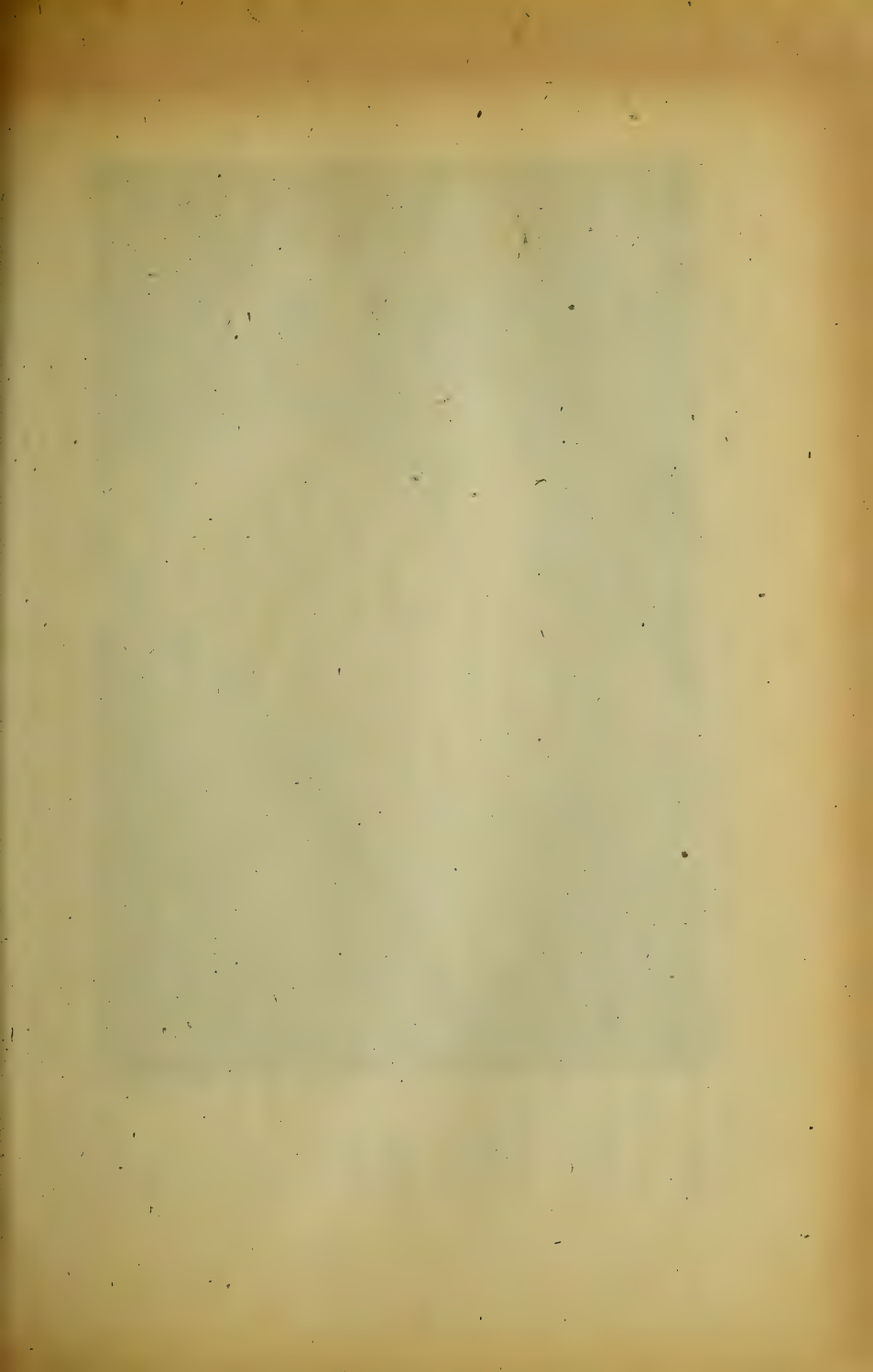
〃홈즈〃박사를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설리반〃양과 나는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메리맥〃에 있는 〃휘티어〃씨를 방문하였다。 그의 친절한 행동과 이상하게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자기의 시의 凸판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서 나는 「학교시대」라는 시를 읽었다。 그는 내가 발음을 똑똑히 하는 것을 듣고 무엇을 읊으는지 곰시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 시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다。 나는 그가 대답하는 것을 그의 입술에서 읽었다。 그는 시 중에 나오는 어린 소년은 자기라느니、 또한 이름은 〃살리〃라느니 하였다。 그 다음 이야기는 지금 다 잊어버리였다。 나는 또한 「라우스·데오」

켈러 여사와 설리반 여사, 에드워드·E·헤일 박사

를 낭독하였다。 내가 최후의 구절을 읽게되자 그는 나의 손에다 노예의 상을 쥐어 주었다。 천사가 〃피터〃를 감옥에서 해방하여 내올 때 철사줄이 떨어지듯이 그 노예의 구부러진 몸에서 쇠사슬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서재에 들어갔었다。 그는 나의 선생님에 대한 찬사를 (그대의 사랑스러운 제자의 정신적 고통을 풀어주고, 그대의 고귀한 업적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그대는 나의 진실한 친구임을 맹서한다。 〃쫀·G·휫터〃) 라고 썼었다。 그리고 나에게 『그는 당신의 혼의 해방자이요。』라고 하였다。 돌아갈 때 그는 현관까지 나오면서 나의 이마에 보드러운 키스를 해 주었다。 나는 내년 여름에 또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이 실현되기 전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에드워드·E·헤일〃 박사도 나의 가장 오랜 친구의 한사람이다。 여덟살 때 그를 알게 되어 이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친근해 지고 있다。 그의 현명하고 인자한 동정은 〃설리반〃 양과 내가 시련과 슬픔이 벅찰 때의 기둥이 되었던 것이다。 그의 굳센 손은 여러 험한 곳을 걷는 우리를 구해 주었었다。 또 그가 우리에게 하여준 것과 같이 많은 고난과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준 것이다。

그는 교의라는 새로운 가죽자루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옛날 술을 가득차게 하였다。 믿음이라는 것은、 또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자유로 된다는 것은 무엇인 가를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그의 조국애、 동포애、 거기에다 높은 것을 구하려는 진지한 일생에 우리들은 산 교의를 발견하였다。 그는 위대한 예언자이며, 혼의 고무자이며、 또 언행일치의 사람이며, 모든 동포들의 친구였다。 하느님이여 그를 축복하여 주소서!

나는 전에 〃알렉산더、G·벨〃박사를 처음 만난 당시의 일을 기록하였다。〃워싱톤〃과 〃촬스·D·와ー너〃의 소설로 유명해 진 〃배덱〃촌의 부근 〃켚·브레텐〃섬 중심에 있는 그의 아름다운 집에서 즐겁게 보낸 일이 있나。〃벨〃박사의 실험실과 넓은 〃브라스·돌〃해변에서 나는 그의 실험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비행선 발명을 위한 연을 올리는 것을 도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그는 다방면의 학자로서 그의 손에 잡히는 어떠한 소용되지 못하는 것이라도 훌륭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다。또 때로는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놀래게 하였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만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주는 능력이 있었다。그러나 그의 가장 지배적인 열정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는 귀먹은 어린이를 품에 안을 때 제일 행복스러워 했다。 그가 귀먹은 사람들을 위하여 한 일은 계속하여 세상에 남아 있어 지금부터 올 몇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우리들은 그를 사랑하고、그 업적과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아놓은 훌륭한 정신을 존경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뉴욕〃에 두해 있는 동안 나는 많은 훌륭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그들의 이름은 그후에도 여러번 들었으나 두번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본 곳은 나의 친한 친구인 〃로렌스·헛튼〃씨 집에서였다。그와 그의 부인인 얌전한 〃헛튼〃부인을 그들의 아름다운 집으로 방문하여 많은 재능에 혜택을 받은 그들의 우인의 기중한 훌륭한 저서를 보여 주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특권이었다 〃헛튼〃씨는 모든 사람들을 정화하고 또、창작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재능

마―크·트웨인 씨

을 가지고 있었다。

그를 이해하려면「내가 알고 있는 아이」라는 책을 읽을 필요도 없다。그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이며 또한 인간들의 친구일 뿐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자애심 깊은 온정을 가지고 도와준 분이었다。

〃헛튼〃 부인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벗이었다。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혀 그 부인의 덕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그 부인은 나의 대학시대를 통해서 나의 순조로운 과정을 진보시키기에 여러가지 일을 충고하고 도와주었다。어려운 문제와 원기를 잃은 고경속에 서 있을 때、나는 언제나 그 부인의 격려하는 편지를 받았었다。그 부인이 나로 하여금 하나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면 다음에 가로 놓인 많은 곤난도 문제없이 극복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유열한 분이었다。

〃헛튼〃 씨는 그의 집에서 나에게 많은 작가를 소개해 주었다。그 중에서 특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윌리암・D・하우엘〃 씨와 〃마ー크・트웨인〃일 것이다。나는 〃리챠드・W・길더〃、〃에드먼드・C・스테드만〃 씨에게도 소개받고、〃촬스・D・와ー너〃 씨도 만나 보았다。그는 많은 작가들 중에서도 특히 행복감에 넘친 분이었으며、누구에게도 사랑받은 분이었다。그의 동정심은 모든 생물을、그리고 모든 이웃 사람을 자기몸 같이 사랑했다는 표현 그대로의 동정심에 넘치는 분이었다。어떤날 〃와ー너〃 씨는 삼림의 시인 〃쫀・버로스〃 씨를 소개해 주었다。나는 그들의 온건하고 동정심이 깊은 것에、그들의 수필과 시(詩)에서 느끼는 정도의 쾌활함과 사람을 위안하는 마음의 깊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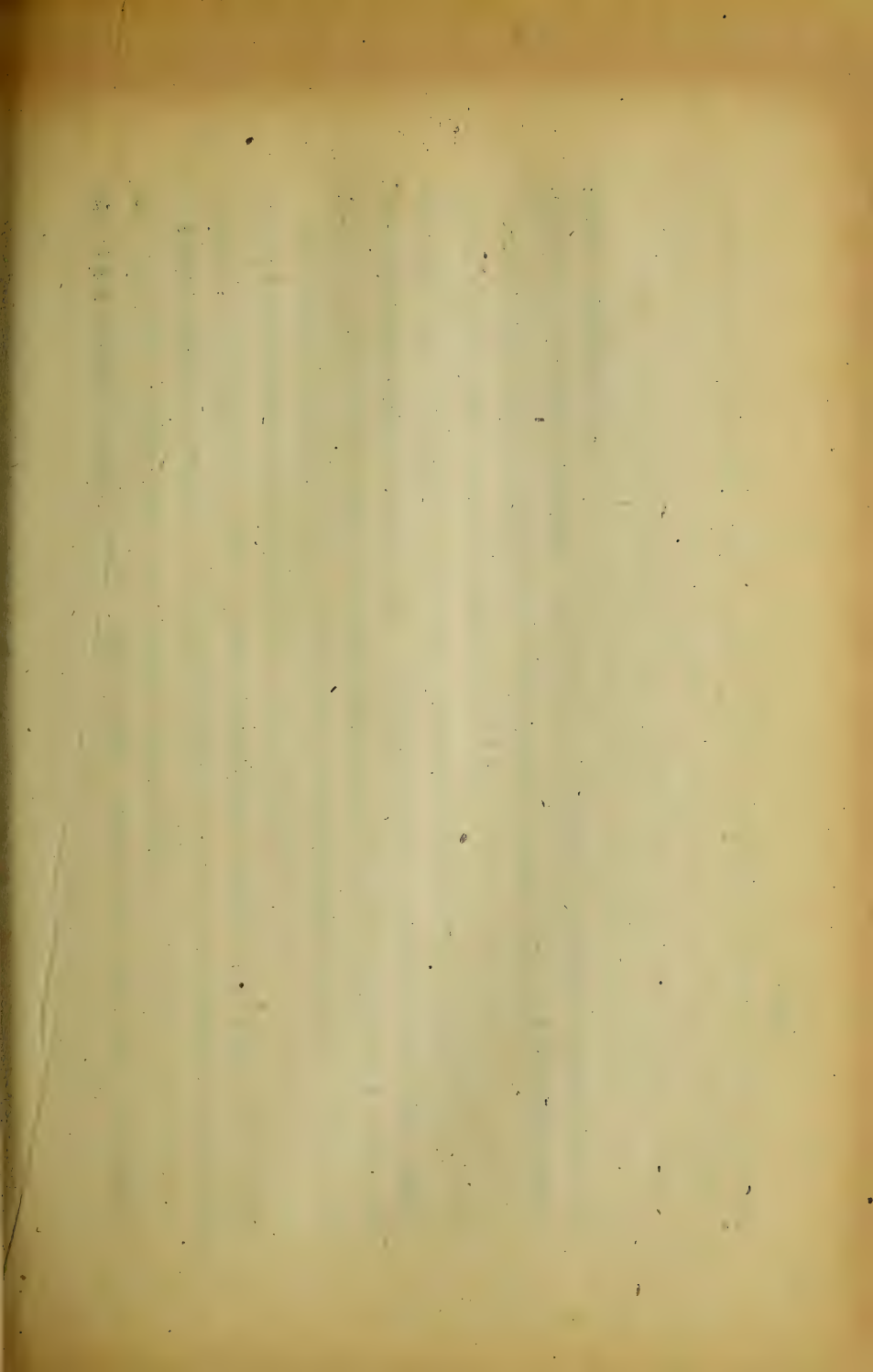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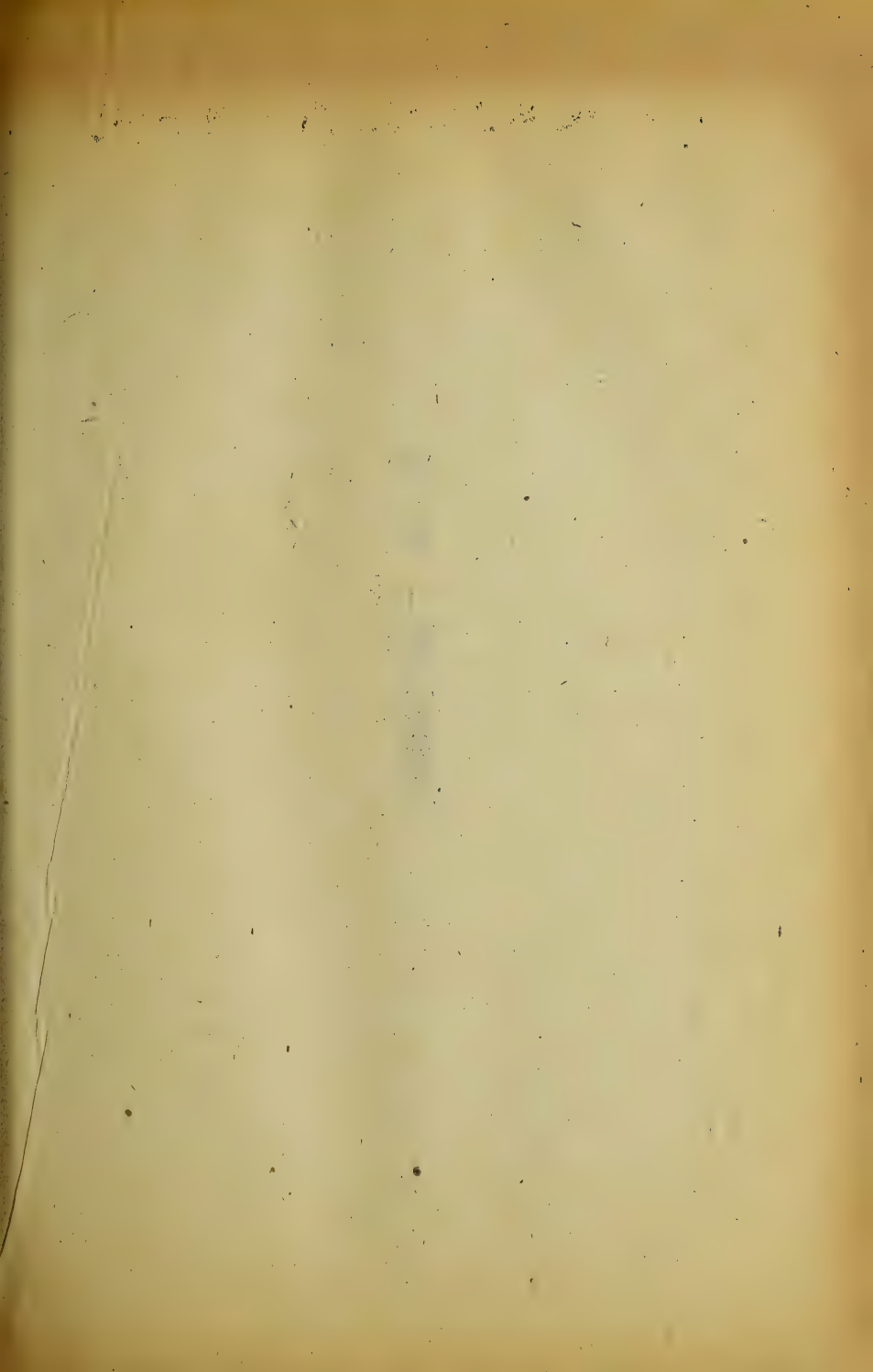
였다。나는 이와 같은 문학자들이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명언(名言)、기구(奇句)에 대하여、불을 뿜는 토론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있는 힘을 다 하여 노력하여도 나의 존재란 마치 〃아스카니우스〃、운명의 여신의 뒤를 쫓아 빠른 걸음으로 걷는 〃이니아스〃의 뒤에서 숨을 허덕이면서 쫓아가는 조그마한 〃아스카니우스〃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나 그들은 나를 토론에 참석하게 하여 주는 때도 있었다。〃길더〃씨는 十五야 밝은 달 밑에서 사막을 건너 〃피라밋트〃에 향한 여행담을 하여 주었고、또 그의 편지의 서명한 곳에 나의 손가락을 대어 감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이 일은 〃홈〃박사가 그 서명을 〃브레일〃식 점자를 흉내 낸 울퉁불퉁한 바늘구멍으로 써 주었던 것을 생각해 내게 하였다。나는 〃마—크·트웨인〃의 입에서 여러가지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나는 그의 악수에서 그의 자애깊은 눈을 상상할 수 있었다。그는 말하는 또 말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그의 독특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그가 비꼬는 기지(奇智)를 가지고 놀리는 무어라할 수 없는 야릇한 목소리로 말을 할 때에도 그 마음은 〃일리아드〃같은 인간적인 동정에 넘친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뉴욕〃에서 많은 매력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센트·니콜라스〃지(誌)의 모든 사람이 사랑했던 편집자 〃메리·멥·돗지〃부인、「페씨」의 아름다운 저자 〃릭스〃분인 (〃켓트·다그라스·위긴〃)등이 있다。나는 온정심에 깃들은 선물、그의 거작인 아름다운 저서、언제 읽어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따뜻한 편지、아름다운 사진 등 즐거운 회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앞으로 자꾸 쓸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나 공교롭게도 지수(紙數)가 제한되어 있고 또 문장화 하려면 너무나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거

나, 활자로 비추기에는 실례되는 것들도 있었던 것이다. 〃로렌스·헛튼〃부인의 일도, 나를 잃어버리지나 않을가 하는 초조감에 벼르고 별러서 간신히 손을 댄 것이다.

최후로 두 친구의 것을 말하겠다. 내가 때때로 〃린드허스트〃를 방문한 바 있는 〃피쓰버ㅡ그〃의 〃윌리암·도우〃부인이다. 그는 언제나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되게 하기 위하여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그의 간절하고 정당한 충고는 언제나 나의 좋은 지침으로 되었었다.

또한 사람에게도 나는 깊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는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유명하다. 그는 능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므로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는 좋은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결국 나는 이름을 공개하면 실례가 되는, 영광이 있는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앞에 나오고 말았다. 단지 한마디 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나의 대학입학에 있어서 큰 힘을 도와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생애의 이야기를 만든 것은 기실 친구들이다. 그들은 무수한 방법으로 나의 생리적인 불구를 정신적인 특권으로 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컴컴한 그늘 속에서도 안온하고 행복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第二部 서한집(書翰集)

소개의 말

"헬렌"·켈러"의 편지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의 인생의 이야기의 보충으로써 뿐 아니라、 그의 사상과 표현력의 성장(成長)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의 성장 그 자체가 그를 유명하게 하였다。 이 편지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소녀가 썼다는 점에서 주목할 것이며、 또한 경탄과 호기심을 가지고 읽을 것언것 뿐 아니라、 그 편지들은 처음부터 훌륭한 것이다。 제일 좋은 구절들은 그가 자기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세계를 그리는 것이다。 그의 세차(歲差)에 관한 의견은 중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것은 말이 그에게 대하여 무엇을 의미하였으며、 조각상들을 어떻게 느끼였으며、 개를 어찌 느끼었으며、 또 가끔 전람회에서 닭물을 어찌 느끼었으며、 그가 "성·바로로뮤" 사원의 낭하에 서 있을 때에 오르간 소리가 구르는 것을 어찌 느끼였느냐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구절들은 독자가 하나라도 며 있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그가 일평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모양으로 살려고 하였던 것이며、 또한 그는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묘사하느니보다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는 것을 묘사한 까닭이다。

거의 편지들이 탁월한 한가지 이유는 그 편지의 수로 보아 많나는 것이다。 편지들은 그로 하여금 글을 쓰게 훈련한 연습이였다。 그는 다른 때에 다른 곳에 살았으므로 친구들과 친척에게서 떨어져 있었다。 친구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가끔은 아니지마는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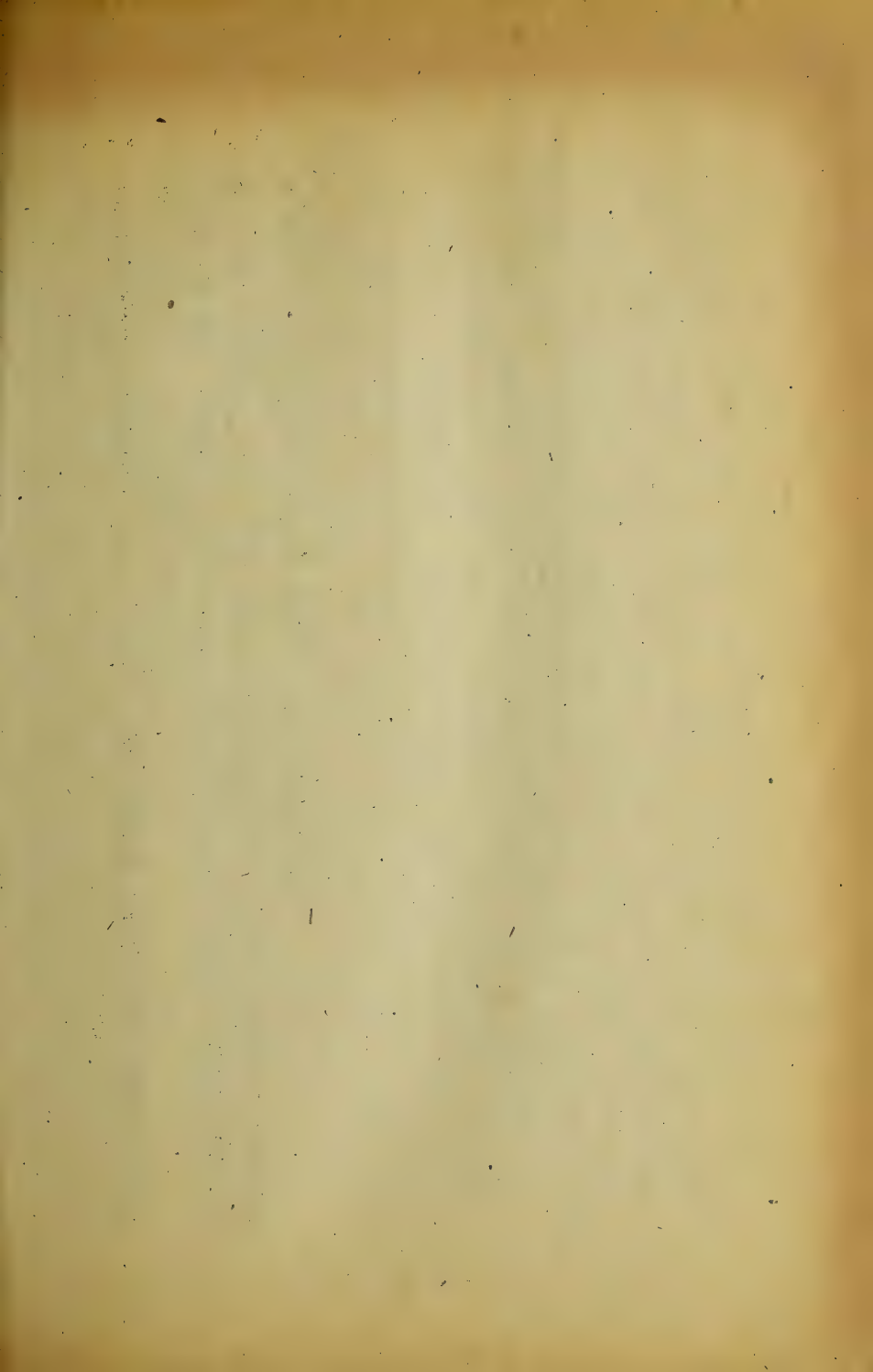
라 잘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가 친밀하였던 그들에게 또한 그 친구들 중의 몇사람에게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러한 것에 대하여 친밀하게 솔직하게 썼다。 그가 돌은 어린이의 이야기를 소박하게 반복한다든지、 말하자면 〃홈즈〃박사와 〃부룩스〃사교에게 암송한 「작은 재키」라는 이야기 같은 것은 재미가 있으며、 그가 그날 그날 공부한 자리、 식물 같은 것을 앵무새 모양으로 반복을 한다든지、 새로이 배운 글자들을 의식적으로 나열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미도 있고 또한 교육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가 무엇을 배우고 있었나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전부 글자로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새로운 글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것으로 만드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편지들의 발췌는 두가지 목적으로 편찬이 되었다。 그의 발전을 보여주며、 또한 수백장의 편지 중에서 가장 재미나고 유익한 구절들을 공개하려는 것이다。 一八九二년 전에 쓴 편지중 많이는 〃퍼킨스〃학교 보고서에 출판이 되었다。 그해까지의 편지는 전부 그대로 인쇄가 되었다。 그것들은 그의 발달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밀한 것、 말하자면 구두점까지도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정직하게 출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一八九二년 이후와 편지로부터는 문체로 보아 가장 아름답고、 전기(傳記)로 보아 가장 중요한 것과 문체가 훌륭한 것들을 선택하였다。 편지들의 원문을 수집할 때、 나는 〃헬렌·켈러〃양이 쓴대로 즉 구두점、 철자등을 그대로 두었다。 내가 한것은 선택하고 짜른 것 밖에는 없다。

편지는 연대순으로 나열하였다。 〃부룩스〃사교、 〃홈즈〃박사、 〃휘티어〃씨의 몇가지 편지들은 회답

이기 때문에 그 원 편지들의 곧 뒤에다 붙이었다。 一九〇一년에 쓴 몇가지 중요한 편지를 제외하고는 이 편지들의 선택은 一九〇〇년에서 끝낸 것이다。

지금 그는 성인이 되었으나 그의 편지는 다른 성숙한 사람들의 편지나 마찬가지로 판단되어야할 것이다。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교육된 눈멀고 귀먹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초월하여 더 유명하여지지 않는 한 그 여자의 편지는 출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필립스・부룩스 씨에 보낸 켈러 여자의 편지

So. Boston.
May 1, 1891.

My dear Mr. Brooks,

Helen sends you a loving greeting this bright May-day. My teacher has just told me that you have been made a bishop, and that your friends everywhere are rejoicing because

one whom they love
has been greatly honor-
ed. I do not understand
very well what a
bishop's work is but
I am sure it must be
good and helpful, and
I am glad that my
dear friend is brave,
and wise, and loving
enough to do it. It is
very beautiful to think
that you can tell so

서 한(書翰) —一八八七—一九〇一—

一八八七년 三월 三일에 "설리반" 선생은 "헬렌·켈러"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다。 三개월반이나 지난 뒤에 그는 손으로 첫번에 배운 단어를 써 보았고、 이 편지를 연필로 썼다。

사촌 "안나"에게 ("죠-지·T·터ㅡ너"부인)

"헬렌"은 "안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죠ㅡ지"가 "헬렌"에게 사과를 주겠다고 합니다 "심프손"은 새를 쏜답니다 "쟉"은 "헬렌"에게 과자 한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의사는 "밀드레드"에게 약을 주려 합니다 어머니는 "밀드레드"에게 새 옷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후 二十五일이 지난 뒤 그가 잠시 동안 집을 떠났을 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단자(單字) 두개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으며、 모가 난 활자체(活字體) 글자는 모두 방향이 기울어졌다。

"케이트·A·켈러"부인에게

"헬렌"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는 "헬렌"에게 약을 주었읍니다 "밀드레드"는 그네에 앉게될 것입니다 "밀드레드"는 "헬렌"에게 키스를 하였읍니다 선생님은 "헬렌"에게 복숭아를

주었읍니다 "죠ㅡ지"는 팔을 다쳤읍니다 "안나"는 "헬렌"에게 레몬수를 주었읍니다 개가 일어섰답니다。차장이 차표를 잘랐읍니다 아버지는 "헬렌"에게 차안에서 마실 물을 주었읍니다 "카르로타"가 "헬렌"에게 꽃을 주었읍니다 "안나"는 "헬렌"에게 고운 새 모자를 사줄 것입니다 "헬렌"은 어머니를 껴안고 키스하려고 합니다 "헬렌"은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할머니도 "헬렌"을 사랑합니다

一八八七년 七월 十二일

알라바마·헌스빌에서

안녕히 (서명 없음)

다음해 九월까지 "헬렌"은 생각하는 것을 더 넓히고 그의 문장구조는 더욱 완전하게끔 진보를 이루웠다。

"보스톤"남쪽에 있는 "퍼킨스"학교의 장님 소녀들에게

"헬렌"은 어린 장님 소녀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헬렌"과 선생님은 어린 장님 소녀들을 보러 올 것입니다 "헬렌"과 선생님은 증기차를 타고 "보스톤"으로 갈 것입니다 "헬렌"과 장님소녀들은 재미있게 놀 것입니다 장님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렌"은 "아나그노스"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나그노스"씨는 "헬렌"을 사랑하며、키스할 것입니다 "헬렌"은 장님 소녀들과 학교에 갈 것입니다 "헬렌"은 다른 장님소녀들 모양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계

산을 할 수도 있고 철자법을 배울 수도 있읍니다 〃밀드레드〃는 〃보스톤〃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밀드레드〃는 〃프린스〃를 큰 소리로 불렀읍니다 〃잠보〃가 〃보스톤〃으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는 총으로 집오리를 쏘아서 오리는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읍니다 〃잠보〃와 〃마미〃가 물에서 헤엄을 치고 오리를 밖으로 꺼내왔읍니다 〃헬렌〃은 개와 함께 놉니다 〃헬렌〃은 선생님과 함께 말등에 올라 탔읍니다 〃헬렌〃은 〃핸디〃에게 손에 있는 풀을 주었읍니다 선생님은 〃핸디〃에게 빨리 가라고 때려 주었읍니다 〃헬렌〃은 장님입니다 〃헬렌〃은 장님소녀들에게 쓴 편지를 봉투속에 넣을 것입니다 안녕히

一八八七년 九월

터스컴비아에서

헬렌·켈러

二·三주일이 지난 후 그의 문체는 더욱 자연스럽고、명확하게 변화되었다。 비록 그가 아직도 관사를 빼고 단순한 과거를 쓸 때는 did라는 구조로 써 왔지만。 드디어 그는 관용어로 쓰게끔 진보되었다。 이것은 아이들 사이에는 보통 쓰는 관용어이다。

〃퍼킨스〃학원에 있는 장님 소녀들에게

친애하는 어린 장님 소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예쁜 책상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나는 "멤피스"에 계신 어머니에게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써 보냈읍니다 어머니와 "밀드레드"는 수요일에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어머니는 내게 고운 새 옷과 예쁜 모자를 갖다 주셨읍니다 아버지는 "헌스빌"에 갔읍니다 그는 과자와 사과를 저에게 갖다 주셨읍니다 나와 선생님은 "보스톤"으로 와서 너희들을 보게될 것입니다。"낸시"는 나의 인형입니다 그 애가 울면 내가 등개질을 해서 재워줍니다 "밀드레드"는 병이 났읍니다 의사는 그가 낫도록 약을 줄 것입니다。나와 선생님은 일요일에는 교회로 나갔읍니다 "래인"씨는 책을 읽고 말을 하였읍니다 숙녀가 올간을 쳤읍니다。나는 바구니 속에 돈을 꺼내어 어른에게 주었읍니다。선생님은 나의 머리카락을 예쁘게 지져서 "컬"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나는 어린 장님아이들을 껴안고 키스하려고 합니다。"아나그노스"씨는 나를 보러 올 것입니다。안녕히

一八八七년 十월 二十四일

터스컴비아에서

헬렌·켈러

"퍼킨스"학원 원장인 "미카엘·아나그노스"씨에게

친애하는 "아나그노스"씨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나와 선생님은 그림을 많이 가졌읍니다。선생님은 그것을 당신께 보낼 것입니다。사진자가 그림을 만듭니다。목수가 새로 집을 짓고 있

읍니다。 정원사는 땅을 파고, 삽질을 하여 야채를 심습니다。 나의 인형 〃넌시〃는 자고 있읍니다。 그애는 병이 났읍니다。 〃밀드레드〃는 건강합니다。 〃프랭크〃아저씨는 사슴을 사냥하시러 나갔읍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조반으로 사슴고기를 먹게 됩니다。 나는 두 바퀴가 달린 차를 탔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것을 밀었읍니다。 〃심프슨〃은 나에게 옥수수와 호두를 주었읍니다。 사촌인 〃로자〃는 자기 어머니를 보러 갔읍니다。 일요일이면 사람들은 교회에 갑니다。 나는 책에서 여우와 상자에 관해서 쓴 것을 읽었읍니다。 여우는 상자속에 앉을 수 있읍니다。 나는 책에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一八八七년 十一월

터스컴비아에서

헬렌·켈러

〃알렉산더·G·벨〃박사에게

친애하는 〃벨〃박사에게。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되니 매우 기쁩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사진을 보내실 겝니다。 나와 아버지와 아주머니는 당신을 보러 〃워싱톤〃으로 갔읍니다。 나는 당신의 시계를 가지고 놀았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워싱톤〃에서 의사를 보았읍니다。 그는 나의 두 눈을 들여다 보았읍니다。 나는 책에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읍니다。 나는 쓸 수도 있고、 철자법을 외울 줄도 알고、 셈을 셀 수도

있읍니다。 선량한 소녀입니다。 나의 동생은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읍니다。 우리는 "잠보"와 함께 돈을 갖고 있읍니다。 "프린스"는 착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새를 잡을 수 없읍니다。 쥐가 애기 비둘기를 죽였읍니다。 참 불상하게 생각됩니다。 쥐는 나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六월이면 나와 어머니와 선생님은 "보스톤"에 갈 것입니다。 나는 어린 장님 소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낸시"는 나와 같이 갈 것입니다。 그애는 착한 인형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예쁜 새 시계를 사줄 것입니다。 사촌 "안나"가 내게 고운 인형을 주었읍니다。 그의 이름은 "애리"입니다。 안녕히

一八八七년 十一월

터스컴비아에서

헬렌・켈러

그 다음해가 시작될 때까지 그의 표현력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형용사가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색(色)을 말하는 형용사도 쓰게 되었다。 비록 그는 색갈에 대한 감각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거하여 지성적으로 대부분의 어휘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단어를 쓸 수 있었다。 이 편지는 "퍼킨스"학교에 있는 동창생에게 쓴 것이다。

"사라・톰린슨"양에게

친애하는 "사라" 에게

오늘 아침 너에게 편지를 쓰니 매우 기쁩니다。 "아나그·노스" 씨가 나를 보러 왔으면 좋겠읍니다。 六월이 되면 "보스톤" 으로 가겠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갑과 "제임스"의 좋은 칼러와 "심프슨"의 카후스를 사려고 합니다。 나는 "베티" 선생님과 그의 학생들을 보았읍니다。 그네들은 예쁜 크리스마스 나무를 갖고 있읍니다。 그 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훌륭한 선물이 많이 있었읍니다。 나는 오리와 새와 과자를 가졌읍니다。 나는 크리스마스날에 갖고 놀 것을 예쁜 것들로 많이 갖고 있읍니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넨시"를 넣어둘 트렁크와 옷을 많이 주셨읍니다。 나는 선생님과 어머니와 더불어 파ー티에 갔읍니다。 우리는 춤을 추고 놀았읍니다。 호두、 과자、 오렌지 등을 먹었으며、 어린 소년 소녀들과 같이 즐겁게 놀았읍니다。 "홉킨스" 부인은 나에게 고운 반지를 보내주었읍니다。 나는 그 부인과 어린 장님소녀들을 사랑합니다。 남자 어른과 소년들이 공장에서 양탄자를 만들고 있읍니다。 양털은 양에게서 자라납니다。 어른들이 큰 가위로 양털을 잘라 냅니다。 남자들과 부인네들은 공장에서 양털로 된 나사헌겊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화는 들발에서 큰 나무줄기에서 자랍니다。 어른、 아이들、 부인네들은 목화를 땁니다。 우리는 실과 무명옷을 만듭니다。 목화나무는 빨갛고 흰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읍니다。 선생님은 옷을 찢겼읍니다。 "밀드레드"는 울었읍니다。 나는 "넨시"를 돌보아 주어야겠읍니다。 어머니는 "보스톤"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예쁜 새 앞치마와 새옷을 사주신답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주머니하고 "녹스빌"로 갔읍니다。 "베씨"는 몸이 약하고 작습니다。 "톰프슨"의

병아리가 "래이라" 집의 병아리를 죽였읍니다. "예바"는 내 침대에서 잡니다. 나는 착한 소녀들을 사랑합니다. 안녕히

一八八八년 一월 二일

터스컴비아에서

헬렌·켈러

다음 두편의 편지는 一월에 그가 "테베시"의 "멤피스"에서 살고 있는 친척댁으로 찾아간 것을 쓴 것이다. 그는 목화 취인소를 가보았다. 그가 지도와 칠판을 만져 보았을 때 사람들은 학교에 갑니까 하였다. 그 여자는 칠판에다 출석하고 있는 신사들의 이름을 전부 썼다. "멤피스"에 있는 동안 그는 커다란 "미시시피"강의 기선을 타고 건너갔다.

"에드워드·E·헤일"박사에게

친애하는 "헤일"씨여,

오늘 아침 당신께 편지를 쓰게되어 기쁩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친절한 신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여 주셨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즐거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책에서 호랑이와 사자와 양떼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읽고 있읍니다. 六월에는 어린 장님 소녀들을 보러 "보스톤"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러도 가겠읍니다. 나는 "멤피스"로 할머니와 "내니"아주머니를 보러 갔읍니다.

선생님은 예쁜 새옷과 모자와 앞치마를 사다 주셨읍니다。
어린 "나타리"는 아주 약하고、작은 애기입니다。 아버지는 증기선을 보러 가는데、우리를 데리고 가셨읍니다。 그것은 커다란 강이였읍니다。 뽀ㅡ트는 집과 비슷합니다。 "밀드레드"는 착한 애기입니다。 나는 어린 동생과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낸시"는 내가 "멤피스"로 갔을 때는 착한 아이가 아니었읍니다。 그 애는 큰 소리를 내고 울었읍니다。 오늘 더 쓰지 않겠읍니다。 피곤합니다。 안녕히

一八八八년 二월 十五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에서

헬렌·켈러

"미카엘·아나그노스"씨에게

나의 친애하는 "아나그노스"씨ㅡ
나는 점자(點字)로 당신께 편지를 쓰게 되니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 "루이시안·톰프슨"이 오랑캐꽃、크로ㅡ카스、황수선으로 된 아름다운 꽃다발을 저에게 보내주었읍니다。 공일날엔 "아데린·모ㅡ제스"가 나에게 예쁜 인형을 갖다 주었읍니다。 그 인형은 "뉴욕"에서 태어났읍니다。 그의 이름은 "아데린·켈러"입니다。 그 애는 눈을 감을 수 있고、팔을 구부릴 수도 있으며、앉아 있을 수도 있고、

꼿꼿이 설 수도 있읍니다。

그 애는 고운 빨간 옷을 입고 있읍니다。 그 애는 "넨시"의 동생이고, 나는 그 애들의 어머니입니다。 "앨리"는 그 애들의 사촌입니다。 "넨시"는 나쁜 아이입니다。 내가 "멤피스"로 갔을 때, 큰 소리로 울어서 때려주었읍니다。 "밀드레드"는 어린 병아리들에게 빵조각을 먹입니다。 나는 어린 동생과 함께 놀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생님과 나는 아주머니 "내니"와 할머니를 보러 "멤피스"로 갔읍니다。 "루이스"는 "내니"아주머니의 아들입니다。 선생님은 고운 새옷과 장갑, 양말, 칼러를 나에게 사주셨읍니다。 또한 할머니는 폭신폭신한 "프란넬"로 옷도 만들어 주셨읍니다。 "내니"아주머니는 나에게 앞치마를 만들어 주셨읍니다。 가정부가 고운 모자를 만들어 주었읍니다。 나는 "로버―트·그레이브"씨, "그레이브"씨 부인과 어린 "나타리", "페리"씨, "매이요"씨, "매리"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나보러 갔읍니다。 나는 "로버―트"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이 이상 내가 더 편지를 쓰는 것을 싫어 하십니다。 고단해집니다。 "그레이브"씨 호주머니 속에 과자 상자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집과 같이 생긴 증기선을 보여 주신다고 아버지는 우리들을 데리고 가셨읍니다。 배가 큰 강위에 있었읍니다。 "애이쓰"는 잔디를 심으려고 마당을 팠읍니다。 "뮤―ㄹ"은 쟁기를 끌었읍니다。 어머니는 야채밭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수박, 완두, 콩을 심으신답니다。 사촌인 "벨"은 토요일에 우리를 보러 올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녁밥에 먹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맛있게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먹

을 것입니다。 〃루시안·톰프슨〃은 병이 났읍니다。 그가 불상합니다。 선생님과 나는 뜰로 걸어다녔읍니다。 그래서 나는 꽃과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는 가를 배웠읍니다。 태양은 동쪽에서부터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림자가 드는 곳은 북쪽이고 〃터스컴비아〃는 남쪽입니다。 六월이 되면 우리는 〃보스톤〃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장님소녀들과 즐겁게 놀게 되었읍니다。 안녕히

一八八八년 二월 二十四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에서

헬렌·켈러

다음 편지의 〃모리〃아저씨는 〃켄터키〃에 있는 〃놀만디〃출생인 〃모리슨·헤디〃씨이다。 그는 어렸을 때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다。 그는 추천할만한 시를 몇편 썼다。

〃모리슨·헤디〃씨에게

나의 친애하는 〃모리〃아저씨에게、ㅡ

나는 당신께 편지를 쓰니 행복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 껴안고 키스를 하겠읍니다。 〃아나그노스〃씨가 월요일에 나를 보러 오십니다。 따뜻한 맑은 햇빛 아래서 나는 〃로버ㅡ트〃와 뛰고 다름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켄터키〃의 〃렉신톤〃에 있는 어떤 소녀를 알고 있

읍니다。 그 애의 이름은 〃캐더린·호브슨〃입니다。 六월이 되면 어머니와 선생님과 같이 〃보스톤〃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장님 소녀들과 재미 있게 놀겠읍니다。 〃헤일〃씨가 아름다운 이야기 책을 보내주신답니다。 나는 책에서 사자、 호랑이、 곰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읍니다。 〃밀드레드〃는 〃보스톤〃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애는 울고 있답니다。 어린 동생과 같이 노는 것이 재미 있읍니다。 그 애는 약한 어린아기입니다。 〃에바〃는 좀 낫읍니다。 〃에이쓰〃는 개미떼를 죽였답니다。 그랬더니 개미떼는 〃에이쓰〃를 깨물었읍니다。

에이쓰는 정원에서 땅을 파고 있읍니다。 〃아나그노스〃씨는 오렌지를 보았읍니다。 오렌지는 모두 황금으로 된 사과같이 보입니다。 햇빛이 내리 쪼이는 공일에 〃로버—트〃는 나를 보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와 함께 즐겁게 놀 것입니다。 나의 사촌인 〃프랭크〃는 〃루이스빌〃에서 살고 있읍니다。 〃페리〃씨와 〃그레이브〃부인과 〃메이요〃씨와 〃그레이브〃씨를 보러 다시 〃멤피스〃로 오겠읍니다。 〃나타리〃는 착한 소녀입니다。 그리고 울지도 않읍니다。 이제는 클 것입니다。 〃그레이브〃씨 부인은 그 애에게 짧은 옷을 만들어 주고 있읍니다。 〃나타리〃는 조그만 마차를 갖고 있읍니다。 〃메이요〃씨는 〃더크·힐〃에 갔다 왔읍니다。 그는 아름다운 꽃을 가져왔읍니다。 사랑과 키스를

一八八八년 三월 一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에서

헬렌·A·켈러

소풍놀이를 간 것을 기록한 이 글에서 "설리반" 선생님과 학생들이 노는 것을 보고 우리는 환하게 눈에 뜨일만한 "설리반" 선생님의 가르치는 기술을 보게 되었다。 "헬렌"의 쓰는 말이 늘어가는 날이었다

"미카엘·아나그노스" 씨에게

친애하는 "아나그노스" 씨 •—

오늘 아침 당신께 편지를 쓰게되니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과 맛있는 과자와 편지 두통을 받아서 매우 행복스러웠읍니다。 멀지않아 당신을 보러 가겠읍니다。 그리고 시골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당신은 착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겠지요。 어머니는 "보스톤"에서 입을 새 옷을 예쁘게 나에게 해주신답니다。 나는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 그리고 당신을 사랑스러운 듯이 볼 것입니다。 금요일엔 선생님과 나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소풍놀이를 갔읍니다。 우리는 작난을 하였으며、 나무밑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사리와 야생화를 보았읍니다。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나무의 이름을 많이 배웠읍니다。 포프라、 "씨다"、 소나무、 겨목、 슈엣나무、 힛코리나무、 단풍 등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것들은 편안히 쉴 수 있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조그만 새들은 여기저기 매달려 가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읍니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고、 다람쥐도 달리며, 보기흉한 뱀은 숲사이를 기어가고 있읍니다。 제라늄、 장미、 재스민、 쟈쁘니꽃이 활짝 피어 있읍니다。

나는 어머니를 도와줍니다。 선생님은 저녁•먹기 전에 매일 밤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사촌 〃아더〃는 애슈나무에다 그네를 매어 주었읍니다。 〃이브〃아주머니는 〃맴피스〃로 가셨읍니다。 〃프랭크〃아저씨는 이곳에 계십니다。 그는 저녁에 먹을 딸기를 따고 계십니다。 〃낸시〃는 또 병이 났읍니다。 이가 새로 나와서 앓고 있지요。 애들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 애는 월요일에 나와 같이 〃씬시나티〃에 갈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브〃아주머니는 사내 인형을 보내 주신답니다。 그러면 〃해리〃는 〃낸시〃와 애들의 오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피곤해져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싶읍니다。 편지와 함께 많은 키스와 포옹을 보냅니다。

一八八八년 五월 三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어린이

헬렌•켈러

五월 말경에 〃헬렌•켈러〃양과 〃설리반〃선생은 〃보스톤〃을 향하여 떠났다。 도중에 그네들은 〃워싱톤〃에서 二•三일 머물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알렉산더•G•벨〃박사를 만나서 〃클리브랜드〃씨 댁을 방문하였다。 五월 二十六일에 그들은 〃보스톤〃에 도착하여 〃퍼킨스〃학교로 갔다。 여기서 〃헬렌〃은 전부터 통신 거래가 있었던 어린 장님 소녀들과 만났다。

七월 초순에 그 여자는 "마사츄셋스"의 "부르스터"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여름의 나머지 날을 지내였다。 여기서 그는 처음 바다를 보게 되었다。 그 뒤에 그 애 관한 것을 글로 적었다。

"매리·C·무어"양에게

나의 친애하는 "무어"양에게

당신의 사랑스러운 어린 동무에서 온 재미 있는 편지를 받는 것이 기쁜일입니까? 당신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몹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귀중한 동생도 잘 놉니다。 그 애는 나의 요람의 의자에 앉기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고양이를 재워줍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밀드레드"가 보고싶지 않습니까? 그 애는 매우 아름다운 애기입니다。 그 애의 눈은 크고도 푸릅니다。 그의 두 볼은 부드럽고 둥글며 장미빛을 띠우고 있읍니다。 그 애의 머리카락은 황금빛 갈색입니다。 그 애가 큰 소리를 내고 울지 않을 때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내년 여름에는 "밀드레드"를 데리고 정원에 나가 달콤한 커단 딸기를 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는 매우 좋아하겠지요。 그애가 배탈이 나면 안되니까 맛있는 그 과일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읍니다。 언젠가 한번 "알라바마"에 오셔서 저를 방문하시지 않겠읍니까? "제임스"아저씨가 귀여운 말과 예쁜 마차를 사주신다고 하십니다。 당신과 "해리"를 거기에 태우면 얼마나 좋을가요? "해리"가 나의 말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버지도 내게 곱게 생긴 어린 남동생

을 사 주실 겝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어린 동생에게 나는 친절하게 해주고 무엇이든지 참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낯서른 여러 곳을 찾아갈 때면 내 동생과 "밀드레드"는 할머니와 함께 머물러 있게 되겠읍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은 많은 사람들을 볼만큼 자라지는 않았으며, 거칠게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큰 소리로 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베이커" 대위(大尉)의 건강상태가 좋으면 자기의 큰 배에 나를 태우고 "아프리카"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호랑이、원숭이들을 보게 되겠지요。 나는 애기 사자와 하얀 원숭이와 온순한 곰을 집에 가지고 오겠읍니다。 "부르스터"에서는 재미있게 지냈읍니다。 나는 거의 매일같이 목욕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캐리"와 "푸랭크"와 어린 "헬렌"과 나는 참 재미있었읍니다。 우리는 깊은 물속에서 물을 튀기고、짬프를 하고 간신히 걸어갔읍니다。 이제는 물 위에서 떠 있어도 무섭지 않읍니다。 "해리"는 뜰 수도 있고 헤엄칠 수도 있읍니까? 지난 주일 목요일에 우리는 "보스톤"에 왔읍니다。 "아나그노스"씨는 대단히 반가워 했읍니다。 그는 나를 껴안고 키스를 하셨읍니다。 다음 주일 수요일에는 어린 소녀들도 학교로 돌아올 겝니다。 "해리"를 보시거든 저에게 아주 긴 편지를 곧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여 주시겠읍니까? 당신이 나를 보시려고 "터스컴비아"로 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맛있는 과자、싱싱한 복숭아、맛있는 배、포도、그리고 커단 수박을 사오셨으면 합니다。 나도 착한 어린이이니깐 당신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一八八八년 九월

마사츄셋스·보스톤에서

많은 사랑과 키스를 두번
당신의 어린 친구로부터
헬렌·켈러

이와 같이 몇친구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헬렌〃의 사고하는 방법은 여덟살 되는 보통아이가 갖고 있는 사고력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다른 점은 신사의 용감성에 대해서는 천진란만하게도 유달리 좋아한 것이였다。

〃케이트·A·켈러〃부인에게

나의 친애하는 어머니、

아마 어머니는 내가 〃웨스트·뉴톤〃에 간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선생님과 나는 친절한 여러 동무들과 즐겁게 놀았읍니다。 〃웨스트·뉴톤〃은 〃보스톤〃에서 멀지않습니다。

우리는 그 곳을 증기선을 타고 매우 빨리 갔읍니다。 〃푸리만〃부인과 〃켈러〃와 〃에델〃과 〃프랭크〃와 〃켈렌〃이 큰 차를 타고 우리를 만나러 역으로 왔읍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어린 동무들을 보니 참 기뻤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키스를 해주고 껴안았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오랜 시간을 타고 다녔읍니다。 매우 훌륭한 집이 많이 있고、 그 주위에는 부드럽게 푸른 넓고 넓은 잔디밭에 나무、아름다운 꽃、샘물터가 있었읍니다。 말도 있었는데、 이름은 〃프린스〃입니다。그 말은 얌전하고 빨리 걷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에 여덟마리의 토끼와 두마리의 살이 찐 강아지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좋은 어린 말과 고양이 두마리、 〃돈〃이라고 부르는 곱슬머리인 예쁜 개도 보았지요。 말의 이름은 〃모리〃입니다。 나는 그 말을 타고 놀았읍니다。 조금도 무섭지 않았읍니다。 아저씨가 내게 빨리 사랑스럽게 생긴 꼬마 말과 조그만 마차를 사주었으면 좋겠읍니다。

〃클리프톤〃은 어린 소녀에게 키스하기를 싫어해서 내게도 키스해주지 않았읍니다。 그는 수집어 합니다。 〃프랭크〃와 〃클레어렌스〃、 〃로비〃、 〃에디〃、 〃촬스〃、 〃죠ー지〃가 수집어 하지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나는 여러 꼬마 친구들과 재미 있게 놀았읍니다。 나는 〃캐리〃의 삼륜 자전차를 탔읍니다。 꽃도 꺾고、 과일도 먹고、 뛰도 뛰고、 줄넘기도 하고、 춤을 추고 난뒤 또 타러갔읍니다。 여러 신사 숙녀들이 우리를 보러 왔읍니다。 〃루시〃와 〃도라〃와 〃촬스〃는 중국에서 태어났읍니다。 나는 미국태생이고 〃아나그노스〃씨는 희랍에서 났읍니다。 〃드루〃씨는 말하시길 중국에서는 어린 소녀들은 자기네들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못한답니다。 그러나 아마 내가 중국에 가면 그 애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중국인 간호부가 나를 보러 왔읍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아수〃입니다。 그 여자는 내게 작은 신발을 보여 주었읍니다。 그것은 중국의 부자집 숙녀들이 신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발이 크게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 작은 것입니다。 〃아마〃란 말은 간호부란 뜻일게

니다。 공일 날에는 흔히 증기선이 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공일이라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읍니다。

차장과 운전수가 매우 피곤해 하며、 쉰다고 집으로 돌아갔읍니다。 차속에서 나는 꼬마인 "윌리·스원"을 보았읍니다。 그는 내게 싱싱한 배를 주었읍니다。 그는 여섯살입니다。 내가 여섯살 때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버지께 선생님과 나를 만나러 기차타고 오시라고 말씀 해 주십시요。 "에바"와 "베씨"가 아파서 걱정이 됩니다。 내 생일에는 훌륭한 파ー티를 열어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깨리"와 "에바"와 "프랭크"와 "헬렌"을 "알라바마"로 나를 보러 오라고 청하고 싶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밀드레드"는 나하고 잡니다。

一八八八년 九월 二十四일

「마사츄셋스·보스톤

많은 사랑과 키스를、

당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로부터、

헬렌·A·켈러

"플라이머드"에 그가 간것은 七월이었다。 三개월 이후에 쓴 이 편지는 그가 역사공부 처음에 배운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를 나타내고 있다。

〃모리슨·헤디〃씨에게

나의 친애하는 〃모리〃아저씨、—

아마 당신의 교마 친구인 사랑스러운 〃헬렌〃에게서 편지를 받으면 매우 기뻐하시겠지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역시 당신께 편지를 쓰는 것이 참으로 행복스럽습니다。 보내주신 책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읽었읍니다。 그리고 〃촬스〃와 그의 배、 〃아더〃와 그의 꿈、 〃로자〃와 잠에 관하여서는 더 많이 읽어 보았읍니다。 나는 커다란 뽀—트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큰 배와 비슷합니다。 어머니와 선생님과 〃홉킨스〃부인과 〃아나그노스〃씨와 〃로도카나치〃씨 그리고 여러 다른 친구들은 오래된 물건들을 보려고 〃플라이머드〃로 갔었읍니다。 이제 〃플라이머드〃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여러해 전에 영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읍니다。 그런데 왕과 그의 친구들은 여러 선량한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점잖게 대하지도 않고、 참을성도 없었읍니다。 왜냐하면 왕은 인민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왕과 함께 교회에 가기 싫어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자기네를 위한 매우 훌륭하고 조그만 교회를 짓고 싶어 하였읍니다。 왕은 인민들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내였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스러워하여 말하길、 우리는 살기 위하여 또 나쁜 왕과 친구와 정든 집을 떠나서 낯설은 나라로 가야겠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상자에 물건을 모두 집어 넣고 안녕히 계시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들은 많이 울어서 불상합니다。 그들이 〃화란〃으로 갔을 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그들은 "화란"말을 몰랐기 때문에 "화란"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서 곧 그 나라말을 약간이나마 배웠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나라의 언어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린 소년 소녀들이 자국어를 잊어버리고 우스운 "화란"어를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더 멀리 새나라에 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집、교회를 짓고 새로운 도시를 세워야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들의 물건을 전부 고리짝에 집어 넣고、새로 사귄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서 새 나라를 찾으려고 큰 뽀ㅡ트를 타고 갔읍니다。 그런데 가련한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슴속엔 슬픔이 가득차서、행복스러울 수가 없었읍니다。 아마 어린이들은 틀림 없이 큰 바다를 무서워 하였을 것입니다。 바다가 유난히 힘이 세고 바닷물은 커다란 뽀ㅡ트를 흔들리게 하며、어린이들은 떨어질번 하고、머리를 다칠번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주일을 깊은 바다 위에서 살고 있을 때는 푸른 물결과 아름다운 하늘밖에는 나무、꽃、수풀을 도무지 볼 수 없었읍니다。 사람들이 기계나 증기 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배를 빨리 운전할 수가 없었으므로 자연히 오랜 시간을 요하였읍니다。 어떤 날 귀여운 사내 애기를 낳은 일도 있읍니다。 그의 이름은 "페리그린·화이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가련한 어린 "페리그린"은 죽어서 퍽 쓸쓸합니다。 매일 사람들은 육지를 바라다 보려고 갑판위로 나갔읍니다。 어떤 날 뱃속에서 야단이 났읍니다。 사람들은 육지를 보고서 기쁨에

가득찬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안전하게 새나라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년 소녀들은 날뛰고 손벽을 쳤읍니다。 그들이 커다란 바위로 올라왔을 때는 모두가 좋아하였읍니다。 나는 〃플라이머드〃에서 바위와 〃메이플라우어〃같은 조그만 배와 사랑스러운 얘기 〃페리그린〃이 자던 요람과 〃메이·플라우어〃에 있던 여러가지 고물을 보았읍니다。 당신도 후일에 한번이라도 〃플라이머드〃를 찾아와서 많은 고물을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인제 몹시 고단해서 자겠읍니다。

一八八八년 十월 一일

마사츄셋스·남 보스톤

많은 사랑과 키스를,

당신의 꼬마친구로부터

헬렌·A·켈러

이 두통의 편지에는 외국어가 여러개 섞여 있는데, 그중 첫째로 나오는 외국어는 맹인 아이들을 보였고 유치원을 방문했던 동안에 썼던 것이다。 이전에도 그가 여러 달을 두고 들어왔던 것들을 자연히 자기의 기억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단어를 이해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연습을 거듭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재치있게 사용하기도하고 앵무새처럼 흉내 내어 반복을 거듭하였다。 비록 그가 단어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늘 하는 버릇으로 그 모르는 것들을 곧 기입(記入)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사고력을 표현하는데、 음성과 청각을 이용시키는 단어를 명확하게 배웠다。 "에디스"는 "에디스·토마스"이다。

"미카엘·아나그노스"씨에게

나의 친애하는 "아나그노스"씨、

나는 창옆에 앉아 있읍니다。 아름다운 햇빛이 나를 쪼여주고 있읍니다。 선생님과 나는 어제 유치원에 갔읍니다。 여기에는 스물일곱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모두 장님입니다。 그 애들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볼줄 모르니 참으로 가엾읍니다。 후에라도 잘 볼수 있게 되겠지요。 가엾은 "에디스"는 장님이고 귀가 먹고 벙어리입니다。 나하고 "에디스"생각을 하면 당신의 마음이 슬퍼지나요? 얼마 안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스러운 어린 동생을 보러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알라바마"로 저를 보러 와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내 작은 마차를 태워드리겠읍니다。 아마 당신은 내 친구 말등 위에 올라타고서 나를 보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고운 모자와 새 승마복을 입을 것입니다。 햇빛이 빤짝하면 "래이라"와 "에바"와 "베씨"를 보러 당신을 데리고 가겠읍니다。 내가 열살이 되면 아름다운 곳을 여러군데 여행하려고 합니다。 나는 "노르웨이"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 얼음과 눈을 볼 것입니다。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으면

좋겠읍니다。 영국에 있는 젊은 〃폰트레로이〃경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큰 오래된 집을 기꺼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슴과 같이 뛰놀고 토끼에게 밥을 주고 다람쥐를 잡고 놀 것입니다。 〃폰트레로이〃집의 큰 개 〃도우갈〃을 무서워하지 않겠지요。 〃폰트레로이〃가 나에게 친절한 여왕을 만나게 해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내가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사람을 데리고 오겠어요。 어떤 〃프랑스〃소년은 『당신은 불어를 말할줄 아십니까?』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예 당신은 고운 모자를 썼군요。 나에게 키스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원이 있는데, 〃아데네〃의 소녀를 보러 나와 함께 〃아데네〃로 당신은 갈 수 있을는지요。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나는 가면 그에게 희랍이야기를 해주겠읍니다。 “Se agapo and pos echete”라고 말하겠읍니다。 아마 그 소녀는 “Kalos”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Chaere”라고 말하겠읍니다。 빨리 나를 보러 오셔서 극장에 데리고, 가주십시요。 당신이 오면 나는 “Kale emera”라고 말하겠읍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Kale nykta”라고 말하겠읍니다。 인젠 나는 너무 피곤해서 더 쓸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一八八八년 十월 十七일

마사츄셋스・록스베리

당신의 사랑하는 꼬마친구로부터

헬렌・A・켈러

〃에베리나·H·켈러〃양에게

나의 가장 친애하는 아주머니、—

나는 곧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당신과 모든 사람들은 나의 선생과 나를 보고 매우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참 기쁩니다。 나는 불어、독일어、희랍어를 공부하고 있읍니다。 “Se agapo”는 희랍어입니다。 그 뜻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J’ai une bonne peite sœur et bon pere et une bonne mere”란 말은 『나는 예쁜 동생과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갖고 있읍니다』라는 뜻입니다。 Puer”는 〃라틴〃어로「소년」입니다。 “Mutter 는 독일어로「어머니」입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밀드레드〃에게 많은 말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一八八八년 十월 二十九일

마사츄셋스·보스톤

헬렌·A·켈러

〃소피아·C·홉킨스〃부인에게

나의 친애하는 〃홉킨스〃부인 :—

지금 막 어린 사랑하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왔읍니다。 나의 오빠 〃심프슨〃이 그것을 지난 공일날에 나에게 주었읍니다。 나는 그것을 〃애니〃라고 부릅니다。

나의 강아지는 저녁을 먹고는 자러 들어 갔읍니다。 나의 토끼도 역시 잘자고 있읍니다。 곧 나는 자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들의 친구는 커다란 용광로를 보러 갔읍니다。 용광로에선 철을 만듭니다。 금속은 땅속에 묻혀 있읍니다。 그러나 쇠는 용광로에 가지고 와서 녹일 때까지 쓸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은 전부 떨려나가고 순수한 철판 남읍니다。 그러면 그 쇠는 비로소 기계, 난로, 주전자, 기타 여러가지 물건으로 제조하여도 괜찮습니다。 석탄도 또한 땅에 묻혀 있읍니다。 여러해 전에 사람들이 이땅에 살기전에는 큰 나무나 수풀 그리고 커다란 양치류나무와 아름다운 꽃이 땅을 덮고 있었읍니다。 나무잎과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물과 흙이 땅을 덮었읍니다。 그래서 나무가 더 많이 자라도 쓰러져 버리고 물과 흙밑으로 파묻히고 말라 버립니다。 수천년 동안이나 이와 같이 모든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되어서 그 후로는 산림은 간신이 생장하여서 사람들이 불에 땔 수 있게 마련된 것입니다。 당신은 석탄에서 나무껍질 양치류나무 잎사귀를 보았읍니까?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을 캐 냅니다。 증기 기관차는 그것을 도시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불 때라고 판매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을 날씨가 찬 날에도 뜨뜻하게 해주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매우 외롭고 쓸쓸합니까? 곧 나를 보러 오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오시면 오래 머무르십시요。

一八八八년 十二월 十一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당신의 꼬마친구로부터 많은 사랑을

헬렌·A·켈러

"델러·베네트"양에게

나의 친애하는 "베네트"양에게 :—

오늘아침 당신께 편지를 쓰니 대단히 기쁩니다。 지금 막 조반을 끝마쳤읍니다。 아래층에서는 "밀드레드"가 뛰어다니고 있읍니다。 나는 그동안 천문학자에 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있었읍니다。 천문학자란 많은 "라탄"어 "astra"에서 온 말입니다。 그것은 별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란 별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침대에서 고요히 잠자고 있을 때는 그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읍니다。 망원경은 매우 튼튼한 눈과 같읍니다。 별은 너무도 멀리 있기 때문에 썩 좋은 기구가 없이는 사람들이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읍니다。 당신은 창밖을 내다보고 작은 별을 보고 싶습니까? 설생님이 말하기를, 창에서 "비너스"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고도 아름다운 별이라고 합니다。 별들은 지구의 오빠요, 언니랍니다。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기구 이외에 또 많은 기구가 있읍니다。 칼도 물건을 짜르는 도구이지요。 아마 초인종도 또한 기구일겝니다。 초인종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 하겠읍니다。 어떤 좋은 음악적이고 또 어떤 것은 음악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매우 작고 어떤 것은 아주 큰 것도

있읍니다。 "웰스리"에서 나는 매우 큰 종을 보았읍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왔답니다。 좋은 여러가지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조반식사가 준비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불이 났을 때도 우리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또는 사람들이 일을 하러갈 때、 집으로 돌아와서 쉴 때도 마찬가지로 소용됩니다。 기관차의 좋은 차를 타려고 역으로 올 때 승객들에게 소용되고、 교통차단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가끔 무서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데고、 물에 흠빡 젖고、 상처를 입습니다。 지난번 나는 인형의 머리를 깨뜨렸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무서운 사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형은 생명이 없어 느낄주를 모르니깐요。 내 어린 비둘기는 잘 있읍니다。 내 꼬마 새도 잘 있읍니다。 나는 진흙을 갖고 싶읍니다。 선생님이 지금 공부할 시간이라고 말하십니다。 안녕히。

一八八九년 一월 二十九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많은 사랑과、 많은 키스를、

헬렌・A・켈러

"에드워드・E・헤일" 박사에게

一나의 친애하는 "헤일"씨、

당선이 지금 마음속에서 어린 〃헬렌〃이 당신과 나의 사촌들을 모두 잊었다고 생각하실가봐 나는 매우 걱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자주 당신을 생각하고 사촌인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편지를 받고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주일 나는 집에 머물러 있었읍니다。 〃보스톤〃을 떠나게 된 것이 여간 슬픈 일이 아니었읍니다。 여러 친구가 없어서 참으로 쓸쓸하였읍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내집으로 다시 돌아오니 물론 기쁩니다。 내 귀여운 어린동생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가끔 그 애는 짧은 단어를 조그만 손가락으로 철자법대로 쓰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 그 단어를 외우기에는 어리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 애가 더 자라고、 참을성이 있고, 말을 잘 들으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나의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꾸준한 성격이 있고 얌전하면 자라서 신사 숙녀가 되어도 친절성과 용감성을 지니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언제나 용감성을 갖고 싶읍니다。 이야기 책에 나오는 어린 소녀는 용감성이 없읍니다。 그 애는 뾰죽한 높은 모자를 쓴 선년가 수풀자이에서 들여다 보거나 긴 골목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아도 무척 놀랩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지내셨나요? 나는 많은 선물을 받았읍니다。 언젠가는 훌륭한 파ー티가 열렸답니다。 나의 친한 동무가 모두 나를 보러 왔읍니다。 우리는 작난을 하고 아이스·크림, 케이키, 과자들을 먹었읍니다。 참 재미났읍니다。 오늘은 햇빛이 빤짝 났읍니다。 길이 말랐으면 말이나 탔으면 좋겠읍니다。 一·三일만 있으면 화창한 봄이 찾아 올 것입니다。 나는 따뜻한 햇빛과 향기로운 꽃을 사랑하니깐 봄이 오면 참으로 기쁩니다。 아마 꽃들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행복스럽게 만들려고 자라나는가 봅니다。 〃세

드릭"은 나의 꼬마소년입니다。 "폰트레로이"경 대신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는 큰 갈색눈을 하고 긴 금발머리를 하고 예쁜 둥근 뺨을 갖고 있지요。 "아이다"는 내 애기입니다。 한 숙녀가 "파리"에서 사다 준 것입니다。 그애는 진짜 애기모양으로 우유를 마십니다。 "루시"는 훌륭한 젊은 숙녀이지요。 그 애는 아름다운 래이스옷을 입고 매끄러운 스립퍼를 신고 있읍니다。 가련한 늙은 "낸시"는 점점 나이 먹고 매우 몸이 약합니다。 그 여자는 거의 병자입니다。 나는 두마리의 얌전한 비둘기와 한마리의 작은 카나리아를 갖고 있읍니다。 "챰보"는 매우 튼튼하고 충실합니다。 밤에는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매일학교에 나갑니다。 나는 읽는 법、 쓰는 법 산수、 지리、 어학을 공부하고 있읍니다。 나의 어머니와 선생님은 당신과 "헤일"부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밀드레드"는 당신께 키스를 보냅니다。

一八八九년 二월 二十一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많은 사랑과 키스를.

당신의 사랑하는 사촌 헬렌·A·켈러

겨울을 지내는 동안 "설리반"선생과 그의 생도는 "터스컴비아"에 있는 "헬렌"의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헬렌"도 봄이 올 때까지 영어의 관용어적 용법을 공부하였다。 —

八八九년 五월이 지난 후로는 연필로 잘 못 쓴 것을 몇게 제하고는 거의 틀리게 쓴 것은 볼 수 없었다。
그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였으며、 쉽고도 유창한 글을 썼다。

〃미카엘·아나그노스〃 씨에게

나의 친애하는 〃아나그노스〃 씨:—

어제 저녁에 당신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당신은 아마 상상조차 못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멀리 가 계시니 매우 섭섭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없으면 말할 수 없이 적적하게 되겠읍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를 여러군데 찾아 갔으면 좋겠읍니다。 내가 〃헌스빌〃에 있었을 때 〃브리슨〃씨를 보았읍니다。 그는 언젠가 〃로마〃、 〃아테네〃、 〃파리〃、 〃런던〃에 갔던 일이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스위스〃에서 높은 산을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태리〃、 〃프랑스〃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에 방문도 하고、 고대의 성곽을 구경도 하였답니다。 당신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내게 편지를 써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홀란드〃에 가시면 사랑스러운 〃빌헬미나〃 공주님께 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요。 그 여자는 귀여운 어린 소녀입니다。 공주님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홀란드〃의 여왕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루마니아〃에 가면 착하신 〃엘리자베즈〃 여왕께 병이든 어린 남동생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요 라고 말하시요。 그리고 여왕님 사랑하시던 따님이 죽어서 참으로 섭섭하다고도 말씀하여 주십시요。 〃나포리〃에 사는 어린 왕자 〃비토리오〃에게 키스를 보내고 싶습니

다만 선생님은 걱정하시길 당신이 전할 말이 하두 많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십니다。 내가 열세살이 되면 나 혼자서 그네들을 모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폰트레로이〃경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책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감사하답니다。 〃에바〃가 올 여름에는 나하고 함께 지내려고 온다고 하니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는 함께 즐겁게 놀 것입니다。 〃하워드〃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내 편지에 답장을 쓰라고 말하십시요。 목요일에 우리는 소풍을 갔읍니다。 그늘진 나무밑에서 노니 참으로 유쾌하였읍니다。 〃밀드레드〃는 바깥마당에서 놀고 있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맛있는 딸기를 따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프랭크〃 아저씨는 아래마을에 계십니다。 〃심프슨〃은 곧 집으로 돌아옵니다。 〃헌스빌〃에 있었을 때 나와 〃밀드레드〃는 사진을 찍었읍니다。 당신께 한장 보내겠읍니다。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었읍니다。 어머니는 고운 장미꽃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라・프랑스〃와 〃라마르크〃는 가장 향기로웁니다。 그러나 〃마래샬・네일、 솔화테ー르、 쟈크미놋、 니헤오、 에투왈르・드・리온、 파파・곤티에、 가보리엘르。 드르베、 빼르르・테・좌르던느〃등은 모두 아름다운 장미꽃입니다。 어린 소년 소녀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십시요。 나는 매일 그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읍니다。 당신이 구라파에서 집에 돌아오시게될 때 몸이 건강하시고、 행복스럽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가리오프・케하이아〃양과 〃프란시스・디메트리오・카로포타크〃씨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을 잊지 마십시요。

一八八九년 五월 十八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친애하는 당신의 친구、 H·K

"헬렌·켈러"가 초기에 쓴 많은 편지와 같이 이것은 그의 "프랑스"어 선생님에게 쓴 것인데、그 발전과정에 있어 쓰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페니·S·마페트"양에게

나의 친애하는 "마페트"양에게—

나는 지금 몹시 울었던 어린 소녀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소녀는 그의 오빠가 꽥장히 놀려댔답니다。 이제 당신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이야기 하겠읍니다。 아마 당신도 들으시면 그 소녀가 가엾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 애는 아주 아름다운 인형을 하나 선사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의 오빠는 키가 크고 튼튼한 몸을 한 사나이인데、그 인형이 하두 고우니깐 빼앗아서 정원에 있는 높은 나무 위에다 올려놓았읍니다。 그리고는 도망쳤읍니다。 어린 소녀는 인형있는 데까지 키가 자라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꺼내올 수가 없었읍니다。 드디어 울고 말았읍니다。 인형도 또 울었읍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가지 사이로 팔을 뻗치고서 괴로운 듯이 내려다 보고 있었읍니다。 곧 컴컴한 밤이 되었읍니다。 인형은 밤새도록 홀로 나무가지에서 자지도 못하고 꼿꼿이 앉아 새웠읍니다。 어린 소녀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

였읍니다。 비록 그가 용감성은 없지마는 인형에게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줄게』 하고 말하였읍니다。 벌써 소녀는 뾰죽한 모자를 쓰고 어둑컴컴한 골목길에서 춤을 추고 숫풀 사이에서 들여다 보고 있는 많은 선녀를 분명히 보았읍니다。 그들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았읍니다。 그리고 인형이 앉아 있는 나무 있는데로 향하여 손을 뻗치고서 웃고 있었읍니다。 다시금 인형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읍니다。 어린 소녀는 얼마나 무서웠겠읍니까? 그러나 사람이 이 선녀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상스러운 이 선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읍니다。 『내가 나쁜짓을 하였나요?』 『아、 그러므뇨。』 꼬마 소녀는 말하였읍니다。 「나는 집오리가 다리에다 붉은 헌겊 누데기를 단 것을 보고 웃었읍니다。

그래 오리가 절름거리고 가는 것을 보니 웃음이 터졌읍니다。 그러나 가엾은 집오리를 보고 웃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참 가엾은 이야기지요? 아버지가 망나니 꼬마소년에게 벌을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내주일 목요일에 나의 선생님을 보러 오시겠읍니까?』선생님은 쉬러 집에 가십니다。 그렇지만 내년 가을에는 내게로 돌아오십니다。

一八八九년 五월 十七일

알라바마 · 터스컴비아

친애하는 당신의 꼬마친구、

헬렌 · A · 켈러

〃메리·E·릴레이〃양에게

나의 친애하는 〃릴레이〃양에게:—

따뜻하고 햇빛 쪼이는 남쪽 이곳에 오늘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 동생과 나는 당신을 정원으로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맛있는 딸기를 따다 드릴 것인데、 당신도 그런 것을 좋아하십니까? 딸기는 거의 없어질 때입니다。 날씨가 싸늘하고 상쾌한 저녁에 우리는 마당에서 산보하며 나비、 메뚜기 등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새와 꽃、 풀、 〃잠보〃와 〃펄〃에 대하여 종종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좋아하시면 우리는 뛰고 달리고 춤추고 놀고 싶읍니다。 얼마나 즐거울가요。 아마 당신도 〃목킹버ー드〃새의 노래소리를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한마리가 우리의 창 밑에서 나무가지에 앉고 있읍니다。 그는 자기의 즐거운 노래로 공중을 가득 채웠읍니다。

아마 당신은 〃터스컴비아〃로 올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당신께 편지를 써 보내는 동시에 나의 키스와 사랑을 보내려고 합니다。 〃딕크〃는 건강합니까? 〃베이지〃는 행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가 꼬마 친구하나만 있다면 더 행복스러울 것인데、 나의 어린애들은 〃낸시〃를 제하고는 모두 건강합니다。 〃낸시〃는 몸이 약해서 걱정입니다。 나의 할머니와 〃코린〃 아주머니는 여기 계십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새옷 두벌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소녀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헬렌〃은 그들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요。 〃에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一八八九년 五월 二十七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많은 사랑과 키스를, 당신이 사랑하는 꼬마친구로부터,

헬렌·A·켈러

여름에 "설리반"양은 "헬렌" 곁을 떠났는데, 그것은 선생과 "헬렌" 사이에 있어서 처음 떨어진 것이었다. 그 뒤 十五년 동안 오직 한번 그들은 二·三일간 떨어져 있던 일 밖에 없었다.

"안·M·설리반" 선생님에게

가장 정다운 선생님— 오늘 저녁에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되니 대단히 행복스럽습니다. 언제나 당신 생각을 매일 같이 하고 있읍니다. 나는 지금 툇마루에 앉아 있읍니다. 나의 흰 비둘기는 내가 앉은 의자 뒤에 앉아서 내가 편지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읍니다. 그의 친구는 갈색 털을 한 비둘기인데 다른 새들과 함께 날아가 버렸읍니다. 그런데 "애너"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좋아하니깐요. "폰트레로이"는 윗층에서 자고 있읍니다. "낸시"는 "루시"를 침대에 눕히고 있읍니다. 아마도 "목킹버-드"는 그들에게 잘 자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봅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이 지금 만발하고 있읍니다. "재스민, 헬리오트로프, 장미" 꽃의 향기가 공기에 가득차 있읍니다. 요새는 점점 날씨가 더워집니다. 아버지께서는 八월 二十일경에 우리를 데리고 "쿼리"로 가신답니다.

아마 시원하고 상쾌한 숲속에 가면 우리는 퍽 즐겁게 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모조리 선생님께 써 올리겠읍니다」 "베스터"와 "헨리"가 착한 애기이라 나는 마음이 기쁩니다。 내 대신 그 애들에게 많은 키스를 보내십시요。 아름다운 별을 사랑하고 있는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였죠? "에바"는 "헤이디"라고 하는 귀여운 소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었읍니다。 그 얘기책을 내게 보내 주시겠읍니까? 나는 타이프라이터가 있으면 참 좋아할 것입니다。 꼬마 "아ㅡ더"는 자꾸자꾸 자라고 있읍니다。 그는 지금 짧은 옷을 입고 있읍니다。 사촌인 "레이라"는 말하길 그가 조금씩 걸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럼 나는 내 손에 통통한 그의 부드러운 손을 쥐겠읍니다。 그리고 햇볕 쪼이는 들로 데리고 나가겠읍니다。 그애는 제일 큰 장미꽃을 잡아다니고 예쁜 나비가 있으면 그것을 쫓아다니려고 하겠지요。 나는 잘 보살펴 주고、 넘어져서 상처를 입지않도록 주의하여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다른 어른들은 어제 사냥을 갔읍니다。 아버지는 설흔 여덟마리의 새를 죽였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요리해서 저녁밥에 먹었더니 맛이 참 좋았읍니다。 지난 주일 월요일에 "심프슨"은 고운 학을 총으로 쏘아 잡았읍니다。 학은 큼직하고 튼튼한 새입니다。 새의 날개는 나의 팔만큼이나 길었읍니다。 그 새의 주둥이는 나의 발만큼이나 길었읍니다。 그 새는 조그마한 생선고기를、 또는 다른 작은 동물을 잡아 먹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시길 그 새는 쉬지않고 거의 매일 날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밀드레드"는 세상에서 가장 정다웁고 가장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그 애는 또한 작난꾼입니다。 가끔 어머니 몰래 그 애는 포도원으로 달려가서 앞치마에 가득 맛있는 포도를 따가지고 옵니다。 아마 그 애도 자기 두팔로 당신의

목을 감고 껴안고 싶어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교회에 나갔읍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니깐요。 어떤 신사가 아름다운 카ー드를 주었읍니다。 그 카ー드는 시냇가의 물방아간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물위에 뽀ー트가 떠 있읍니다。 향기로운 백합꽃이 뽀ー트 주위에 만발하고 있읍니다。 물방아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무가 울창하게 둘러싸여 있는 오래된 집이 있읍니다。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여덟마리나 있고、 층층대에는 개가 한마리 있읍니다。 〃펄〃은 이제 제법 어머니 개가 되어서 뽐내고 있읍니다。 그는 여덟마리나 되는 강아지를 갖고 있읍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기 강아지만큼 잘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매일 책을 읽습니다。 나는 책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제발 빨리 나의 곁으로 돌아 오십시요。 당신이 없어서 얼마나 쓸쓸한지 모르겠읍니다。 나의 친애하는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여러가지 일을 알 수가 없읍니다。 나는 선생님께 키스를 오천번 보냅니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냅니다。 H 부인에게도 사랑과 키스를 보내겠읍니다。

一八八九년 八월 七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당신이 사랑하는 꼬마제자、

헬렌・A・켈러

가을에 "헬렌"과 "설리반" 선생은 남"보스톤"에 있는 "퍼킨스"학원으로 돌아왔다。

"밀드레드·켈러"양에게

나의 귀중한 어린동생:—

잘잤니? 나는 이 편지와 같이 네게 생일 선물을 보내려고 한단다。 부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기쁘니 아마 너도 이것을 받으면 참 좋아하겠지。 때때옷은 너의 눈동자같이 새파란 빛이란다。 과자는 너처럼 달콤하단다。 어머니는 네게 새옷을 기꺼이 만들어 주실거다。 네가 그옷을 입으면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보일게다。 그림책은 이상스럽고 신기한 것과 동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줄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무서워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그림 속에서 튀어나와 너를 해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깐。 나는 학교에 매일 나간다。 나는 여러가지 배우는 것이 많다。 여덟시에 나는 산수를 공부한다。 나는 그 과목을 좋아한단다。 아홉시에 나는 어린 소녀들과 함께 체육관에 가서 재미 있게 놀고 온다。 네가 만일 여기 있게 되어서 조그만 다람쥐와 비둘기 두마리하고 재미 있게 놀고、로빈새의 집 둥우리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니? "목킹버—드"라는 새는 추운 북쪽지방에서 살지 못한다。 열시에 나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관한 공부를 한다。 열한시에 나는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열두시에는 동물학을 공부한다。 오후에는 무엇을 하여야 좋을지 아직 모르겠구나。 자 나의 사랑하는 꼬마 "밀드레드"、안녕히。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 대신 많은 사랑과 키스와 포옹을 해 드려라。 선생님도 또한 안부 전하신단다。

一八八九년 十월 二十四일

남 보스톤에서

너의 사랑하는 언니

헬렌·A·켈러

〃윌리암·웨이드〃씨에게

나의 친애하는 〃웨이드〃씨:—

지금 막 어머니가 하신 편지를 받았읍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당신이 보내신 〃매스티프〃종의 강아지가 〃터스컴비아〃에 무사히 도착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렇게도 훌륭한 선물을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환영을 하였을 터인데、 강아지에게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강아지 주인이 없어도 어머니、 동생들이 내 대신 친절하게 돌보아줄 것입니다。 제발 강아지가 쓸쓸한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읍니다。 어린 소녀들이나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고향생각이 몹시 나겠지요。 나는 그 강아지를 당신의 개를 생각하여 〃암사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강아지는 충성스럽고 또한 용감하였으면 좋겠읍니다。

나는 선생님과 〃보스톤〃에서 공부하고 있읍니다。 나는 여러가지 새롭고 훌륭한 것을 배웁니다。 나는 지구、 동물 등을 공부하고 산수가 극히 좋습니다。 「극히」라는 말은 어제 배웠읍니다。 내가 〃암사

자"를 보게되면 그 개가 깜짝 놀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그 개를 보고 척수동물(脊髓動物)의 포유류、사지수과(四肢獸科)에 속한다고 하면 웃겠지요。 또 그를 보고 식육과 동물에 속한다 하면 노하겠지요。 나는 붙어도 공부합니다。 내가 "암사자"에게 붙어로 이야기 하면 나는 "mon beau chien" (나의 사랑하는 개)라고 할 것입니다。 "사자"보고 내가 "암사자"를 잘 보살피겠다고 하셔요。 쓰고 싶으셔서 내게 편지하시면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一八八九년 十一월 二十일

마사츄셋스・남 보스톤

당신의 꼬마친구

헬렌・A・켈러

추신 : 나는 맹인학교에서 공부합니다。

H・A・K

이 편지에 "휘터"씨가 「"헬렌・A・켈러"는 아홉살 먹은 귀먹고 앞못보고 말못하는 소녀」라고 첨부를 하였다。

쫀・G・휘터〃씨에게

사랑하는 시인、

당신은 알지 못하는 소녀로부터 편지를 받고 놀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들으시면 기꺼울 것입니다。 어제 나는 「학교시대」와 「나의 작난동무」를 읽고 대단히 행복스러웠읍니다。 나는 그 갈색눈을 가지고 「엉키고 금발(金髮)을 한 소녀」가 죽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것은 유쾌합니다。 나는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합니다마는 마음으로는 전부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종일 기뻤읍니다。

정원을 산보할 때 나는 고운 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주위에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것은 공기가 꽃의 향기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백합꽃들이 그 동무들에게 속삭이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그와 같이 행복스럽게 보일리가 없읍니다。 당신은 나에게 꽃과 새、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스러운 것을 많이 가르쳐 주시었으니 나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고만 실례하여야 겠읍니다。 추수감사절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一八八九년 十一월 二十七일

마사츄셋스・남 보스톤 맹인학교

당신을 사랑하는 꼬마친구

헬렌・A・켈러

다음 편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휫티어" 씨의 회답은 분실되었다。

"케이트・A・켈러" 부인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이 사랑스러운 아침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당신의 작은 딸은 매우 행복스럽습니다。 오늘 이곳은 춥고 비가 오고 있읍니다。 어제 "미—드" 백작부인은 또다시 나를 만나러 왔었읍니다。 그 부인은 나에게 한다발의 오랑캐꽃을 주시었읍니다。 그 부인의 딸들은 "바이오렛트"와 "메이라"입니다。 백작께서는 다음번 미국 오시면 "터스컴비아"를 방문하시겠다고 합니다。 "미—드" 부인은 어머니가 보내주신 꽃을 보시고 또 "목킹버—드"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싶다고 하십니다。 내가 영국에 가면 그들을 방문하여 수주일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여왕에게 안내하신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편지를 "휫티어" 시인으로부터 받았읍니다。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웨이또" 씨는 내년 봄에 선생과 나에게 방문하라고 하셨읍니다。 갈가요? 그는 "암사자"를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먹이시라고 하십니다。 그 개가 다른 개들하고 섞여서 안먹으면 더 점잖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전 화요일에 "윌슨" 씨가 우리를 방문하였읍니다。 나는 집에서 꽃을 받아 참 기뻤읍니다。 조반을 먹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 꽃들을 애무해 주었지요。 우리는 추수감사날에 매우 훌륭한 만찬을 먹었는데 칠면조・풀럼・푸딩이었었읍니다。 나는 여러 상(像)들을 보았는데、 "윌슨" 씨는 나에게 천사의 상

을 주시었읍니다。

일요일날 나는 큰 배를 타고 교회에 갔읍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군인인 선원은 우리들을 끌고 여기저기로 구경을 시켜 주었읍니다。 선원이 사백육십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다 나에게 친절하였읍니다。 한 선원은 나의 발이 물에 닿지 않게 안아다 주었읍니다。 그들은 푸른 제복을 입고 이상야릇한 모자들을 썼었읍니다。 참, 목요일에는 무서운 불이 있었어요。 상점이 여럿이 파괴가 되고, 사람도 넷이나 죽었답니다。 아버지 뵙고 내게 편지좀 쓰시라고 하여 주세요。 지금 고만 써야겠읍니다。 많은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딸,

一八八九년 十二월 三일

마사츄셋스・남 보스톤

헬렌・A・켈러

"케이트・A・헬렌"부인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어제 나는 당신에게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상자를 보내었읍니다。 좀더 일찍 보냈었으면 하였으나 결국 내일 받으시게 못한 것이 섭섭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여도 더 일찍 시계주머니를 끝마칠 수가 없었읍니다。 아버지의 손수건 이외에는 전부 내 손으로 만든 선물들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내 손으

로 만든 선물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시간이 없었읍니다。 시계주머니가 어머니 마음에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위하여 그것을 만드는 것이 나로 하여금 참 행복하게 하였으니깐요。 어머니는 〃몬트레〃 시계를 그 주머니에 넣어 가지시고 다니십시요。 내가 만들었으니。 〃터스컴비아〃는 나의 사랑스러운 동생이 장갑을 끼기에는 너무 덥겠읍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만들었으니 그애는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겠읍니다。 아마 조그만 작난감사람과 재미를 볼 것입니다。 흔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놈이 나팔을 불 것입니다。 돈을 보내주시어서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그돈으로 나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라고 하셨읍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머니、 나의 나무에 매달게 선물좀 보내주십시요。 크리스마스날 아침에 내가 집에 있었으면 우리가 다 같이 얼마나 좋았겠읍니까? 나는 대합실에다 크리스마스나무를 만들겠읍니다。 선생님은 나의 모든 선물을 거기다 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얼마나 재미날 것이겠읍니까? 모든 여자들은 크리스마스를 지내기 위해 집에 갔읍니다。 선생님과 나만 남아서 〃홉킨스〃부인이 시중을 들게 되었읍니다。 선생님은 며칠동안 앓아서 침대에 누워 계시었읍니다。 목이 몹시 아픈 것입니다。 의사는 병원에 가시어야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좀 나아가고 있읍니다。 나는 앓지 않았읍니다。 어린 여자들도 건강합니다。 금요일에 나는 나의 친구 〃캐리〃 〃에델〃 〃프랭크〃 〃헬렌・프리만〃들 하고 지내겠읍니다。 그날은 아주 재미있을 것입니다。

〃엔디코트〃씨와 그의 딸이 저를 찾아 왔으므로 나는 마차를 타고 그분들을 따라 갔읍니다。 그 분들

은 나에게 훌륭한 예물을 주시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읍니다。 〃샘미〃는 예쁜 남동생이 생겼읍니다。 애기는 몽글몽글하고 참말로 예뻤읍니다。 〃아나그노스〃씨는 지금 〃아테네〃에 계신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여만 쓰겠읍니다。 어머니、 저는 편지를 더 잘 쓰고 싶은데、 쓰는 것이 그리 어렵고 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동생을 많이 귀여워 해 주세요。

一八八九년 十二월 二十四일

마사츄셋스・남 보스톤

어머니의 사랑하는 딸 헬렌

〃에드워드・E・헤일〃박사에게

친애하는 〃헤일〃씨:

예쁘고 이상한 조개껍질이 어제 저녁에 도착되었읍니다。 받고 나니 참으로 반가웠읍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오래 보존하겠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 섬에서 구해서 보내 주신 선생님께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그 섬에서 떠났었지요? 제가 열한살이 된 해는 〃콜럼버스〃가 그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바다를 세척의 조그마한 돛배를 타고 떠난지 四〇〇년이 됩니다。 그때에 〃콜럼버스〃는 얼마나 용감하였을까요? 저와 같이 있는 여러 소녀들은 조개껍질을 매우 이상하

게 생각하고 있기에 저는 조개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이야기 해 주었읍니다。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를 이와 같이 즐겁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들으시면 선생님도 기꺼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오실 수 있으시면 때때로 점자(點字)를 선생님께 배워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시면 못배우시게 될까 염려됩니다。 저는 며칠전 〃미―드〃부인으로부터 영국산 제비꽃을 한 상자 받았읍니다。 꽃은 좀 시들어 있었으나 아직도 향기가 그윽하고, 새로 뽑은 것과 그리 다르지 않고 싱싱한 모양을 하고 있었읍니다。 선생님의 어린 조카와 부인 그리고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요。

一八九〇년 一월 八일

남 보스톤

선생님이 사랑하시는

헬렌・A・켈러

〃홈즈〃박사에게 보낸 이 편지는 박사를 만나 뵌 후에 곧 쓰여진 것이고, 박사는 이것을 〃오버・더・티컵〃에 실었다。

〃올리버・W・홈즈〃박사에게

친절하신 시인:― 선생님과 헤어지던 일요일 아침은 매우 상쾌했었읍니다。 그 후 여러번 선생님을

생각하였고, 또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싶어졌읍니다。 선생님은 얘기가 없어서 때로는 쓸쓸하신 것 갈으나 그대신 선생님은 많은 책과 우리와 같은 여러 어린 동무와 같이 즐거움을 나누실수 있으시니까 행복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지요? 〃워싱톤〃 생일날에는 각처로부터 모여 온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눈먼 어린이를 만나러 왔을 때 나는 손님들에게 선생님이 쓰신 시를 읽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조개껍질도 보여 드렸읍니다。 조개껍질은 〃팔로스〃 가까이 있는 작은 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작은 〃쟉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책을 읽었읍니다。 선생님이 상상하신 예쁜 〃쟉키〃는 가난하고 눈이 먼 아이였읍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읽지 못하던 때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여 왔읍니다。 처음으로 고통과 슬픔을 알게 된 것은 나로서는 매우 슬픈 일이였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만일 이 세상에 기쁨만이 있다면 우리는 용감하여야 하며, 고통스러운 것을 참아야 함을 우리는 도무지 못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동물원에서 곤충을 연구하면서 여러 종류의 나비에 대한 자세한 것을 조사했읍니다。 나비는 벌과 같이 꿀을 만들지는 않지만 나비는 그들이 즐겨 찾아드는 꽃과 같이 아름다우며, 또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나비는 내일을 걱정하는 일 없이 이꽃에서 저꽃으로 옮아 다니며, 꿀을 마시며 즐거이 살고 있읍니다。 나비는 마치 공부를 저바리고 내려쪼이는 햇별을 온몸에 받으며, 들로 숲속으로 꽃을 찾아 뛰어다니며, 또는 향기로운 백합꽃을 따려고 징구렁에 빠지기까지 하는 소년 소녀와도 같읍니다。

오늘 六월에 귀엽고 예쁜 내 동생이 〃보스톤〃에 오면 선생님께 데리고 가겠읍니다。 동생은 아직 사랑스러운 애기입니다。 동생을 보시면 선생님도 귀여워 하시겠지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잠들기 전에 집에도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一八九〇년 三월 一일

마사츄셋스・남 보스톤

당신의 사랑하는 어린 친구、

헬렌・A・켈러

〃사라・풀러〃양에게

친애하는 〃풀러〃양、 오늘아침 저는 전에 없이 마음이 기쁩니다。 그것은 여러개의 새말을 다시 배웠을 뿐 아니라 몇줄의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에는 밖에 나가서 달하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나는 『오! 달아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였읍니다。 제가 한 말을 선생님은 이해하시겠지요。 六월이 되면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저를 만나러 오신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지 모르겠읍니다。 내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밀드레드〃는 내가 손가락으로 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행복한 사이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고 부지런한 분입니다。 제가 어찌하여 달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는지 선생님이 알

고싶어 한다는 것을 저의 선생님이 화요일에 말씀해 주실겝니다。 그날저녁 광경을 지금도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수집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했으므로 언제나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으며, 또 내 작은 손을 어머니 얼굴에 갖다대면 어머니의 말씀하시는 것을 입이 움직이는 것으로 느끼군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수가 없었읍니다。 내가 자라서 유모와 흑인 아이들과 같이 놀게되었을 때 나는 그들의 입이 마치 내 어머니의 입 같이 생각이 되어 때로는 나를 불쾌하게 하는 동무가 있으면 그의 입을 꼭 눌러서 말을 못 하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때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지나친 일이라는 것을 몰랐읍니다。 선생님을 모신후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의사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읍니다。 그것이 저는 만족하고 또한 행복하였었읍니다。 내가 "보스톤"으로 온 후 나는 벙어리가 성한 사람과 같이 말이 통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어떤날 "노르웨이"에서 어떤 부인이 한분 오셨는데, 그분은 눈 멀고 벙어리들이 말을 하게하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쳤다 합니다。 이 소식은 나를 매우 기쁘게 하였고, 나도 그들이 배운 것과 같이 배울 수 있다고 믿게 되었읍니다。 나는 동무들과 소리를 내보려고 하였으나 목소리는 아름답고 감각적인 것이니까 무리로 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나빠진다고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실 친절하고 상양한 선생님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읍니다。 그분이 바로 이 편지를 받으시는 "풀러" 선생님이었읍니다。 지금 나는 나무가지에 올라 앉아 노래하는 어린 새들처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

처럼 노래하며,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내 친구는 모두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놀랠것이나 또 기뻐도 할 것입니다。

一八九〇년 四월 三일

마사츄셋스・남 보스톤

선생님이 귀여워하는 　헬렌・A・켈머

여름방학에 〃퍼킨스〃학교의 방학이 되자 〃헬렌〃양과 〃설리반〃양은 〃더스컴비아〃로 갔다。 이것은 〃헬렌〃이 소리를 내서 말을 하게 된 후 처음으로 집에 간 것이다。

〃필립스・부룩스〃목사에게

존경하는 〃필립스・부룩스〃씨, 친절하신 친구이신 〃부룩스〃씨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집에 와서 세수일이 되었는데 그동안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것이 무한히 기쁘게 생각됩니다。 〃보스톤〃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매우 쓸쓸한 일이나 기차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 예쁜 여동생을 만날 생각을 하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지루했읍니다。 〃밀드레드〃는 내가 〃보스톤〃으로 가던 때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어져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운 애기가 되었읍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시고 나는 그분들에게 그같

은 기쁨을 나눌 수 있음이 이 또한 행복하게 생각됩니다。 여러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극히 즐거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는 어째서 때로는 심한 슬픔을 당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를 일입니다。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귀여운 〃폰토레로이〃도 그러하였으나、 어린 〃쟉키〃의 생활은 슬픔 뿐이었읍니다。 하느님은 그의 눈에 빛을 주지 않았으므로 눈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는 〃쟉키〃에게 친절하게 하거나 귀여워 하지도 않았읍니다。 〃쟉키〃는 그의 아버지가 불친절 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 사랑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은 여러사람이 영원히 편히 쉴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나빠지며、 동물을 쏴 죽이고 어린이들을 푸대접할 때 하느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하며 어떻게 서로 지내라고 가르쳐 주시는가요? 나는 생각하기를 하느님은 세상사람을 극진히 사랑하며 또한 그들이 행복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믿읍니다。 그리고 세상사람은 그들을 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그들이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도록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며、 동물까지라도 귀여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느님에 대하여 더 알고저 하오니 선생님이 아시는 것을 더 말씀해 주십시요。 착하고 슬기로운 하느님에게 대하여 더 많이 안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읍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바쁘시지 않으면 저에게 편지 보내주시면 합니다。 오늘 선생님을 멀리서 생각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지금 "보스톤"은 매우 더웁니까? 오늘 오후 서늘해지면 "밀드레드"를 나의 당나귀에 태워주려고 합니다. 그 당나귀는 "웨이드"씨가 보내주신 것인데, 참으로 예쁜 당나귀지요. 나의 아우 "심프슨"은 어제 곱게 핀 백합꽃을 가져왔읍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은 당신에게 기념품을 보냈고, 부모님은 문안을 전합니다.

一八九〇년 七월 十四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당신의 사랑하는 꼬마친구,

헬렌·A·켈러

"부룩스"박사의 답서

나의 친애하는 "헬렌"—

너의 편지를 받고 정말로 기뻤다. 네 편지는 바다를 건너서 내게로 따라 왔구나! 시간이 넉넉하여 이 편지를 길게 쓸 수만 있다면 이 굉장한 도시에 관한 얘기를 모조리 너에게 하고 싶다. 후일에 네가 나를 보러 "보스톤"으로 오면 내 서재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모두 해줄 생각을 하니 참 기쁘구나.

그러나 네가 집에서 참으로 행복스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니 다행이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너를 둘러싼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을 모두 내 눈으로 보는 듯이 환하다. 또 그런 것이 나를 기

쁘게 해 준단다。 또한 네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기쁘구나。 하느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깐 우리가 하느님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나를 말하여 보겠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이든지 사랑의 힘을 갖고 있지 않는한, 참으로 지루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햇볕、바람、나무、이런것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생각된다。 그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도 행복스럽게 지낼 수 있을 것인데、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하고、가장 행복스러운 존재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또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이다。 마치 꽃송어가 받아들이는 모든 햇볕이 태양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은 모두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많이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느님께, 하느님 사랑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행복스럽다니 나 역시 무척 행복스럽구나。 아마 너의 아버지、어머니、친구들도 다 그러하겠지。 네가 행복스러우니 하느님도 또한 행복스럽겠다고 생각지 않으니? 확실히 그렇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들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고、또한 우리가 하듯이 하느님은 오직 너의 행복만을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하느님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욱 행복스러운 분이다。 태양이 장미꽃의 빛과 색을 주듯이 하느님은 네게 행복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동무들이 즐기어 노는 것을 볼 뿐아니라 그들에게 기쁜 일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 대단히 좋아한다。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스럽

게 되기만 바라시지 않고 또한 착한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신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그것을 바라신다。 하느님은 말씀하시길 우리가 착한 짓을 할 때 정말로 행복스럽게 될 수 있다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먹어서는 안될 것을 먹는 약이다。 물론 먹어서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약도 있지。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분명히 예수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며、가장 선량한 존재이었고、아무도 볼 수 없었던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이었다。 나는 너에게 하느님의 얘기 하기를 좋아 한다。 그러나 만일 네가 하느님께 물어보면 네 마음 속에 사랑을 집어 넣으시고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하느님의 아들이신 모든 우리들보다도 하느님의 곁에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다。 만일 네가 예수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느님의 가슴 속에 얼마만큼 사랑이 가득차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는 말씀하시길、『하느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백성을 사랑하였다。 비록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잔인한 짓을 하거나、드디어 예수를 죽일지라도 예수는 그들 때문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시려고 하신다。 왜냐 하면 그만큼 예수는 그들을 사랑하시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헬렌〃、예수는 아직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에 누가 너에게 묻거든 또는 네가 너 자신에게 『하느님은 무엇이죠?』라고 묻게 되

면『하느님은 사랑이다』라고 대답하여라。 그것은 성경에 써 있는 아름다운 대답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나이가 먹을수록 좀 더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자 그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라。 친애하는 하느님이 네게 행복을 보내주시며、 더욱 밝은 축복을 모든 것에 베풀어 주시길 기도한다。 내가 돌아가면 너도 곧 〃보스톤〃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九월 중순까지는 돌아갈 것이다。 그때에 모든 것에 관하여 나에게 말하여 주길 바란다。 또한 나귀 이야기도 잊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너의 선생님께 안부 전하여다오。 너의 어린 동생들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안녕히、 사랑하는 〃헬렌〃! 곧 내게 편지 하여다오。 〃보스톤〃으로 편지 부치도록。

一八九〇년 八월 三일

런던

너의 사랑하는 친구

필립스・부룩스

〃홈즈〃박사의 답서

(잃어버린 편지에 대하여)

나의 친애하는 친구 〃헬렌〃!

四・五일 전에 당신에게서 온 반가운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편지는 많이 받았으나 답장을 쓸 것

이 때 많이 있읍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나를 친절하게 잊지 않는다니, 내 마음은 매우 기쁩니다。 당신 편지는 아주 재미나게 써서 그것을 읽을 때가 참으로 즐거웁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스럽다니 다행입니다。 또한 당신이 손가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된 사실을 들으니 더욱 기쁩니다。 얼마나 이상스러운 일입니까! 혀는 유용한 부분입니다。 이, 입술, 입천장,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도움이 될만한 것이며, 자음(子音)은 굳은 부분에 소리를 쌓아 놓는 것이며, 기묘하게 된 숨결을 통할 공간을 만드는 것은 모음(母音)입니다。

당신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공부하였읍니다。 당신이 소리로 말하는 법을 다 연습하였으니깐 나는 의심할 여지도 없읍니다。 당신의 편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언어에 숙달하게 된 것을 보고 놀랬읍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 않아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아마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더 좋게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 없을 테니깐요。 총과 대포를 가진 장님군대를 생각합시다。 가엾은 북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요。 북치는 사람과 그 북의 대는 무슨 소용으로 쓰일가요? 당신은 여러가지를 보는 시력과 소리를 듣는 청력에 쓰이는 괴로움을 맛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그런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복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 있는 한 얼마나 친절한 사람으로 여겨지는지를 생각해 보시요。 누구든지 어린 사랑스러운 〃헬렌〃에게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여자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만일 그 여자가 노인이 되어 머리가 하얗게 희게 되어도

여전히 남들은 그를 조심해서 돌보아줄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동무들은 당신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대단히 만족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진보하게 되는 것은 당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생님들에 대하여서도 큰 공적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선생님들은 당신을 가두어 놓은 벽을 부쉬버리고 이제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아이들 보다도 더욱 명랑하고 즐겁게 온갖 경치를 보게 하였읍니다。

안녕히 사랑하는 〃헬렌〃!

一八九〇년 八월 一일

마사츄셋스・베벌리 농장

올리버・W・홈즈

이 편지는 그의 이름을 따서 재목 운반선에 명명한 〃메인〃주 〃가아더나〃시에 사는 어떤 신사들에게 써 보낸 것이다。

〃부레드스트리트〃부인에게

나의 친애하는 여러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이름을 따서 아름다운 새 재목선에 명명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가 멀리 떨어진 〃메인〃주에 친절하고도 정다운 친구들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단한 행복감에 싸였읍니다。 내가 〃메인〃주 삼림에 대해서 공

부하였을 때에는 나는 튼튼하고도 아름다운 배가 이 풍부한 삼림의 목재를 싣고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좋은 가옥과 학교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읍니다。 나는 대양이 새로운 〃헬렌〃호를 사랑하여 무사히 그 푸른 물결 위를 항해하도록 하여주기를 기원합니다。 〃헬렌・켈러〃호에 승무하는 용감한 선원들에게 이 조그마한 〃헬렌〃은 집에 앉아서 이따금 다정한 마음으로서 그들을 생각한다고 전하여 주십시요。 나는 이후에 당신네들과 만나고 나의 이름을 붙인 아름다운 배를 보게 될 것을 바랍니다。 총총

一八九〇년 七월 十四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당신들의 사랑하는 어린 친구,

헬렌・A・켈러

〃헬렌〃과 〃설리반〃양은 十一월 초에 〃퍼킨스〃맹아학교에 돌아왔다。

〃케이트・A・켈러〃부인에게

나의 경애하는 어머님:— 수요일 밤 섭섭하게 떠나온 이래 저의 가슴은 어머님과 아름다운 집생각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저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아침에 얼마나 어머님을 뵙고 싶고, 또한 집을 떠난 이후

에 이러한 모든 일을 얼마나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지요。 그리고 나의 귀여운 작은 동생을 얼마나 몹시 애무해 주고싶은지요。 경애하는 아버님은 얼마나 저이들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지요。 그러나 저는 어머님을 뵐 수도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저에게 생각나는 모든 이야기를 써 보내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겨우 토요일 아침에야 "보스톤"에 도착하였읍니다。 섭섭하게도 기차가 여러 곳에서 머물러 "뉴욕"도착이 늦어졌읍니다。 금요일 저녁 여섯시에 "저어지"시에 도착하여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나룻배로 "하아렘"강을 건느는 수 밖에 없었읍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쉽게 배와 가라탈 차를 발견하였읍니다。 우리들이 정거장에 도착하니 "보스톤"행 기차는 열한시까지는 떠나는 것이 없으나 아홉시에 침대차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홉시에 들어갔읍니다。 우리는 아침까지 침대에서 잤읍니다。 우리가 눈을 떠보니 차는 이미 "보스톤"에 도착해 있었읍니다。 "아나그노스"씨의 생일에 도착하지 못하여서 대단히 실망하였읍니다마는 그곳에 도착한 것이 대단히 기뻤읍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은 우리들이 토요일에 도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놀라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초인종이 울렸을 때 "마렐"양은 누가 문에 왔나를 짐작하였고、 "홉킨스"부인은 아침을 먹다 뛰어 일어나서 문으로 우리를 맞으러 나왔읍니다。 그는 참말로 우리를 보고 대단히 놀랐읍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아나그노스"씨를 만나러 갔읍니다。 저는 저의 가장 친애하는 그리고 가장 친절한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서 기쁨에 넘쳤읍니다。 그는 저에게 아름다운 시

제를 하나 주었읍니다。 저는 그 시계를 옷에 핀으로 달고 있읍니다。 저는 누가 시간을 묻든지 가르처 줍니다。 저는 〃아나그노스〃씨를 다시 두번 만났을 뿐입니다。 저는 그가 여행해 본 일이 있는 여러나라에 대해서 많이 물어 보았읍니다。 〃버지니아〃의 언덕들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서리가 그 언덕을 금빛과 진홍빛으로 물들입니다。 그 경치는 가장 매력이 있는 그림과 같읍니다。 〃펜실바니아〃는 대단히 아름다운 주입니다。 풀들은 봄철과 같이 파랐읍니다。 넓은 들판에 무더기로 모아 쌓아 놓은 누런 옥수수알은 매우 보기 좋았읍니다。 〃해리스버〃에서 우리는 〃베디〃와 같은 당나귀를 보았읍니다。 저의 당나귀와 〃타이온이스〃가 대단히 보고 싶읍니다! 그것들은 그 주인이 없는 것을 퍽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밀드레드〃에게 저대신 그것들에게 친절히 하여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들의 방은 기분이 좋고 편안합니다。 저의 〃타이프〃는 운반도중에 많이 상했읍니다。 그 케이스는 깨어지고 키이는 거의다 빠져 나왔읍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수선할 수 있나를 알아보러 가실 것입니다。

이곳 도서관에는 새로운 책이 많이 있읍니다。 제가 그 책들을 읽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벌써 「사라・크류우」를 읽었읍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후일에 어머님께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친절하신 어머님, 이제는 이만 그치겠읍니다。

아버님、〃밀드레드〃、어머님, 그리고 모든 친한 친구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一八九〇년 十一월 十일

남 보스톤

어머님의 작은 딸.

헬렌・A・켈러

〃쫀・G・휘터〃씨에게

존경하는 친절하신 시인에게、

오늘은 당신의 생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 생각난 최초의 생각이었읍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당신의 작은 친구들은 그들의 친절한 시인과 그의 생일을 얼마나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매우 기뻤읍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들은 당신의 시 읽기와 음악을 가지고서 친구들과 즐기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 듣기 좋은 〃메로미이〃를 〃메리맥〃시내 가의 당신의 아담한 서재에 계신 당신에게 전해줄 빠른 날개를 가진 사랑의 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햇님이 컴컴한 구름에 그 빛나는 얼굴을 가리신 것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햇님이 어째서 그와 같이 하셨나를 생각하고 나서 저는 기뻐하였읍니다。 햇님은 당신이 아름다운 흰 눈으로 덮인 세계를 보기 좋아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의 모든 찬란한 빛을 감추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수정알들을 공중에 맺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준비되면 조용히 내릴 것이며、 부드럽게 모든 물건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햇님이 모든 광채를 나타내실 것이며, 빛으로 세계를 충만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만일 당신과 함께 있다면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매년 여든세번의 키스를 하여 드렸을 것입니다。 팔십삼년이란 세월은 저에게는 길게 생각됩니다。 당신에게도 길게 생각되시는지요? 저는 영원이란 몇해나 되는 것인지 의심합니다。 저는 그와 같이 많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보스톤〃시에 있는 맹아학교에 와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친애하는 친구인 〃아나그노스〃씨가 저에게 많이 쉬고 놀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있읍니다。

선생님도 안녕하시며, 당신에게 안부를 여쭈어 달라고 하십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읍니다。 저는 재미 있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읍니다。 매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당신과 또한 누구에게도 희망과 기쁨이 가득찬 신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一八九〇년 十二월 十七일

남 보스톤

당신의 작은 친구

헬렌・A・켈러

〃휫티〃씨의 회답

나의 친애하는 어린 친구에게—

나의 생일에 그와 같이 즐거운 편지를 보내주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二·三백통의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그대의 편지는 모든 편지 중에서 가장 반가운 편지의 하나였읍니다。 나는 그대에게 〃오크·놀〃에서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 가를 말해야 하겠읍니다。 물론 해는 뜨지 않았으나 우리들은 방안에서 모닥불을 많이 피고、 이것들이 모두 멀리 떨어진 친구들로부터 보내온 장미꽃과 다른 꽃들 그리고 〃카리포니아〃와 다른 지방으로부터 보내 온 여러종류의 과실들과 더불어 매우 유쾌하였읍니다。 친척들과 옛친구들이 종일 끊임 없이 차져왔읍니다。 나는 그대가 팔십삼년이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놀래지 않오나 나에게는 이것이 내가 〃하버힐〃의 오래된 농장에서 놀던 그대와 같은 나이의 소년이였던 시절로부터 극히 짧은 시간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대의 모든 좋은 기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며、 그대에게도 똑 같은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대가 맹아학교에 있음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곳은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설러반〃양에게 안부를 전하여 주기 바라며 이만 그칩니다。

그대의 늙은 친구

쫀·G·휫터

다음 편지들에서 이따금 나오는 〃토미·스트링거〃는 네살 때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 그의 어머니는 돌아갔고 아버지는 가난해서 그를 돌볼 수 없었다。 잠시동안 그는 〃아레게니〃에 있는 일반 병원에

입원되였다。 그 당시 〃펜실바니아〃주에는 그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는 구빈원으로 보내기로 되었었다。 〃헬렌〃은 〃J・G・브라운〃박사가 편지를 하여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렉산더・G・벨〃박사는 〃토미〃의 친구에게 그를 〃보스톤〃으로 보내도록 충고하였다。 그리고 〃퍼킨스〃맹아학교의 이사들은 그를 맹아를 위한 유치원에 넣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헬렌〃에게 〃토미〃의 교육에 상당히 공헌할 기회가 왔다。 그 전해 겨울에 〃헬렌〃의 개 〃라이오네스〃가 죽어서 친구들이 〃헬렌〃에게 다른 개를 사주기 위해서 돈을 걷기 시작했다。 〃헬렌〃은 전 미국과 영국에서 사람들이 보내오는 기부금을 〃토미〃의 교육비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 이 새로운 용도의 변경으로 그 기금은 빨리 모였고 〃토미〃에게 공급되었다。 그는 四월 六일에 유치원에 입원되였다。

후에 〃켈러〃양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작은 〃토미〃를 위해서 겨우 낼 수 있는 많은 가난한 아동들로부터 보내 온 푼전과 내가 만난 일이 없는 원근의 사람들이 한 감금된 어린이의 원조를 구하는 소리 없는 외침에 호응한 신속한 동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죠ー지・R・크렐〃씨에게

나의 친애하는 벗 〃크렐〃씨:—

〃웨이드〃씨를 통해서 들었는데, 당신이 내게 좋은 개 한마리를 사주신다는 제안을 하셨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친구가 있게 되니 나는 참으로 행복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량하고 사랑스럽게 생각됩니다。 영국사람과 미국사람은 서로 사촌관계가 된다고 써 있는 것을 읽어 보았읍니다。 확실히 우리가 남매간에 있다고 느낍니다。 나의 친구가 당신의 크고도 장엄한 도시에 대하여 얘기하여 주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현명한 영국 사람들이 쓴 것을 많이 읽었읍니다。 요새는 「이녹크·아―덴」을 읽기 시작하였읍니다。 위대한 시인들이 쓴 시를 대여섯편은 다 외울 수 있읍니다。 넓고 넓은 바다를 건넜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러면 나는 영국사람들、또 선량하고 현명하신 여왕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은 〃미―드〃백작이 나를 보러 오셔서 말씀하시길、여왕님이 현명하시고 부드러우셔서 사람들이 많이 뚫고 사랑해 드린다고 말하셨읍니다。 후일에 당신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어린 소녀가 있을테니 그 낯서른 아이를 보고 놀래실 것입니다。 그애가 개나 또는 다른 동무들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웃으실 겝니다。 그러나 〃웨이드〃씨가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애에게 키스를 해주십시요。 〃웨이드〃씨는 내게 주실 또 다른 하나의 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말하시길、내가 사랑하고 있는 개 〃라이오네스〃와 같이 그의 개도 용감하고 충실하게 자랄 것이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개를 귀여워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당신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들은 내게 약간의 돈이나마 부쳐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돈은 가엾은 귀먹고 말못하는 어린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토미〃입니다。 그는 다섯살 되었읍니다。 그의 아버지、어머니는 너무 가난할 살림을

하여서 어린이를 학교에 보낼만한 돈이 없읍니다。 그래서 나에게 개를 한마리 주시는 대신에 신사들께서 나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토미〃를 즐겁고 명랑하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입니까? 교육은 〃토미〃의 영혼에 빛과 음악을 갖다 주어서 머지않아 그는 행복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一八九一년 三월 二十일

마사츄셋스・남 보스톤 맹아학교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헬렌・A・켈러

〃올리버・W・홈즈〃박사에게

친애하는 〃홈즈〃박사：—

당신이 요새의 명랑한 봄 시절 사월에 대하여 쓰신 아름다운 글은 내 마음 속에 즐거운 멜로디를 흐르게 하셨읍니다。

봄에 관한 말은 모조리 사랑합니다。 더욱『따뜻한 봄이 왔어요』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비록 내가 사람들을 가까이 고는 아름답고도 가냘픈 꽃을 볼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오는 새들의 즐겁게 재재기는 소리를 못들을망정 이 아름다운 시가 봄을 사랑하도록、 또 즐기도록 나를 인도하여 준

사실을 들으시면 아마 당신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봄이 왔읍니다』하고 읽기 시작하면、보십시요! 나는 이젠 더 장님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눈、당신의 귀로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인이 곁에 와 있을 때면 다정하신 자연의 어머니는 내게 아무런 비밀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이 종이를 골랐는가 하면 당신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려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랑캐꽃 가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말못하는 어린 "톰"이 우리의 즐거운 정원으로 왔읍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이 어린이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그는 불상하고 의지할데 없는 외로운 아이입니다。 그러나 내년 사월이 되기 전에 교육의 힘은 그를 밝고 명랑한 생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시게 되면 "보스톤"의 사람들이 "토미"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하고 바라실 것입니다。

一八九一년 四월

마사츄셋스・남 보스톤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헬 렌・켈 러

"쫀・E・밀레이스"경에게

친애하는 "밀레이스"경:— 어린 미국에 있는 소녀가 편지를 쓰고저 하는 까닭은 당신이 "토미"에게

많은 흥미를 느끼고、 그의 교육비까지 보내주신 것을 〃토미〃가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는 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멀리 떨어진 영국사람인 당신이 우리 미국의 어린 〃토미〃를 그같이 불상히 생각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 나라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와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는 그곳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여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읍니다。 여러곳에 각각 흩어져 사는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여 친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친애하는 영국의 여러친구를 만나며、 그리고 아름다운 섬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언제나 가질 수 있겠는지 매우 기다려집니다。 내가 매우 좋아하는 시(詩) 중에는 내가 그리워하는 영국에 대해 쓴 것도 있읍니다。 그 시는 당신도 좋아하실 것 같기에 여기에 써 보려고 합니다。

몰려오는 청파에 안기어
　해초의 끝으로부터 산간의 초원까지
영국의 뿌리 깊은 참나무는
　한주먹에 쥐어지는 갸날픈 것들을 함께 지니고 있다。
백색의 단애(斷崖) 푸른 초옥
　그를 안으려 좁혀드는 대양(大洋)
동산들 또한 그 사이의 시내들

이것이 작은 우리 어머니의 섭
하느님이어 축복하여지이다!

"토미"는 어떠한 친절한 부인어 교육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는 예쁘고 활동적인 어린이입니다. 어이야기를 들으시면 기쁘시겠지요. 그는 글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무에 기어 올라 가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물론 그가 아직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까닭이지요. 그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를 그와 같이도 오래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쁠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내일이면 四월이 눈물을 가리고 五월의 꽃밑에서 부끄럽게 방긋할 것입니다. 五월은 영국서도 여기처럼 아름다울까요.

이만 실례하겠읍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스러운 누이 동생으로 생각하여 주세요.

一八九一년 四월 三十일

마사츄셋스・남 보스톤 퍼킨스 맹아학교

헬 렌・켈 러

"필립스・부룩스" 목사에게

친애하는 "부룩스"씨: 행복을 가득히 싣고 온 "메이데"에 당신에게 기쁨의 편지를 "헬렌"은

보냅니다。 선생님은 당신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사교(司敎)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지금 사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일은 착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신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에 충분한 용기와 지혜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시겠고、 그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가 원치아니하는 불순하고 점잖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서 가득 차게 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멀지 않아 듣고저 합니다。 그리고 〃부룩스〃사교의 생활이 각색 꽃이 만발하고 여러가지 새들이 기꺼이 노래하는 빛나는 五월과 같이 행복에 넘쳐 있기를 바랍니다。

一八九一년 五월 一일 남 보스톤

어린 친구、

헬렌·켈러

〃토미〃를 돌볼 선생님을 구하기 전에 〃토미〃는 〃헬렌〃과 〃설리반〃양의 보호를 받을 당시에 유치원에서 〃토미〃의 환영회를 열었다。 〃헬렌〃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부룩스〃사교는 연설을 하나 하였다。 〃헬렌〃은 많은 반응이 있는 편지를 신문에 썼다。 회답의 대부분은 〃헬렌〃자신이 썼고、

한 신문지상으로 일반적인 인사를 하였다。 이 편지는 기증자(寄贈者)의 전 명부를 동봉한 〃보스톤・헤랄드〃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이다。 기부금 전액은 一천六백딸라 이상이었다。

〃쫀・H・홈즈〃씨에게

〃보스톤・헤랄드〃편집자에게:

친애하는 〃홈즈〃씨:— 동봉한 명부를 당신이 편집하시는 〃헤랄드〃지에 실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신문의 많은 독자들이 〃토미〃에게 이와 같은 훌륭한 일을 한 것을 아는 것은 기쁜 일이며、그를 도울 수 있는 즐거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는 유치원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지내며、매일 이것 저것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읍니다。 〃토미〃는 열쇠가 잠긴 문에 종이 막대기와 같은 것을 열쇠구멍에다 쉽게 넣을 수 있으나・나중에 그것을 꺼내는 것은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는 글씨 쓰는 것보다는 침대 다리에 기어오르고 스팀의 나사못을 뽑는 것을 잘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짓은 글을 배우는 것이 그가 새롭고 재미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게 할 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토미〃의 재정이 설 때까지 도웁는 일을 계속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고 그가 공부함으로써 그의 생활에 빛이 비치고 그의 입에서 즐거운 노래가 흘러 나오기를 바랍니다。

一八九一년 五월 十三일

남 보스톤

'올리버 · 웬델 · 홈즈" 박사에게

친애하는 시인에게:—

제가 자주 당신께 편지를 써서 귀찮아 하실가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꼬마 "헬렌"을 기쁘게 하여 주실 때는 "헬렌"은 사랑과 감사의 멧세—지를 부쳤으면 하고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아나그노스"씨에게 "애기 톰"의 교육비로 보충하라고 돈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그로부터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당신의 따뜻한 동정심에서 가져오신 선물을 보고도 알 수 있겠지만 아직도 사랑스러운 어린이를 잊지 않으셨군요. 그런데 "로미"가 아직 몇마디 밖엔 배우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마。 그애는 당신이 보았을 때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가 명랑한 재집에서 즐겁게 놀고 작난을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점차로 선생님이 이상스럽고 놀랠만한 일을 외우도록 하시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지식의 나라를 찾으려고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말이란 마음의 날개입니다。

당신을 만난 후에 저는 "앤도바"에 가 있었읍니다。 친구들이 "필립스 · 아카데미"에 관하여 말해주어서 나는 퍽 재미있었읍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곳에 갔었던 일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곳이 당신에게 정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나의 친절하신 시인의

학생시절을 상상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분께서 새의 노래와 〃우드랜드〃의 수집은 어린이들의 비밀을 〃앤도바〃에서 배웠는지가 의심됩니다. 아마 분명히 그분의 마음속은 언제나 음악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느님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달콤한 사랑의 답변을 틀림 없이 들으셨겠지요.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선생님은 「중학생」이란 책을 저에게 읽어주셨읍니다. 그에 관한 얘기가 내책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음 주일 화요일 오후에 〃토래몬트〃사원에서 눈이 먼 어린이들의 개학식이 거행된다는 것을 아셨읍니까? 당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입장권을 동봉합니다. 우리의 친구 시인을 모두 환영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태리〃시의 아름다운 경치에 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엘리스〃박사께서도 오셔서 〃톰〃을 안아주셨으면 좋겠읍니다.

一八九一년 五월 二十七일

남 보스톤

많은 사랑과 키스를 올리면서,

당신의 꼬마친구, H·K

〃필렙스·부룩스〃목사에게

나의 친애하는 〃부룩스〃씨께,

제가 약속한대로 저의 사진을 부칩니다. 올 여름에 당신이 그 사진을 보시면 남쪽에 있는 꼬마 친구

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초상을 볼 때면 손을 가지고 볼 수 있듯이 그림도 손으로 만져서 볼 수 있으면 하고 언제나 생각을 하였었읍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름다운 그림과 더불어 나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셨으니 비록 내가 볼 수도 없는 그림이지마는 인제는 그렇게 자주 그런 생각을 하지않게 되었읍니다。 친애하는 "부룩스" 씨, 만약에 빛이 당신 눈에 없다면 교마 "헬렌"이 얼마나 행복스러웠다는 가를 아실 것입니다。 "헬렌"의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다만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느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 매일같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어저께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를 생각하였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공일날 아침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당신은 여러 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관하여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스럽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교가 되시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더욱 기쁘게 해 주시겠읍니다。 선생님이 당신께 안부를 전하십니다。 나도 나의 사랑하는 사진을 보냅니다。

一八九一년 六월 八일

남 보스톤

당신의 교마친구, H·K

〃퍼킨스〃학원이 六월에 끝이나서 〃헬렌〃과 선생님은 남쪽 〃머스컴비아〃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十二월까지 머물렀다。 〃헬렌〃과 〃설리반〃선생은 「서리왕」이란 얘기를 듣고서 우울한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몇달 동안을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때에 아마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매우 불행하게 한 모양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분석을 하였지만 〃켈러〃양은 그에 관한 이야를 썼다。

〃엘버트·H·문셀〃씨에게

나의 친애하는 〃문셀〃씨에게—

당신편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정말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기쁘게 하여주며 좀더 길었으면 하고 원할 따름입니다。 당신이 늙은 〃넵툰〃의 사나운 마음씨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요。 사실 우리가 〃브루스터〃로 온 이후로 그는 매우 이상스럽게 행동을 하였읍니다。 무엇인지 내가 상상할 수 없으나 그의 위엄을 손상시킨 것만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의 안색은 그리도 험악하여서 도무지 당신의 친절하신 소식을 전하기를 두려워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마 늙은 바다의 신이 해변 가에서 잠들어 누어 계실 때 생장하는 만물의 부드러운 음악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지의 가슴에서 삶의 움직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의 동요하는 가슴은 자기와 겨울이 지배를 하여 왔던 시가가 거의 종말에 가까워졌으니 몹시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때

서 불행한 군주들이 거의 절망적으로 서로 투쟁을 하면서, 부드러운 봄은 그들의 폭력으로 황폐된 상태를 보고 돌아서서 달아나 버릴거라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보시요! 사랑스러운 아가씨는 더욱 빵끗이 웃을 뿐이고 그의 적들인 차디찬 문벽에서 숙을 쉽니다。 그러니 곧 그 원수들은 사라지고 기쁨에 찬 대지는 그를 대단히 환영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런 망상은 집어치워야겠읍니다。 당신의 어머니께 나의 간곡한 안부를 전하여 주십시요。 선생님이 사진을 매우 즐겨서 보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에도 또 다른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자! 친애하는 친구여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쓴 몇마디를 모두 수락하여 주십시요。

一八九二년 三월 十일

브르스터

사랑하는 당신의 H·K

이 편지는 一八九一년 六월에 "성·니콜라스"에 있는 집에서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일자가 쓰여있지않으나, 필경 출판하기 삼개월 전에 쓰였을 것이다。

"성·니콜라스"에게

친애하는 "성·니콜라스"：

당신에게 나의 필적을 보내게 되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성·니콜라스"를 읽는 소년 소녀들에게 장님 어린이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아마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들이 줄을 맞춰서 똑바로 잘 쓰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쓴 방법에 대해서 그네들에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려고 할 때 종이 사이에 끼어 두는 홈선(凹線)이 있는 판자가 있읍니다. 그래서 끝이 무뚝한 연필로 쓰면 낱말을 고르게 쓰기가 매우 쉽습니다. 소문자는 모두 홈선 안에서 쓸 수 있읍니다. 대문자는 홈선 아래 또는 위로 연장하여서 쓰게 됩니다. 우리는 연필을 오른손에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써 놓은 모양이나 글자가 똑바로 띄어 써 있나를 보기 위하여 왼손 두째 손가락으로 주의깊게 만져봅니다. 처음에 글자를 분명하게 똑바로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써보면 점점 쉽게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한 뒤에는 친구들에게 똑바른 글자로 알아 볼 수 있게 편지를 쓸 수 있읍니다.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읍니다. 장차 사람들은 장님학교를 방문하게 될는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생도들이 글씨 쓰는 것을 보고싶어할 것입니다.

당신의 꼬마친구

헬렌·켈러

一八九二년 五월에 "헬렌"은 장님들을 수용하는 유치원의 도움을 얻어서 다과회를 열었다. 그것은

순전히 〃헬렌〃자신의 생각이였다。 그 회는 〃쫀・P・스폴딩〃씨의 누이동생인 〃마ー론・D・스폴딩〃여자의 집에서 열렸던 것이다。 그 여자는 〃헬렌〃에게 가장 친절하고 가장 관대한 친구 중의 한사람이였다。 그 다과회를 열었기 때문에 장님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二千딸라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왔다。

〃카로린・더어비〃양에게〃

나의 친애하는 〃캐리〃양:ー

당신의 친절하신 편지를 반갑게 받았읍니다。 당신이 다과회를 즐기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더욱 기뻤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물론 그것을 단념해서는 안됩니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멀리 햇빛 쪼이는 남쪽、 우리 사랑하는 고향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스톤〃에 있는 나의 친절한 친구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애를 써준 지난 일들이 모두 보지못하는 어린이들의 생활을 착하게 행복스럽게 해 주는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늘 저는 행복감을 느끼곤 했읍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광선、 또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훌륭한 것들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따뜻한 동정은 모조리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만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에게는 생각됩니다。 소용되지 않는 장님 어린이들의 친구들이 우리가 그 애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며는 그들이 와서 우리의 다과회를 성과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나는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부룩스"사교님께 우리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요。 그러면 그는 우리와 함께 지내려고 준비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애리너"양이 기뻐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에게도 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십시요。 내일 당신을 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계획의 나머지를 짤야겠읍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주머니에게 선생님과 나의 안부를 전하여 주십시요。 또 우리가 찾아가 뵌것도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여 주십시요。

一八九二년 五월 九일

남 보스톤

당신의 사랑하는, H・K

"쫀・P・스폴딩"씨에게

친애하는 "스폴딩"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당신의 꼬마 친구 "헬렌"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할가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말씀 여주며는 당신은 나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라고 밉고 있읍니다。 선생님하고 제가 일요일에 말씀 여쭌 일 즉 유치원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만 다과회를 열고 싶다고 하던 얘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아마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우"여사의 집이 아주 적으니깐 "에리옷트"여자는 오십명 이상이나 우리가 초대하는 것을 과히 좋아하시지 않

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꺼이 다과회에 참석하실 것이고、 어린이 장님들의 생활을 명랑하게 애 주려고 많이 도와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말하길 더 넓은 집을 찾아 낼 때까지는 다과회의 계획을 단념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저께 말하시길 아마 "스폴딩" 여사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그의 아름다운 집을 빌려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하여 당신께 여쭈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읍니다。 내가 여사에게 편지를 쓰면 "스폴딩" 여사가 나를 도와줄가요? 만일에 나의 조그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나는 정말로 낙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가엾은 어린애들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좀 하려고 오래 동안을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집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당신을 괴롭힌 것을 용서하십시요。

一八九二년 五월 十一일

남 보스톤

당신이 사랑해 주는 꼬마친구、 H・K

"에드워드・H・크레멘트" 씨

친애하는 "크레멘트" 씨:—

나의 가슴은 행복이 넘쳐흘러 이 아름다운 아침에 당신께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당신과 동

사무실에 있는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이 나와 같이 재미있게 놀아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내가 여는 다과회의 준비는 거의 완성되었읍니다。 나는 기쁨으로 그 큰 일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실패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지와 암흑 속에서 사는 가엾은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라고 설명하는 것을 알게 되면, 친절한 그들은 나를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다과회에 와서 지식의 아름다운 광명을 얻을 것이며, 눈이 멀고 동무가 없는 가엾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내게로 오셨을 때를 역력히 기억합니다。 그 때에는 나도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과 똑 같았읍니다。 이런 사실은 그때의 나의 영혼의 아무런 광명도 아니었읍니다。 이 훌륭한 햇빛과 아름다움을 가진 세상은 나에게는 감추어져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꿈에도 조차 볼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의 조그만 손가락으로 나를 가둔 캄캄한 감옥의 문을 열게 하느라고 아름다운 열쇠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읍니다。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나의 가장 열렬한 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스톤"의 친절한 사람들에게 내가 장님 어린이들의 생활을 더 명랑하게 더 행복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십소사 하고 원하고 있읍니다。

一八九二년 五월 十八일

남 보스톤

六월 말에 "셜리반" 선생과 "헬렌"은 "터스컴비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카로린・더어비"양에게

나의 친애하는 "캐리"—

당신은 오늘 내가 쓴 편지를 보시면 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일수일 동안 "터스컴비아"에선 날씨가 춥고 침침하고 지루하였읍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리는 비와 우울한 기후가 마음을 음침하게 하고 아주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편지를 쓰는 일, 또는 다른 재미나는 일을 하게끔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기 왕성합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하였기 때문에 매일 같이 당신의 얘기를 하다싶이 하고 당신께서 보내온 편지를 대단히 재미나게 읽읍니다。 나는 "헐톤"에 있는 아름다운 곳을 찾아 갔읍니다。 모든 것이 신선하고 봄날 같았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야외에서 놀았읍니다。 조반까지도 "베란다"에서 먹었읍니다。 가끔 우리는 평상에 앉았읍니다。 선생님은 내게 글을 읽어 주셨읍니다。 거의 매일 저녁 나는 말을 타고 빨리 달려서 오마일이나 갔읍니다。 아! 참 재미났읍니다。 말타시길 좋아 하십니까? 지금 나는 예쁘고 조그마한 마차를 하나 갖고 있읍니다。 날씨만 좋아진다면 선생님과 나는 매일 저녁 드라이브를 할 셈입니다。 그

리고 또 다른 좋은 맹견을 한마리 가지고 있읍니다。 어떻게 사납고 큰지 예전에 본 일이 없읍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머"입니다。 이름이 이상하지요? 아마 그것은 "섹슨"이겠지요。 다음 주일에는 등산을 할가 합니다。 "필립쓰"란 나의 동생은 건강이 좋지 못하니깐 산의 맑은 공기가 그에게 이로울 것 같읍니다。 "밀드레드"는 착한 여동생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애를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사진 대단히 고맙습니다。 비록 내가 그들을 볼 수는 없지만 내 친구들의 사진도 갖고 싶읍니다。 나는 당신이 정자로 쓰는 의도가 매우 흥미있읍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는 점자 서판으로 글을 쓰지 않고 뚱뚱한 것과 같은 철선으로 된 판위에서 펜을 씁니다。 당신은 점자를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문자와는 전연 같지않고 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더어비"양에게 안부 전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이도 나의 가장 정깊은 사랑을 "투프"애기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요。 내 생일에 보내주신 책은 무엇이었읍니까? 나는 대여섯권의 책을 받았는데 어느 것이 당신이 보내주신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특히 나를 기쁘게 해준 선물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것은 나에게 맞도록 털실로 짠 예쁜 "케이프"이었읍니다。 그것은 일흔 일곱살이나 되는 노인 신사가 짜온 것입니다。 한 돌림씩 짤적마다 그는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는 친절한 소원을 의미한 것이라고 써 보냈읍니다。 당신의 사촌들에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나와 함께 형세를 바라보는 것이 낫지 않을가 말씀 전하여 주십시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하두 많아서 저렇게 젊은 정치가들이 선거를 현명하게 할 수 있을가 의아스럽군요。 당신이 편지를 쓰시게되면 "로―지"에

게 안부를 전해 주시고 나를 믿어주십시요。

一八九二년 七월 九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H・K

추신: 타이프로 찍은 이 편지가 어떻습니까?

"크로버・클리브랜드" 여자에게

친애하는 "클리브렌드" 여사、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 당신께 짤막한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당신과 귀여운 "루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더어비" 여사를 통해서 주신 정다운 멧세ー지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친절하시고 아름다우신 여사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니 나는 참으로 기쁩니다。 나는 오래전서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당신의 참다운 멧세ー지가 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내 소식을 알고 계시는 것을 전연 몰랐읍니다。 내 대신 당신의 귀여운 애기에게 키스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거진 열 여섯달이 되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전해 주십시요。 그 애 이름도 "필립스・부룩크" 입니다。 그 이름은 내가 친한 친구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와 함께 아름다운 책과 나의 사진을 보냅니다。 이 책을 받으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 친구의

사랑과 호의로 보내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요。

一八九二년 十一월 四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헬렌·켈러

지금까지는 편지가 빠짐 없이 다 발표되었다。 다음서부터는 문장의 몇구절이 생략된 것이 있는데 진 것은 표시가 되어 있다。

〃쫀·힛쓰〃씨에게

친애하는 〃힛쓰〃씨、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친절하게 부쳐주신 편지를 받은 후 오래간만에 붓을 들었읍니다。 될 수만 있다면 쓰고 싶은 것을 다 말씀 드렸으면 좋겠읍니다。 왜 답장이 안오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선생님과 내가 매우 나빠졌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고 미안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선생님은 눈을 다치셔서 누구에게도 편지를 쓸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도 나는 작년 여름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답니다。 〃보스톤〃을 떠나기 전에 「젊은 동지」(The Youth s Companion)를 위해서 나의 생애의 대강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

읍니다。 그래 방학을 이용하여 그것을 쓰려고 했었읍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의 친구에까지도 편지를 쓸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밝고 명랑한 가을날이 오자 나의 몸은 다시 튼튼하게 회복되어서 원고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답니다。 그것을 내게 알맞도록 구성할 때까지 한참 걸렸읍니다。 당시는 아시다싶이 내 얘기만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드디어 선생님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얻어서 그 부스러기를 함께 모아서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매일처럼 거기에 대한 것을 약간씩을 써 왔지만 일주일 전의 토요일까지는 끝마칠 수가 없었읍니다。 그것을 끝마치자 말자 그 원고를 "컴페니온"사에다 보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어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읍니다。 그 때부터 또 건강이 좋지못하여 할 수 없이 편지도 못쓰고 쉬어야만 하였읍니다。 그러나 요새는 훨씬 나졌읍니다。 내일이면 완전히 회복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신문에서 당신이 읽은 나에 관한 보도는 전연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싸이렌트·워—커"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데가 있다고 편집자에게 즉시로 써서 보냈읍니다。 저는 때때로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볼수 없을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읍니다。 나의 사태가 비참한 정도로 빠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하신 편지는 정말로 저를 기쁘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저에게 아름다운 생각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면、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영원히 나의 기억속에 고이 간직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책에는 "러스킨"선생의 말씀이 담뿍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컴페니온"사에서 부탁한 원고를 쓰기 시작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서적이 얼마나

값있는 것이며, 동시에 나의 생활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지를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하였읍니다。 내게로 온 행복은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나는 행복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편지하여 주십시요。 선생님과 저는 당신 소식이 있을 때는 언제나 기뻐합니다。 〃벨〃씨에게는 편지하고 내 사진을 부치려고 합니다。 아마 그는 매우 바쁘셔서 꼬마 친구에게 편지를 쓸 기회가 없는 것 같읍니다。 작년 여름에 〃보스톤〃에서 여럿이 즐겁게 지내던 때를 종종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비밀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마 우리들 선생님과 아버지와 동생하고 나는 내년 삼월에 〃워싱톤〃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또 친애하는 〃벨〃씨와 〃엘시〃 그리고 〃데이지〃도 다시 만나게 되지요。 만약에 〃프렛트〃여자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볼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일가요? 그 분에게도 편지를 써서 이 비밀을 알려야겠읍니다……。

一八九二년 十二월 十九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당신의 사랑하는 꼬마친구· H·K

추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갖고 싶어하는 동물의 종류를 당신은 알고 싶어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나는 모든 산 물건을 사랑합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렇겠지요。 그러나 물론 그것을 취급할 사람을 얻을 수 없읍니다。 나는 예쁜 애기 말과 큰 개를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의 무릎에 앉힐 조그만

강아지나 (〃더스컴비아〃에는 좋은 고양이는 없지만) 큰 고양이든지 앵무새 같은 것을 갖고 싶읍니다。 앵무새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읍니다。 얼마나 우수울가요! 그러나 당신이 보내주시는 동물은 무엇이든지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H・K

〃카로린・더어비〃양에게

…이렇게 슬픈 때면 내 마음속엔 당신 생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동안 사랑하던 친구가 없어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나와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하여 준 사람들과 함께 〃보스톤〃에서 살았으면 하고 여러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는 나에게 좋은 벗이었읍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셨읍니다。 하나 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않으려고 애써 보겠읍니다。 아직도 그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그가 이 세상에 없어서 〃보스톤〃에 가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은 슬픔의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듯 어지러워 집니다。 그러나 내가 즐거운 때면 그의 아름다운 모습과 편안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그의 친절한 손을 느낍니다。 작년 六월에 그와 함께 행복스럽게 지나던 시절이 생각나십니까? (언제나 하는 것이지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그의 친구 〃테니슨〃과 우리들의 친한 시인 〃홈즈〃씨의 얘기를 해 주었지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수화문자를 가르쳐 준다고 애를 썼읍니다。 그랬더니 그는 잘못하였을 때마다 유쾌하게 웃었읍니다。 내

가 다과회에 관한 얘기를 그에게 말하였더니 오겠다고 약속하였지요。 그 다과회가 잘 되었으면 하는 나의 소원을 듣고 그는 『물론 그것은 "헬렌"의 마음대로 될 것이다。 좋은 일을 하는데 너의 정성을 다들여라。 그러면 절대로 실패할리 없을테니』 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거의 결정적인듯 말하신 그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같읍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려고 한다니 무척 반갑군요。……

一八九三년 二월 十八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三월에 "헬렌"과 "설리반" 선생은 북쪽으로 가서 二·三개월 간을 묵으면서 친구들을 찾았다。
이 편지는 "나이아가라" 여관에서 쓴 것인데, 이것을 읽으면 "켈러"양이 거리와 형태(形態)를 안다는 것과, 그는 다리를 건너가 보고 "에레베—타"로 내려가 본 경험을 통해서 "나이아가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창에다 손을 대고 물이 퍼붓는 것을 느끼는 것같은 자세한 얘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벨"박사는 그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벼개를 비어 주셨다。

"케이트·A·켈러" 여사에게

…갑자기 계획도 없이 선생님과 "프렛트"부인과 존경하는 "벨"박사와 "웨스터빌트"씨를 모시고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웨스터빌트"씨는 "로체스터"에다 맹아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워싱톤"에서 아버지가 만나보셨던 일이 있읍니다。 먼저 우리는 그곳에 찾아갔읍니다。… 어떤날 오

후에 〃웨스터빌트〃씨는 우리에게 환영회를 열어 주셨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읍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상스러운 질문을 하였읍니다。 어떤 여자는 내가 색을 볼 수도 없을텐데 꽃을 사랑한다고 매우 놀랜 듯 하였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꽃을 좋아한다고 하니깐 그가 말하길, 『틀림 없이 당신은 손가락으로 색을 알아볼 수 있군요。』 하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꽃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밝은 색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 어떤 신사가 묻기를 아름다움이란 나의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되느냐고 말하길래 처음에 나는 당황하였답니다。 그러나 잠시후 아름다움이란 착한 것의 형태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는 가버렸읍니다。

환영회가 끝난 후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읍니다。 선생님은 갑자기 놀랠만한 일을 꾸며 놓은 것을 전연 모르시고 잠을 자셨읍니다。 〃벨〃선생님과 내가 그것을 꾸며놓고 우리가 선생님께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벨〃선생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읍니다。 놀랠만한 일이란 내가 선생님을 모시고 〃나이아가라〃폭포를 구경가는 즐거운 일이었답니다。 … 호텔은 강물에서 가까우니깐 창에 손을 대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곧 느낄 수 있읍니다。 다음날 아침에 햇님이 떠 오르고 날씨가 따뜻하여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에서 참을 수가 없이 일찍 일어났읍니다。 … 당신이 〃나이아가라〃폭포 앞에 서서 신비감을 느끼기 전엔 내가 그곳에서 어떤 기분이었나를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내 발밑에서 기운차게 무섭게 빠를 정도로 퍼붓는 것이 물이라고는 정말 상상할수가 없었읍니다。 무시무시한 최후의 막다른 골목으로 돌진하는 생명 있는 것처럼 보였읍니다。 될 수만 있다면 쏟아지는 폭포수를 있는 그대로 그의

아름다움과 굉장한 광경、절벽에 내리 퍼붓는 무시무시하고 저항할 수 없는 폭포를 그대로 써 보았으면 좋겠읍니다。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힘앞에선 사람들은 압도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전에 내가 대양앞에 서서 해변 가로 부닥치는 파도를 보았을 때와 똑 같은 느낌이였답니다。 고요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쳐다 보시면 당신도 그렇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 우리는 폭포수밑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여울과 물이 고인데를 보려고 승강기를 타고 백 이십 "피-트"나 내려갔읍니다。 폭포에서 이마일쯤 되는 데에 훌륭한 다리가 걸려 있읍니다。 다리는 강물 위에서 이백 오십팔 "피-트"나 높은 곳에서 골짜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백 "피-트"나 떨어진 큰 바위의 꼭대기에서 양쪽 언덕에 있는 다리를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카나다"쪽으로 건너갈 때에 나는 『하느님께서 여왕님을 보호하소서!』하고 외쳤읍니다。 선생님은 내가 작은 반역자라고 말하셨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내가 그들의 나라에 있는 동안은 "카나다"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했을 뿐입니다。 뿐 안이라 나는 영국의 좋은 여왕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후-커"양이란 젊은 여자가 나의 말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오! 이 다음에라도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기도드리고 바라는지 모르겠읍니다。……

"뮨셀"씨는 지난 공일 저녁 우리와 함께 지냈읍니다。 그가 "베니스"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면 어머니는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우리가 마치 "산·마르코"의 그늘에 앉아서 꿈을 꾸면서 달빛아래 운하를 향해하는 듯이 그는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얘기를 해 주셨읍니다。 후일에 꼭 "베니스"에

가게 되면 〃문셀〃씨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공중 누각입니다。 아시다싶이 그이가 그렇게도 아름답게 눈에 보이는 듯이 설명해 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읍니다。………

一八九三년 四월 十三일

남 보스톤

만국 박람회 구경 간 것을 〃헬렌〃은 〃쫀・P・스폴딩〃씨에게 편자로 써서 보냈다。 그것을 〃성・니콜라스〃사에서 출판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편지와 거의 비슷하다。 〃성・니콜라스〃사에다 쓴 〃설리반〃선생의 서문 가운데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헬렌〃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의 손가락으로 더 많은 것을 보는군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써 있었다。 박람회 의장이 그 여자에게 편지를 주었다。

진물과 진열품을 맡아 보시는 책임자 여러분께

여러분— 〃설리반〃선생이 데리고 가는 사람 〃헬렌・켈러〃양이 박람회를 구경할 때 모든 부문에 걸쳐 완전하게 시찰하여 보고 싶어합니다。 그 여자는 눈도 멀고 귀도 먹었답니다。 그러나 말은 통할 수 있읍니다。 내가 그 여자를 소개 받았을 때 그는 찾아가 보는 대상물을 이해하는데 놀랠만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그의 연령에 비해서 높은 지정과 교양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여러 부문에 걸쳐 진열품을 조사하려 할 때 그 여자의 편의를 좀 보살펴 주십시요.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많

은 친절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시요。 그럼 수고를 끼쳐들여서 죄송합니다。 돈 수

의장 H・N・히긴보탐(서명)

〃카로린・더어비〃양에게

… 박람회에 계신분들은 모두 나에게 친절하셨읍니다。… 출품하신 사람들은 거의 모두 기쁜 안색으로 나에게 그 훌륭하고 고운 물건을 만져보게 해 주셨읍니다。 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세히 나에게 설명하여 주셨읍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느 불란서 신사 한분이 커다란 청동을 나에게 보여 주었읍니다。 구경은 많이 하였으나 이것처럼 훌륭하게 생긴 것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만져보니깐 그것은 마치 생명 있는 물건처럼 이상스럽게 느꼈읍니다 〃벨〃박사는 우리를 데리고 전기관으로 들어가셔서 역사적인 전화기의 몇개를 보여 주셨읍니다。 〃돔・페드로〃황제가 전화기를 통해서 『존재하느냐、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냐』 하는 말을 들으셨던 전화기를 구경하였읍니다。 〃일리노이〃에서 오신 〃기뎃트〃박사께선 우리를 부녀관과 문예관으로 안내하셨읍니다。 문예관에서는 〃티파니〃의 진열품을 보러 갔읍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티파니〃 금강석을 손에 쥐어 보았읍니다。 그것은 십만불이나 되는 귀중한 것이었읍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귀한 값 있는 물건을 만져 보았읍니다。 나는 〃루드위그〃왕의 안락의자에 앉았읍니다。 〃기뎃트〃박사는 내가 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셨읍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여왕이나 된 것 같았읍니다。 부녀관에서는 로시아의 공주님 〃마리아・샤오

보스코이〃와 아름다운 〃시리아〃의 숙녀를 만났읍니다。 두분 다 좋은 분들이었읍니다。 유명한 강연자인 〃모ー스〃 교수와 함께 일본물건을 진열하여 놓은 곳에 갔읍니다。 그들의 재미 있는 전시품을 보기 전까지는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겨레인지 전연 몰랐읍니다。 그곳에서 그리도 많은 완구를 만드는 것으로 보아 일본이야말로 어린이들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네들의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이상스럽게 보이는 음악 기구 등 모두 재미있었읍니다。 일본 서적은 매우 묘합니다。 그네들의 기본 글자는 모두 마흔 일곱개였읍니다。 〃모ー스〃 교수는 일본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으며, 그는 매우 친절하고 현명하십니다。 다음 기회에 내가 〃보스톤〃에 가게되면 〃살렘〃에 있는 그의 박물관에 찾아오라고 초대하였읍니다。 나의 동무들이 써서 보낸 것처럼, 박람회에서 본 어느 것보다도 고요한 호수를 배타던 일。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물위에 있지 않을 때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내려가고 장미빛 부드러운 햇빛이 〃화이트·씨티〃를 꿈나라 이상으로 황홀하게 장식하였읍니다。……

물론 〃미드웨이·풀레이산스〃를 찾아 갔읍니다。 엇절할 만큼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카이로〃거리로 건너 들어가서 낙타를 탔읍니다。 그것은 재미 있는 놀음이었읍니다。 또 우리는 건너 가는 배도 타고 얼음 위에 철도에도 올라가 보고 기갑 갑판선으로 항해도 했읍니다。………

一八九三년 八월 十七일

펜실바니아·헐톤

一八九三년 봄에 〃터스컴비아〃에서 〃구락부〃가 공립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켈

더"양이 "구락부"의 의장이 되였다。 "켈러"양이 말하기를、

『나는 그 일에 관하여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의 동정을 청하였읍니다。 그래서 잠간 동안에 동정의 말과 더불어 수백권의 서적을 보내 주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좋은 책도 꽤 많았읍니다。 숙녀들은 이런 관대한 원조를 받고 용기를 내어 그 때부터는 책을 수집하고 사러나가기 시작해서 드디어 오늘날과 같은 동리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도서관이 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촬스·E·인취스"여사에게

… 우리는 "터스컴비아"에 있는 집에서 九월을 지냈읍니다。 … 그래서 매우 행복스러웠답니다。 … 박람회를 구경한 결과 매우 피곤하고 흥분한 탓인지 조용한 별장은 특히 매력적이고 편안한 곳이였읍니다。 어느 때보다도 산의 아름다움과 고요한、 고적함을 즐겼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펜실바니아"의 "헐톤"에 와 있읍니다。 이곳에서 금년 겨울은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가정교사와 함께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산수、 "라틴"어、 문학을 공부하고 있읍니다。 공부한다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읍니다。 새로운 것에 관해서 배운다는 것은 확실히 기쁜 일입니다。 매일같이 느끼는 것인데、 나의 지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미약한지 알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영원히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무한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실망할 생각은 없읍니다。 문학에선 "롱펠로우"의 시를 공부합니다。 그의 시의 대부분을 외우고 있읍니다。 제유법(提喩法)에서 은

유법(隱喩法)을 배우기 오래전에 그의 시를 몹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산술이 하기 싫다고 언제나 말했었지만 이제는 달리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사실은 가끔 산수공부하다 정신이 산란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만 그 공부가 얼마나 좋고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산술이 유용하고 좋은 공부이지만 아름다운 시나 재미 있는 이야기만큼 흥미롭지 못합니다。 어머니나、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가는지요。 〃헬렌·켈러〃 공립 도서관에 관하여 물어보신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1、 〃알라바마〃의 〃터스컴비아〃에는 약 삼천명의 인구가 있는데 아마 절반은 흑인입니다。

2、 현재는 동네에는 도서관이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내가 도서관을 하나 세워볼가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나의 친한 여자친구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락부〃를 조직하여 그 목표는 〃터스컴비아〃에선 무료로 봉사하는 도서관의 시설로 확립시키려는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돈으로 五十五딸라나 되는 약 백권의 서적이 있읍니다。 어떤 친절하신 신사 한분이 도서관 건물을 세우라고 땅을 우리에게 기부하였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구락부〃는 동네 중앙에다 조그만 방을 빌렸읍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책은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볼수 있읍니다。

3、 〃보스톤〃에 있는 나에게 친절한 천구 몇사람만이 도서관에 관한 소식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가엾은 〃토미〃를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애썼을 때에 나는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답니

다。 무론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토미"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더욱 중대한 문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4 무슨 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종류의 책을 수집하여 놓은 것 같읍니다。

추신 : 나의 선생님께서 신축 기금(基金)을 기부한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아버지가 내시는 신문 "노—스·알라바미안"지에 기재해서 발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두는 것이 더욱 사무적이 아닐까 하십니다。

一八九三년 十월 二十一일

펜실바니아·헐톤

H·K

"카로린·더어비"양에게

…… "더어비"양에게 보내 주신 아름다운 보호물에 관해서 내 대신 감사의 뜻을 표하여 주십시요。 그것은 "코럼버스"、 "페어·화이트"시의 흥미로운 기념품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상상할 수 없읍니다。 내 말은 새로운 발견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 관해서 아주 무식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선 모두가 발견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여자가 말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왜 내가 발견가인지를 꼭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 전해 주

십시요。……

一八九三년 十二월 二十八일

펜실바니아・헐톤

〃에드워드・E・헤일〃박사께

나의 친애하는 사촌에게：

오래전부터 언제나 기쁘게 해주는 당신의 편지에 답서를 쓰려고 생각도 하였읍니다만 신년 초부터는 이제까지 바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보내주신 아름다운 책은 감사하게 받았읍니다。 〃유一스・컴페니온〃에서 나의 이야기 책을 출판하였는데、그것을 본 사람들은 편지를 많이 보내주었읍니다、전주일에 예순 한통이나 받았읍니다。 이편지에 답장은 고사하고 산수、〃라틴〃어를 가운데서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싶이 〃씨ㅣ사〃는 여전히 거만하고、포악한 〃씨ㅣ사〃입니다。 만약에 어린 소녀가 위대한 사람이나 전쟁 또는 아름다운 〃라틴〃어로 말하는 전쟁의 정복같은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소녀는 많이 공부하고、많이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이 조그만 책을 귀중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책 자체의 가치를 보아서 뿐아니라 당신과의 교우를 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책중 한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즐거움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 책에는 당신의 매력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서 꽉 짱여 있었읍니다。

그렇게도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를 생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펜실바니아・헐톤

一八九四년 一월 十四일

이월에 "헬렌"과 "설리반"선생은 "터스컴비아"로 돌아왔다。 그들은 남은 봄을 독서와 공부로 지냈다。 여름에는 벙어리에게 말을 지도하는 것을 장려하는 미국 연합 문화 강습회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설리반"선생은 "헬렌・켈러"의 교육에 관하여 쓴 신문을 읽었다。 가을에는 "헬렌"과 "설리반" 선생은 "뉴욕"에 있는 "라이트・휴마슨・스쿨"에 입학하였다。 그 학교에서 독순술(讀唇術)과 소리의 훈련을 하였다。 "퍼킨스"학교에서 피아노 연습도 좀 받았다。 실험해 보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었지만 물론 별로 효과는 없었다。

"카로린・더어비"양에게

…학교는 매우 즐겁고、 더욱이나 좋은 일은 아주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작년 겨울에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역사、 영문학과 산수를 공부합니다。 또 일기도 계속해서 쓰고 있읍니다。 노래공부는 "휴마슨"박사와 함께 매우 재미 있게 공부합니다。 앞으로 피아노 연습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의 친절한 선생님들께서는 세계를 밝혀준 "바-솔디"의 커다란 자유의 초상을 보러 "베드로"의 섬으로 여행하자는 즐거운 계획을 세웠읍니다。… 옛날의 대포가 바다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주 위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래되고 녹슬어 있는 그 물건 자체에 잘못이 있을 가는 의아합니다。

자유의 초상이란 희랍 벽화에 있는 여자가 바른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 커다란 모습입니다。… 나선형으로 된 계단이 발디디는 밑 바닥에서부터 횃불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놓여 있읍니다。 우리는 사십명이나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 갔읍니다。 거기서 자유의 초상이 밥낮으로 내려다 보고 있는 광경을 구경하였읍니다。 오! 얼마나 훌륭한 경치이였는지요!

위대한 〃프랑스〃예술가는 그 장소가 자기의 커다란 이상의 집이 될만한 곳이라고 생각한 것을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시월달 햇빛이 내려 쪼여 바다는 고요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읍니다。 선박은 한가한 꿈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였읍니다。 그리고 황금 빛에서 회색 빛으로 변하는 구름처럼 때는 천천이 바다쪽으로 사라졌읍니다。 새들이 어미 둥우리를 찾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배는 점점 빨리 달렸읍니다。……

一八九四년 十월 二十三일

뉴욕·웨스트·스트리―트 七六가 四十二번지

타이트·휴마슨 학ㄱ

〃카로린·더어비〃양에게

… 아직도 빨리 말하고 읽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인 줄 알고 있지만 독순술에 있어서 좀 진보한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가 인내만 한다면 후일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휴마슨〃박사는 아직도 내가 말을 잘 하도록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오! 〃캐리〃、 다른 사람처럼 말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밤낮으로 기꺼이 공부할텐데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나의 친구들이 듣게되면 그들에겐 얼마나 즐거움이 될가 생각해 보십시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리도 쉽게 보이는데 왜 벙어리 어린이들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도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내가 참기만 하면 후일에는 완전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비록 바쁜 생활은 하지만 독서를 많이 할 시간을 냈읍니다。… 요즘에는 〃쉴러〃가 쓴 「윌헬름·텔」을 다 읽었읍니다。 「로스트·뵈스탈」도 읽었읍니다。 : 지금은 〃레씽〃이 쓴 「현자 〃나탄〃」과 〃미스·뮤록〃이 쓴 「킹·아ㅣ더」를 읽고 있읍니다。

당신도 아시다싶이 친절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를 재미나게 할 것만 있으면 모조리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와같은 즐거운 방법으로 지식을 많이 배웠읍니다。 〃죠ㅣ지·와싱톤〃생일날에 우리들은 모두 〃더·쇼ㅣ〃를 구경하러 갔읍니다。 〃메디슨·스퀘어〃가(街)에는 사람들이 들끓고 〃더·오ㅣ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가지 각색의 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고 도무지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인지 들을 수가 없었읍니다마는 그날 오후는 매우 유쾌하였읍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개들속에 〃불덕〃이 있었읍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을 곱다고 만져주면 놀랠만큼 얌전히 몸을 마껴 둡니다。 자기네들의 행동

이 무례한 짓인줄도 모르고 제각기 한사람의 팔에 안기려들며 예의도 없이 키스를 하려고 야단 법석을 하였읍니다。 참으로 개들은 아름답지 못한 짐승이던군요! 그러나 그들은 성질이 온순하고 다정한 편이라 누구나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휴마손〃박사와 선생님과 나는 〃덕·쇼ㅣ〃를 본 뒤 〃메트로폴리탄·클럽〃에서 열린 환영회에 참석하였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을 〃밀리오네어스·클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흰 대리석으로 된 장엄한 건물입니다。 방은 모두 크고 가구가 굉장하게 잘 놓여 있읍니다。 허나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어마어마해서 오히려 압도적인 감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들의 화려한 환경이 온갖 행복을 초래한다는 백만장자를 조금도 부러워 하지 않았읍니다。……

一八九五년 三월 十五일

뉴욕 라이트 휴마손 학교

〃케이트·A·켈러〃여사에게

…… 선생님과 나는 〃헛튼〃씨 댁에서 오후를 즐겁게 지냈읍니다。…… 그 곳에서 〃클레멘스〃씨와 〃하우웰〃씨를 만났읍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그들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이 큰 기쁨이 내것인지 자신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직 열 네살 밖에 안된 소녀가 그렇게도 유명하신 분들과 교제하여도 괜찮을가 의심을 하여 보았읍니다。 그리고 보니 확실히 나는 행운아이며 내가 마음껏 즐기는 이 많은 아름다운 특권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유명한 작가를 두분 알고 있읍니다만 두분 다 참으로 친절하시고, 점잖으신 분이므로 어느분을 가장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군요。 〃클레멘스〃씨는 우리에게 재미나는 얘기를 어떻게 많이 해 주시는지 나중에는 너무 웃어서 울게까지 되었답니다。 어머니께서도 만일 그를 보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가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부인과 그 딸 〃잔〃을 데리러 이삼일 내로 〃구라파〃에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 따님 〃잔〃은 〃프랑스・파리〃에서 삼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이상 공부하면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알 것이라고 합니다。 〃마ㅣ크・트웨인〃이라는 〃펜네임〃은 〃클레멘스〃씨에게는 알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상하고 재미스러운 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쓰는 재미난 이야기책 같이 들리고 또한 그 이름의 해양(海洋)에 관한 연상을 그가 지금까지 쓴 깊고 재미난 것을 암시하는 까닭입니다。 그는 매우 아름다운 것 같읍니다。 선생님 말씀은 그는 〃파라데우스키〃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우웰〃씨는 〃베니스〃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그의 제일 좋아하는 도시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느님과 같이 있을 그의 딸 〃위니프레드〃를 아주 사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밀드레드〃이며, 그는 〃캐리〃를 안다고 합니다。 나는 또 〃위긴〃부인을 만나뵈운 것 같은데 그는 「새의 크리스마스 노래」의 저자입니다。 그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기침을 하므로 올 수가 없읍니다。 그를 만나지 못하여 대단히 실망합니다마는 곧 만나게 되겠지요。 〃헛튼〃씨는 내게 가시같이 생긴 유리구슬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소유물이였답니다。 또 우리가 찾아간 기념품이라구요。 우리

는 "로저스"씨도 만났읍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마차를 두고가서 우리를 집으로 태워가게 하였읍니다。

一八九五년 三월 三十一일

뉴 욕

"라이트·휴마슨"학교가 여름에 닫치었을 때 "설리반"여사와 "헬렌"은 남쪽으로 갔다。

"로렌스·헛튼"여사에게

…… 나는 이 방학 동안을 양친과 나의 사랑하는 어린 동생, 남동생 "필립스"와 더불어 나의 여름 집에서 조용하게 또한 유쾌하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귀중한 선생님도 같이 계십니다 물론 나는 행복스러웁니다 나는 조금 독서하고 조금 산보하고 그리고 어린이들하고 놉니다 시간을 유쾌하게 보내고 있읍니다! ……

나의 친구들은 내가 일년 동안에 말하는 것과 독순술이 대단히 진보되었다고 하면서 일년을 더 "뉴욕"에서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말해 줍니다 나는 "뉴욕"에서 몸편히 지내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도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어서 참으로 유쾌하였읍니다 지난 겨울 동안의 유쾌스러웠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날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헛튼"씨, "릭스"부인 또한 내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마는 "와—너"씨에게 안부를 전하여 주십시요 "베너스워드"를 들으면 "헛튼"씨의 펜이 그의 새로운 책 페이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느

낄 수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꽉 차있으니깐요 그것을 읽게 되면 얼마나 유쾌할는지요
타이프로 적은 편지를 대양을 건너 보내는 것을 용서하시지요 집에 돌아온 후 여러번 나의 글자판에
다 연필로 쓰려 하였으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쓰기가 대단히 어려웠읍니다 손에 땀이 나서 글자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프라이터를 쓰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이것은 나의 〃레밍톤〃이 아니고
헌 조그마한 것인데, 결핏하면 고장이 나고 〃페리오드〃를 적을 수가 없읍니다……

一八九五년 六월 二十九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윌리암·도우〃부인에게

우리는 또다시 이 대도시에 왔읍니다! 우리는 〃헐톤〃을 금요일 밤에 떠나서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였읍니다。 우리를 二월 말에나 만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대단히 놀랬읍니다。 일요일 오후는 피곤하여 쉬고, 나중에 학교 동창들을 방문하였읍니다。 지금은 피곤이 풀리어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안전하게 〃뉴욕〃에 도착한 것을 알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에서 기차를 가라 탈 때에도 괴롭지는 않았읍니다。 우리가 조반을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차장보고 〃뉴욕〃가는 차가 준비되였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한 십오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중 차장이 돌아와서 곧 차에 타겠느냐고 하기에 선생님

은 그리 하겠다고 대답하셨읍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철도선으로 인도하여 기차에다 태워주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덤비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며、 또한 고요하게 다녀도 볼수 있었읍니다。 차장의 친절이 고마웠읍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가 가는 길에 조그마하나마 친절하게 대해주려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 덕택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유쾌하게 여행을 합니다。……

우리는 〃헐톤〃에서 한적했으나 유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읍니다。 〃웨이드〃씨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사랑스러웠읍니다。 최근 그는 나를 위하여 여러책을 영국에서 인쇄하여 주셨읍니다。 「죽은 사람」、「〃오트란토〃의 성」、「〃노・랜드〃의 임금」 등입니다。……

一八九五년 十월 十六일

뉴 욕

〃카로린・더어비〃양에게

… 선생님과 나는 최근에 매우 유쾌하였읍니다。 우리는 친절한 친구들 〃돗지〃부인、 〃헛튼〃부처、 〃릭스〃부인과 그 남편、 또한 여러 유명한 사람들 그 중에는 〃엘렌・테리〃양、 〃헨리・어ー빙〃경、 〃스톡톤〃씨 등을 만났읍니다。 우리는 다행이였지요。 〃테리〃양은 매우 아름다웠읍니다。 그는 선생님께 키스를 하고 말하기를『나는 당신을 만나서 기쁜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어린 여자를 위하여 그와 같이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내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읍니다。 우리는 또한 〃테리〃부처、 그리고 〃테리〃양의 오빠와 그의 아내도 만났읍니

다。 나는 그가 천사와 같이 어여쁜줄로 생각하였으며、 또한 목소리도 구슬 같이 아름답고 맑았읍니다。 우리는 〃테리〃양과 〃헨리〃경을 지난 금요일에 〃촬스왕 일세〃를 상연할 때 만났으며、 극이 끝난 다음에 그배우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만지게 하였읍니다。 그 임금이 매우 불행하였을 때 얼마나 당당하고 고상한 풍채를 하고 계셨는지요。 또한 그 왕후는 얼마나 예쁘며、 충실하였는지요。 그 극은 참으로 사실인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러한 장면이 오래전에 실지로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 같았읍니다。 최후의 막은 우리를 가장 깊이 감동시켰읍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형 집행자가 그의 사랑하는 부인의 품에서 그를 어찌 그와 같이도 무자비하게 떼어 버리는 장면을 구경하고 울었읍니다。

나는 마침 「아이반호」를 읽었읍니다。 이 책은 매우 흥분하는 책이었으나 사실을 말하자면 별로 좋아는 아니 하였읍니다。 예쁜 〃리벡카〃는 그의 강하고 용감한 정신과 순결하고 관대한 성질을 가졌으므로 그만이 나의 존경을 갖게 되었읍니다。 나는 지금 「〃스코트란드〃역사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대단히 흥분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여줍니다! ……

一八九五년 十二월 二十九일

뉴 욕

다음 두 편지는 〃쫀・P・스폴딩〃씨가 작고한 직후에 쓴 것이다。

〃죠ー지・H・브라드포ー드〃부인에게

우리가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친절한 사람을 처음으로 만난 방에 놓는 기념품을 보내신 당신의 깊은 동정과 친절하심을 선생님과 내가 어찌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위안의 정도는 결코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볼수 있는 우리 방 벽로(壁爐) 〃만틀피ㅡ스〃위에다 놓았읍니다。 또한 나는 가끔 손으로 만져봅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읍니다。 별 일이 없었다는 것 모양으로 학교 일을 다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는 의무가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라도 우리의 슬픔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一八九六년 二월 四일　　　　뉴 욕

〃카로린·더어비〃양에게

… 우리는 대단히 〃킹·쫀〃이 보고 싶읍니다。 그를 잃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읍니다。 그는 우리의 제일 좋고 친절한 친구였읍니다。 그가 없이 우리가 어찌 지낼지 모르겠읍니다。 ……

우리는 가금(家禽) 전람회에 갔읍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친절하게도 그 새들을 만져 보게 하였읍니다。 그 새들은 매우 길이 들어서 내가 만져도 가만이 있었읍니다。 나는 칠면조、거위、기러기、오리、기타 여러 새들을 보았읍니다。

두주일 전에 우리는 〃헛튼〃씨 댁에 가서 잘 놀았읍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놉니다。 우리는 작가

〃와ㅣ너〃씨、「아우트·룩」지 편집자 〃메이비〃씨、또한 다른 유쾌한 사람들을 만났읍니다。 확실히 당신은 〃헛튼〃씨 부처를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량하고 재미난 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쾌하게 하였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 뒤 며칠 되어서 〃와ㅣ너〃씨와 〃버러〃씨가 우리를 방문하여 우리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그들은 참으로 사랑스러웠읍니다。 〃버러〃씨는 〃허드슨〃강 가까이 있는 그의 아름다운 집 이야기를 하셨는데、그 분 말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언제 한번 방문할가 합니다。 선생님은 그의 어렸을 때의 생생한 이야기를 읽어 주시였는데、참 재미가 있었읍니다。 그의 아름다운 시 「기다린다」를 읽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시가 나를 행복하게 하여 줍니다。 그것은 또 아름다운 생각들로 차 있읍니다。 〃와ㅣ너〃씨는 나에게 〃스카ㅣ프〃핀을 보여주였는데、그 핀에는 각종의 벌레가 있었읍니다。 씨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기원전 一천五백년에 〃에집트〃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에집트〃사람들의 불사(不死)를 의미하였다 합니다。 또 껍질속에 들어가 자면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一八九六년 三월 二일

뉴욕

〃카로린·더어비〃양에게

…나의 학업은 내가 당신을 뵈었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것은 한주일에 세번 〃프랑스〃사람

이 와서 불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순전히 그의 입술을 읽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손 알파벳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배워집니다。 나는 Le médecin Malgré Lui를 매우 재미 있게 읽었는데 그것은 "몰리에르"의 희극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불어를 상당히 잘 한다고 합니다。 또 독일어도 그렇다구요。 하여튼 "프랑스"와 "독일"사람들은 내가 말하려는 것을 알아 들으니 그만큼 용기가 납니다。 나의 음성 훈련은 여전히 예전에 받은 곤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나의 욕망이 도달될 날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까마득한 일인가요。 때로는 내가 노력하는 목표가 붓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읍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걸어가는 도중에 길이 구부러져서 목표가 가릴 때도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캄캄한 곳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용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상을 결국은 찾겠지요。……

一八九六년 四월 二十五일

뉴욕

"쫀·힛쓰"씨에게

… 책에 대하여 말하자면 나의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손가락의 마술로 말미암아 「불사의 샘」에 들어간 두 언니와 사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책)을 더욱 즐겨할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내가 창옆에 앉아서 당신에게 편지를 쓸 때 보드럽고 시원한 산들 바람이 나의 뺨을 부채질 하고 또

한 작년의 어려운 공부가 지나갔다고 느끼게 되니 참으로 기분이 유쾌합니다。 선생님도 이와 같이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 은전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벌써 이전의 사람스러운 몸에 돌아간 것 같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완성하자면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홉킨스" 부인은 당신이 모조록 속히 오셔야 하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편안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생님과 나는 아호래 동안을 "필라델피아"에서 지냈읍니다。 당신은 "크라우터" 박사의 학원에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우스"씨께서 우리가 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시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빴읍니다。 우리는 회에 참석하였으며、 또한 수백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중에는 우리의 경애하는 "벨"박사、 "칼캇타"의 "바너지"씨、 내가 불어로만 이야기한 "파리"의 "마그나"씨、 그 외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곳에서 만나뵐 줄로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실망하였읍니다。 우리는 당신을 진실로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당신을 동정합니다。 당신은 이 변변치 아니한 편지가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스러운지를 아시고 계실겝니다。 나는 그 연합회 회원들의 말이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었으며、 나는 모든 작은 귀먹은 어린이들에게 말을 배울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라는 연설을 七월 八일에 하였읍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잘 또한 이지적인 연설을 하였다고 말하였읍니다。 연설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환영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는 六백여명의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나는 사실 그러한 환영회를 좋아하지 안는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것

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는 이야기를 그렇게도 많이 하지 않으면 안되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우리가 뒤에 사랑하게 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필라델피아〃에서 한 환영회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시를 목요일 밤에 떠나서 금요일 오후에 〃브르스터〃에 도착하였읍니다。 우리는 금요일 아침에 〃케이프·코드〃에 가는 차를 놓쳐서 기선 〃롱펠로〃로 〃프로빈스타운〃에 왔읍니다。 우리는 그와같이 한 것을 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는 아름답고 시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스톤〃항구는 언제나 재미있읍니다。

우리는 〃뉴욕〃을 떠난 뒤에 〃보스톤〃에서 약 삼주일을 지냈읍니다。 얼마나 유쾌하였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시골 〃렌담〃의 집으로 우리의 친구 〃참벌렌〃부처를 방문하였읍니다。 그의 집은 〃뽀—트〃를 타고 〃카누—〃를 탄 아름다운 호수 가까이 있읍니다。 그 놀이는 참 재미있었읍니다。 〃참벌렌〃 부처는 그 문예 친구들과 픽닉을 함으로써 七월 十七일을 축하하였읍니다。 한 四十명이 출석하였는데 그들은 전부가 작가나 출판가이었읍니다。 우리의 친구 〃하—퍼스〃의 편집자 〃알든〃씨도 거기 있었으며、 우리는 그의 교분(交分)을 매우 즐거었읍니다。……

一八九六년 六월 十五일

마자츄셋스·브르스터

〃촬스·D·와—너〃씨에게

…한 여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당신에게 써 보내려고 합니다。 또 당신에게 전할 말이 태산같읍니다。 또한 우리가 해변 가에서 방학을 지내는 것을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내년의 우리 계획을 들으셔도 또한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되고 한가한 세월은 언제나 속히 가는 것이며、항상 유쾌한 일을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의 생각을 말로 엮어 당신에게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잊어버린 기회는 어찌되는 것일가요? 아마도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우리가 떨어뜨리는 기회들을 주어 두었다가 우리가 더 슬가스럽게 되어 더 옳게 쓸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돌려주는 것일까요? 그러나 지금은 당신에게 그래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 편지로 쓸 수 없읍니다。 여름이 가져온 행복을 말하기에는 나의 가슴에는 너무도 큰 슬픔이 차있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읍니다。 그는 지난 토요일 〃터스컴비아〃에 있는 나의 집에서 돌아가셨읍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있었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오 귀여운 친구여! 어찌하면 좋겠읍니까! ……

一八九六년 九월 三일

마사츄셋스·브르스터

十월 一일에 〃켈러〃양은 〃켐브리지〃여학교에 입학했는데 당시 그 학교의 교장은 〃아ㅣ더·길만〃이였다。 이 다음 편지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친 것이였다。 그러나 그 시험은 예전 〃하바드〃의 시험지였으므로 어떠한 과목에 있어서는 〃켈러〃양이 〃래드클리프〃대학에 들어갈 준비

가 이미 되어 있던 것이 분명하다.

"로렌스·헛튼" 부인에게

… 오늘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몇줄을 씁니다. 내가 새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시고 싶을 것입니다마는 당신 자신이 오시어서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학생들은 한 백명 되는데 그들은 다 명랑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입니다.

내가 시험에 잘 통과되었다는 것을 들으시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영어, 독일어, 불어, 희랍, "로마"사의 시험을 치렀읍니다. 그것은 "하바드"대학에 대한 입학시험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학교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읍니다. 금년은 나와 선생님에 대하여 매우 바쁜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수학, 영문학, 영국역사, 독일어, "라틴"어, 고급 기하학을 공부중입니다. 또한 예습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데 점자로 인쇄된 책들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전부 나에게 철자를 하여야 하니 그것은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우엘"씨를 만나시거든 우리는 그의 집에 살고 있다고 전하여 주시요.……

一八九六년 十월 八일

마사츄셋스·캠브리지·컨코―드 三七

〃윌리암・도우〃부인에게

…예습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모든 것을 나의 손에다 철자로 써야 하니까요。 내가 써야 할 교과서중 하나도 점자로 인쇄한 것이 없읍니다。 물론 내가 혼자 읽어서 예습하는 것보다는 공부가 대단히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에게 보다도 선생님이 더 힘드셔서 어려웁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눈에 대하여 대단히 긴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의 눈에 대하여 근심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가 시작한 일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것 이상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는 나의 공부를 말로 발표할 수 있는 이상으로 즐겨합니다。

다른 여자들 하고 같이 있는 것이 매우 재미 있으며、 또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하는것이 역시 좋읍니다。 나는 〃라틴〃어、 독일어、 수학、 영국역사를 공부하는데 수학 이외는 다 재미있읍니다。 나는 수학재주가 없는 모양이지요。 왜냐하면 나의 손가락은 언제나 잘못된데로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一八九六년 十二월 二일

마사츄셋스・캠브리지・컨코―드 三七

〃로렌스・헛튼〃부인에게

… 아시다싶이 六월에 있는 시험때문에 복습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규의 학교 공부와 합하면 나를 대단히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쫀손〃과 성가신 사람들은 오늘 오후까지 좀 기다려야 합

니다。 경애하는 "헛튼" 부인이여! ……

우리는 연출자 구락부에서 대단히 잘 놀았읍니다。 나는 언제나 구락부는 무미건조하고 담배 연기나 꽉 차고 정치이야기、끝 없는 잡담、또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자기들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알았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一八九七년 五월 三일

마사츄셋스・캠브리지

"쫀・힛쓰" 씨에게

… 선생님과 나는 금년 여름을 우리의 친구들 "참벌렌" 가족들과 더불어 "마사츄셋스・렌담" 에서 보내려 합니다。 아마 당신도 「보스톤・트란스크립트」지의 "리슨너" 라는 펜・네임을 쓰는 "참벌렌" 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존경할만 하고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

나의 시험에 대하여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시험들을 전부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것을 들으시면 기쁘실 것입니다。 내가 제안한 제목은 초급과 고급 독일어、불어、"라틴" 어、영어、희랍어 및 "로마" 역사이었읍니다。 너무도 좋아서 사실인가 하는 생각까지 납니다。 이 큰 시련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에 손으로는 늘 떨어지면 어찌하나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한 것을 잘 통과하였으니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성공의 절정은 나의 승리가 나의 선생님에게 가져 온 행복과

유쾌감입니다。 사실 나는 나의 성공은 나의 것보다는 선생님의 것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끊임없는 영감(靈感)이었기 때문입니다。 ……

一八九七년 七월 九일

마사츄셋스・렌담

九월 말일에 〃설리반〃여사와 〃켈러〃양은 〃켐브리지〃학교에 돌아가서 十二월 초순까지 그곳에 머물렀였다。 그러다가 〃길만〃의 간섭으로 말미암마 〃설리반〃부인은 〃켈러〃와 그의 동생 〃밀드레드〃를 그 학교에서 퇴학하게 하였다。 〃설리반〃여사와 그의 제자는 〃렌담〃으로 갔다。 그곳에서 열심이고 유능한 교원 〃머ー튼・S・케이드〃씨 밑에서 공부를 하였다。

〃로렌스・헛톤〃부인에게

…당신이 떠나신 뒤에 곧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읍니다。 그리고 일개월 전의 무서운 경험은 꿈이나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또다시 유쾌하게 공부를 하였읍니다。 시골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읍니다。 시골은 신선하고 평화스럽고 또한 자유스럽습니다。

나를 공부하게 내버려 둔다하면 종일이라도 피곤한 것을 잊고 공부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늘 많지는 않지마는 언제나 유쾌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대수、기하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는 그것들이 다

좋으며、 특히 희랍어가 좋읍니다。 오라지않아 나는 문법을 끝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리아드」를 공부하게 됩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과 「아킬레스」、「율리씨스」、「안드로마케」、「아테네」를 그들의 원문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유쾌하겠읍니까? 내가 아는 범위로는 희랍말이 제일 아름다운 말입니다。 바이올린이 악기 중에 제일 좋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면 희랍말은 인간 사상의 바이올린입니다。

우리는 이 달에 훌륭한 "아메리카·인디안"의 차 "로보간"을 가지고 놀았읍니다。 매일 아침 공부 시간 전에 우리는 전부 집 근처 호수 북쪽 호반에 있는 강팔은 동산으로 나갑니다。 그리하여 한시간쯤 놉니다。 누가 "로보간"을 산 꼭대기에서 붓들면 우리는 올라가서 준비가 되면 산밑을 향하여 돌진을 합니다。 그러면 넓은 곳을 뛰어 넘고、 눈이 모인 곳으로 들어가며 또한 굉장한 속도로 물을 거치어서 연못 저편으로 훨씬 지나갑니다。……

一八九八년 二월 二十일

렌담

"로렌스·헛튼"부인에게

…"케이트"씨가 나의 진보를 기뻐하시어 참 좋았읍니다。 대수와 기하가 점점 쉬어지며、 특히 대수가 그러합니다。 나의 공부를 훨씬 쉽게 하여준 점자로 적은 책들을 마침 받은 중입니다。

나는 더 빨리 진보하며、 "캠브리지"학교에서보다 "케이드"씨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또한 전의 그러한 종류의 공부를 중지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게을리 굴지를 않았읍니다。 나는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곳에서보다 더 행복스럽습니다。……

一八九八년 四월 十二일

렌 답

〃로렌스・헛튼〃부인에게

…나의 학업은 용감하게 진전합니다。 매일 어려운 공부로 꽉 차있읍니다。 그것은 여름 방학동안 책을 놓기 전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성과를 거두려고 열중한 때문입니다。 어제 나는 아무 도움 없이 기하문제를 셋이나 풀었다는 것을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케이드〃씨와 선생님은 나의 성취에 대하여 대단히 열심이시며、 나도 또한 의기가 양양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읍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저변에서 중심점으로 건 두 선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찌하여 그와같이 중대한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지금 수학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며、 더 선량하게 하는 것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말을 배우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라 할 수 없는 보고에 대한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一八九八년 五월 二十九일

〃활스·D·와—너〃씨에게

내가 어떠한 종류의 다른 물건을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당신의 편지에 회답은 고사하고, 일주일이나 지나갔으니 아마 당신은 내가 이인승 자전차에 대하여 그리 열심이 없다고 결론하시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뉴욕〃서부터 돌아온 이후 공부에 너무도 바빠서, 자전차의 재미에 관하여서는 생각조차 못했읍니다。 긴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조록 많이 성취하려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책을 치울 때가 거의 왔다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 하면 태양빛 꽃 또한 우리집 앞에 있는 사랑스러운 호수가 최선을 다하여 희랍어와 수학 특히 후자를 손 떼라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꽃들이 기하의 원리를 아름답게 설명하는 것이나, 노국화, 〃빠터컵〃같은 꽃들은 기하학에 대하여는 별 소용이 없읍니다。

아차! 이인승 자전차 이야기를 잊어서는 아니되겠구면요。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자전차에 대하여서는 아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나는 〃소시어블〃이라는 자전차 밖에는 타본 일이 없는데, 그것은 이인승 자전차보다는 대단히 다른 것이며, 대단히 무거우며 모양도 볼상이 없고 또한 길을 너무 많이 점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그 차는 값이 다른 자전차보다는 비싸다 합니다。 나의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은 내가 〃콜럼비아〃 이인승 자전차를 시골길에서는 완전히 안전하게 탈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께서 제안하신 〃핸들〃막대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둘로 갈라진 치마를 입고 자전차를 탑니다。 또한 선생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나보다는 남자용 자전차를 타시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십니다。 그런고로 뒤에다 여자 좌석을 만들 수가 있으면 남자용이 좋겠읍니다」……

一八九八년 六월 七일

마자츄셋스・렌담

〃카로린・더어비〃양에게

…나는 늘 밖으로 나가서 배를 젓고 수영과 말도 타며 그 이외 여러가지 유쾌한 것을 하고 놉니다。 오늘은 자전차를 타고 十二마일이나 다녔읍니다。 험한 길을 타기 때문에 세번 떨어져서 지금은 상당히 다리를 절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일기는 화창하고 경치는 아름다웠으며、더 평평한 길을 가는 것은 대단히 재미가 있었으므로 약간 다친대야 상관 없었읍니다。

나는 정말로 수영을 배웠고、말하자면 한종류의 〃다이빙〃까지도 배웠읍니다。 나는 물속에서도 헤엄을 칠 수 있으며、빠질 염려가 없어 별 것을 다 할 수가 있읍니다。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호수로 배를 저어 다니는 것은 내게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힘이 세어지고 갈색이 되었는지를 쉽사리 짐작하실 것입니다。……

〃로렌스・헛튼〃 부인에게

우리가 지난 월요일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당신에게 쓰게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보스톤〃으로 오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는 눈코 뜰새가 없었읍니다。 우리는 결코 안정할 수 없을 것같이 생각이 되였었읍니다。 선생님은 이사하는 사람들、 또는 급행차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밖에 없어서 도무지 손이 비지 아니하였읍니다。 우리는 가끔 이사할 수 밖에 없으니 이사하는 것이 그와같이 귀찮지 않았으면 합니다。……

…〃케이드〃씨는 일요일을 빼놓고는 언제든지 오후 세시에 옵니다。 그는 요새 여기오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합니다。 기하와 대수를 좀 공부하는 외에 「일리아드」、「에너이드」、「키케로」를 읽고 있읍니다。 「일리아드」는 우아하며、 또한 어린이 같은 단순성이 있으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에너이드」는 더 위엄이 있고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에너이드〃는 늘 궁전에서 살며、 웅장한 궁에 싸여 있는 아름다운 처녀와 같읍니다。 그런데 〃일리아드〃는 전 지구를 그의 노는 마당으로 하는 훌륭한 청년같읍니다。

전 일주일간 기후는 대단히 음산하였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후가 맑았으며、 우리방의 마루에는 햇볕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차차로 우리는 공립 공원에서 산보를 조금씩 하였읍니다。 〃렌담〃삼림이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아니하니 공원에서 산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지요。 큰 평야와 초원 또한 촌의 높은 소나무 삼림을 지나고 보니 공원은 어딘지 막힌 것같으며、 또한 인습적인 것 같았읍니다。 나무들까지도 도시화한 것 같으며、 또한 자의식하는 것 같읍니다。 사실 그 나무들이 촌에 있는 그 사촌들 하고 이야기하는 친한 사이에 있나가 의심이 됩니다。이 나무들은 유행하는 풍채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에게 대하여 불상한 생각까지를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 나무들은 그들이 매일 보는 사람들、 즉 시골의 조용한 것과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사람이 많고 떠드는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읍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주위 때문에 제한되었나 까지도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큰 세계를 보지못한」 시골사람들을 불상한 생각으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제한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삼림속으로 평야로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넌센스를 쓰고 있지요。 나는 내가 〃렌담〃이 보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로는 사실이고 동시에 다른 의미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나는 〃래드〃 농장과 그곳에 있는 귀여운 사람들이 몹시 보고 싶읍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나로서는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책이 있고 또한 확실히 이 큰 도시에서 무슨 아름답고 좋은 것이 오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이 큰 도시에서는 인간들이 이 잔인한 환경에서 행복을 짜 내려고 용감하게 분투를 합니다。 하여튼 명랑하든지 슬프든지를 막론하고 이 인생에 내가 참례하고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입니다。……

一八九八년 十월 二十三일

〃월리암·도우〃부인에게

여학생들의 작난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과 나는 유쾌하게 웃었읍니다。 그들이 조마사(調馬師)의 몸차림으로 사나운 말을 잘 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읍니까? 내가 전에 본 일이 있는 말이었다면 〃스림〃은 그것에 대하여 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얼마나 재미나게 놀았을 것일까? 때로는 다른 여학생들이 가지는 재미를 나도 맛보았으면 하고 원하는 때도 있읍니다。 힘 있는 용사들, 머리가 흰 성현들, 몹시 변한 영웅들, 그들은 지금 거의 유일한 친구들인데, 이러한 그들은 얼마나 빨리 감금하고 다른 여자들과 같이 나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놀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쓸데 없는 것을 바라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읍니다。 결국 나의 고대의 친구들은 현명하고 재미있읍니다。 또한 사실 나는 대개 그들과 같이 재미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불만을 느끼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시는 바나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은 대체로는 행복에 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가까이 계시고 진실로 나의 생애를 풍부하게 하며, 나의 모든 불구한 것을, 또한 나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며, 아름답게 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나의 모든 불구한 것을 내가 향락하는 무수한 복에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一八九八년 十二월 六일

보스톤

〃윌리암·도우〃부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컵이 비어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고 나의 행복의 컵만 가득 채워야 하겠다고 요구했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이 있는 여자이였던 가를 지금이야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 것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 충심으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어린이 같은 환상의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만 하며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만큼 이 세상에는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비단 잠시 동안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행복의 몫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가련하고 조그마한 〃올리버·트위스트〃모양으로 더 많이를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아파집니다。……

一八九八년 十二월 十九일

보스톤·뉴베리 十二

〃로렌스·헛튼〃부인에게

⋮ 〃케이트〃씨께서 매일 뉴-스를 당신에게 보내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며는 당신께서

는 내가 "하바드" 시험에 필요한 기하와 대수를 거의 다 끝마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두 과목을 자세히 복습하겠읍니다。 내가 지금은 수학을 좋아한다는 것을 들으시면 반가우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길고 복잡한 이차 방정식을 마음 가운데서 매우 쉽게 해결하며、 또한 그것은 대단히 재미가 있읍니다。 "케이드" 씨는 훌륭한 교사이며、 나로 하여금 수학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다음으로는 누구보다도 그가 나의 마음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넓게 하여 주셨읍니다。

一八九八년 十二월 二十二일

보스톤·뉴베리 十二

"로렌스·헛톤" 부인에게

… 당신은 "깊풀링"의 「참된 꿈」 혹은 「"키츤너"의 학교」를 읽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인상 깊은 시이며、 나를 또한 꿈꾸게 합니다。 물론 당신은 영국 사람들이 "카투훔음"에 세우려 하는 "고—돈" 기념대학에 대하여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 애급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국 자체에서도 올 복을 생각하고 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나라도 "메인"에 있는 용감한 아들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대신에 "큐바" 사람들의 복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강력한 욕망이 나의 가슴 가운데 들어 옵니다。 "하바나" 대학을 세운다 하며는 모든 관계되는 사람에 대하여 무한한 복의 근원

이 될 뿐 아니라, "메인"의 용감한 사람들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오래 지속하는 기념탑이 되지 않겠읍니까? "하바나" 항구에 들어가자 "메인"배가 그 무서운 밤에 정박을 하였고, 그렇게도 이상하게 파괴가 된 부두를 상상해 보십시요! 그 장소를 내려보는 훌륭한 건물이 "아메리카"사람들이 세우고 그 목적은 "큐바"사람들과 "스페인"사람들을 교육하려는 "메인"기념 대학이라고만 한다고 하면 어떠할 것입니까? 그러한 기념탑은 기독교 국가에 가장 선량하고 가장 고귀한 생각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승리가 되겠읍니까? 그것은 미움과 복수의 암시도 없고 또한 힘은 옳다는 낡은 신념에 자취도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전쟁의 선언을 지키려 하며, 또한 스스로 다스려온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즉시로 "큐바"를 "큐바"사람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세계에 서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一八九九년 정월 十七일

보스톤·뉴베리 十二

"쫀·힛쯔"씨에게

나는 지난 월요일에 매우 재미 있는 경험을 하였읍니다。 어떠한 친절한 친구가 아침에 나를 "보스톤"예술 박물관에 데리고 갔읍니다。 그 여자는 미리 박물관 감독 "로ㅡ링"장군에게 내가 초상들, 특히 「일리아드」와 「에니이드」에 나오는 나의 고대의 친구들을 표현하는 초상들을 손으로 만져보는 허

락을 얻어 놓았읍니다。 참 친절한 일이었지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 〃로—링〃장군 자신이 들어오서 서 가장 아름다운 초상 몇가지를 만지게 하였읍니다。 그 중에는 〃메듸치〃의 〃비너스〃、〃파—테논〃의 〃미너—버〃、 사냥옷을 입고 한 손은 화살통에 대고 숫사슴을 옆에 데리고 있는 〃디아나〃、 두 큰 구렁이가 무섭게도 그를 감아서 고민을 하고、 가슴이 터지라고 웨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는 〃라오코온〃과 그의 작은 두 아이들이 있는데를 만져 보았읍니다。 나는 또한 〃아폴로・벨비데레〃를 보았읍니다。 그는 마침 〃파이톤〃을 죽였고、 큰 바위의 기둥옆에 서 있었으며、 또한 무서운 구렁이를 죽이고 승리하여 그의 점잖은 팔을 펼치고 있었읍니다。 오! 그는 참 아름다웠읍니다。 〃비너스〃는 나를 황홀하게 하였읍니다。 그는 마치 바닷물 거품속에서 일어나온 것 같았으며、 그의 아름다운 것은 천국에서 연주되는 음악의 곡조같았읍니다。 또 잔인한 여신에게 그의 최후의 사랑스러운 어린이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어머니、 가슴으로 기어 올라가는 〃니오베〃도 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 광경은 현실적이고 비극적이어서 나는 울었읍니다。 〃로—링〃장군은 친절하게도 〃플로렌스〃사원의 그 훌륭한 청동으로 만든 화려한 문을 보여주시어서 나는 사나운 사자등에 얹혀 있는 우아한 기둥을 만져보았읍니다。 내가 장차 〃플로렌스〃를 방문할 것을 예기하였으나、 미리 그 훌륭한 일부분을 감상한 셈입니다。 나의 친구는 〃얼진〃경이 〃파테논〃에서 가져온 대리석 구슬의 모조품을 보여 주겠다고 합니다。 웬일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하느님에게 보내는 찬사로 뿐 아니라 희랍의 영광의 기념으로서 〃게베우스〃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던 곳에서 원작품을 보고싶어졌읍니다。 그러한 것들

이 소속하는 과거의 성스러운 장소에서 또 성결한 것들을 꺼내오는 것이 사실상 잘못인 것 같이도 생각이 됩니다。……

一八九九년 二월 三일

보스톤・뉴베리 一一

〃윌리암・웨이드〃씨에게

〃에크로그〃가족이 도착한 이튿날 당신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 편지를 받아 보시였는지요? 여하간 나를 위하여 그와 같이 수고를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국의 책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 오는 중이라는 것을 들으시면 기쁘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에니이드〃의 제七판의 책과 「일리아드」를 가지고 있읍니다。 전부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점자로 쓴 교과서의 과정을 거의 끝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장님 노인들을 위하여 많은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을 들으니 매우 유쾌합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친절심이 고동되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얼마전까지도 장님 노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증명이 서자・친절하고 동정심이 강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을 도우려고 일어섰읍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그 불상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많은 노인들이 인생의 미와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은 언제

나 감금당한 영혼을 찾아 자유와 이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쓰는 알파벳트에 관하여는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화법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것은 그 글자들의 대부분은 책에 있는 대정자 같이 보이는 까닭입니다。 장님 노인들에게 가르치는 스펠은 수화법이 훨씬 편리하며 또한 더 확실합니다。

一八九九년 二월 十九일

보스톤

"로렌스·헛튼" 부인에게

…六월에 치를 시험의 준비가 잘 될 확신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나의 마음의 하늘에는 한조각의 구름이 떠 있읍니다。 그것은 나의 평생에 던지는 그림자이며、 나를 가끔 근심하게 하여줍니다。 선생님의 눈은 더 이렇다하게 완치되지 않읍니다。 선생님은 용감하시고 인내성 있으시고 따라서 실망은 아니하실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오히려 더 나빠져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시력을 희생시킨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쓰라린 일입니다。 나는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의당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 할지라도 나를 행복되게는 못할 것입니다。 "헛튼" 부인이시여! 당신께서 선생님께 권고하시어 좀 쉬게 하시고、 그리고 눈을 치료하게 하도록 하여주십시요。 나는 사진을 찍었읍니다。 잘되고 또한 좋다고 하시

면 "로저스" 씨에게 하나 보내드리겠읍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하시는 것에 내가 깊이 감사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낼 수가 없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ㅡ젠트" 그림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훌륭한 초상화의 전람회랍니다。 내가 눈이 있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요! 그러나 그러한 그림을 보는 모든 황홀경에서 절연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나의 친구들의 눈을 통하여 그림들을 볼 수 있읍니다。 그것은 참된 한가지의 쾌락입니다。 나의 친구들이 수집하여 나의 손에 쥐어주는 미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기풀림" 씨가 돌아가시지 안을 것을 우리는 전부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는 점자로 쓴 그의「쟝글·뿍」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훌륭하고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책인지요。 나는 그 천혜(天惠)를 받은 저자를 아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의 성격은 얼마나 진실하며、 남자다우며、 사랑스러울가요。……

一八九九년 三월 五일

보스톤·뉴베리 一二

"데이비드·H·그리어" 박사에게

…낮은 내가 달성할 것을 가져오고、 밤은 안식과 이전 어떠한 때보다도 나의 목적에 조금이라도 더 가

까이 왔다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읍니다。 나의 희랍어는 잘 진행되고 있읍니다。 〃일리아드〃의 제九권을 마치고、 〃오데시〃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또 〃에니이드〃와 〃에크로그〃도 읽는 중입니다。 나의 친구들 중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라틴〃어와 희랍어에 그와 같이 시간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호—머〃와 〃버—질〃이 나에게 어떠한 세계를 전개시키나를 알게 되면 그들은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데시〃를 무엇보다도 좋아할 것 같읍니다。 〃일리아드〃는 전쟁을 빼놓고는 거의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창이 서로 부딪치며、 싸움의 소리가 실증이 날 때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데시〃는 더 고상한 용기 즉 피곤하나 목적을 향하여서는 쉬지않는 영혼의 용기입니다。 나는 이러한 훌륭한 시들을 읽을 때에 〃호—머〃의 전쟁노래가 희랍사람들을 용맹으로 불을 질렀는데 어찌하여 그의 남성적인 노래가 그 국민들의 정신 생활에 더 강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러한 것 같읍니다。 진실로 위대한 사상이라 하는 것은 인간 심리에 뿌린 씨와 같은 것으로 때로는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고 놓여 있으며、 혹은 장난감이나 마찬가지로 까불리고 희롱되다가 고통과 경험을 통하여 슬기스럽게 자란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발전하여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세상은 하늘을 향하여 일보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열심으로 공부하는 중입니다。 나는 七월에 시험을 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련을 받기에 준비가 되자면 할일이 태산같읍니다。 어머니、 동생 또 나의 남동생이 이번 여름방학을 나와 같

이 지내기 위하여 북쪽으로 온다는 말을 들으시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렌담"의 호수 가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 살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선생님은 대단히 필요한 휴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十二년동안 쉬지 못하였읍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동안 선생님은 늘 나의 생명의 태양빛이였읍니다。 지금 그의 눈은 그를 대단히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당분간 마땅히 모든 근심 걱정 책임을 가지지 않게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는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매일 우리는 서로 만나겠지요。 그리고 七월이 오면 당신께서 내게 주신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어린 사람들을 태우고 사랑스러운 호수를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여 보십사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여자이지요。……

一八九九년 五월 八일

보스톤。뉴베리 一二

"로렌스·헛튼"부인에게

우리는 매우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읍니다。 "케이트"씨는 오늘 오후 세시간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빈약하고 어리둥절한 내 머리에다 "라틴"어와 희랍어를 연달아 퍼부셨읍니다。 나는 그가 "라틴"어와 희랍어의 문법을 "키케로"나 "호-머"가 이전에 꿈꾸었던 것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

읍니다。 〃키케로〃는 광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저술은 번역하기 매우 곤난합니다。 내가 이〃키케로〃의 웅변을 우습고도 흥미가 없는 말로 고쳤을 때에 나는 이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개의 여학생이 이와 같은 천재의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읍니까? 참말로 〃키케로〃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一八九九년 五월 二十八일

보스톤에서

〃러니·헤규우드〃는 〃윌리암·웨이드〃씨가 돌보아주고 있는 많은 귀머거리이며、 눈먼 소녀들 중의 한 아이다。 그는 지금 〃도라·도날드〃양의 교육을 받고 있다。 〃도라〃양은 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할 때에 〃뽈타·뷰로오〃의 관리자인 〃힛쓰〃씨로부터 〃설리반〃양의 〃헬렌〃의 교육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받은 분이다。

〃윌리암·웨이드〃씨에게

∴당신이 수주일 전에 보내주신 〃러니·헤규우드〃의 편지는 대단히 재미있었읍니다。 거기에 그의 성질 그대로와 그의 대단히 온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이 보였읍니다。 나는 그가 역사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고 대단히 흥미를 느꼈읍니다。 그가 역사를 즐기지 않는 것은 대단히 섭섭합니다。 또한 때때로 옛적 사람들의 종교 및 정부형태의 역사가 얼마나 어둡고 신비스럽고 무섭기까지 한가를 느낍니다。

그런데 나는 몸짓 기호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것이 귀머거리이며、 장님인 사람에게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안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귀머거리며、 벙어리인 사람들의 빠른 몸짓을 따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몸짓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손쉽고도 자유로이 사용하는 힘을 습득시키는데 있어서 대단한 장해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참말로 나는 그들이 손가락으로 말을 만들 때에 이따금 그들의 말을 이해하기 곤난한 때가 있읍니다。 대체로 그들에게 만일 확실한 음절을 가르쳐줄 수 없다면 손으로 쓰는 문자가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좋고도 가장 편리한 방법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여간 귀머거리이며、 장님인 사람은 어느정도 손쉽게 몸짓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이전에 귀가 먹은 〃노르웨이〃 신사를 만났읍니다。 그는 〃레인힐드·카타〃와 그의 선생님을 대단히 잘 알고 있어서 우리 두 사람은 〃레인힐드〃에 대해서 대단히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그 여자는 대단히 부지런하고 행복하다고 그는 말하였읍니다。 그 여자는 옷감을 짜며、 많은 재미 있는 일을 하며、 독서를 하면서 즐겁고도 유익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는 손으로 쓰는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는 독순술은 잘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한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의 친구들이 그것을 그의 손바닥에 써 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처음보는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내 손에 쓴 어떠한 것을 이해하지 못 할때에 〃레인힐드〃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나보다 앞서고 있읍니다。 나는 어느때든 그를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마사츄셋스・렌담에서

〃로렌스・헛튼〃부인에게

…나에게 부과된 전 과목에 합격하였으며、 고급 〃라틴〃어의 수료증서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시험 두째번날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의 선생님이 나에게 시험문제를 읽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나를 위해서 시험문제를 점자로 옮겨 썼읍니다。 이 일은 어학에 있어서는 대단히 효과적이였읍니다。 그러나 수학에 있어서는 그렇게 효과적이 아니었읍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선생님이 대수와 기하의 문제를 나에게 읽어주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할 수 있으리만큼 잘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의 탓이라고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어렵게 그리고 괴롭게 시험을 보게 하였나를 깨닫지 못하였읍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나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내가 회상할 수 있는 어느 것보다도 훨씬 더 유쾌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과 어린 남동생이 五주일 동안 이곳에 와 있어서 우리의 행복은 그 한계를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있음을 즐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조그마한 가정이 가장 즐겁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읍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정원에서 그 아름다운 호수의 광경을 보실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합니다。 섬들은 황금빛 햇볕을 받아서 표

그마한 초록색 산봉우리 같이 보이며、〃카누ㅡ〃들은 산들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이곳 저곳에 떠다니고 있으며、알지못하는 나라로부터 속삭임과도 같은 숲풀의 독특한 향기로운 냄새를 맡읍니다。 이것이 오랜 이전에 관습에 의해서 옛 〃노르웨이〃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해안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맡았던 것과 같은 냄새 즉 수 세기 동안 꽃과 나무에서 조용히 자라고 없어진 냄새의 반향일가요。……

一八九九년 七월 二十九일

렌 담에서

〃사뮤엘·R·풀러〃부인에게

…지금이 당신에게 겨울동안 우리의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는바와 같이 많은 다른 소녀들과 같이 나도 〃래드클리프〃대학에 다녀서 학위를 받는 것이 오랫동안의 나의 소원이었읍니다。 그러나 〃래드클리프〃대학장 〃어ㅣ빈〃양은 나에게 당분간 특별한 과정을 공부하라고 권고하고 있읍니다。 그는 내가 많은 장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에 훌륭하게 합격하여서 대학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여주였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는 나에게 내가 어떠한 필기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훌륭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는데、단지 다른 소녀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래드클리프〃대학의 四년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여 주였읍니다。 그는 학위가 참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며、단지 학위를 위해서 자기정력을 허비하느니

보다는 독창적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게 생각된다고 말하였읍니다。 그의 의견이 매우 현명하고 실질적이었으므로 나는 그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대학에 가는 생각을 버리기가 매우 어려움을 알았읍니다。 이 생각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마음속에 간직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랫동안 하고자하여 왔다는 이유로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겨울동안의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을 때에 〃헤일〃박사가 오래전에 말한, 나는 〃래드클리프〃대학의 과정과 비슷한 것을 이 과목의 교수들의 지도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나의 선생님이 문득 생각하시였읍니다。 〃어―빈〃양은 이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읍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교수들을 만나보게 하여 주었으며, 그들이 나를 지도하여 줄 수 있는가를 알아 주었읍니다。 만일 교수들이 나를 가르칠만큼 유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돈이 있다면 금년에 나는 영어 〃에리자베즈〃시대의 영문학 〃라틴〃어 및 독일어를 공부할 것입니다。

一八九九년 十월 二十일

렌 담에서

〃쫀·힛쓰〃씨에게

…점자법으로 된 시험문제에 관한 나의 말이 의심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였는지를 말하기 곤난합니다。 무지란 이와 같은 모든 반박에 있어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이 보

입니다。 글쎄 당신 자신이 미국 점자법을 단 한자도 모르시면서 내가 당신에게 미국 점자법을 가르쳐드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미국 점자법으로 편지를 쓰고 계시다고 말하고、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편지를 영국점자법으로 쓰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웃지않을 수 없었읍니다。

점자로 된 시험문제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래드클리프〃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나?

一八九九년 六월 二十九일 및 三十일에 나는 〃래드클리프〃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였읍니다。 첫날에는 초급 희랍어와 고급 〃라틴〃어 시험이 있었고、다음날에는 대수、기하 및 고급 희랍어 시험이 있었읍니다。

그 대학당국자는 〃설리반〃양이 나에게 시험문제를 읽어주는 것을 허락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퍼킨스〃맹아학교 선생의 한사람인 〃유진·C·바이닝〃씨를 나에게 점자로 시험문제를 옮겨 쓰기 위해서 초빙하였읍니다。 〃바이닝〃씨는 내가 전연 모르는 사람이어서 나는 점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와 전연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읍니다。 학생감도 또한 처음보는 사람이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와 의사전달을 하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나의 말에 익숙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점자가 어학에 있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나타냈으나 대수와 기하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읍니다。 나는 심히 고통을 받았으며、참으로 실망하였고、또한 특히 대수에 있어서 귀중한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읍니다。 내가 모든 점자문자、즉 영국식 미국식 및 〃뉴욕〃식 점자에는 참으로 익숙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가지 점자법에 있어서 대수와 기하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부호를 쓰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연 달랐읍니다。 그리고 시험 이틀전에 나는 단지 영국식 방법만을 알았었읍니다。 나의 모든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나는 이 방법을 사용해 왔었고、다른 방법은 결코 사용해 본 일이 없었읍니다。 기하에 있어서 나에게 제일 곤난한 점은 나는 언제나 문제를 점선 인쇄나 혹은 나의 손바닥에 문제를 철자에서 읽는 습관을 붙여왔다는 것이였읍니다。 좌우간 내앞에 놓인 문제들은 올바랐지마는 그 점자가 나를 혼동시켜서、나는 내가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잡을 수 없었읍니다。 그리고 내가 대수문제를 풀었을 때는 더욱 어려웠읍니다。 즉 나는 기호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하였기 때문에 대단한 손해를 보았읍니다。 또 그전날 배웠고、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하였던 기호들이 나를 혼동시켰읍니다。 따라서 나의 답안 작성은 고통스럽게 느렸고、해답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얻을 때까지 예들을 몇번씩 거듭해서 읽지 않으면 안되었고、사실에 있어서 나는 특히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나의 지혜를 보유하기 곤난함을 발견하였으므로 모든 기호를 정확하게 읽었는지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길만〃씨가 당신에게 편지로 쓴 사실에 관해서 내가 대단히 명백하게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읍니다。 나는 〃길만〃학교에서 직접 교수를 받은 일은 결코 없읍니다。 〃설리반〃양이 언제나 나의 옆에 앉아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 주었읍니다。

나는 물리학 선생님인 〃호〃양에게 미국식 점자법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는 연습하기 위해서 쓴 몇개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점자법으로 나에게 교수한 일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결코 교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나는 많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읍니다。 "그로테" 부인은 수화문자를 배웠읍니다。 그리고 나를 교수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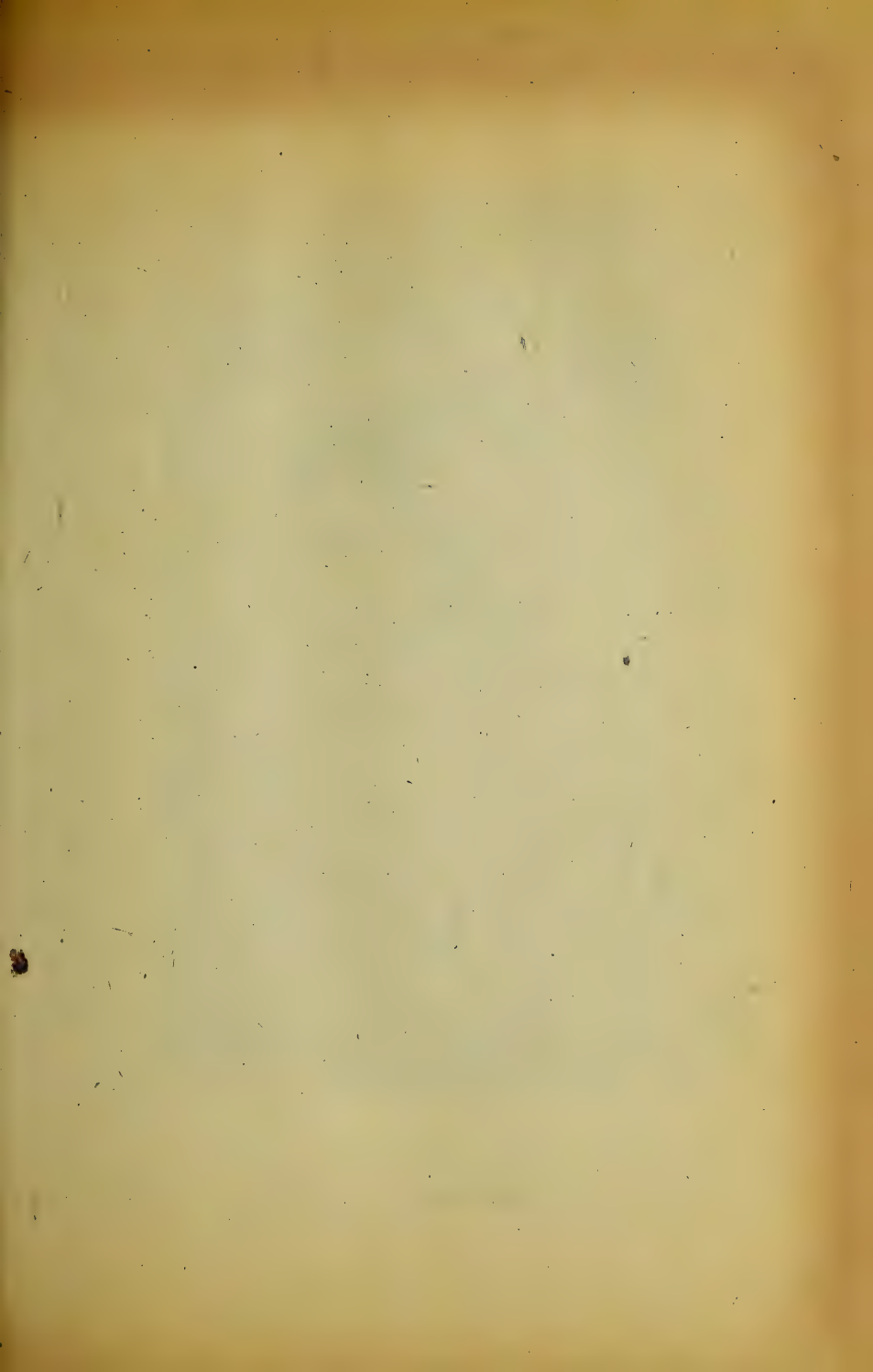
독일어 시간에 "설리반" 양은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가 힘자라는 데까지 나에게 설명해 주었읍니다。 아마 만일 당신이 이 편지에 사본을 "캠브리지" 학교 교장에게 보내신다면 그가 지금 전연 아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문제에 관해서 그의 마음에 광명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一八九九년 十一월 十一일

캠브리지 · 브렛틀 一三八

"밀드레드 · 켈러" 양에게

…드디어 우리는 겨울동안의 계획을 결정하고 우리의 공부를 순조롭게 하고있는 중이다。 "케이트" 씨가 매일 오후 네시에 오셔서 학생들이 가지않으면 안되는 거칠은 길을 친절히 호의적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다。 나는 지금 영국역사、영문학、분란서어 및 "라틴" 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는 독일어와 영어문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너만치 문법을 싫어한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하게 되기까지에는 몇 백번씩 호수에서 물속

켈러 여자와 그의 동생 밀드레드

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과 같이 내가 만일 글을 쓰게 되려면 문법에 통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분란서어로 선생님은 나에게 「코럼바」를 읽어주신다。 그것은 재미있는 표현과 소름이 끼치는 모험으로 가득찬 재미있는 소설이다。 (네가 나와 같은 것을 배운다고 나를 큰 소리로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만일 그 소설을 읽었다면 너는 대단히 그것을 즐기리라고 생각한다。 너는 영국역사도 공부하고 있지。 그것은 대단히 재미있다。 나는 지금 "에리자베즈" 시대의 종교개혁、 국교의 법령 및 춘봉、 해상의 모든 발견 및 악마가 너와 같은 순진한 젊은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발명한 것 같이 보이는 모든 큰 물건들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근사한 겨울 의복--웃저고리、 모자、 까운、 프란넬 내복、 그리고 모든 의복을 샀다。 우리는 네벌의 좋은 양복을 분란서인의 양장점에서 방금 마쳐왔다。 나는 두벌을 마쳤는데 하나는 꺼먼 레이스가 있는 꺼먼 비단 스카아트와 녹색 벨벧과 장식을 가지고 있고、 싸아텐、 요오크 위에 크림색 레이스가 달린 흰 뽀뿌링 웨이스트로 되어 있다。 다른 양복은 모직이고 대단히 고운 초록색이다。 그 웨이스트는 분홍색과 초록색으로 수놓은 벨벧과 흰 색 레이스로 장식되었다고 생각되며、 벨벧으로 주름잡고 장식한 두줄의 주름이 앞자락에 있으며、 조그마한 흰 단추가 한줄 또한 있다。 선생님도 또한 비단 양복을 한벌 마치셨다。 스카아트는 꺼먼 색이고 웨이스트는 섬세한 연보라색 장식을 하고 꺼먼 벨벧 나비넥타이와 레이스가 있는 대부분이 노란 색이다。 선생님의 다른 양복은 보라색 벨벧으로 장식한 보라빛이고、 웨이스트에는 보라빛 칼러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단지 꼬리가 없을 뿐、 공작과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 전에 〃하바드〃 대학과 〃에일〃 대학 사이에 축구시합이 있었는데 관중들은 대단히 열광적이였었다。 우리는 마치 운동장에 있었던 거와 같이 방안에서 남학생들의 웨침과 관중들의 갈채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루우스벨트〃 대령이 〃하바드〃 편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빨간 세타를 안입고 흰 세타를 입고 있었다。 경기장에는 약 二만五천명의 관중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에 그 소리가 대단하였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축구시합의 웨침이 아니라 전쟁의 요란한 소리로 생각되어 넋을 잃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힘찬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득점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웃으며 「그러니 지금은 솥은 냄비보고 검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였단다。……

一八九九년 十一월 二十六일

캠브리지 · 브렛틀 一三八

〃로렌스 · 헛톤〃 부인에게

우리는 이곳에 지금 일주일 동안 머무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로―드〃양 댁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우리는 여러곳을 구경하면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친절합니다。 우리는 많은 옛 친구들과 만났읍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읍니다。 우리

는 지난 금요일에 "로저스"댁에서 저녁을 같이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친절하였읍니다。 그들의 점잖은 예절과 진실한 친절에 대한 생각은 나에게 따뜻한 기쁨과 감사의 인상을 주었읍니다。 나는 또한 "그리어"박사를 만났읍니다。 그는 대단히 친절하였읍니다。 나는 그를 이전보다도 더욱 좋아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성·바아로로뮤"교회에 갔었읍니다。 나는 "부룩스"신부가 돌아가신 이후 교회에서 마음 편히 느껴본 일이 없었읍니다。 "그리어"박사는 대단히 느리게 성경을 읽었으므로, 나의 선생님은 나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말해줄 수 있었읍니다。 신자들은 그의 보통 때와 다르게 신중함을 이상스럽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는 올간이스트 "와아텐"씨에게 나를 위해서 한곡 처달라고 하였읍니다。 나는 큰 올간으로부터의 진동이 가장 세인 교회의 중앙에 서서 마치 바다에서 가장 큰 파도가 조그마한 배에 부딪치는 것과 같이 소리의 힘센 파동이 나에게 부딪치는 것 같음을 느꼈었었읍니다。

一九〇〇년 一월 二일

뉴욕·메디슨 五五九

"쫀·힛쓰"씨에게

…나의 공부는 이전보다 더 재미있읍니다。 "라틴"어로 "호레이스"의 송시를 읽고 있읍니다。 내가 그것을 해석하기 곤란함을 알지만 그것은 내가 이전에 읽고 또 이후에 읽을 "라탄"어 시중에 가장 아

흡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란서어로 코롬바」를 끝마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점지로 〃코오넬〃의 「호레이스」와 「〃라·폰테인〃의 우화」를 읽고 있읍니다。 나는 아직 둘다 많이 읽지 못하였읍니다마는 이 우화가 재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재미있게 쓰여졌고 간단하지만 매력 있는 방법으로 좋은 공부가 되게 합니다。 나의 친애하는 선생님은 「페어리·퀸」을 나에게 읽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같이 생각되지 않읍니다。 나는 우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실증이 나는 때가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스펜서〃의 기사、 이교도、 선녀、 및 용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상스러운 생물들은 약간 엽기적이고도 재미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시 자체는 아름답고 흐르는 시냇물과도 같이 음악적입니다。 나는 지금 〃루이스빌〃에서 주문해 온 새책 약 열다섯권의 소유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들 중에는 〃헨리·에스몬드〃、 〃베이콘〃의 수필집과 영문학으로부터의 발췌 등이 있읍니다。 아마 내주일에는 몇권의 책을、 즉 「템페스트」、 「여름밤의 꿈」 그리고 〃그린〃의 영국역사로부터의 발췌본을 아마 더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대단히 행복하지 않읍니까?

나는 이 편지에서 너무나 책에 대해서 쓴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책들이 요즘의 나의 전 생활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책 이외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 보고 듣는 일이 거의 없읍니다。 나는 매일밤 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믿읍니다。 당신은 학생의 생활은 반드시 약간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범위가 좁은 것이고、 책에 없는 거의 모든 것을 밀어낸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一九〇〇년 二월 三일

〃래드클리프〃대학 평의원회 의장에게

친애하는 의장이시여: 나의 내년도 학습계획을 결정하는 도움이 되도록 나는 당신에게 내가 〃래드클리프〃대학의 정규과정 수업의 가능성에 관해서 통지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나는 작년 七월에 〃래드클리프〃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은 이래、가정교사와 함께 「호레이스」、「이스킬러스」、불어、독일어、수사학、영국사、영문학、원전비판、영작문을 공부해 오고 있읍니다。

나는 대학에서 이 과목들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그 대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내가 공부하는 조건은 〃설리반〃양과 함께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강의의 설명자이고、시험문제를 읽어주는 사람으로서 十三년간 나의 선생님이였고、동반자이십니다。 대학에서 그가 또는 어떠한 과목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반드시 강의실에 있어서 또는 일과의 복습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야할 것입니다。 나는 〃타이프라이터〃로 나의 필기는 모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수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쓸 수 없을 것이며、복습 후에 교수에게 대답을 제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래드클리프〃대학에서 공부를 끝마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조건에 래학에서 응하도록 하실 수 있겠읍니까? 내가 대학교육을 받는데 있어서의 장해가 크다는 것、즉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 장해를 극복할 수 없어 보인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의장

이시어 진정한 군인은 싸워보기 전에는 패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一九〇〇년 五월 五일

캠브리지·브렛틀 一三八

〃로렌스·헛튼〃부인에게

…나는 아직 평의원회의로부터 나의 편지에 대한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호의적인 회답이 올 것을 바라고 있읍니다。 나의 친구들은 나의 과정을 최소한도로 줄여줄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여러가지 환경에 적합시키기 위해서 단지 나의 공부하는 방식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인데, 학교당국에서 그와 같이 오랫동안 회답을 주저하고 있음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코넬〃대학에서는 내가 만일 그 대학에 가기만 한다면, 내가 공부하는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말하며, 〃시카고〃대학에서도 같은 제안을 하고 있으나, 내가 만일 다른 대학으로 간다면, 〃래드클리프〃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 할까두렵습니다。……

一九〇〇년 六월 九일

캠브리지·부렛틀 一三八

그해 가을에 〃헬렌〃은 〃래드클리프〃대학에 입학하였다。

"쫀·힛쓰"씨에게

⋯X는 이미 당신에게 그와 나의 귀머거리와 눈먼 아동들을 위한 학교설립 계획에 관해서 통지하였읍니다그려。 처음에 이것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열성적이어서 나의 선생님에게 반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떠한 중대한 장해가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가장 신중히 생각하고 친구들과 의논한 다음에 나는 지금 X의 계획이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하고 있읍니다。 귀머거리이며、눈이 먼 아동들에게 내가 이전에 얻었던 이익을 받도록 노력하는데 열중하여서 나는 X가 제의한 것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장해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였었읍니다。

나의 친구들은 하나 혹은 두 아이를 우리집에 둘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큰 학교가 주는 어떠한 폐단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을 나에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친절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와 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상、지식、사랑 등의 그들의 정당한 유산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들의 의견의 힘과 무게에 대해서 못본척 할 수는 없읍니다。 그리고 나는 X의 계획은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읍니다。 그들은 또한 내가 "래드클리프"에 있는 동안 나의 사업을 운영할 자문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읍니다。 나는

이 제안을 신중히 고려하였읍니다。 그리고나서 나는 〃로우드스〃씨에게 모든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언제나 내가 조언을 청할 수 있는 현명한 친구들을 갖게 되어서 자랑스러우며 기쁘다고 말하였읍니다。 이 자문위원회를 위해서 나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나의 선생님、 근년에 나를 도와주며、 내가 대학에 입학되게 하여 준、 〃헛튼〃부인、 〃로우드스〃씨、 〃그리어〃박사、 〃로저스〃씨의 여섯사람을 선출하였읍니다。 〃헛튼〃부인은 이미 어머니에게 어머니와 선생님 이외에 나를 위한 다른 보조자를 선정하기를 원하는 가를 전보하여 달라는 편지를 보냈었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머니가 이 일에 동의하신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제는 나에게는 〃그리어〃박사와 〃로저스〃씨에게 편지하는 일만이 남았읍니다。……

우리는 〃벨〃박사와 오랫동안 이야기하였읍니다。 드디어 그는 말할 여지도 없이 우리들 전부를 즐겁게한 계획을 하나 제의하였읍니다。 그는 귀머거리 및 눈먼 아동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자하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말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보고 듣는 아동들의 더욱 충실하고 풍부하고、 자유로운 생활에 참여하는 귀중한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점에 관해서 근심되였으나 나는 어떻게 우리가 그점을 고칠 수 있을가를 몰랐읍니다。 그러나 〃벨〃박사는 X와 그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친구들은 물론 나와 나의 선생님을 포함해서 귀머거리와 눈먼 사람의 교육촉진을 위한 협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의하였읍니다。 그의 계획에 의해서 마치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귀머거리 및 눈먼 아동들을 그들의 가정에서 교육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선출되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집세와 월급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모집하기로 되었읍니다。 동시에 〃벨〃박사는 나는 충분히 쉬고、 나의 마음속의 큰 소원을 성취하고、 보고 듣는 소녀들과 경쟁하면서 〃래드클리프〃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부언하였읍니다。 우리는 박수갈채를 하며 외치며 기쁨에 가득차서 헤어졌읍니다。 그때에 선생님과 나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광명을 마음 속에 느꼈읍니다。 그리고 나의 대학공부에 대한 고통스러운 열망과 귀머거리와 눈먼 사람의 장래의 복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높아가고 있읍니다。 〃벨〃박사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나에게는 가장 실질적이며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을 모두 알아야 하겠읍니다。……

一九〇〇년 十一월 二十六일

캠부리지・쿨릿지 一四

〃쫀・D・라이트〃씨에게

당신은 나를 악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실 말도적놈이 그의 목적을 대답하는 이외에 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시는데 나쁜 말을 사용하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나를 그와 같이 나쁘게 생각하시는지 참말로 말씀해 주십시요。 나는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나는 글로 쓰지는 못하였으나 당신에게 많은 편지를 쓸 생각은 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당신의 친절한 편지를 받

기를 기뻐합니다。 참말로 그러하였읍니다。 그리고 곧 회답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이 분주할 때에는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올 가을에는 대단히 분주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래드클리프" 대학의 소녀들은 항상 대단히 분주합니다。 많은 의심이 나신다면 몸소 한번 와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렀읍니다。 나는 지금 학위를 얻기 위해서 정규 대학과정을 밟고 있읍니다。 내가 학사가 된다면 당신은 감히 나를 악한이라고는 못 부르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어——二학년 영어입니다。 놀랍지요。 (나는 이것이 보통영어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지만) 독일어、 불어 및 역사를 공부하고 있읍니다。 나는 예상하였던 이상으로 공부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것이 대가 대학에 입학하여서 기쁘다는 다른 표현방법입니다。 때때로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공부에 몰려보지는 않았읍니다。 나는 수학、 희랍어、 "라틴"어의 어느것도 공부하지 않고 있읍니다。 "래드클리프" 대학의 과정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단지 영어의 어떤 과목만이 필수로 되어 있읍니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영어와 고급 불어시험에 통과하였읍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들을 선택하였읍니다。 그러나 나는 "라틴"어와 희랍어를 전혀 포기할 생각은 없읍니다。 아마 나는 이후에 이 과목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수학과는 영원히 작별하였읍니다。 나는 확실히 이 무서운 요마들의 최후를 보고 기뻐하였읍니다。 나는 학위를 四년 동안에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급히 할 필요는 없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과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많은 나의 친

구들은 내가 一년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나의 여생을 대학에서 보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一九〇〇년 十二월 九일

캠부리지에서

"윌리암・웨이드"씨에게

…당신이 귀머거리와 눈먼 아동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최근에 내가 발견한 몇몇 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겠읍니다。 지난 十월에 나는 "텍사스"주에 사는 비상하게 똑똑한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의 이름은 "루비・라이쓰"이고 열세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한번도 교육을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는 바느질을 할줄 알며、 이와 같은 종류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웁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의 후각은 놀랄만 합니다。 글쎄 그가 상점에 들어가며는 그는 곧 바로 진열장으로 가며、 자기 소용의 물건을 구별할줄 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의 선생을 열심히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힛쓰"씨에게도 그에 대해서 편지를 하였읍니다。

나는 또한 "미시시피"의 귀머거리학교에 있는 한 아동을 알고 있읍니다。 그의 이름은 "모온・스콧트"이고 여섯살입니다。 그를 간호하는 "워트킨스"양이 나에게 매우 재미있는 편지를 보내왔읍

니다。 〃모우드〃는 날 때 귀머거리였고、 그가 단지 생후 三개월만에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수주일 전에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에는 어찌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걷기까지 못하였고、 손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구슬 꿰우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였을 때에 그의 조그마한 손이 옆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촉각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서만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히 머리가 똑똑한 소녀인 것 같이 보입니다。 〃워트킨스〃양은 그가 대단히 예쁜 아이라고 부언하고 있읍니다。 나는 〃모우드〃가 책을 읽게되면 많은 이야기책을 보내주겠다고 편지에 써 보냈읍니다。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소녀는 그가 어떻게 세상에서 좋고도 갖고 싶은 모든 물건으로부터 격리되었나를 생각할 때 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오래지 않은 이전에 〃뉴욕〃에 있을 때에 나는 〃로우드스〃양을 만났읍니다。 그는 나에게 그가 본 〃캐티·맥기〃에 대해서 말하여 주었읍니다。 그는 그 불쌍한 어린 소녀가 조그마한 아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였다고 하였읍니다。 〃캐티〃는 〃로우드스〃양의 반지를 가지고 놀았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유쾌히 웃고、『이것을 다시 드리지 않겠읍니다。』 하였읍니다。 그는 〃로우드스〃양이 가장 단순한 것을 이야기할 때만 이해하였읍니다。 〃로우드스〃양은 〃캐티〃에게 책을 부쳐 주려 하였읍니다。 그러나 〃로우드스〃양은 간단한 책을 하나도 구할 수가 없었읍니다。 〃로우드스〃양은 〃캐티〃는 매우 온공하나 적당한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였읍니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랬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편지를 읽고 생각하니 〃캐티〃는 매우 조숙한 여자로 생각하였기 때

문입니다。 며칠 전에 나는 〃로미・스트링거〃를 〃렌담〃정거장에서 만났읍니다。 그는 지금 크고 힘이 센 아이입니다。 부인이 취급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남자 어린이 한사람이 있어야 겠읍니다。 그는 지금 공립학교에 통학중이랍니다。 사람들 말에는 그의 진보는 놀랠만 하다하나 아직 그 진보가 회화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왜냐 하면 그의 말은 「네」「아니요」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一九○○년 十二월 九일

켐브릿지・쿨릿지 一四

〃촬스・T・코프랜드〃씨에게

나는 감히 이 편지를 쓰려합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그것을 쓰는 것을 중지하였느냐를 설명하지 않으면 나는 쓰는 것에 용기를 잃었거나 혹은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비겁하게도 당신의 학급에서 빠져 나왔다고 당신이 생각하실가 하여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용기를 잃은 것도 아니고 두려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써 내려온 것처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자신이 있읍니다。 또한 나는 그 과목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조각조각을 모는 작문 장난에는 전혀 취미를 잃었읍니다。 나는 나의 공부에 만족치 않았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나의 곤난이 무엇인지를 몰랐읍니다。 내가 지난 十월에 당신의 학급에 들어왔을 때 나는 전심 전력을 기울여 다른 학생같이 되려 하였으며、 될수 있는 한 나의 모든 제안과 특수한 환경을 잊으려 하였으

나、지금은 소속되지도 않은 백마를 우리의 수레에 붙들어 매려는 것같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았읍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관찰을 모든 사건의 과정으로서 참고삼아 왔읍니다。 내 자체가 관찰을 하며、내 자체의 특수한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나는 내 자체가 되고、나 자신이 생활하며、또한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생각한 바를 쓰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또한 당신의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쓰게 되면、당신께서 용서하시고 또한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가겠읍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평이 좋지 않으시면 몇번이라도 반복해서 당신을 기쁘게 할 때까지 계속하겠읍니다。……

一九〇〇년 十二월 二十일

〃로렌스・헛튼〃부인에게

…신문에서 우리 학급 연회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셨읍니까? 도대체 신문기자들은 어떻게 그리 잘 알가요? 참 재미 있었읍니다。 축배、연설 다 재미가 있었읍니다。 날더러 이야기하라는 수분 전까지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마디 하였읍니다。 내가 〃래드클리프〃학급 부의장으로 선거되였다는 것을 이미 당신에게 써 보낸 줄로 생각합니다。

나의 새 연회복이 목이 얕고 소매가 짧고 또한 수가 많이 달린 것이라는 것을 편지에다 전해 드렸는

지요。그 옷은 엷은 청색이고 또한 같은 색의 수가 달린 것이지요。 나는 그것을 한번밖에 입지 않았읍니다마는 그것을 입고보니 영광을 한몸에 지니게 한 〃솔로몬〃도 내게 비할 수 없는 것같은 기분이었읍니다。 여하간 〃솔로몬〃도 나같은 옷은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신사가 나의 선생님께 〃파리〃에 있는 귀먹고 앞못보는 어린이 이야기를 적은 편지를 보내왔읍니다。 그의 부모는 〃프랑스〃사람입니다。 또한 그 어머니는 의사이고 훌륭한 분이랍니다。 그 어린이가 병으로 청각을 잃기 전에 二·三개의 어학을 하였답니다。 그는 지금 근근히 다섯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린이에게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이 어머니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가엾은 일이라 하십니다。 나는 또 〃도우〃부인에게서 이 어린이를 위하여 무엇을 좀할 수 있지않나 하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벨〃박사의 생각에는 현재 인구조사를 하여보면 미국에만 그런 어린이가 一천 이상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우〃부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노력을 합하면 『이십세기가 시작할 때 새로운 노선을 설정하여 그 위로 자비심이 여행을 하여…』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는지도 모르겠다 합니다。……

一九〇〇년 十二월 二十七일

켐브리지 · 쿨릿지 一四

〃윌리암 · 웨이드〃씨에게

…그런데 출생후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혹은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손가락을 단련시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인쇄하여 놓은 영어 점자의 견본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런 사람들의 촉감은 다른 눈 먼 사람들이 만져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둔한 편입니다。 영어잡지에서 그와 같은 조직에 대한 설명을 읽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만일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모든 나라의 장님들이 왜 영어 점자를 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가지 다른 언어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인쇄문자입니다。 당신도 아시다 싶이 회랍어까지도 인쇄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하여 또한 「중간 구두법」에 의하여 더욱 효과를 나타내게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은 공간과 종이를 많이 절약하게될 것입니다。 장님을 위해서 대여섯이나 되는 인쇄기가 있다는 것은 내 생각에 그보다 어리석은 짓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一九〇一년 二월 二일

캠브리지에서

다음 편지는 만일 사람들이 기쁘게 읽어준다면、장님을 위한 점자 잡지를 출판한다는 〃더·그레이트·라운드·월드〃의 주필이 제안한 계획에 대한 답으로 쓴 것이다。 장님을 위한 특수한 잡지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가장 좋은 월간 잡지로 장님들이 이 잡지를 읽을 것은 틀림 없는 일이다。 장님만으로서는 이 잡지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잡지의 경비는 많이 들지 않을 것같다。

"더・그레이트・라운드・월드"사 귀중

나는 겨우 오늘이야 당신의 재미 있는 편지에 답장을 쓸 시간을 가졌읍니다。

작은 새는 항상 나의 귓속에 좋은 소식을 노래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한테서 곧장 왔을 때 나의 기쁨은 몇배나 되었읍니다。 "더・그레이트・라운드・월드"(The Great Rouud World)지가 「느낄 수 있는 언어」로 인쇄되어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나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훌륭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이 애를 써서 출판한 이 선물을 눈 먼 사람들처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을지 의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혼자서 생각했던 것、 하고싶던 것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 이 세상 거기에는 기쁨과 슬픔 사람들이 가장 흥미있게 느끼는 성공과 실패 —— 참으로 너무도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암흑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내 준 "더・그레이트・라운드・월드"의 노력은 그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힘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믿는 바입니다。

하여간 "더・그레이트・라운드・월드"에서 출판한 것을 몇사람이나 읽을 수 있는지를 나는 의심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는 장님들의 생활이 가난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필요하다면 왜 장님들의 친구들은 이 "더・그레이트・라운드・월드"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확실히 고상한 일을 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실천하게 하는 마음과 손이 있읍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당신의 일의 성공을 빌면서……

켐브리지에서

一九〇一년 二월 十六일

〃니나·로우드스〃양에게

우리는 八월 중순까지 〃할리팍스〃에 머물렀읍니다。…… 매일 같이 항구、군함과 그리고 공원이 우리를 생각하고 느끼고 즐거움으로 바쁘게 하였읍니다。 〃인디아나〃호가 〃할리팍스〃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배에 올라오라는 초대를 받았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디아나〃호의 소속 뽀—드를 보냈읍니다。 나는 거대한 대포를 만져보고 나의 손가락으로 〃싼티아고〃에서 잡았다는 〃서반아〃의 배의 여러가지 이름을 읽었읍니다。 그리고 탄알이 맞아 뚫어진 곳을 만져보았읍니다。 〃인디아나〃호는 이 항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를 대단히 칭찬하였읍니다。

〃할리팍스〃를 떠난 후 우리는 〃케잎·부르톤〃에서 〃벨〃박사를 방문하였읍니다。 그는 〃브라스·돌〃호(湖)를 바라보는 〃배인·부리—그〃라고 불리우는 산에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집을 가졌읍니다。

〃벨〃박사는 나에게 그의 일에 관하여 많은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하여 주었읍니다。 그는 한 뽀—드를 막 만들었읍니다。 그 배는 연을 달고 있으며、바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어느날 나는 그 연이 바람에 역행해서 날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읍니다。 나는

마침 그때 거기 있었고 그 연이 날으도록 그를 도와주었읍니다。 그 중의 하나가 쇠줄로 된 것을 알았읍니다。 구슬 꿰는 일에서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 줄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벨〃박사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했읍니다。 그리고 연을 날렸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다니기 시작하였읍니다。 자! 보십시오、 쇠줄은 끊어졌읍니다。 큰 용을 그린 붉은 연이 날아나 버렸읍니다。 가엾게도 박사는 실망하여 울부짖녀 세새 날아난 연을 바라다 보았읍니다。 우리는 큰 장난을 하였지요。……

一九〇一년 九월 二十五일

캠브리지에서

〃에드워드・E・헤일〃박사에게

나의 선생님과 나는 내일 〃하우〃박사의 탄생 백주년 기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를 나는 매우 걱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이 그 회석상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일인지를 당신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에 당신은 누구보다도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입술에 말을 준 그에게、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교육과 기회를 준 그에게 마음 속으로부터 감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의 공부하는 방에 앉아서 그의 책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고、 위대하고 현명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즐겨하고 있으면서、 나는 만일 〃하우〃박사가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 그 위대한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내 일생에 그 일을 실현하여 보려고 노력했을 겝니다。 만일 〃하우〃박사가 〃라우타・부리즈만〃의 교육을 자기 스스로 맡아보지 않았더라면、 또한 그 캄캄한 지옥에서 그를 이 인간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날 〃래드클리프〃대학의 二학년이 되였을까 누가 말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나 〃하우〃박사의 위대한 업적에 무엇이 관계될 수 있을 것인가를 회의하는 것은 게으른 일입니다。

다만 죽음의 생애에서 도피한 사람들、 마치 〃라우라・부리즈만〃이 구원을 받듯이 이러한 사람들만이 사색이 없는、 혹은 믿음이 없는 또는 희망 없는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어둠속에 수의로 덮여졌다는 것을 알게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옥소의 쓸쓸함을 그려낼 수 있는 말은 없읍니다。 혹은 갇혀 있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그려낼 말은 없읍니다。 〃하우〃박사가 일을 시작하기 전의 장님의 절망과 요구를 지금의 장님의 희망과 독립에 비교할 때 우리는 우리들 사이에 많은 위대한 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신체적 조건이 우리 주위에 높은 담을 쌓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우리 친구에게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자、 우리 세계는 향상하고 있읍니다。 천국의 길이와 넓이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우〃박사의 거룩한 일이 응당 그들의 애정과 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특히 도시에 있어서 인간을 위한 훌륭한 승리와 그의 위대한 노동자들의 그림인 도시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내가 나의 선생님와 함께 인사 올리면서—
一九〇一년 十一월 十일

헬렌·켈러

〃죠—지·F·호—어〃각하에게

상의원 〃호—어〃씨에게 :—

당신이 〃하우〃박사에 대한 나의 편지를 좋아하신다니 참 기쁩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까닭에 그 편지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동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 같읍니다。 나는 〃헤일〃박사에게 그 편지를 빌려 달라고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위해서 이 편지를 한장 베껴 드리겠읍니다。

당신도 아시다싶이 나는 타이프라이터를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오른 손 하인입니다。 이것이 없이 내가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나는 희랍어까지도 이 기계를 써서 시험도 치고 논문도 씁니다。 사실 이것은 단지 한가지 고장이 있읍니다。 그러나 교수에게는 편리한 점인가 봅니다。 즉 그것은 사람의 잘못은 대번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읽을 수 없게 쓴 것으로서 잘못을 감출 수는 없으니깐요。

정치에 관해서 내가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들으시면 기뻐하실 줄 압니다。 나는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중대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지식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의견은 책을 읽을 때마다 달라지니깐요? 내가 「시민정부」(Civil Government)와 경제학을 공부할 때 나의 모든 문제와 의심이 아름다운 확실성 속에서 꽃을 피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 풍부한 지식의 벌판에는 보리보다 콩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

一九〇一년 十一월 二十五일

캠브리지에서

第三部 교육(敎育)

〃켈러〃여자의 자서전인「나의 생애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출판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여자의 생애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앞으로 여자가 무엇을 하든간에 그것은 다만 지금 그를 빛나게 한 성공을 좀더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성공은 확실히 보증되어 왔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이태동안 〃래드클리프〃(Radcliffe)에서의 그의 업적은 마치 그 여자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연구한 것과 같은 정도로 그의 교육을 성취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켈러〃 여자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어떠한 의심도 지금은 없는 것이다。

여자의 자서전의 여러군데는 〃보스톤〃신문에 중대한 자설의 주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는 〃켈러〃여자의 대학 생활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켈러〃여자가 설명한 구절 즉 대학은 여자 자신이 찾으려고 애쓰던「만인의 〃아테네〃는 아니였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였고、 또한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대학생활도 또한 실망을 가졌다는 사실도 인용하였다。 사설을 쓴 기자가 심각하게 취급한 그의 환멸은 대부분에 있어서 유―모어이였다。 〃켈러〃 여자는 그의 견해를 그렇게 중대한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여자가 중대한 문제에 언급할 때는 그의 독자가 그 문제를、 성숙된 지혜에서 나온 글을 쓰는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학의 삼학년 정도의 실

려으로 생각해도 좋다는 것을 말하였다。 예를 들면 성서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어떠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놀라웠고 이해치 못하는 것이 우수웠다。 그리고 그의 부모나 혹은 선생이 그에게 지워준 일종의 종교적 의무에서가 아니라 영문학의 한 과목으로 성서의 전문을 읽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놀랬다。

나는 독자와 〃켈러〃여사에게 어떤 문제가 가치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제넘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여사의 초기 교육에 관한 기사에 있어서 〃켈러〃여사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준 것은 아니다。 또한 중대한 사건의 기록도 아니다。 여사는 그가 어떻게 배웠는 가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의 어렸을 때 기억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후에 선생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한테서 배운 것의 이상화한 기억이다。 여사는 우리가 우리의 어렸을 때를 회상하는 것 같이 십오년 전의 일을 생각해 내지 못한다。 이것이 선생의 기록과 어떤 점에서 〃켈러〃여사의 기록이 다른 이유이다。

〃켈러〃여사가 그의 전기를 쓴 방법은 다만 그가 극복한 곤난을 보여준 것밖엔 아무것도 아니다。 글을 쓸 때 우리는 우리의 쓴 글을 다시 읽어본다。 어떤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줄을 긋고 다시 순서를 바꾸고 마치 건축가가 그의 도형을 고치듯이 눈에 들게 구성한다。 〃켈러〃여사가 그의 글을 타입으로 쳐놓고 나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그 글을 다시 여사에게 읽어주지 않는 한 다시 그 글을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곤난은 어느 정도 점차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제외되었다。 여사가 읽을 수 있는 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일이 끝날 때에는 타잎으로 찍혀나와야 하니 점자기계가 어떤 때에는 귀찮은 것이 된다。 여사는 그의 점자 사본을 과히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사가 그의 이야기를 약 일년 전에 쓰기 시작하였을 때、 또한 점자로 백장이나 되는 재료와 기사를 가졌을 때、 여사가 그의 사본을 끝내기도 전에 그 기사를 망치는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여사는 그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타잎 기계에 의하여 정리하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에피소―트와 함께 그를 안내해 주는 그의 추억에 의존하였고、 그것을 〃설리반〃여사가 읽어주었다。

지난 六월에 공부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책의 마지막장을 마치자 〃켈러〃여사는 이야기 전부를 또다시 쓰려고 착수하였다。 여사의 좋은 친구 〃윌리암·웨이드〃씨는 잡지교정본을 이용하여 완전한 점자본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하여 생전 처음 〃헬렌〃은 전 원고를 손가락으로 만져보게 되었다。 그는 구절을 고쳐야할 데라든지 문구가 반복되는 불완전한 곳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여사는 그 이야기가 짧은 장으로 나뉘고 다시 구분되도록 하였다。

일부분 그의 성질 때문에、 또한 일부분은 공부 때문에 통일된 이야기를 썼다는 것보다는 훌륭한 문구의 나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이야기 중의 어떠한 글은 영어 공부 중에서 쓴 것이며、 짧은 단원은 원래 공부시간에 쓰기 때문에 완전치 못하였다。

이 이야기를 쓸 때에 〃켈러〃여사는 그 교정은 점자기로 별지(別紙)에다 썼다。 긴 교정은 타이프라

이러로 찍어서 교정할 곳을 표시하는 부호를 붙였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 전부를 점자본으로 읽었는데、 읽는 도중에 교정을 하여 그것을 원고지에다 써 가지고 인쇄인에게 회부하였다。 이와 같이 교정하는 도중에 〃켈러〃여사는 내용과 문장을 의논하였다。 여사는 앉아서 원고의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하여 큰 소리로 늘 읽었으며、 점자로 쓴 원고를 손가락으로 조사하여 교정을 표하여 놓은 기호를 참고하려고 가끔 읽는 것을 중단하였다。

모든 다른 저자들이 그의 친구나 편지보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모양으로 그는 타인의 비판을 들었다。 〃설리반〃여사는 훌륭한 비판가인데、 처음의 정리에서 또는 교정할 때에 여러가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어떤 신문은 열성있는 친구들로 말미암아 이책을 쓰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어떠한 부분은 이 책에다 써 넣었다고 하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가 받은 원고의 대부분은、 그리고 그가 주의하여 들은 것을 첨가한 것 보다는 삭제한 것이 더 많았다。 이 책은 〃헬렌·켈러〃여사의 것이며、 그가 독립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성격(性格)

〃마크·트웨인〃은 이십세기의 가장 재미있는 두 성격의 소유자는 〃나포레온〃과 〃헬렌·켈러〃라 하였다。 세계사람들이 그 여자를 존경하는 것은 그 여자가 달성한 것으로써 정당화되였다。 그 여자의 위대한 것은 이미 다 문자로 기록이 되였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켈러〃 여자의 사업에 대하여 이 이상의 몇가지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이미 알려진 그의 성격에다 조금 더 첨가하는 것이다。

〃켈러〃여자는 키가 크며 힘이 센 편이며、 또한 늘 건강이 좋았다。 여자는 실제보다는 더 신경질인 것 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는 손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까닭이다。 그 이유는 그는 손을 가지고 오랫동안 의사를 표시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면 눈으로 곧 표시할 수 있을 것을 손으로 표시하는 것이 남아 있다。 모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 손짓을 하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귀먹은 사람들이 통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베·디·레페〃가 발명한 조직적 수화법(手話法)이라고 믿은 때도 있었다。

〃켈러〃여자가 말을 하게 되면 그의 얼굴은 활기를 떠게 되며、 그 마음 속에 있는 사상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웅변적 표정을 하며、 그 말은 반쯤의 의미를 주는 표정이다。 반면 그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의 손은 재빨리 상대자의 얼굴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것은 〃헬렌〃의 표현을 쓰자면 「입의 말하는 모양」을 보자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면 목소리나 눈짓으로 일부 표현될 수 있는 문장의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헬렌〃은 이러한 방법으로 아는 까닭이다

그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놀랠만 하였다。 그는 이전에 악수했던 손가락의 압력도 기억하며、 한사람의 악수와 다른 사람의 악수를 구별케 하는 특징적인 근육의 긴장을 기억하였다。 아마도 〃켈러〃의 (또한 〃설리반〃 여사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특징은 유—모아이다。 말을 쓸 줄 아는 재주와 또한 말을 가지고 농하는 습관은 그로 하여금 기지(機智)를 쉽사리 쓰게 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느냐 물었더니、
『네、 또 놀기도 좋아하지요。 가끔 나자신 모든 극(劇)이 들어있는 음악상자같이 느껴집니다』 하였다。

〃헬렌〃이 〃쉑익스피어〃 연구가 〃훠—네스〃 박사를 만났을 때、 박사는 〃헬렌〃에게 대학교수들이 〃쉑익스피어〃의 생애에 관하여 지나치게 가상된 사실을 말하는 것에 경고를 하고、 우리가 〃쉑익스피어〃에 대하여 아는 사실은 그가 세례를 받았으며、 혼인하였으며、 그리고 사망한 것 뿐이라 하였다

그래서 〃헬렌〃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그는 할 것은 다 하였구면요。』

언제인가 수화문자(手話文字)법을 배우는 친구가 H자를 잘못하여 G자로 표현한 일이 있었다。 이 두 자는 다 비슷하게 두 손가락을 벌려서 표시하기 때문에 혼동되었었다。 그래서 〃켈러〃는 그에게 말하기를, 『쌍둥과 같다』고 하고 비웃은 일이 있었다。

언제인지 〃죠셉프·제퍼슨〃씨는 〃켈러〃에게 그의 머리에 분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상을 타는 싸움하는 뿔이지요。 그러나 나는 싸움을 절대로 아니하지요。 한다면 곤난에 대항하는 것 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헬렌〃여사의 유―모아는 용기를 표시하는데 의의 깊은 것이다。

십삼년 전에 〃헬렌〃은 말을 배우기로 결심하였을 때 현명한 사람들, 특히 그중에도 제일 현명한 사람 〃설리반〃여사라도 이것은 성공못할 실험이며, 또한 확실히 〃헬렌〃을 불행하게 하리라고 생각되였으나 〃헬렌〃은 공부를 하게 될 때까지 그의 열성으로 그 선생을 못견디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인내심 때문에 그는 대학에 가게 되었다。 그가 시험에 통과하고 입학자격증을 받은 뒤에도 〃래드클리프〃대학 학장과 그외 사람들이 그 이상 공부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년동안 지체하였다。 그러나 그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만족지 아니하고 결국 대학에 들어갔다。

그의 일생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하여보려는 의욕과 더욱 잘 하려는 열정의 계속이었다。 그의 성공은 확실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는 가장 완전히 자기자신을 얻었다。 남에 지지아니하려는 것이 그의 용기를 발전시켰었다。 다른 사람이 가는 데

는 그도 갈 수가 있었다。 그가 육체적 용기를 존경하는 것은 〃스티븐슨〃의 용기, 즉 젊은이의 용기를 가지고 동무가 우는 것을 남자로서 멸시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산림 속에서 뛰어 다니며, 숲사이에서 걸키고 다쳤으나 결코 다쳤다는 것을 상심치 않았으며, 또한 다음 번에는 집에 가만이 있으라고 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그에게 시험을 하려하면 아무리 비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이기려는 스포쓰맨적 결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어떠한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모를 때는 그는 장난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짐작을 하는 것이다。 그에게 당신의 조고리의 빛이 어떠하냐고 물어보면 (맹인은 빛을 알수 없는 것이다), 그는 저고리를 만져보고 검다고 하는 것이다。 그 저고리가 푸른 것이며, 이겼다는 기분으로 푸르다 하면, 그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시니 다행입니다。 왜 그 질문은 하시었지요?』하는 것이다。

그는 변덕이 심하고 모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지나치게 내므로 심리학적 실험가에 대하여서는 좋은 대상이 못되는 것이다。 더욱이 〃설리반〃여사는 〃켈러〃가 과학자의 실험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하여 자기자신도 〃켈러〃에게 실험을 아니하였다。 어떠한 심리학자가 〃켈러〃는 잠자는 동안에도 손에다 글자를 쓰느냐고 물었더니 그러한 일은 중대치 않으니 앉아서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켈러〃는 회합에 참가하기를 즐겨하였다。 자기가 만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농담을 듣고 웃으면

자기도 알아들은 모양으로 같이 웃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음악을 듣고 흥분하면 그것에 응하는 흥분이 공명적(共鳴的)으로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상 〃설리반〃여사의 일거 일동이 그때그때 그의 기분에 응하여 한동안 이야기를 써주지 아니한다 하여도 무엇이 진행하는가를 아는 것 같이 보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가 음악에 응하는 것도 일부분은 음악자체를 사랑하지마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공명하는 것이다。

음악은 아마 그에게 대하여서는 치는 것이며, 공기가 진동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초기의 시험이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곡조를 피아노키―에서 기계적으로 치는 것을 배울 수는 있지마는 그는 성악도 할수 없으며, 또한 피아노를 칠 수도 없다。 그러나 그가 음악을 즐기는 것은 진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기를 통하여 공기의 파동이 그 여자에게 부닥치면 그는 촉감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 음악 음률을 경험하는 일부분은 말할것 없이 그가 만지고 있는 고체에 미치는 진동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더욱 명백한 것은 그가 손을 놓고 있는 피아노의 동체(胴體)를 통하여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공기 자체의 진동을 느끼는 것 같다。 그를 위하여 〃성·바트로뮤〃사원에서 오르간을 연주하였을 때에 전 건물은 발로 누르는 듯한 곡조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느끼고 즐겨한 것을 전적으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르간의 곡조가 높아지자 공기의 진동은 그로 하여금 반응케 하여 몸을 흔들게 하였다。 때로는 그는 가수의 목에다 손을 대고 근육의 떠는 것과 긴창을 느끼는데, 그것은 그에게 참된 쾌락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감각이 과연 어떠한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

다。一八九五년의 어떠한 잡지에 『"켈러"는 문자 그대로 그들의 음악을 느끼므로 여러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을 정당하게 또한 이지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했다。 "슈―만"과 "베토벤"의 차이를 안다하면 그것은 그들을 판단할 줄 아는 까닭이고、또한 그가 진실로 그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기억하는 까닭이며、누구든지 그런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켈러"여사가 다른 사람들의 지적 입장에서 그들과 만나려는 노력은 그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사전을 알도록 하여왔다。 그의 교육이 더 조직적으로 되고、또한 책공부에 바쁘게 되었을 때 그가 원하기만 하였다면 "설리반"여사의 의사대로 끌어 들어가게 인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생각들을 그에게 주었으며、또한 그는 그러한 생각들을 받아 들이었다。 만일 이야기하는 도중에 옆에 있는 친구가 그의 손에다 얼마 동안 글을 쓰지 않으면 필연코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하는 질문을 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보통사람들과 사귀므로 여러가지를 주서들었었고 따라서 그의 지식은 이상하게도 많았으며、또한 정확하였다。 그는 인생의 조그마한 일에 관하여서도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의 지식의 대부분은 직접으로 얻은 것이다。 그가 밖을 나가 걸어다닐 때라도 어떠한 숲의 냄새가 나면 걸음을 멈춘다。 그는 손을 벌리고 잎사귀를 만져 본다。 그리하여 자라는 세상을 우리의 세상이나 다름이 없이 잎사귀를 붙들어 본다든지 꽃의 냄새를 맡아 본다든지 하여 즐거운 산보가 끝나면 그것이 기억에 남게 된다。

그가 어떠한 새로운 곳 특히 〃나이아가라〃같은 재미나는 곳을 가면 그와 같이 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나 대개는 〃설리반〃여사이다—보이는 광경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는 것이다。 〃설리반〃여사는 그 제자의 마음을 잘 아는 까닭에 지나가는 경치로부터 기본적인 것만 택하여 제자에게 전하여 줌으로써 〃켈러〃양의 외계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은 혼돈되어 있으며、또한 지나치게 세분된 것이 많은 것이다。 만일 동반하는 사람이 자세히 설명하여 주지 않으면 〃켈러〃양은 만족할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는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그러나 눈이 보도록 되어있는 것을 내면적 힘으로 보는 것이다。 그가 만일 산보를 하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묘사는 정확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어떠한 기록한 것에서 얻은 것과 혹은 선생에게서 들은 말을 자기의 경험과 비교해서 소리와 시각(視覺)에 대한 말을 사용하는데 틀리지 않도록 하였다。 참으로 그의 생활은 시적표현으로 착색이 되었으며、또한 그러한 것이 꽉 차있다。 그가 보는 우주라 하는 것은 물론 실제보다 더 날 것은 없다。 그러나 그의 우주관이라는 것은 세상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놀랠만큼 무지하다。 예를 들자면 그가 바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수가 염수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떨어져 있는 사건이나 사실이 그에게 주의를 끌지않고 지나가는 수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는 까닭에 세상에 대한 그의 견해에는 기본적인 결점은 없는 것이다。

그가 직접 아는 것의 대부분은 촉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감각은 다른 맹인들의 그것처럼 발달이 아니되였다。 "라우라・브리즈만"은 실의 장단을 자세히 아는 까닭으로 레이스를 만들 수가 있었다。 "켈러"양은 뜨게질도 하였지마는 그는 더 나은 것을 할 것이 있었다。 여러가지 능력이 있고 또한 배운 것도 많았으나 그의 촉감은 보통 이상의 정확성을 초월할 만큼 발달되지는 아니하였다。 어떠날 그의 한 친구가 돈을 여러개 주고 알아 보게 하였더니 무게와 크기를 아는 점에 있어서 예기한 것만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야 하겠으나、 기실 그것은 인생의 괴롭고도 쓸데 없는 일의 하나인데 "켈러"양은 그것을 아니하여도 좋게끔 되어 있였다。

그는 한 육인취쯤 되는 작은 조각물이면 그 제목과 총체적인 개념을 인식한다。 그러나 반인취 밖에 안되는 조그만한 조각이면 미술에 관계되는 한 아지못한다。 큰 조각이면 손을 가지고 그 선들을 전부 만져서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으로 그 높은 심미적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는 조각의 진정한 용적과 그 입체적 조각의 형체를 더・직접 감상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도 조각을 더 잘 안다고도 말한다。 그가 "보스톤"미술박물관에 갔을 때에 그는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두손으로 그가 춤추는 여자들의 조각을 만지자 그는 『가수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가 그 가수들을 발견하자 『한사람은 잠자코 있다』라고 하였다。 과연 그 하나의 입은 다물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감각이 섬세하고 그의 손이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의 일상생활을 볼 때이다。 그는 방향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늘 있는 방에 있어서도 확실성이 없이 길을 더듬는

다。 대개 눈먼 사람들은 청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앞 못보고 귀먹은 사람이 아니면 정당한 비교는 어려운 것이다。 그의 촉감의 교묘성은 눈의 도움으로 움직이는 정상적 사람과 비교하여 보아도 현저한 것이 없으며、 또는 내가 들건대 다른 맹인들 하고 비교하여도 현저한 것이 없다 한다。 그는 그의 손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종류의 건설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오지는 않았다。 그가 열두살 때에 그의 친구이며 화가였던 〃엘버트・H・뮨셀〃씨는 그에게 밀초판과 바늘을 주어가지고 실험을 하게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모형을 주었더니 잎사귀나 장미꽃같은 인습적의 도안을 상당히 잘 만들었다 하였다。 손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가 연습하는 것은 타이프라이터 뿐이다。 그는 타이프라이터를 그가 열한살 때부터 쳤지마는 그는 빠르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조심을 하여서 치는 것이다。 그는 상당히 빨리 치기도 하지마는 절대로 확실하게 치는 것이다。 그의 원본은 그것을 읽도록 〃설리반〃여사에게 제출할 때는 거의 틀린 것이 없다。 그의 타이프라이터에는 특별한 장치는 없었다。 그는 키—의 위치를 가끔가끔 새끼 손가락으로 타이프라이터의 한편을 만져봄으로써 조종한다。

〃켈러〃양이 손철자(手話文字)법을 자기 손의 촉감으로 아는 것은 약간의 의심을 일으키는 것 같다。 〃켈러〃를 상당히 잘 아는 사람들도 〃설리반〃여사가 그의 제자와「신비하게 전보식으로 통화」하는 것을 잡지에 썼던 것이다。 손가락 철자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교육받은 귀먹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 대개 사전에는 손철자법의 그림이 들어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귀먹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촉감으로 알 수도 있으며、 또한 손이 움직이는 것을 촉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켈러〃양은

자기와 통화하는 사람의 손에다 손가락을 가만이 놓고 철자가 되는 대로 빨리 그 글자들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가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는 문구나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 귀먹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설리반〃여사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은 철자를 매우 빨리한다。 즉 천천이 하는 강의는 쓸 만큼 빨리하나 빨리 말하는 사람의 모든 말을 쓸만큼은 빠르지 않다。

누구든지 몇분만 연습하면 손 철자법을 배울 수가 있으며、 하루만 걸리면 천천이 쓸 수가 있으며、 삼십일만 걸리면 익숙하여져서 〃켈러〃양이나 또는 다른 귀먹은 사람들에게 그의 손가락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귀먹은 어린이들의 친구나 일가들이 이 손철자법을 배우게 되면 전세계의 귀먹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될 것이며、 또한 더 잘 교육될 것이다。

〃켈러〃양은 글자가 볼록하게 나오게 인쇄된 것이나 또는 여러가지 점자로 된 것으로 독서를 한다。 글자가 볼록 나오게 인쇄된 책은 소자와 대자의 〃로마〃철자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글자들은 간단하며· 사각형 또는 모가 나게 고안이 되었다。 조그만 글자들은 十六分의 三인취 정도의 높이며、 엄지손가락의 손톱만큼 높다。 책은 큰 것으로 대체로 각권이 백과사전의 한권만하다。 〃그린〃의 「영국인 소사」는 여섯권으로 되어 있다。 책들은 무접지는 아니하다。 왜냐하면 활자는 빽빽하게 인쇄는 아니된다。 〃켈러〃양의 친구로서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캄캄한데 앉아서 책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볼 때이다

맹인을 위한 제일 편리한 것은 점자인데 너무 지나치게 종류가 많다。 영국판、 미국판 또한 〃뉴욕〃판이 있다。 〃켈러〃양은 그 전부를 읽는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 받은 맹인들은 어러 종류의 것를 읽을줄아나 사실은 혼동되기 쉽다。 그러므로 〃켈러〃양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일반으로 영국판을 채택하면 상당히 수고를 덜게 될 것이다、 이책 二十五페이지에 있는 사진판(凸版)은 점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각 글자(그것은 글자 또는 점자를 합한 것을 축소한 것이다)는 장소를 빠구어 가며、 여섯 군데의 위치를 표시하는 수로서 일조(一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켈러〃양은 점자를 쓰는 기계로서 기록을 남겨 두거나 또는 그외 맹인친구들에게 편지를 쓴다。 여섯개의 키ー가 있는데、 동시에 여러가지 키ー를 누르므로(피아노의 여러 키ー를 눌러서 한 소리를 내는 모양으로) 두꺼운 종이에 한번에 한 글자를 쓰는 것인데、 그 속도는 타이프라이터의 반쯤되는 것이다。 점자기는 단벌의 원고를 쓰는데 특히 유용하다。

맹인을 위한 책들은 그 수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한 책을 박자면 비용이 많이 들며、 또한 출판자에게 수지를 맞출 만큼 판매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맹자용 책은 비용을 지출하는 몇개의 단체가 있다。 〃켈러〃양은 보통 다른 맹인들 보다는 행운이다、 왜냐하면 그의 친절한 몇 친구들이 그를 위하여 책을 박아주었으며、 특히 〃펜실바니아〃맹아학교에 있는 〃E・E・엘렌〃씨 같은 분은 여러번 〃헬렌〃이 필요로 하는 책을 박아 주었다。

〃켈러〃양은 일반으로 빨리 읽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읽는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보

는 것처럼 빨리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또한 잘하는 정신적 습관이 있다。 어떠한 글에 취미가 나면 또는 어떠한 글을 앞으로 쓰려고 기억하려 할 때는 그것을 빨리 그의 바른편 손가락에다 옮겨 놓는다。 어떠한 때는 이와 같이 하는 손장난을 무의식적으로 한다。 "켈러" 양은 손짓으로 자기도 모르게 홀로 말하는 적이 많다。 큰방을 홀로 여기저기 걷거나 노대를 홀로 거닐 때는 그의 손은 새 날개와 같이 흔들린다。

내가 듣기에는 시각、 청각、 기억이나 마찬가지로 촉각 기억이 있다는 것이다。 "설리반" 여사는 "켈러" 양은 그가 이야기한 것을 「손가락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켈러" 양이 어떠한 문장을 수화문자(手話文字)로 쓰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여러번 들어서 그 소리를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그의 마음에 남는다。

귀가 먹거나 눈을 못보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켈러" 양은 보통 이상의 정도도 후각에 의존한다。 "켈러"가 어릴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냄새를 맡아서 특수한 냄새로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으며、 누구의 집을 지나가는지를 알았다。 그의 지력이 발달하자 그는 후각에 의지하게 되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후각으로 물건을 구별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의 후각은 상당히 퇴보하였을 것이나 귀가 먹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켈러" 양의 예민한 후각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나 물건을 특별한 후각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또한 누가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알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이상하게 발달된 것 같다。

세상사람들이 가끔 〃켈러〃양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위「제 육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미묘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할 수 있다。 즉 그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 같지도 않으며、 또한 특별한 감각을 가졌다는 것을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명백히 하지 않는다。 〃켈러〃양은 정체 불명한 어떠한 신비한 학설의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를 설명하려 하는 것은 확실히 그의 정상을 생각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도 신비한 것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다。 그가 말하는 전부、 그가 행동하여 온 전부는 어떠한 인간에 있어서든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직접으로 설명안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증명치 못하는 물체가 없는 영혼의 생래관렴(生來觀念)、 영혼불멸 등을 증명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철학자들은 그가 어학을 배우기 전에 추상적 개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려 하였다。 그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확실히 지금에와서는 그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당시의 기록이 없었다。 그는 그의 평소에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신(神)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그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훌륭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특수한 기능으로 발달되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일곱살 때부터 시계를 가지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켈러〃양은 다른 사람이 준、 시계를 두개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들은 미국에서도 특수한 것일 것이다。 이 시계는 그 뒤 껍데기에 금으로 만든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왼편으로부터 바른 편으로 마

음대로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돌리면 시계 내부에 장치하여 놓은 핀이 있어 그것과 맞닿아 고정이 되어 시간을 나타내는 바늘과 합하는 것이다。 또한 뒤 껍데기에는 열한개의 두드러진 표가 있는데。 그것이 열한시까지를 가리키며、 이 금으로 만든 지침의 출발점이 열두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통 보는 사람에게 흰 표면이 있는 시계 대신에 이 지침이 있고、 두드러진 점이 있는 것이 맹인에게 시간을 알리어 주는 것이다。 한표로부터 다른 한표 사이에는 반인취의 간격이 있는데、 이것이 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치로서 〃켈러〃는 거의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다。 케이스 두개로서 보석이 안다치게 하고 촉각만 훈련하면 맹인도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켈러〃양의 성격의 특징은 잘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장황히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분별력이 좋고、 유ー모어가 있고、 상상력이 강하므로 그의 세계를 정상적으로 또한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사람도 그의 환상을 간직하게 한 사람도 없었으며、 또한 깨뜨리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가 어렸을 때에 그를 위하여 현명치 않고 쓸데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던 것은 〃설리반〃 여사의 현명한 감독의 덕택이다。 지금은 그가 성장을 하였으니、 누구든지 다른 재주 있는 젊은 여성에 대하는 것보다 덜 솔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의 친구 〃촬스·D·와ー너〃씨가 一八九六년에 〃하ー퍼스〃 잡지에 그에 대하여 쓴 것은 그때도 사실이었지마는 오늘날에도 적절한 말이다。

『나는 그를 아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에 대한 세상은 그의 마음 같은 것이다。 ー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는、 즉 의분(義憤)을 느끼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였다。

「얼마 전에 한 경관이 〃켈러〃가 일상 같이 데리고 다니는 개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의 용서하는 마음 의에는 그 경관을 저주하는 마음이 없었다。 「만일 그 개가 얼마나 좋은 개인 줄 알았더라면 그는 그 개를 죽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주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라고 말하였다。

물론 이러한 질문이 일어날 것이다。 즉 〃헬렌〃이 악의 지식으로부터 수호를 받지 않았다한들 그는 오늘과 같은 〃헬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여자의 마음은 약하고 어리석은 문학으로 말미암아 여성적으로 되지 않고 야비한 것을 암시하는 문학으로 악하여 지지도 아니하였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결하다。 그는 고상한 사물、 고상한 사상、 고상한 남녀의 성격과 사랑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는 아직까지도 어린이 모양으로 비극을 싫어한다。 그의 상상력은 어찌나 강한지 이야기의 환상에 완전히 떨어져서 그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설리반〃여사는 一八九一년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어제 〃촬스〃와 〃메리·램〃이 쓴데도 「막베스」를 읽어주었다。 그는 매우 흥분하여 「무섭습니다。 나는 떨립니다。 하였다。 조금 생각하더니 그는 부가하여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열부터 그렇게 〃쉐익스피어〃가 무섭게 만들었지요」 하였다。』

현세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좋은 것을 더 많이 알고 악한 것을 멀 아는 것이다。 그의

선생은 조그마한 불행한 것으로 그를 괴롭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지내온 큰 곤난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또한 같이 고통을 겪었으며、 또한 그 어려운 문제에다 그의 마음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는 논리적이고 관대하며、 자기를 친절히 대하여 주는 이 세상을 가장 신임한다。

어떠한 때에 누가 사랑을 정의하라고 하였더니 그는 『아! 그야 쉽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느끼는 것이지요』하였다。

그가 그의 친구 〃로렌스·헛튼〃 부인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관대하다는 것은 마음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전차에서 균형을 취하려 할 때 요구되는 것과 같이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는 크고 관대한 동정과 절대로 공명정당한 성품을 가졌다。 다른 사람과 주목이 될 만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인습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어떠한 은유(隱喩)를 가지게 되면、 사람에게는 회화에 있어서 지나치다고 생각할만한 것을 그는 거리낌없이 하늘 꼭대기까지라도 끌어 올릴마한 용기를 가졌다。 그는 사실이 얼마나 평범하든지 그러한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유쾌한 사실이 있으면 재치있게 돌리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치않게 하는 것이다。 그가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여러모로 주의하여 주었으나 자기 자신을 그다지 중대하게 취급치 않게 하였다。 때로는 그는 엄숙한 태도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를 고칠 수 없는 조그마한 설교가라고 부른다。 그는 스스로 웃어 버린다。

그러나 가끔 그의 교육적인 말은 웃어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끌려 들어간다。 그의 이야기에는 조금도 고의로 말을 만드는 것이 없다。 그의 뜻하는 것은 언제나 철저하므로 그가 인용하는 것이든지、 또는 그가 읽은 것을 반영하거나를 막론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독창적인 것으로 들리는 것이다。

그의 논리와 동정은 훌륭한 균형을 유지한다。 그의 동정은 빠르고 누구에게나 봉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행히도 그가 가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의 동정은 개인적인 것을 초월하여 그로 하여금 정치적、 국가적 운동에 대한 의견을 만들게 한다。 그는 〃보어〃에 찬성하여 〃보어〃 독립을 지지하는 논문을 썼던 것이다。 그도 그 조그마한 용감한 백성들이 굴복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의 얼굴에는 구름이 끼었으며、 몇분동안 침묵을 지키게 하였다。 그 다음에는 항복조건에 대하여 명석하고 심각한 질문을 하면서 그것들을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대학교육을 준비시킨 그의 교사인 〃길만〃씨와 〃케이도〃씨는 두분이 다 그 여자의 건설적 추리력에 감복하였으며、 좋아하지 않았으나、 순수 수학에도 우수하였다。 그의 환상적 또한 상상적 작품을 제외하고 그의 제일 우수한 글로는 학교시험제도와 학문적 문제에 관한 논설이 있으며、 또한 어떠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쓴 편지이며、 그것들은 온건한 열정이 강요한 정밀한 사고(思考)방식의 표본들이다。

그는 낙관주의자이였으며、 또한 이상주의자였다。

그의 어떠한 편지에서 『나는 L이 너무 지나치게 실제적이 아니면 좋겠다。 왜냐 하면 만일 그가 그렇다

하면 그는 많은 쾌락을 잊어버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가 〃뉴욕〃에 있는 〃라이트·휴마슨〃학교에서 쓰던 일기에 一八九四년 十월 十八일 날자로 다음과 같이 썼다。『나는 학교생활에서 아니 인생에서 네가지의 배울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 조바심을 하지 않고, 즉 혼돈이 없이 명석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최선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또한 주저없이 사랑하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사뮤엘・그리들리・하우〃박사가 〃라우라・브리즈만〃의 손가락을 통하여 그 여성의 지성을 지도하게된 것을 알게된 이후 지금 육십오년이 지나갔다。 〃라우라・브리즈만〃과 〃헬렌・켈러〃의 이름은 늘 같이 연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리반〃선생의 이야기를 쓰기 전에 〃하우〃박사가 그 제자에게 무엇을 하였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우〃박사는 위대한 선구자로 〃설리반〃선생과 그외의 맹아교사들이 직접 그 박사의 업적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사뮤엘・그리들리・하우〃박사는 一八〇一년 十一월 十일 〃보스톤〃에서 출생하여 一八七六년 一월 九일 〃보스톤〃에서 별세하였다。 그는 위대한 박애가로 정신박약자、눈먼 사람들、귀머거리 등의 모든 불구자의 교육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시대를 훨씬 앞서서 그는 빈약한 사람들、병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회적 정책을 쓰자고 주장하였다。 그 주장 때문에 그는 당시 냉소를 받았던 것이나 그후에 그러한 정책이 많이 시행하게 되었다。 〃퍼킨스〃맹아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에 〃라우라・브리즈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一八三七년 十월 四일에 그 학교에서도 데려오게 하였다。

〃라우라·브리즈만〃은 一八二九년 十二월 二十一일 〃뉴함솨어·한오버〃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그 여자를 실험하기 시작할 때는 〃브리즈만〃은 거의 여덟살이였다。 생후 이십육개월에 홍역으로 그는 시각과 청각을 상실하였다。 그는 또한 후각과 미각까지도 잃어버렸다。 〃하우〃박사는 실험과학자이였으며、그의 정신에는 〃뉴ㅣ잉글랜드〃의 초경험주의와 겸하여 그 철학의 큰 신념과 큰 자비심이 있었다。 과학과 신념은 그로 하여금 〃라우라·브리즈만〃의 정신으로 가게 하였는데、그 정신은 〃브리즈만〃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게나 있는 것과 같이 그 여자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의 계획은 점자로 〃라우라〃를 가르치려 하였던 것이다。 그는 점자로 쓴 물건의 이름을 물건에다 붙여놓고 그 글자와 물건 또한 물건과 글자를 만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점자와 물건을 연락시키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말에 의하면 개가 어떠한 재주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이와 같이 한 다음에는 그 말(單語)을 글자로 즉 「열、쇠」 또는 「모、자」 등으로 분해하였다。 그의 성공은 그로 하여금 언어가 활자를 통하여 맹아인의 마음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믿게 하였는데、그 맹아인들은 교육을 받기 전에는 말을 아직 배우지 못한 어린이의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러한 상태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 왜냐 하면 맹아인들의 뇌는 자연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우라〃의 교육이 점자만을 통하여 이개월간 진보한 다음에 〃하우〃박사는 그 교원 한사람을 파견하여 맹아인에게 수화문자(手話文字)를 배우게 하였다。 그 여자 교원은 수화문자를 〃라우라〃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때부터 〃라우라〃와의 통화수단은 수화문자이였다。

일 이년이 지나간 다음에 〃하우〃박사는 〃라우라〃를 직접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원들에게 넘겨주었는데、그 교원들은 〃하우〃박사의 지도하에 〃라우라〃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었다。

〃하우〃박사의 업적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찬양을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연구자로서 그는 언제든지 과학가의 태도를 지켰다。 그는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 모양으로 〃라우라·브리즈만〃의 하는 일에는 기록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그 여자에 대한 기록은 조직적이고 또한 용의주도한 것이다。 과학적 입장에서 본다 하면 〃헬렌·켈러〃의 발달을 완전하게 기록에 남기지 못한 것은 유감천만이다。 이 자체에 〃라우라·브리즈만〃과 〃헬렌·켈러〃간의 차이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라우라〃는 언제든지 호기심에 찬 연구의 대상이었다。 〃헬렌〃은 급속도로 특수한 인격자가 되어서 그 선생은 그의 연구 대상이 되기 위하여서는 숨도 못쉴 정도로 쫓아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따라서 그 선생은 과학적 연구를 할 시간도 없었으며、또한 기력도 없었던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불행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설리반〃선생은 〃헬렌〃은 〃라우라·브리즈만〃보다 더 재미 있고 성공성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그의 편지 중에서 그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성질과 능력으로는 〃켈러〃를 실험이나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어떠한 실험이 곧 달성되는 것도 하니며、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명확히 그 실험결과를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그 결과를 기록하는 일은 사실자체와 또한 앞으로 준비될 실험에 비하면 중대하지 않았다。 그외에 〃설리반〃선생의 기록이 완전치 아니한데에는 두가지의 이유

가 있다。 첫째는 글을 쓴다는 것은 〃설리반〃 선생에 대하여 부담이 너무나 컸으며、 둘째는 그가 제공한 것을 부정확하게 발표하기 때문에 실망하였던 것이다。

그가 〃하우〃 박사의 사위였고、 〃퍼킨스〃 학교의 후계자이었던 〃미카엘·아나그노스〃 씨에게 그 제자가 하는 일을 기록한 편지를 썼더니 〃보스톤〃 신문이 〃헬렌·켈러〃에 대하여 과장한 기사를 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설리반〃 선생은 항의를 제출하였다。 그가 〃헬렌·켈러〃를 교육하기 시작한 五주일 후、 一八八七년 四월 十일 그는 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 헬렌〃에 관하여 옳지 못한 기사를 실은 〃보스톤·렌탈드〃지를 일부 보내주시요。 〃헬렌〃은 이미 「유창하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수운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두살먹은 어린이가 「나 능금」、 어린이 가거라」하는 것을 보고 유창히 말한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 어린이가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하고、 울고 벽석하여、 가끔 발길질을 하는 것까지를 그말에다 포함한다 하면 그의 말은 유창하다는 것보다는 웅변적이타고까지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맡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내가 힘들여 노력하였다는 기사를 읽으면 감사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칭찬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一八八八년 三월 四일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사실상 〃헬렌〃과 나에 대하여 쓰고 말하는 것을 다 모르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바깥 소문이 어떻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우편물이 올 때마다 인쇄가 되었거나 글씨로 썼거나 막론하고 우수

운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사실은 신문에 쓰일만한 지사거리가 못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숩게도 침소봉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문은 〝헬렌〟은 나무조각으로 장난하는 것을 가하문제를 푼다고 보도하였읍니다。 나는 다음에는 〝헬렌〟이 유성의 기원과 미래에 관한 논문을 썼다고 할는지도 모릅니다。』

一八八七년 十二월에 〝헬렌〟에 관한 〝퍼킨스〟교장의 첫번 공개보고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의 설명을 〝아그노그스〟씨가 요구하였기 때문에 싫기는 하였지마는 〝설리반〟선생이 그의 기록을 제공하였다。 이 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몇록의 편지가 〝헬렌〟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대하여 〝설리반〟선생은 一八八七년 十월 三十일 편지에서 다음와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보고서를 실은 신문을 보시었읍니까? 〝아나그노스〟씨는 그보도가 맘에 들었읍니다。 그는 〝헬렌〟의 진보는 「처음부터 개선적 행진」이라 하였읍니다。 또한 그는 그의 선생에 대하여 여러가지 칭찬하는 말을 하였읍니다。 나는 그가 너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의 문장은 너무나 화려하고、 평범한 사실이라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이 기술적이였읍니다。 말할것도 없이 과거 수주일 동안의 일은 그에게는 개선적 행진 같이 보일 것입니다마는 그것만으로서는 사람들은 차츰 남모르는 고난에 찬 계단을 일보 일보 밟는다는 것을 거의 보지못하는 것입니다。』

〝아나그노스〟씨는 맹아학교의 교장이였으므로 〝설리반〟선생의 정확한 의견보다는 〝아나그노스〟씨가 말한것이 더 큰 반향을 일으킨다。 신문도 〝아나그노스〟씨의 말에 의하여 너무나 과장을 하였다。

〃설리반〃 선생이 〃헬렌·켈러〃와 같이 일년이나 지냈을 때 그는 자신과 그의 제자는 우습게도 평장한 소설의 중심인물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 다음에는 전 세계의 교육가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댔으나 그러한 것들이 더욱 사태를 혼란시켰으며、많은 시비가 일어났다。그것들을 지금 회상하여 보아도 형편 없이 엉뚱한 말을 예사로 했던 것이다。귀먹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선험적(先驗的)으로 〃설리반〃 선생이 말한 것은 현실 불가능한 것이라 하여 동여사가 말한 것을 어느정도 신임치 않는 일도 있었다。왜냐하면 〃아나그노스〃씨의 문장이 고의로 모호하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까닭에 〃헬렌·켈러〃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하여지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나、불행히도 과장하여 선전되었기 때문에 자연 무지한 사람의 맹신(盲信)을 받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불신하는 적개심까지 받게 되었다。

一八八八년 十一월에 재차 〃퍼킨스〃학교의 보고서가 〃설리반〃 선생의 기록과 같이 발표되었고、그 다음 〃아담스〃씨 최후의 〃퍼킨스〃학교 공개 보고서가 一八九一년에 발표될 때까지는 아무 발표가 없었다。一八九一년의 보고서에는 〃설리반〃 선생은 전의 어떠한 것보다도 충실하고 긴 기사를 썼으며、후에 더 상세히 이야기할 「서리왕」이 이 보고서에 게재되어 있다。그러자 시비는 이전보다도 더 맹렬하게 되었다。

〃설리반〃 선생은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헬렌〃에 관하여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묵을 지키기 시작하여 〃헬렌·켈러〃에 관하여 〃뉴로·수베니어〃에 쓴 기사와 一八九四年 〃샤우토카〃에

서 전국농자회화교육촉진대회(全國聾者會話教育促進大會)에 보낸 논문을 제외하고는 십년간 침묵을 지켰다. 〃벨〃 박사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가 아는 것을 쓰는 것은 교육을 위하여 당연하다고 말하면 〃설리반〃 선생은 매우 정당하게 그의 시간과 에네르기는 전부 그 제자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이다.

〃설리반〃 선생은 모든 사람들이——친구들까지도 — 자기와 〃헬렌·켈러〃에 관한 출판물에서 착오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켈러〃가 책을 쓸 때에도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켈러〃를 교육한지 첫해에 쓴 편지에서 발췌한 것을 출판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편지는 〃소피아·C 홉킨스〃 여사에게 쓴 것인데, 그는 〃설리반〃 선생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 〃홉킨스〃 여사는 〃퍼킨스〃 학교의 사감이었고 〃설리반〃 선생이 그 학교 재학시에 그 여사는 〃설리반〃 선생에 대하여서는 친어머니와 같이 생각하였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설리반〃 선생이 주일마다 한 일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의 기록이 일반에 알리게되자 상세한 것은 동학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여러사람들은 그의 교육에서 만일 그 결과에서 찾아낼 수 없다면——법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 편지들을 보면 〃설리반〃 선생은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명석하게 분석하고 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자기의 일을 스스로 비판하였다. 자기는 아무 특별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지마는 실은 확실히 자기의 방법을 인식하고 불구자인 귀머거리를 교수하는데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육적 원칙을 배우고 있으며, 또한 독특한 말로 그 원칙을 기록하였다. 그 부인의 편지와 기록으로부터의 발췌는 교육학에 [illegible]

대한 공헌이 되는 것이며, 〃쫀스·홉킨스〃 대학 총장으로 재직한 당시 一八九三년에 〃다니엘·C·길만〃 박사가 발표한 다음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당신이 훌륭하게 제자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당신이 취한 여러가지 방법을 재미있게 기록한 것을 읽었읍니다.… 당신의 방법을 지도한 당신의 지혜와, 그것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된 극진한 애정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맨스필드·설리반〃 양은 〃마사츄셋스·스프링필드〃에서 출생하였다. 아주 어렸을 때에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一八八〇년 十월 十일 十四세 때에 〃퍼킨스〃학교에 입학하였다. 그후 그는 다소 시력을 회복하였다. 一八八七년 〃아나그노스〃씨는 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여자는 가장 기본적인 점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장 시초부터 성공을 확약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결국 그는 용감하게 노력하여, 훌륭한 교양을 갖게 되었다. 〃하우〃박사가 한 금과 같이 귀중한 말과 그 남겨놓은 실례는 그 여자의 마음깊이 간직되어 불행한 사람들을 그 여자로 하여금 도와주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게 하였다. 지금 그 여자는 그의 가장 갈망하던 사업의 유능한 후계자로서 그의 옆에 일하게 되었다.…… 〃설리반〃양의 재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一八八六년에 그 여자는 〃퍼킨스〃학교를 졸업하였다. 〃켈러〃 대위가 그 학교장에게 교원 한사람을

청하였을 때 〃아나그노스〃 씨는 〃설리반〃 양을 추천하였다。 그가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은 〃켈러〃 대위가 편지를 쓴 一八八六년 八월부터 一八八七년 二월까지의 짧은 기간이었다。 이 기간에 그는 〃하우〃 박사의 보고를 읽었다。 그는 六년동안 학교에서 〃라우라·브리즈만〃과 같이 지내였기 때문에 이 일에 도움이 되었다。 〃설리반〃 양의 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우〃 박사가 〃라우라·브리즈만〃에게 행한 방법과 같지만, 눈멀고 귀먹은 사람에게 말을 가르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은 〃설리반〃 양이었다。

〃설리반〃 양이 일체의 타인의 원조 없이 자기 힘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헬렌·켈러〃와 일을 한 첫해에 그는 그 제자에게 언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그들은 〃터스컴비아〃에 있었다。 그들이 〃퍼킨스〃 학교에 있었을 때도 〃헬렌〃은 정규의 학생도 아니었고 또한 정규의 훈련도 받지 않게 되어 있었다。 〃설리반〃 양이 〃아나그노스〃 씨의 지도하에 〃켈렌〃을 교육하였다는 인상은 착오이다。 삼년 동안에 〃켈러〃와 〃설리반〃 양은 퍼킨스〃 학교의 손님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곳의 교원들은 〃설리반〃 양을 도와주지 않았고, 〃아나그노스〃 씨는 통화의 수단으로 수화법(手話法)을 쉽게 쓰지도 못하였다。 〃아나그노스〃 씨는 一八八八년 十一월 二十七일부의 퍼킨스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의 요구에 의하여 〃헬렌〃은 그 어머니와 선생을 동반하여 五월 하순에 도착하여 여러달 우리 학교에서 지내었다。…… 우리는 그들이 기꺼이 우리의 점자도서관, 박제한 동물, 조개껍질을 모아놓은

것, 꽃과 식물의 모형 등 촉감을 통하여 맹인들이 교육을 받도록한 설비들을 자유로 쓰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 여자는 분명히 그러한 것으로부터 적지않은 도움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헬렌"이 집에 있거나 미국의 다른 지방을 여행을 하든지 막론하고 그 여자의 교육은 그의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있는 것이다。 아무도 "설리반"양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의 과업에 참여도 아니한다。 그의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단 방법은 택함에 완전한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결과로 보면 그는 그 특전을 가장 적절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여 왔다。 그 어린 제자가 지금까지 훌륭히 달성된 진보는 세상이 잘 아는 것이며、 그 여자의 훌륭한 업적은 일반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성공의 자세한 부분을 잘 아는 사람만이 그의 영예는 오직 그 선생의 지성、 지혜、 명랑성、 끊임 없는 인내성、 백절불굴의 의지에 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 어린이를 영원한 암흑과 적막에서 구원했고、 부모와 같은 보호아래 그 제자의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왔기 때문이다。

다음에 "설리반"양의 편지와 보고서로부터의 발췌를 순서대로 기록한다。 나는 다음 각 보고에서 이미 설명되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나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리반"양의 양해를 얻어 일부 문장을 수정한 곳도 있다。 "설리반"양은 어떠한 것은 더 부언하고 또는 수정하고 싶을 것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의 희망대로 되지 않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것은 여태껏 출판된 것 중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번 편지는 동 여자가 "터스컴비아"에 도착하여 사흘 지난 一八八七년 월 六일의 편지이다。

…내가 〃더스컴비아〃에 도착한 것은 여섯서 삼십분이였읍니다。 〃켈러〃 부인과 〃제임스·켈러〃 씨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매일 교대로 정거장에 나왔었다는 것입니다。 정거장으로부터 집까지의 가는 길은 한마일이나 되였는데、 매우 아름다웠읍니다。 나는 〃켈러〃 부인이 대단히 젊게 보이는데 놀랬읍니다。 아마 내 나이 밖에 안되리라 생각되였읍니다。

〃켈러〃 대위는 나를 마당에서 영접하고 유쾌하게 환영하여 다정한 악수를 하였읍니다。 나의 첫 질문은『〃헬렌〃은 어디 있지요?』이였읍니다。 나는 너무 긴장되어서 거의 걸음을 못 걸을 지경이였읍니다。 집으로 가까이 가자 나는 어린이가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켈러〃 대위는『저기 있읍니다。 그는 누가 오시는 것을 벌써 알고 있으며、 그 어머니가 선생님을 맞이하러 정거장에 간 뒤부터는 야단이 났읍니다。』 내가 층계에 가자마자 그 어린이는 어찌나 힘을 주어 내게로 달려왔는지 〃켈러〃 대위가 내 뒤에 서 있지 아니하였던들 나는 뒤로 넘어질번 하였읍니다。 그는 나의 얼굴、 옷、 가방을 만져보고 가방을 내 손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열려고 하였읍니다。 그것이 잘 열리지 아니하니까 주의하여 열쇠구멍이 있나를 찾아 보았읍니다。 구멍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열쇠를 돌리는 모양을 하고 가방을 가리키였읍니다。 이곳에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 가방을 만져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읍니다。 그의 얼굴은 빨개지고 어머니가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더니 듣지 않았읍니다。 나는 그에게 시계를 보여주고 그 손에 들게 함으로써 그의 주의를 끌게 하였읍니다。 그는 곧 성미가 가라앉아서 우리는 같이 윗층으로 올라갔읍니다。 나는 여기서 가방을 열었읍니다。 그는 열심으로 뒤져 보았는데、 아마도 먹을

것을 찾는 모양이었읍니다。 친한 사람들이 과자를 가방에다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가방에도 과자가 있는 줄 믿었던 것같읍니다。 나는 방과 나의 트렁크와 나를 가리키고 또한 나의 머리를 끄덕임으로써 나는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였으며、 또한 그가 먹는 것을 표시하는 손짓을 한 다음에 머리를 또다시 끄덕이었읍니다。 그는 금방 알아듣고 아랫층으로 내려가서、 자기에게 줄 과자가 트렁크 속에 있다고 하였읍니다。 곧 이층으로 올라와서 내 물건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읍니다。 내 모자를 쓰고 한번은 머리를 이편으로 기우뚱하여 보고 다음에는 저편으로 기우뚱 하고 볼 수 있는 듯이 체경을 들여다 보는 것을 보면 재미있었읍니다。 어쩐셈인지 나는 얼굴에 핏기가 없고 연약한 어린이를 만나리라고 예상하였읍니다 아마도 이것은 라우라・브리즈만〃이 처음 〃퍼킨스〃학교에 왔을 때의 모양을 〃하우〃박사가 쓴 것을 읽은데서 온 인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크고 강하며 얼굴이 붉고 어린 말 모양으로 행동에 부자유가 없었읍니다。 그는 앞못보는 어린이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괴로운 신경질이 조금도 없었읍니다。 그의 몸은 잘 균형이 잡혔으며、 〃켈러〃 부인의 말에 의하면、 시각과 청각을 빼앗아간 병을 앓고 난 이후로는 하루도 앓는 일이 없었다 합니다。 그의 머리는 훌륭하였으며、 자세가 반듯하였읍니다。 그의 얼굴은 묘사하기 어렵지만 재주있게 보였읍니다。 감격성이라 할까 혼이라 할는지 그 무엇이 없는 것 같읍니다。 입은 크며 모양있게 다물려 있었읍니다。 단번에 그가 눈을 못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 한눈은 다른 눈보다 크며 눈에 뜨일 만큼 두드러졌읍니다。 그는 별로 웃지 아니합니다。 사실상 내가 온 이후로 한 두번 밖에 웃는 것을 못 보았고、 어머니 이외에는 포옹(抱

擁)에 대한 것은 없었읍니다。 그는 매우 성급하며 고집이 세어서, 그의 형 〃제임스〃 이외에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내가 해결할 제일 어려운 문제는 그의 원기를 꺾지않고 어떻게 그를 훈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서이 그의 마음에 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힘으로만 그를 설복시키려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모든 것을 이해시키려는 방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헬렌〃의 쉬일사이 없는 활동입니다。 그는 한번이라도 가만이 있지를 못합니다。 사면을 돌아다니며, 무엇이나 손을 아니 대는 것이 없으나, 그의 주의를 오래 끄는 것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불쌍한 어린이여! 그는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암흑속을 헤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에나 만족지 못하는 손은 그 소용되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읍니다。

그는 트렁크가 왔을 때에 그것을 도와서 풀어 주었으며, 어린 여자들이 보낸 인형을 보고 좋아하였읍니다。 나는 이것이 그에게 첫말을 가르쳐 주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읍니다。 나는 천천이 「이ㄴ혀ㅇ」이라고 그의 손에다 쓰고 인형을 가르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었읍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였읍니다。 언제든지 누가 그에게 무엇을 주면 그는 그 물건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가리키고 머리를 끄덕거리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된 셈인지 모르고 나의 손을 만졌읍니다。

그래서 그 인형이란 말을 반복하였읍니다。 그는 그 글자들을 잘 배운 다음에 인형을 가리키었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인형을 나의 손에다 옮기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인형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인형을 돌려줄 생각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 인형을 자기로부터 빼앗으려는 것으로 알고 곧 화를 내고는 인형을 움켜 쥐려 하였읍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고 그의 손가락으로 인형이라는 글자를 쓰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욱 성이 났읍니다。 나는 그를 의자에다 앉히고 내 힘을 다하여 그를 붙잡고 달랬읍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아무 쓸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읍니다。 나는 그를 마음대로 하도록 두었으나 인형은 아니주었읍니다。 아랫층으로 내려가서 케이키를 가져왔읍니다。 〃헬렌〃은 단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케이키를 만지게 하고 손에다 「케이키」라고 써 주었읍니다。

그를 향하여 그 케이키를 들고 있었읍니다。 그는 물론 그것을 원하였으므로 가지려 하였읍니다。 그러나 나는 글자를 다시 쓰고 그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읍니다。 그는 글자를 속히 썼으므로、 나는 그것을 그에게 주었읍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는 내가 그것을 또 빼앗을 줄 알고 빨리 먹었읍니다。 나는 내가 케이키를 들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형을 그에게 향하여 들고 그 글자를 썼읍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는 「이 혀」라 썼읍니다。 나는 「형」이라고 고친 다음에 그에게 인형을 주었읍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아랫층으로 내려간 뒤로 그날은 나의 방으로 올라오지 않았읍니다。

어제 나는 그에게 카—드 꿰매는 일을 시켰읍니다。 나는 카—드들을 직선으로 놓고 그것들에 조그마한 구녁들이 있는 것을 만지게 하였읍니다。 그는 금방 그 카—드들을 제대로 잘 꿰맸읍니다。 나는 또한

글자를 가르치려 하였읍니다。 그래서 「카ㅡ드」라고 썼읍니다。 그는 「카ㅡ」를 쓰더니 중지하고 생각하다가 먹는 형용을 하면서 아랫층을 가리키고 문을 향하여 나를 떠밀었읍니다。 물론 나보고 아랫층에 내려가서 케이키를 가져오라는 뜻이었읍니다。 「카ㅡ」라는 그 글자는 〃헬렌〃에게 금요일에 가르쳐 준 「카ㅡ」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서도 그에게 과자를 연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읍니다。 나는 케이키라는 글자를 쓰고 그것을 갖다 주었더니 그는 대한히 기뻐하였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인형」이라 써주고 그것을 찾는 척하였읍니다。 〃헬렌〃은 손으로 나의 거동을 살핍니다。 그리하여 〃헬렌〃은 내가 인형을 찾고 있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는 인형이 아랫층에 있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였읍니다。 일전에 그가 나에게 과자를 갖다주었던 때와 같이 문을 향하여 밀어주었읍니다。 그는 나가려 하더니 잠시 주저하며 갈가말가 망서리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를 아랫층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 같읍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더 힘있게 「이ㄴ혀ㅇ」이라는 글자를 써 주고、 문을 열어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를 않았읍니다。 그는 아직도 과자를 먹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것을 빼앗고 인형을 가져오면 돌려 주겠다는 표시였읍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우두커니 서 있었읍니다。 그러나 과자를 먹으려는 욕심에 빨리 아랫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인형을 가져왔읍니다。 물론 나는 과자를 돌려주었읍니다。 그러나 그방에 다시 들어 오라고 권할 수는 없었읍니다。

오늘아침 이 글을 쓰고있을 때 그 때문에 대단히 귀찮았읍니다。 내 뒤로 와서 종이 위에다 손을 놓았나 잉크병에다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 오점이 있는 것은 〃헬렌〃의 장난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구슬을 실에 꿰도록 하였읍니다。 나는 나무로 만든 구슬 두개를 꿰인 다음에는 유리로 만든 구슬을 꿰어가지고 〃헬렌〃에게 보여주고 실과 두가지 구슬이 들은 상자를 만져 보게 하였더니、 고개를 끄덕거리고 곧 시작하여 실에다 나무구슬만 꿰었읍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고 그것을 다 빼어버리고 나무구슬 두개와 유리구슬 한개를 꿰어 만져보게 하였읍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꿰기 시작하였읍니다。 이번에는 유리 구슬을 먼저 꿰고 나무구슬 둘을 나중에 꿰었읍니다。 나는 그것을 다 빼고 나무 구슬 둘이 먼저오고 유리구슬이 나중 온 것을 보여 주었읍니다。 이번에는 아무 곤난이 없이 빨리 꿰었읍니다。 다 끝나자 양 끝을 매어 목에다 걸어 주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실 한끝을 옭매지를 아니하였읍니다。 그래서 구슬은 꿰는 대로 빠져 달아났읍니다。 그리하였더니 〃헬렌〃은 한끝에다 영리하게도 구슬을 하나 옭매었읍니다。 때때로 실줄을 내게 보이는 듯이 고개를 들면서 저녁때까지 구슬을 가지고 놀았읍니다。

나의 눈은 매우 피곤합니다。 나는 이 편지가 대단히 두서없이 쓰여진 것도 잘 압니다。 나는 쓸 것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하고 당황하였읍니다。 나의 편지를 될 수 있으면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헬렌〃과 굉장한 싸움을 하였읍니다。 물론 나는 언제나 강제라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나、나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헬렌〃이 식사할 때의 예법이란 전혀 몰랐읍니다。 〃헬렌〃은 우리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고、먹는 큰 접시가 돌아 오면 손으로 자기가 먹고싶은만큼 집어내는 것이었읍니다。 오늘아침 나는 내밥그릇 위에다 손을 올려놓지 못하게 하였다고 〃헬렌〃은 고집을 부렸읍니다。 같이 먹던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나가버렸읍니다。 나는 식당문을 잠갔읍니다。 그리고 나는 아침밥을 계속해서 먹으려 하였으나 음식이 목에 걸려서 잘 넘어가지 않았읍니다。 〃헬렌〃은 마루바닥에 누어서 내가 앉은 의자를 끌어내려고 발로 차고 쾅쾅 소리를 내면서 굴러 돌아다녔읍니다。 〃헬렌 은 이런 짓을 한 반시간동안이나 계속하고 나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일어났읍니다。 나는 내가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읍니다마는 내 밥 그릇위에다 손은 못 대게 하였읍니다。 헬렌 은 나를 꼬집었읍니다。 그럴때마다 나는 그를 때렸읍니다。 그다음 그는 식탁에 누가 있나 하고 빙빙 돌아다니었읍니다。 그리고 나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좀 당황한 모양입니다。 잠시 후 그는 자기 자리에 돌아와 손가락으로 그의 아침밥을 먹기 시작하였읍니다。 나는 그에게 스푸ㄴ을 주었으나 그것을 그는 마루바닥에다 던져버렸읍니다。 나는 그를 강제로 의자에서 끌어내려 그것을 줍게 하였읍니다。 가까스로 그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그의 손에 스푸ㄴ을 쥐어주고 그 스푸ㄴ으로 음식을 먹게 하였읍니다。 잠시후 〃헬렌〃은 조용히 아침식사를 끝냈읍니다。 그다음 우리는 그의 나프킨을 접는데 있어서 또 한번 싸움을 했읍니다。 그는 식사가 끝나면 그것을 마루에다 내던지고 문으로 달려갑니다。 문이 잠긴줄 알면 그는 문을 차고 소

리를 지르고 야단 법석입니다。그의 나프킨을 접게 하는 데까지 또 한 시간이 걸렸읍니다。그 다음 나는 그를 따뜻한 햇빛속에 내보내고 내방에 돌아와 침대위에서 지친 몸을 쉬고 나는 실컨 울고난 뒤로 좀 기분이 시원한 듯하였읍니다。나는 내가 그에게 가르칠 수 있는 단 두가지 근본적인 것、즉 복종과 사랑을 〃헬렌〃이 배울 때까지에는 이 작은 여자와 이와 같은 싸움을 여러번 해야 하겠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동무여、걱정하지 마시요、나는 내 최선을 다 하겠읍니다。〃켈러〃부인은 참 좋은 분입니다。

월요일 오후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쓴 후부터 〃헬렌〃과 나는 그의 본집에서 약 자분지 일 마일 가량 떨어진 조그마한 집에서 둘이서만 살고 있읍니다。〃켈러〃씨의 저택인 〃아이뷔·그린〃에서는 얼마 안걸린 짧은 거리에 있읍니다。나는 〃헬렌〃이 그의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곧 알았읍니다。그 가족은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허락하여 줍니다。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인들에게 또한 그와 같이 노는 어린 흑인에게까지도 난폭한 행동을 했읍니다。때때로 그의 형인 〃제임스〃가 내가 오기 전에 그를 꾸짖은 모양입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말리지 않았읍니다。모든 폭군들이 하는 모양으로 그는 하고싶을 때는 언제나 그의 신성한 권리라도 행사하듯이 마음대로 굴었읍니다。만일 그가 하고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그의 신하들에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시키지 못한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든다는 표시는 감정적인 폭발입니다。그리고

그가 자랄수록 이러한 벼락을 내리는 것이 점점 심하여졌읍니다。 내가 〃헬렌〃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을 때 나는 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었읍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나쁜 결과로 끝나는 것이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읍니다。 나는 그를 달래거나 타협할 수가 없었읍니다。 가장 간단한 일, 즉 머리를 빗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구두의 단추를 끼운다든지 하는 일까지도 자기손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것이 필요했읍니다。 따라서 곤난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읍니다。 그 가족은 자연히 이런것을 간섭하려고 하였읍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헬렌〃이 울고 소리지르는 것을 참지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었읍니다。 그 위에 그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연상은 전부 나의 입장을 불리하게 하였읍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복종하게 될 때까지는 그에게 말을 가르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읍니다。 나는 이것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였읍니다。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종은 지식으로 통하는 문간이라는 생각과 또한 사랑 역시 이 어린이의 마음을 끄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이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한 생각이 떠올랐읍니다。 그것은 나의 작은 제자에게 만일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보통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의 신임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이의 마음에 가까이 하는 모든 보통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읍니다。 그는 내가 해 주는 것이 마음에 들면 당연한 일로 알고 받아들였고 또 기분이 나쁠 때는 그를 쓰다듬어 주는 것까지도 거절하였읍니다。 따라서 그의 애정이나 동정 혹은 칭찬하는 어린이

의 마음같은 사랑으로는 그에게 호소할 수 없읍니다. 즉 그는 하고싶거나 안 하고 싶은 것 둘 밖에는 없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위하여 공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여 행동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읍니다 다만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무엇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즉 아는 힘 그리고 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의 절실한 요구를 보여줄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켈러〃부인과 솔직한 많은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헬렌〃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설명하였읍니다。 나는 그에게 내 생각으로는 그 아이를 적어도 서너 주일 동안이나마 그 가족과 떨어지게 하고 따라서 내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나를 믿고 나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읍니다。 오랜 후 〃켈러〃부인은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켈러〃대위에게 물어봐야 하겠다고 말했읍니다。 〃켈러〃대위는 곧 승락했고 옛터에 작은 정원과 집을 우리를 위해 마련하여 주었읍니다。 그는 〃헬렌〃이 이 장소를 알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헬렌〃이 자주 간 일은 있었으나 그의 주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리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들은 이해심을 가지고 매일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러 올 수 있고 물론 〃헬렌〃은 그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우리의 출발준비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기로 오게 되었읍니다。

이 작은 집은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그 집은 네모난 큰 방안에 큰 벽로(壁爐·Fire place)가 있고, 밖으로 나온 창이 있고 우리들의 하인과 어린 흑인 소년이 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읍니다。 앞에는 노대

(露臺)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넝굴로 덮여지고 그 포도넝굴이 너무 많아서 정원 저편을 볼 수 없게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식사는 집에서 운반되어 늘 이 노대에 와서 먹게 됩니다。 어린 흑인 소년이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불을 피어 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관심을 〃헬렌〃에게 줄 수 있읍니다。

〃헬렌〃은 처음에 크게 놀래어 바보가 된 것처럼 발로 차고 끼ㅣ끼ㅣ 소리를 지르고 했읍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내가 손을 대는 것을 거절하면서도 열심히 밥을 먹었읍니다。 첫날 저녁 그는 그의 인형에 열중하였읍니다。 그리고 잘 때가 되니까 재빨리 옷을 벗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옆에서 잔다는 것을 눈치 챈 그는 저편 쪽으로 뛰어 떨어졌읍니다。 그를 다시 끌어 올릴 수는 없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감기라도 들을가 두려워 하고 그를 강제로 끌어 올렸읍니다。 우리는 무서운 싸움을 하였읍니다。 얘기를 하자면 이 싸움은 거의 두 시간이나 계속되어 겨우 끝났읍니다。 나는 어린이에게 이런 기운과 인내심이 있는 줄을 정말 몰랐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두사람에 있어서는 내가 좀더 기운이 세어서 내가 강제로 끌어 올렸을 때는 가만이 있었읍니다。 나는 마침내 그를 침대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하고 이불을 덮어 주었읍니다。 그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침대 가장자리에 누어 있었읍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좀 얌전해졌으나 당연히 집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는 자꾸 문으로 달려 갔읍니다。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듯이、 그리고 때때로 그는 그의 뺨을 만지는 시늉을 했읍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끔 그에게 해주었던 까닭입니다。 그다음 그는 슬프게 머리를 흔들었읍니다。 그는 보통 때

보다 더 많이 인형과 놀았읍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읍니다. 〃헬렌〃이 인형과 노는 것을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였읍니다. 나는 〃헬렌〃이 인형에게 특별히 친절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인형을 쓰다듬어 주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읍니다. 다만 그는 하루 종일 여러번 인형의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였읍니다. 그리고 마치 그의 어머니나 유모들이 그의 동생을 다루듯이 꼭같이 인형을 취급했읍니다.

오늘 아침 그의 가장 사랑하는 인형 〃낸시〃가 〃헬렌〃이 큰 숟가락으로 우유를 넣어주는데 좀 말성을 부린 모양이어서 〃헬렌〃은 갑자기 그릇을 놓고 인형의 등을 때리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릎 위에 엎어 놓고 가볍게 흔들어 주고 부드럽게 만져주곤 하였읍니다. 이런짓이 한참 동안 계속하였읍니다. 그다음 이 기분이 사라지면 〃낸시〃는 무정스럽게도 마루 바닥에 내던져지고 한 구석에 밀어두고, 그다음엔 큰 빰이 붉고 그 곱슬머리인 인형은 다시 이 작은 어머니의 애정을 받게 됩니다.

〃헬렌〃은 지금 몇마디의 말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모든 것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여간 나는 그가 차차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내가 말하듯이, 〃헬렌〃은 그의 행동이 가벼울 뿐더러 재빠른 동시에 놀랠 만큼 똑똑하고 적극적입니다.

一八八七년 三월 十一일

알라바마·터스컴비아

나의 실험이 꽤 잘되어 간다는 것을 들으면 당신은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헬렌〃과 나는 전혀 아무 걱정이 없었읍니다。 그는 세 개의 새 말을 배웠읍니다。 내가 그에게 이름을 배운 물건을 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이름의 철자를 씁니다。 공부가 끝나면 그는 참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정원에서 한바탕 재미있게 놀았읍니다。 〃헬렌〃은 확실히 그가 황양(黃楊)으로 만든 울타리를 만지자 곧 그가 어디 서 있는 지를 곧 알았읍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표시를 합니다。 그런 표시는 물론 〃아이뵈·그린〃의 가족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틀림없읍니다

나는 대단히 놀랜 어떤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것은 〃아나그노스〃씨가 지난 여름 〃켈러〃 대위의 편지를 받기 전에 〃헬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플로렌스〃의 선생이고 〃켈러〃씨의 친구인 〃윌슨〃씨는 지난 여름 〃하바드〃에서 공부하였고, 그의 친구의 아이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지를 알기 위하여 〃퍼킨스〃학교에 왔었읍니다。 그는 교장인 듯한 한 신사를 보고 그에게 〃헬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읍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신사는 특별히 흥미가 있는 것같지 않고, 다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고 협력하겠다고 만했답니다。 〃아나그노스〃씨가 이 면회에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一八八七년 三월 十三일

내 가슴은 오늘 아침 기쁨에 넘쳐 흐르고 있읍니다。 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해의 광명이 나의 작은

생도의 어두운 마음속을 비춰주었읍니다。 그래서 모든 사정이 변하여졌읍니다。

이주일 전에 난폭한 어린 것이 착한 아이로 변하였읍니다。 내가 글을 쓸 때면 그는 내 옆에 와 앉아 있으며、그의 얼굴은 명랑하게 행복하고 붉은 〃스켓치〃 털실을 들고 긴 코(Chain)를 뜨고 있읍니다。 〃헬렌〃은 이번 주일 바느질을 배웠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난 후에 대단히 자랑삼았읍니다。 그가 짠 코를 길게 지어 방에다 매달아 노았을 때、그는 그의 손으로 만든 처음 일에 손을 뺨에다 대고 기뻐하였읍니다。 그는 이제 나에게 키스를 허락합니다。 그가 특별히 기분이 좋을 때면 그는 잠간동안 나의 무릎에 와서 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쓰다듬어 주더라도 가만이 있었읍니다。

위대한 첫단계―가치있는―가 밟아졌읍니다。 이 작은 고집통이는 그의 첫 공부를 복종해서 배웠고、그 연결을 쉽게 찾아냈읍니다。 나의 즐거운 일、즉 이 어린이의 영혼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아름다운 지성을 육성하고 지도하는 즐거운 일이 남아 있읍니다。 벌써 사람들은 〃헬렌〃의 변화에 주목하였읍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사무실에서 오고 갈 때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들을 보러왔읍니다。 그래서 〃헬렌〃이 구슬을 꿰고 그것을 헌겊 가장자리에다 붙이는 것을 만족한 얼굴을 하고 보았읍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얌전할까!』하고 감탄하였읍니다。 내가 처음에 와보니 그의 행동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헬렌〃의 어떤 부자연스런 거의 운명적인 것을 느꼈읍니다。 나는 또한 〃헬렌〃이 음식을 너무 적게 먹는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이 사실이 그의 아버지를 걱정하게 하고 마침내 아버지는 그를 집으로 테리고 갈 생각을 했읍니다。 〃헬렌〃이 집을 그리워한다고 그는 말했읍니다마는 나는 그에

게 동의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나는 곧 우리들의 이 작은 집을 떠나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읍니다。

〃헬렌〃은 이번 주일에 서너가지 명사를 배웠읍니다。「자ㄴ」과 「우유」는 그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어려운 것이었읍니다。 그는「우유」라고 쓰면서 잔을 가리키고 「자ㄴ」이라고 써놓고 따르고 마시는 시늉을 하면서 말의 혼돈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는 아직도 모든 것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제께 나는 〃헬렌〃이 공부하고 있을 때 어린 흑인 소년을 들어오게 하고 같이 글자를 배우도록 하였읍니다。 이것이 그를 대단히 기쁘게 하고、 한편 〃퍼ㅣ시〃를 이기려고 하는 야심이 생겼읍니다。 〃퍼ㅣ시〃가 틀리면 〃헬렌〃은 참 좋아하였고、 몇번이고 글자를 다시 쓰게 하였읍니다。 〃헬렌〃의 마음에 들도록 글을 쓰게 되면 〃헬렌〃은 그의 곱슬머리를 힘있게 쓰다듬어 준답니다。 그래서 나는 〃퍼ㅣ시〃가 일부러 틀리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어떤날 〃켈러〃 대위는 그가 자랑삼고 있는 개 〃벨〃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데리고 왔읍니다 그는 〃헬렌〃이 이 옛 소꿉동무인 개를 알아볼는지를 의심했읍니다。 〃헬렌〃은 처음엔 〃낸시〃에게 목욕을 시켜주느라고 개를 주의하지 않았읍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옆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주 조용히 걸음을 걷고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팔을 앞으로 던지는 버릇이 있읍니다。 〃벨〃은 〃헬렌〃의 주의를 끌 생각은 없는 것 같이 보였읍니다。 나는 〃벨〃이 전에 그의 착은 여주인의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생각이 났읍니다。 하여간 개가 그방에 들어온지 삼십초도 안되어서 그는 냄새를 말

기 시작하고 대야에서 인형을 꺼내고 방안에서 무엇을 찾았읍니다。 〃헬렌〃은 개에 걸려 넘어졌읍니다。 〃벨〃은 〃켈러〃 대위가 서있는 창 가에 웅쿠리고 있었읍니다。 〃헬렌〃이 개를 알아본 것은 물론입니다。 그는 개의 목을 얼싸안고 꽉 쥐었읍니다。 그다음 〃헬렌〃은 개 곁에 앉아 개 발톱을 만지기 시작하였읍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그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ㄴ혀ㅇ〃이라고 쓰는 것을 보고 〃벨〃에게 인형의 철자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一八八七년 三월 二十일

〃헬렌〃과 나는 어제 집으로 왔읍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를 한주일 더 머무르게 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이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내것으로 만들였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헬렌〃하고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진보의 길에 놓여있는 가장 큰 장벽은 부숴졌읍니다。 「그렇다」와 「아니다」를 내가 머리를 흔들거나 끄떡끄떡하는 것으로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찬것과 더운것、 혹은 기쁨과 고통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과 같이 확실히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많은 고통과 근심의 대가로 배워진 이 공부가 이것으로 끝났다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나는 〃헬렌〃과 그를 지나치게 귀여워하는 부모들 사이에 놓여 있읍니다。 나는 〃켈러〃부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부탁하였

읍니다。 나는 〃헬렌〃이 무슨 일이나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을 가져오는지를 그의 부모에게 보여주느라고 최선을 다했읍니다。 그리고 나는 어린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은 어린이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선생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하였읍니다。 그의 부모는 나에게 자유를 주고、될 수 있는 한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였읍니다。 그들은 그 아이의 향상을 보고 점점 더 나를 신임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었읍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아이의 벌을 받는 것을 보거나、또는 그의 의지를 꺾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알았읍니다。 내가 〃켈러〃부부에게 이야기를(그들은 모든 것에 동의하였읍니다) 한 후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헬렌〃은 식탁에서 나프킨을 쓰지 않으려고 하였읍니다。 나는 〃헬렌〃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한짓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러번 나프킨을 그의 목에 달아주었읍니다。 그러나 매번 그것을 잡아 제쳐 마루바닥에다 던지고、나중에는 식탁을 걷어차기 시작하였읍니다。 나는 그의 밥 그릇을 치우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하였읍니다。 그의 아버지는 반대하며 자기 아이인 이상 어떤 이유에서든지 밥그릇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말하였읍니다。

〃헬렌〃은 저녁 식사후 나의 방에 오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읍니다。 내가 내려오니까 그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읍니다。 그는 그의 하는 버릇으로 나프킨을 뒤에서 매지않고 턱 밑에다 구겨 넣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나의 주의를 끌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뻐하면서 그의 무릎을 룩룩쳤읍니다。 식당에서 나오자 그는 내손을 잡고 쓰다듬었읍니다。 나는 그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였읍니다。 나는 뒤 늦게나마 훈련을 해서 효과를 봐야겠다고 생각하였읍니다. 나는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나프킨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헬렌〃이 공부를 하러 올라왔을 때 나는 과자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책상에 물건을 정돈하였읍니다。 과자는 내가 언제나 〃헬렌〃이 말을 빨리 또한 정확하게 쓸 때에 그 상으로 주는 것인데, 이번에는 없었읍니다。 그는 그것을 금시 알고 그것에 대하여 손짓으로 알려 주었읍니다。 나는 나프킨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의 목에다 걸어주었더니 그것을 잡아 떼어 마루바닥에다 내던졌읍니다。 그러면 나는 머리를 흔들었읍니다。 나는 이런 짓을 여러번 되풀이하였읍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자기 손을 두 서너번 때리고 머리를 흔들었읍니다。 우리는 보통대로 공부를 시작하였읍니다。 나는 물건 하나를 그에게 주었읍니다。 그는 그 이름을 적었읍니다(그는 지금 열두개나 알고 있읍니다)。 말을 한 반쯤 적더니 그는 갑자기 멈추었읍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번쩍 일어난 것처럼 그는 나프킨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읍니다。 그는 그것을 목에다 두르고 과자(그는 아직 과자의 철자를 몰랐읍니다)에 대한 손짓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과자를 주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하였읍니다。 나는 보통 때보다 더 큰 과자를 주었읍니다。 그는 자기 가슴을 치며 좋아하였읍니다。

一八八七년 三월 二十八일

우리는 매일같이 정원에서 살다싶이 하고 있읍니다。 정원에는 모든 식물이 싹이 트고 봉오리지고 아름다웠읍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는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읍니다。 〃헬렌〃은 다른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로 땅 파기를 좋아하여、 온 몸뚱이가 더러워졌읍니다。 오늘 아침 그는 그의 인형을 땅에 꽂고 나에게 보여주면서 인형이 나만큼 커지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였읍니다。 당신은 〃헬렌〃이 대단히 현명하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는 교활하다는 생각은 없었읍니다。 열시에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잠시동안 구슬을 꿰고 있었읍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것을 고안할 줄 압니다。 그다음 나는 그가 바느질도 하고 털실을 짜고 실 뜨기도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았읍니다。 그는 대단히 빨리 짜는 것을 배웠고、 지금은 그의 어머니의 손수건을 만들고 있읍니다。 지난 주일 그는 그의 인형의 앞치마를 만들어 주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한 나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해 놓았읍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루에 끝났을 때 나는 기뻐하였읍니다。 바느질하는 것이나 실 짜는 것은 악마의 발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손수건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왕의 대도(大道)의 돌을 깨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열한시에 우리는 체조를 합니다。 그는 모든 자유 자재의 운동을 알고 아령(啞鈴)을 들고 「안빌(Anvil) 합창」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우물집 옆에다 운동실을 하나 해놓겠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다 가만이 붙어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아무데나 뛰어 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였읍니다。 열두시부터 한시까지는 새 말을 배우는데 열중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한해서만 〃헬렌〃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헬

렌〃이 비록 그 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온 종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의 손에다 글자를 써 줍니다。 저녁이 끝난 후 나는 한시간 동안 쉬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헬렌〃은 인형하고 놀며 또한 작은 깜둥이와 마당에서 장난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 깜둥이는 내가 오기전에 늘 같이 놀던 친구였읍니다。 후에 나는 그들과 같이 마당에서 떨어진 조그만 집에서 원을 만들고 놀았읍니다。 우리는 외양간의 말과 소를 보러 가기도 하고 칠면조의 알을 주워 모으고 당나귀에 먹이를 주기도 하였읍니다。 가끔 날이 좋을 때면 우리는 네시부터 여섯시까지 〃아이뷔·그린〃(Ivy Green)에 있는 그의 아주머니를 찾아 보고 도시에 사는 그의 조카들을 보러 갑니다。 〃헬렌〃의 본능은 확실히 사교적입니다。 그는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친구들을 찾아가고 합니다。 내 생각에 어느 정도는 그들이 〃헬렌〃이 좋아하는 과자를 늘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내방으로 가서 여덟시까지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작은 여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다 뉩니다。 그는 이제 나와 같이 자게 되었읍니다。 〃켈러〃부인은 〃헬렌〃을 위하여 일보는 여자를 하나 두자고 말하였읍니다。 나는 그 어리석고 게으른 흑인 여자를 두는 것보다는 내가 그의 뒤를 돌보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 외에 나는 〃헬렌〃이 모든 것을 나한테 의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언제든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三월 三十一일 나는 〃헬렌〃이 열 여덟개의 명사와 세개의 동사를 안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읍니다。 다음의 괄호 속에 열십자는 〃헬렌〃 자신이 질문해서 알게 된 단어입니다。「인형」「우유잔」、「핀」、「열쇠」、「개」、「모자」、「찻종」「상자」、「물」、「우유」「사탕」、「눈(十)」、「손가락(十)」、「발가락(十)」、머리(十)」、「과자」、「애기」、「어머니」、「앉다」、「서다」、「걷다」등입니다。四월 초하루 그는 「칼」、「삼지창」、「숟가락」、「찻종 받침」、「차」、「아빠」、「침대」의 명사와 -「뛴다」는 동사를 배웠읍니다。

一八八七년 四월 三일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난 대단히 중대한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한줄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헬렌〃은 그의 교육에서 두째의 큰 단계에 들어갔읍니다。 그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그리고 손으로 쓰는 철자는 그가 알고 싶을 때에 모든 것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먼저번 편지에 나는 〃헬렌〃이 무엇보다도 「우유」와 「우유잔」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적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명사와 「마신다」는 동사를 혼돈하였읍니다。 그는 「마신다」는 말은 알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그가 「우유잔」이나 「우유」를 쓸 때마다 마시는 흉내를 내어 알게 되었읍니다。 오늘 아침 그가 세수를 하면서 물의 이름을 알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이나 그 이름을 알고 싶을 때에는 그것을 지적하며 나의 손을 두들깁니다。 나는 「무ㄹ」이라고 썼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끝난 후까지 그 이상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읍니다。 그다음 나는 이 새 말로 인해서 「우유잔—우유」의 혼돈을

없앨 수 있지않나 생각하였읍니다。 우리는 펌프있는 데로 갔읍니다。 그리고 나는 펌프질을 하는 동안 우유잔을 대고 있게 하였읍니다。 찬 물이 쏟다져 우유잔에 가득 찼을 때 나는 〃헬렌〃의 손에다 「무ㄹ」이라고 썼읍니다。 그의 손에、쏟다지는 찬 물의 감각과 밀접히 연결이 되는 이말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한 모양입니다。 그는 우유잔을 떨어뜨리고 그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읍니다。 한 새로운 빛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읍니다。 그는 여러번 「물」을 써 보았읍니다。 그다음 그는 땅에 앉아서 펌프 이름을 묻고 둥나무를 물어보더니 갑자기 나의 이름을 물어보았읍니다。 나는 「선생님」이라고 썼읍니다。 바로 그때 유모가 〃헬렌〃의 동생을 펌프 가에 데리고 왔읍니다。 〃헬렌〃은 「애기」라고 쓰고、유모를 가리켰읍니다。 우리가 모두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대단히 흥분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는 손에 닥치는 대로 이름을 배웠읍니다。 그래서 잠간 동안에 그는 설흔개의 새 말을 배웠읍니다。 여기 그 중에 몇개가 있읍니다。 「문」、「연다」、「닫는다」、「준다」、「간다」、「온다」、그리고 또 많은 말을 배웠읍니다。

추신 : 나는 어제밤 이 편지를 부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마치지를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나는 한 줄 더 써야겠읍니다。 〃헬렌〃은 오늘 아침 빛나는 선녀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읍니다。 그는 깡충 뛰면서 이름을 무르며 기쁨을 참지 못하여 나에게 키스하였읍니다。 어제밤 내가 자리에 누었을 때、그는 자진해서 나의 팔안으로 숨어 들어 나에게 처음으로 키스를 하였읍니다。 나는 나의 가슴이 터지는줄 알았읍니다。 기쁨이 그렇게도 팍 차였던 것입니다。

一八八七년 四월 五일

나는 나날이 거의 매시간마다 "헬렌"의 진보를 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우리는 나갈 때마다 그가 집에서 배우지 않은 것의 이름을 열심히 배웠읍니다。 그는 그의 동무를 위해서 글 쓰는 것을 격정하였읍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동무는 누구에나 다 편지 쓰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는 전에도 하듯이 손짓을 하고 흉내를 내었읍니다。 그러자 곧 그는 그것을 채울만한 말을 알았읍니다。 그리고 이 새 말을 배운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생생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얼굴이 매일 매일 더 많은 표정을 하게 되는 것을 주목하였읍니다。

나는 현재까지 규칙적인 공부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읍니다。 "헬렌"을 마치 두살된 어린이와 꼭 같이 취급하려고 합니다。 어떤날 한 어린이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나에게 오게하고 일정한 어휘를 암송하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났읍니다。 어린이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어휘를 아직 알지 못할 때에 말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헬렌"을 내보내고 생각에 잠깁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어떻게 말을 배우나?』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방함으로써」 어린이는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밖으로부터 충분한 자극을 받는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읍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첫 말을 그는 입에서 말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헬렌"의 어린 사촌동생을 잘 관찰하였읍니다。 그 애기는 약 열다섯 달 밖

에 안되였는데 말한 것을 벌써 이해하고 있읍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는 귀엽게 그의 코、눈、입턱、뺨、귀를 가리킵니다。 만일 내가 『애기의 한쪽 귀는 어디 있나?』하고 물으면 그는 정확하게 그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내가 그에게 꽃을 손에 쥐어주고 『이걸 엄마에게 주어라』하면 그는 그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가지고 갑니다。 내가 『꼬마 장난꾸러기는 어디 있나?』하면 그는 그의 어머니 의자 뒤에 숨거나、혹은 그의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순진한 장난꾼의 표정을 하며 손 사이로 나를 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많은 명령을 잘 들읍니다。 『오너라』、『키스해라』、『아빠에게로 가라』・『문을 닫아라』、『과자를 다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말을 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읍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에게 수백번 반복해서 말하였고、그가 그런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관찰이 나에게 〃헬렌〃의 어학을 가르치는 방법의 단서(Clue)를 주었읍니다。 나는 우리가 마치 애기의 귀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손에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헬렌〃이 정상적인 어린이가 갖는 모방(Imitation)과 동화작용(Assimilation)의 능력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할 때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몸짓을 하고 그가 요구하면 흉내를 내어 그 뜻을 완전히 알도록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이나 그의 마음속에 고정시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그것을 자극시키고 흥미를 주어 그 결과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一八八七년 四월 十일

새 계획은 잘 진행됩니다。 〃헬렌〃은 지금 백개 이상의 단어를 압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조차 아니하고 매일 새로운 단자들을 배우고 있읍니다。 〃헬렌〃은 새가 날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이 유창하게 말한다고는 상상치 마시요。 그의 어린 사촌애기나 마찬가지로 긴 문장은 몇 단어로 표현합니다。 형용을 하면서 『우유』하는 것은 『우유를 주시요』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찾는 듯이 눈치로 『어머니』하는 것은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하는 의미입니다。 『가』(Go)하는 것은 『나는 나가고 싶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여자의 손에다 『내게 빵을 좀 다오』라고 글씨를 쓰면 그는 나에게 빵을 줍니다。 혹은 내가 『모자를 써라! 우리는 산보를 나가겠다』하면 그는 즉시로 복종합니다。 「모자」와 「산보」라는 두 글만으로도 같은 결과를 벌니다。 그러나 전 문장을 하루에 여러번 반복하면 그것이 그에게 인상이 남을 것이며、 오래지 않아서 그 여자 자체가 그것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에 지혜를 발달시키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알게 된 조그만 놀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도 말을 가르치는 목적에도 소용이 됩니다。 이것은 골무를 감추는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자면 공이나 혹은 실패를 감추고 우리는 이것을 찾읍니다。 이삼일 전에 이 놀음을 처음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을 찾는 재주를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였읍니다。 그는 공이나 실패를 아무데나 두어도 그것을 찾았읍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을 감추었을 때에 그는 그의 글 쓰는 판대기 밑에서 찾아냈읍니다。 또한 내가 실패를 감추었을 때에는 한 인치도 못되는 조그만 갑속에서 이것을 찾아냈읍니다。 그리고는

곧 찾는 것을 중지하였읍니다. 지금은 나는 이 놀음에 대한 그의 취미를 한시간 이상 계속시킬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는 찾는데에서 가끔 큰 재주를 나타냅니다. 오늘 아침에 과자를 하나 감추었읍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차져 보았으나 성공을 못하였읍니다. 확실히 실망하였으나, 급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았읍니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서 나의 입을 벌리게 하고, 자세히 조사하여 보았읍니다. 과자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나의 배를 가리키고 「먹어」하는 글자를 썼는데 그것은 『선생님이 먹엇소』 하는 뜻이었읍니다.

금요일 날 우리는 시내에 들어가서 어떠한 신자를 만났더니 그는 〃헬렌〃에게 과자를 좀 주었읍니다. 그는 다 먹고 다만 조그만 것 한개만 남기어 그의 앞치마 주머니에다 넣었읍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를 보고 과자를 꺼내면서 『애기에게 과자를 주세요』 하였읍니다. 〃켈러〃 부인이 『아니다! 애기 먹는 것 아니다』라고 썼더니 〃헬렌〃은 요람으로 가서 〃밀드레드〃의 입을 만져보고 자기의 이를 가리키었읍니다. 〃켈러〃 부인은 「이」라고 썼더니, 머리를 흔들고 『애기 이 없다—먹는 것 없다』라고 썼읍니다. 그것은 물론 『어린 애기는 이가 없으니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읍니다.

一八八七년 四월 二十四일

이미 나는 유치원의 재료는 필요치 않읍니다. 나는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구슬, 카—드, 보리짚을 사용하였읍니다. 왜냐 하면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읍니다。

나는 힘들고 특별한 교육제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읍니다。 모든 지식은 실지로 생각하는데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대로 홀로 내버려 두는 방법이 더 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둥그런 테이불에 앉혀 놓고、 온후한 선생의 목소리로 나무조각으로 돌담을 쌓으라든지、 색종이의 조각으로 무지개를 만들라든지、 구슬꽃 분에다 보리짚 나무를 심으라든지 하느니보다 아이들에게 실물을 만져보게 하며、 그의 생각을 스스로 여상케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읍니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인공적인 경험만을 얻게 되는데、 어린이가 실질적 경험으로부터 확고한 지식을 얻게 하려면 그러한 인공적 경험은 필요치 않읍니다。

〃헬렌〃은 명사나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부사를 쉽사리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은 언제든지 말을 앞서는 것입니다。 내가 오기 오래 전에 〃헬렌〃은 「작다」「크다」에 대하여 표시를 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가 만일 조그마한 물건을 원하였을 때、 큰 것을 주면 그는 머리를 흔들고 그 손바닥 살갗을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무슨 큰 것을 가리키려면 두손의 손가락을 될 수 있는대로 넓게 펴가지고 큰 공이나 잡으려 하는 듯이 두손을 한데다 모는 것이었읍니다。 전날 나는 그에게 「크다」「작다」하는 말을 가르치었더니 그 글자들을 대번에 배워서 그가 쓰던 손짓을 버렸읍니다。 나는 지금 그에게 『큰 책을 가져오라、 적은 접시를 가져오라、 천천이 윗층으로 올라가라、 빨리 다름질 하라』 또는 『빨리 걸으라』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그는 처음으로 「또」라는

접속사를 배웠읍니다。 나는 그에게 문을 닫아라 하였더니、『또 잠거』하였읍니다。

그는 몇분 전에 대단히 흥분하여 윗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왔읍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를 몰랐읍니다. 그는 계속해서 『개—애기』라는 글자를 쓰고 다섯 손가락의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벌리고 한개씩 빨았읍니다。 〃밀드레드〃를 개가 물은 줄 알았읍니다。 그러나 〃헬렌〃의 얼굴은 기뻐하는 것 같고、공포심을 가진 나를 꽉 데리고 어디로인지 같이 가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는 나를 펌프있는 데로 인도하였읍니다。 그 한 모퉁이에 〃셋터〃라는 개가 사랑스러운 다섯마리의 강아지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강아지」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끌어서 다섯마리의 강아지를 만지게 하였는데 그때 강아지들은 전부 젖을 먹고 있었읍니다。 그는 강아지들이 젖먹는 것이 대단히 취미있던 모양이었고、 여러번 『암마 개』、『애기』라는 말을 썼읍니다。 〃헬렌〃은 강아지들의 눈이 감긴 것을 알고 『눈감겨。 자—아니』 하였는데、그 뜻은 물론 『강아지 눈들은 감겼으나 자지는 않습니다』라는 것이었읍니다。 강아지들이 엄마개에게 가려고 떠들고 야단을 하는 것을 보더니 〃헬렌〃은 재미있다고 떠들면서 『애기 많이 먹어』라고 썼읍니다。 물론 그는 『강아지들이 많이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강아지를 하나씩 전부 그의 다섯손가락으로 가리키었읍니다。 그리하여 나는 「다섯」이라는 말을 가르쳤읍니다。 그 다음 그는 한손가락을 들고 『애기』라고 썼읍니다。 나는 〃밀드레드〃가 한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는 『한애기와 다섯강아지』라고 써 주었읍니다。 강아지들 하고 조금 놀더니 강아지들도 사람모양으로 이름이

있다는 생각이 그 머리에 떠올라서 각 강아지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읍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으라 하였더니 『아니―어머니』 하였다。 그는 확실히 어머니가 어린이들에 대하여 더 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읍니다。 그는 그 강아지 중의 한마리가 다른 것들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작다』라는 말을 쓰면서 또한 손짓을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나는 『매우 작다』라고 하였읍니다。 「매우」라는 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한 돌은 『작다』 또한 돌은 『매우 작다』라고 바르게 썼읍니다。 집에 돌아와서 애기를 만지더니 『애기―작다』、『강아지 매우 작다』 하였읍니다。 그다음에는 걸음을 크게 혹은 적게 걸으면서 잔걸음질은 『매우 작다』 하였읍니다。 그는 집안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모든 물건에다 새로운 글자들을 적용시켰읍니다。

정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지한 다음부터는 〃헬렌〃은 훨씬 빠르게 배우게된 것을 알 되었읍니다。 나는 흔히 교원이 자기가 가르친 것을 잘 알아들었나를 알기 위하여 어린이의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보려고 하는 짓은 그만침 시간 낭비인줄로 깨닫게 되었읍니다。 나의 생각에는 어린이들은 자기의 할일을 반드시 하는 것이며、 교원이 뿌린 씨는 적당한 때에는 열매가 연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옳은 일일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어린이를 위하여 유익하고 교원에게는 많은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一八八七년 五월 八일

우리는 매일 조반후는 곧 먼데로 산보하기로 하였읍니다。 날이 맑고 딸기냄새가 진동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 이마일 떨어진 〃테네시〃쪽에 있는 〃켈러・랜딩〃이라는 못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쯤은 몇시나 되었는지도 모르고 산보하고 있었읍니다。 결국 이렇게 산보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계절에는 더욱 그런감이 듭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는가 하고 전날을 후회하고 있읍니다。 〃헬렌〃은 가는 도중에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읍니다。 우리는 나비를 쫓아다니다가 어떠한 때는 우연히 한마리를 잡는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무밑에、혹은 숲그늘속에 앉아서 나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다 알게 될 때까지 나비가 살아있으면 날려보내지만、대개는 우리들의 공부 때문에 그 아름다운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나비는 다른의미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비는 산생각으로 변형을 한 것입니다。 말이「생각」을 만든다는 것은 경탄할 일입니다。 〃헬렌〃이 배우는 모든 새 말은 더 많이 다른 새 말을 배우겠다고 요구하게 되는 것 같읍니다。 그의 마음은 쉬지않는 활동을 통하여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켈러・랜딩〃이라는 곳은 남북 전쟁중에 군대를 상륙시키던 곳이나 지금 벌써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잇기와 잡초에 덮여 있읍니다。 이곳 정막한 기분은 사람의 마음을 꿈나라로 이끌어 줍니다。 〃랜딩〃근처에 조그마한 아름다운 샘이 하나 있었는데、〃헬렌〃은 그것을「다람쥐 물터」라고 하였읍니다。 왜냐 하면 나는 그에게 다람쥐가 내려와서 물을 마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다람쥐、

토끼들 동물을 만져보았읍니다。 그래서 「걷는 다람쥐」를 만져보기를 열망하였읍니다。 그것은 해석하면 물론 「산 다람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저녁밥 때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가면 〃헬렌〃은 본 것을 전부 어머니에게 이야기 합니다。 자기에게 이야기하여 준 것을 반복하려는 욕망은 〃헬렌〃의 지력이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말을 배우려는 데에 무한히 귀중한 자극이었읍니다。 나는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가 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권하라고 요청하였으며、 또한 될 수 있는 한 그의 모험심과 호기심과 취미를 나타내도록 하여달라고 부탁하였읍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갖게 하는 것이며、 또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단어와 표현을 아주 잘못하여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었으나、 사실 귀가 먹지 아니한 아이들도 이런때가 있읍니다。 이러한 곤난은 자연 없어질 것으로 믿읍니다。 말을 하려는 충동이 더 중대한 일입니다。 나는 가끔 잊어버린 말과 표현을 보충하여 주면 그만입니다。 이리함으로써 그의 어휘는 확실하게 급속도로 늘며、 또한 새로운 말은 새로운 생각이 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상은 이와 같이 새로운 말과 상상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一八八七년 五월 十六일

나의 일은 날이 갈수록 바빠지며 더욱 취미를 갖게 되었읍니다。 〃헬렌〃은 훌륭한 아이입니다。 참으

로 자발적이고 열심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약 삼백의 단어와 상당히 많은 보통 문구를 압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처음 단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삼개월 밖에 안됩니다。 씩씩한 마음의 발생、성장、 또한 미묘한 갈등을 겪어왔다는 것은 많지 아니한 특전입니다。 나는 이 특전을 가지고 그의 재주있는 지성을 깨우치게 하고 지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성한 사업에 더 좀 자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날이 갈수록 자기의 무능하다는 것이 폭로되는 것 같았읍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가지 계획이 가득 차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실행할 능력이 없읍니다。 잘 아시다싶이 나의 연구에는 결함이 많읍니다。 또한 나의 자신을 뒤 흔드는 무엇이 얽혀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한 것들을 몇번이나 없애려고 하였었던가! 아! 누가 좀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나는 "헬렌"이나 마찬가지로 선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일 그러한 능력과 인내력만 있다면 이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은 나의 평생 중에 큰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은 결심을 하였읍니다。 "헬렌"은 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고、 사실 우리들이 책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 생각 납니다만 "아나그노스"씨에게 말씀하여 "페레즈"씨와 "살리"씨 공저의 심리학책을 좀 얻게하여 주시요。 그 책들은 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읽는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대개 우리는 집근처 큰 나무그늘에 가서 조그만 「독본」을 가지고 한시간 혹은 두시간 공부를 하여 "헬렌"이 이미 아는 글자들을 차져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장난같이 하고 있읍니다。 즉 "헬렌"은 손으로 더듬어서、 나는 눈으로、 누가 먼저 빨리

그러한 글자를 찾나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아는 글자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대로 그는 새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그의 속가락이 아는 글자에 부닥치면 그는 좋아서 기쁜 소리를 지르고 나를 열사안으며 또한 키스를 합니다。 특히 그가 나를 이겼다 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유쾌한 방법으로 그가 한시간에 얼마나 많은 단자를 배우나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랠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러한 새단자로 짧은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와 같이하여 「벌」、「고양이」、「소년」의 간단한 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에게 『이층으로 올라가라、 내려가라、 문밖으로 나가거라 집으로 돌아오라、 문을 잠거라、 잠을쇠를 열어라、 물건을 가져오너라、 앉아라、 서라、 다름질하라、 누어라、 기어라、 몸을 둥그렇게 하라、 높은 곳을 올라가라』 할 수 있읍니다。 그는 동작을 말하는 글자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동사를 가르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든지 공부를 할 용의가 있으며、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그의 열심은 옆에서 보와도 유쾌한 일입니다。 그는 장군이 적의 요새를 점령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한 문장을 정복하는 것에 승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헬렌〃의 어려서부터 나쁜 습관의 하나는 물건을 깨뜨리는 버릇이 있읍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걸려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불구하고 마루에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컵이나 그릇이거나 등잔이거나 상관없이 함부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는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이나 화가 날 때나 귀찮을 때에 개뜨리지 아니한 것이 없읍니다。 일전에 어떠한 친구가 〃멤피스〃에서 인형을 하나 가져왔었읍니다。 그것을 깨뜨려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고 하였읍니다。

나는 그에게 인형의 머리를 테이불에 다치는 동작을 하게 하고 『〃헬렌〃은 나쁘다、선생님은 슬프다。라고 썼읍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나의 얼굴표정을 만져보게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나는 〃헬렌〃에게 인형을 쓰다듬어 주며 다친 곳에 키스를 하며 품안에 가만이 안아 주고、그에게 『착한 〃헬렌〃이여 선생님은 행복하다』라고 썼읍니다。 그리고 나의 웃는 얼굴을 만지게 하였읍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을 여러번 반복하였읍니다。 그다음에는 잠시 가만이 서 있더니 얼굴에 좀 곤난한 빛이 나타났으나、그 기색이 급자기 없어지고 『착한 〃헬렌〃』하고 쓴 다음에 벙끗 웃었읍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이층으로 가지고 가서 옷장 맨 꼭대기 층에다 뉘워 놓고 다시는 그 인형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읍니다。

〃아나그노스〃씨에게 문안하시고、좋다고 생각하시면 나의 편지를 보여드리시요。 내가 듣기에 〃볼티모어〃학교에서 어떠한 눈멀고 귀먹은 어린이가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一八八七년 五월 二十二일

일기가 대단히 더웁습니다。 비가 매우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다 〃헬렌〃에 대하여 근심을 하고 있읍니다。 그는 매우 신경질이고、걸핏하면 흥분합니다。 밤에는 잘 자지를 못하고 또한 식욕이 없읍니다。 그를 어찌하면 좋을는지 모릅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의 신경과민증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하면 고칠 수 있겠읍니까? 그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글씨 쓰기를 시작하고 종일토록 그치지 아니합니다。 내가 그와 이야기하기를 거절하면 그는 자기 손에다 글씨를 쓰는 것으로 보아 가장 활발

한 회화를 홀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그에게 점자판을 주었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놀라는 뜻이였읍니다。 왜냐 하면 그판에다 기계적으로 구멍을 뚫게 되면 재미가 나서 그의 마음을 쉬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가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내가 가보니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읍니다。 그는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편지를 부칠 때에 가끔 우편국에 그와 같이 갔었던 일은 있었읍니다。 그 때에 나는 그 내용을 그에게 말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또한 그는 내가 맹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어느날 그는 구멍을 많이 찍은 종이를 한장 가져와서 그것을 봉투에 넣은 다음 우편국에 보내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는 『〃프랭크〃—편지』라 하였읍니다。 나는 〃프랭크〃에게 무엇을 쓰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는 말하기를 『말 많이。 강아지어머니개—다섯。 애기—운다。 더웁다。 〃헬렌〃 걷는다—아니。 햇빛—나쁘다。 〃프랭크〃—오랑。 〃헬렌〃—키스 〃프랭크〃。 딸기—매우 좋다。』라고 하였다는 것이였읍니다。

〃헬렌〃은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전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또한 모르는 글자의 뜻은 문장 전후의 관계로 알아냅니다。 또한 그가 열심으로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의 지성의 발달과 또한 비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날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가보니 〃헬렌〃은 책을 하나 팔에다 잔뜩 끼고 자고 있었읍니다。 확실히 그는 글을 읽다가 잠이 들은 것이였읍니다。 아침에 그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는 『책—울어』 하고 머

리를 흔들고 어떠한 공포를 느끼는 듯 하였읍니다。 나는 「무서워한다」는 글자를 가르처 주었읍니다。 그러하였더니 그는 〃헬렌〃은 『〃헬렌〃은 무섭지 않다。 책 무섭다。 책이 소녀와 같이 자려고 한다。』 나는 책은 무서워하지 아니하니까 책장에서 자야할 것이며、 소녀는 침대에서 읽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는 매우 장난군 같이 보였읍니다。

〃아나그노스〃씨가 나를 교사로서 높이 평가한다 하니 기쁩니다。 그러나 「천재」니 「독창성」이니 하는 말은 경솔하게 쓴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러한 말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당된다 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도리어 곤난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당신에게만 할 말이겠읍니다마는、 나는 자기의 장래를 꿈꾸고 희망을 갖고 있읍니다。 만약 세상사람들이 취미본위로 우수운 보도만 하지 않으면 〃헬렌〃의 교육의 효과는 〃하우〃 박사가 성공한 것보다도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위대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모형으로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도 이러한 자신을 갖게 된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얼마전만 하여도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여야 할는지를 몰랐읍니다。 말하자면 나는 암중모색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자신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 사실을 나는 스스로 알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곤난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저하지도 않고 그러한 곤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읍니다。 나는 〃헬렌〃의 특수한 요구를 아는 것 같읍니다。 이 자신만큼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없읍니다。

이미 사람들은 〃헬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누가 그를 만나든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보통 아이는 아닙니다。 그의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건전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쓰는 것은 극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침소봉대하여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나 자유로 다 쓰겠읍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쓰는 편지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마시요、 될 수 있으면 나의 아리따운 〃헬렌〃을 신동(神童)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一八八七년 六월 二일

날이 더워서 〃헬렌〃은 피곤하여 조용해졌읍니다。 어제 〃헬렌〃은 오후부터 옷을 전부 벗고 빨가숭이로 앉아 있었읍니다。 책을 가지고 앉아있던 창으로 태양빛이 들어오므로 그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읍니다。 그래도 태양빛이 들어오니 곤난한 얼굴빛을 하고 내게 와서 화가 난듯이 글을 썼읍니다。『태양은 나쁜놈이야。 그놈 침대로 가서 자야지。』

그는 참 귀엽습니다。 어쩌나 예쁜지 참 사랑스러워요! 어느날 내가 물을 좀 가져오라 하였더니『다리 매우 아프다。 다리 많이 우는데!』하였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갖난 병아리에 〃헬렌〃은 큰 취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그에게 조개 껍질을 하나 손에 들게 하였읍니다。 그러고 『교교』하면서 병아리에게 먹이를 주게 하였읍니다。 그 병아리

룰 만져보고 〃헬렌〃이 놀란 것은 입으로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읍니다。 암탉은 조용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이 만져보아도 야단을 아니하였읍니다。 닭 이외에 송아지 두마리、 망아지、 조고마한 우리의 재미나는 돼지가 있읍니다。 내가 소리지르는 돼지를 팔에다 안고서 〃헬렌〃이 그것을 만져보는 것을 보시면 참 재미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헬렌〃은 무수한 질문을 하는데 어떠한 것들은 물론 나로서는 쉽사리 대답할 수도 없읍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애기돼지도 알에서 낳나? 애기돼지 나온 껍데기들 어디 있지?』 하였읍니다。

〃헬렌〃의 머리는 二十인취 반이고 나의 머리는 二十一인취 반이니 나는 그의 것보다 한인취밖에 크지 않지요。

一八八七년 六월 五일

더위는 계속하고 있읍니다。 〃헬렌〃은 여전히 창백하고 말랐읍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병이 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의 마음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행동에는 별로 지장은 없으나 더위가 건강상태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읍니다。 물론 나는 그의 머리 속에 너무 많은 짐을 지워줄 생각은 없읍니다。 말많은 사람들 때문에 허다한 방해를 받아 왔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헬렌〃은 너무 하는 일이 많다는 등、 또는 그의 마음이 너무 적극적(그 사람들 자신이 몇달전에는 〃헬렌〃은 전혀 생각하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불가능한 치

료를 임시하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를 〃클로로포옴 (Chlorofom)을 써서 고정시키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헬렌〃의 능력의 자연적 연습을 막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어떤 실제적 혹은 상상적 위급시에 충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또는 여러번의 경험으로 그러한 충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계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수운 일인가요, 마치 그들은 그들의 충고가 하느님께서 받은 것처럼!

나는 〃헬렌〃에게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서(楷書)로 가르칩니다. 이 방법은 그에게 무엇을 하게 하고 또한 그를 고요하게 하였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 몸을 피곤하게 하는 기후가 끝날 때까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렌〃은 수를 세는데 완전히 미친 것처럼 열중합니다. 그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세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처음 독본에서 배운 말을 세는데 매우 바쁩니다. 나는 그가 그의 머리칼을 세는 일까지도 하지 않을가 겨정이 됩니다. 물론 보통 아이들은 그의 놀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마는 만일 〃헬렌〃이 볼 줄 알고 들을줄 안다면 〃헬렌〃은 그의 여분의 〃에네르기〃를 머리를 쓰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뉴욕 비행기〃라는 장난감 기차를 어린이 방에다 〃말편자 커!브〃를 만들고 빙빙 돌리는 어린이들은 기관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그들의 전심전력을 장난감 기차에다 집중하는 까닭입니다.

그는 근심하는 기색으로 나에게 와서 『계집애 매우 큰 (많이)글자 모른다』하였읍니다. 나는 『아니다. 가서 〃변시〃 하고 놀아라!』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말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읍니다. 그는

『아니요。〃낸시〃많이 아프다』하였읍니다。 나는 『웬일이지?!』하였더니 『큰(많은) 이(齒)가 〃낸시〃를 아프게 한다』하였읍니다。(〃밀드레드〃는 이가 나는 중에 있읍니다。)

일전에 나는 담에 있는 포도넝굴은 『기는 것』이라고 우연히 말하였읍니다。 그는 대단히 흥미를 느끼였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그 넝굴의 운동과 자기의 행동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넝굴들은 다름질하고、기고、뛰고、넘고、구부리고、떨어지고、올라가고、그네를 뛰는 것이였읍니다。 그래서 그는 얄밉게도 자기는 『걷는 식물』이라 하였읍니다。

어제저녁에 내가 실을 감을 때 그는 그것을 붙들었고、 그다음에 그는 뺑뺑 돌면서 혼자서 『빨리 감아라。 천천이 감아라』라고 글씨를 썼읍니다。 그리고 그생각이 매우 마음에 드는 것 같읍니다。

一八八七년 六월 十二일

어제저녁에는 천둥을 치며 폭풍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훨씬 시원합니다。 우리가 〃솨워〃목욕이나 한듯이 우리는 전부 생기가 났읍니다。 그는 천둥할 때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총을 쏘는지 또한 나무와 꽃들이 비를 전부 빨아들이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하였읍니다。

一八八七년 六월 十五일

나의 어린 제자는 처음 모양으로 지금도 배우려는 결심을 그대로 지속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의

선천적 지식에 대한 욕망에 가득차 있읍니다。 그의 정신은 너무도 쉬지않고 공부함으로써 행여나 전강에 나빠지지나 않을가 나는 걱정합니다。 그러나 수주일 전부터 없어졌던 식욕이 다시 나고 수민도 잘합니다。 그는 이달 二十七일이 되면 일곱살이 됩니다。 그의 신장은 四피—트 일인취이며、그의 머리는 주위가 二十七인취 반인데 그것은 앞과 뒷머리의 두드러진 곳까지 잰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그 머리의 주위는 일인취 四분지一이 더 커집니다。

산보를 할 때에도 글자 공부를 하며 또한 깡충깡충 뛰며 다름질하며 빨리 또는 천천이 걷는 등의 행동으로 산보를 재미나게 합니다。 바늘 귀를 빠뜨리면 『〃헬렌〃 잘못 선생님 운다』합니다。 만일 물이 먹고 싶으면 『〃헬렌〃에 먹을 물을 주라』합니다。 그는 여러가지 고유명사 이외에 사백자의 단어를 압니다。 나는 다음 단자들을 가르쳤읍니다。 「침대、매트레스、홑이불、담요、이불、요、베개」였읍니다。 그이튿날 그는 「요」만 잊어버리고 전부 기억하고 있었읍니다。 같은날 조금전에 「집、잡초、먼지、그네、당밀、빠르다、느리다、설탕、구두 뒤굽」을 가르쳤는데 끝에 것중에서 하나만 잊어버리었읍니다。 이것으로써 그의 기억력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삼십까지를 대단히 빨리 셀 수가 있으며、철자는 일곱개를 쓰고 또한 그러한 글자로 된 단자를 쓸 줄 압니다。 그는 편지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같으며 〃프랭크〃에게 편지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종이에다 칼끝으로 구멍을 뚫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아마 무엇을 썼나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까닭인 것 같읍니다。 어느날 그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랬읍니다、 그는 편지쓰는 형용을 하고 있었읍니다。 한손으로 〃에바〃라고 철자를

하고（〃에바〃는 〃헬렌〃이 좋아하는 사촌입니다）다른 손으로 그것을 구멍을 뚫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침대에 누워서 아프다』하고 철자를 한다음에는 또 쓰는 형용을 하였읍니다。 그는 이것을 거의 한시간이나 계속하였읍니다。 그는（상상으로）재미나는 것을 종이 위에 쓰고 있었읍니다。 그 편지를 끝낸 다음에는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가지고가서 『〃프랭크〃 편지』하고 그다음에는 그의 형에게 주고 우편국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었읍니다。 그는 나와 같이 편지를 찾으러 우편국에 가본 일이 있읍니다。

한번 만난 사람이면 곧 누구인줄 알고 그 이름을 씁니다。 〃라우라・브리즈만〃보다 달라서 여자보다는 남자를 좋아하였으며 또한 남자는 여자보다 속히 친구가 됩니다。

그는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워 주기를 좋아하며 또한 자기는 가끔 조금밖에 안가집니다。 그는 옷과 모든 종류의 비단을 좋아하고 자기 옷에 구멍이 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며칠전 아침에는 구두에 구멍이 있는 것을 알고 조반을 먹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헬렌〃 사、구두 〃심프손〃（그의 아우）전방 사람』이라고 썼읍니다。 누구나 그의 뜻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읍니다。

一八八七년 六월 十九일

이날아침 아랫층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읍니다。 〃헬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읍니다。 무슨 일이 났나 하여 뛰어 내려갔읍니다。 그는 대단히 성이 났었읍니다。 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안 일어

나기를 바랐읍니다。 그는 과거 두달동안 매우 얌전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랑은 그사자와 같은 마음을 정복한 줄 알았더니 사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던지 간에 〃헬렌〃은 야생동물 모양으로 〃비너〃를 찢고 할퀴고 물었읍니다。 〃비너〃는 〃헬렌〃이 돌을 담는 유리컵을 행여나 깨뜨릴가 하여 뺏으려하였던 모양입니다。 〃헬렌〃은 저항을 하고 〃비너〃는 뺏으려다 아마 때렸거나 해서 이와 같이 성이 나도록 한 모양이었읍니다。 내가 그의 손을 잡았더니 그는 몹시 떨었읍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비너〃 나쁘다』라고 쓰고는 다시 맹렬하게 때리고 차기를 시작하였읍니다。 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의 손을 꽉 잡았읍니다。

잠시 후에 〃헬렌〃은 나의 방에 와서 슬픈 얼굴로 나를 키스하려 하였읍니다。 나는『나쁜 아이는 키스 못한다』하였읍니다。 그는『〃헬렌〃 좋다。 〃비너〃 나쁘다』라고 썼읍니다。 나는『너는 〃비너〃를 차고 때려서 다치게 하였다。 너는 나쁘다。 나는 나쁜 아이는 키스 아니한다』하였읍니다。 그는 잠시동안 가만이 서 있었읍니다。 얼굴빛이 빨개지고 그의 마음이 괴로운 것같이 보이었읍니다。 그다음에 〃헬렌〃은『〃헬렌〃 선생 안사랑한다。 〃헬렌〃 엄마 사랑한다。 엄마는 〃비너〃 때린다』하였읍니다。 나는 〃헬렌〃에게 그것을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생각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는 내가 매우 곤난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옆에 있으려 하였읍니다마는 그가 홀로 앉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읍니다。 저녁상에서 그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것을 알고 매우 고민하였읍니다。 나는『쿡、선생님에게 차!』라고 말했읍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슴이 아파서 조금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였읍니다。 그는 흐느껴

을며 네게 매달렸읍니다。

「우리가 이층으로 올라 갔을 때에도 그는 대단히 흥분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스틱크·버그〃라는 벌레에다 취미를 붙이게 하려고 하였읍니다。 이 벌레는 내가 본 중에는 제일 이상한 것이었읍니다。 그 벌레는 조그마한 장적을 묶어 놓은 것 같았읍니다。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움직일 때라도 이것이 산 물건이라는 것보다는 무슨 기계 장치로 만든 장난감 같았읍니다。 그러나 이 가련한 소녀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읍니다。 그의 가슴에는 수심이 차서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읍니다。 그는 『벌레도 나쁜 아이 아나? 벌레 행복한가?』하였읍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목에다 팔을 얹고 말하기를 『나는 내일 좋게 된다。 〃헬렌〃 언제든지 좋다』하였읍니다。

『〃비니〃에게 가서 네가 그를 할퀸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여라』하였읍니다。 그는 웃고 대답하기를、

『〃비니〃는 말을 쓸줄 모른다』하였읍니다。 『네가 매우 미안해 한다는 것을 내가 대신 말하지。 나와 같이 가서 〃비니〃를 찾을가?』 하였읍니다。 그는 좋아서 같이 갔읍니다。 〃비니〃에게 키스를 하게 하였으나 그는 그를 끼어 안아주지는 아니하였읍니다。 그다음부터는 보통 이상으로 얌전해지고 내게는 아름다운 것—이전에 보지 못하던 부드러운 표정—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一八八七년 七월 三일

〃헬렌〃이 쓴 것을 여기 동봉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헬렌〃의 연필 글씨는 훌륭합니다。 나는

그에게 〃브레일〃 식 점자법(點字法)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알수 있는 말을 자기손으로 쓸수 있는 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는 지금 무엇이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되었읍니다。 그는 『무엇?』『왜?』『언제?』라 하고 무릅니다。 특별히 『왜?』를 종일 무릅니다。 그는 지성이 발전됨에 따라서 합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의 친구들의 어린이들이 자주 묻는 것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인가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질문들은 어린이들이 사물의 원인에 대하여 점점 취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아이들이 원인과 결과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찌하여 목수는 집을 지을 줄 아나요?』『누가 병아리를 알에다 넣었나요?』『〃비니〃는 왜 까만가?』『파리는 문다。 왜?』『파리는 물지 않을 수 없나?』『왜 아버지는 양을 죽이었나?』물론 그는 이와 같이 이지적인 질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보통 어린이들보다 더 논리적은 아닙니다。 대체로 말하자면 질문은 재주있는 정상적 세살된 어린이의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의 한이 없는 질문은 나의 적은 지식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무거우며, 최고도로 나의 재주를 짜내지마는 그의 배우려는 욕망은 진실로 성실하고 그 질문은 결코 어리석어서 실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에 나는 〃라우라・브리즈만〃에게서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에게 안부를 전하시고 또한 〃헬렌〃의 인사를 전하여 주십시요、 나는 그 편지를 저녁상에서 읽었더니 〃켈러〃부인은 『〃설리반〃 선생: 〃헬렌〃도 지금 그 정도는 씁니다』라고 놀래어 떠들었읍니다。 그것은 또한 사실이었읍니다。

一八八七년 七월 三十一일

우리는 〃헌스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읍니다。 거기있는 모든 사람들은 〃헬렌〃을 좋아하면서、 키스와 많은 선물을 주었읍니다。 첫날 저녁에 그 호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았는데 아마 한 이십명 가량 될 것입니다。 놀랜 것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는 그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그 전날밤 만난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읍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손짓 알파벳트를 가르쳐주고、 그중의 몇사람들은 그와 담화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 여자들 중의 하나는 〃헬렌〃에게 〃폴카〃춤을 가르쳐 주고 어떤 남자 아이는 그의 토끼를 보여 주고 그 이름들을 전부 가르쳐 주었읍니다。 〃헬렌〃은 기뻐서 그 조그마한 남자아이를 안고 키스하였읍니다。 그 어린이는 어리둥절 하였읍니다。

우리는 털이 폭신폭신하고 붉은 눈을 가진 개하고 〃헬렌〃의 사진을 박았는데、 그개는 〃헬렌〃을 잘 따라서 그는 그 개를 매우 좋아하였읍니다。

〃헌스빌〃에서 돌아온 후로는 〃헬렌〃은 자주 거기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가 분명히 말 쓰는 능력이 진보한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위에서 말한 개를 빼놓고는 〃헌스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몬테·사노〃산을 드라이브하고 올라갔을 때에、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읍니다。 그는 그산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으며、 내가 그에게 그산을 설명할 때에 쓴 글자와 문구를 전부 고대로 어머니에게 설명하였읍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대단히 높은 산이 아

름다운 구름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싶으냐?』고 말하였는데 그말은 내가 말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나는 『구름은 보드럽게 귀여운 꽃과 같이 산위에 떠 있다』하였읍니다。 나는 그의 촉감을 통하여 잘 아는 글자를 쓸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산을 보지못한 사람에게 말만으로 산의 웅장한 것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같이 생각됩니다。 또한 산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그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는지 또한 그가 어떠한 것이 그를 감격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기억력이 좋으며、 풍부한 상상력、 또한 사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그것 뿐입니다。

一八八七년 八월 二十一일

나는 사물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강아지」、 「송아지」、 「어린 애기」 이러한 것에 대한 취미는 〃헬렌〃을 열중하게 하여 『왜냐?』 『무엇때문이냐?』를 물읍니다。 며칠 전에 〃아이빅·그린〃으로 어린 애기가 왔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또다시 어린이의 기원 뿐 아니라 일반 사물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퍼붓게 되였읍니다。 『〃레이라〃는 어디서 어린이를 얻었느냐?』 『어찌하여 의사는 어린이 있는 곳을 압니까?』 『어디서 의사는 〃가이〃와 〃프린스〃(강아지 이름)을 찾았느냐?』、 『왜? 〃엘리자베즈〃는 〃에베린〃의 동생이냐?』 등등ㅡ 이러한 질문으로 어떠한 때는 대단히 곤난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조처를 좀 해야 겠다고 결심하였읍니다。 만일 〃헬렌〃

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그러한 질문을 대답하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어린이들의 관찰하는 힘이 자라고 분별력이 그들로 하여금 사물에 대한 것을 알려고 애쓸 때에 거짓과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왜 묻느냐고 말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헬렌〃의 질문을 나의 힘 닿는 데까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밥법으로 또한 사실대로 대답하기로 하였읍니다。

『내가 왜 이러한 문제만을 특별히 취급하지 않으면 아니될가?』 하고 자문하였읍니다。 나에게는 확실한 이유가 없다고 믿읍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육체적 세계 뒤에 있는 위대한 사실을 모르는 탄식할만한 무식 외에는 이러한 것을 거짓으로 대답할 이유는 없다고 결심하였읍니다。 이러한 무식 때문에 경험이 많은 천사라도 들어가기를 두려워 하는 곳을 나는 무모하게도 뚫고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방에는 내가 이러한 문제 또한 교육、 전반적으로 곤난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만한 분이없읍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그대로 돌진하는 것이며、 잘못되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은 내가 잘못하였다고 생각지 않읍니다。 나는 〃헬렌〃과 나는 「식물이 자라나는 이유는?」이라는 식물책을 가지고 우리가 가끔 나무에 올라가서 간단한 말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나는 그가 봄에 심은 옥수수、 콩、 수박을 생각나게 하였읍니다。 그리고 나는 정원에 있는 크게 자란 옥수수、 콩과 수박넝굴도 이러한 씨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였읍니다。 나는 그에게 땅이 그 씨들을 더웁게 하고 또한 습기를 주며、 그리하여 조그마한 잎사귀들이 강한 힘으로 자라고、 일광과 공기로 숨을

쉬고 자라고、 또한 꽃이 피어 열매에서 어린 식물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였읍니다。 나는 식물과 동물에 공통점을 들어 동물의 경우에는 씨는 알인데―닭걀이나 새알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또한 어미닭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알을 더웁게 하여준다고 하였읍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생명은 알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읍니다。 새들은 둥우리에다 알을 낳고 새끼가 깨나올 때까지 알을 따뜻하게 품는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어미물고기는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다 알을 낳아서 그곳으로부터 애기 물고기들이 나온다고 하였읍니다。 나는 그에게 알은 생명의 요람이라고 말하여 주었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동물들 즉 개나 소、 또는 사람은 알을 낳지 않고 그 몸속에서 기른다고 하였읍니다。 나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그들의 자손을 낳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존재는 그치고 오래지 아니하여 지구상의 모든 것은 죽어 없어지리라는 것을 이해시켰읍니다。 그러나 성문제는 될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계속시키는 위대한 것이라는 생각을 주려고 하였읍니다。 문제는 어려웠고 나의 지식은 부족하였읍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책임을 다 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의 설명은 불충분하였으나 나는 확실히 제자를 깨닫게 한 것이 있었읍니다。 또한 육체생활의 위대한 사실을 쉽사리 알아 듣는 것을 보니、 모든 어린이들은 그가 세상에 나올때에 인류의 모든 경험을 그 내부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견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였읍니다。 이러한 선험적(先驗的)인 지식은 사진의 원판 같은 것으로 말과 지성이 발달되면 그러한 것들이 현상되어 기억의 그림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헬렌〃은 오늘 아침에 그의 아저씨 〃켈러〃박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는 〃헬렌〃에게 온천에 오라고 초청하였읍니다。 온천이라는 것이 그에게 매우 흥미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읍니다。 그는 보통 샘물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읍니다。 〃터스컴비아〃근처에도 여러곳이 있읍니다。 그중 큰 온천의 이름으로 이 동네 이름이 된 것입니다。 즉 〃터스컴비아〃라는 이름은 〃아메리카 인디안〃의 말「큰 샘」이라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더운 물이 땅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놀랬읍니다。 그는 땅아래에서 누가 불을 때느냐고 물었으며、 또 그불은 〃스로ㅡ브〃에 있는 불과 같으냐고 알고 싶어 했고、 또한 그불 때문에 나무뿌리가 타지 안나 하고 알려고 하였읍니다。

〃헬렌〃은 그 편지가 맘에 들어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한 다음 그편지를 어머니 앞으로 가지고 갔읍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읽어드리었읍니다。 내가 한 모양으로 〃헬렌〃은 그편지를 자기 앞에다 내놓고 다음에 그 편지의 내용을 손가락으로 쓰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귀여웠읍니다。 그다음에는 편지를 〃벨〃(개)에게 읽어주었으며、 또 〃밀드레드〃에게 읽어주었읍니다。 〃켈러〃부인과 나는 이 어린이가 하는 짓을 문턱에서 보고 있었읍니다。 〃벨〃은 졸고 있었으며 〃밀드레드〃는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였읍니다。 〃헬렌〃은 장난이 아니었읍니다。 그후에 〃밀드레드〃가 그편지를 뺏으려하자 황급히 그손을 감췄읍니다。 그러자 〃벨〃은 일어나서 몸을 흔들고 가려고 하

였읍니다。 〃헬렌〃은 개의 목을 붙잡고 눕게 하였읍니다。 그러자 〃밀드레드〃는 편지를 뺏아 가지고 기어 달아났읍니다。 〃헬렌〃은 마루에서 편지를 더듬어 보고 그것이 없는 것을 알고는 그는 어린이 부르는 목소리를 내였읍니다。 그러하더니 일어 서서 가만이 서 있었읍니다。 〃밀드레드〃가 껑충껑충 어디로 가나 하고 기는 그 발소리로 알아보려는 모양입니다。 그 소리나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보니 어린 범인은 그 귀중한 편지를 씹고 있던 것이였읍니다。 〃헬렌〃에게는 가만이 있을수 없었읍니다。 〃헬렌〃은 그편지를 확잡아 뺏더니만 어린이의 손을 몹시 때렸읍니다。 〃켈러〃부인은 어린이를 안았읍니다。 어린이의 울음이 끄치자 나는 〃헬렌〃에게 『애기를 어떻게 하였지?』하였읍니다。 그는 어색한 기색을 하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주저주저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계집애 편지 먹었다。 〃헬렌〃은 잘못된 계집애 몹시 때렸다』하였읍니다。 나는 『〃밀드레드〃는 매우 어려서 그 편지를 입에 넣는 것이 잘못인지를 모른다』고 하였읍니다。

『나는 애기에게 많이 (여러번) 아니다 아니다 하였다』고 〃헬렌〃은 대답하였읍니다。

『〃밀드레드〃는 너의 손가락으로 글씨 쓴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친절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읍니다。

그는 알아들었다고 머리를 흔들었읍니다。

『애기ㅣ생각 안한다。 〃헬렌〃애기에게 예쁜 편지준다』라고 말하더니 윗층으로 다름질을 하여 올라가서 점자로 적은 깨끗이 접은 편지를 가지고 왔읍니다。 그편지에는 무었을 썼는데 그는 이것을 〃밀드

테드〃에다 주고 『애기 글자 다먹어라』하였읍니다。

一八八七년 九월 四일

내가 공개보고서의 자료를 쓰게 됐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된 것이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신줄 압니다。 쓰게 된 동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안쓴다고 거절할 수 없었고、〃켈러〃대위도 쓰라고 재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유익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아나그노스〃씨의 의견을 찬성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사람들은 〃헬렌〃이 그와 같이 비상하게 진보되었다는 것은 다른 불행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내가 글을 쓰려고 않으면 나의 생각은 꽉 막혀져서 어디서부터 써야 옳은지 모릅니다。〃헬렌〃은 훌륭한 아이라는 것은 조장도 과장도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한 까닭입니다。 나는 〃헬렌〃이 지난 주일에 말한것을 전부 적어 보았더니 그는 단자를 육백자 알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그가 그러한 글자들을 다 똑바로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문장은 중국말로 쓴 글자장난 같읍니다。 그러나 물론 그 글자 장난은 어린이들이 완전치 못한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는 진실로 어학의 재추가 있읍니다。

최근에 그는 색갈에 대하여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는 그의 초등교과서에서 「갈색」이라는 말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머리칼은 갈색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는『갈색은 고운 빛인가?』하였읍니다。 집안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가 손에 댄 것의 색갈을 나 말한 다음에 그는 닭장과 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내일 가보자고 하였읍니다。 왜냐 하면 나는 너무도 피곤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무와 나무사이에 걸쳐놓은 〃함목〃에 앉았으나 피곤한 것이 풀리지 않았읍니다。 왜냐 하면 그는 쉬지 않고 빛갈에 대하여 열심히 더 알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구자가 되기 전에 색갈과 소리에 대한 인상을 아직도 잃지않은 것같이 생각되었읍니다。 십구개월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던 어린이라면 어느정도 확실한 인상이 남았을 것입니다。 〃헬렌〃은 그가 촉감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물에 대하여 알고 있읍니다。 그는 하늘、낮、밤、바다、산과、같은 것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는 내가 그림에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여 달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였는지 잊어버리었읍니다。 그는 〃함목〃에서 앞뒤로 흔들흔들 할 때에 그는 질문을 하나 하였읍니다。 『생각은 무슨 빛갈이지?』하였읍니다。 우리가 행복스러울 때는 우리의 생각은 번쩍번쩍하고 희며、 우리가 슬플 때의 우리의 생각의 빛은 거멓다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갑자기 『나의 생각은 희고、 〃비너〃의 생각은 깜다。』하였읍니다。 그의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의 빛갈은 피부색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읍니다。 나는 웃을 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 순간에 〃비너〃가 큰 목소리로

죄인들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하고 노래하는 것이 들려왔읍니다。

一八八七년 九월 十八일

보고서의 자료는 다 끝을 내고 곧 보내었읍니다。 나는 그것을 두벌 가지고 있으니까 한벌 보내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마세요。 그것은 출판될 때까지는 "아나그노스" 씨의 재산입니다。

"헬렌"은 "보스톤"에 가면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여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일전에는 그는 『"보스톤"과 그외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었읍니다。 또 "헬렌"은 『"빌드레드"는 종일 울기만 하기 때문에 "보스톤"에 데리고 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一八八七년 十월 三일

"헬렌"은 어제 소녀들에게 또 한장의 편지를 썼읍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아나그노스" 씨에게 보내주었읍니다。 "아나그노스" 씨에게 그 편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보세요。 "헬렌"은 자기에

대한 대명사(代名詞)를 쓰기 시작하였읍니다。 오늘아침에 우연히『헬렌〃윗층으로 올라가라 하였더니『선생 틀였다。 당신 윗층으로 올라가라』하였읍니다。 이것은 또하나의 진보입니다 어제 곤난하였던 것은 오늘와서는 쉽고 오늘 어려웠던 것은 내일이면 쉬운 것이 됩니다。

〃헬렌〃의 정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나와 같이 몰두하는 취미를 가진 교원이 도대체 일찌기 있었나하고 의심됩니다。 내가 낳을 때에 아마 하늘에 행운의 별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지요。 나는 요지음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아나그노스〃씨로부터 편지 두통을 받았읍니다。 그는『선생의 보고서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귀여운 〃헬렌〃과 그의 유명한 교사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읍니다。

一八八七년 十월 二十五일

아마 당신께서 이 편지를 읽으시기 전에 〃헬렌〃이 그 어린 소녀들에게 보낸 두째 번의 편지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첫번 편지와 두번째 편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헬렌〃의 글이 많이 진보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와 매일 지내는 사람만이 그가 말을 얼마나 속히 배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시면 〃헬렌〃이 대명사를 거의 정확하게 쓰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회화를 할 때에도 대명사를 거의 빼지 않고 또한 잘못 쓰지도 않습니다。 그가 편지를 쓰려는 것과 또한 사기의 생각을 종이에다 적으려는 열심은 적점 강하여 집니다。 요지음은 그의 이야기에는 풍부한 상상력이 상

당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자기는 다른 어린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일전에 그는 『나의 눈은 무엇하지!』하였읍니다。 나는 눈으로 보고、 그는 손가락으로 본다하였더니 『나의 눈은 나쁘지』하더니· 『나의 눈은 병들었지』라고 말하였읍니다。

一八八七년 十월

〃설리반〃여사의 제일 첫번의 보고서는 一八八七년도의 〃퍼킨스〃학교 보고서에 게재되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편지에 기록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었다。 다음에 〃헬렌〃이 「물」이라는 말을 알게 된 특기할 四월 二十五일 이후의 일을 기록한 보고문의 후반을 게재한다。

이 기록에서 〃설리반〃여사는 공부를 규칙적으로 한것 같이 말하였으나、 이것은 그러한 것들을 요약하여 쓴 것에서온 결과이고、 사실 그와 같이 계속하여 매일 하는 일을 「학과」라고 붙으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날 나는 〃헬렌〃을 우물가로 데리고 갔읍니다。 물이 펌프에서 흘러 나오자 나는 『무ㄹ』이라고 써 주었읍니다。 그리하였더니 곧 나의 손을 툭툭 치면서 반복하라 하였읍니다。 그다음에는 기쁜 얼굴로 그 글자를 자기가 써보았읍니다。 마침 그때에 어린애 보는 부인이 〃헬렌〃의 동생을 데리고 우물가로 왔읍니다。 나는 〃헬렌〃의 손을 어린이에게 대고 『아ㅡ기ㅡ』라고 그의 손으로 쓰게 하였읍니다。 〃헬

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그 글자를 쓰고, 안다는 듯이 기뻐하였읍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가 만지는 모든 물건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으며, 또한 같은 것은 반복하여 묻지 않았읍니다。 단자가 얼마나 길든지 또한 어떠한 복합(復合)단자라도 "헬렌"은 곧 기억하였읍니다。 그는 「헤리오트로프 꽃(Heliotrope)」과 「국화(Chrysanthemum)」라는 말이 상당히 긴 글자들인데도 짧은 글자나 마찬가지로 쉽사리 기억합니다。 八월 말일까지에 六二五의 단자를 알고 있었읍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말하는 글자를 가르쳤읍니다。 즉 그의 옷을 트렁크「안에」 넣었다。 그「위에」다 놓았다라는 전치사를 가르쳐 주었읍니다。 오래지않아 그는 「안에」와 「위에」의 구별을 알았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치사를 자기자신의 문장에다 적당하게 쓰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었읍니다。 그는 언제든지 실물을 이용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자 「위에」 서거나 의걸이 「안에」 들어 가서는 좋아하였읍니다。 전치사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름과 「있다」라는 말을 배웠읍니다。 즉 『"헬렌"은 의걸이 안에「있다」』, 『"밀드레드"는 조그만 침대 안에 「있다」』, 『상자가 책상 위에 「있다」』, 『아빠는 침대에 「있다」』 등이 四월 하순 경에 "헬렌"이 만든 문장들이었읍니다。

그 다음에 형체 있는 물건의 성질을 공부하였읍니다。 처음 순서로서 나는 공을 두개 가져왔는데 하나는 실공이고 또하나는 납으로 만든 공입니다。 실 공은 크고 폭신폭신하였읍니다。 그는 그 둘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곧 인식하였읍니다。 납으로 만든 공을 가리키더니 그가 작은 것에 대한 늘 하는 표시를 하였읍니다。 그것은 한손의 피부를 조금 꼬집는 것이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큰 공을 잡더니 두

손을 그 위에다 벌림으로써 크다는 표시를 하였읍니다。 나는 그러한 표시 대신에 「크다」「작다」하는 형용사를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딴딴하고 또 하나는 폭신폭신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딴딴한」「폭신폭신한」의 형용사를 가르쳐 주었읍니다。 조금 후 그의 동생 〃밀드레드〃의 머리를 만지더니 그 어머니에게 『〃밀드레드〃의 머리는 작고 단단하다』라고 하였읍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그에게 「빠르다」、「느리다」의 형용사를 가르치려 하였읍니다。 그는 나에게 실감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읍니다。 첫번에는 빨리하였고、 다음에는 천천이 하였읍니다。 나는 수화법(手話法)으로 『빨리 감는다』、『천천이 감는다』를 말하여 주었읍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내가 하라는대로 하게 하였읍니다。 그 이튿날 복습할 때에 나의 손에다、 『〃헬렌〃 빨리 감는다』하고는 빨리 감는 것이였읍니다。 다음에는 『〃헬렌〃 천천이 감는다』하고는 동작을 맞추었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이야말로 인쇄한 글자를 가르칠 때라고 생각하였읍니다。「상자」라는 글자가 두드러지게 인쇄한 종이조각을 상자 위에다 놓았읍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그 외에도 여러 물건에다 하였읍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와 같이 쓴 글자가 그 물건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못하였읍니다。 그 다음에 나는 A자를 손바닥에다 써 주었으며、 ABC표에 있는 A자를 만져보게 하였읍니다。 내가 각 글자를 손가락으로 쓴 것을 ABC표에서 더듬어가서 하루에 대문자 소문자를 전부 가르쳤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초등교과서 제일권을 펴고 「고양이」라는 글자를 그의 손으로 만지게 하며、 동시에 나는 손가락으로 「고양이」라고 스펠을 하였읍니다。 곧 그는 그 의미를 이해했고 개(犬) 또한 그 외의 글자들을 찾

으려고 하였읍니다。 그는 그 책 가운데에서 자기 이름 〃헬렌〃이 없는 것을 불유쾌하게 여겼였읍니다。 그 때에 그 책에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몇시간이고 앉아서 글자들만 손으로 만져보았읍니다。 그가 아는 글자를 찾게 되면 이상스러운 아름다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였으며 그의 얼굴은 더욱더욱 아름답고 온후하여지며、 성실하게 보였읍니다。 이 때쯤하여 나는 〃헬렌〃이 아는 단어표를 〃아나그노스〃씨에게 보냈더니 씨는 친절하게도 그것을 인쇄(凸版으로)하였읍니다。 그의 어머니와 나는 그 인쇄한 종이들을 여러개로 짤라서 〃헬렌〃에게 문장을 만들도록 하여주었읍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를 기쁘게 하였으며、 글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나는 연필과 종이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용이하였읍니다。 그는 이미 배운 문구 뿐만 아니라 자기마음에 떠오르는 어떠한 생각이든지 써 보려고 하였읍니다。 나는 그가 쓸 글자를 맹인들이 사용하는 점자판 위에 쓰고 그것을 만지게 하였읍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손을 붙잡고 『고양이는 우유를 마신다』 등의 문장을 쓰게 하였읍니다。 그것을 다 쓰면 좋아서 어머니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헬렌〃에게 그 글자들을 그의 손에다 써 주었읍니다。

매열매열 그는 홈선(凹線)이 있는 종이에다 연필로 글씨를 쓰면서 조금도 성급히 한다든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였읍니다。

그가 그의 생각을 종이에다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으므로 이번에는 〃브레일〃식 점자법을 가르쳤읍니다。 그가 쓴 것을 자기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기뻐하며 점자법을 열심히 배웠

옵니다。 또한 이 점자법은 오늘날까지도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밤 늦도록 그는 책상에 앉아서 그 머리에 떠 오르는 것을 점자로 썼읍니다。 나는 그가 쓴 것을 알아보기에 별로 곤난이 없었읍니다。

그는 산수도 상당히 진보되었읍니다。 그는 百까지는 매우 빠르게 가감을 할줄 압니다。 또한 그는 五까지의 九九법을 압니다。 최근에 그는 四十까지의 곱하기(乘)를 하는데、 나는 二를 가지고 四十을 만들라 하였더니 그는 곧 『二곱하기 二十은 四十』이라고 대답을 하였읍니다。 그 다음에는 『十五에다 三을 곱하여 가지고 세어보아라』 하였읍니다。 나의 뜻은 셋씩 셋씩 열다섯 만들어 놓고 세보라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곧 『十五곱하기 三은 四十五』라고 선뜻 대답하였읍니다。

내가 그는 희고 하인은 검다고 하였더니 그는 직업에 의하여 피부색이 일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인의 피부색을 물을 때마다 그는 『검다』고 대답하였읍니다。 그 다음 직업을 그가 모르는 사람의 피부색을 물었더니 그는 한참 무엇이라 할줄 모르고 있다가 『푸르다』고 대답하였읍니다。

그는 지금까지 「죽는다」든지 「장례식」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들은 일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평생 처음으로 나와 그의 어머니하고 묘지에 가서 꽃을 딸 때、 그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운다 운다』라고 여러번 썼읍니다。 그 꽃들은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않는 것 같았읍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묘지에 있을 때에는 매우 조용하였읍니다。

어떤날 산보할 때 그는 나하고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의 오빠가 옆에 있는 것을 안 모양이였읍니다。

그는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갔읍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나 말을 타고 갈 때에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이름을 묻고 다시 만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었읍니다。

一八八七년 十월

여기서부터 다시 편지를 쓰기로 합니다。

우리는 〃헬렌〃을 곡마단 구경에 데리고 갔으며、우리는 참으로「재미난 시간」을 보냈읍니다! 곡마단 사람들은 〃헬렌〃에게 많은 동정을 베풀고、모든 방법을 다하여 〃헬렌〃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였읍니다。 그들은 동물들의 기분이 좋을 때는 〃헬렌〃에게 만져보게 하였고、또한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게 하였으며、 그중 제일 큰「동양의 왕자」라는 코끼리의 등에 태워가지고 장내를 돌아다니게 하였읍니다。 그는 사자들도 만져보게 하였는데、 고양이나 마찬가지로 순하였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커질수록 사나워진다고 가르쳐 주었읍니다。 〃헬렌〃은 지키는 사람에게『애기사자를 집에다 데리고 가서 될 수 있는대로 순하게 기르겠다』고 하였읍니다。 곰을 놀리는 사람은 곰을 뒷발로 서게 하고 앞발을 우리들앞에서 들게 하였는데、 〃헬렌〃은 정답게 그 앞발과 악수하였읍니다。 〃헬렌〃은 원숭이를 보고 좋와하였으며、 그중 제일 잘 노는 놈이 재주를 부릴 때에 〃헬렌〃은 원숭이의 손을 쥐고 있었으

며. 재주가 끝나자 원숭이는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니까 "헬렌"은 좋아서 마음 것 웃었읍니다. 조그마한 귀여운 놈이 "헬렌"의 머리핀을 훔치고, 또 한놈은 "헬렌"의 모자에 있는 꽃을 떼어갔읍니다. 누가 제일 재미를 보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즉 원숭인지 "헬렌"인지 또는 관중들이었는지? 표범하나는 "헬렌"의 손을 핥아보았으며, 기린을 다루는 사람은 "헬렌"을 안아 올려서 기린의 귀를 만져보게 하였으며, 또한 기린이 얼마나 높은 가를 알게 하였읍니다. 그는 또한 고대 희랍 달구지를 만지게 하였고, 그것을 끄는 사람은 "헬렌"을 태워가지고 장내를 한번 빙 돌겠다고 하였으나, 「많은 빠른 말들이 무섭다」하여 그만두었읍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어릿광대, 또한 줄타는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헬렌"에게 만져보게 하였으며,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재주를 부릴 때에도 만져보게 하였읍니다. 그리하였더니 "헬렌"은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키스를 하여 주었읍니다. 그들중 어떠한 사람들은 감격하여 울었으며, "보르네오"에서 온 토인(土人)은 무서워서 "헬렌"으로부터 움츠러들었읍니다.
그 다음부터는 곡마단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나는 동물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을 수 밖에 없었읍니다. 나는 현재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쟝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一八八七년 十一월 十三일

"헬렌"이 하루 종일 몇번이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나로서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유쾌히 보냈는지 기억하십니까?

〃헬렌〃은 시계를 볼 줄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크리스마스〃선물로 시계를 사주려고 합니다。

〃헬렌〃은 귀로 들을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지않게 이야기하여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나에게 「붉은 기사의 두건」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게 하였던지 지금 나는 그 이야기를 거구로라도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슬픈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아무 걱정도 없을 때 슬픈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리 나쁜 기분은 아닙니다。 나는 그에게 간단한 시가(詩歌)를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것들은 그의 마음에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또한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물론 나는 구구하게 설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면 아이들의 주의는 글자와 문장에 끌리게 되어 전체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글자와 문장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 전체적인 사상을 파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一八八七년 十二월 十二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소용되며、 또한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헬렌〃이 무엇이든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든든해지며、 또한 기껍게 하여주는 것입니다。

이곳도 〃크리스마스〃준비에 참으로 바쁩니다。 〃헬렌〃은 어린이들의 〃파—티〃에는 거의 빠짐 없

이 초청을 받습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많은 〃파―티〃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나는 〃헬렌〃이 될수록 어린이들을 많이 알고 그들과 같이 놀기를 바랍니다。 몇 어린 여성들은 수화문자(手話文字)를 배워서 좋아하고 있읍니다。 한 일곱살 쯤 되는 아이는 글자를 배우라는 권고를 받아 자기의 이름을 써서 〃헬렌〃에게 보였읍니다。 〃헬렌〃은 대단히 기뻐서 그를 안고 키스를 하였더니 그애는 어리둥절 하였지요。

토요일에는 학교 아이들의 〃크리스마스〃추리를 보러 나는 〃헬렌〃을 데리고 갔지요。 이것은 그가 처음보는 〃크리스마스〃추리였으므로、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읍니다。『누가 이 나무를 집에서 길렀나요』、『왜? 누가 이 나무에다 여러가지를 달아 놓았나요?』。 그는 이 여러가지 달려있는 열매를 떼기 시작하였읍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모두 그에게 주는 선물인 줄 생각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아이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읍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어도 좋다고 하니까、 그는 대단히 기뻐하였읍니다。 그리고 〃헬렌〃 자신에게도 여러개의 선물이 있었읍니다。 그는 그 선물을 의자에다 놓고 모든 아이들이 각각 자기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그 선물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한 작은 여자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선물이 작은 것을 보고 〃헬렌〃은 자기의 것을 그 아이와 논자고 고집을 부렸읍니다。 〃헬렌〃에게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의 열성과 그에게 기쁨을 주느라고 애쓰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입니다。 아홉시에 〃파―티〃가 시작되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한시가 되었읍니다。 나의 손가락

과 머리가 아팠읍니다。 그러나 〃헬렌〃은 우리가 집을 떠났을 때나 마찬가지로 씩씩하고 조금도 고달픈 기색이 없었읍니다。 저녁 밥이 끝난 후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읍니다。 우리는 한바탕 유쾌하게 놀며 눈에 대한 재미있는 공부를 하였읍니다。 일요일 아침 마당은 눈으로 덮였읍니다。 〃헬렌〃과 하인 아이들과 나는 눈 공을 만들었읍니다。 낮에는 눈이 다 녹아 버렸읍니다。 이것이 내가 여기와서 처음 본 눈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고향생각을 했었지요。 이 〃크리스마스〃계절이 많은 공부를 하게 하였읍니다。 〃헬렌〃은 새 단어(單語)가 많이 늘었읍니다。

수주일 동안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읽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읍니다。 물론 나는 새로운 말을 전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헬렌〃도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고 되풀이하는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그 뜻이 그에게 알게 되었읍니다。 나는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낸」 회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이 방법은 생도나 선생을 위하여 어리석은 일이고、곧 질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담화는 자연스러워야 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만일 어린이의 마음속에다 전달할만한 것이 없다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칠판에다 글을 쓰게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고양이」、「새」、「개」에 대한 무미건조한 문장을 쓰게 하는 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헬렌〃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려고 하였고、그에게 흥미 있는 것에 한해서만 이야기하게 하였으며、그가 알고 싶은 것에 한해서 질문을 하게 하였읍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으나 말을 몰라서 곤란을 당하

는 것을 볼때 나는 거기에 필요한 용어를 가르쳐주고, 따라서 우리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단어(單語)의 뜻을 장황히 설명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조금도 이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의 배우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등한시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걱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단어(單語)의 뜻을 설명하는 것만 보고 어린이의 실력을 측정하게 된다면, 나는 아마 초등학교 일학년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나는 "헬렌"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귀여웠읍니다。 그는 행여나 "싼타・클로스"가 못볼까하고 스타킹을 한켤레나 다 매달았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잔 뒤에도 누가 무엇을 넣었나 하여 몇번이고 일어났었읍니다。 "싼타・클로스"는 그가 잠든 다음에 온다 하였더니 눈을 감고 『할아버지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지요』하고 말하였읍니다。 그는 아침 제일 먼저 잠이 깨었읍니다。 그리고 두개의 스타킹을 보러 벽으로 달려갔읍니다。 그는 "싼타・클로스"가 스타킹 두개에다 선물을 가뜩 넣은 것을 보고 한참동안 춤을 추었읍니다。 그러더니 금시 조용해지고 나에게 와서 "싼타・클로스"가 잘못 알고 두사람 몫을 넣고 가지않았나 하고 물었읍니다。 그리고 그의 몫을 알고 그 선물을 찾으려 다시 오지 않을까 하고 물었읍니다。 당신이 보낸 반지는 그 스타킹 깊이 넣었는데 나는 그에게 당신이 "싼타・클로스"에게 부탁하여 "헬렌"에게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말하니까 그는, 『나는 "홉킨스"부인을 사랑합니다』하고 말하였읍니다。 그는 가방을 가지고 와서 "낸시"의 옷을 꺼내고 말하기를 『지금 "낸시"는 연회에 나갑니다』하였읍니다。 그는 점자판과 종이를 보더니

『많이 편지를 써서 〃싼타・클로스〃에게 감사를 해야지』하고 말하였읍니다。 작년보다 명랑하게 금년의 〃크리마스〃를 지내게 된 것은 〃켈러〃부인과 〃켈러〃대위를 대단히 감동시켰읍니다。 그들의 딸들이 작년 〃크리스마스〃축하에는 일부러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랫층으로 내려가니까 〃켈러〃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말하였읍니다。

『〃설리반〃양! 나는 매일 같이 하느님께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같이 당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 때는 없었읍니다。』

〃켈러〃대위는 나의 손을 붙잡고 말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 말보다 더 사람을 감동시켰읍니다。 나의 가슴도 또한 감사와 엄숙한 기쁨으로 가득차 있었읍니다。

며칠 전에 〃헬렌〃은 작은 이야기책을 읽는 도중 「할아버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지?』하였읍니다。 물론 자기의 할어버지를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죽었다(돌아가시었다)』하였읍니다。 그리 하였더니 『아버지가 쏘았나?』하고、 나는 『저녁밥에 할어버지를 먹겠다』하였읍니다。 그 때까지의 그의 죽음에 관한 지식은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었읍니다。 그는 그 아버지가 모츠라기、 사슴、 기타의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오늘아침에 〃헬렌〃은 『목수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읍니다。 그리하여 이 글자는 그날 하루 종일의 공부가 되었읍니다。 목수가 만드는 여러가지 물건에 대한 질문을 한 다음에、 『목수가 나를 만들었나?』하고는 대답도 하기 전에 『아니! 아니! 나를 〃쉐필드〃의 사진사가 만들었지』하였읍니다。

가장 큰 철의 용광로가 "쉐필드"에 새로 설치되었는데 우리는 며칠전 저녁에 구경을 갔었읍니다。 "헬렌"은 그 열을 느끼고 『태양이 떨어졌나?』하였읍니다。

一八八八년 정월 초하루

보고서는 어제 밤에 받았읍니다。 "아나그노스"씨가 "헬렌"과 나에 대한 친절한 말은 감사하는 바이나 과장하여 말한 것은 오히려 내게 곤난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훨씬 감명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이유로 내가 꿈에도 생각지 않던 동기가 있었다고 하십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기 온 동기에는 하등 박애정신(博愛精神)으로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우"박사의 고상한 정신에 감동되어서 이 어린 "알라바마"사람을 암흑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속에서 구원하려는 열성에 불타고 있다는 말은 얼마나 우수운 일인가요! 나는 다만 생계를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잡았던 것이었고、 나는 그러한 일에 적임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그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一八八八년 정월 九일

"헬렌"의 편지를 받으셨겠지요。 어쩌된 셈인지 연필로는 아니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오늘 아침에 그의 삼촌 "프랭크"에게 연필로 편지를 쓰라 하였더니 그는 반대하고 『연필로 쓰는 것은 피곤하다。 점자편지 쓰겠다』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는 점자편지를 읽지 못한다』하였더니 『나는 그에

게 가르치겠다」하였읍니다。 『〃프랭크〃아저씨는 너무 늙어서 점자를 배울 수 없다」하였더니 그는 곧 『아저씨는 너무 늙어서 잔 글씨의 편지 못 읽는다』하였읍니다。 끝으로 나는 그에게 몇줄만 쓰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지를 끝내기까지에 연필을 여섯번이나 부러뜨리었읍니다。 나는 『너는 말 안듣는 아이다』하였더니 『아니다。 연필이 약하다』하였읍니다。 그가 연필로 쓰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편지를 써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퍼킨스〃학교 아이들이 연필로 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연필로 쓰는 것은 맹인들에게는 참 지루한 일이고、자기들이 쓴 것을 읽을 수 없으며、또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헬렌〃은 차차 빛(色)에 대하여 취미를 가집니다。 내가 〃밀드레드〃의 눈은 푸르다 하였더니 『하늘빛과 같은가?』하였읍니다。 조금 후에 그에게 준 〃카베이숀〃꽃은 붉다 하였더니 그는 입을 동그랗게 하고 『입술은 분홍색 같다』하였읍니다。 나는 『입술은 〃튜립〃이라』하였으나 물론 그는 말의 장단을 이해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는 일년반 동안에 가졌던 색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마음의 어디인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너무 혼돈되어서 희미할 것이며、점차 깊어지는 황혼에 사라지는 경치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一八八八年 정월 二十六일

우리는 어제저녁에 집에 돌아왔읍니다。 우리는 〃맴피스〃에서 즐겁게 놀았지만 조금도 휴양은 되지

못하였읍니다。 차도 타고 오찬회, 환영회 등、 더욱이나 〃헬렌〃 같은 열심이고 피곤을 모르는 아이와 같이 있으면 같이 휩쓸리지 않을 수 없는 흥분과 감격의 계속입니다。 거기 있던 몇 젊은 사람들이 〃헬렌〃과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였던들 얼마나 곤난할지 모를 번하였읍니다。 그들은 나를 많이 도와주었읍니다。 그래도 나는 단 삼십분을 혼자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읍니다。 『오! 〃설리반〃 선생、 이리 오셔서 〃헬렌〃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여 주시요』, 또는 『〃설리반〃 선생、 이것을 〃헬렌〃에게 설명하여 주시요。 우리는 그에게 이해시킬 수 없읍니다』 등등이었읍니다。 아마도 〃멤피스〃에 거주하는 백인들의 절반은 우리를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헬렌〃은 너무도 귀염을 받아서 그를 그르치게 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사랑스러웠읍니다。

〃멤피스〃의 상점은 대단히 친절해서 나는 있는 돈을 전부 쓰려고 하였읍니다。 어느날 〃헬렌〃은、 『나는 〃낸시〃에게 모자를 하나 사주어야지』 하였읍니다。 『좋다。 오늘 오후에 사러 가자』하였읍니다。 그는 은전으로 일불짜리와 십전짜리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우리가 상점에 도착하였을 때에 얼마짜리 모자를 사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당장에 『나는 십전 쓰겠다』 하였읍니다。 나머지의 一불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하였더니 『좋은 〃캔디〃를 사가지고 〃터스컴비아〃에 가겠다』 하였읍니다。

우리는 주권시장(株劵市場)과 증기선을 구경갔읍니다。 그는 배에 큰 취미를 가지고 기관실부터 깃대에 걸린 기까지 하나도 빼지않고 전부 보겠다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베이춘」잡지에서 지난 주일 〃헬렌〃에 대하여 게재한 것을 보고 만족하였읍니다。

보고서가 출판되자 〃켈러〃대위는 두통의 재미난 편지를 받았읍니다。 하나는 〃아렉산더・G・벨〃 박사의 것이었고、또 하나는 〃에드워드・E・헤일〃박사의 것이었읍니다。 〃헤일〃박사는 〃헬렌〃과 친척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며、일가인 〃헬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였읍니다。 〃벨〃박사는 〃헬렌〃과 같이 귀먹은 사람의 교육의 발전은 그 유례가 없을 만큼 훌륭하였다고 말하고、또 여러가지 친절한 이야기를 그 교사에 대하여 하였읍니다。

一八八八年 二월 十일

어제는 바빠서 편지를 끝내지 못하였읍니다。 〃에바〃양이 와서 〃헬렌〃이 배운 글자의 일람표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읍니다。 우리는 겨우 P자까지 만들었는데 〃헬렌〃이 배운 것은 九백자였읍니다。 三월 一일부터 〃헬렌〃에게 일기를 쓰게 하였읍니다。 아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지마는 〃헬렌〃은 지금 매우 취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 듯합니다。

다음 것은、〃헬렌〃이 일요일에 쓴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이슬맞은 오랑캐꽃을 세개 따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었다。 조반을 먹은 다음에 인형을 가지고 잠시 놀았다。 〃낸시〃는 골이 나서 울고 발길질을 하는 것이였다。 나는 책에서 크고 무서운 동물이야기를 읽었다。 무섭다는 것은 골이 나고 강하

고 배가 고픈 것이다。 나는 무서운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제임스〃아저씨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온천에서 산다。 그는 의사이다。 의사는 병을 낫게 한다。 나는 병이 싫다。 그 다음에 저녁을 먹었다。 나는 〃아이스크림〃은 많은 것이 좋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버밍함〃에 기차로 가셨다。 나는 〃로버ㅡ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그는 사랑하는 〃헬렌〃이라 하였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작은 〃헬렌〃에게서 편지 받는 것을 좋아한다。 날이 들면 만나러 가겠다 하였다。 〃뉴ㅡ섬〃부인은 〃로버ㅡ트〃의 부인이다。 〃로버ㅡ트〃는 그 부인의 남편이다。 〃로버ㅡ트〃와 나는 경주하고、 뛰고、 춤추고、 그네를 뛰고、 또 새、 꽃、 나무、 풀들을 이야기하고、 또 쟈보〃와 〃펄〃이 같이 갈 것이다。 선생님은 우리는 어리석다 할것이고 나는 선생님이 우습다。 우스우면 우리를 웃게 할 것이다。 〃나타리〃는 좋은 어린 아이로 울지 아니한다。 〃밀드레드〃는 운다。 그러나 며칠되면 좋은 어린이가 되어서 나와 같이 다름질하고 놀 것이다。 〃그레이브〃부인은 짧은 옷을 〃나타리〃에게 만들어 주고 있다。 〃메이요〃씨는 〃덕힐〃에 가서 많은 향기나는 꽃을 가져왔다。 〃메이요〃씨 〃페리스〃씨 〃그레이브〃씨는 나와 선생님을 사랑한다。 나는 오래지않아 그들을 만나러고 〃멤피스〃에 간다。 그들은 나를 안고 키스할 것이다。 〃톰톤〃의 학교에 가서 얼굴을 더럽게 한다。 저녁을 먹고 나는 침대위에서 선생님하고 장난하고 놀았다。 선생님은 나를 베개 밑에다 숨겨 주었다。 나는 나무가 땅에서 나오는 모양으로 천천이 자란다。 이제 나는 자겠다。 헬렌·켈러」

一八八八년 三월 五일

우리는 마침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 때에 "켈러" 대위는 나더러 "헬렌"을 교회에 데리고 가라 하였읍니다。 장로들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회에 올 것이고、 목사들은 "헬렌"을 보겠다는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도착하였을 때는 마침 주일학교 시간이었읍니다。 "헬렌"이 들어갔을 때에 센세이숀이 일어난 것을 좀 보시었더라면! 어린이들은 선생들의 말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뛰어와서 우리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헬렌"은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또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를 막론하고 모조리 그들과 키스를 하였읍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어린이들은 모두 여기 온 목사의 아이들인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헬렌"은 그 중에는 자기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또한 나는 그들은 목사들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읍니다。 그는 실망한 듯이 말하기를、『나는 그들에게 많은 키스를 보냅니다』 하였읍니다。 목사들 중 한분이 내게 말하기를、 "헬렌"에게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라 하였읍니다。 그는 대답하기를、『목사들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였읍니다。 그 목사는 그것을 노―트에다 적었읍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헬렌"은 대단히 흥분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였읍니다마는『그대로 두십시요! 곧 진정될 것입니다』라고 "켈러" 대위가 말하기에 그대로 있는 수 밖에 없었읍니다。

"헬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읍니다。

그는 나와 그 옆에 가만이 앉아 있는 목사를 안고 또한 키스를 하였읍니다。 목사님은 자기의 시계를 주어 놀라 하였더니 그래도 가만이 있지 아니하고 그 시계를 뒤에 있는 어린애에게 보내주었읍니다。 섭

찬예식이 시작되자 〃헬렌〃은 포도주의 냄새를 맡아보고 콧소리를 어떻게 크게 내였던지 예배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있었읍니다。 포도주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돌아오자 그 사람은 〃헬렌〃이 그 잔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밖에 없었읍니다。 참으로 내가 교회에서 나왔을 때처럼 마음 시원한 일은 없었읍니다。 나는 그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교회에서 끌어 내려 하였으나 그는 누구든지 옷자락을 잡게 되면 집에 있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어린이들에게 순서대로 키스를 하라고 하였읍니다。 그들은 그가 그와 같이 장난하는 것을 보고 모두 웃었읍니다。 그들은 교회를 나온다는 것 보다는 오락장소를 떠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켈러〃 대위는 목사님 몇분을 점심에 청하였읍니다。 역시 〃헬렌〃을 진정시킬 수 없었읍니다。 〃헬렌〃은 가장 활발한 손짓으로 〃브르스터〃를 가면 어찌어찌하였다는 것을 묘사하였읍니다。 그렇더니 끝으로는 식탁에서 일어나서 해초와 조개껍질을 잡고 물에서 퍼덕퍼덕하는 모양을 하며、 또한 좀 창피할 만큼 치마를 들어 올리였읍니다。 그리고 마루에 누워서 힘차게 헤엄치는 시늉을 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들의 의자라도 차지 않나하여 염려되었읍니다。 그의 동작은 말보다도 효과적인 때도 있었으며、 선녀모양으로 퍽 점잖은 진심이였읍니다。 저와 같이 대단히 바쁘신지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밤낮 〃보스톤〃、 〃보스톤〃、 〃보스톤〃하고 말하면서 계획하며、 공상을 합니다。 〃켈러〃부인도 확실히 우리와 같이 가기로 결정하였지마는 온 여름 동안을 거기서 지내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一八八八년 四월 十六일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지는 언제 보내드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보스톤〃에서 보내드리는 편지일 것입니다。 나는 편지쓰기에는 너무나 행복된 시일을 보내고 있읍니다。 우리가 〃신시나티〃에 다녀온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읍니다。

우리는 의사들 하고 일주일 동안을 재미나게 보내었읍니다。 우리는 〃켈러〃의사를 〃멤피스〃에서 만났읍니다。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의사인 것 같았으며、 〃켈러〃씨는 그들을 전부 아는 것 같았읍니다。 〃신시나티〃에 도착하고 보니、 그곳에는 의사들이 많이 와 있었읍니다。 그들 중에는 〃보스톤〃의 유명한 의사들도 있었읍니다。 우리는 〃버넷트〃 호텔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헬렌〃을 귀여워 하였읍니다。 이 모든 학자들은 〃헬렌〃의 재주와 유쾌한 것에 놀래었읍니다。 〃헬렌〃에게는 어디인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무엇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 명랑한 관심을 가지는 것인가 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흥미의 중심이었읍니다。 악대가 시작되면 방을 뺑뺑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얼사안고 키스를 합니다。 그의 행복스러운 모양은 모든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읍니다。 누구도 그를 불쌍히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읍니다。 어떠한 신사는 〃켈러〃의사에게、『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보는 이 아이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은 본 일이 없읍니다』 하였읍니다。 또 한사람은、『참으로 저 아이가 나와 같이 있어 준다면 나는 세상 것을 다 내버려도 좋다』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유쾌한 것들을 전부 여기서 적을 수는 없읍니

다。 적는다면 큰 책이 한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한 일들을 적는다면 또 한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켈러〃의사는 〃아나그노스〃씨가 내게 보낸 보고서의 발췌를 정리하여 주었으며、 만일 그가 좀 일찌기 가지고만 있었다면 수천장이라도 다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몇해 전에 〃메인〃주지사이었던 〃가셀론〃의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어느 오후에 우리에게 드라이브를 하여 주시고、 〃헬렌〃에게 인형을 주시었읍니다。 〃헬렌〃은、『나는 너무 어린이 많은 것 좋아하지 않는다。 〃낸시〃는 아프지、 〃애들린〃은 암상구러기지、 〃아이다〃는 나쁘지』하였읍니다。 우리는 눈물이 날 지경으로 웃었읍니다。 그러나 〃헬렌〃은 농담이 아니었읍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러면 무엇을 좋아하지?』하였더니、『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갑이나 있었으면 !』하였읍니다。 그 의사는 어안이 벙벙하였읍니다。 그는 그때까지 「말하는 장갑」이란 들어본 일이 없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언제인지 〃헬렌〃에게 누가 장갑을 주었는데、 그곳에는 〃알파벳트〃글자가 수놓아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한다』하였읍니다。 나는 그 의사에게 만일 호의로서 장갑을 사주신다면、 내가 거기다 〃알파벳트〃를 수놓겠다고 말하였읍니다。

우리는 (당신의 예전 목사) 〃타이어〃씨와 그의 부인하고 점심을 먹었읍니다。 그들은 날더러 어떻게 「형용사」와 「선」이니、 「행복」이니 하는 추상명사를 가르쳤느냐고 질문하였읍니다。 이러한 질문은 학자 의사님들이 수백번 물었읍니다。 대단히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놀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어떠한 개념이 어린이 마음속에 명확히 구성만 되어 있다면 관념에 대한 이름을 가르치는 것은 물건의 이

틈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 없이 쉬운 일입니다。 물론 어린이의 마음에 관념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름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어린이가 「크다」、「작다」、「좋다」、「그르다」、「달다」、「시다」 등의 경험이 없다면 말을 붙들어 맬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입니다마는 동서양의 지식 있는 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린이에게 무슨 단 것을 주어서 그가 혀를 치고 입맛을 다시고 얼굴에 좋은 기색이 나타난다면 그는 확실하고도 틀림없는 감각을 가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가 이러한 감각을 가질 때마다 「달다」는 말을 듣게 되고、혹은 그의 손에다 「달다」는 글자를 써 준다면 그는 속히 이 의미의 표시가 그 감각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여러분이 「레몬」의 조각을 그의 혀에 넣는다 하면 그는 입을 동그랗게 하고 그것을 배앝아 버리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몇번 한 다음에 또다시 입을 막고 얼굴을 찡그리며 그에게 「시다」는 말을 가르치면 그는 곧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검다」、「희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쉽사리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다」、「희다」도 「달다」、「시다」나 마찬가지의 감각을 표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그는 자기 경험으로부터 여러가지를 구별하게 되어 「좋다」、「나쁘다」、「점잖다」、「험하다」、「행복하다」、「슬프다」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문제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一八八八년 五월 十五일

다음에 "설리반" 여사의 편지의 일절은 다른 사람의 방법을 관찰하고 느낀 그의 솔직한 의견이다.

우리는 어떤 조그마한 맹아학교를 방문하였읍니다. 우리는 매우 반갑게 영접을 받고 "헬렌"은 그 어린이들을 만난 것을 매우 유쾌해 하였읍니다. 그 교사들 중 두사람이 수화법(手話法)을 알기 때문에 직접으로 "헬렌"과 이야기 하고, "헬렌"의 능력을 알고 깜짝 놀랬읍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어린이들은 "헬렌" 같이 표현력이 있는 어린이는 하나도 없다 하였으며, 사실 그중 어떠한 어린이들은 이삼년간 교수를 받았다 하였읍니다. 첫번에는 믿지 않았으나 두 서너시간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들은 것은 사실이며, 또한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였읍니다. 조그마한 방에서 칠판 앞에다 어린이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짧은 글」을 고생스럽게 공부시키고 있었읍니다. 어떠한 여자 어린이는 『나는 새옷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여쁜 옷이다. 엄마가 새옷을 만든다.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라고 썼읍니다. 또한 꾸불꾸불한 머리를 한 남자 어린이는 『나는 큰 공을 가지고 있다. 나는 큰 공을 차기를 좋아한다』라고 썼읍니다. 우리가 방에를 들어 갔더니 아이들의 주의는 "헬렌"에게 끌려게 되었읍니다. 어린이들 하나가 나의 팔소매를 끌어다니며 『계집애 눈 멀었지』하였읍니다. 교사는 칠판에다 『이 여자의 이름은 "헬렌"이다. 그는 귀가 먹었다. 그는 눈이 멀었다. 그는 불상하다』라고 읍니다. 『왜! 당신은 그러한 문장을 칠판에다 씁니까? "헬렌"의 이야기를 입으로 하시면 못알아듣겠읍니까?』하였읍니다. 교원은 올바른 문장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읍니다. 그 다

은에는 "헬렌"을 중심으로 몇가지 더 문장을 연습하였읍니다. 옷에 대하여 쓴 그 여자는 참으로 자기 옷을 좋아하느냐고 교사에게 물어보았읍니다. 그 교원은,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것에 대하여 더 잘 쓸 수가 있읍니다』하였읍니다. 그 방법은 너무도 기계적이고 어려웠읍니다. 나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였읍니다. 누구든지 귀가 먹지 아니한 어린이에게 처음부터 『나는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시키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아빠 애기 키스 이쁘다』라고 하고 그 의미를 보충하기 위하여 자기 얼굴을 가리키는 어린애기보다는 나이로는 더 많았던 것이나, 말을 바로 알아듣고 쓰는 점에 있어서도 그 어린애기보다 나은 것은 없었읍니다.

나는 이 교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에서도 어떠한 문법규칙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또는 전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문장들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어떠한 교육단계에서는 필요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을 배우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칠판에서의 연습처럼 아동이 자연적으로 이야기 하려는 충동을 치명적으로 분쇄해 버리는 일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실은 어린 아동에게 말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귀먹은 아동들에게는 특히 그러합니다. 귀먹은 아동들도 들을 수 있는 아동들과 같이 그의 자라는 지성이 문장을 요구하는 시기가 될 때까지는, 자기 손가락으로 쓰든지 연필로 쓰든지 그의 마음대로 적어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문법상의 어려운 문제를 가르치고, 지루하고 실증이 나는 교실의 공부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

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려고는 하지 않았읍니다。 나도 그들 모양으로 올바른 방법으로부터 멀는지 모릅니다。

〃설리반〃양의 두째번 보고서는 一八八八년 十월 一일까지의 사실을 알려준다。

지나간 일년동안 〃헬렌〃의 건강은 매우 좋았다。 그의 눈과 귀는 전문가에 의해서 검사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는 빛이나 소리의 가장 적은 것도 감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얼마마한정도로 미각과 후각이 그가 물건의 성질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권위자의 말에 의하면 이 감각들은 정신적 및 도덕적 발달에 대해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듀갈드・스튜어드〃씨는、『인간의 마음에 관해서 가장 잘 표현된 단어 중의 어떠한 것은 후각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리고 후각이 모든 국민의 시적인 언어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현저한 지위가 그것이 얼마나 세련된 상상력과 또한 도덕적 정서와 용이하게 그리고 자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헬렌〃은 확실히 이 두 감각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는다。 온실에 들어가면 그의 얼굴빛은 점점 빛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익숙한 꽃들의 이름을 후각만 가지고서 말한다。 그의 후각의 기억은 매우 뚜렷하다。 그는 항상 장미꽃이나 오랑캐꽃의 냄새를 즐긴다。 그리고 그가 만일 이러한 꽃으로 된 꽃다발을 받는다면 또한 그것이 유쾌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즐거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어떠한 꽃의 향기나 어떠한 과실의 맛은、 이따금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어떠한 즐거웠던 사실、 또는 기뻤던 생일잔치를 마음 속에 회상시키는 일이 있다。

그의 촉감은 一년동안에 예민하게 발달하였으며、 그 예민성과 섬세성에 있어서 진보를 보았다。 사실에 있어서 그의 온몸이 대단히 묘하게 조직되어 있으므로、 그는 그의 몸을 그의 주위에 있는 물건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그는 여러가지 소리와 동작을 일으키는 공기의 파동 및 마루의 진동의 여러가지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며、 그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의 손이나 의복에 손을 대자마자 그들을 분간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헬렌〃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히 기쁘거나 슬프면 〃헬렌〃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안다。

그는 회화에서 어떠한 말을 조금 힘주어도 그것을 깨달으며、 조금 몸짓을 하여도 그 뜻을 알며、 손 근육에 여러가지 운동의 뜻을 안다。 그는 애정의 온화한 압력、 찬성의 뜻으로 하는 가벼운 두들김、 초조할 때의 근육의 경련、 명령할 때의 단호한 몸짓、 그의 여러가지 감정을 표시하는 거의 무수한 손짓 몸짓에 즉시 반응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은 정서를 표시하는 무의식적인 손짓 몸짓에 대단히 익숙해졌으므로 그는 이따금 우리들의 생각을 그대로 알아내는 수가 있다。

나는 작년의 〃헬렌〃에 관한 자료 중에서 나는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인 기능을 사용한 것 같이 보이는 몇개의 예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실을 잘 생각해보니 이와 같은 힘은 그가 접

촉하는 사람들의 정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근육의 변화에 대해서 그가 완전히 익숙해짐에 의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조사하는 수단으로 이 근육적인 감각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어떠한 몸의 움직임을 노여움과、 다른 움직임을 기쁨과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을 슬픔과 연결시키는 것을 배워 왔다。 어떤날 그가 그의 어머니와 〃아나그노스〃 씨와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한 소년이 딱총을 던져서 어머니가 놀랬다。 〃헬렌〃은 즉시 어머니의 몸짓의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어느 때 내가 그와 함께 공원 안을 걷고 있을 때、 나는 한 경관이 어떠한 사람을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느낀 흥분은 확실히 감각할 수 있는 신체적 변화를 일으켰다。 왜냐 하면 〃헬렌〃이 흥분해서 『무엇을 보고 계서요』하고 나에게 물었기 때문이다。(주 : 一八八七년도 〃퍼킨스〃맹아학교 보고서 九一면 참조)

이 이상한 힘의 뚜렷한 예가 최근의 〃신시나티〃에서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귀를 검사 받고 있었을 때에 나타났다。 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하였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속삭임 뿐만 아니라 보통 목소리도 그가 듣는 것 같이 보였을 때에 놀랬었다。 그는 마치 말을 듣는 것처럼 머리를 돌리고 미소하며 행동하였다。 그때 나는 그의 손을 잡고저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나에게서 많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손을 책상 위에 놓아주고 나는 방의 반대쪽으로 물러갔었다。

그 다음에 그 의사의 여러가지 실험으로 아주 딴판의 결과를 얻었다。 〃헬렌〃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깨달았다는 것을 조금도 나타냄이 없이 그 실험을 끝마칠 때까지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나의 의견에 의해서 한 신사가 그의 손을 잡고저 그 실험을 되풀이하였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빛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변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와 같은 명확한 얼굴빛의 변화는 없었다。

작년의 〃헬렌〃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는 그가 죽음이나 매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였였다。 그러나 그가 일생에 처음으로 공동묘지에 갔을 때에 그는 실제로 두눈에 눈물이 가득찬 감정의 표현을 보여주었다。

이와 동일하게 뚜렷한 경우가 작년 여름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지금은 그가 죽음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내가 그를 알기 이전에 그는 죽은 병아리、새、또는 다른 조그마한 동물들을 만진 일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공동묘지에 간후 어느 때 〃헬렌〃은、사고로 인해서 다리 하나를 몹시 다친 말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와 함께 매일 그 말을 보러갔다。 그 다친 다리가 얼마 안가서 점점 더 악화되었으므로 들보에 매달게 되었다。 그 말은 아파서 신음하였다。 그러니까 〃헬렌〃은 이 신음소리를 감각하고 대단히 가련하게 생각하였다。 드디어 그 말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헬렌〃이 나에게 그 말을 가서 보자고 말했을 때에 나는、그에게 그말은 죽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그가 죽음이란 말을 들은 시초이였다。 나는

그 때에 그 말에게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총으로 쏘았으며, 지금은 땅 속에 파묻혔다고 설명하였다。 말을 계획적으로 총으로 쏘아죽인데 대한 관념은 그에게 많은 안상을 주지 못하였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가 손으로 만져 보았던 죽은 새에 있어서와 같이 말에 있어서도 생명은 없어졌다는 사실과 말은 땅 속에 파묻혔다는 사실을 그는 이해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는 나는 언제나 필요 있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말을 써 왔다。 그러나 그 말의 뜻에 더 깊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마사츄셋스〃 주 〃브르스터〃 시를 방문하였을 때에 어떤날 그는 나의 친구와 나와 함께 묘지 속을 걸었다。 그는 비석 하나하나를 조사하고 그 이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꽃의 향기를 맡았다。 그러나 꽃을 꺾을 생각은 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몇송이 꽃을 그를 위해서 꺾었을 때에, 그는 옷에 그 꽃을 핀으로 달아주는 것을 거절하였다。 〃플로오렌스〃라는 이름이 볼록나오게 새겨진 대리석 비석에 그의 주의가 끌리어졌을 때 그는 마치 무엇을 찾는 것처럼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서 괴로운 듯이 얼굴을 나에게 돌리면서, 『불쌍한 조그마한 〃플로오렌스〃는 어디 있읍니까?』하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또 물었다。 그는 나의 친구를 돌아보고서 『당신은 불쌍한 조그마한 〃플로오렌스〃를 위해서 소리를 내어 울었읍니까?』라고 묻고나서 꼭 『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를 큰 구덩이 속에 묻었을까요?』라고 부언하였다。 그가 계속해서 이러한 비통한 질문을 하므로 우리는 그 공동묘지를 떠났다。 〃플로오렌스〃는 나의 친구의 딸이었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는 그는 젊은 부인이었다。 그러나 〃헬렌〃은 그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는 일이

없었고、 나의 친구가 말을 가졌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었다。 〃헬렌〃은 인형용 침대와 마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선물과 같이 받은 것이고 또 현재 쓰고 있는 것이다。 그가 공동묘지에서 집에 돌아오자 그는 즉시 이 장난감들이 들어 있는 벽장으로 달려가서 그것들을 나의 친구에게 가져와서 『이것들을 불쌍한 조그마한 〃플로오렌스〃에게 주세요』하고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그가 이 일을 짐작하였나를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 하였지마는 이것은 거짓말 아닌 사실이였다。 다음 주일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그의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자신의 말로서 나타나 있다。

『나는 나의 조그마한 인형들을 〃플로오렌스〃의 조그마한 침대 속에서 재우려고 놓았읍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그의 마차 속에 태웠읍니다。 가련한 조그마한 〃플로오렌스〃는 죽었읍니다。 그는 몹시 병이 나서 죽었읍니다。 H부인은 그의 사랑하는 조그마한 애기를 위해서 큰 소리로 울었읍니다。 그는 땅속에 파묻혀서 대단히 더럽고 그리고 차졌읍니다。 〃플로오렌스〃는 〃쌔디〃와 같이 대단히 귀여웠읍니다。 그래서 H부인은 그에게 대단히 많은 키스를 하였었고 껴안았읍니다。 〃플로오렌스〃는 큰 구덩이 속에서 매우 슬퍼합니다。 의사는 그를 고치기 위해서 약을 주었읍니다。 그가 대단히 아플 때 그는 침대 속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집고 신음하였읍니다。 H부인은 머지 않아서 그를 보러 갈 것입니다』。

〃헬렌〃은 이러한 활동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는 대단히 순전한 어린이다。 그는 유희와 장난을 아주 좋아한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대단히 즐겨한다。 그는 결코 골을 잘 내거나 신경과민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의 노는 동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는 일은

없다。 그는 그가 쓰는 단 한마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몇 시간씩 논다。 그리고 그가 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려고 열심히 몸짓을 하고, 흥분되어서 손짓을 하는 것을 보면 감동된다。 때때로 어떤 아이들이 벙어리가 사용하는 알파벳트를 배우려고도 한다。 그때에 〃헬렌〃이 얼마나 끈기 있고 부드럽고 참을성 있게 그의 조그만 친구가 제마음대로 놀리는 손가락을 올바른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애쓰는 것이라든지 모두가 다 아름답게 생각된다、

어떤날 〃헬렌〃이 매우 자랑하는 조그마한 짜켙을 입고 있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몸을 따뜻하게 할 외투가 없는 불쌍한 작은 소녀가 있다。 너는 그에게 너의 외투를 주겠니?』하고 말했다。 〃헬렌〃은 『나는 이것을 보지 못한 불쌍한 조그만 소녀에게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짜켙을 벗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대단히 좋아한다。 그리고 어린 애기는 언제나 그의 타고난 모든 어머니다운 본능을 일으키게 한다。 그는 가장 주의깊은 부모에게서 바랄 수 있을만큼 친절하게 어린애를 취급한다。 그리고 또한 그가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대해서 인정이 있고、 그들의 종잡을 수 없는 장난도 말리지 않고 자유스럽게 해주려고 하는 그의 친절한 마음씨는 귀염성 스러운 일이다。

그는 대단히 친하기 쉬운 성격을 가졌고、 그의 수화법(手話法)에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를 만일 혼자 내버려두면 몇시간이라도 계속해서 뜨게질과 바느질을 하면서 즐긴다.

그는 책을 많이 읽는다。 그는 열정적인 흥미를 나타낸 얼굴을 하고는 몸을 구부리고 왼손 두째 손가락이 글줄을 따라가며 다른 손으로는 단자를 쓰면서 읽어 간다。 그러나 이따금 그의 복잡한 수화법(手話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동작이 빠른 때도 흔히 있다。

모든 감정이 그의 얼굴에 잘 표현된다。 그의 행동은 평이하고도 자연적이다。 그리고 또한 솔직한 것이다。 그의 솔직하고도 성실한 성격은 사람의 마음을 끌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은 관대함과 애정으로써 가득차 있기 때문에 불안이나 불친절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는 사람은 친절하고 인정 있는 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를 비굴(卑屈)하게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동작은 자유롭고 품격이 있는 것이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대단히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을 불친절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가 마차에 탔을 때 『불쌍한 말이 운다』고 그가 말하기 때문에 마부는 채찍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어느날 아침에 개 한마리가 쇠줄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므로 우리들은 〃펄〃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와 같이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헬렌〃은 대단히 동정한 나머지 하루 종일 개의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파했다。

그의 아버지가 지난 여름에 새들과 벌들이 그의 포도를 모두 먹고 있다는 편지를 하였다。 처음에는 『대단히 나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새들과 벌들은 배가 고파서 그런다고 설명하였더니 그는 기뻐하는 것 같았다。 얼마 후에 쓴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땅벌、 왕호박 벌、 새、 왕파리와 벌레들이 아버지의 맛있는 포도를 전부 먹은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단물이 있는 과실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들이 많은 포도를 먹은 것은 매우 나쁜 일을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험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그의 언어의 습득도 신속한 진보를 보게 되었다。 말의 수를 적게 알고 기초적이었을 때에는 그의 어휘는 자연히 제한되었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주위의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움에 따라서 그의 판단은 점점 정확해졌으며、 그의 이성은 점점 강해지고、 적극적으로 되고 예민해졌다。 그리고 그가 이지적 활동을 표현하는 말은 유창해지고 논리적으로 되었다。 여행할 때에 그는 자색과 언어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차 속에서 나는 그의 옆에 앉아서 창으로부터 보이는 것 즉 산、 계곡、 강、 목화밭、 딸기、 복숭아、 배、 메롱、 채소를 키우는 밭、 넓은 목장에서 풀을 먹고 있는 소와 말、 산중복의 양떼들、 교회당、 학교、 여관、 창고 등이 있는 도회지 및 분주한 사람들의 직업을 말하였다。 내가 이와 같은 물건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헬렌〃은 열정적인 흥미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어휘가 부족하여서 그는 몸짓 손짓으로 그의 주위에 있는 물건과 어느 곳에서나 작용하고 있는 큰 힘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하는 그의 희망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큰 고난 없이 무수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배웠다。

〃헬렌〃이 처음으로 모든 물건은 이름를 가지고 있고、 이 이름은 어떠한 손가락의 움직임으로써 전달

할 수 있다는 관념을 파악한 날부터 나는 그에게 내가 그의 귀 대신에 손가락에다 말을 전달하여 주었다。 그래서 자연히 처음에는 그는 한 문장 속의 중요한 단어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었다。 그는 늘『〃헬렌〃 우유』라고 말하곤 하였다。 나는 그가 올바른 말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유를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헬렌〃에게 마실 우유를 주시요』와 같은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까지는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의 학습에 있어서 나는 그에게 동일한 의사를 표현하는 다른 형식을 사용하도록 장려하였다。 만일 그가 과자를 먹고 있다며는 나는『〃헬렌〃은 선생님에게 몇개의 과자를 주겠니?』또는 〃헬렌〃에게 용기를 주면서『선생님은 〃헬렌〃의 과자를 몇개 먹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즉시 동일한 의사를 많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一、三개월 후에 나는 그에게『〃헬렌〃은 자고 싶어한다』또는『〃헬렌〃은 졸리다。 그래서 〃헬렌〃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한다』등을 말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나는 부단히、『당신은 지적 및 도덕적 성질의 것을 표시하는 뜻을 가진 말을 어떻게 그에게 가르치셨읍니까?』하는 질문을 받는다。 그것은 나의 어떠한 복잡한 설명보다도、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되었다고 믿는다。 이 사실은 그의 언니에 대한 지식의 표현을 하지 못할정도로 미약하였던 초기의 학습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였다。

나는 언제나 정서 및 지적 또는 도덕적 성질 및 행동을 표시하는 말들을、이러한 말들을 필요로 하는 환경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시켰다。 내가 〃헬렌〃의 선생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헬렌〃은

그가 대단히 좋아하는 인형을 깨뜨렸다。 그는 울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에게 『선생은 슬프다』라고 말하였다。 몇번 반복한 다음에 그는 이 말을 감정과 연결시키게 되었다。

그는 「행복」이라는 말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웠고、 또한 「옳다」、「옳지 않다」、「좋다」、「나쁘다」、등 다른 형용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웠다。 그는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무(愛撫)와 연결시켜서 배웠다。

어느날 나는 그에게 그가 알것이라고 내가 생각되는 수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하였다。 그는 되는대로 대답하였다。 나는 그의 잘못을 나무랬다。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는 표정을 하고는 가만이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대고 「생각」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 말은 이와 같이 행동과 연결되어서 마치 내가 그의 손에 어떤 물건을 놓고 그의 이름을 썼던 것과 같이 그의 마음속에 많은 인상을 남겨준 것 같이 보였다。 그때 이후로 그는 언제나 생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것보다 다음 시기에 있어서 나는 「아마」、「상상하다」、「기대하다」、「잊어버리다」、「기억하다」 등의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헬렌〃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서요』 하고 물었을 때면、 『나는 모르겠다。 그는 아마 〃레이라〃와 함께 계실거야』 라고 나는 대답하였다。

그는 언제나 우리가 마차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열심히 알려고 하였고、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들이 무슨 용무로 가는가를 열심히 알려고 하였다。 또 다음과 같은 회화도 자주 하였다。

『조그만 소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보는 소년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마 그의 이름은 〃잭크〃일 것이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읍니까?』

『그는 아마 다른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 공원에 가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는 무엇을 하고 놀까요。』

『그는 공을 가지고 놀 것이다。』

『지금 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아마 그들은 〃잭크〃가 올 줄 알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들이 그에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는 이말을 작문에 사용하였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과 나는 창문 가에 앉아서 조그만 소년이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비가 많이 와서 그는 빗방울을 피하려고 매우 큰 우산을 가졌었다。 나는 그가 몇살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여섯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의 이름은 〃죠오〃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처음보는 조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마 그의 어머니가 그를 저녁식탁에 소용될 물건을 사러 상점에 보냈을 것이다。 그는 한손에 빽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것을 갖다 주려고 가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한다。』

그에게 말의 사용법을 가르침에 있어서、어느 특별한 학설이나 체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의 마음의 자연적인 움직임을 관찰해 왔고、이 방법에 따라서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다。

〃헬렌〃의 신경과민한 성질 때문에 나는 이미 대단히 활발한 그의 두뇌를 쓸데 없이 흥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해 왔다。 一년의 대부분을 여행하고 여러 곳을 방문하는데 보내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하는 여러가지 장면을 통해서 암시되는 것들이 그의 학습이였다。 그는 계속해서 처음과 꼭같이 배우려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그에게 공부하라고 권고할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사실에 있어서 나는 이따금 연습문제나 작문을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달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이였다。

내가 어떠한 특별한 교수법칙을 채택하고 있지않은 이상 그에게 일반적인 지식을 늘려주고、그의 주위에 있는 사물에 관한 지식을 넓혀주며、사람들과의 너그럽고 자연적인 관계를 맺아주도록 노력하여 왔다。 나는 그에게 일기를 쓸 것을 권했다。 다음은 그 일기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一八八八년 九월 二十六일

〃아나그노스〃씨가 목요일에 나를 보러 왔였다。 나는 기뻐서 그를 껴안고 키스하였다。 그는 六〇명의 눈먼 소녀와 七〇명의 눈먼 소년들의 뒤를 돌보아 주고 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눈먼 소녀들은 나에게 예쁜 바느질 광주리를 하나 보내왔다。 나는 그 속에서 가위、실、바늘이 많이 들은 바늘쌈

지, 뜨게질바늘, 골무, 상자, 자, 단추 및 실패를 발견하였다。 나는 이것들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그들에게 써 보낼 작정이다。 나는 "낸시"와 "아데린"과 "애리"를 위해서 예쁜 옷을 만들 생각이다。 나는 五월에 "신시나티"시에 가서 새로운 인형을 살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아이의 이름은 "해리"이다。 "윌손"씨와 "밀첼"씨가 일요일에 우리들을 보러 왔었다。 "아나그노스"씨는 월요일에 눈먼 소년들을 보러 "루이스빌"에 갔었다。 어머니는 "헌스빌"에 갔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갔다。 그리고 "밀드레드"는 선생님과 함께 갔다。 나는 고요하다는 말에 대해서 배웠다。 그말은 조용하고 행복스럽다는 뜻이다。 "모리"아저씨는 나에게 예쁜 이야기책을 보내 주셨다。 나는 새들에 관해서 읽었다。 메추라기는 열다섯개에서 스무개의 알을 낳고 그것들은 빛갈이 희다。 그는 땅에 둥우리를 만든다。 울새무리는 패어진 나무에 그 둥우리를 만들며, 그 알은 청색이다。 개동지빠귀의 알은 녹색이다。 나는 봄에 대한 노래를 배웠다。 三, 四, 五월은 봄이다。

이제 눈은 녹았고
따뜻한 바람이 분다
시냇물은 흐르고
귀여운 새들은
봄이 왔다고 알려주네

〃제임스〃는 아침밥을 채리기 위해서 도요(새이름)를 잡았다。 작은 병아리들은 심한 감기에 걸려 죽어서 섭섭하다。 선생님과 나는 〃테네시〃강에 〃뽀—트〃를 타러 갔었다。 나는 〃윌손〃씨와 〃제임스〃씨가 노를 젓는 것을 보았다。 〃뽀—트〃는 물위를 빨리 달렸다。 그리고 나는 물에 손을 넣고 물이 흘러 내려감을 느꼈다。

나는 낚시대와 낚시줄과 낚시로서 고기를 잡았다。 우리는 높은 언덕에 올라 갔었다。 선생님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셨다。 나는 저녁에 작은 물고기를 먹였다。 나는 어미소와 송아지에 대해서 읽었다。 어미소는 마치 소녀들이 빵과 빠터와 우유를 먹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이 풀먹기를 좋아한다。 조그마한 송아지는 들에서 뛰며 달리기를 좋아한다。 그는 뛰며 놀기를 좋아한다。 그 이유는 그가 햇빛이 잘 쪼이고 따뜻하면 즐겁기 때문이다。 작은 소년은 송아지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작은 송아지야! 나는 너에게 키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의 팔로 송아지의 목을 안고서 그에게 키스하였다。 송아지는 착한 소년의 얼굴을 길고도 거치른 혀로 핥았다。 송아지는 키스하기 위해서 입을 너무 많이 벌려서는 안된다。 나는 피곤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더 많이 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가을에 그는 곡마단에 갔었다。 우리가 사자의 우리앞에 서 있었을 때에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헬렌〃은 공기의 진동을 아주 명확하게 감각하였으므로、 그는 그 소리를 정확하게 흉내 낼 수 있었다。 나는 낙타의 모양을 그에게 말해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낙타를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그가 낙타의 모양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얻지 못하였을가 걱정하였다。 그러나 二、三일 후에 내가 교실에서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서 들어가보니、〃헬렌〃은 등에다 양쪽에 혹이 나오게 하고 가운데가 움쑥 들어가도록 가죽끈으로 잡아매고 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두혹 중간에는 그의 인형을 태우고 방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내가 가르쳐준 낙타의 걸음거리를 나타내려고 큰 걸음거리로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한참동안 보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나는 대단히 재미있는 낙타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一八八八년 三월 二十二일

다음 二년 동안은 구라파지방에 一년 동안을 가 있었던 〃아나그노스〃씨나、 〃설리반〃양도 〃헬렌·켈러〃에 대해서 아무것도 써서 발표한 것이 없었다。 一八九二년에 〃헬렌·켈러〃의 많은 편지、 연습문제 및 작문과 함께 그의 전면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는 〃퍼킨스〃맹아학교 보고서가 나왔다。 이미 그 편지의 일부분과 「서리왕」의 이야기는 출판되어 있으므로 〃헬렌·켈러〃교육의 제 三、四、五년 三년째의 실례를 들을 필요가 없다。 가치있는 것은 최초의 二년이었다。 이 一八九一년 보고서 중의 〃설리반〃양의 쓴 부분에서 나는 그에게 의견과 이 책에 다른 어떠한 부분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자서전(自敍傳)을 쓰는데 필요한 재료를 써 보냈다。

다음은 〃아나그노스〃씨가 〃설리반〃양의 노오트와 메모에서 발췌한 것이다。

어떤날 그의 작은 말과 당나귀가 나란이 서 있었을 때에 〃헬렌〃은 그것들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이쪽으로부터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였다。 드디어 그는 그의 한 손을 〃네디〃의 머리에 놓고 이와 같이 말했다。『그래 귀여운 〃네디〃야! 네가 〃쁘렉·뷰우티〃만큼 아름답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너의 몸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아서 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빛이 없다。 그리고 너의 목은 아ㅣ취형이 아니고、 더욱 너의 긴 키는 너를 약간 우습게 보이게 한다。 물론 너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치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물건인 것처럼 너를 사랑한다。』

〃헬렌〃은 〃쁘렉·뷰우티〃의 이야기에 대단히 흥미를 느끼고 있다。 그가 얼마나 빨리 개념을 구성하고 연상하는 가를 보이기 위해서 나는 그 책을 읽은 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예를 들겠다。 나는 그에게 다음 문장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 말은 늙고 녹초가 된 밤색 말이었다。 그리고 가죽은 보기 흉했고 뼈가 가죽을 통해서 앙상하게 보였다。 무릎은 툭 튀어나와서 앞다리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그말은 마른 풀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바람이 저쪽으로 마른 풀을 조금 밀어 보냈다。 그러니까 그 불쌍한 동물은 그의 길고도 가는 목을 뻗치고 그것을 집어 먹었다。 그리고나서 뺑 돌아서 마른 풀을 더 먹으려고 이리저리 찾았다。 내가 주의를 끌었던 그의 활기 없는 눈은 희망이 없는 듯이 생각되었다。 나는 이전에 그 말을 어디서 본 일이 있

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나를 똑똑히 보고「네가 〃뽀렉·뷰우티이〃지」하고 말하였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에 〃헬렌〃은 나에게 읽는 것을 그만 그치라고 나의 손을 잡았다。 그는 흐느껴 울고 있었다。『참! 불쌍한 〃진저〃이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잠시후 그는 진정하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는 『불쌍한 〃진저〃! 이 이야기는 나의 마음속에 뚜렷한 그림을 그리었었다。 〃진저〃의 모양을 나는 볼 수 있었다。 모든 그의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그의 아름다운 활과 같은 모양의 목은 늘어지고、 모든 정신이 그의 광채 있는 눈으로부터 사라지고、 모든 그의 장난을 좋아하는 성질이 그의 태도에서 없어졌다。 아!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나는 어떠한 물건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이전에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진저〃의 생애에는 희망이 거의 없고 슬픔만이 많고나』잠시후 그는 참으로 슬픈 듯이 『나는 사람들의 일생이 〃진저〃의 일생과 꼭 같지나 않을가 두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늘아침에 〃헬렌〃은 처음으로 〃브라이안트〃의「오오! 힘센 민족의 어머니요!」라는 시를 읽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네가 그 시를 읽고서、 누가 그 어머니라고 생각하는지를 나에게 말하여보아라』라고 물었다。 그가「그대의 문앞에 자유와 휴식이 있다」라는 글을 읽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그것은 미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문은 〃뉴욕〃시이고 자유는「자유의 여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동일한 작자의 시「싸움터」를 읽었을 때 나는 그에게 어느 시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되느냐고 물었다。 그는『다음절이 가장 좋았읍니다』고 대답하였다。

땅에 떨어진 진리는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영원한 하느님의 시대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정은 다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어 없어진다。

그의 마음은 즉시 이 시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그는 정의가 이겼을 때에 기뻐하며、도덕이 얕은 곳에 놓여 있을 때에 슬퍼한다。그는 영웅적인 행동에 관한 것을 읽었을 때、얼굴을 빛낸다。그는 투쟁정신이라는 말까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으니、『사람들이 부정과 폭력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다음에 一八九一년의 보고서에 나타난 〃설리반〃양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로 한다。

지나간 三년 동안 〃헬렌〃은 계속해서 언어의 습득에 신속한 진보를 보여주었다。그는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그의 주의를 그의 공부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끌리는 점이 없다는 한가지 이유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진보하게 된 것은 그만큼 상당한 정신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그의 신경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에 늘 집중하고 있다。나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느꼈을 때마다 학

습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었다。 만일 내가 그에게 수학문제를 그 다음날하면 어떻냐 하고 말하면 그는 『나는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二、三일전 저녁에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었다。 "헬렌"은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것을 원했다。 나는 『아니야! 너는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동안 잠잠히 있은 다음에 기세를 올려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여서 내가 이해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훌륭한 이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선생님, 희랍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식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며、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항상 들려주어서 그들이 그 일부분이라도 이해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두번 다시 그에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의 마음을 쓸데 없이 자극시키기 때문이다。

그리 오래지 않은 이전에 나는 그에게 나무토막을 가지고서 탑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였다。 그 설계가 약간 복잡하였으므로 좀 잘못하면 그 탑은 무너지게 되었다。 잠시 후에 그가 탑을 세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세워주마고 그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는 이 계획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이 탑을 자기 스스로 세울 결심을 하였었다。 그리고 거의 세시간 동안을 끈기 있게 나무토막을 모아서 드디어 그의 인내력의 성공을 가져올 때까지 다시 거듭거듭 새로이 쌓기를 계속하였다。

一八八九년 十월까지 나는 "헬렌"에게 어떠한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습득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의 지적인 생활에 최초의 二년 동안은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새롭고 어리둥절한 처음보는 나라에 간 아동과 같았다。 그래서 그가 언어의 지식을 얻을 때까지 일정한 과정의 학습을 그에게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였었다。

더욱이 "헬렌"의 알고자하는 마음이 이 이년 동안에는 대단히 강하였으므로 만일 그에게 부단히 일어나는 질문의 해답을 학습이 끝날 때까지 연기시킨다면 언어학습의 발전이 방해를 받았을 정도이였다。 아마 그는 그 질문을 잊어버렸을 것이고 참말로 그에게 흥미가 있는 어떠한 것을 설명할 좋은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이 예정된 학습에 관계를 가지고 있든 없든 무엇을 하고자 하였을 때에는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그의 질문을 즉시 고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한 학습의 주제로부터 이따금 멀리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다。

一八八九년 十월 이래 그의 공부는 더욱 규칙적으로 되었으며, 산수、지리、동물학、식물학과 국어과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는 산수학습에 있어서 상당한 발달을 보였다。 그는 곱셈、더하기셈、빼기셈、나누기셈의 과정을 신속하게 설명하였다。 그의 최후의 학습이 가분수이었으므로、그는 "콜번"의 암산을 거의 끝 마쳤다。 그는 또한 필산에 있어서도 많은 공부를 하여 왔다。 그는 암산을 대단히 빨리 하였으므로 내가 문제를 다 쓰기도 전에 정확한 답을 말하는 일이 이따금 있었다。 그는 문제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말

에는 별로 유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그의 계산을 설명하려고 할 때까지 모르는 어구의 뜻을 묻기 위해서 중단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언제가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을 때에 나는 산보를 하고나며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머리를 흔들면서 『나의 적이 내가 도망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머물러 앉아서 적들을 지금 정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말하고 그는 문제를 깨끗이 풀었다。

〃헬렌〃이 과거 二년 동안에 성취한 지적 발달은 그의 교육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보다도 언어의 통달과 단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에 있어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가 많은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일 없이 단 하루를 보내는 일은 없었으며、 이것들이 단지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또한 몸에 닿는 물건의 이름만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그는 「현상」、「구성하다」、「정력」、「재생산」、「특별한」、「연구적인」、 및 「신비」 등의 말의 뜻을 알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말은 어떠한 것은 단순한 것으로서 시작되어 추상적인 것으로 인도되는 계속적 단계의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비」라는 말의 심오한 뜻을 〃헬렌〃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숨겨진 또는 감추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이상、 그의 공부가 더 진보를 보였을 때면 그는 그보다 간단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문제를 연구하는 시초에 있어서 나의 제자가 상당한 발달을 하기까지에는 그가 충

분히 이해할 수 없는 어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이 아무리 막연하고 감정적이라 할지라고 그것들은 서로서로 관련된 것이고、 오늘 애매한 것은 내일은 명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제가에게 간단한 정의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다。

나는 나의 제자들、 나의 가장 정확한 지도가 틀림 없이 그 자신의 자연적 자극이 되는 하나의 자유롭고 활동적인 제자로서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헬렌"에게 이야기하여 왔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기를 주장해 오고 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그가 이말 저말의 뜻을 이해하느냐고 질문할 때에는 나는 『그가 문장 중의 각각 떨어진 말의 뜻을 이해하든 못하든 염려 마십시요。 그는 이미 그가 이해하고 있는 다른 말들과의 관련에 의해서 새로운 말의 뜻을 추상할 것입니다』라고 언제나 대답할 것이다。

그가 읽을 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결코 그가 눈이 멀고 귀머거리라는 점을 고려해서 해본 일은 없었다。 그는 언제나 같은 연령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읽고 즐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최초에는 기재된 사물이 익숙하고、 재미있고、 용어가 단순하고、 그 표현법이 간단하고、 흥미 있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그가 처음으로 조그마한 이야기책을 읽으려고 하였을 때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인쇄된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자 한참동안 두드러진 문자(凸版文字)로서 인쇄된 종이를 가지고서 간단한 문장을 짓고는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서로서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어느날 아침에 우리는 쥐를 한마리 잡았다。 그래서 그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산 쥐

와 고양이를 가지고 나는 하나의 간단한 이야기를 형성하도록 몇개의 문장을 만들어 준다면 그에게 언어 사용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떠 올랐다。 그래서 나는 다음 문장을 만들어 〃헬렌〃에게 주었다。

『고양이는 상자 위에 있다。 한마리의 쥐는 상자 속에 있다。 그 고양이는 쥐를 볼 수 있다。 그 고양이는 쥐를 먹고자 한다。 그 고양이가 쥐를 잡지 못하게 하여라。 그 고양이는 우유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쥐는 과자를 먹을 수 있다。』

그 The)라는 말을 그는 알지 못했었다。 물론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바랬다。 그의 발달단계에 있어서의 말의 사용법은 훌륭하였으나, 그 말을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나는 설명하는 것을 그치고 그 다음 말로 옮겨 갔다。 그러니까 그는 명랑한 웃음을 떠우면서 그것을 이해하였다。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손가락을 상자 위에 있는 고양이에게 놓아주니까 그는 놀랜 소리를 내었다。 비로소 그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자연히 명백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두째번 문장의 단어를 읽었을 때에 나는 그에게 실제로 쥐가 상자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그는 참으로 재미 있다는 표정을 하면서 그의 손가락을 다음 줄 즉 『고양이는 그 쥐를 볼 수 있다』로 옮기였다。 이곳에서 나는 고양이가 쥐를 보게 하고 〃헬렌〃으로 하여금 그 고양이를 감각하게 하였다。 이 조그마한 소녀의 얼굴의 표정은 당황한 빛을 나타냈다。 나는 그의 주의를 다음 줄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는 「고양이」, 「먹다」, 「쥐」라는 단지 세 단어를 알았을 뿐이었지마는 그는 개념

을 파악한 것 같았다。 왜냐 하면 그는 그 고양이를 잡아 끌어서 마루바닥에 놓고、 쥐가 들어있는 상자에 점자판인 널판으로 덮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고양이가 쥐를 잡지 못하게 하여라』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에 그는 문장속의 부정(否定)을 이해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는 안되는 것을 안 것 같았다。 「잡다」、「하게 하다」는 새로운 단어들이였다。 그는 마지막 문장의 단어들도 곧 익숙해졌다。 그리고 내는 고양이가 쥐를 잡지못하도록 하여주었을 때에、그는 기뻐하였다。

그는 손짓으로 나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여달라고 졸랐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가장 기초적인 문체로 쓴 대단히 짧은 이야기 책을 주었다。 그는 아는 단어를 찾아내고 모르는 단어의 뜻을 추측하면서 그의 손가락은 글줄을 빨리 더듬어 갔다。 이와 같은 방법은 대다수의 소극적인 교육자들에게 만일 기회만 준다면 조그만 귀먹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와 같이 손쉽고 자연스럽게 글 읽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것이다。

〃헬렌 이 영어를 읽을 수 있었던 능력은 대부분 책을 많이 읽었다는데 기인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두세시간동안 계속해서 책을 읽는 수가 많았으며、 내가 그만 읽으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책을 덮는 때가 많았다。 어느날 우리가 서재를 떠났을 때에 그가 평상시보다도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저는 지금 서재에 들어갈 때보다도 그 곳을 나올 때에는 우리가 언제나 학식이 더 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라는 것이였다。

그에게 어째서 책을 그와 같이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책은 나에게 내가 볼수 없는 사물에 대해서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주면서도 사람들 모양으로 결코 피곤하거나 또는 괴로워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몇번씩 거듭해서 말해줍니다」라고 대답한 일이 있었다。

〃디킨스〃의 「소년 영국사」를 읽을 때 우리가 『아직도 〃부리톤〃인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다』 라는 문장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그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용감한 〃부리톤〃인들은 〃로마〃인과의 전쟁에서 여러번 패하였지마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더욱 적을 모라내려고 하였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물론 그 문장에 쓰인 말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자신의 말로서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은 더욱 어려운 것이었다。 「〃스에트니우스〃가 그 나라를 떠났을 때에 그들은 그의 군대를 공격하여 〃엔젤〃섬을 탈취하였다」。 다음은 그의 이 문장의 해석이다。 「〃로마〃의 장군이 영국을 떠났을 때에 〃부리톤〃인들은 다시 싸움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로마〃 군대는 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리톤〃인에게 압도당하여 그들이 점령하였던 섬을 빼앗겼다。」

그는 손으로 하는 일보다는 지적인 직업을 더욱 좋아한다。 그러나 많은 눈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공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는 열심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 그는 "카리그라프"식 타자기의 사용법을 배웠다。 그리고 매우 올바르게 키이를 칠 수 있다。 그러나 한달밖에 연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빠르지는 못하다。

약 二년 전에 사촌 형이 그의 손등에다 손가락으로 점과 선을 만들어서 그에게 전신부호를 가르쳐 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신부호를 잘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언제나 회화에 이것을 사용하였다。 나는 "헬렌"과 약간 떨어져 있을 때에는 이것이 "헬렌"과 통신하는 편리한 방법임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발로서 마루바닥을 가볍게 두드림으로써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진동을 감각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였다。

"헬렌"과 같이 특별한 천품을 타고난 사람을 만일 전혀 그의 재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하우" 박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없었던 심리학의 문제들에 대해서 광명을 던져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실현될 수가 없었다。 "라우라·부리즈만"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헬렌"의 경우에 있어서도 명백히 실망적이었다。 접촉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동을 사회에서 고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헬렌"의 경우에 있어서 그의 성질에 필수적인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없애버리지 않고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헬렌"의 재주의 급속한 전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의 알고자 하는 희망을 일시라도 사회에서 고립시켜 아무 자극도 없이 생명 그것의 신비적인 성장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너무 일찌기 온 마음을 혼란시키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사물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해오고 있다。 아이들은 가끔 심오(深奧)한 질문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천박(淺薄)한 대답을 얻거나·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와 같은 대답으로서 그들을 속여 넘긴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읍니까?』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헬렌〃이 여덟살 되었을 때에 물어본 질문이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해하는 힘의 정도가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고 여러가지 독서와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무수한 인상과 실험으로부터 어떤 한가지 결론을 얻을 때까지는 그를 억지로라도 침묵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물의 원인을 탐구하고 있었다。

자기자신의 개념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현상에 대한 관찰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그의 어휘가 더욱 풍부해지고、 세밀하여 짐에 따라서 그는 인간의 창조력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 사람 이상의 힘이 지구 태양 및 그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수많은 자연물을 틀림 없이 창조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드디어 그는 어느날 그가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 존재를 의식하였던 힘의 이름을 질문하였다。

〃촬스·킹스레이〃의 「〃그리시아〃의 영웅들」을 통하여 그는 〃그리시아〃의 신과 여신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책에서 하나인 천국、 영혼들의 말、 많은 이와 같은 표현은 필연적으로 알게 된 것 같다。

그는 이와 같은 말의 뜻을 물은 일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말들이 우연히 나타나도 설명한 일이 없었

다。 그리고 一八八九년 二월까지 아무도 그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 열렬한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친한 친척 한사람이 그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노력하였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이해하기에 적합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헬렌〃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었다。 그 뒤에 내가 무슨 이야기였더냐고 물었더니 그는 대단히 우수운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A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느님이 나와 모든 사람을 모래로 만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나는 살、피、뼈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마음속으로부터의 웃음을 터뜨리고 확실히 만족감을 가지고 그의 팔을 만져보았다。 몇분 있다가 그는 계속하였다。

『A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느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하느님은 모든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은 또 다른 우수운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그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스운 일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아더·켈러〃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들은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그가 더욱 많은 지식을 얻을 때까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었다。

그가 독서하는 도중에 「대자연」이라는 말에 부닥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참동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나 모두 대자연의 덕택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식물의 성장에

대해서 말할 때면 그는 『대자연은 나무、풀、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햇빛과 비를 준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다음은 그 당시의 그의 생각이 어떠하였나를 보이기 위해서 나의 노―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어느날 "헬렌"이 저녁을 먹은 후에 약간 심각한 표정을 하였다。 그때 H부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나는 대자연은 봄철에는 대단히 분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어째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는 『대자연은 대단히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주어야 하며、또한 꽃、나무、바람들 모든 물체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대자연은 꽃들의 뒤를 돌보아주니?』하고 내가 물었더니、"헬렌"은 『대자연은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햇빛과 비를 보내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햇빛은 대자연의 따뜻한 미소이고、빗방울은 그의 눈물입니다』라고 부언하였다。

잠시 후에 『대자연이 나를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천국에서 가져오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실국화와 삼색 오랑캐꽃은 땅속에 뿌린 씨에서 나온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땅속에서 솟아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식물―아이를 결코 본일이 없으니까요。 나는 아름다운 봄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싹트는 나무와 피는 꽃과 보드러운 푸른 잎들은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정원을 가 보아야 하겠읍니다。 실국화와 삼색 오랑캐꽃들은 내가 그들을 잊어버린 줄 알 것입니다。』

一八九〇년 五월 이후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으로부터 그를 멀리 하기에 불

가능한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명확하게 알았다。 그는 그의 지식의 자연적인 표현인 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였다。

五월초에 그는 편지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의 일람표를 썼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물들에 대해서 써 보려고 합니다。 누가 땅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물체를 만들었읍니까? 무엇이 태양을 뜨겁게 하였읍니까? 내가 어머니에게로 오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읍니까? 나는 식물은 땅에 뿌려진 씨에서 자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식물―아이를 결코 본일이 없읍니다。 조그마한 새들과 병아리들은 알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것을 본일이 있읍니다。 알은 알이 되기 전에는 무엇이었읍니까? 지구는 대단히 크고 무거운데 어째서 떨어지지 않읍니까? 대자연이 하는 일을 말해주시요。 성서라는 책을 읽어도 좋습니까? 당신의 조그마한 제자에게 시간이 있으시면 많은 일을 이야기하여 주십시요。』

이 질문을 읽은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아이는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문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는 그의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포함하는 개념과 학술어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일생이란 이와 같이 관념의 뜻과 범위를 이해하는데 있는 것이다。

"헬렌"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만일 그의 마음 속에 이 질문들이 표시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지적 작용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그는 이해못할 것이다。 신의 창조력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발달과 지적 활동이 없이는 자연현상의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가 그의 마음 속에서 서서이 성장하고 있었던 여러가지 개념을 구성하는데 성공한 다음에는 그는 갑자기 그의 모든 관념을 통합하는 것 같이 보였고、 또한 그는 성급하게 모든 사물을 설명하여 주기를 원했다。 그가 이러한 질문을 쓰고난 조금 후에 『누가 정말 지구를 만들었읍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지구、 태양 및 온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지식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원과 크고도 신비한 자연의 힘을 설명하려 애써왔나를 말해줄 수는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희랍〃 민족이 해、 번개 및 많은 그 외의 자연력운 각각 독립한 것이고、 초인적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여러가지 자연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여러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사고와 연구를 많이 한 다음은、 사람들은 모든 힘은 하나의 힘의 표현이라고 믿기 시작하였으며 그 하나의 힘에 대해서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부쳤다고 나는 그에게 말하여 주었다。

그는 확실히 열심히 생각하면서 몇분동안 매우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나서 그는 『누가 하느님을 만들었읍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의 질문을 피하였다。 왜냐 하면 나는 그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물건의 신비를 그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실에 있어서 그가 열심히 알려고 하는 질문은 나보다도 훨씬 더 지성이 많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곳에 몇개의 그러한 질문이

있다。『하느님은 무엇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읍니까?』、『어디서 하느님은 흙과·물과 씨와 그리고 최초의 동물을 얻으셨읍니까?』、『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선생님은 하느님을 보신 일이 있읍니까?』、나는 그에게 하느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리고 하느님은 사람으로서 생각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물건의 생명、정신、영혼으로써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나의 말을 중단시키고 『모든 물건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위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생각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설명할 수 없을만치 대단히 많은 사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헬렌〃에게 어떠한 종교상의 신조나 교의를 가르쳐준 일은 없었으며、그의 마음 속에 종교적인 신앙을 강요하도록 노력해온 일도 없다。 하느님、영혼 및 불멸의 이름 밑에 있는 여러가지 신비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내 자신의 무능함을 잘 깨닫고 있었으므로 나는 언제나 나의 제자에 대한 의무감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필립스·부룩스〃사교(司敎)는 그에게 하느님의 부성(父性)을 아름답게 설명한 일이 있다。

그에게는 아직도 성경을 읽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현재로서는 그가 하느님의 속성에 대한 대단히 그릇된 개념을 얻게 될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예수〃의 아름답고 도움이 되는 생애와 그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 쉬운 말로 이야기해 준 일이 있다。 이 긴 이야기를 처음 들려줌으로써 그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이다。

그가 또 다시 우리들의 회화에 언급하였을 때 『어째서 〃예수〃는 그의 적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드망하지 않았읍니까?』하고 질문하였다。 그는 〃예수〃의 기적을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은 걸었다는 뜻이 아니고 헤엄쳤다는 뜻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가 〃예수〃가 죽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대단히 당황해서 『나는 생명이 죽은 시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읍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느날 그는 슬퍼하면서 『나는 장님이고 귀머거리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느님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이란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느님은 그가 영혼이므로 우리의 눈을 가지고서는 볼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이 덕과 친절로서 가득 찼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에게 가까워졌으므로 하느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여 주었다。

또 다른 때에 그는 『영혼이란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영혼이 무엇과 같은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나 우리는 그것이 육체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사랑하고、희망하는 부분이며、「〃예수〃교인들의 육체가 죽은 후에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고 믿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나는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너의 육체로부터 분리된 너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니』하고 물어보았다。『그럼은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내가 〃아나그노스〃씨를 대단히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 이때에 그는 말을 바꾸었다 ── 나의 영혼은 〃아덴〃에 있었으나 나의 육체는 이곳

서재 안에 있었으니까요.』 이 순간에 그의 마음 속에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난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그러나 "아나그노스"씨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읍니다』 라고 부언하였다. 나는 그에게 영혼도 또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즉 다른 말로 하면 외견상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그러나 만일 내가 나의 영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 쓴다면 그때에는 그것은 눈이 보일것이고 그 쓴 말은 그의 육체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오래전에 "헬렌"은 『나는 六〇〇년이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에게 말하였다.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언제나 살고싶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의 최초의 질문은 『천국은 어디 있읍니까?』 이었다. 나도 모르지만 별 중의 하나에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조금 후에 그는, 『선생님이 먼저 가셔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나서 『"터스컴비아"는 매우 아름다운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라고 부언하였다. 거의 일년후에 그는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 문제를 다시 말하였을 때에는 그의 질문은 무한히 많았고, 만만치 않았다. 그는 천국은 어디 있으며, 무엇과 같읍니까?』, 『우리는 외국에 대하여는 잘 알면서 어째서 천국에 대해서는 아지못합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쉬운말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이 많을지도 모르며, 천국은 본래 하나의 상태 즉 마음의 소원성취, 그 소원의 만족의 상태이며, 천국은 정의를 인식하고, 믿고, 사랑하는 곳에는 어느곳에나 존재한다고 말하여 주었다.

그는 명백한 공포감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겁내었다. 최근에 그의 오빠가 죽인 사슴을

본 그는 대단히 실망하고 또 슬픈 표정으로 『어째서 모든 생명체는 죽어야 합니까? 발이 빠른 사슴까지도 어째서 죽어야 합니까?』하고 물었다。 또 다른 때에 그는 『선생님은 만일 우리가 죽지 않아도 좋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아니야! 만일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세계는 곧 생물로서 가득차 어떠한 것도 안락하게 살 수가 없을 터이니까!』라고 나는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다른 세상을 만드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하고 그는 곧 말하였다。

친구들이 그에게 다른 세상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큰 행복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 그는 곧 『당신은 죽어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십니까?』하고 반문하였다。

우리는 그의 일상용어에 주의하여 보고, 퍽 신중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에게 단어의 뜻을 잘못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항가리"사람들은 음악가로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놀래면서 『그들은 날 때부터 노래를 부릅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의 친구가 "부다페스트"에서 본 몇몇 학생들은 백곡 이상의 노래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다고 부언하였을 때에 그는 웃으면서 『나는 그들의 머리는 틀림없이 대단히 소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스운 말을 즉시 깨닫는다。 그러고 비유적인 말에 의해서 심히 괴로움을 받는 일이 없이 그는 그말의 뜻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자 그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우습게 생각하는 수가 있다。

영혼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은 그는 "다비데"의 그는 나의 영혼을 인도한다』라는

말에 대단히 어리둥절하였다. 『영혼에 발이 있읍니까? 그것은 걸을 수 있읍니까? 그것은 장님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의 마음에는 인도된다는 관념은 장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헬렌"을 괴롭히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죄악의 존재와 그 죄악의 결과 생기는 고통에 대한 지식만치 그를 괴롭히는 것은 없다. 오랫동안 이것에 관해서 그에게 알리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죄악과 부덕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었었다. 죄악이 존재하고 그것에서 큰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그는 생활과 주위의 사람들의 경험을 더욱더욱 확실히 이해함에 따라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법률과 형벌의 필요성을 그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그가 앞서 얻었던 하느님의 관념과 죄악이 이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과를 조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어느날 그는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돌보아 주십니까?』하고 질문하였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째서 오늘 아침에 나의 조그만 동생을 너머지게 하였으며, 머리를 몹시 상하게 하셨읍니까?』또 다른 때에 그는 바다에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어째서 하느님은 그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읍니까?』하고 질문하였다. "헬렌"은 그가 언제나 그렇게하여 왔던 것과 같이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온화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는 그의 지적 개발의 초기부터 기뻐하며, 올바른 일을 하여 왔다. 본능적으로 올바른 일을 기뻐하며 실행하였다. 그는 어떠한 나쁜 행동이 별로 해가 없고 사소하고 또 고의

가 아닌것이라도 그의 순결한 마음에 대해서는 모든 죄악과 같이 불쾌한 것이다。

다음에 인용한 구절들은 미국 귀머거리에 대한 통화법 교수 촉진 협회 주최로 一八九四년 七월에 "사우토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작성한 "설리반"양의 원고에서 발췌한 것으로 그의 교육방법에 관하여 쓴 최후의 기록이다。

"헬렌"이 모든 사물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여도 일부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가 돌연히 그 말들을 자기 것으로 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선 그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던 단어、구절、문장 등을 우리가 그와 회화할 때 사용하였던 것을 그는 꾸준히 노력하고 반복하여 재현시킨데 불과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집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상생활에 쓰는 회화를 여러번 반복하는 것은 말과 문구를 기억하게 하고 남과 말할 때면 자연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 그와 같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언어란 책에서 본 언어의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란 실생활의 필요와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의 어린 제자의 마음은 거의 다 텅비어 있었다。 그애는 자기가 알지못한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언어와 지식은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다。 그것은 서로 의존하여서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언어는 실물의 정확한 지식에 의하여 발

달하는 것이다。〃헬렌〃이 모든 사물은 이름이 있고、수화문자를 써서 서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그애가 좋와하면서 철자법을 배운 물건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했다。 나는 언어를 가르친다는 목적이 아니라 의사를 교환하는 수단으로써 언어는 꾸준하게 사용된다고 말하여 왔다。 이와 같이 언어를 배우는 동시에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언어를 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하고자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할 제목을 가졌다는 것은 경험을 얻었다는 결과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마음속에서 의사를 발표하고싶을만한 것이 뚜렷하게 있지 않는 한 또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나 하고 알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한 아무리 언어를 훈련시켜도 어린이들은 쉽사리 유창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나는 나의 제자를 어떤 조직적인 것에 구속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나는 늘 무엇이 가장 그애를 재미있게 하는가 알려고 하였으며、또한 내가 가르쳐 주려고 계획한 과목에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막론하고 될 수 있으면 그의 힘으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고 그 재미있었던 문제를 재로운 과목에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애가 처음으로 이지적인 생활을 하던 二년 간은 나는 〃헬렌〃에게 별로 쓰는 공부는 시키지 않았다。 무엇이든 쓰기 위해선 누구나 쓸만한 사건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쓸 재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과 사고력을 함께 시작하여 두면、마음은 지식으로 윤택하게 된다。 이런 것은 무엇을 쓰기 전에 해둘 자연스럽고 즐거운 노력이라고 본다。 흔히 어린이들에게 쓰라고 강요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들이 즐

겁게 생각하고 읽고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그들은 자연히 무엇이든 쓰려고 할 것이다.

"헬렌"은 규칙이나 정의를 공부한 것보다는 연습과 습관을 통해서 어학을 배웠다. 품사의 분류나 동사의 변화 등 골치아픈 문법설명은 무시하여 버렸다. 그는 산 언어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어학을 공부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말을 늘 썼다.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말은 정확하게 쓰게될 때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되풀이 하면서 연습하였다. 물론 나는 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 만약에 그가 볼 수 있고 들을 수만•있었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그리 의지하지 안했을 것이다.

나는 모든 어린이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잘만 지도하면 생기를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고상한 능력이 숨어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의 마음에다 소위 기본지식이라는 것만 잡아 넣는다 하면 그들의 고귀한 성질을 발전시킬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산술이 그들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며, 지구의 크기가 어떠하며, 또한 모양이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라도 그것만으로 지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자연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들을 들에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며, 동물과 식물 등 실제의 물건들을 관찰하게 하면 어린이들은 스스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교수보다는 지도와 동정이 더 필요하다.

"헬렌"이 말을 유창하게 쓰게 된 원인은 그의 인상의 대부분이 말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얻게 되는 까닭이다. 그가 말을 배우는 재주가 있고, 또한 그가 특수한 환경에서 받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끊임없이 좋은 책을 계속해서 읽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교육에 있어서 막대한 중요성을 가

지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식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경험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들은 이해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고상하고 시적인 글을 읽고 대단히 기뻐하는 것을 늘 본다。 어떠한 교원이 어린이들의 교실에서 책을 덮으면서 『이 이상부터는 어려워서 잘 모를 것이다』하였다고 하면、 그들은 지금 읽어 준 이야기에 자기들도 모르게 재미가 나서 『선생님! 덮지마시고 나머지를 다 읽어주시요 우리들이 비록 이해를 못한다하여도』라고 어린이들은 말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즐겁고 재미만 난다면 그책의 단자를 모조리 알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필요한 것만 설명하여 주면 좋을 것이다。 〃헬렌〃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그대로 기억하여 두었다가 그것아 그의 회화나 작문을 쓸때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헬렌〃은 많은 책을 읽고、 또한 그의 독창력은 독서함으로써 생생해 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가 스스로 듣고 보지를 못하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말하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많이 읽지 아니하고는 독창적 작문이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믿는 바이다。 〃헬렌〃은 그가 읽던 글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간결한 표현의 모범되는 구절을 발견하고 그의 회화와 작문 중에 무의식적으로 잘 이용하게 된다。 나의 의견으로서는 독서는 교실의 학과와는 불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독서할 수 있도록 자주 장려할 것이다。 위대한 상상의 작품들이라 하는 것은 그 책의 작가 자신들의 생활의 일부분이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사상—문학의 환영(幻影)을 받아들이는 마

아들이는 마음이 풍부하고 예민할수록 그 능력에 의해서 재현(再現)되는 글도 가장 훌륭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헬렌"은 생생한 감수성(感受性)、신선한 취미、또한 예술적 기질의 정신적인 통찰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보통사람들보다는 인생에서、책에서、자연에서、또한 사람에게서 더 강렬한 기쁨을 자연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마음은 위대한 시인들처럼 아름다운 사상과 이상에 차 있는 까닭으로 그에게는 무엇이나 심상하게는 보이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사상력으로써 전 인생을 채색하는 때문이다。

전에 출판된 "설리반"여사의 진술과 해석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귀먹은 사람의 문제를 직접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쓴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에 이 이상 더 설명하려고는 아니한다。 "켈러"양 교육문제는 어학교수의 기본 문제이므로 그것은 귀머거리 자체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귀머거리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지을는지、그것은 교육자의 자유이지마는 나는 교육자의 입장으로 "헬렌"의 교육의 경험이 없는 독자를 위하여 "설리반"여사의 교육방법중 몇가지 원칙을 요약하여 설명하겠다。

"설리반"여사는 "하우"박사의 일을 승계하고 일층 더 전진시켰다。 "하우"박사는 맹아교육에 필요한 설비와 육체적 훈련방법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말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학을 가르치는 기계적 도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실험을 하고 또한 다른 아이들을 연구함으로써 "설리반"여사는 자연적으로 어학을 가르치는 실제적 방법에 도달하였다。 "하우"박사가 찾으려고 하던 것이 바로 이 「자연

적」 방법이었다。 그리고 귀먹은 어린이라도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불리하여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모르는 것이라도 말을 부단히 반복하여 가르칠 것이라는 원칙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이것을 〃설리반〃여자가 발명한 것이다。 요람에 있는 어린이가 말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번 말을 듣고서 주위사정을 짐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리반〃여자는 하루 종일 놀 때나、 공부할 때나 늘 〃켈러〃의 손에다 부단히 글씨를 써 주었다。 그리함으로써 그는 말이라 하는 것이 사물、 행동、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설리반〃여자의 훌륭하고 효과적인 제일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설리반〃여자가 〃헬렌〃에게 쓰기전에는 다른 귀먹고 눈멀은 어른은 물론 귀머거리 아이들에게도 시험해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설리반〃여자가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일반에게 명확히 알려지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 여자의 방법의 두째원칙 (물론 제일 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지마는)、 어린이에게 싫어하는 것이나、 또는 쓸데 없는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설리반〃여자가 처음으로 방문한 귀머거리학교의 한 교원은 어린이들이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칠판에다 써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린이들은 그들을 방문한 사람에게로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왔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준 것인가?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것은 무수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설리반〃여자는 어찌하여 아이들이 흥미를 끌만한 화제로서 어학 공부를 시키지 않나 하고 생각하였다。

어린이가 취미를 가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는 원칙에 비슷한 것으로 질문을 하는 어린이를 절대로

질문을 못하게 하거나, 또한 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대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설리반"여자의 말에 의하면 질문이라는 것은 어린이의 마음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다。 "설리반"여자는 고의로 표현법을 아이들의 지력에 부합하도록 낮추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는 "헬렌"과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헬렌"이 알아 듣거나 모르거나를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완전한 문장을 또한 이지적 사상을 표현하라고 권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설리반"여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즉 어린이들이 「모자」, 「컵」, 「서다」, 「앉는다」 등의 기본적 정의(定義)를 배우게 되면, 배운 단어(單語) 그 자체가 훌륭한 문장(文章)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기실 우리들도 문장을 쓸 때에 단어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있지않고, 그 전체를 의식할 뿐이다。 물론 한 단어가 어떠한 생각을 암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린이가 『엄마』하면 『엄마는 어디 있느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관한 관념을 배우는 것은, 즉 말을 배우는 것은 완전한 문장을 들음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설리반"여자가 "헬렌"이 손가락끝으로 말을 배울 때에 처음에는 문법적 완전한 글을 강요하지 아니하였다。 즉 『엄마! 밀크』라고 "헬렌"이 말하고 "설리반"여자가 그것을 반복할 때에는 "헬렌"의 부족한 말을 보충하여 『엄마는 "헬렌"에게 밀크를 좀 가져 올 것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설리반"은 자연적 방법을 하나 만들어 내었다。 그것은 참으로 간단하고 인공적이 아닌 까닭에 그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었다。 "설리반"여자가 다른 어린이들과 접촉

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이 "켈러"는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어린이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설리반"여사는 그의 제자를 될 수 있는 한 정상적 어린이와 같이 취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화법(手話法)은 "헬렌"에게 말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책이 "헬렌"에게 말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헬렌"은 여러시간 책을 들여다 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야기를 읽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이미 아는 글자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모르는 글자의 뜻은 글의 전후 관계로 즉 그 글자가 놓여있는 위치로 판단하여 알게 되었다。 책은 말의 보고(寶庫)이며、 따라서 귀가 먹거나 안먹거나를 막론하고 어린이의 주의가 인쇄된 책 페이지에 가게 되면 자연 그는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는 그가 이해하는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지못하는 글자를 읽고 기억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물론 모든 어린이들이 "헬렌"처럼 조숙하게 책에 대하여 취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마는 모든 건강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은 특히 교원들이 영리하고 또한 "헬렌"모양으로 말배우기 놀이를 하게 되면、 자연히 책을 좋아해서 읽게 되는 것이다。 "헬렌"은 어학에 대하여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헬렌"은 사고방식에 대한 특별한 재주가 있었으며、 그가 그와 같이 어학을 배우려고 한 것은 말이 그에게는 생명을 의미하였던 까닭이다。 그의 연구대상이라는 것은 산수니 지리니 하는 어떠한 특별한 과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계에 대한 그의 길을 열려는 태도이었다。

열네살 때에 그는 독일어를 몇시간 밖에 배우지 않았으나、 「월헬름·텔」의 이야기 줄거리를 알아내었다。 문법은 거의 몰랐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는 언어 자체에서 언어의 뜻을 알았

으며、 또한 이 방법은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 다음에는 누구든지 외국어를 배우는 길이며， 그것은 학교에서 문법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며、 또한 궁극에 있어서는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라틴〃어도 쉽게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 〃라틴〃어 교사로부터 배운 것 뿐만 아니라、 한권의 책을 혼자서 여러번 읽고 〃라틴〃어 말로 놀음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라이트・휴마슨〃학교의 교원의 한사람인 〃쫀・D・라이트〃씨는 나에게 다음의 편지를 보내왔다。

가끔 나는 그가 한가히 있을 때는 그가 좋아하는 방 한모퉁이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의자 앞에는 눈먼 사람들이 보도록 책이 놓여 있는데、 거기 앉아서 〃몰리에르〃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치료(治療)」 "Le Medecin malgré Lui" 의 글줄을 손가락으로 서서이 만지면서 재미나는 글을 읽게 되면 혼자 웃고 있었다。 그때의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불어의 단어라는 것은 매우 적였다。 그는 글자들의 뜻을 추측 판단하여 가지고 각 뜻을 합하여 전체의 뜻을 알아내는 것인데、 마치 어린이들이 조각조각 잘른 그림을 합하여 큰 그림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책의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가 있었다。 그는 대단히 유쾌하게 그 책의 유모어와 기지(奇智)를 설명하고 전체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공부라기보다 다만 일종의 오락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헬렌・켈러〃의 말에 대한 욕구는 그대로 이성적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말

이라는 것이 무한히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천적인 욕구가 말이라는 욕구로 바뀌었을 뿐이다。

〃헬렌·켈러〃가 이와 같이 성공한 것은 그의 선천적인 재주에 의한 것인가、혹은 그의 교육법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물론 〃설리반〃여자보다 십배나 재주가 있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둔하고 정신적으로 부족한 어린이를 〃헬렌〃같은 훌륭한 제자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헬렌〃보다 십배나 재주가 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훌륭한 방법으로 교수를 받지 아니하였다하면 〃헬렌〃은 금일과 같은 성공은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 사실 즉 〃설리반〃여자가 그의 편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점을 썼는데、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교육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편지들은 〃설리반〃여자가 이러한 계획을 하는 도중이며、또한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을 때에 쓰여진 것이다。 이 방법은 모든 귀머거리의 어린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가장 광범위하게 해석하면、모든 어린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헬렌〃의 선천적 재주에다 구하려고 하고 있다。 혹은 그의 선생의 방법이 완전하다 하는 것이다。 둘이 다 옳은는지 모른다。 〃설리반〃여자는 보통이상의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방법을 다른 사람이 썼다면 성공못하였을는지 모른다。 〃설리반〃여사의 힘차고 독창적인 정신은 그 제자의 성격을 아주 명랑하게 해주었다。 〃켈러〃여자는 사실 어학을 좋아하였고 수학을 그다지 즐겨하지 아니하였는데、그것은 또한 〃설리반〃여자의 취미였다는 것을 알

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켈러〃양이 지나치게 그 선생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여덟살 때에 자기가 하는 일에 간섭을 받은 그는 울고 있었다。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내 마음대로 하고싶어요』하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진취적 성격이니 만큼 〃설리반〃여사와 같은 선생의 지도하에서라도 결코 맹목적으로 의뢰하려고 하지 않는다。 〃설리반〃여사는 「선천적인 재주」가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에게 분석할 수 없으며、 또한 몇개의 원리에다 요약할 수 없는 그의 자연적인 욕망을 살리어 교육했다。 그 제자에게 영감(靈感)을 주었는데 그것은 깊은 「우애」이며、 그것은 두사람의 힘을 제한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전시키는 것이다。 가령 〃헬렌〃양이 「놀낼만큼 온순하고 친절」하고、 또한 「정당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면 이것은 〃헬렌〃과 十六년동안 같이 지낸 〃설리반〃여사가 무엇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교원이든지 다른 제자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설리반〃여사는 〃헬렌〃에게 하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또한사람의 〃헬렌〃을 교육시키려면 또하나의 〃설리반〃여사가 필요하다。 또한사람의 교양있는 귀먹은 사람을 가르치려면、 또한사람의 교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는 좋은 환경과 외부적 취미가 풍부한 속에서 생활하여야 하며、 항상 그제자와 같이 있고、 자유스럽게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는 〃설리반〃여사의 교육방법을 적당히 활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면서 명랑하고 사회의 나쁜 물이 들지 않은 순진한 아이를 교육하면 되는 것이다。 어떠한 귀머거리、 또는 귀가 먹고 눈이 멀은 아이라도 건강하면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거나 특별한 교

사이고 학교에서는 될 수 없다。 물론 이 생각은 보통 맹아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맹렬히 반대할 것이다。 말할 것 없이 국가가 맹아인들을 교육하는 학교는 맹아학교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먹은 어린이들이 우선 배워야 할 것은 통상적 어린이들이 학교가기 전에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을 분명히 배워줘야 할 것이다。 "설리반" 여사가 뒤뜰에 가서 닭을 보고 "헬렌" 에게 이야기하여 주는데、 이러한 방법은 사면이 벽으로 된 교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한 제자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하우" 박사가 『교사의 마음이 어린이같이 될 수 없다』한 것은 확실히 틀린 말이다。 귀먹은 어린이야말로 어린이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와 같이 뛰며 달리며、 또한 모든 어린이들의 사물에 대하여 취미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헬렌·켈러" 만 보고 귀먹은 어린이의 교육문제를 토의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권위자도 아닌 내가 몇가지의 의견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권위자인 "설리반" 여사가 발표한 중요한 의견의 몇가지를 다시금 강조하려 하는 것이다。 "헬렌·켈러"의 성공이 귀머거리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성과를 기대하게 된것도 사실인 것 같다。 여러 귀먹은 어린이들이 그 선생들과 친구들에 의하여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며、 또한 훌륭한 보고서 재료가 되고 있는 것도 알지마는 그 보고들은 유감스럽게도 사실과는 다른 것이며、 또한 이러한 보고의 이면을 보면 그들이 도달하였다고 보고되는 과장한 목표에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 어린 맹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헬렌·켈러"를 금일과 같이 성공시킨데 대한 요소 중 몇가지를 요약하려 한다。 첫째 그는 十九개

월간 빛(光)과 소리(音)의 경험을 가졌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정신발달을 의미한 것이다。 두째 그는 유전적으로 건강한 체질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셋째 그는 말을 배우기 전에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켈러〃부인은 〃헬렌〃은 병나기 전에 모든 것에 대하여 입내를 하였다 하며、아마도 이것 때문에 말배우는 것이 늦어지지 않았나 하였다。 병이 난 다음에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자、입내를 더 발달시켰었다。 얼마나 그가 외계의 일을 알아낼 수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추측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은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신문을 읽는 것을 알고서、신문을 다 본 다음에는 그것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 눈앞에 대었다。 그가 어렸을 때에 화를 낸 것은 그의 성격의 자연적 힘의 불행한 표현이었는데 그것을 교육으로 훈련하고 조직된 힘으로 전향시켰던 것이다。

그다음에 〃설리반〃여자는 그의 천신 전력을 받쳐서 그의 훌륭한 방법을 실천에 옮기었다。 〃설리반〃여자의 방법은 대단히 좋았으므로 실지로、그 결과를 보지않더라도 누구나 그 교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설리반〃여자는 훌륭한 인격자이었었다。 끝으로 그가 처음으로 그의 자연적 교육방법을 실시하는데 모든 조건이 좋았었다。 그 조건내에서 선생과 제자가 그림자와 같이 놀았으며 같이 공부하며、자연스럽게 교육을 하였다。

〃켈러〃여사가 장성한 뒤의 교육은 그자신 자서전 중에 쓴 정도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그

가 기록한 이상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워싱톤"에 있는 "볼타·뷰로"에 열락하면 "캠브리치"여학교의 선생인 "아더·길만"씨와、 또한 "머—톤·S·케이드"씨가 쓴 "켈러"여사의 대학입학 준비 당시의 보고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켈러" 양의 말과 또한 그가 이것을 배운 방법에 대하여 권위있게 쓴 사람은 둘이 있으니, 그 한 사람은 "마사츄셋스"주 "보스톤"에 있는 "호레이스맨" 맹아학교의 직원으로 "켈러" 양에게 초기의 교육을 시킨 "사라·풀러" 양이며, 또 한 사람은 부단한 훈련으로 이 초기의 교육을 성공시킨 "설리반" 양의 기록을 인용하기 전에 현재에 있어서 "켈러" 양의 말과 그 목소리의 성질에 대한 인상을 좀 기록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얄으며 듣기에 유쾌하다。 그의 말은 다양성과 굴곡이 없다。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노래하는 것 같이 들린다。 그가 상당히 크게 말을 하면 그 어조는 보통 중간 음성보다는 두 서너개의 음조 위를 올라간다。 그의 목소리는 H음(音)과 비슷한 것 같다。 보통 음조에 비하여서는 언제나 입김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고, 그의 음계의 어떠한 것은 음악적이고 매력이 있다。 그가 어린이의 이야기를 하거나 슬픈 감정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는 음과 음이 꼭 꼭 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연결된다。 어린이들이 어떠한 엄숙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보고 잘 쓸 수 없는 기다란 글자들을 천천이

말하는 것과 같다。

큰 결점은 문장과 구절에 있어서의 양음(揚音)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켈러〃양은 아직도 초보적인 문장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외국사람이 말하듯이 말하며、 혹 다른 예를 들면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한글자 한글자씩을 집어 내어 읽는 것과 같이 말을 한다。

그는 불어와 독일어를 한다。 그의 친구 〃쫀·힛쓰〃씨의 모국어는 독일어인데 그는 〃켈러〃양의 독일어발음은 훌륭하다고 말한다。 또 한분의 친구• 그는 영어나 마찬가지로 불어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말하기를 〃켈러〃양의 불어는 영어보다 훨씬 알기 쉽다고 한다。 그가 영어를 할 때는 불란서말 모양으로 각 음에다 힘을 주므로 〃악센트〃가 있는 음절에다 적당한 힘을 주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pro -vo′-ca′-tion” “in -di′-vi′-du′-al”로 발음을 하여 음절의 차이를 두지 않고 또한 그날 그날 발음하는 것이 다르므로 일치점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dictionary를 dictionayry 나 diction′ry 로 발음하나 물론 정당한 발음은 두가지가 다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을 알게 하기는 곤난하다。 왜냐하면 사전에 써 놓은 어떠한 표식이라 하여도 바르게 발음시키는 것은 곤난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발음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귀로 듣는 것이며、 특히 철자로 표현할 수 없고、 발음이 안되거나• 반쯤 발음되는 유사모음(類似母音)이 많은 영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켈러〃양의 모음은 확실하지 않아서 awful 이 awfil 로 된다。 이것이 잘못 발음되는 이유는 ful 에 〃악센트〃가 없는 까닭이다。 왜냐 하면 full 한자만을 발음할 때는 정확히 발음한다。

읽을 때는 가끔 발음을 잘못하고, 때때로 글로 쓸 때는 여러번 인용한 일이 있었으나 발음해 보지 못한 글자에 가끔 부닥친다。 이러한 곤난과 또 다른 종류의 곤난도 그와 〃설리반〃양이 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一八九四년 이후에는 그들은 책을 너무도 읽게 되어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잘 공부하였는데 직접 관계 없는 것은 무엇이나 등한히 하였다。 〃켈러〃양은 크게 이야기하면 언제나 그 독특한 유쾌한 말의 특성을 유지할 것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명백하게 알아 듣게 하는 점으로는 아직도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

그가 〃뉴욕〃의 〃라이트·휴마슨〃학교에 재학시에 〃휴마슨〃박사는 그의 글자발음 뿐만 아니라, 목소리 자체를 향상시키려 하였으며, 따라서 음조와 음성연습의 교육을 했던 것이다。

〃켈러〃양의 말이 알아 듣기 쉬우냐 아니냐는 말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어떠한 사람은 곧 알아 들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말을 늘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어린이들은 그의 말을 알아 듣는데 곤난이 없다。 그것은 어른이 되면 모든 글자들을 한숨에 넣어서 말하게 되는 것인데, 어려서는 〃켈러〃양 모양으로 한자 한자를 힘들여 어린이들의 말하는 방법으로 하는 까닭이다。 〃켈러〃양은 다른 어떠한 귀먹은 사람보다도 말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

〃켈러〃양은 그가 어떻게 하여 말을 배웠나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一八九四년 〃샤우토카〃에서 열린 귀먹은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치려는 연맹에서 〃설리반〃양이 한 연설의 요지와 같은 것이다。

〃켈러〃양의 말에 대한 〃설리반〃선생의 설명

〃헬렌〃이 손에다 쓰는 방법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여 三년이 경과한 다음에 비로소 더 자연적이고 보편적 사교적인 수단, 즉 입으로 말하는 말을 배우는 첫 교육를 받았던 것이다。 손에 쓰는 것에는 매우 능숙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당시 그가 외계와 의사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였다。 이 방법으로 그는 그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통화하며, 이지적으로 글을 읽게 하고, 비교적 용이하고 또한 정확하게 작문을 할 수 있게 할만한 어휘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을 내려는 강한 충동이 〃헬렌〃에게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어떠한 시기가 오면 오히려 불유쾌하게 되지나 아니할까 하여 이 본능적 경향을 내려 누르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를 말하도록 가르치려고는 아니 하였다。 왜냐 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입술의 움직임을 알아 내는 능력이 없어서 그 장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보았다。 그러나 그는 점자로 자기의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은 그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방법보다는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날 그의 생각이 발표되었다。 『눈먼 소녀들이 어떻게 그 입으로 말을 할 줄 압니까? 왜 선생님은 나를 그들과 같이 말하도록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귀먹은 어린이는 말하도록 못 가르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떠한 귀먹은 사람들은 말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그들은 선생님들의 입술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내가 말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나의 입

술이 동하는 것을 촉감으로 잘 알 자신이 있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가 있은 후 얼마 안되어서 어떠한 부인이 "헬렌"을 찾아와서 눈멀고 귀먹은 "노르웨이"어린이 "라근힐드·카ㅡ타"는 말도 하고 또한 그의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만짐으로써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 듣도록 교육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당장에 말을 배울 결심을 하였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는 이 결심을 번복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곧 음을 내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말이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정당한 교수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왜냐 하면 그의 마음은 말하는 것을 배우겠다는데 열중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 하면 나는 발성기관의 작용에 관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여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와 나의 제자는 충고와 원조를 얻기 위하여 "사라·풀러"양에게 갔다. "풀러"양은 "헬렌"의 성심과 열성이 맘에 들어서 곧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다. 몇가지 배운 뒤에 그는 전 영어의 음을 발음하게 되었고 일개월 이내에 상당히 많은 글자를 명확하게 발음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헬렌"은 단음만을 발음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데에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단자와 문장을 조급하게도 발음하려 하였다. 단자가 길거나 또는 각 문법의 원리를 나열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하고 또한 재주가 있었으나 말을 배우려는데는 "헬렌"의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매일 매일 진보하며 결국은 성공하리라는 증거가 보여 만족하였다. "헬렌"의 성공은 그의 어떠한 친구가 기대하였던 것보다도 훌륭하였으며, 진실로 감명을 주었다. 또한 명확하고 바른 말로 그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을 때에 어린이가 느끼는 환희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헬렌"의 말을 알아 듣게 되고 그가 표현하는 무한한 기쁨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헬렌"이 결국 자연스럽게 즉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이 말하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여러번 들어왔다。 나는 이것을 대답할 준비가 없으며, 더욱 의견조차 말할 수가 없다。 아직은 무엇이 가능하며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알 수가 없다。 귀먹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헬렌"이 "풀러"양에게 몇가지를 가르친 이외에는 정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 없는데도 그와 같이 말을 잘한다고 다들 놀랬었다。 나는 이것만은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모방하고 연습을 거듭한 덕택이었다」。 자연은 이 어린이가 어떠한 방법으로 말을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를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도와주며 음성의 진보를 관찰하며 모방하도록 격려할 따름이다。

좀더 자세한 다음 기록은 전에 "설리반"양이 一八九一년도의 "퍼킨스"학교 보고서에 쓴 것이다。

"라우라·브리즈만"도 "헬렌"모양으로 음을 내려는 직각적 욕망을 가졌으며, 또한 몇마디의 말을 발음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들을 좋아서 쓰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헬렌"도 그만큼은 성공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받게 될 이익보다는 그러한 실험이 요구하는 시간과 노력의 대가(代價)가 더 크리라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듣지를 못하므로 목소리가 단조하고 대단히 듣기에 거북한 것이며、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 외에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한 귀먹은 어린이가 말을 배우는 것은 언제든지 지루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것이다。나의 의견에는 귀먹은 어린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에는 발음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다。따라서 그 어린이의 지력 발달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발음이라는 것은 교육의 입장으로는 적당치 않은 수단이다。그러나 손에다 글씨를 써서 통화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귀먹은 사람들이 영어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며、또한 그것을 통하여 가장 높고 추상적인 사상이라도 곧 정확하게 전달되므로 정신활동을 자극하며 왕성하게 하는 것이다。그러나 "헬렌"의 경우에 있어서 손에 글을 쓰는 것은 발음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왜냐 하면 그는 이미 문장의 글자와 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극복하여야 할 것은 기계적 곤난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더욱 그는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유쾌할 것을 알고 있었다。그러므로 그가 무엇을 위하여 노력을 하나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확실성 있는 희망을 주었던 것이며、그것은 또한 그 어려운 고역을 달게 받았던 것이다。교육을 못 받은 귀먹은 어린이에게 발음을 하도록 하게 하면 그 목적을 모르며、따라서 그의 말공부는 오랫동안 힘만 들고 재미가 없으며 또한 뜻이 없는 것이다。

"헬렌"에게 말을 가르치는 과정을 기록하기 전에 또 그가 정식으로 발음하는 교수를 받기 전에 어느 정도로 발성기관을 이용하였나를 간단하나마 적는 것이 좋을 것이다。생후 十九개월이 되었을 때 그가

병이 들은 결과 귀가 먹고 눈이 멀게 되었을 당시 그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어린이가 뜻없이 『빠빠』하는 것이 점차로 그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또한 자의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 병은 입으로 말하고 배우려는 힘을 막아버렸다。 그의 육체적 힘이 회복되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은 의미가 통치 않았다。 왜냐 하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보통 어린이들이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의 발성기관을 기계적으로 운동시켰다。 그의 우는 소리라든지 웃는 것이라든지 또한 말의 여러 종류를 발음할 때의 음조는 완전히 자연스러웠으나 그는 확실히 그러한 발성에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선천적이고 유기적이고 유전적인 표현관능을 운동시키려는 단순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귀를 먹고도 언제든지 계속하여 한 발음에만 취미를 붙이었는데 그것은 「물」이라는 말이었고、 그의 어린 입으로 제일 처음에 배운 음의 하나이었다。 이 글자의 발음도 점점 불분명하게 되어 내가 그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발음도 이상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음만이 물을 가리키는 표시였으며、 그가 손가락으로 「물」이라는 글자를 쓰게될 때까지 그는 이 말에 대한 표시(손짓)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물」이라는 말과 「안녕히」라는 말에 응하는 손짓만이 그 어린이가 병이 나기 전에 잘 알고 있었던 자연적인 표시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감각(나는 이 글자의 뜻을 모든 촉감이 포함된 것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을 통하여 그의 주위의 사정을 알게 됨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를 통하려는 시급한 필요를 점점 더 느끼었던 것이

다。 그의 작은 손을 가지고 모든 물건을 만져보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관찰하며、 또한 그 행동하는 것을 재빨리 입내 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더 긴급한 요구와 그의 생각의 여러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의 선생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스로 六十개 이상의 표시를 하였는데、 그것들은 전부 입내 내는 것이였으며、 그를 아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곧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스스로 발명한 표시는 「크기」와 「작다」에 관한 것이였다。 무엇이든지 큰 것을 원할 때에는 그는 대단히 특색있는 방법으로 손짓 몸짓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화를 내었다。 그가 심리적으로 감금을 당하고 있던 당시는 그는 순전히 표시에만 의뢰하였던 것이며、 의사를 표할 수 있는 발음으로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심히 고통을 느낄 때에는 그는 어머니의 입술의 움진임을 알게 된 것 같다。

그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는 가만이 있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듣기에 불유쾌하지는 아니하였지마는 이상스러운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인형을 잡아 흔들며 한손은 목에 대고 또 한손은 자기 입술이 움직이는 데다 대고 계속하여 단조로운 음을 내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 어머니가 어린이에게 조그마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였다。 가끔 그는 유쾌히 웃고、 손을 벌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도 역시 웃나하여 그의 입술에다 손을 대보는 것이였다。 웃음을 발견 못하게 되면 흥분하여 몸짓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려 하였다。 그의 상대자를 웃지못하게 하면 괴롭고 실망한 표정으로 잠시 말없이 앉아있는 것이였다。 그는 무엇이나 음을 찾아내면 좋아하였다。 그는

고양이가 끄르릉 끄르릉하는 것을 만지게 되면 좋아하고 우연히 개가 짖는 것을 만지게 되면 대단히 유쾌한 표정을 하였다。 또한 누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하면 그 옆에서 있기를 즐겨하였다。 그는 한 손은 노래하는 사람의 입에 대고 또 한손은 피아노 위에다 놓고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는 이 자세를 계속하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노래라고 하는 음을 계속하여 내는 것이었다。 一八九〇년 三월까지 어느 정도 명확히 발음하는 말은 「아버지」、「어머니」、「애기」와 「동생」이었다。 이러한 말들은 친구들의 입에다 손을 대어서 배우지 아니하고 스스로 안 것이었다。 이러한 글자들은 세개의 모음(母音)과 여섯개의 자음(子音)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음들이 말배우는 제일과의 기초가 되였다。

기초 교육을 마친 뒤에 그는 다음것을 명확하게 발음하게 되었다。 a, ä, â, ê, ǐ, ô, s와 같이 약한 c k와 같이 강한 c, 강한 g, b, l, r, m, t, p, s, u, k, f와 d이었다。 강한 자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서로서로 연결시켜서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끔 강한 한 음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한 자음을 둘다 다른 약한 유자음이 있는 것으로 대치(代置)한다。 처음에는 l과 r이 몹시 혼동이 되었다。 자주 l자를 r자로 발음하고、 때로는 r자를 l자로 발음하였다。 r자의 발음이 최후로 알게 된 음이었다。 ch와 sh와 연한 g가 대단히 곤난하여 지금도 명백하게 발음을 못한다。

말 배우기를 시작하여 일주일이 못되어 그는 그의 친구 〃로도카나치〃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을 발음하려고 애를 쓰고 그 이름을 명백하게 발음할 때까지 노력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의 취미는

조금도 감소되는 일이 없이 사면으로부터 오는 곤난을 열심히 극복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였으며、따라서 쉽고 빠르게 영어의 기초를 배웠다。

〃켈러〃양의 기록으로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입술의 움직임을 알게 되는 과정、말하게 되는 과정、또한 물론 그 과정으로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경과를 넉넉히 알 수 있다。 입술로서 말을 판단하는 점은 보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빠르지도 아니하고 또한 정확하지 않다。 그것은 〃설리반〃양이나 또는 손에 쓰는 알파벳트를 아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아니하면 좀 서투르고 불만족한 통화의 방법이다。 사실상 어떠한 친구가 〃켈러〃양에게 말을 하려 할 때에 회화가 아니되면、〃설리반〃양이 못 알아들은 부분을 〃켈러〃양의 손에다 쓰는 것이다。

지난 봄에 〃루스벨트〃대통령은 〃켈러〃양으로 하여금 자기를 이해하게 하는데 별 곤난이 없었으며 특히 〃설리반〃양에게 〃헬렌〃의 손에다 쓰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대통령의 말은 똑똑하였으므로 〃켈러〃양은 한자 빼지 아니하고 다 알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켈러〃양에게 자기들을 알아 듣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켈러〃양과 통화되는 데 익숙한 〃A・C・프렛트〃부인、〃J・E・참버렌〃씨 같은 분은 하루종일을 지내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손에 쓰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다。 입술을 만져서 알 수 있는 능력은 〃설리반〃양이나 또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자기의 발음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말을 배우게 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통화를 할수 없이는 높은 학교나 대학에는 거의 가지 못하였을는지도 모르나、말한다는 것이 어느 점으로 보나 기본적 그의 교육에 도움이 없다는 사실은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었느냐는 그자신이 제일 잘 알일이다。 다음 것은 一八九六년 七월 八일 〃펜실바니아〃、〃필라델피아〃、〃마운트·에리〃에서 개최된 제五회 귀머거리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을 촉진하는 〃아메리카〃 협회에서 한 연설이다。

〃마운트·에리〃에서 한 〃헬렌·켈러〃의 연설

만일 여러분께서 금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느끼는 모든 기쁨을 아신다면、귀먹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나를 얼마큼 아실 줄로 생각하며、또한 이 위대한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 귀먹은 사람들까지라도 말배우는 기회가 있어야 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여러가지 의견도 많고 쓴것도 많은 것을 알며、또한 귀머거리를 가르치는 교사들 사이에 말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며、또한 우리들의 교육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도 우리가 산 말로 우리의 생각을 발표함에 있어서 느끼는 만족을 이해하여 주시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부단히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고 그와 같이 할 수 있는데 얼마

나 쾌락을 느끼느냐 하는 것은 말을 하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나를 모르시는 분은 나를 알아 듣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점차로 알아 듣게 되실 줄로 믿으며 우선 당분간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이 내가 말할 수 있음으로써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나는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동생과 영아인 남동생이 내가 집에 있어. 긴 여름 저녁에 이야기 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나의 어머니와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책에서 글을 읽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경애하는 아버지와 정치문제를 토의하여 내가 보고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곤난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장 만족하게 해결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밀접하게 하며 그들과 더욱 연결시키며 만일 내가 말을 할 수 없다하면 나와 전연 무한히 많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교제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말하기를 배우기 전에 손에 쓰는 〃알파벳트〃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애썼던 것은 마치 조그마한 새가 자유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었읍니다。 그러나 어느날 〃풀러〃양이 이 감옥문을 넓게 열어、나의 마음은 그 감옥을 탈출하여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열심으로 또한 얼마나 기꺼워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서 자유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아실는지 알수 없읍니다。 물론 처음에 날으는 것은 용이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이 말은 날개는 약하고 찢어지고 일찌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아한 미는 다 잊어버리었던 것입니다。 사실 말씀 하자면 날으려는 의욕 밖에는 남은 것은 없었으나 그것만으로도 값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창공을 날으려는 욕

망을 느낄 때에 땅을 기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쓰라고 원하신 바와 같이는 나의 「말」의 날개를 쓸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가는 길에는 태산과 같은 곤난이 가로 막혀서 의기가 죽는 것도 한두 번은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하여 노력하였읍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고 견디면 결국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믿었읍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중에 나는 가장 아름다운 공중누각을 지으면서 꿈을 꾸었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이었고、 나의 어머니가 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됨으로써 느낄 그 기쁨을 생각할수록 그것이 나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게 하였으며、 또한 실패한 모든 것을 다음 번에는 더 잘하겠다는 자극제로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나는 말을 배우려하고 말을 가르치려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잃지마시요！ 오늘의 실패를 생각지 말고 내일에 올 성공을 생각하시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에 착수하였읍니다。 그러나 참으면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해물을 극복함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나 같은 것으로 길이 평탄하고 유쾌하게 걸어갈 수 없을 것이며 넘어져서 뒤로 떨어지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무엇을 달성하려고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요。 어디인지는 모르나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또한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는 말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체(文體)

누구든지 "헬렌·켈러" 양의 자서전을 읽으면 그가 보통아닌 훌륭한 영어를 쓰는 것을 느낄 것이다。 어떠한 작문교원이든지 그의 제자들에게 문장과 말 선택에 있어서 틀림이 없게 쓸 수 있을만큼 잘 교육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문장을 명확히 쓸 수 있다는 것은 "헬렌·켈러"양의 초기의 교육이 모든 건전한 어린이라면 도달할 수 있는 점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점은 그의 교육을 분석함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헬렌"을 예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초기의 교육을 분석함으로써 설명될 것이 아니고、 그가 어렸을 때라도 말을 훌륭하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여 그 이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견해는 어느정도 정당하다。 왜냐 하면 사실상 문체를 만드는 말을 가하여 여러가지로 조화를 만들며 사물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어떠한 교원이든지 "헬렌"으로 하여금 말의 뜻을 직감하게 할수 없었을 것이며、 "멜로디"가 있게 말을 모아서 표현하는 것을 요구하는 구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문체의 재주라 할지라도 죽여버릴 수도 있고, 또는 자극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나면서부터의 천재라 할지라도 말의 아름다움은 발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좋은 문체의 재료가 되는 것은 마음에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또한 기술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글의 재주가 있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영어가 그의 자양이 아니 되고서는 아름다운 영어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다른 모든 점에서나 마찬가지로 "설리반" 양은 지혜스러운 교원이었다. 그가 만일 좋은 영어에 대한 감상력과 열성이 없었다면 "헬렌"은 「유년 문학」에 의하여 자라났을는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쓴다는 구실하에 말을 짧게 만드는 것이며, 또한 어린이들의 문학은 「보물섬」(寶島), 「로빈슨·크루소」 또는 「쨩글·뿍」 같이는 쓸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설리반" 양이 훌륭한 영어를 쓴다 하면 "헬렌"의 문체가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곧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설리반" 양의 편지와 보고의 발췌를 보면 명석하고 명확한 영어이지마는 "헬렌"의 영어의 특징이 되는 미는 없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영어 교원으로서의 "설리반" 양의 공훈은 그가 작문에 재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측정할 것이 아니다. 그가 어찌하여 그와 같이 그 제자에게 많은 훌륭한 책을 읽어 주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는 그가 최근에 그 시력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다. 그가 "헬렌"의 교사가 되었을 때에는 그는 책에 있는 좋은 곳에 눈을 뜨던 중이었다. 왜냐 하면 그가 눈을 보지못하던 시기에는 책의 보배에서 문이 닫히었던 까닭이다.

"켈러" 대위의 서재에는 훌륭한 책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말하자면 "램"의 「"쉐익스피어" 이야기」

같은 것이었으며、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은 「몬테이뉴」등이었다。 기초적 공부를 약 일년 한 뒤에는 그는 그의 제자와 동등한 조건에 서게 되어 같은 책을 함께 읽어서 재미를 보았던 것이다。

좋은 책을 선택한 것 이외에 〃켈러〃양이 훌륭하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설리반〃양에게 무제한의 공을 돌려야 할 것이며、그것은 그선생의 부단한 훈련이었는데、그것은 그선생의 어떠한 일에서든지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그 제자에게 문체가 좋지못한 편지를 쓰는 것을 금하여 다시 쓰게 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매력이 있고 말이 잘 되게 하였다。

누구든지 글을 쓰려고 하여본 사람은 〃설리반〃양이 〃켈러〃에게 요구한 부단한 연습이 그의 글쓰는 것에 얼마나 득이 되었는지를 알 것이다。 만일 교원으로서 좋은 문체에 대하여 호기심이 있다하면 그 제자에게 한구절의 글이라도 자꾸 다시 쓰게 하여 명확한 것 이상의 것을 만들게 하여 본다하면 그 교원 자체의 표현력보다도 더 큰 표현력을 제자에게 훈련하게 되는 것이다。

〃설리반〃양이 이 세련과 선택의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하였느냐 하는 것은 그 사상의 성숙정도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도 달라서 『그 제자를 작은 늙은 여자로 만들어 버리었다』고 〃벨〃박사가 재미나게 평한 것을 보아도 명확하다。 그러나 〃벨〃박사가 그와 같이 말한 것은 결국 그가 본 경우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 하면 〃설리반〃양의 방법에 있는 원리를 제일 먼저 보고 〃헬렌·켈러〃가 책으로부터 말을 배우는 과정을 설명한 사람은 곧 〃벨〃박사이었다。

또한 〃헬렌·켈러〃가 글 잘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 것

이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불리한 점은 차츰 극복되었으나、그 유리한 점은 그대로 보유하였다。 그는 통상적인 어린이들과 마찬가지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다른 귀먹은 사람보다는 우수한 것이다、또한 보통사람들이면 말이라 하는 것은 바른 팔이나 마찬가지로 자연적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헬렌"에 있어서의 말의 가치라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그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사랑하게 하였다。 그에게는 말은 해방자이였으며、또한 그는 처음부터 그것을 사랑하였다。

"헬렌・켈러"가 어려서부터 영어쓰는 재주가 있다는 증거와 이 교수법이 훌륭하다는 결론적인 논평은 어떠한 사건에서 들어 나는 것인데、그것은 당시에는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마는 지금에 와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서리왕」사건이다。 "켈러"양 자체도 이것을 설명하였으며、그리고 이 사건은 「볼타・뷰료・수베니어」 제一호에서 취급되었는데、나는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서리왕」에 대한 "설리반"양의 기록

"쫀・힛쓰" 귀하!

나는 그이 「수베니어」 제二호에 게재할 원고를 다 쓴 이후에 몇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그것은 나의 제자가 말을 배우는 문체에 관련되어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글을 二호에 내는 데 너무 늦지 않다면、그 사실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헬렌"의 기억력이 월등하다고 한 나의 보고에서, 그는 배울 당시에는 글을 이해 못한 여러가지의 표현의 형식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것 같으며, 또 새로운 경험에다 그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만치나마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 기억에 남아있는 말들이 일부 혹은 전부가 회화나 글쓰는데 나타난다고 한 것을 기억하셔야겠읍니다。 물론 이 사실은 어떠한 재주있는 어린이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는 감각을 빼았겨 버리면 "헬렌"이 실제로 증명하는 것만큼은 재주가 없으리라고 생각아니 한다면, "헬렌"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특히 말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까닭으로 실제로는 그와 같이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헬렌"의 마음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가지로 놀랠만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충분히 알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제자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정신력과 이해력과 분별력을 과대히 평가하는 것 같이 보인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첨가하여 말하고 싶읍니다。 즉 나는 "헬렌"이 그의 사상과 아름다운 시적 정서로서 사물의 묘사와 비교를 쓰기 좋아하는 것은 늘 알고 있었지마는, 그의 작문 가운데서 최근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가 좋아하는 작가들에게서 어느정도로 말을 흡수하는지를 나는 과거에는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그의 교육의 초기에 있어서는 그에게 읽혀지는 책들을 나는 전부 알고 있었으며, 또한 책뿐만 아니라 그에게 읽어준 이야기까지는 전부 알고 있었으며, 별 곤난없이 그가 회화나 작문에서 인용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도 찾아 낼 수도 있었읍니다。 또한 나는 그가 그의 좋아하는 저작가의 글을 얼마나 적당하게 자기

작문에 인용했나를 보고 기뻐하여 왔읍니다。

이미 출판된 편지 중에서 발췌한 다음 것은 아름다운 글들을 기억하여 두는 힘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가를 명백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쪽에 있을 때 어떠한 더웁고 밝은날 향기로운 공기는 그로 하여금 〃히아와다〃에 있는 〃롱펠로〃에 발표된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오게 한 것 같으며、 다음과 같은 감상적인 시를 노래하게 하였읍니다。

대지는 새 생명의 약동으로 흔들리었읍니다。나의 마음은 즐거움에 넘쳐서 노래를 불렀읍니다。 나는 나의 그리운 고향생각이 났읍니다。 해 비치는 그 땅에는 아름다운 봄은 찾아 왔읍니다。「모든 새와 모든 꽃과 같이、 모든 풀과 그 꽃과 같이」。

대략 그 같은 때에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남부지방의 집들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좋아하는 시를 인용하여 아름답게 잘 묘사하였으므로 나는 여기서 그 시와 편지의 일부를 적겠읍니다。

〃헬렌〃의 편지의 발췌

(이편지 전부는 〃퍼킨스〃학교 보고서에 기재되였읍니다。)

창공색 털에 덮인 청조(靑鳥)、 갈색인 〃드러쉬〃새、 갑자기 목을 움직이는 〃로빈〃새、 불똥같이 떠

또는 피플새, 유쾌한 식미조(食米鳥)와 그의 행복스러운 동무, 모든 것을 모방하는 임내새, 대단히 바쁜 조그마한 굴뚝새, 한가지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붉은새, 이 모든 것들이 옵니의 앞 뜰에 있는 나무들을 기꺼운 노래로 흔들리게 합니다.

「봄」이라고 제목한 시의 일부분

올리버·W·홈즈 지음

청조는 푸른 창공의 털에서 숨을 쉬며
향기는 고추나물 꽃에서 불어 온다
"드러쉬"는 가련한 방랑자, 겸손하게 땅에 내리니
가을 갈색 나머지 옷을 입고
피교리는 불똥처럼 떠돌아 다니며
일어나는 불길에서 떨어지는 불똥처럼.
"로빈"새는 갑자기 목을 움직여
전방지게도 "스타카토"의 곡조를 반복한다.
미친듯한 식미조는 벗을 찾고
취한 듯한 나무에 앉아있다.

아니! 적막한 "카나리아"는 새장속에서 노래하고
부드러운 공기를 마시며 한가한 날개를 펼친다。

四월 말일에 "헬렌"은 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글을 썼읍니다。

「내일은 四월이 그 눈물을 감추고 사랑스러운 五월 풀 밑에서 얼굴을 붉힐 것이다。」

一八八九년 五월 十七일 일자의 "퍼킨스"학교에 있는 동무에게 보낸 편지에서 "헬렌"은 내가 읽어준 것이 오래되었지만 "한스·크리스티안·안데르젠"의 이야기를 그대로 회상하였읍니다。 이 편지는 "퍼킨스"학교보고서 수록되었읍니다。

이 원문은 "리빗트"회사에서 출판한 「"안데르젠" 동화집」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부룩스"목사의 인상적인 설교를 "헬렌"이 존중한다는 것은 세상이 잘아는 사실인 것이다。 그의 편지 중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교할 때에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읍니다。

이세상에는 선、미、사랑이 차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많은 기쁨을 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의 사랑과 도움은 자연의 모든 면에 표시되어 있다。」

최근 몇해동안은 "헬렌"은 자유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여왔기 때문에、내가 잘 모르는 문학도 잘 알게 되었읍니다。 맹인용으로 인쇄된 책을 읽는 것을 나는 좇아갈 수 없는 것인데、그러

한 책중에서 그의 시적상상의 감상력을 배양하는 많은 재료를 찾았고, 그가 읽는 책의 페이지는 그에게는 그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의 상상력은 그러한 것에 생명과 빛을 주게 됩니다。 그가 읽거나 들려 주는 이야기에 있는 사건을 그는 다 기억하게 되며, 그곳에 나타나는 인물들이나 기록은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의가 이기면 좋아하고, 덕이 보답을 못받으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말이 그리는 그림은 소멸될 수 없는 인상을 만드는 것 같읍니다。 그리하여 여러번 비슷한 경험이 그에게 오게 되면 거울에서 반사되는 모양으로 놀랠만한 정확성을 가지고 〃헬렌〃의 마음은 훌륭한 천부(天賦)의 힘에 있어서 조금만 설명을 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날 〃알라바마〃의 산기슭에 있는 샘 근처에서 야생 꽃을 따고 있었는데, 그는 처음으로 샘이라는 것은 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아는듯 하였읍니다。 그는 곧 산들은 자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샘을 둘러싸고 모여드는 것이다 하였읍니다。 나는 이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나 시각을 때앗긴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말을 지어 낼 수 없는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필연코 외부에서 들은 것으로 판단하였읍니다。 〃마사츄셋스·렉싱톤〃에 간 것을 기록한 것에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산신령들은 숲속의 어린이들이 속사기는 비밀을 들으려고 몸을 굽히었다。 오랑캐꽃 또한 모든 야생꽃들은 갈색 잎사귀 밑으로부터 얼굴을 내어 우리들을 엿보았다』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모피우스〃가 그의 마술지팽이로 나의 눈까풀을 닫히니 나는 침대로 가야겠다』라는 말로 끝을 내리었읍니다。 이곳에서도 나는 그 표현이 어디서 생각났는 지를 모르겠읍니다。

그는 언제나 가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으며、그러한 문학에 있는 시적인 정신을 해득하고는 기억에 남겨두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도 그의 기억은 너무도 정확하여 읽은 글을 그대로 전부 기억하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모르는 때가 가끔 있었읍니다。

이사실은 〃터스컴비아〃에 있는 그의 양친의 집에 있을 때 十월에 쓴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그는「가을 잎사귀」라고 제목을 붙였읍니다。 그는 이것을 기분 나는대로 조금씩 쓰기에 두주일이 걸리었읍니다。 이것이 끝이 나고 가족에게 읽어 주었을 때、아름다운 상상이 너무나 많아서 가족에게는 여러가지 화제거리가 되었읍니다。 왜냐 하면 눈의 도움이 없이 어찌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수가 있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본 일도 없고 또한 들어본 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읽었느냐고 하였더니 〃헬렌〃은 그것은 읽은 것이 아니라、〃아나그노스〃씨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작 쓴 것이라 하였읍니다。 나는 〃헬렌〃이 이와 같이 쓴 것에 대하여 놀랬지마는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번 놀랜일이 있었읍니다。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훌륭한 성공을 한데 대하여、이전보다 더 놀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왜냐 하면 금년 가을에는 나무잎들이 아름다워질 적에 대하여 여러가지 아름다운 생각을 서로 교환하게끔 되었읍니다。

〃헬렌〃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원고를 쓰기 전에、그 이야기를 더 적합하게 하기위하여 그 제목을 「서리왕」으로 고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제안한 일이 있었읍니다。 보통때나 마찬가지로 〃헬렌〃은 이 이야기를 점자로 썼고 또한 종전과 같은 식으로 정리하였읍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읽게

하기위하여 점자로 쓴 줄(行)사이에다 보통 글자를 써넣었읍니다。 "헬렌"은 편지를 쓰고、또한 이 원고를 동봉하여 생일축하로 "아나그노스" 씨에게 우편으로 부쳤읍니다。

이 이야기는 「멘토」 정월호에 기재가 되었는데 「굳손·깨젯트」에 실린 이 이야기에 대한 평론을 보고 깜짝 놀랬읍니다。 왜냐하면 "헬렌"이 낳기 七년전 一八七三년에 이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출판되었읍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서리선녀」이었는데 "마가렛트·T·캔비"양이 쓴 「새와 그의 선녀동무들」이라는 책 가운데 있었읍니다。 이 두 이야기의 문장은 생각과 표현이 너무도 서로 같아서、나는 "캔비"양의 책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헬렌"에게 읽어주었나하고 의심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이책을 읽은 일도 없고 또 들은 일조차 없었으므로 "헬렌"에게 그것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모른다 하였읍니다。 즉 그는 그 이야기와 책을 전연 회상하지 못하였읍니다。 "퍼킨스"학교 도서관에 이 이야기를 발췌하여 점자로 출판한 것이 있나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이 안되었읍니다。 따라서 나는 그가 받은 인상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에게 읽어준 것은 대단히 오래 전이라고 결론을 내렸읍니다。

자세히 조사하여 본결과 우리의 친구 "S·C·홉킨스"부인이 이책을 한권 一八八八년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부인의 딸에게 一八七三년인지 一八七四년에 누가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一八八八년의 여름을 "헬렌"과 나는 "마사츄셋스"주 "부르스터"에 있는 그 부인의 집에서 보내였는데 그 부인은 고맙게도 "헬렌"을 돌보와주고、나와 수고를 잠시 면하여 주었읍니다。 그 부인은 소년문학집

을 읽음으로써 "헬렌"을 재미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중 한권이「새와 그의 선녀동무들」이였는데 그 부인이「서리선녀」라는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책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을 읽어준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부인이 이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필라델피아"、"뉴욕"、"보스톤"、"알바니" 등의 서점으로 주문하였으나 얻지를 못하였으므로、결국 저자 자신에게 부탁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또한 곤난하였읍니다。 왜냐 하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저자의 출판업자는 오래전에 벌써 사업계로부터 은퇴한 것을 알게 된 까닭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인이 "델라웨어·윌밍톤"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어 그부인으로부터 一八八九년에 출판한 제二판을 몇권 얻게 되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제一판을 한권 얻어서 내게 보내주었읍니다。 가장 친절하고 고마운 편지를 몇장 "헬렌"의 친구들이 "캔비"양으로부터 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발표하겠읍니다。

一八九二년 二월 二十四일부의 편지에서 그부인은 이 이야기를 편지에다 게재하였을 때의 순서를 말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썼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책의 형식으로 출판하기 전에 전부 수정하였읍니다。 첫번 출판한 것보다는 양을 늘리고 또한 어떠한 것은 제목도 변경하였읍니다。

"헬렌"에게 그가 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다는 것을 듣고 나는 반갑게 생각하였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고、이 새로운 책이 그 선녀들과의 교분을 새롭게 하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헬렌"에게 이해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래지 않아 "헬렌"에게 편지를 쓸 것이며、그에게 대하여 잘

알게 되고 큰 흥미를 느끼었기 때문에, 「잠잠한 노래꾼」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읍니다。 그것을 곧 그 어머니에게 보내 드리겠읍니다。 "헬렌"이 두 이야기에서 문장을 인용하여 남의 글을 도적질하였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글이 무엇에 발표되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읍니까? 나는 그 글을 읽어보고 싶으니 될 수 있으면 그 글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一八九二년 三월 九일부의 편지에서 "캔비"양은 다음과 같이 썼읍니다。

『당선이 감사하게 보내주신 보고서에서 어린 "헬렌"이 「서리선녀」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들은 흔적을 발견하였읍니다。 一三二페이지에 있는 편지에는 「장미선녀」라고하는 나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암시를 받은 것같은 문장이 있고 보고서에 게재된 것으로 九三과 九四페이지의 천둥에 대한 것은 나의 책 「서리선녀」의 五九와 六○페이지에 적혀있는 「재」의 생각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헬렌"은 참으로 활동적이고 기억력이 좋은 천재입니다。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이 기억을 하고 또한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다 하여도 그것은 놀랠만한 일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三년전에 이 이야기를 단지 한번만 듣고, 또한 그 부모와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하시어서 기억을 새롭게 한 일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전체에 조화가 되도록, 또한 원작(原作)을 더 훌륭하게 살리도록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여 그와 같이도 아름답게 그 이야기를 다시 써냈다는 사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위대한 작문의 재주가 있는 더 나이 먹은 여자라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을 생각하여 본다하면 누구가 이것을 다른 사람의 글을 훔친 것이라고 비난할 만큼 불친절할 수가 있

나 생각이 되는 것이며、이것은 기억력의 위대한 업적이며、그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과거 몇해동안 처럼 그의 정신능력이 성장한다하면 틀림없이 많은 그의 작품은 더욱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 어린이들을 잘 알며 일평생 어린이들에게 둘러 싸여 왔으며、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재미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읍니다。또한 그들의 특징을 살펴왔읍니다。그러나、〃헬렌〃의 나이로 〃헬렌〃처럼 지식에 대해서 갈망하고、문학과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또한 작문의 재주를 가진 어린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헬렌〃은 사실로 「천재의 어린이」입니다。「보고서」、「께젯트」、「〃헬렌〃의 일기」를 보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헬렌〃의 일기를 읽어보니 이전보다도 더 그가 실망한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나의 사랑을 〃헬렌〃에게 전하여 주시고、이 이상 이문제에 관하여 근심말라 하여주시오。누구나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이는 없는 것이며、그는 미래에 위대한 이야기나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그에게 어떠한 잔에나 몇 목음의 쓴 물이 있으며 쓴 것은 참으면서 마시고、단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는 것이라공 전하여 주시요。그가 나의 책을 어떠하게 받아주며 그에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어찌 생각하는지 듣고자 합니다。』

(一八九二년 三월) 지금 나는 〃헬렌〃에게 「서리선녀」、「장미선녀」、또한 「이슬선녀」의 일부분을 읽어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감상이 어떠한 것인지 도무지 모릅니다。그는 그 이야기들은 좀 다르지마는 자기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야기들이 어찌하여 자기가 낳기전에 출판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헬렌〃은 다른 두사람이 그와 같이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 생각하며 아직도 자기의

글은 자기의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톤·볼타·뷰로

다음 글은 "캔비"양의 「장미선녀」 이야기의 일부와、 "헬렌"이 "아나그노스"씨에게 보낸 「꿈」 이야기를 쓴 편지이다。 이 두 글을 비교하여 보면、 흥미있는 차이와 공통점을 알게 될 것이다。

(장미선녀 (「새와 그의 선녀동무들」에서)

마가렛트·T·캔비 여자 지음

어느 상쾌한 아침에 작은 새는 자기집 옆에 있는 풀있는 곳에 조용히 앉아서 열심히 장미덤불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때는 매우 일렀다。 위대한 햇님은 여름에는 일찌기 일어나는 분인데、 그가 일어나서 얼마 안된 이때 새들은 마침 아침인사를 짖어귀기 시작하였으며 꽃들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었다。 이 작은 새는 하루 종일 바쁘게 집으로 정원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밤이면 언제나 다른 새들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찾기 전에 제 보금자리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햇님이 푸른 숲위로 머리를 들고 아름답게 대지(大地)에 웃음을 웃을 때는 울퉁불퉁한 주먹으로 완전히 잠이 깰 때까지 눈을 부비면서 햇님을 처음으로 맞이하여 웃어주었던 것이다。

그다음에는 무엇을 하였을가! 이 조그마한 새는 어머니의 침대에 굴러들어가서 어머니의 눈까풀、 빰

입에다 키쓰를 하여 어머니는 키쓰 소나기가 내리는 줄로 아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가 눈을 뜨고 보면 이것은 어린 새가 말하는 것과 같이 어머니를 키쓰하여 잠을 깨우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 작은 아들새를 대단히 사랑하여 그를 행복하게 하였으며、 또한 아들새가 『엄마 정원에 가서 놀게 옷 입혀 주어』하면 유쾌하게 그말을 들어주었다。 미구에 새는 시원한 광목옷을 입고 아랫층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광채가 나고 장미색이 된 얼굴을 가지고 조반이 준비가 될 때까지 자갈을 깐 길에 다름질로 나가서 놀았던 것이다。

그는 잠시 머물러서 주위를 돌아다보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신선한 아침 공기는 그를 환영하여 동무가 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굴은 부드럽고 햇님의 광채나는 눈은 따뜻하고 번쩍이는 웃음을 띠우고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나 새는 놀 것을 찾아서 걸어갔다。 집옆에 있는 장미숲이 보이게 되자、 새는 갑자기 박수를 하고 발을 멈추고 좋아라 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 보았다。 그숲은 전부가 장미꽃 봉오리로 덮였었다。 빨간놈도 있고、 흰놈도 있고、 붉은 놈도 있었는데、 추운 겨울에 장미와 갈이 붉은 얼굴을 가진 어린이들이 일어나기가 싫여서 따스한 이불에서 얼굴을 쏙 내미는 것같이 그들은 푸른 잎자귀 사이로부터 내다보는 길이었다。 며칠전에 아버지는 새에게 장미숲에 있는 푸른 꽃봉오리들은 아름다운 꽃을 품고 있다고 하였으나、 지나간 해에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기억하지 못할만큼 어린새는 믿기가 어려웠다。 지금 가보니 아버지 말씀이 옳은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동안 일기가 따듯하며 푸른 공갈이 생긴 것들은 눈이 트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새는 그들앞에

가만이 서서 눈은 좋아서 춤을 추며 조그만 손들은 단단하게 쥐어져 있는 것 같았다。

조금 뒤에 더 가까이 가보았다。 꽃봉오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흡사히 잠자는 눈과 같이 잎사귀로 겹겹이 덮이었다。 새들은 그 꽃들이 자고있는 줄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게으른 장미들아・눈을 떠라』 하고 나무가지를 가만가만이 흔들었으나 꽈채나는 이슬만 방울지어 떨어지고 꽃은 그대로 덮여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키스하여 눈을 뜨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장미에게도 키스하여 볼 생각이 났다。 그래서 장미봉오리 같이 입을 오무리고 사랑스러운 봉오리가 달린 가지를 얕게 구부려 두 서너번 키스하였다。

다음 편지는 먼저번의 것과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난다。

〃아이그노스〃씨에게 보내는 〃헬렌〃의 편지 (一八九〇년 二월 二일과 三일에 씀)

나의 경애하는 〃아나그노스〃씨에! 당신의 어란 친구의 편지를 뜯어보시면 그 쓴 불란서말에 여러가지 이상하게 잘못된 것을 보시고 웃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짧기는 하지만 불란서말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것을 아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당신의 어란 질녀 〃아멜리아〃를 만났으면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버지니아・에방헬데스〃의 시를 좀 가져오셔서 나에게 번역하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선생님과 나는 마침 산보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일기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어여쁜 어린 아이를 하나 만났읍니다。 그는 어린 동생하고 부두에서 놀고 있었읍니다。 그는 나에게 키스를 하고 달아났읍니다。 그는 수집었읍니다。 내가 매우 어렸을 때에 꿈꾼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겠읍니다。

이것은 대낮에 깨어서 꾸었던 아름다운 꿈인데 선생님은 당신이 들으시면 좋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였읍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의 창아래 있는 보드러운 풀위에 앉아 있었읍니다。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장미 숲을 열심히 바라다보고 있었읍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읍니다。 해가 올라와서 오래지 아니하였읍니다。 새들은 기쁘게 노래를 시작하는 중이었읍니다。 꽃들은 아직 잠을 자고 있었읍니다。 태양이 사랑스럽게 그들에게 웃음을 줄 때까지 꽃들은 눈을 뜨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장미꽃의 뺨、 크고 푸른 눈、 또한 상상조차 못할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가진 행복한 이린 소녀이었읍니다。 신선한 아침바람이 나를 환영하여 나의 동무가 되려는 것처럼 나의 얼굴에 붙어 왔읍니다。 또한 태양은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웃음으로 나를 보았읍니다。 장미숲이 사랑스러운 꽃봉오리로 덮여있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도 좋아서 작은 손을 쳤읍니다。 빨간놈 흰놈 또한 미묘하게도 붉은 놈도 있었으며、 그들은 다 아리따운 작은 선녀들 모양으로 푸른 잎 사이를 뾰죽이 내다보고 있었읍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지난 해에 장미가 어떠하였는지를 기억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전에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을 본 일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차서 그 기쁨을 알려주려고 장미 숲을 돌아가면서 땐스를 하였읍니다。 조금 있다가 꽃봉오리로 완전히 덮이고 이슬방울이 번적이는 흰 장미 숲으로

가까이 갔읍니다。 사랑스러운 꽃봉오리가 달려있는 가지를 하나 휘어 잡고 여러번 보드로운 키스를 하였읍니다。 마침 그 때에 두 사랑스러운 팔이 나를 안는 것을 느꼈으며 귀여운 입술이 나의 눈시울과 뺨、입에다 키스를 자꾸 하여서 마치 키쓰 세례를 받는 것같았읍니다。 요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눈을 떠 보았읍니다。 그것은 내위에 허리를 굽힌 어머니였으며、나를 키스로 깨우려는 것이였읍니다。 나의 대낮의 꿈이 어떠하시지요? 좋아하시면 언제고 또한번 당신을 위하여 꿈을 꾸지요。

선생님 또한 모든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나는 대단히 당신이 보고 싶으니 귀국하시면 참 좋겠읍니다。 당신의 〃희랍〃 친구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장차 내가 〃아테나〃에 가겠다고 전하여 주시요。

당신의 작은 친구이며 노는 동무 헬렌・A・켈러

다음에 「서리선녀」와 「서리왕」의 전문을 게재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서리 선녀」(「재와 그의 선녀 동무들」에서)

마가렛트・T・캔비 지음

〃잭크 서리〃라고도 부르는 〃서리왕〃은 가끔 먼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북풍〃이라는 힘이 세고 빠른 말이 끄는 금색 구름으로 된 차를 타고 매년 한번씩 세계여행을 한다。 어

디를 가든지 그는 놀랠만한 일을 한다。 모든 시내가에 유리와 같이 깨끗하고 강하기 철과 같은 다리도 놓고 손을 한번대어서 모든 꽃과 식물들을 잠울 재우며、 봄이 돌아 올때까지 그들을 고개를 숙이고 머운 땅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꽃이 없어 쓸쓸할가 하여 우리의 창에다 아름다운 화환과 또는 북쪽나라의 흰 꽃 몇개를 여기 저기다 놓기도 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선녀같은 소나무 삼림도 그려 놓는다。 그러나 제일 놀랠만한 그의 일은 나무에다 펭끼칠을 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보면 금과 〃루비〃로 만든 가장 광채나는 것으로 삼림를 덮은 것 같이 보인다。 매우 아름다운 이 모양은 여름이 지나가서 섭섭한 마음을 위로하여 준다。

나는 당신들에게 〃서리왕〃이 어찌하여 이 친절한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생각하였나를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이다。 당신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다른 모든 왕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왕도 그 궁전에 금과 보석 같은 큰 보고를 가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좋은 늙은이기 때문에 그 재화를 늘 잠가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웃이 둘이 있는데、 그들은 그보다도 더 북쪽에 산다。 하나는 〃겨울왕〃인데 그는 사납고 비열한 늙은 임금이고、 무정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고생하게 하고、 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또 한 이웃은 〃산타·클로스〃인데 그는 훌륭하고 성질이 좋으며 유쾌한 노인인 까닭에 좋은 일하기를 좋아하며 〃크리스마스〃때에는 빈곤한 사람들과 좋은 어린이들에게、선물을 가져온다。

어느날 〃서리왕〃은 그 재화를 가지고 무슨 좋은 일을 할 것이 없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그

는 갑자기 〃서리왕〃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덜어 주기 위하여 그 재화의 일부분을 〃산타·클로스〃에게 보내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음식과 의류를 사게 하기로 결정하였다。그래서 그는 그의 쾌활하고 귀여운 선녀들을 불러 금과 보석이 가득찬 항아리와 분을 몇개 보이면서 그것을 〃산타·클로스〃의 궁전으로 조심하여 가지고 가서 「〃서리왕〃의 선물이다」라고 전하라 하였다。〃서리왕〃은 또한 「그는 그 금과 보석들을 어디다 쓰면 좋을는지 알 것이다」라고 말하고 선녀들에게 길에서 놀지말고 명령대로 속히 하라고 하였다。

선녀들은 그의 명령을 받고、놀지 못하게 하고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맡긴 것을 불평하면서 조심조심히 여행길을 떠났다。결국 그들은 큰 삼림에 도착하였다。매우 피곤하여서 더 가기도 전에 좀 쉬기도 할 겸 밤(栗)도 좀 찾아먹기로 하였다。그러나 그 재화들을 누가 훔쳐갈까 하여 어떤 항아리는 나무곽대기 가까이 감추고 또 어떤 것은 여기저기 무성한 나무잎 사이에다 누구든지 볼 수 없을 만큼 잘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하여 놓고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밤을 찾아보기도 하며、나무에 올라가서 밤을 떨어뜨리려고 흔들기도 하여、그의 상전이 시키는 일보다도 노는데 맛을 들여 밤을 찾으려 돌아다녔다。이상하게도 그 선녀들은 어린이들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라면 불평하지마는 놀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노력과 곤난을 아끼지 않았다。

〃서리선녀〃들은 밤줍는 장난에 몰두하고 또한 재미를 붙여 그들은 속히 다녀오라는 왕의 명령도

잊어버렸다。 정오가 될 때까지 장난하고 돌아다니고 난 후, 왕이 속히 하라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들 생각에는 그 재화들을 주의하여 감추었건만 〃서리왕〃의 적으로서 〃서리왕〃이 하는 것을 될 수만 있으면 무엇이나 방해하여 그의 세력을 약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햇님의 권력때문에 그 재화를 안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

햇님의 밝은 눈은 나무 사이에 있는 보물이 들은 항아리와 분들을 발견하였다。 게으른 〃서리선녀〃들은 정오까지 항아리와 분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었었는데, 대낮은 햇님이 제일 강한 때라 섬세한 유리는 녹고 깨지기 시작하고, 항아리와 분들은 다 깨어져서, 귀중한 보물이 녹아서 나무를 금빛과 붉은 빛물로 물들여 줄줄 흘러내리었다。

그러나 한참동안이나 〃서리선녀〃들은 이 이상한 광경에 주의가 가지 않았다。 그들은 풀위에서 놀았는데 그것은 나무에서 매우 아래로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녹아 흐르는 보물이 빗물같이 떨어져서 그들에게까지 흘러 내리자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중에 한 〃서리선녀〃는 『야! 비가 오나부다。 확실히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하였다。 다른 선녀들은 웃으면서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무슨 비냐고 하였지만 귀를 기울였을 때 빗방울은 왼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고 잎사귀로부터 잎사귀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듣게 되었으며 비아닌 빗물은 그들의 옆에 있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리고 보니 크게 놀랜 것은 그 빗방울이란 〃루비〃였다。 나무잎에 고착되어 순식간에 나무잎들을 광채 나는 붉은 색으로 변하였다。 그 다음 더 자세히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올려다보니 그 보배들이 모두 녹아 없어지

는 중이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은 이미 참나무와 단풍나무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금、 진홍、 청동 녹색의 화려한 옷을 입은 모양으로 번적이고 있었다。 그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그 게으른 선녀들은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장난한 결과가 이러고 보면 너무도 놀래어 삼림의 아름다움을 느낌은 고사하고 행여나 〃서리왕〃이 와서 그들을 벌할까 하여 곧 숲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그들의 공포는 무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서리왕〃은 선녀들이 너무도 오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놀래어 그들을 찾으려 떠났다。 그들이 다 숨어버릴 때쯤 하여 그들을 찾아내려고 사면을 돌아보며 그 곳에 도달하였다。 물론 잎사귀들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그의 눈에 띄었으며、 녹은 보배들이 아직 흘러 내려오는 깨진 항아리와 분을 보자 나무들이 번쩍이는 원인도 알게 되었다。 그가 밤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게으른 선녀들이 내버린 밤 껍질들을 보고 선녀들의 행동을 정확히 짐작할 수 있고、 삼림 길에서 장난하고 돌아다니며 명령을 듣지 아니한 그들의 행동을 알 수 있었다。

〃서리왕〃은 처음에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대단히 노하였다。 선녀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은 곳에서 더욱더욱 깊이 들어가 숨었다。 마침 그때에 두 어린이가 춤을 추면서 삼림을 지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리왕〃과 선녀들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무잎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라 하고 또 그들의 어머니에게 가져가려고 여러묶음을 따기 시작하였다。 『잎사귀들이 꽃과 같이 아름답구나』 하며 그들은 금색 잎사귀는 〃자래초〃라 하며 붉은 것들은 장미라고 하였다。 노래를 하며 삼림을 지나가는 그들은 행복스러웠다。

좋아하는 이 어린이들을 본 〃서리왕〃은 노여움은 풀리게 되고, 그도 색칠이 된 나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는 혼자 말로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나의 보배는 쓸데없이 낭비가 된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게으르고 생각없는 선녀들에게 노하지 아니하겠다。 왜냐 하면 그들은 나에게 좋은 일 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였다。 이말을 들은 〃서리선녀〃들은 하나씩 하나씩 숨었던 곳에서 기어나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였다。 그는 잠시 선녀들에게 이마를 찌푸리고 책하였으나 곧 다시 말하기를 이번만은 용서하되 다시는 보배를 이 삼림으로 날라다 햇님의 힘으로 모든 잎이 금과 〃루비〃의 옷을 입게까지 나무속에 감추면 벌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용서해준 왕에게 치사하고 그의 마음에 들도록 열심으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음이 좋은 왕은 모든 선녀들을 팔에 안고서 안전하게 궁중으로 데리고 갔다。 내 생각에는 그 때부터 가을이면 우리가 보는 나무가 광채 나는 빛으로 변하는 것은 〃서리왕〃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금과 보석으로 나무들을 덮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아름답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하냐?

「서리왕」

헬렌·A·켈러 지음

「서리왕」은 늘 눈이 내리는 땅, 북쪽 멀리 있는 궁전에 살고 있었다。 말과 글로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궁전은 수 세기전 〃빙산왕〃 때 지은 것이다。 이 궁전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보면 우리는 이것을 쉽사리 서산에 지는 해로부터 마지막 키스를 받으려 창공에 봉우리를 솟아올리는 산으로 잘못 볼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우리가 잘못인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높은 봉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사실은 무수한 번쩍이는 뾰죽한 탑들이다。 이 얼음으로 지은 궁전의 건축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 벽들은 낭떠러지 같이 생긴 탑으로 끝나는 큰 얼음덩어리들로 이상하게 건축되어 있다。 이 궁전의 대문은 아ㅣ취형으로 되어 쑥 들어간 끝에 있는데、 그 문은 열두 사람의 군인같이 보이는 곰이 파수를 보고 있다。

어린이들이여!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이 〃서리왕〃을 한번 예방하여 몸소 이 훌륭한 궁전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늙으신 왕은 너희들을 환영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내가 들은 〃서리왕〃은 모든 다른 왕들이나 마찬가지로 금 보석 등의 큰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는 관대한 고명의 군주인 만큼 그의 재화를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위대한 일을 한다。 그는 모든 시내가에 투명한 유리 같고 강하기는 철 같은 다리도 놓며 익은 밤이 떨어져서 어린이들의 입에 들어 가도록 나무도 흔들며、 또는 손 한번 댐으로써 꽃들을 자게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꽃의 얼굴이 보고싶어 근심을 할까하여 금색、 붉은 색、 옥색으로、 나무잎에다 그림을 그린다。 이 일이 끝나면 나무들은 아름다워지며 우리들에게 위안을 준다。 나는 너희들에게 〃서

리왕〃이 어찌하여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나 하는 이야기를 하겠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느날 〃서리왕〃은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모은 다음 그것으로 무슨 좋은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그의 친절한 오랜 친구 〃산타・클로스〃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혼자말로 『나는 나의 재산을 〃산타・클로스〃에게 보내겠다』하였다。 『그사람이 나의 재산을 만족하게 처분할 사람이다。 왜냐 하면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를 알며, 또한 그의 친절한 늙은 가슴에는 언제나 그들을 구조하려는 자비한 계획이 차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그는 궁중의 선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재화를 담아둔 항아리와 분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산타・클로스〃의 궁전으로 가져가라고 분부하였다。 선녀들은 복종을 약속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가지고 떠났다。

이 게으른 선녀들은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이 좋았으므로 가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불평하였다。 얼마 지나서 큰 삼림에 도착하였다。 배가 고프고 피곤하여 더 가기 전에 좀 쉬면서 밤을 줄 생각이 났다。 그러나 보물을 도적맞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만하면 누구든지 찾지못하리라고 생각되는 여러나무의 무성한 잎사귀 속에다 감추었다。 그리고는 그들은 유쾌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밤을 찾으며 나무로 올라가서 새 집도 뒤져보며, 또한 나무뒤에 숨어서 숨바꼭질도 하였다。 이 장난이 심한 선녀들은 장난에 몰두하여 그들의 심부름도 잊어버리고 또한 속히 다녀오라는 주인의 분부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걱정인 것은 그들이 주의하여 보배를 감추었다고는 생각하였으나 〃해왕〃의 밝은 눈이 있

사귀사이에 있는 항아리들을 찾아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더욱 〃서리왕〃과 〃해왕〃은 세상을 도와주는 제일 좋은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왕〃은 기회만 있으면 한번 〃서리왕〃을 놀려주려 하였던 것이다 〃해왕〃은 항아리들이 녹아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혼자 웃었다。 드디어 항아리들이 다 깨어지고 그 속에 있는 보배들은 밖으로 흘러나와 나무들과 삼림속의 숲 위로 흘러 내렸다。

그러나 선녀들은 보배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왜냐 하면 그것은 나무속 잎사귀 위에서 녹았으며 이 훌륭한 보배의 소나기가 그들에게 도착하자면 시간이 걸리었다。 그러나 그들은 빗방울이 뚝뚝 삼림 속에서 떨어지며、 잎에서부터 다른 잎으로 굴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옆에 있는 숲에까지 내려왔다。 그들이 놀랜 것은 이 방울들은 보물이 녹은 것으로 나무 잎사귀에서 달라 붙어 그것들을 금색、 붉은색으로 곧 만들었다。 그들이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보물의 대부분은 벌써 녹아버리었다。 그리하여 참나무와 단풍나무들은 화려한 금색、 붉은색、 옥색의 의복들을 입었다。 그 경치는 참 아름다웠지만 놀랜 선녀들은 그 광경을 즐길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서리왕〃이 와서 벌을 주면 어찌하나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숨어서 어찌되나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공포는 무리가 아니었다。 선녀들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놀랜 〃서리왕〃은 북풍을 타고 심부름이 늦어진 선녀들을 찾으려 나섰다。 물론 얼마 가지 아니하여 잎사귀들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또한 아직도 보물들이 흘러나오는 깨진 항아리들을 보니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쉽사리 짐작하였다。

〃서리왕〃은 대단히 화를 냈고 또한 선녀들은 숨은 곳에서 더욱이 더 움츠러 들어갔다。 마침 그때 소년소녀들이 오지 아니 하였더라면 어찌 되었을는지 모를 일이다。 그 어린이들이 모든 나무들이 훌륭한 빛으로 번쩍이는 것을 보고 손벽을 치며 좋아라 소리를 지르며、 집에 가져가려고 큰 무데기를 따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화가 풀리며 찡그린 이마를 펴고 그도 그림그려진 나무잎들을 감상하기 시작하였다。 혼자 말로 『나의 보배가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하였다 하면 무용하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 태만한 선녀들과 나의 사나운 적은 나에게 선을 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고 하였다。

선녀들이 이 말을 듣자 가슴이 시원하고 숨은 곳으로부터 나와서 과실을 고백하여 주인의 용서를 구하였다。

그 이후로는 〃서리왕〃이 우리가 가을에 보는 번쩍이는 빛으로 나무잎에 그림을 그려 놓는다。 나무잎들이 금과 보석으로 덮이지 아니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을 그와 같이 번쩍이게 할 수 있을가?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은?

만일 「서리선녀」를 〃헬렌〃에게 一八八八년 여름에 읽어 주었다하면 그는 그때 그것을 많이는 이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가 교수를 받기 시작한 것은 一八八七년 三월부터이었읍니다。 一八九一년에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내가 그에게 묘사하여 주어서 기억하고 있던 말이 명확하게 그의

정신적 시각 앞에 나올 때까지 이 이야기의 내용이 〃헬렌〃의 기억에 잠재되어 있을 수가 있었을는지요?
나는 〃알라바마〃、〃보스톤〃과 그 부근에 사는 〃헬렌〃의 친구들에게 이것을 자세히 묻고 조사하여 보았으나、지금까지 그 이후에 읽어 주었으리라고 확정할 아무 증거를 얻지 못하였읍니다。

또 한가지 사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읍니다。「장미선녀」는 「서리선녀」가 들어가 있는 책에 수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아마 그것도 거의 동시에 〃헬렌〃에게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헬렌〃은 一八九〇년 二월부 편지에서 〃캔비〃양의 이 이야기를 『내가 어렸을 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꿈』이라고 말하였읍니다。 확실히 〃헬렌〃과 같은 어린이에게는 一년 반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적어도 一八八八년 여름에 〃헬렌〃에게 읽어 주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헬렌·켈러〃 자신의 성명서

(다음 글은 〃헬렌〃의 일기중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변호한 것이다)

一八九二년 정월 三十일 아침에 목욕을 하였다。 머리를 빗겨주려고 선생님이 이층에 올라와서 나를 종알 슬프게한 소식을 하나 전하여 주시었다。 누가 〃아나그노스〃양에게 내가 그의 탄신축하로 써 보낸 이야기는 내가 쓴것이 아니고 어떠한 부인이 오래 전에 쓴 것이라고 편지를 하였다。 그 사람은 그 부인의 이야기를 「서리선녀」라고 하였다。 나는 확실히 이것을 들은 일이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

되고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 우리는 슬프다。 아름다운 진실을 진심으로 믿는 까닭에 나의 가슴은 눈물이 차있다。

지금도 나는 매우 괴롭다。 어찌하면 좋을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람이 그러한 실수를 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지 못하였다。 나는 내자신이 그것을 쓴 것을 맹세한다。 〃아나그노스〃씨도 대단히 괴로워한다。 내가 그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본의는 아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가을에 생각하였다。 왜냐 하면 우리가 〃펀・퀴리〃에서 산보를 할 때에 선생님은 나무잎이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셨다。 나무잎들이 그리도 곱다하기에 나는 그것은 선녀들이 그림을 그리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서리왕〃은 다른 왕들이 이전에 가졌던것이나 마찬가지로 보물을 담은 항아리와 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왜냐 하면 선생님은 그 나무잎들은 〃루비〃색、녹색 황금색、붉은색으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잎사귀들은 녹은 돌로 그려졌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 잎들이 그와 같이도 아름다우니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하리라고 알았으며 볼 수는 없으나 그렇게도 아름답고 나무들이 번쩍인다고 생각을 하니 행복하게 느끼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잎사귀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였지마는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선생님이 의사를 보러 가신 동안에 나는 이 불행한 소식을 여러번이나 생각하였다。 선생님은 점심 때에 안 계시어서 매우 보고 싶었다。

나는 이 이상 관계되는 것을 더 말할 수는 없읍니다。 나의 가슴도 나의 귀여운 어린 제자가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치 않고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본다면 눈물이 팍 찹니다。 왜나하면 그는 「아름다운 진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경구

안·M·설리반

이정도로 「볼타·뷰로·수베니어」에 나타나 있다。 다음 것은 〃아나그노스〃씨의 편지로 一八九二년 四월에 맹인 기관지 「아메리칸·아날스」지(誌)에서 전재한 것이다。

「아날스」지 주필에게 보낸 서한

주필선생 귀하! 당신의 요청에 의하여 〃헬렌·켈러〃의 「서리왕」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성명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 이야기는 十一월 七일에 생일 선물로 〃알라바마·터스컴비아〃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나는 〃헬렌〃의 특수한 재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아무 추저 없이 이것이 그의 작품이라고 수락하였읍니다。 또한 오늘에 있어서도 그가 이러한 작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아니합니다。 이것을 인쇄하고 보니 이 작문은 대부분의 문장이 〃마가렛트·캔비〃양의 「서리선녀」의 문장과 같은 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괴롭게 되었읍니다。 나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즉시로 조사를 시작하였읍니다。 〃헬렌〃과 이야기를 하여 본 교사나 사무원중에 문제의 〃캔비〃양의 책을 알거

나 혹은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또한 고향에 있는 부모와 친척 가운데에서도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의 아버지 〃켈러〃 대위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읍니다。

『나는 귀하에게 확언합니다。 〃헬렌〃은 여기 있는 그의 친척이나、 친구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 중에 자세한 부분까지를 말할 만큼 〃헬렌〃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청에 의하여 여자부의 한 교사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경로에 대하여 〃헬렌〃을 조사하여 보았읍니다。

그의 증언은 다음과 같았읍니다。

『나는 우선 〃마가렛트·캔비〃양이 쓴 것을 재생한 것 같이 보이는 이야기를 쓰게 한 그 특수한 구상이 어찌하여 〃헬렌〃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아보려 하였읍니다。 〃헬렌〃은 「서리」가 왕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하였다고 하였읍니다。 왜냐하면 서리는 여러가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러한 귀중한 보배는 안전한 곳에 두어야할 것이므로 그것들은 궁전 어떠한 곳에 항아리와 분에다 넣어 두었을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하였읍니다。 어떠한 가을날 그의 선생과 그가 삼림속을 산보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잎사귀의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여 주셨다고 하였읍니다。 그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을 행복케 하리라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서리왕」에 감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말하였읍니다。 나는 〃헬렌〃에게 「서리왕」에 관하여 무슨 이야기를 읽었느냐고 물

어보았읍니다。 나의 질문에 대답하여 그는 「서리의 장난」이라는 시를 외웠으며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겨울에 관한 짧은 시를 또하나 외웠읍니다。 그는 누군가 「서리왕」의 이야기를 읽어 준 것을 기억할 수 없다 하였으며、 그러나 그 선생님하고 「잭크 서리」와 그가 만들어 낸 놀랠만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한 일은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 이야기를 〃헬렌〃에게 읽어 줄 유일한 사람은 아마 그의 친구 〃홉킨스〃부인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렌〃은 그 부인을 그 때쯤하여 〃부르스터〃에서 방문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설리반〃양에게 곧 그 부인에게 가서 이 사건을 조사하여 보라고 요청하였읍니다。 그 조사의 결과는 여기에 따로 수록되어 있는 것에 들어 있읍니다。

一八八八년 여름에 〃홉킨스〃부인이 이야기를 〃헬렌〃에게 읽어준 것에는 거의 의심점이 없읍니다。 그러나 〃헬렌〃은 이 사실을 조금도 회상치 못합니다。 〃설리반〃양이 〃부루스터〃에 돌아왔을 때에 〃홉킨스〃부인은 우정 〃보스톤〃에서 사온 「젊은 〃헬트레로이〃경」을 〃헬렌〃에게 읽어 주었읍니다. 〃헬렌〃은 곧 이 이야기에 반하여 그후 수개월동안 담화와 편지에서 이 이야기를 가끔 한 것을 보면 확실히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폰트레로이〃에 큰 흥미를 느끼고 「서리선녀」의 기억은 다 묻혀버리고 삼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가 지식도 더 풍부하여지고 말도 더 잘 쓰게 되어 「잭크 서리」와 그의 한 일을 듣자 그렇게 오래 묻혀있던 씨가 뛰어나와 새로운 생각과 상상을 이룬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서리왕」이 자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는 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창작

과 재현(再現)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남의 글을 훔친다는 말은 처음으로 요지음 알게 되었읍니다。, 그는 절대로 믿을 수 있읍니다。 정직은 그의 성격에서 가장 강력한 한 요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캔비〃양의 「서리선녀」를 응용한 것이라는 말을 듣더니 〃헬렌〃은 매우 놀랬으며、 또한 근심을 하였읍니다。 그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으며 그의 고통의 제일 큰 원인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알지 아니 할가하는 두려움이었읍니다。 그는 강력한 감정으로 『나는 아름다운 진리를 사랑합니다』하였읍니다。 여덟사람이 돌라앉아 완전히 자유스럽게 여러가지를 두 시간 동안 가장 엄격하게 조사를 하여보았으나 그 선생이나 또는 어떠한 사람도 기만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아무 증언도 나오게 할 수가 없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보면 나는 그 이야기를 쓸 때에 〃헬렌〃은 「서리선녀」를 누가 그에게 읽어 주었다는 것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의 기억은 이 이야기와 연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서리왕」은 자기의 창작이라고 정직하게 믿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이론은 그를 완전히 알며 좁은 편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구

一八九二년 三월 十一일

마사츄셋스·보스톤

퍼킨스 맹인학교장 M·아나그노스

이 사건은 "헬렌·켈러"와 "설리반"양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었다。 "설리반"양은 "헬렌"을 작가로 만들려는 방식에 모방하는 습관을 지나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금일까지라도 "헬렌"이 묘한 문구를 쓰게 되면 "설리반"양은 실망하면서 『저애가 저 문구를 어디서 얻었을가?』 유모아로 말한다。 그러나 "설리반"양은 그 제자와 같이 "찰스·T·코프랜드"씨의 현명한 지도하에 작문을 잘 공부한 까닭으로 지금 와서는 모든 작가나 모든 사람의 문체는 무식하거나 교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들이 실제로 책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의 종합적 회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어휘가 어디서 왔나를 모르는 것은 우리의 손톱의 극히 적은 부분을 만드는 음식먹는 순간을 의식치 못하는 것이나 같다。 우리들의 어휘가 그 근원이 서로 교차되어 섞이며、 또한 혼돈이 되는 것이다。 그 원천이 별로 많지 않은 어린이는 어떠한 것을 무엇에서 끌어오는지를 명확히 알 것이다。 이 경위에 있어서 "헬렌·켈러"는 읽어주었을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이야기의 말들을 그 마음에 다른 말들과 혼돈을 시키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대하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그가 배우는 말들을 속에다 잡아넣으며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이 샘물에 열쇠가 부딪치면 곧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보통 어린이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들를 별로 관찰하지 안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기억은 여러 근원에서 보급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혼돈 되어 있으며、 또한 서로 파괴를 하는 까닭이다。 "헬렌·켈러"의 「서리왕」이야기는 완전히 채색이 아니된 마음에서 나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린이의 성격과 또한 어느정

도 다른 방면에서 온 어휘가 섞이어 있는 것이 있다。 "헬렌"의 문체는 "캔비"양의 문체보다도 어떠한 점에서는 오히려 우수하다。 "캔비"양의 이야기는 분명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이며、 그는 동화체를 이용하는 더 성숙한 기분을 감출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기분은 『소위 잭크』이니 『정오 그때는 햇님이 가장 강할 때』라는 등의 교훈적 구절이 있는데 "헬렌"의 것은 원시적 민화(民話)의 상상적인 것을 믿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렌"의 벽두의 문구는 더 우수한 상상적 재질(想像的 才質)이 있는 것을 느낀 것이다。 사실을 그와 같이 보자면 작가는 어린이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열두사람의 군인 같이 보이는 흰 곰』이라는 말은 확실이 천재의 필치이며 이 어린이의 이야기 전체에 율동의 미가 흐르고 있다。 시인이 어떠한 옛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 창작적인 것처럼 이 이야기도 창작적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언어、 문체、 철학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간단한 결론을 내린다면 모든 언어의 사용은 모방이며、 우리의 문체는 우리가 읽은 모든 다른 문체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영어를 쓰는 방법은 그것을 읽고 듣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다른 종류의 것를 듣거나 읽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영어만을 쓰도록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말을 배우는 것은 의식적이 아니다。 그는 언어 경험에 있어서는 굴복하는 복종이다。

보통 사람은 말은 사상을 복종시킨다든지、 또는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뒤에 문장을 구성한다는 오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상 첫번에 무엇을 표현하려는 욕망은 있다。 그러나 관념이 가

곰 말로 되지 않고는 명확하지 않으며 구체화되지도 않는 것이다。 말로 인하여 발표되기 때문에 관념은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말이 가끔 사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있는 것보다도 사물을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현저한 예는 〃켈러〃양의 「청년의 반려」라고 묘사한 한 구절이다。 그가 모든 사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관하여 쓸 때면 그는 『우리는 나의 어린 사촌을 안고 가는 애기보는 여자를 만났다。 선생님은 「애기」라는 글자를 쓰셨다。 그때야 처음으로 나는 어린이는 작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상받게 되었다。 이 생각과 혼동되어 나는 내 자신이 또 하나 있는 것인가 생각되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자신이요、 애기가 아닌 것이 즐거웠다』라고 썼다。 이러한 생각을 그 마음에 일어나게 한 것은 한마디의 말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말에 익숙한 사람은 말이 만드는 사물에 통달하는 사람이며、 또한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도 사물을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서러왕」을 쓰는 〃헬렌•켈러〃는 그가 아는 것보다도 더 잘 구상하였으며、 그가 뜻한 것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하였다。

누구든지 문장을 쓰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말 가운데 품겨 있는 인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쓸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말이 전하는 매개물이 사물을 불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매개물이 크면 클수록 사상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표현으로 교양된 인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상의 본체는 말이며 언어는

듣지못하는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말을 하게 하면 그는, 말이 구성하는 물건 즉 그가 속하여 있는 인류의 사상과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민족이 쓰는 것이 되어야하는 것이며, 인공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어거나 독일어이거나, 영어이거나, 또는 어떠한 실제로 민족에게서 자라난 말이 아닌 이상 "볼라퓨크"의 책은 모순이다. "드·레페"의 수화법만을 아는 귀머거리는 어떤 족속도 아닌 이방인이며, 그의 생각은 영국 사람의 것도 아니며, 불란서 사람의 것도 아니며, 서반아 사람의 것도 아닌 말하자면 지성적인 "필린·노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수화로 하는 주 기도문은 영어로 하는 주 기도문과는 다른 것이다.

"디컨시"는 그의 문장론에서 제일 좋은 영어는 교양있는 숙녀에게서 발견된다 하였다. 왜냐 하면 그러한 부인들은 몇권의 좋은 책만 읽었으면, 신문, 거리, 장바닥 국회 등에서 흔히 있는 막된 소리들을 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다.

확실히 이러한 외부적 환경이 "헬렌·켈러"의 영어사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가 어렸을 때의 교육에서 그는 좋은 것만을 읽었다. 물론 어떠한 것은 문체가 훌륭한 거이 아니었다. 그러나 확실히 문체나 내용이 그다지도 나쁜 것은 없었다. 이 행복된 조건은 그의 일평생을 통하여 지속하였다. 그는 창작적 문학으로 배양되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문학에서 대가의 문체를 얻어 그의 활발하고 생생한 가억에 또아서 잡아넣었다. 어떠한 편지에서 「새로운 글자는 그 마음을 열어준다」라고 썼으며, 그가 그 글자를 썼을 때는 그 글자의 생명은 아직도 열리고 있었다. 그가 여덟살일 때였다. 먼 기차여행을 하면 어떠한

책을 가지고 가겠느냐고 물었더니 「실락원」(失樂園)이라 하였다。 실제로 그는 이것을 차에서 읽었다。

한 이년까지 그는 자기 문체를 자유자재로 쓰지못하고 오히려 문체가 그를 지배하였다。 그가 문구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된 것은 그가 작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한 후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를 지배한 문구는 좋은 것들 뿐이었다。

「서라왕의 사건에서 그를 변호하여 주려는 호의로 一八九二년에 「청년의 반려」라는 잡지에 그의 생활의 스케취를 기고하라고 요청이 와서 그는 이 책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것을 쓰는 것보다 훨씬 주목할만하고 여러 점에 있어서 더 재미있는 것을 썼다。 이책에 나타난 이야기의 부분을 더 자세히 다시 쓰게 되었을 때는 九년 전에 썼던 문구의 반영이 아직도 그 마음에 남아 있었다。 이 자서전에 써야할 문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애쓸 때, 〃설리반〃양은 〃헬렌〃이 그러한 것에 무심했던 어린 때에 얼마나 더 잘 썼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청년의 반려」에 쓴 것 중에서 「두 문장」이외는 읽어주지 아니하였다。

일기 쓴 그의 스케취에서 나는 몇개의 문구를 인용하겠는데, 그것은 시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쓴 어떠한 것에도 지지 않을-만큼 잘 썼다。

나는 한살이 되어서 진정하게 걷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그 뒤에 온 찬란한 여름 날에는 일분도 가만이 있지 아니하였다。...... 그후 저녁 때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나는 다름질로 대문까지 갔다。 아버지

는 그의 힘센 팔에다 나를 안으시고 흩어진 나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주시고 몇번이나 키스를 하시며 『나의 귀여운 애기는 오늘 무엇을 하시였노?』 하였다。

무더운 여름은 가고 가을도 지난 겨울이었다。 二월이라는 춥고 음산한 달에 나는 열아홉달이었는데 나는 중대한 병에 걸렸다。 지금까지도 그 병에 대한 기억은 어수선할 뿐이다。 어머니는 나의 조그마한 침대옆에 앉으셔서 내가 열이 나서 신음하는 것을 위안하였으니、 그의 괴로운 가슴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귀여운 어린이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열은 더 심하고 나의 눈에서 불이 날듯이 신음하던 며칠동안은 친절한 의사마저 나는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느 이른 아침에 열은 신기하게도 갑자기 사라지고 나는 깊은 잠속에 떨어졌었다。 그래서 나의 양친은 내가 살리라고 생각하였으며 기뻐하였다。 내가 회복한 뒤 며칠동안 나의 양친은 그 심하였던 열은 나의 시각과 청각을 뺏아간 것을 알지 못하였다。 잔인한 나의 작은 생명대신 광명과 음악과 기쁨을 뺏아갔다。

그러나 나는 너무 어려서 무엇이 발생하였는지를 몰랐다。 내가 눈을 뜨면 캄캄하여 밤으로만 생각하고、 어찌하여 낮이 이리도 아니오나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나를 둘러싼 침묵과 암흑에 습관이 되어 결국 낮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이외에는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드디어 음성을 듣지 못하게까지 되니 나의 어린 목소리까지 잠잠하여졌다。

그러나 전부를 잊은 것은 아니었다。 결국 말하자면 시각과 청각은 하느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선

물중에 다만 두가지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선물중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이한 것이 아직도 나의 것이었다。 나의 마음의 빛은 영원히 달아났으나 그래도 생생하고 굳센 힘이 있었다。

나는 근강이 회복되자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있는 것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살림에 골몰하여 돌아다니는 어머니의 옷으로 기어올라가고 나의 손은 모든 물건을 만져보고 동작을 살펴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더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는 무슨 수단이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었다。 그리하여 나는 간단한 표시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을 나의 부모와 친구들은 곧 알아들었다。 그러나 때로는 나는 알아듣도록 표시를 못하였다。 그러할 때는 나는 막 화를 내곤 하였던 것이다。

선생님과 두 주일쯤 같이 지내는 동안 一八 내지 二〇개의 단어를 배우게 된 나는 온 세상에 태양이 비취는 것 같이 사상이 나의 마음속으로 비추어 들어왔다。 그 조명(照明)의 순간 언어의 비밀은 나에게 노출(露出)되고 탐험하러 가는 아름다운 세계가 번득이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장속에 들은 우유와 잔은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하루 종일 걸려 이해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나는 둔해서 「잔」자에는 「우유」라는 글자를 쓰고、「우유」라는 글자에는 「잔」이라는 글자를 써서 아마 선생님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할 희망을 아주 잃게 하였던 것이다。 결국 선생님은 일어서서 잔을 내게 주고 나를 문밖에 펌프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다。 누가 물을 긷고 있었다。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나오자 선생님은 물통에다 손을 대게 하고 「ㅁㅜㄹ」이라고 써 주시었다。 물!

그 글자는 나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맑은 아침공기에 가득찬 기쁨이 나로 하여금 유쾌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날까지 나의 마음은 불 없는 캄캄한 방과 같아서 불 켜주기를 기다렸으며、말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었다。 말ㅡ 즉 사상이다!

나는 그날 많은 말을 배웠다。 그 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지는 못하나 「어머니」、「아버지」、「동생」、「선생」들이 그 중에 있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그날의 감격을 회상하고 있을 때의 나보다 더 행복된 어린이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날이 이제 오나하고 기다렸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눈을 떴다。 내가 손을 대는 것은 전부 생명으로 약동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새롭고 아름다운 시력으로 모든 물건을 보게 된 까닭이다。 친구들이 내게 하는 말을 알아 듣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나는 화내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여러가지 놀랠만한 것을 배우기에 바빴다。 나의 가슴이 뛰는 그 감격의 날부터 결코 가만이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하여 글자를 썼으며、 글자를 쓸 때는 그 글자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었다。 나는 어디 있든지 다름질을 하며 그 물건을 알려고 하였고 물건과 물건사이를 뛰어다녔다。 모든 것은 봉오리가 지며 꽃이 피었다。 〃하나씩큰〃꽃은 화환이 되어 향내를 풍기고 달려 있으며 또한 장미는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나와 선생님은 아침서부터 밤까지 방 밖에서 살았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다시 찾은 광명과 햇볕이 한없이 즐거웠다。……

우리가 도착한 그 이튿날 깨어났을 때는 정신이 상쾌한 이른 아침이였다。 아름다운 여름날에 먼동이

됐는데 이날은 엄숙하고 신비스러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날이었다。 나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옷을 빨리 입고 아랫층으로 달려갔다。 나는 큰 방에서 선생님을 만나자 곧 바다로 데려다 달라고 졸랐다。 옷으면서 아직 못간다。 조반 먹어야지』하였다。 조반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걸음을 재촉하여 해변으로 갔다。 광막하며、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았으며、 또한 얼마동안 태양빛이 얼마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나는 무섭지는 않았다고 지금 생각한다。 왜냐 하면 좀 있다가 해수욕복을 입고 조그마한 물결이 해변으로 밀려올라와서 나의 발에 키스를 하자 나는 좋아라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 없이 물결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불행이도 나는 돌에 걸려 찬물에 넘어졌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모래가 많았다。 도중에서도 가끔 길고 험한 풀에 걸려서 뜨겁고 번쩍이는 모래에 넘어지곤 하였다。 아름답고 뜨거운 공기는 유달리 향기가 있었으며、 우리가 가는대로 공기는 점점 시원하고 신선하여졌었다。

급자기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바닷물이 발아래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또한 그 바다는 그 다음에는 이상하고도 위험에 대한 두려운 느낌이 엄습하였다。 소금물이 나의 코와 눈에 닿고、 또한 나의 숨은 가빴다。 그리고 큰 물결은 나를 조그마한 돌과도 같이 쉽사리 해변가로 올려주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며칠동안 나는 용기가 없어져서 아무리 권하여도 물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로 용기가 나게 되고、 그후 여름이 지나갈 때까지 물결에 몸을 흔들리며 노는 것은 나의 제일 즐거운 재미이었다。……

나는 그가 어렸을 때와 성년이 되였을 때의 문장의 차이가 혹은 비슷한지 더 현저한지 알 수 없다。 어렸을 때의 이야기는 그때라도 그가 문체에 대하여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지마는 더 단순하였으며、또한 늘 고의적으로 기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후 바다에 대한 문장 「〃호―머〃의 메달」이라는 글 등에서 나타난 것은 어렸을 때에 그리 하리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실현된 것이었다。 그 어렸을 때에 〃홈즈〃박사는 〃헬렌〃에게 『나는 당신의 편지의 문체가 마음에 듭니다。 그 편지들은 당신의 가슴으로부터 솔직히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로 나의 가슴에 솔직히 들어옵니다』라고 편지 하였다。

어린시대를 벗어날 때에 그의 문체는 어렸을 때의 단순성을 잊어버리고 굳어졌으며、그의 말을 인용하면 「관을 써서」 건방진체를 하였던 것이다。 이 때에 〃설리반〃양은 유년시대의 성공이、그 시대가 지나감에따라 같이 지나가지나 않을가 하여 여러번 근심하였던 것이다。 때로는 〃켈러〃양은 신축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었다。 그의 생각은 고정한 문구내에서 흘러서 고치거나 새로운 식으로 쓰는 힘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대학시대가 왔다。 작문의 새로운 이상을 가진 창작적 글、적어도 그러한 이상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글을 썼다。 〃켈러〃양은 그의 오래고、고정된 문구의 구성、즉 문체를 고쳐쓰기 시작하였다。 이책은 그의 성숙한 시대의 작품인데 이것은 그가 작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결론지었다。

대부분의 위대한 영어작가의 문체에 나타나는 것같이 〃켈러〃의 작품에는 어디에나 독특한 문체가 있다。 〃설리반〃양이 좋아하였고 또한 그 제자에게 읽어준 〃스티븐슨〃도 또한 현저한 영향을 미치었

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대부분 성경과 〃스티븐슨〃으로부터의 여러 인용문이 있으나、그의 글 전체로 보면 확실히 자기 자신의 의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용문、그 어휘 설명을 또한 옳게 썼다는 것이 이때에 와서 명백해졌다。 그의 어휘로부터 시각과 청각에 관한 어휘를 없애버릴 이유는 없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는 까닭에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 자신의 경험보다는 외계사실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그가 글자들을 정확히 사용하는 이상、시각과 청각이 없는 불구자들의 용어를 못쓰게 할 것이 아니라、오히려 그러한 글자들을 자유로 쓰는 특권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서전을 쓰는 사람에게 문제에서나 또는 그가 쓰는 주제에 있어서 일반이 거부하는 점을 이 예술가에 양보하여야 할 것이다。 「인식한다」라는 글자에 대하여 맹인들은 「본다」、「보인다」를 쓰는 것이며、귀먹은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글자를 쓰는 것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글자들은 「인식한다」라는 글자보다는 더 간단하며 또한 편리한 글자들이다。 「본다」、「보인다」가 더 쉬운 글자이며、또한 이러한 글자들은 시각을 통하여 인식한다는 것 뿐아니라、이지적 인식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글자 고대로만 쓰자 하는 사람만이 맹인들에게 이러한 글자들을 쓰지말고、「인식」이나 「인정」이라는 글자를 써야만 된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켈러〃양이 어떤 조상(彫像)을 손가락으로 만져 보았을 때에 그는 자연스럽게 『이것은 화신(花神) 〃플로라〃같이 보인다』라고 하였다。

그는 자기의 감각이 정확할 때에 사물들을 제일 잘 예술적으로 묘사하는데、이것은 물론 모든 예술가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의 최근의 훈련은 그로 하여금 인습적인 것을 많이 버리게 하였으며, 또한 그에게만 있고 또한 인생 벗나무에 폭풍우가 지나간 것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의의가 깊고 또한 제일 좋은 문구를 끌어내고 그 생명이 경험하는 것을 쓰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책에서 빌려다 쓰려던 문체를 버리고 독창적으로 쓰게끔 되었다。 백합화를 만져서 흔들거리는 것을 묘사하였을 때에 그는 그를 가장 잘 표현하였다。 그는 장미화를 자기의 손에다 대고 그에게는 빛을 의미하는 감정을 잘 묘사하였다。

〃켈러〃양의 자서전에 그가 일찌기 출판하려던 것들을 전부 포함시켰다。 그의 편지처럼 비 형식적도 아니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기록한 것처럼 조심한 것도 아닌 우연히 쓴 것 가운데서 몇가지를 인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 글들은 그가 작문 시간에 연습으로 쓴 것에서 뽑아 낸 것들인데, 그의 대학시대에 초기의 그의 작문은 동급생 중 경쟁자가 없을 만큼 우수하였다。 〃하바드〃와 〃래드클리프〃에서 다년간 영어와 영문학을 강의한 〃촬스·T·코프랜드〃씨는 나에게 『어떠한 작문에서는 그는 남녀를 물론하고 내가 가르쳐 본 학생 중에서는 제일 잘 썼읍니다。 그는 문장을 쓰는데 좋은 「귀」를 가지고 있읍니다』라고 감탄하였다。 그 발췌는 다음과 같다。

〃오마·카얌〃의 시 몇절을 읽어 주었다。 나는 지난 반시간을 장엄한 무덤 속에서 지낸 것 같은 느낌을 가지었다。 그렇다! 이 무덤에는 희망, 기쁨, 그리고 고상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매장되어 있었

다。 모든 아름다운 묘사、 모든 깊은 생각들은 모르는 사이에 인생은 춘몽이고、 모든 지상의 것은 서서이 썩어져 사라져 없어진다는 서글픈 노래로 자신도 모르게 흘러 들어간다。 이 시인의 사랑、 청년、미에 대한 똑똑하고 연연한 기억은 다만 이 무덤에다 빛을 던지는 장례식의 화섭불이며、 이 그림을 좀더장식하자면 이곳에서 피어서 눈물로 물을 얻고、 피흐르는 가슴으로 양식을 받은 꽃들이다。 이 무덤 옆에 한 피곤한 영혼이 앉아있는데 그는 과거의 기쁨에나 미래의 가능성에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다만잊어버리는 곳에서 위안을 구하는 것이다。 영감을 주는 바다가 소리를 질러도 헛 일이며、 하늘이 약한것을 격려하려 하나 허사일 것이다。 아직도 그는 고집세게 후회하며、 현재의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잊어버리는 것에서 피난처를 구한다。 때로는 그는 즐겁고 활기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떠한 아득한 반향、 옳은지도 모를 이상의 희미한 빛을 붙잡기도 하고、 실망에서 뛰어나와 그가 놓여있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방해많은 현실세계」에서라도 거대한 이상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순간에 이 영감 환상은 사라지고 이 숭고한 영혼은 또다시 고민하면서 불확실하고 실망적인 암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좋은 사람들이 마귀와 싸움하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는지는 놀랄만한 일이다。 그만한 시간을 그들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쓴다면 마귀는 가깝증이 나서 길에서 죽어 없어질 것이다。

가끔 위대한 사람들과 교재한다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어리벙벙하게 할는지

모르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아름다운 생각은 책이나 공중도의에 있을 것이요、 자사로운 응접실이나 식탁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아름다운 정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 생활에 관계되는 고상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으로는 그들의 일상 생활관계에 있어서 발걸을 멈추어서 그들이 공부하던 때에 얻은 진리의 아름다운 것들사이에 배회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끔 내가 역자나 시에 있는 무엇을 열심으로 말을 하여 보아도 아무、 반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화제를 변경하여야겠다고 느끼어 기후、 옷 만드는 것、 운동、 병、 근심、 걱정、 같은 이야기로 들어간다。 확실히 나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관계가 되는 것에는 무엇에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고는 이야기 하기 어렵다。 나는 내가 읽는 훌륭한 것에 대하여 가끔 가끔 이야기하려는 친구를 더 많이 알게 된다 하여도 슬프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성학자가 되어야할 필요는 없지마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의 교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또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 글의 점수를 주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것에 관하여서도 마땅히 이야기해야 되겠다。

오늘 "래드클리프" 대학 일학년 학생들과 점심을 먹었다。 이것은 대학생활의 첫번 진정한 경험이었으며、 또한 매우 유쾌한 경험이었다。 내가 "래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전교학생들을 만나 본 기회이었다。 또한 이 기회에 즐겁게도 그들은 나를 홀로 살며、 또 무미한 그들의 일상생활에 아무 흥미도 느끼지 않고사는 사람으로 보지않고(사실 나는 그리 생각하였었는데) 나를 그들의 한 사람으

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의견을 나의 같은 연령의 여자들이거나, 또는 더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암암리에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랬다。 언제인가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대한 그의 생각에는 언제든지 「온순(溫順)하고 성실(誠實)」하므로、 나를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답답한 성자의 하나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현명하고, 선량하고、 재미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었다。 나는 언제든지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들으면 우스웠고、 친구들에게 자기 자체에 움추러 들어가서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위로하며、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옷을 입히어 그 다음가는 인내、 덕、 선 등의 탑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몇가지의 결점이 있고 여러가지 부족함이 있을 망정 일상 유쾌하며、 또한 응답하려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웃을 때라도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린 동생들에게 나에 대한 연연한 생각、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 우리 앞에 있는 특히 정조 등에 대한 반쯤 열심하는、 반쯤 부꾸러워하는 태도 등에서 나오는 것에 동정심이 없다고 상상한다면 가슴이 아프다。

"짠ー뿌"는 『사람들이 쓰는 것을 정지할 시대가 올는지도 모른다』하였다。 이것은 종류가 많고 무한한 듯한 문학의 원천이 어느 때에 가서는 고갈할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유일한 언급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어떠한 사람、 특히 그와 같이 재주가 있는 비판가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래었다。 『十九세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작가라고 지칭할만한 사람을 낳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쓰

는 것을 그칠 때가 올는지도 모른다」는 말은 나의 의견으로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첫째로 문학의 원천은 두 큰 세상 즉 그 하나는 활동의 세상이고、또 하나는 사상의 세상인데、전자는 창작의 계속으로、후자는 변화의 계속으로 재료가 제공되는 것이다。 새로운 경험과 사건은 새로운 사상을 만들며、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던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또한 인간지식 속에서 확실한 해답을 구할 것이다。

두째로 현재의 문화 세계가 달성될 때까지에는 과거에 여러 세기가 지나간 것과 같이、이 세계가 더욱 완전한 것이 되자면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만 된다는 것은 사실이며 먼 장래에 반드시 올 막대한 변화、새로운 소득、개량 등으로 문학은 틀림 없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풍부히 될 것이다。 일세기 동안 천재가 침묵을 지켰다 하더라도 가만이 게으르게 있던 것은 아니다。 반대로 천재는 먼 과거에서 뿐만 아니라 진보와 향상의 시대에서 새로운 재료를 수집하여 오고 있다。 그러므로 오는 세계에서는 문학 전 분야에 걸치어 새로운 광채가 더질는지도 모른다。 오늘의 세계는 완전한 혁명을 겪고 있으므로、제도와 영토가 무너지고、이론과 신조가 충돌을 하며 발견과 발명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니、위대한 문예작품이 나온다 하면 그것은 오히려 경이할 사실일 것이다。 지금은 일군의 시대이요、자색가의 시대는 아니다。

이 시대의 노래는——

죽은 과거는 그 시체를 묻게 하여라

행동, 행동이 산 현재에서
안에는 가슴을, 위에는 하느님을

그 후 성공의 돌진과 흥분이 완화가 될때에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과거 수세기간에 행동하고 승리한 것을 영광스러운 시와 산문으로 우리를 축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재미 있다. 그것은 창작에 참례하는 것 같은 것이다. 외계가 춥고 온세계에 덮여 있을 무렵, 산속의 어린이들이 따뜻한 땅속의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 잎 없는 나무에 새 둥우리가 눈으로 덮여졌을 시절, 나의 창밖으로 번쩍이는 정원이 보이고, 밖은 겨울인데 방안은 웃음을 띠운 채 여름을 만들고 있다. 눈보라가 치는 중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다. 눈의 얼음손가락이 창 유리를 칠 때에 나는 「꽃봉오리」가 그의 파란 모자를 벗어 버리고 비단이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꽃이 피는 것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도대체 무슨 비밀의 힘이 이와 같이 꽃이피는 기적을 만드는 것일가? 무슨 신비한 힘이 씨를 암흑한 땅으로부터 광명에로 인도하며, 잎사귀와 줄기, 꽃 봉오리를 통하여 완전한 꽃으로, 영화스러운 실현으로 인도하는 것일가? 누가 암흑한 땅속에 그러한 미가 숨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심은 씨 속에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 숨겨있다고 꿈이나마 꾸어 보았을가? 아름다운 꽃이여! 너는 사물이 숨어 있는 가슴을 조금 들여다 보게 하여라. 지금 나는

모든 곳에 있는 암흑은 내가 바란 것보다도 더 많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된 것이다。

「호레이스」 (二권―一八장)

헬렌·켈러 번역

나는 행운이 웃음을 웃어주는 운명을 떠고난 사람들의 한 사람은 아니다。 나의 집은 상아와 금으로 찬란하게 장식이 되지도 아니 하였으며, 또한 먼 〃아프리카〃채석장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주석(柱石) 위에 놓여 있는 대리석의 아―취로 장식이 된 것도 아니다。 나를 위하여 자색 옷을 짜주는 사람도 없다。 나는 아지도 못하는 사이에 재산、명예、또는 권력있는 집에 태어 나지 않았으나、나는 세상의 모든 재화보다도 욕망 되는 것――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나의 노력과 재주로 얻은 영예로운 명성을 가지고 있다。 나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하고 힘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특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혜택에 너무도 감사하므로 이 이상 군주들이나 하느님에게 더 바라지를 아니한다。 〃사빈〃에 있는 나의 작은 농장은 즐거운 곳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서 시끄럽게 싸움하는 세상과 떨어져서 나의 행복된 날을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의옥식으로 살며, 예전 것보다 더 화려한 별장을 짓기 위하여 대리석을 구하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당신들의 〃홀〃위에 달려 있는 것을 꿈조차 못 꾸어 보았을 것이다。 무덤을 잊어버리고 당신들은 궁전의 주추돌을 놓는 것이다。 당신들의 쾌락을 무모하게 추구하자 당신들은 바

다에서 해안을 뺏아가며 거룩한 땅을 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당신들의 사악은 당신들의 평화스러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다。 조금도 뉘우침 없이 당신들은 아버지를 그의 땅에서 몰아내는데、 그는 그의 신주와 부들부들 떠는 벌거 벗은 어린이들을 가슴에다 안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죽음이란 빈한한 사람들 뿐 아니라 부유한 사람에게도 한번 꼭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여라! "아체론"은 금은의 뇌물을 먹은、 교활한 "프로미티어스"를 해 비추는 세상으로 돌려 올 수는 없었다。 "탄타루스"、 모든 사라진 사람의 누구보다도 위대한 그도 죽음의 왕국에 내려가서 영원히 다시는 아니 돌아오는 것이다。 또한 기억하여라! 죽음은 면할 수 없으며 정당한 것이다。 왜냐 하면 부자들의 사악에 대하여서는 보복을 가져오며 빈자에게는 수고와 슬픔에서 구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이다。

오! 꿈나라의 선녀들이 우리가 잘 때에 우리에게 주는 장난! 생각컨대、『그들은 하늘나라 궁전의 어리광대』이다。 그들은 가끔 나를 놀리기 위하여 매일 일어나는 문제를 형체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 모양으로 잠이라는 무대에서 버리적거리는 것이다。 다만 그들은 빈 램프 대신 잘 정돈된 공책을 손에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다른 때에는 그들은 내가 공부하여온 모든 과목을 시험하여 보며 매우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히포포타머스"를 곤난케 한 첫번 쥐의 이름은 무었이었나? "아스타가스" 치세하의 "켐브리지"의 대수는 누구이었나? "시루스" 대제의 할아버

지는 누구였나!』동이다。나는 깜작 놀래어 깨었을 때『대답을 하여라、그렇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이라는 말이 귀에 쟁쟁하였다。

그러한 것들은 대학에서 더구나 나와 같이 사상의 분위기、개념과 어충된 생각、또는、느낌、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뒤섞여 법석하여 거의 미치다싶이 되는 대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떠돌게 하는 의곡된 환상이다。나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합치안되는 꿈을 꾼 일은 거의 없었다。그러나 어느 날 밤 꿈에는 나는 세계의 눈앞에 위대한 사람이며、무서운 것으로 성질이 일변한 것 같이 보이는 꿈을 꾸었다。나는 천성이 평화를 사랑하며 전쟁과 전쟁에 관한 것을 미워한다。나는 무자비한 〃나포레온〃의 활동에서는 그것이 끝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다」그러나 그 꿈에서 그 무자비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혼이 나에게 들어왔다。나는 전쟁의 분격이 나의 혈맥을 어찌 요동시키였나를 잊지 못할 것이다。나의 심장은 무서운 고동으로 말미암아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나는 사나운 말을 탔다。첫번 대포 소리가 들리자 그 말은 머리를 흔들며 전신을 부들부들 떠는 것을 느낀 수가 있었다。

내가 섰던 동산 곡대기로부터 나의 군대들이 해비추는 평원을 지나서 노한 물결같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며、그들이 이동함에 따라 시원하게 파도치는 푸른 전답을 보았다。자구 치는 북과 전진하는 발자취의 율동보다도 더 큰 나팔 소리가 서로 서로 대답을 하였다。나는 헉헉 숨을 쉬는 말에다 박차를 가하면서 또한 높이 칼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를 질렀다。『나는 간다。』보아라! 용사들이여 〃유

ㅣ롭" 이여!」 그리고 나는 힘센 수영가가 물결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몰려오는 파도에 뛰어 들어갔다。아! 그것은 사실 꿈이었으나 만진 것은 침대의 기둥이었다。

요즘은 자기만 하면 거의 꿈을 꾼다。"설리반" 선생이 오시기 전에는 꿈은 적었고 또한 동안이 떴었다。그리고 순전히 물질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상도 없었으며、전후관계도 없었다。꿈을 꾸면 언제든지 무엇이 급자기 또한 몹시 떨어지는 것이었으며、또는 가、내가 나를 도와주는 부인을 발로 차고 교집어서 불친절하게 대한 것을 그 부인은 고리대금업자의 이자처럼 나에게 심한 벌을 주는 꿈을 꾸었다。나는 가끔 깜짝 놀래어 눈을 뜨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피하려고 야단을 하였다。나는 "빠나나"를 좋아하였다。어느날 밤 꿈에 주방 찬장 근처에서 "빠나나"를 길게 꿰어 맨 것을 발견하였다。그 "빠나나"는 전부 벗겨지고 맛있게 익었다。내가 할 것은 그 줄아래 서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는것 뿐이었다。

"설리반" 선생이 내게 오신 뒤부터는 배우면 배울수록 꿈이 잦아졌다。그리고 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자 나의 잠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무서운 상상과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왔다。나는 캄캄한 것을 무서워하고 불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불의 따스한 것은 사랑의 포옹을 하여주는 것 같았으며、나는 사실 불은 의식이 있는 존재로 사랑하고 보호하여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어떠한 추운 겨울 밤에 나는 방에 홀로 있었다。"설리반" 선생은 내가 자는 줄 알고 등불을 끄고 나가버렸다。나는 갑자기 침대가 흔들리고 이리가 내게 습격하여 와서 나의 얼굴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것은 꿈에 불과하였으나 그것은 생시 같았고 가슴이 뭉클하였다。 나는 감히 소리도 못지르고 또한 침대에 있을 수도 없었다。 아마 이것은 얼마 전에 「붉은 기사의 두건」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혼동되어 회상된 것인 것 같았다。 하여튼 나는 침대에서 뛰어 나와서 불 가까이 가서 앉았다。 나는 곧 마음이 누그러지고 번쩍번쩍 비치면서 타올라 가는 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설리반〃선생이 들어왔을 때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노변(爐邊)에 있었던 것이다。

꿈을 꾸면 캄캄한 그림자와 같은 생각은 나의 마음을 조용히 지나서 멀리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러한 것은 일찌기 조상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던 마음의 유령인지도 모른다。 또한 어떠한 때는 내가 배우고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마치 도마뱀이 그 껍질을 벗어 버리듯 없어지고、 나는 하느님이 보시는 모양으로 나의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이다。 꿈 나라에서 듣고 볼 때는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다。 내가 깨고 있는 순간 모든 소리가 나의 조용한 마음의 방을 통과하여 들려온다면? 캄캄한 나의 영혼의 방에 빛이 번쩍 비쳐 들어온다면? 몇번이나 몇번이나 그리고 어찌될가 하고 자문하는 것이다。 나의 생명의 활과 활줄의 긴장은 끊어질 건인가? 나의 가슴은 갑자기 닥쳐 오는 기쁨과 행복감에 사로잡혀 지나친 고동은 정지할 것인가?

西歷	年令	事蹟
一八八〇		六月二十七日、美國 "알라바마"州 "터스컴비아"에서 出生、生後 十九個月에 重病으로 失明 聾啞가 되다。 十月七日 "설리반" 先生 十四歲에 "보스톤"市 "퍼킨스" 盲啞學院에 入學。
一八八六	六	"볼티모어"로 가서 눈을 治療하다。 "벨" 博士의 紹介로 그의 부모는 "퍼킨스" 學院에 連絡하여、家庭敎師를 依賴하다。 "설리반" 先生 二十歲 때 "퍼킨스" 學院 卒業。
一八八七	七	三月三日、"설리반" 先生은 "헬렌"의 家庭敎師로서 "터스컴비아"에 오다。
一八八八	八	"아나그노스" 校長의 招請으로 "설리반" 先生과 함께 "터스컴비아" 學院에 가다。 그해 여름 "홉킨스" 夫人의 別莊에서 지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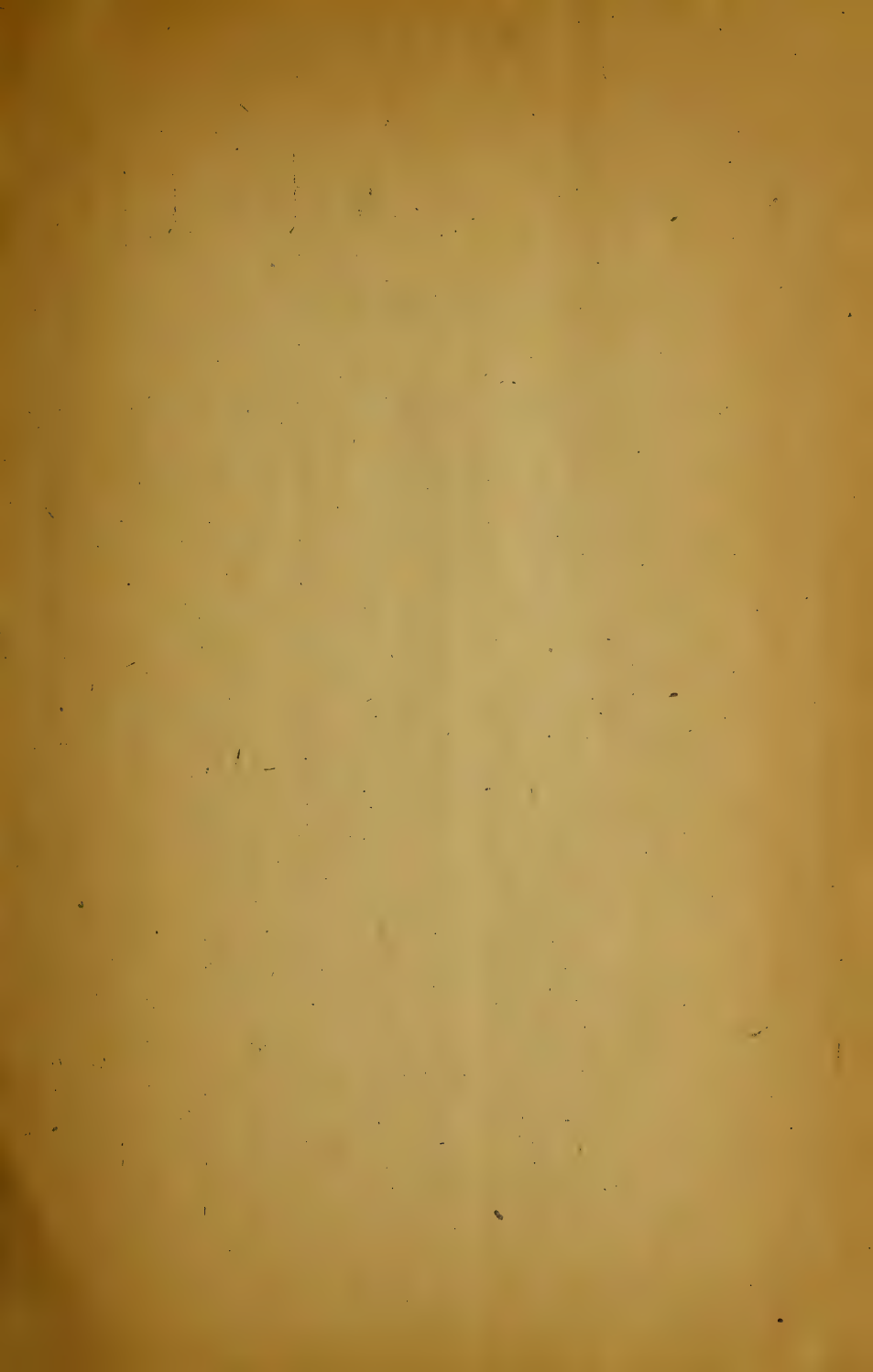
一八九〇	一〇	三月부터 "보스톤" "풀러" 女史로부터 發聲法을 배우다。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라고 비로소 發聲하다。
一八九二	一二	「서리왕」 사건이 일어나다。
一八九三	一三	"벨" 博士와 함께 "시카고" 博覽會 見學。
一八九四	一四	"뉴욕" 市 "라이트·휴마슨" 聾啞學校 入學。
一八九六	一六	十月、"캠브리지" 大學 女學校에 入學。
一八九七	一七	그의 아버지 "아ー더" 訃告를 받음。 "하바드" 大學 女子部 "래드클리프" 大學 豫備試驗에 合格。 "캠브리지" 大學 女學校를 中退하고、大學 入學試驗準備를 하다。
一八九九	一九	"하바드" 大學 入學試驗에 合格。
一九〇〇	二〇	十月、"하바드" 大學의 女子部 "래드클리프" 大學(本科) 入學。
一九〇三	二三	「婦人家庭 雜誌」에 「나의 생활」(原名 「나의 생애 이야기」)을 連載。
一九〇四	二四	"하바드" 大을 卒業하고 A·B學位를 받음。 "설리반" 先生과 그는 "렌담"에 定住。

年代	年齡	事項
		十月、〃시카고〃 萬國博覽會에서 「〃헬렌·켈러〃의 날」에 그는 처음으로 演說。
一九〇五	二五	〃설리반〃 先生 〃메이시〃 敎授와 結婚。
一九〇六	二六	〃마사츄셋스〃 盲人協會 委員으로 推薦됨。
一九〇七	二七	「敎育百科字典」에 盲人에 關한 論文을 寄稿。
一九一〇	三〇	〃화이트〃 敎授에게 發聲法을 배움。
一九一三	三三	二月、〃몬트크레아〃에서 公開 演說을 함。 四月、〃카—네기—〃 年金을 받음。 〃메이시〃 先生 別世。
一九一四	三四	第一次世界大戰 勃發。 大陸橫斷의 講演 旅行을 그의 어머니와 같이 떠나다。
一九一六	三六	反戰運動을 主唱。 〃설리반〃 先生 病을 治療하려고 〃포—트·리고〃로 가다。
一九一七	三七	美國 世界大戰에 參戰。 〃렌담〃의 山莊을 팔고 〃뉴욕〃 郊外 〃포레스트·힐〃로 移住。
一九一八	三八	映畫 「救濟」를 撮影。

一九二〇	四〇	全美國을 巡回講演함。
一九二一	四一	
一九二二	四二	〃로스안젤스〃에서 어머니의 訃告를 받음。
一九二四	四四	美國 盲人事業協會의 資金募集에 努力。
一九二八	四八	著書 「나의 宗敎」、「中流」를 完成。
一九三〇	五〇	〃설리반〃 先生의 病 治療를 도웁기 위하여 英國 〃곤월〃로 가서 閑居。
一九三一	五一	二月十一日、〃필라델피아〃 〃템플〃 大學에서 名譽博士 學位 授與。 〃유럽〃 大陸을 巡回。
一九三二	五二	〃그라스고〃 大學에서 名譽博士 學位 授與。
一九三六	五六	十月二十日、〃설리반〃 先生 〃스콧트랜드〃에서 別世。
一九三七	五七	四月、極東方面 旅行。 日本에 四箇月間 滯在。
一九三九	五九	第二次世界大戰 勃發。
一九四二	六二	傷痍軍人의 救護와 愛盲運動을 하다。

一九四八	六八	日本, 歐洲 旅行。
一九五一	七一	南阿 〃위트워터·스트랜드〃 大學에서 名譽博士 學位 授與。 〃카나다〃、 英國、 〃스콧트랜드〃、 〃유고스라비아〃、 日本、 韓國、 南阿全域 等 巡回 講演。

著書

1902 The story of my life.
1903 Optimism.
1910 The world I ive in.
1927 My religion.
1929 Midstream.
1938 Helen Keller's Journal.
1940 Let us have faith.

나의 생활

── 헬렌·켈러 自叙傳 ──

4289年 2月 10日 印刷
4289年 2月 15日 發行

定價 750圜

著者 헬렌·켈러
譯者 許 鉉
發行者 邊 宇 景

發行所 首都文化社
서울特別市鍾路區壽松洞108
電話本局2481·振替서울3028
出版登錄·4283, 11, 20 No.9

[印刷·漢城堂]

우리의 맹세

一、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二、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처부수자

三、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